대회 보고 I

1970년—1972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회 보고 I

1970년 4월—1972년 10월

목 차

1970년 4월 대회 말씀

1970년 10월 대회 말씀

1971년 4월 대회 말씀

1971년 10월 대회 말씀

1972년 4월 대회 말씀

1972년 10월 대회 말씀

1970년 4월 대회 말씀

—제 140 연차 대회 보고—

1970년 4월 6일 월요일 오후 모임 말씀

세상에게 주는 메시지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대회 마지막 날 마지막 모임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아마도 가장 합당한 자로 남게 될 사람이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을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서 사랑하고 지지하며, 그분 곁에서 그분을 보필하고 계신 두 분의 보좌를 또한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그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이제 "세상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상에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업은 참된 그리스도 교회의 주요 활동이 되어 왔읍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와 다른 진리의 사절단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딤후 4 : 2) 말씀을 전파하였읍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셨읍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 마지막 두 절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였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 : 19—20)

마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마가복음 16 : 15—16)

선교 사업은 모든 경륜의 시대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었읍니다. 복음의 구원 원리를 전파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여겨져 왔읍니다.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스미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던 영광스러운 일이 있은 후, 회복된 교회에는 복음을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첫째되는 큰 책임이 주어졌읍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고도 심오한 의미를 지닌 드라마였읍니다. 희생, 기쁨, 고난, 용기, 무엇보다도 이웃에 대한 사랑의 드라마였읍니다. 이 지상 어느 곳에서도 이것과 겨룰 만한 인간 드라마를 찾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써 이같은 사랑의 봉사를 행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같은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상에 거하는 모든 인간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들이 각자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로운 구원과 승영의 복음 원리를 받아들여 생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나라와 혈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리라"(교리와 성약 133 : 37)

"그러므로 주의 음성은 땅 끝까지 미치리니, 듣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들을 수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1 : 11)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 (교리와 성약 1 : 4)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미약한 자와 단순한 자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전파되며 왕과 통치자 앞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니라"(교리와 성약 1 : 23)

이상은 곧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계명입니다. 복음의 축복을 알고 있는 우리 회원은 주님의 이같은 명에 답해야 합니다.

수천 수만의 선교사들이 자비를 들여가며 지상의 여러 나라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교회 대관장단이 세계 대전 중에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중단할 수 없다"고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그의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수행될 것입니다. 지상이나 지옥의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혼을 풍요하게 해 주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그 목적을 좌절시킬 수는 없읍니다. 여러 형태의 전쟁, 분란, 재난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의 자녀는 때가 오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철의 장막이 녹아 내리고 죽의 장막이 쪼개질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과 세계 각처에 있는 정직한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

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찌어다"(시 46 : 10)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말일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런고로 기운을 내어 기뻐하라. 네 허리 띠를 동여 매며 나의 온전한 갑옷을 입어 악한 날에 견딜 수 있게 하고 모든 일을 수행하여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라."(교리와 성약 27 : 15)

전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여러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성실한 선교사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북돋아 주는 헌신적인 가족 여러분,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간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사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사업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안전감과 내적인 평화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선합니다. 주님의 예언은 성취되고 있읍니다. 수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읍니다. 강력한 전통, 종교적인 신조, 그리고 대대로 면면히 이어 나가는 국가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크나큰 변화가 세계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읍니다. 바로 눈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며, 그의 자녀는 복음이 그들 생애에 가져다 주는 축복에 기뻐하고 있읍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읍니다.

"나의 계명에 부치는 서문이니, 내가 저희에게 명하여 너희에게 출판케 한 책이니라"(교성 1 : 6)로 주님께서 설명하신 계시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셨읍니다. "들으라, 오 너희 내 교회의 백성들아, 높은 데 거하여 모든 사람을 굽어 보시는 이의 음성이 말하노라.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지어다." (1절)

의미깊은 이 말씀은 아시아 제국에게 놀라우리만큼 적중되는 말씀입니다.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지어다."

지난 2년간 교회 지도자로서 아시아 지역을 다섯 차례 방문하면서 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하였읍니다. 태국, 말레이지아, 베트남, 싱가폴, 인도네시아, 인도 등지를 방문하면서 나는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라는 말을 생각하였읍니다. 여행사 직원은 우리에게 솔트레이크시티까지 가려면 동쪽으로 가는 거리나 서쪽으로 가는 거리가 거의 같으므로 아무 쪽으로 가도 된다고 말해 주었읍니다. 태국의 왕에게 태국어로 출판된 교회 최초의 책자인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선사하면서(이것은 바로 전날 출판이 완료된 것이었읍니다)나는 이 말씀을 생각했읍니다.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지어다."이 말씀과 몰몬경에 나오는 비슷한 말씀(니이 29 : 7, 11)이 지난 2년 동안 참으로 수없이 나의 머리에 떠올랐읍니다. 800명의 청소년이 모인 일본의 청소년 대회에서, 계획된 다음 모임을 진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85명의 간증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뒤로 미룬 4시간 동안의 간증 모임에서 125명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말씀은 여러 번 나의 머리에 떠올랐읍니다.

지난해 4월, 싱가폴의 땅을 헌납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바다의 섬"이라는 말을 상기했읍니다. 이미 그곳에는 두 곳에서 집회를 갖고 있으며, 새로운 교회 건물이 건축되고 있읍니다.

또한 대만을 방문하고, 7천 개의 섬 위에 4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필리핀 군도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한 마닐라 지방 대회에 참석하였을 때, 우리는 또 다시 주님의 "바다의 섬"이라는 말씀을 생각하였읍니다. 1만 4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를 헌납하려는 우리를 그곳의 지도자들이 따뜻이 맞아 주었을 때, 또 한번 "바다의 섬"이라는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읍니다.

대만에서 그곳의 지도자들과 가졌던 모임과 홍콩, 한국 등에서 보이고 있는 회원의 증가는 이들 다정하고 겸손하며 용기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들"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읍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 주력을 쏟은 적은 이제껏 없었읍니다. 주님의 시간표에서 이제 막이 열렸읍니다. 이제 아시아는 활동의 시대에 돌입했읍니다.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큰 용기와 영감을 얻게 됩니다. 선교 사업은 크게 확장되어 가고 있읍니다. 각 나라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읍니다. 세계 인구의 3분지 1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시아입니다. 물론, 인구 전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3주 동안의 영적이고도 바쁜 아시아 선교부 방문 일정을 마치고 방금 돌아왔읍니다. 다섯 개의 선교부가 4개월 전에 여섯 개로 증가되었으며, 이제는 여덟 개 선교부로 증가되었고, 올해 안으로 적어도 하나의 선교부가 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시아에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 하겠읍니다.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나는 세 분의 총관리 역원과 대관장단이 임명한 다른 세 명의 교회 공식 대표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의 세계 박람회이자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다고 소개된 엑스포 '70의 개관식에 참석하였읍니다.

개관식이 있기 전날인 3월 13일에 우리 일곱 명과, 나의 가족, 박람회 요원, 대도시의 시장, 언론인, 기타 장소가 허용하는 교회 회원과 친지들 약 600명이 몰몬관 헌납식에 참석하였읍니다. 몰몬관이 위치한 장소, 모로나이 천사를 첨탑 꼭대기에 놓은 건축, "행복의 추구"라는 도전적인 주제, 이러한 것이 박람회의 인기를 끈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읍니다. 첫날 2만여 명이 몰몬관을 방문하였으며, 첫번째 토요일에는 43,000명이 방문하였읍니다. 몰몬관을 방문하고자 하는 500만 내지 800만에 달하는 많은 인파를 어떻게 감당해 내느냐가 우리의 주요 관심사였읍니다. 일본어로 번역된 필름, '행복의 추구'를 문화관과 그밖의 여러 곳곳에서 상영하여 몰몬관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읍니다. 선교사들이 수많은 구도자들의 주소를 얻게 될 것은 분명하였읍니다.

훌륭한 헌납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박람회 위원들과 가졌던 만찬회, 그들의 협조, 기공식이 있기 전날에 가졌던 기자 회견, 29명의 언론계 대표들이 약 한 시간 반 동안 여러 가지 교회와 성도들과 특히 몰몬관 주제에 관하여 질문하던 일 등을 회상하였읍니다. 기자 회견이 끝난 후, 새로운 오까이나찌 예배당 헌납식에 언론계 대표 여러 명이 참석했으며, 다음날 건물 기공식에도 참석하였읍니다. 6명의

엑스포 '70 당국자와 정부 요인들이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들은 인간의 영원한 행복의 추구에 대하여 연설하면서 "엑스포 '70에서 몰몬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온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읍니다. 선교사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들에게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줄 것입니다." 50만권의 몰몬경, 수백만 권의 소책자, 많은 수의 헌신적인 안내원과 수많은 선교사 등으로 말미암아 실로 "바다의 섬 위에" 있는 "먼 곳에 있는 백성"이 "함께 들을"수 있게 될 것이며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일본에는 두 개의 선교부와 여러 개의 지방부가 잘 조직되어 있읍니다. 며칠전에 두 개의 선교부가 또 조직되었읍니다. 현재 일본에는 네 개의 선교부가 조직되어 있으며, 오끼나와에 대한 집중적인 사업은 급속한 반응을 보이고 있읍니다. 동경과 요꼬하마 근교에는 일천 사백만의 인구가 밀집해 있읍니다. 여기에 우리는 훌륭한 지도력을 갖춘 견고한 교회 조직을 갖고 있읍니다. 3월 15일, 동경에 새로운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읍니다. 그 스테이크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 대회에 참석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공중에 둥실 떠 있는 것처럼 기쁘다고 말했읍니다. 필리핀의 마닐라에 아시아의 두번째 스테이크를 조직하기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1969년 한햇 동안 마닐라에서 우리는 약 일천 사백 명의 개종자를 침례 주었읍니다. 그밖에도 교회의 완전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스테이크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조직될 것입니다. 타이뻬이에 선교본부 건축이 허가되었읍니다. 곧 자유 중국에도 독립 선교부가 탄생될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12,0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한국에는 4,000여명, 필리핀에 6,000여명, 홍콩에 4,000여명, 그리고 대만에 그보다 좀더 많은 회원이 있읍니다.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에도 교회가 들어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읍니다. 오끼나와에는 강력한 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월남인이 교회에 입교하였읍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그곳에 교회의 기초를 놓았읍니다. 월남에 평화가 깃들 때,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흩어져 있는 미군은 현재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고 친구를 사귀고 개종자로 만들면서 훌륭한 복음 전파의 기초를 놓고 있읍니다. 그러한 미군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최근 여행에서 나는 태국의 여섯 개 부대를 방문했읍니다. 베트남에는 세 개의 미군 지방부가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읍니다. 다음 주말인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후지산에서 열릴 아시아 지역 군인 대회에 참석하기로 등록된 군인의 수는 1,000명이 넘고 있읍니다.

아시아 선교부의 수준은 점차로 높아가고 있으며, 상당히 뛰어난 인물들이 개종하고 있읍니다. 한국에서는 50여명이 모이는 작은 지부에 대학 교수가 다섯 명이나 됩니다. 1억 3천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1969년 10월 26일에 헌납되었읍니다. 자카르타에서 소수의 선교사에 의하여 이미 선교 사업이 시작되었읍니다. 이제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선교부가 싱가폴에 본부를 두고 발족하였읍니다.

아시아 지역에 튼튼한 기초가 마련되어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읍니다. 1969년도의 침례자 수는 예년보다 백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선교사 이외에 현재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건물입니다. 필리핀 선교부 전역에 걸쳐 교회 건물은 단 하나 뿐입니다. 그러나 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여러 곳에 예배당을 지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대관장단은 동경에 6층 건물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 건물에는 스테이크 본부와 와드, 번역 출판부, 선교본부, 건축 사무실, 그밖의 다른 기관이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머지 않아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스테이크와 예배당, 많은 개종자, 능력있는 지역 지도자를 갖게 될 것이며, 아마도 아시아 민족 가운데 신전이 건립되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소망이요 기도입니다.

전망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개종자, 선교사, 그리고 선교부장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름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우정과 협조의 손을 내밀 때, 이 겸손한 백성 가운데서 낙천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 있읍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수많은 백성, 곧 "먼 곳에 있는 백성"과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겸손한 종, 곧 지역 회원과 선교사로부터 구원의 복음을 "함께 들을"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세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세계의 조직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

"저들이 나아갈 것이매 막을 자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 이는 나 주가 저들에게 명하였음이니라."(교성 1:4—5)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행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 사업에 주님께서 내려 주시는 축복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간증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진리의 탄생

휴 비 브라운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향에 다시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를 여행하노라면 다른 많은 나라의 국민과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며 여행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나의 조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나는 온 민족과 국민이 진리에 굶주려 있으며, 새로운 진리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읍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이 진리의 빛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 온 세계는 진리를 갈구하고 있읍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나 과학 분야의 지도자가 모두 다시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를 부활시키고 있읍니다.

훌륭한 삶이란 신앙과 지식에 기초를 두고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순수한 영성을 교화시키기 위하여 지혜롭게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신앙은 모든 종교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신앙은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용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신앙만이 가치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합리한 생각으로 이끌려는 모든 유혹을 거절하여야 하고 사실을 왜곡시키려는 모든 유혹을 극복하여야 하며, 지나친 광신을 막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진리를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 곧 하나님의 영광이 예지임을 알려 주고, 인간이 지식을 얻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선포하여 주는 종교의 굳건한 기초가 여기에 있읍니다.

과학의 진리가 이성으로 혹은 실질적인 실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듯이, 세상이 예언자로부터 구하고 있는 도덕적, 영적인 진리 역시 인간의 경험으로써 증명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도덕적인 양심에 솔직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존엄성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참된 존엄성이란 등수에 의하여 취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명예가 없어진다고 잃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신앙으로써 아직 미개척 분야에 용감히 뛰어들어 영적이며 도덕적인 수고를 들여야 하는 지역에서는 진리가 불신앙의 시험을 이겨야 하고, 핍박과 반대와 증오의 불길을 견뎌야 합니다. 땅에 짓밟힌 진리는 언제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도 올리버 웬들 홈즈로 하여금 "새로 태어난 진리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서사시에 다음과 같은 시정을 그리게 한 것이 바로 진리의 영원성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해산의 고통으로 찢기운다.
매시 매시 진리는 태어나고, 갓난 짐승마냥 진리는 생존하려고 안간 힘을 쓴다.
갓 태어난 진리는, 갓 태어난 짐승처럼, 보기 흉하고 못생기고 더럽다.
이 못난 아기는 어떠한 모습으로 장성하게 될지 모르는 가족이기에 못난 아기의 성장터인 가족은 매양 난처하기만 하다.
그러나 못난 아기는 점점 천천히 장성하여 원래의 제 모습을 따르게 된다.
갓났을 때는 기형아처럼 보이던 이것은, 장성하면서 천사의 모습을 닮아 간다.
이제 가족은, 갓났을 때 그리도 못생겼던 진리를 이제는 받아들이고자 하고 있다.

올리버 웬들 홈즈의 서사시 "새로 태어난 진리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발췌함

이제 시인이 말하였던 것과 같이 "불운으로 태어나고 시기를 잘못 태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새로 태어난 진리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이는 진리는 점차로 제 모습을 찾게 되며, 그것이 지니고 있는 진리는 천사의 모습으로 변모해 가게 됩니다.

과거의 우울했던 역사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선포하려는 위대한 사건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절정의 시대가 지나자, 곧 이어 영적인 황혼기가 따르고, 마침내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했읍니다. 그 후에 새벽이 밝아오는 징조가 나타났읍니다. 아침이 밝았고 어두움은 물러갔읍니다.

주님께서 말일에 온 인류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리라는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신 것은 참으로 놀라웁고 영광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는 실로 놀라운 세대에 살고 있읍니다. 지난 150년 동안 이루어진 눈부신 발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 통신 분야에서만도 우리는 눈부시게 도약하여, 돌아가신 선조들이 와서 보면 우리를 신(하나님)이라고 말할 만큼 크나큰 발전을 이루어 놓았읍니다. 그들은 그 당시 인간을 두렵게 하였고 경배하게까지 만들었던 자연의 위대한 힘을 이용하여 전기나 기타 다른 동력으로 이끌어 놓은 놀라운 과학의 업적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업적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우리의 문화가 만들어 놓은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아와 가난, 재앙과 저주가 이와 같은 이기를 만들어 놓은 문화를 위협하면서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는 낡은 구조를 무너뜨리고 앞으로 올 새로운 것을 받을 장소를 마련하는 작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일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이같은 생각으로 자위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눅 17 : 1)

그러나 물질적인 것만이 날뛰고 영적인 것이 잊혀져가는 이 세상에서 오직 인간의 사고와 행동면에서만의 발전을 우리는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교화되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을 갖고 일하는 사람에게만 국한시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영역에도 새로운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미문이라 불리우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 앉은뱅이에게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행3 : 6)

경전은 그가 병고침을 받아 뛰면서 기뻐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와하고 기이히 여겨 모여 들자 베드로는 이 일이 그들의 권능과 경건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였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사도행전 3 : 19—21)

사도 바울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자신 속에 있는 것까지도 모두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하였읍니다.

주님께서 열 한 명의 제자와 함께 베다니 근처에 있을 때 한 구름이 주님을 가리더니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때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옆에 서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 : 11)

또한 밧모섬에 귀양되어 있으면서 시현을 받아 기록한 요한의 놀라운 예언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며 나중이라〕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 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찌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 계시록 1 : 10—19)

이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읍니다.

150년 전인 1820년 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직접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셨읍니다. 그 때에 전해야 할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몸소 하늘로부터 오시고 그의 독생자를 함께 데리고 오셨으며, 두 분이 이 어린 소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읍니다.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도 나타났고 다른 계시들이 밝혀졌읍니다. 모로나이 천사, 모세, 일라이어스가 왔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침례 요한, 엘리야, 그밖의 여러 사람이 방문하였읍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말하였고 임무를 주었으며,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선언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감과 분노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읍니다. 인간은 사탄이 진리와 대항하여 싸우는 전쟁터에서 사용하던 것과 아주 꼭같은 무기를 이 진리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로 택하였읍니다.

이것이 곧 때에 맞지 않게 태어났고 잘못 생긴 듯이 보이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나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빛을 보고 눈이 멀었으며 한 음성을 들었다고 말한 다소 사람 사울의 말을 믿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는 “주여 뉘시오니이까”라고 물었읍니다. 이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이 들렸읍니다.”(행 9 : 5 참조)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믿는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의 산에 나타났다는 것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곳에 있었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기록을 받아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 당시로부터 수백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겠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바를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은 한번 일어난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날 수는 없읍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모든 시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았읍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화와 과학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오셨으며, 그들을 따라 여러 사람들이 왔으나, 이 모든 것은 아직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소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절의 이 저녁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나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의 만군과 함께 하늘에서 나타나 지상에서 천 년 동안 인간과 더불어 의롭게 거하리니 악인이 견디지 못하리라.” (교성 29 : 11)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읽을 수 있읍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마 16 : 2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살전 4 : 16)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전해 드립니다. 이 진리를 인간에게 준 권능과 영으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노니,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읍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갈릴리 마을의 언덕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천사가 들려 주었던 소식을 제외하면, 이 세상에서 온 역사를 통하여 주어졌던 모든 약속 중에서 가장 소망을 안겨다 주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북소리가 더 이상 울리지 않고 군기가 인간의 의회와 세상의 연방국에 말아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 오셔서, 왕 중의 왕으로서 천 년 동안 평화로 다스리게 될 때까지 진리를 탐구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할 준비를 개인적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일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저명한 논설가의 기사 두 가지를 인용해 드리겠읍니다. "인생에서 종교적인 면을 배제해 버리고 온전히 인간적인 면만을 보게 된다면, 비관적인 면이 우세하게 나타날 것이다……사물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는 오직 인간이 영생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신앙을 지닐 때에 비로소 얻을 수 있다."[1]

"인간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새로운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 그는 계속하였읍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유로……충분하다……모든 종교의 신앙과 불사불멸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그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 인간은 그로부터 왔으며, 그에게로 가는 것이다. 그는 살아 계시며 인간도 살아 있다……〔그렇다면〕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예언자와 교사를 보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위대하신 교사,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를 보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그분은 돌아가시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으며, 그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한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인 것이다."[2]

이상의 기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실제성, 계시의 실제성, 예언자, 그리고 영생의 목적과 기회에 대하여 증거해 주고 있읍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조) 규명할 수 없는 본질의 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형태와 같은 형상을 지니시고 살아 계신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제9조)

과거 예언자들이 준 훈계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름에 대한 증거는 참으로 많이 있읍니다. 또한 오늘날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증거도 많이 있읍니다.

최근에 우리는 참으로 사랑하는 예언자이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을 떠내 보냈읍니다. 그분의 유가족과 69년 동안 그분의 옆에서 내조하시던 맥케이 자매님께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후계자이신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분은 이번 대회에서 여러분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강하게 붙드시고, 화평을 주시며, 선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과 그분의 가족에게 한없이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영감과 계시를 통하여 인간 자녀와 교통하십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계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신 말씀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읍니다. 인간이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 무한히 많읍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책을 보면서 그 책이 앞으로는 개정되지 않고 버려질 것이라고 미리 아는 사람이 있겠읍니까? 어떤 학설을 가리켜 그것이 곧 사라지게 되리라고 미리 아는 사람이 있겠읍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과정을 보면서 그것이 언젠가는 중단되리라고 미리 아는 사람이 있겠읍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마지막 계시가 언제 주어질지를 아는 사람이 있겠읍니까?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현재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결코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과거보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인도가 덜 요구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읍니까? 예언자, 예언, 경전, 권고, 계명 등은 우리가 물려받은 값진 유산의 일부입니다.

인생과 인생의 목적과 그것이 가져오는 문제점, 그리고 가능성 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읍니까? 우리는 모두 해답을 얻지 못한 문제점, 낙담, 과오, 잘한 일, 잘못한 일, 슬픔, 추구 등을 경험하였읍니다.

이 세상은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에서 올바른 것을 찾으려 하고 있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반항하고, 허물어뜨리려 하며, 파괴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의 그러한 행위는 그들 자신과 그들의 생각과 화평과 행복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를 파괴시키고 맙니다. 이 점에 관하여 최근 일요일 방송에서 우리는 몇 가지 깊이 고려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였읍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중에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발단되는 곳은 가정입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누구든지 사업이나 쾌락을 가정보다 더 중시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영혼은 사향길을 내닫게 됩니다." 그분은 생전의 마지막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가정 생활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부도덕성입니다."[3]

며칠 전, 나는 어느 부모가 자기의 자녀에게 좀더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학교 당국을 비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시작해야 하는 곳은 분명코 가정입니다. 부모되시는 여러분, 자녀를 모범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홀로 되신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행하셨읍니다. "너희 의무를 다하라. 항상 기도하라. 십일조를 바치고, 빚을 청산하라. 정직하라. 일하라. 순결하라. 다투지 말라.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신앙을 지키라."

---

1. 사설, 인디펜던트지, 1898, 1596페이지
2. 같은 책, 1900년 4월 12일자
3. 1969년 10월 대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같은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겉모양에 유혹되어 화평과 행복과 영원한 기회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읍니다. 그토록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잃을 수 있는 인생은 단 하나 뿐입니다. 우리를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읍니다. 그러나 경험할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수세기를 거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여 증명된 시도와 과오와 고뇌로써 이미 충분합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다시 처음부터 밟아보려 한다면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생명이 다해질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로 인하여 증명되고 발견되고 밝혀진 사실은 우리가 받은 귀중한 유산의 일부입니다. 이 유산을 받아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하여 배우고 회개하고 향상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정신과 화평과 자존심을 보호하고 권고를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며, 율법대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는 권고나 충언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판단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곤란과 비극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십시오. 감독님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권고를 들으십시오. 스미스 대관장님은 그분의 두 보좌와 함께 상의합니다. 십이사도 평의회는 서로 상의하고 다른 총관리 역원과도 상의합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전혀 도움을 구할 수 없다는 생각은 인간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읍니다."[4]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다른 사람과 상의해서 도움을 얻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현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이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천국에서 회의가 있었읍니다.) 주님과 상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응답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해롤드 비 리 부대관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긴 합니다. 그러나 응답에 귀를 기울이고 있읍니까?" 기도의 대화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유혹은 어느 곳에서나 넘실거리고 있읍니다. 어느 곳에나 악을 행할 수 있는 기회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됩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유혹으로부터 도망해 나올 때, 그 사람은 발송 주소를 남겨 놓게 됩니다"[5]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그러한 생각조차도 마음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유혹이 뒤따르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듯이 행동해서도 안됩니다. 벼랑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벼랑으로 떨어질수 없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론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조 사업은 다만 이론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 이론으로써 되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이 이론으로써 움트지는 않읍니다. 아직까지 신체적, 도덕적, 영적인 율법은 유효합니다. 계명도 아직 유효합니다. 아무도 그것들을 변조할 수 없읍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것을 변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없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권고와 계명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생활할 때 올바른 결과를 얻게 되며, 그릇된 길을 걸을 때 그릇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의 저서, 용서가 낳는 기적을 읽어 보신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참되게 생활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평과 자기 존중심을 되찾도록 도와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읍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열의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읍니다. 참된 회개는 기적을 낳읍니다.

역사학자들은 현재의 문명이 있기 전에 19차례의 문명이 번성했다가는 쇠망하였으며, 그 쇠망의 이유는 거의가 도덕적인 부패였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대부분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에 면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한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한 인간의 작은 한 걸음이요, 인류의 지대한 도약"[6]이라는 이 말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인간은 멀리 달에게까지 발을 내디뎠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발을 내디뎌야 한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디뎌서 닿을 수 없는 곳은 없다."[7]

율법대로 생활하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따르면, 불가능한 일은 없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미 증명된 것을 향하여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궤변과 유혹에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권고와 계명에 따라 생활하시기 바라며, 기도하는 생활과 순결한 생활을 통하여 화평과 행복을 찾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문제가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을 찾기 위해 이리 저리 뛰고 있으나 찾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과 권세가 있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와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활하면 현세에서 화평과 행복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누가 어리석게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러한 축복을 저버리겠읍니까?

교회는 복음을 모든 인류에게 전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두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사명을 띠고 있읍니다. 우리는 모든 영혼, 지치고 방황하는 사람, 길을 잃은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자와 슬퍼하는 자, 낙담한 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 인생에서 무언가를 찾아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의 현세와 영원한 세계에서의 구원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방법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4. 로렌스 에이 애플리, "행동의 주인"

5. 국제 로터리 클럽 회지, 그래함, 텍사스

6. 닐 에이 암스트롱

7. 알 해리스, "한 걸음"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 가운데에서 그의 사업을 다시 세우셨읍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십니다.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예언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향하고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든지, 과거 우리가 어느 곳에 있었든지, 한 번에 한 걸음씩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매일 회개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하면 이 현세에서는 물론 영원한 세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장 높은 영화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오직 꾸준한 길을 걸으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신이 저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놀라운 발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나는 벤슨 사도님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여 동경에 시온의 스테이크를 조직하였읍니다. 3주 전에는 터틀 장로와 함께 페루의 리마에서 시온의 스테이크를 조직하였으며, 한두 주 전에는 남 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에 스테이크를 조직하였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일본, 페루, 남 아프리카 등 먼 곳에 강력한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가신 선조들이 말씀하시던 날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 온 것입니다. 예언은 성취되었읍니다. 나는 이 시대에 살아 있어서 세계 각처의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기이하고 놀라운 사업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성장은 인간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하여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제 저녁, 이 태버나클 안에서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150주년 기념 모임을 가졌읍니다. 1820년 어느 봄날 아침, 소년 요셉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셨던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보게 되는 모든 훌륭한 것들은 이 놀라운 시현과 여러 나라의 수백만 성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간증의 결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예언자 요셉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영의 도움으로 분명히 간증드릴 수 있으며, 내가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듯이 그날에 아버지와 부활하신 아들은 요셉과 이야기하셨다는 것도 간증드립니다.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였으며, 그분의 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임을 간증드립니다.

일전에 나는 요셉의 행적과 그것을 계속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에 관한 것을 다시 읽었읍니다. 요셉이 순교당한 지 1년 후인 1845년에 팔리 피 프랫 장로가 아름다운 시어로써 기록한 것이었읍니다.

> "그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으니 우리 이제 왕국의 영토를 넓히지 않으려나.
>
> "그가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셨으니 우리 이제 널리 펼쳐 보지 않으려나……
>
> "그가 영광의 날의 새벽을 밝혔으니 우리 이제 찬란한 광채를 발하게 하지 않으려나.
>
> "그는 어린 소년으로 일천을 다스렸으니 우리 작은 하나로 강한 민족을 이루지 않으려나.
>
> "그가 돌을 캐어냈으니……이제 우리 그 돌로 큰 산을 이루게 하여 이 땅을 채워보지 않으려나."
>
> (밀레니알 스타지, 제5권, 1845년 3월 151—52페이지)

우리는 지금 그 꿈이 실현되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있읍니다. 왕국을 건설하는 사업을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신뢰에 우리는 충실하여야 하겠읍니다. 때때로 슬픔이나 좌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단호한 반대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반대자의 노력도 강화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읍니다.

우리가 취해 할 가장 좋은 방어 태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지지한 분들의 가르침을 묵묵히 따르는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관한 지시를 주셨읍니다. "온유하고 진실한 태도로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십시오. 저들의 신앙이나 종교의 형태에 관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오직 꾸준한 길을 걸으십시오. 이것은 내가 주는 계명이니, 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핍박을 면치 못할 것이요, 이를 지키는 자는 항상 성신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예언입니다."

그분의 이 말씀에서 주제를 택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오직 꾸준한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는 가치의 기준이 급변하는 시대, 아침이 되었다가 저녁에 지는 도깨비불과도 같은 프로그램이 만연하는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에서, 도덕성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심지어는 인간의 궤변에 인도되어 나간 회원들에게서까지도 찾아볼 수 있읍니다.

인간이 우리 사회의 힘이 되어 왔던 전통을 무시하고 암흑 속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는 새로운 별을 찾으려 하고 있으나 찾지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최근에 일본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 엑스포 '70에서 몰몬관을 헌납하였읍니다. 연사 중 한 사람은 일본 정부 관리였읍니다. 그분은 인간의 기술적인 향상을 전시하는 이번 박람회에

교회가 참여한 것에 대하여 치하하였읍니다. 그는 그 나라 국민의 생활에서 차차로 종교의 영향력이 약화되어가며 가치 기준과 이상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고 있읍니다. 몇달 전, 나는 퓨리처 수상자인 바바라 터크먼 여사의 기사를 읽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읍니다.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 중에는 대중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파이드 파이퍼적 거짓 인도자들이 수 없이 많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동조와 여론을 모으면서 우리 주위를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분명히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가만히 서서 말만 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믿는 바이다. 나는 이것을 할 것이며 저것은 안할 것이다. 나의 행위의 규약은 이것이며 저것은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이며 쓰레기 같은 것은 저것이다.' 표준을 기꺼이 말하려 하지 않는 데에는 도덕적 지도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읍니다. "비참한 현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 중에서 불안과 혼돈을 야기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은 도덕적 표준 의식의 결여이다. 우리는 너무도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표준을 고집하거나 그것을 붙들고 지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만연한 힘에 영향을 입어 아무 가치관이나 표준이나 행동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 같다" ("잃어버린 요소—도덕적 용기" 맥컬스, 1967년 6월, 28페이지)

아무리 사회의 표준이 갈팡질팡하더라도, 교회 회원인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태도를 취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증명된 표준이 있읍니다. 우리가 최대한으로 표준을 지킨다면 우리는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표준을 무시한다면 우리 자신의 발전을 막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업을 좌절시키게 할 것입니다. 이 목표는 주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어떤 표준은 시대에 뒤떨어진 듯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거나 가치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의 이치가 명석하고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는 없읍니다.

최근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밀워키 스테이크의 축복사로부터 잊을 수 없는 몇 마디 말씀을 듣게 되었읍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표를 얻으려 하는 해의 왕국의 정치가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읍니다."

순종이 행복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흐뭇한 일입니다. 순종은 화평과 성장을 가져 옵니다. 이를 모범으로 실천할 때, 그는 그가 속해 있는 사회를 존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표준대로 생활한다 하여 주변의 상황에 반항해야 할 필요는 결코 없읍니다. 그것과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오직 꾸준한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모범은 가장 영향력이 강한 힘이 되어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대의의 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에 대한 권고와 계명을 주셨으므로 그의 교회의 회원이라면 아무도 애매모호한 말을 할 수 없읍니다. 주님께서는 개인적인 덕성, 이웃과의 사귐, 법에 대한 순종, 정부에 대한 충성, 안식일, 음주와 흡연, 십일조와 헌금, 가난한 자에 대한 온정, 가정의 단합, 복음 전파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에 대한 지침을 분명하게 세워 주셨읍니다.

논쟁이나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읍니다. 실 생활에서 꾸준히 종교 이념을 수행해 나갈 때 우리는 다른 어떠한 수단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대의를 실천해 나갈 수 있읍니다.

우리를 유혹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미끼로 잡아버리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고 멸시를 받을지도 모르며, 험담을 받을지도 모르고,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팎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지니고 계신 권능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오도하며 우리의 위치를 강제로 변경시키려는 자들이 있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싶은 의사는 조금도 없읍니다.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언자로 지지하고 있는 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버릴 수 없읍니다. 우리는 단호히 서서 터크먼씨의 말과 같이 "이것이 내가 믿는 바입니다. 나는 이것을 할 것이며 저것은 안할 것입니다. 나의 행위의 규약은 이것이며 저것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겠읍니다.

때때로 낙담하고 깊이 사색해야 할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사는 동안 결정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는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을 위하여 바친 희생을 잘 알고 있읍니다. 최근에 아내의 조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그분이 13세의 소녀였던 때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 드리겠읍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을 영국 남부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는 아름다운 브리튼 마을에서 보냈읍니다. 그곳은 부드러운 푸른 서섹스의 언덕이 바다로 깔려나간 아름다운 곳이었읍니다.

그분의 가족이 침례받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읍니다.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진실됨을 속삭여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개심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친척과 이웃들은 비판적이었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이들을 해하려고까지 하였읍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침례를 받아 몰몬이 되는 데에는 강한 용기가 필요했읍니다.

그분의 가족은 리버풀까지 여행하여 그곳에서 다른 900여 명과 함께 호라이존이라는 배에 올랐읍니다.

돛을 올린 배가 바람을 맞으며 떠나갈 때 그들은 모두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여 잘있거라"라는 노래를 불렀읍니다. 오늘날 제트 여객기로 불과 6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6주 동안 항해한 후에 그들은 보스톤 항구에 기항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증기기관차를 타고 아이오와시티까지 여행하고 또 다시 여행 준비를 갖추었읍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황소 두 쌍, 암소 한 쌍, 포장 마차, 그리고 천막을 구입하였읍니다. 그들은 손수레 대열에 합류하여 여행하였읍니다.

아이오와시티에서 첫번째 비극을 맞게 되었읍니다. 두 살도 안된 막내 아이가 병들어 죽었으며, 그곳에 묻었으나 가족은 결코 그후에 그 아이의 무덤을 찾아 볼 수 없었읍니다.

13세 소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하루에 24킬로미터 내지 40킬로미터를 여행하여……플레이트 강가에 도착하였다……. 그날 우리는 손수레 대열까지 따라갈 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보았다. 강에는 많은 얼음덩이가 떠내려가고 있었다. 몹시도 추운 날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열 네 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캠프로 돌아와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를 불렀다. 〔그날 밤〕 어머니가 왜 우셨는지 모르겠다……다음날 아침, 여자 동생이 태어났다. 9월 23일이었다. 우리는 에더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에디스는 육 주일 동안 살다가 죽었다……. 〔우리는 에디스를 스위트원터의 마지막 교차점에 묻었다〕

"〔폭설을 만났다.〕발과 다리가 얼었다. 사람들이 눈으로 내 다리를 문질렀다. 그들은 내 발을 물속에 담갔다. 말할 수 없이 아팠다…….

"데블스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지독히 추웠다. 우리는 그곳에다가 많은 소지품을 버렸다……. 〔그날 밤〕 동생 제임스는 여느 때와 조금도 다른 점이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동생은 죽어 있었다.

"내 발은 꽁꽁 얼었다. 우리 형제들의 발이 모두 얼었다. 어디를 가나 눈이었다. 〔천지가 눈에 덮혀 있었으며 와이오밍의 바람은 매서웠다〕 우리는 천막에 못도 박을 수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어떤 사람이 우리 캠프에 와서는…… 브리감 영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냈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는 노래를 불렀으며, 어떤 사람은 춤을 추기도 했고, 또 울기도 했다……

"어머니에게선 조금도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43세로 돌아가셨다…….

"우리는 1856년 12월 11일 밤 9시에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다. 살아 있는 우리 형제 4명 중에서 세 명이 동상에 걸렸다. 어머니의 시신은 포장마차 속에 있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브리감 영이 왔다. 어머니를 잃고 발은 꽁꽁 얼은 우리 형제를 보자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 내렸다…….

"의사가 나의 발을 절단하였다……〔그러는 동안〕 나의 여자 형제들은 어머니를 무덤에 안치시키기 위하여 수의를 입혔다……발의 수술이 끝나자 그들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여 주었다. 아, 우리가 어떻게 견뎠는지? 그날 오후 어머니의 시신을 매장했다……

"우리가 영국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 간혹 생각난다. 폴리야, 엄마는 너희들이 어릴 때 시온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키우고 싶단다. 엄마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안단다." (매리 앤 가블 페이의 일생)

13세의 소녀는 이와 같이 글을 끝맺었읍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써 나의 말을 끝맺고 싶읍니다. "우리가 하찮은 비난을 견뎌야 하고, 신앙의 선조들이 그토록 크나큰 희생을 치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약간의 희생을 치려야 한다는 것에 놀라야 하겠읍니까?"

분쟁이나, 논란이나, 싸움을 일으키지 말고 우리는 오직 꾸준한 길을 걸어야 하며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매진해야 하겠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조용한 마음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진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선한 영향을 주면서 온 지상으로 뻗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권능도 이를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위대하고 성스러운 대업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그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겸손하게 간구하면서 이 모든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1970년 4월 4일 토요일 오전 모임 말씀

하나님의 실재성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갖 아름다움으로 둘러싸여 있어 생은 찬란하기 이를 데 없읍니다. 아름다움은 산속에도 있고 숲 속이나 호숫가에도 있읍니다. 또 조수가 밀려오는 바닷가나 양털 구름이 떠가는 하늘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개인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아침이나 낮과 밤에도 아름다움이 있읍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모든 자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는 봄의 신선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한여름의 영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곤 합니다. 침묵의 겨울이 하얀 융단을 덮기 전에 가을은 또 아름다운 색깔의 의상을 입고 옵니다. 이같이 우리가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하면 아름다움은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또 우주에는 정확한 질서가 있음을 우리는 의식하고 있읍니다. 낮이 가면 밤이 오고 조수는 규칙적으로 밀려오고 나가고 하며, 달의 순환 주기도 일정하고 자연의 순리대로 계절은 변하고 있읍니다. 하늘의 별들도 정확한 질서에 따라 운행되며 유성이나 위성들은 그들의 항성에 따라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읍니다. 생물학자들은 동식물의 생명에서 경이와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화학자들은 지구의 원소에 대한 신비를 발견합니다만 여하간 모든 사람들은 과학적인 훈련의 유무에 구애없이 대우주 속의 자연에는 갖가지의 정확한 질서가 얽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이 자연 현상을 관찰하면 반드시 그곳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설계자가 없이는 설계가 있을 수 없으며 지은이가 없이 아무것도 만들어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우주를 정확한 질서 가운데서 운행하게 하는 안내자가 있읍니다.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읍니까? 세상에는 이와 같이

심오하고 영원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수백만명이나 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하느님을 창조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까 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실재성에 대한 의문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는 방법은 과학적인 탐구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세계에 관한 주제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 관한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재성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위로 향하는 길이고 신앙과 노력을 요하는 길이며, 안이한 길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실재성을 입증하려고 열렬히 노력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안이한 길을 택하여 그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단순히 회의주의자들의 의문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이단자, 자유 사상가, 회의론자, 불가지론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의문에 대한 연구 방법은 역사와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한 고찰을 하는것입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고대 기록의 처음을 살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 : 1)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이말은 지구는 우연에 의해서 생기지도 않았으며 우발적으로 창조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창조에 대한 믿음에 기초를 이루고 있읍니다. 의미와 일정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적인 창조의 소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러한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러한 말을 기록한 모세 5경의 기록자는 창조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으나 후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 11 : 1)라고 기록한 히브리서의 저자와 똑같이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증거가 지식을 확립하기에 불충분하다 할지라고 참된 것을 바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탐구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훈계를 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태복음 7 : 7—8)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 우리들의 첫째 부모인 아담과 이브와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대화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직접 대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8대에 걸쳐 그의 후손들에게 직접 시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노아도 직접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을 하였고 10대에 이르도록 그의 후손들을 가르쳤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으며 뿐만 아니라 그뒤 이삭과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읍니다. 모세는 그들의 후손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후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보존되어 내려오는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가 직접 교통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신약 성경 역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록하고 있읍니다. 예수께서 요한에 의해 침례 받으셨을 때에 다음과 같은 시현이 있었읍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 3 : 17) 그리고 높은 산에서 변형하실 때에도 이같은 시현이 있었읍니다.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마태복음 17 : 5—6)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신구약 성경에 기록한 것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읍니다. 서반구의 경전 속에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이같이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대대로 인간들과 교통을 하셨다는 사실을 들어 하나님의 실재성을 충분히 증명해 주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데 역사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읍니다. 이성에 의한 추리도 이러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고대의 논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즉 모든 창조물은 창조주가 있다. 지구는 창조되었다. 고로 지구는 창조주가 있다라고 했읍니다. 다시 히브리인에게 보낸 서한의 저자는 하나님은 지구의 창조주라는 것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히 3 : 4) 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우주의 운행과 그속의 아름다움과 경이는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과학이 인간을 위해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여 오고 있을지라도 인간을 위하고 그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학은 가르치고 인간은 다만 배울 따름이다. 배움이란 것은 인간이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개인적인 과정에 불과하며 아무도 그를 위해서 배움을 다시 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반적으로 과학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자기를 발견하는 일은 전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의 선언은 아무것도 입증해 주지 못하고 있고, 설사 그가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지 않는다고 그대로 믿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 알고 있는 것을 강하게 간증해 주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모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죠셉 에프 메릴, 이전의 십이사도임, 진리의 탐구자와 몰몬이즘 104-5페이지)

과학의 기구나 현대의 전자 속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읍니다만 진리의 탐구자는 만일 그가 결과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심을 인식케 하는 이 놀라운 힘의 근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예배하려는 충동을 갖고 있읍니다. 고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출 20 : 2—3)고 하셨읍니다. 성스러운 역사를 통해서 항상 전해져 온 바 인간은 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예배할 수 없다는 교리 속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읍니다. 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생에 있어서 하나의 지고한 충성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면 우리는 한 세계와 진실로 모두가 형제들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인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하려는 충동을 갖게 합니까? 인간의 영혼 속에는 천성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욥 32 : 8)라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이 욥의 말 속에는 인간의 창조에 대한 암시가 나타나 있읍니다. 인간은 이 심령에 의해 오성과 이성을 갖게 되고 그리하여 성스러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심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나 그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이성에 의한 추리 이외에 그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지식은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서부터 신구약 성경의 전 시대를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먼저는 아담에게요 그후로는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의 후손의 족장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은 노아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대화도 하셨읍니다. 노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역의 때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지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께서 침례받으실 때와 변형하실 때에도 말씀하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바벨탑을 쌓던 시대에 구세계를 떠나 서반구로 이주한 일단의 백성들의 지도자에게도 나타나셨읍니다. 또한 기원전 600년경 그분은 리하이에게 말씀하셔서 그의 가족을 데리고 미대륙으로 여행을 떠나라는 지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의 경륜의 시대에 젊은 요셉 스미스에게 직접 나타나셨으며 고로 요셉 스미스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회를 구성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 여러 시대를 걸쳐서 인간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계에선 이들 세 분을 삼위일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성신이 내려왔다는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은 각기 다른 세 분의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가치있는 것을 얻으려면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학자가 성공을 위해 힘써 일하며 노력하지 않는 한 박식하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꺼이 행하지 않으면서 학자다운 박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음악가, 수학자, 운동가,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의 숙련공들은 그들대로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연습하며 어려운 일을 하는 데 많은 세월을 소비했던 것입니다. 기꺼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음악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체육과 같은 것들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겠읍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힘써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역사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고 밝혀 주며, 과학 역시 절대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가하면, 인간의 이성도 하나님의 존재를 납득시켜 주고 있읍니다. 더구나 인간에게 주신 그분의 계시는 그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의문도 남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실재성에 대하여 확고한 지식을 가지려면 그는 구세주께서 성역을 베푸시던 때에 말씀하신 계명과 교리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 : 16—17) 다시 말하면 기꺼운 마음으로 찾으려고 애쓰며 열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실재성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분의 길을 깨달을 때에 그는 우주 속에서 우연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만물은 사전에 준비된 성스러운 계획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생애야말로 참으로 의미있는 것이 되지 않겠읍니까! 그의 이해는 세상의 학문을 능가하게 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더욱 아름다와지고 우주의 질서는 더욱 의미심장하게 되며, 인간은 낮과 밤이 바뀌며 계절이 질서있게 바뀌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찾아 그의 길을 따를 수만 있다면 인간의 마음은 그들의 형제들에 대하여 사랑을 갖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는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그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경륜의 시대에서와 같이 오늘날에도 선지자들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참 마음으로 그분을 찾기를 바라며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70년 4월 6일 월요일 오전 모임 말씀

예언자의 필요성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대리

오늘 대회의 모든 진행은 깊은 감명과 경외를 느끼게 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께 개인적으로는 물론 아울러 십이사도 정원회를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그가 십이사도 보조에 성임되던 시절부터 최고의 부름을 받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 가는 모습을 지켜보아 왔읍니다. 이제 그는 교회의 가장 높은 직책을 갖고 봉사하면서 진실한

형제의 사랑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최근 수년간 사랑과 감사를 아끼지 않던 조셉 앤더슨 장로와 헌신과 오랜 봉사를 다한 정력가인 데이비드 비 헤이트, 윌리암 에이치 베넷 장로들이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년은 이 지상 생활에서의 역사적인 해인 것 같습니다. 때는 정월이었읍니다. 역사는 바뀌어 새로운 장을 넘기게 되고 앞에는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었읍니다.

1970년 1월 18일 일요일 아침 한 위대한 인간의 심장의 고동이 멈춰지고 노구가 기력을 상실하여 혼수상태에서 헤매이다 결국은 지상의 삶을 마치시고 서거하자 마치 지진이 일어나 온 세상에 해일이 퍼지는 것 같이 세계의 통신망은 이 사실을 보도하며 먼 곳에 있는 수백만명의 사람들까지 비통한 마음으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였읍니다,

그분을 사랑하던 사람들의 행렬은 우중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된 지도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읍니다.

태버나클에는 그분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모여 조의를 표했으며 예언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영구는 경의와 존경을 받으며 안치되어 있었읍니다.

우리의 머리가 숙여지고 마음이 비통에 잠겨 있으나 이 영감의 예언자는 그의 동료 예언자들인 요셉, 브리감, 윌포드 등을 만나는 행복한 재회를 가질 것입니다.

새삼 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우리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을 것같이 생각되었읍니다만, 그러나 하나의 별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면 또 다른 별이 새로이 떠오르고 죽음은 생명의 알을 낳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끝이 없고 무궁한 것입니다. 비록 위대한 지도자가 돌아가실 때라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가 일순간이나마 지도자없이 방임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신 친절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경륜의 시대에 여덟 차례나 예언자를 잃었으며, 그때마다 성도들은 경건히 무덤의 흙을 덮으며 눈물을 거두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그들의 얼굴을 돌렸던 것입니다.

교회의 대관장이 돌아가시자 오랜 경험과 훈련을 쌓아온 사도들이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어 임무를 지명하고 권능과 열쇠를 부여했읍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권능을 부여받은 이들 십이사도 정원회에 의하여 5일간이나 계속 전진하여 간 것입니다. 이 직책을 얻기 위하여 "입후보"나 선거나 후보 연설은 전연 하지 않았읍니다. 참으로 신성한 계획이 아닙니까? 나약하고 탐욕적인 인간의 약점을 초월하여 이와같이 완전하게 조직하도록 지시하시는 주님은 얼마나 현명하신 분이십니까?

드디어 새 역사의 날이 동트기 시작하던 때에(1970년 1월 23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통치 기구인 십이사도 정원회의 14명의 지도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전으로 들어갔읍니다. 이들 중에는 이러한 엄숙한 교체의 순간을 이전에 경험한 분들도 계셨읍니다.

얼마후 늦은 아침이 되어 14명의 지도자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나오는 시간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읍니다. 그동안 대관장의 짧은 공석 기간을 종식시키고 하나님 왕국의 통치가 십이사도 정원회로부터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 즉 지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대리인인 새로운 예언자에게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분은 60여년의 평생을 고귀한 부름을 향하여 잘난 체하지 않고 수수하게 봉사하여 왔읍니다. 그분은 이제 교회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대관장의 최고 직책에 취임한 것은 그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그 당시 살아계신 예언자를 통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사도가 되는 부름을 주님에게서 받았으며 오늘날 선임 사도와 회장이 될 때까지 간직하고 있는 값진 중요한 열쇠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중대한 신전 모임에서 그분은 십이사도의 형제들에 의해 교회의 대관장으로서 "성임되고 성별"되자 강인하고 용기있는 해롤드 비 리 장로와 엔 엘돈 태너를 보좌로 선택하셨읍니다. 이 두 분은 모두 교사, 실업가, 공직,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를 지낸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세 분의 새로운 대관장단과 새로 개편된 십이사도회는 화려한 취임식이나 허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들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행정은 위대한 발전과 전례없는 성장을 기약하며 새시대로 옮겨졌읍니다. 이 신세계에 회복된 복음의 계획을 소개한 이도 바로 젊은이였읍니다. 교회가 조직될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1805년 12월 23일—1844년 6월 27일) 나이는 불과 24세밖에 되지 않았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38세에 순교하시자 브리감 영(1801년 6월 1일—1877년 8월29일)이 선임 사도와 교회의 대관장이 되셔서 30년간을 관리하셨읍니다. (76세까지) 그 후 다른 대관장들은 62세에서 84세 사이의 연령에 달했을 때 대관장이 되어 79세에서 96세 사이에 일생을 마치셨던 것입니다.

존 테일러 (1808년 11월 1일—1887년 6월 25일)는 71세에 대관장(1880년 10월 10일)이 되셨고 78세에 돌아가셨으며 그의 서거로 윌포드 우드럽(1807년 3월 1일—1898년 9월 2일)이 선임 사도(1887년 6월 25일)가 되셨읍니다. 그 후 2년뒤 그가 82세 때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받았으며 91세로 세상을 떠나시자 로렌조 스노우(1814년 4월 3일—1901년 10월 10일)가 선임 사도로 되셨던 것입니다. 그는 84세에 교회의 대관장(1898년 9월 13일)이 되셔서 매우 짧은 기간인 3년 동안 재임하셨읍니다. (1901년 10월 10일까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1838년 11월 19일)은 7일 후(1901년 10월 10일부터) 선임 사도로 되셨고 1901년 10월 17일 62세로 교회의 대관장이 되셨으며 80세에 돌아가셨읍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1856년 11월 22일—1945년 5월 14일)은 일 주일이 채 안되어(1918년 11월 23일) 선임 사도가 되셨고 그때 나이 62세로 대관장에 취임하셨으며 88세로 일생을 마치셨읍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1870년 4월 4일—1951년 4월 4일)은 일 주일 동안 선임 사도로 계시다가 75세에(1945년 5월 21일) 교회의 대관장이 되셔서 81세에 세상을 떠나셨읍니다. 지난 토요일은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의 100번째 탄신일이었읍니다.

제9대 대관장이었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1873년 9월 8일—1970년 1월 18일)은 5일 후 선임 사도가 되셨으며 77세에(1951년 4월 9일) 교회 대관장이 되셨고 향년 96세로 세상을 떠나셨읍니다.

1876년 7월 19일에 출생하신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1월 18일 선임 사도가 되셨고 1970년 1월 23일 93세로

교회 대관장이 되셨읍니다.

이상에서 보면 존 테일러 대관장에서부터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사이의 모든 대관장들은 62세에서 84세 사이에 대관장이 되셔서 79세에서 96세 사이에 돌아가셨읍니다.

여덟 분의 대관장이 모두 평균 연령으로 73세에 대관장으로서의 관리 책임을 맡으시고 85세에 사망으로 그 직을 물려 주셨음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역대 대관장들의 재임 기간은 12년보다 조금 적으며 따라서 교회 대관장의 평균 연령은 79세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 모두는 교회 대관장이 항상 연로하신 분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젊은 분은 넘치는 정력을 갖고 활동적이며 솔선적입니다만, 한편 연로하신 분에게는 하나님과의 오랫동안의 대화와 경험으로 다져진 안정과 힘과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맥케이 대관장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갈 때 호기심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식견이 좁은 사람들은 많은 억측을 했으며, 대관장의 공석 기간에 대한 토론이 화제로 등장할 때마다 이런 억측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백만여 명의 성도들이 역대의 어느 대관장보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혼란을 가져왔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읍니다.

그들은 연령을 들어 말했읍니다. 고대의 족장들은 젊지 않았읍니다. 아담이 그의 자손을 다스릴 때에도 나이가 대단히 많았으며 그의 후손은 여러 세대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도 그의 백성을 다스리다 각기 175세, 180세, 110세, 120세에 세상을 떠났읍니다. 그들은 비록 나이는 많았을지라도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은 그들에게 많은 지혜와 안정을 갖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전례를 들어 말하고 있읍니다. 만일 그것이 전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계시된 반차를 되풀이하여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모든 열쇠와 권능을 소유한 선임 사도였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경우도 스미스 대관장은 선임 사도였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며 그분은 성스러운 지도력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초의 계승이 있었을 때에 회복된 교회는 14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의 손에 달려 있었읍니다. 그 이전에는 수 세기 동안 예언자와 "시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와 계시와 선지자에 관한 귀중하고 중요한 축복의 중심이 되었던 한 사람의 생명이 카테지 감옥에서 총살을 당하여 숨질 때 많은 사람이 의문으로 가득차 있었던 사실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순교하신 예언자의 장례는 끝나고 사도들이 그들의 임지에서 돌아와 장래 일을 염려하고 있을 때에 이미 모든 열쇠를 소유한 선임 사도가 마치 모세처럼 당당히 나서서 길을 인도하자 사람들의 의심은 모두 사라져 버렸읍니다.

이처럼 파란 많은 140년 동안 10명의 대관장이 교회를 관리해 오셨고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신 사도는 모두 78명이나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차의 띠를 힘껏 당기고 위협을 무릅쓰며 우리의 살아 계신 예언자이신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인도를 받는 영감받은 지도자들의 지시아래 강한 의지를 갖고 새로운 여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 위엄, 연령, 지위로 인해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할 분이시며, 오늘 아침 그의 사랑하는 부인이 노래하셨듯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않는 분"(시24 : 4)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속한 청렴하시고 거룩한 어른이십니다. 그분은 또 주님의 임명을 받은 자로서 이 최고의 직분에 오르셨으며 60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지니고 계시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교회는 실로 한 사람의 선지자로서 그분을 60년 동안 받들어 왔읍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지니신 분이며, 주님의 교회의 모퉁이 돌과 머리가 되시는 유일한 예언자로서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자가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만능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읍니다. 반드시 젊고 패기에 찬 운동가, 실업가, 재계 인사, 농학자가 될 필요는 없읍니다. 그리고 음악가, 시인, 연예인도 될 필요가 없으며 더우기 은행가, 의사, 대학 학장, 군 장성, 과학자가 될 필요도 없읍니다.

그리고 그는 불어나 일본어, 독일어나 서반아어를 능통하게 잘하는 어학자가 될 필요도 없읍니다. 그러나 단, 그는 성스러운 언어만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며 하늘에서 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웅변가가 될 필요도 없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가능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그의 성스러운 메시지를 주시고 그를 강하게 만드실 수가 있읍니다. 주님은 모세의 약하고 소심한 음성을 강한 음성으로 대체시켜 주셨으며, 젊은 에녹에게는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떨리도록 하는 힘을 주셨는데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 행하신 것처럼 에녹도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성 1 : 38)고 말씀하셨읍니다.

진실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예언자는 결백, 확고한 신앙, 오명을 남기지 아니하는 선한 태도, 사랑스런 남편, 참된 아버지의 모범을 보여 주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제사장이나 성직자나 장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음성은 새로운 계획, 진리, 해결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 대하여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읍니다만, 그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능을 소유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흔히 세상에서 임명과 권능을 부여받지도 않은 채 직책을 오만하게 갖고 있는 그러한 부류의 많은 사람들처럼 뽐내며 잘난 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마 7 : 29)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제재를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세상의 항의를 받을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스러운 임명과 해의 왕국의 성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하며, 봉사하고 성임하며, 영원한 자물쇠를 여는 열쇠를 물려 주도록 부름을 받은 권능을 확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고대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땅의 주민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믿지 아니하며 배반하는 자들을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인 치

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진실로 하나님의 진노가 한없이 악인에 쏟아지는 그 날"(교성 1 : 8—9) 당당한 권세를 가져야 하며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결봉하면 하늘에서도 결봉될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나의 말씀을 가지고 땅에서 매면, 주께서 말씀하시나니, 하늘에서 영원히 매이리라. 네가 땅에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하늘에서도 영원히 용서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땅에서 보류하는 죄는 하늘에서도 보류되"(교성 132 : 46)게 하는 중대한 권세를 소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왕보다는 모세이며, 벨드사살왕보다 엘리야가, 빌라도보다는 바울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주택이나 학교나 고층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될 필요는 없으나, 현세와 영원을 연결하고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건축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언자를 따를 때에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해 왔으나 반면 세상이 이들을 경시할 때에는 침체와 고통과 죽음이 뒤따라 왔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매일, 매시간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에 열중한 나머지 이를 거의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만, 만일 출력이 센 방송국에서 보내는 방송 프로그램을 우리가 들으려고 주파수를 맞춘다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천년 동안 안내와 시기에 적절한 경고에 관한 하늘의 방송은 계속되어 왔으며, 가장 강한 출력을 가진 방송국의 방송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모든 세기를 걸쳐 오는 동안 예언자들은 하늘의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재방송하며 전해 왔던 것입니다. 메시지는 결코 중단한 적이 없었읍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주어졌읍니다. 그는 주파수를 맞춘 상태에서처럼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었느니라."(단 10 : 7)

어느날 다메섹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으나 그 광경을 본 사람은 한 사람 뿐이었읍니다. 함께 한 다른 사람의 귀에는 분명하게 들리지 아니한 이 소리는 몇몇의 사도에게 부름을 주는 두려운 하늘의 음성이었으며 이로써 그의 생애는 바뀌고 그는 수백명의 생애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공헌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파장을 맞춘 유일한 사람이었읍니다.

소련의 어떤 우주 비행사는 외계의 우주로 나가 관찰해 보았으나 하나님과 천사를 보지 못했노라고 했읍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회의와 불신에 가득찬 우주인들에게 그들이 지금의 천 배나 되는 더 먼 거리에나 천 배나 더 높은 상공으로 비행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원한 것들에 미치려면 아직도 먼 곳에 있을 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읍니다. 이는 영적인 것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탑에서, 팔레스타인의 산에서, 애굽의 궁성에서 하나님을 보았으며, 모세는 사막과 홍해에서, 시내 산에서, 그리고"떨기나무 불꽃"(출 3 : 2)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맑고 깨끗한 원시림의 숲 속과 구모라 언덕에서 하나님을 보았으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와 변형의 산상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새로 성임된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을 받들어 주셔서 이때로부터 "아버지의 일을 하시게"(누 2 : 49)하고 계속 주님의 "생명의 떡"(요 6 : 41)과 "생수"(요 4 : 10)를 주시며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등불을 밝히기" 시작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수 3 : 7)고 이르신 것 같이 우리의 예언자이신 그분께도 말씀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손을 들어 지지를 한 주님의 종들인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 주님의 다른 성도들도 축복해 주셔서 이때부터 우리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처럼 그분의 손을 높이 받들며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모두 한 음성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수아 1 : 16—17)고 한 것같이 우리도 외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너희 이스라엘의 장막들이여! 굳게 서 흔들리지 말고 충성을 다할찌어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1970년 4월 6일 월요일 오전 모임 말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해롤드 비 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본인은 킴볼 장로와 마찬가지 감정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형제, 조셉 앤더슨 형제, 데이비드 비 헤이트 형제, 윌리암 에이치 베넷 형제를 총관리 역원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러 형제 자매님들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그분들을 알게 되면 그분들의 지도력에는 강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던 맥케이 대관장님과 맥케이 자매님, 그리고 그분의 훌륭한 가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제 교회 역사의 또 다른 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는 경전에서 이야기된 바대로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조직되고 140년의 역사가 흐른 다음 다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읍니다.

예언자이셨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지상 교회의 우두머리로서의 직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본향으로 부름을 받으셨읍니다. 예언자로서의 지도자가 서거한 후에는 반드시 교회에나 세상에는 큰 변화가 따랐읍니다. 아마도 구세주에게 드리는 예언자의 보고가 지구상의 인간의 일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는 합니다.

교회의 관리상의 변동을 말하는 변화는 킴볼 장로의 말씀대로 주님의 일에 많은 혼란과 좌절만을 초래할 정치적 고안이나 혁명적 방법을 피한 주님이 성임하여 주신 독특한 절차와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나 그의 여러 선임 대관장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값진 지식과 지혜의 보물을 남겨 주셨읍니다. 대관장이 돌아가시면 감사의 념으로 가득찬 사람의 마음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들 예언자에 매어달리게 됩니다. 다행히 그분들의 생애, 업적, 말씀, 성역에 관한 기록을 교재로 대할 수 있으며, 교회의 기록 역사로 정리되기도 하고 그들을 추종하였던 사람의 기억 속에 간직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귀한 유산은 어느 곳에 있던 충실한 사람에게 모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기록은 마음을 다하여 봉사하였던 사람의 마음 속에 적히는 것입니다.

이 대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회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교회 대관장이 돌아가신 후의 재조직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의 대관장은 어떻게 선택 또는 선출되는가라고 묻는 사람에게는 신앙개조 제5조를 정확하고 간단한 답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교회 대관장이 될 사람에 대한 부름의 시작은 실제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부름받아 성임되고 성별되는 때로부터입니다. 그같은 예언에 의한 부름, 다른 말로 바꾸어 한다면, 관리의 열쇠를 지닌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영감으로 부름을 받은 다음 같은 권능에 의한 성임과 안수례로 성별되어야 사도의 직분을 소유한 열 두 사람의 신권 정원회에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 대관장의 손으로 성임되는 사도는 교회의 모든 직책을 맡을 수 있으며, 만일 관리 신권 소유자의 부름을 받고 교회 회원의 거수로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교회를 관리하는 대관장단의 직책까지도 맡을 수 있는 신권의 권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는 대관장이 없으면 대관장단 또한 없다고 하셨읍니다. 대관장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 다음 서열 기구인 십이사도 평의회가 관리 권능 소유자가 되며 따라서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은 자동적으로 차기 대관장이 정식으로 그 직에 성임되어 지지받을 때까지 대관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십이사도 평의회가 3년간을 관리하다가 재조직을 보았읍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가 안정되어감에 따라 대관장이 서거하면 즉시 재조직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를 받습니다. 이 말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선택, 성임받은 사도는 만일 "평의회(십이사도 평의회 전체를 뜻함)에 의하여 선출되어 그 직분에 임명 성임되며, 회원의 신임과 기도로써 지지되는" 경우에는 교회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계시에서 한 가지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그 평의회의 선임 회원 즉 회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교성 107 : 22 참조).

때로는 선임 사도가 아닌 분은 대관장이 될 수 없느냐는 질문이 대두되고는 합니다. 이는 주님이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하라는 사실을 그 회장에게 계시로 알려주는 때에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경륜의 시대의 초대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지상 왕국에 미리 정해진 조직으로 교회 지도자에 관한 질서정연한 계획을 계시로 보여 주셨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말씀하셨읍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가진 대제사들 중에서 세 사람의 관리 대제사가 선출되어 그 직분에 임명 성임되며, 교회 회원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되어 교회의 대관장단인 정원회를 구성하느니라.

"십이 순회 평의원은 부름을 받아 십이사도가 되나니,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 될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이들이 부름을 받는 직분의 의무는 교회의 다른 역원과는 다르도다.

"저들은 정원회를 구성하며 권위와 권능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세 관리 대제사와 동등하도다." (교리와 성약 107 : 22—24)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윌포드 우드럽 교회 제4대 대관장은 당시 십이사도였던 히버 제이 그랜트 장로에게 1887년 3월 28일자로 보낸 편지에서 이 점을 밝혀 주셨읍니다. 그 편지를 인용하겠읍니다.

"……대관장이 서거하면 교회의 관리 권능을 누가 갖게 됩니까? 이는 십이사도 평의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성임, 조직된 평의회)이들 십이사도 평의회가 교회를 관리할 때에는 누가 교회의 대관장이 됩니까? 이는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입니다. 그는 열 두 사람을 관리하는 동안 교회의 대관장단이 조직되어 열 두 사람을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대관장인 것입니다." 교회가 조직된 이후로 140여 년간 계속되어 온 원리입니다. 우드럽 대관장은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본인의 간증으로는 저는 이 교회를 조직하셔 과거 57년간이나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없는 한, 교회 조직 이후로 사도들이 따랐으며 교회사에 기록된 바와 같이 57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사도가 걸었던 길을 떠날 수는 없읍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를 교회 대관장으로 부르신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읍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의 할아버지 되시는 하이람 스미스에 관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진실로 내가 거듭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종 하이람으로 하여금 축복과 당연한 권리로서 부친으로부터 임명받은 신권 및 축복사의 직책을 맡게 할지어다.

"이제부터 저는 모든 나의 백성의 머리에 축복을 주는 축복사의 열쇠를 지

니나니,

"저가 축복하는 자는 누구든지 축복을 받을 것이요, 저가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받으리라. 저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저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교리와 성약 124 : 91—93)

그러나 이 직책에 부가하여 이후의 교회 축복사에게는 주어진 적이 없는 특별한 엔다우먼트를 받았읍니다.

"이제부터 나는 저를 임명하여 나의 종 요셉과 마찬가지로 나의 교회의 예언자와 선견자와 계시자로 삼느니라.

"그리하여 저로 나의 종 요셉과 힘을 합하여 일하게 하려는 것이니, 나의 종 요셉으로부터 조언을 받게 할 것이요, 나의 종 요셉은 저에게 열쇠를 보이리니, 이로써 저가 구하면 곧 받게 하리라. 한 때 나의 종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축복과 영광과 존귀와 신권과 신권의 은사를 저의 머리에 쓰게 하리라.

"이는 나의 종 하이람이 내가 저에게 나타내 보일 일을 증거하며 저의 이름이 대대로 영원토록 기억되어 존귀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24 : 94—96)

그의 아들 조셉 에프 스미스는 1901년부터 1918년까지 교회 제6대 대관장으로 봉사하였읍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어렸을 때 미주우리주와 일리노이주의 박해어린 모습을 보며 자랐읍니다. 아버지 하이람 스미스가 카테지 감옥에서 아저씨이자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와 함께 순교당한 후 어린 조셉 에프 스미스는 9살 난 소년으로 마차를 몰아 미주우리강으로부터 평원을 횡단하여 1848년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1852년 어머니를 잃고, 2년 후인 1854년에는 15살의 나이로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하와이 섬으로 떠났읍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출신 가문인 하이람 스미스가의 특징이라고 하겠읍니다. 저는 오늘 하늘이 기뻐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아울러 저는 이 위대한 아들과 손자가 지도자로 일하는 동안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주님께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그들 후손과 가까운 자리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없이 믿고 있읍니다. 설혹 그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신다 하여도 놀라지 않겠읍니다.

저는 하이람 스미스의 후손에게 조금 전에 인용한 예언의 말씀을 전한 다음 그는 혈관에 흐르고 있는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로서의 고귀한 피에 힘을 다하여 충실해야 한다고 말하고는 했읍니다.

오늘 저는 생애에서 가장 엄숙했던 추억을 되살려야 했읍니다. 교회의 신임 대관장단이 선택, 성임된 신전의 다락방에서 성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열 세 형제와 함께 맛본 중요한 영적 경험을 한 후 약 10주 동안을 제 자신의 지나간 생애와 앞으로의 날을 점쳐보면서 보냈읍니다.

이동안 저는 저의 부족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책임으로 생기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와 영적 통찰력을 초월하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의 선택을 받아 이 태버나클에서 신권 소유자, 교회 회원과 이전에 이미 이곳 성회의 순서에 참여한 적이 있었던 분들의 지지를 받은 직책의 수행을 시작할 수 있읍니다.

경륜의 시대에 지도자로 일하셨던 분들을 생각할 때 저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느껴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명상과 기도를 통하여 저같은 사람은 이전의 지도자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직책에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다만 시간이 감에 따라 생기는 공백을 채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영원한 세상에서 그리고 그들이 봉사한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아직도 그 직책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예언자 니파이가 구약의 선지자의 경전을 담고 있는 동판을 가져 오라는 아버지 리하이의 불가능한 것 같은 명을 받았을 때의 감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니파이는 이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였읍니다. "……나 니파이는 성으로 넘어 들어가 레이밴의 집을 향하여 나아갔으며,

이때에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영에 이끌려 나아갔느니라."(니일 4 : 5—6)

저 역시 이를 깊이 느끼는 바입니다.

그 옛날의 니파이와 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영에 이끌려" 나갈 수 있어야겠읍니다.

저는 제 자신의 기력과 마음과 정신을 다할 것을 충실한 성도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평생을 바쳐 너희를 위해 봉사하였다고 이야기한 것이 스스로 뽐내려 함이 아니니 나는 오직 하나님께 봉사하였음이라"(모 2 : 16)고 하신 베냐민 왕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충실한 형제 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 봉사하면서 저도 "오직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듯이 영이 인도하는 대로의 간증을 드리겠읍니다. 말일의 이 참다운 교회에 주님이시며 세상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속죄를 통하여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구원의 교리가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높고 거룩한 곳에서 지상의 교회를 오늘 여러분이 대관장,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신 분을 통하여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수호자에게

해롤드 비 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오늘 저녁에 나는 한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구

약 시대의 예언자에게 보여졌던 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당시에는 높은 탑에 파수꾼을 세워 변방을 살피게 하여 그들을 향하여 적이 오고 있는지, 약대와 마병대를 이끌고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게 하였읍니다. 파수꾼은 매시간 주인에게 사정을 보고하도록 되었읍니다. "이상 없읍니다." 라고 보고하거나 또는 위험이 보이면 즉시 보고하고록 명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그 꿈에서 주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읍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이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낮 동안에 다가오는 적보다는 밤에 오는 적이 더욱 무섭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읍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밤에 오는 적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에게 해당되는 "장로"라는 용어는 신앙의 수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차적인 책임이요 부름인 것입니다.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앙의 수호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청소년 형제자매, 특히 세상의 방법에 물들지 않고 그러한 것에 부주의한 청소년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교활하고 음흉한 힘이 맴돌고 있읍니다. 나는 지금 음주, 도박, 매춘 행위, 도색 문학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 하는 기독교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교성 59 : 9) 신앙의 수호자는 소년과 소녀,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진 일 주일의 이 하루를 가족과 함께 지내는 안식의 날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파수꾼되시는 여러분, "밤의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잠시 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1913년 8월에 대관장단이 교회 회원에게 발표한 경고입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거듭 강조해 왔으나, 나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13년에 발표된 대관장단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앤튼 에이치 런드, 찰즈 더블류 펜로우즈〕 공문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제목은 "경고의 음성"입니다.

"수신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원 및 회원 :

"하이람 페이지의 시대부터(교성 28편) 많은 교회 회원에게 거짓 영이 여러 차례 나타났읍니다. 때때로 이러한 거짓 영은 범법으로 인하여 쉽게 악마의 미끼가 되는 남녀에게 나타났읍니다. 또한 교회의 율법과 의식을 철저하게 준수한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이러한 거짓 영의 인도를 받아 길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거짓 영은 너무도 하나님의 능력과 흡사하게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므로 자신을 '선택된 자'라고 자만하는 이들까지도 거짓 영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과의 차이를 거의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변형시키고 나타납니다.

"시현, 꿈, 방언, 예언, 기타 특별한 은사나 영감이 교회에서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계시와 일치되지 않거나 교회 당국의 결정과 모순될 때, 말일성도는 비록 그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말일성도는 교회를 인도하는 지침은 예언자를 통하여 영감과 계시로써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충실한 회원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가족, 그리고 그가 관리하도록 임명받은 사람들에 대한 영감을 받을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주신 것과 불일치하는 것은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세속적인 문제에서도 성도들은 자신과 관계되는 인도와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까지 인도할 권능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교회의 성약, 교리, 이미 알려진 사실, 증명된 진리, 올바른 상식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식 투자에 계시나 시현이나 꿈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는 안되며, 특히 교회가 인정하는 권위에 위배되는 것을 고집해서는 안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질서의 집'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은사나 시현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규 대회에서 전 교회 회원의 거수로써 지지를 받아 성신권의 권능으로써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 볼 때, 시현을 믿는 많은 열성자들이 거짓 시현을 받아들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려 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 예외없이 실망과 슬픔과 고난을 결과로 받게 되었읍니다. 재정적인 손실은 물론 때로는 완전히 몰락하는 경우도 있었읍니다. 악령의 희생자들의 들뜬 마음에서 얻게 되는 악영향 이상의 아무런 성공의 보장을 주지 못하는 거짓 속임수에 우리 성도들이 속지 않도록 경고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주식을 발행하고 그것을 바꾸며 거래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이윤을 주지 못하는 주식에 자본을 투자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시온 구속 사업', '죽은 자를 위한 구속 사업' 등 가치있는 명분을 내세우며 기금을 확보하는 재정상의 술책에 교회 회원은 누구라도 속아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일은 다만 시간과 노동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며, 오히려 그것으로써 이 지상과 천국에서 길이 남을 가치있는 사업을 행하기를 당부합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제임즈 알 클라크 편집〔북크래프트사, 1970〕 제4권, 285—86페이지.)

교회 회원들 중에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이야기나 꿈이나 시현이나 의미깊은 축복사의 축복이나 어떤 사람의 일기 인용문을 공표하는 데에 너무도 쉽게 속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일례로써, 총관리 역원의 한 사람을 내세우면서 그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밝히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당국이 나뉘어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영향을 주었던 무서운 실례가 있읍니다. 조사해 본 결과,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이름이었으며, 교회 기록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읍니다. 발신인의 주소도 허위였읍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왔던 사실은 조사 결과 완전히 허위였다는 것이 밝혀진 이 위조 문서와 계시가 상호부조회, 신권회, 신권 정원회, 노변의 모임, 신학 연구원 대학부와 중등부 등지로 파고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신권을 소유하고 계신 신앙의 수호자 여러분, 성도들이 악마의 사업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그치도록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업을 증진시키는 데에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책임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탄의 사업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알려지도록 허락할 때에 우리는 사탄의 장난감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형제 한 분은 구세주께서 재림하실 때 자기가 교회를 관장하게 되리라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틀린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날 살아 있는 사람 중 몇몇 사람이 구세주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허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재림은 밤의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날과 그 시는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어떠한 권능을 소유한 누구라도 그와 같은 공표가 타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속 걸어야 합니다. 어느 형제 한 사람이 캘리포니아주의 주민이 록키 산맥 꼭대기로 피신해야 하며, 그곳만이 안전한 곳이라고 말하더라는 보고를 받았읍니다. 이러한 말과는 반대로 우리는 성도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하는 곳이 안전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생활한다면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모든 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읍니다.

형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가운데에서 악마의 사업이 고개를 들게 하여서는 안되며, 그것이 우리 공과와 토론의 주제가 되도록 해서도 안됩니다. 의로운 사업만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 힘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시에는 핍박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백성으로서 사악하고 부패한 사람들로부터 미움이나 핍박을 받지 않은 백성은 역사상 없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과거의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하던 로마 네로 시대의 권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보다 더 큰 핍박을 받은 민족은 없었을 것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악한 자들은 지상에서 왕국을 파괴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하고 있으나,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시도는 실패만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권이 여기에 있으며 많은 성도들은 그들의 부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신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생명과 물질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곧 증거가 된다"(데저렛 주간 뉴스 제24권〔1875〕, 708페이지)

신권을 소유하고 계신 형제 여러분은 올바른 경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는 그것이 신권에 관한 것이든, 결혼에 관한 것이든, 시온의 집합에 관한 것이든, 신권 계승에 관한 것이든간에,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말일성도를 핍박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마 이러한 핍박도, 바울 사도의 말처럼 주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일지도 모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핍박과 증오를 받았읍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왜 저들은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나를 핍박할까……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읍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읍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며 정죄받는 일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읍니다" (요셉 스미스서 2 : 25)

몇년 전 어느 사람이 우리 가운데로 와서는 우리 형제 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만일 당신네들이 한 가지 교리만 버린다면 제가 교회에 입교하겠읍니다." 그러자 우리 형제가 물었읍니다. "그 교리가 뭡니까?"

"현대의 계시에 대한 믿음을 버리신다면 제가 교회에 가입하겠읍니다."라고 그는 대답했읍니다.

그러자 우리 교회 회원인 이 형제의 말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읍니다. "형제님.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형제 여러분, 이 교회에 계시가 주어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곧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나 같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경륜의 시대에 행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왕국에 관한 모든 것을 교회에게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알아서 강한 간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수호자인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부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일어나서 성도들의 단합을 파괴하려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들에게 화평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입법화된 화평이나, 육군과 해군과 총과 전차와 비행기 등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화평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극복할 때 찾아오리라고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화평에 대하여 가르치십시오. 오늘날의 고난과 역경의 시대에 말일성도가 생활해야 하는 바대로 생활하고 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겨우 선생이야

토마스 에스 몬슨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는 자주 "세상은 변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는 의약, 교통, 통신, 탐색의 분야에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보아 왔읍니다. 그러나 광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항

구불변의 고립된 섬들이 있읍니다. 예를 들자면, 소년은 어디까지나 소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어린 아이같은 자립을 합니다.

얼마전 저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려 주는, 늘 머리 속에서 되풀이 생각되었던 대화를 무심결에 들었읍니다. 아주 어린 세 소년이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고 있었읍니다. 한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보다 높다"라고 말하니까, 다른 아이가"그래, 우리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보다 똑똑하다."라고 대답했읍니다. 세번째 아이는 이에 지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박사란 말이야"라며 한 소년을 얕잡아 보며 "그런데 너의 아버지는 선생이지?"라고 말했읍니다.

그중 한 아이의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이 이야기는 중단되었지만 그러나 그 말은 나의 뇌리에서 돌며 떠나지를 않았읍니다. "겨우 선생이야. 겨우 선생이야." 그러나 저는 머지 않은 장래에 이 작은 소년들이 영감적인 교사들의 참 가치에 대하여 감사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교사들이 자기들의 일생에 지울 수 없는 깊은 교훈을 남겨 준 것을 진정으로 고마와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헨리 부룩 아담스의 관찰에 의하면 "교사는 영원히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결코 그의 영향은 중단된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진리는 우리 모든 교사에게, 즉 제일 먼저 가정에서의 교사, 두번째로 학교에서의 교사, 세번째로 교회에서의 교사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교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교사일 것입니다. 그녀는 흑판을 사용하지 않았고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교훈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며 그의 정성은 한이 없었읍니다. 네,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읍니다. 동시에 저는 아버지도 포함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부모는 다 교사입니다.

성스럽게 허가된 이러한 교사의 교실 안으로,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이나 저의 가정으로 오는 어린 아이들은 인류의 신선한 꽃이며 하나님 자신의 집으로부터 지상에서 피기 위하여 내려온 향기로운 꽃입니다.

가르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시기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지나가 버리기 쉽습니다. 교사로서의 책임 수행을 게을리 하는 부모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말 것을"하는 후회를 되풀이하게 되는 괴로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사로서의 사명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모는 반드시 영감의 도움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감정의 결합은 신비한 우주의 조화나 소설이나 역사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직 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부모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느니라."(창세기 1 : 27 참조)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성경 말씀은 부모들이 이 경험을 되풀이할 때 새롭고 가슴을 울려 주는 참 뜻을 얻게 해 줍니다. 가정은 하늘 나라의 항구가 되고 사랑하는 부모들은 그곳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성 68 : 28)"겨우 선생이야"라고 표현하기에 알맞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요.

다음에는 학교에서의 교사에 대하여 생각하여 봅시다. 필연적으로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의 일부를 학교 교실에다 눈물을 머금고 양보를 해야 하는 아침이 찾아옵니다. 영이와 철수는 대문 앞에서 학교로 향하는 행복한 부모와 함께 어울립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교사들을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그 교사들은 자기 생도들의 목표와 희망을 구체화시켜 줄 뿐 아니라, 그들 자신과 미래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만일 그 교사가 미숙한 사람이라면 젊은이들의 생활에 상처를 남겨 주며, 그들의 자존심을 꺾어버릴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그들의 영상을 위축시켜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학생들을 사랑하고 많은 기대를 그들에게 걸면, 학생들은 자기를 믿는 태도가 성장하며 그들의 능력이 발전하고 그들의 앞날이 보장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선한 생활로 인도하는 다리를 놓아 주기보다는 신앙을 파괴하는 것을 좋아하는 교사들이 더러 있읍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선도해 주는 힘도 있지만 우리를 잘못 이끌어 주는 힘도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즉 "신앙을 파괴하거나 의심을 불러 일으킨 자는 영을 상하게 하고 병신을 만들며 불구자가 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엄밀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누가 고의로 다른 사람이 해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한 사람이 떨어질 지옥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겠는가?'"(불멸과 영생, 제2권, 128페이지)

우리가 학교 교실에서 그들의 일을 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는 있읍니다. "어떻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 왕국의 해의 영광으로 인도하도록 준비시키십시오. 즉 인간의 이론과 하나님의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측정기를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하겠읍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그렇게 지도하여 주는 부모를 직접 본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몰몬경, 교리와 성약 그리고 값진 진주를 한데 엮은 세 권 합본 경전이었읍니다. 그 책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그의 권고를 조심스럽게 따르는 막 피어나는 꽃과 같이 아름다운 딸에게 보내진 책이었읍니다. 속 표지에 그녀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말을 써 넣었읍니다.

1944년 4월 9일

내 사랑하는 마우린에게

너는 진리와 인간들의 철학이 갖고 있는 오류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며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영적인 가운데에서의 발전은 내가 보내는 이 성스러운 책을 자주 읽고 너의 전 생애의 보배로 간직하며 그로부터 얻어지는 지식을 향상시킬 때 크게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

해롤드 비 리

저는 "겨우 선생이야?"라는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요일이면 항상 만나게 되는 교회 안에서의 교사에게로 차례를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의 역사, 현재의 희망, 그리고 미래의 약속 모두를 만나보게 되겠읍니다. 특히 여기에서 교사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되기는 쉽고 사도와 같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배웁니다. 교사는 학생

들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즉 그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의하여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하였읍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로마서 2 : 21—22)

영감적이고 정열적인 교사 바울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읍니다. 아마도 그의 성공의 비결은 음침한 토굴의 감옥 생활을 했던 그의 경험을 통하여 나타나 있읍니다. 바울은 그를 잡아갈 군인들의 쿵쾅거리는 발소리와 쇠사슬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읍니다.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싶어하면서 그에게 묻기를 "황제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의 도움이 필요하였었느냐"고 물을 때 바울은 "나는 성령이라고 하는 고문을 모시고 있다"고 말하였읍니다.

이 성령은 마아스 언덕 위에 서 있을 때 바울을 인도해 준 그 성령입니다. 경전에서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고 외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였읍니다(행 17 : 23—24, 25, 28)

다시 한번 "겨우 선생이야"라는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사람을 감싸주는 교사가 한 분 있읍니다. 그분은 삶의 의무와 죽음의 운명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대접을 받는 생활을 하지 않고 대접을 하는 생활을 했으며, 받는 사람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목숨을 아낀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생명을 희생한 사람이었읍니다. 그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높이 평가했으며,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마음의 보물을 간직한 사람을 찬양했읍니다. 이 교사는 서기관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으며 권세를 가지고 가르쳤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과 명예를 탐욕하며 "멸망으로 이끄는 대중과의 야합"의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는 이 교사가 모래 위에 단 한 번 써 놓은 글자를 바람이 스쳐가며 지워버린 것 이외에는 결코 손수 써놓은 것이 한 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읍니다. 그의 법은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읍니다. 저는 우리들의 가장 훌륭하신 교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인류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읍니다.

헌신적인 교사들이 그분의 인자하신 "와서 내게 배우라"고 초대하신 말씀에 응답하게 될 때, 그들은 많은 것을 배워서 그분의 성스러운 능력을 분담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교사의 훌륭한 영향력을 어렸을 때 경험하게 되었읍니다. 주일학교 공과 중에 그 교사는 세상의 창조, 아담의 타락, 예수의 구속자로서의 희생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읍니다. 그는 존경하는 손님으로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도마,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반에 모셔왔읍니다. 우리는 그들을 본 일은 없지만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본받게 되었읍니다.

어느날 아침, 같은 반원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매우 슬퍼하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을 때처럼 그의 가르침이 그렇게 동적이고 그가 주는 감동이 한없이 가슴 속 깊이 울려퍼진 때는 없었읍니다. 그것은 빌리가 그날 아침 결석했기 때문이 아니었읍니다. 그날 공과의 주제는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는 것이었읍니다. (행 20 : 35) 공과를 반쯤 하고 나서 교사는 책을 덮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열어 주었읍니다. 그는 "우리반의 파티 기금이 얼마나 있읍니까?" 라고 물었읍니다. 불경기가 계속되던 그때에 "4불 75센트 있읍니다."라는 자랑스런 대답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읍니다.

그다음 참으로 인자한 소리로 "빌리의 집은 슬픔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읍니다. 오늘 아침 다같이 그 집을 방문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금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읍니까?"라고 제안했읍니다. 저는 작은 꼬마들이 세 정거장을 걸어서 빌리의 집에 들어가 그와 그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아버지께 조의를 표하던 장면을 잊을 수 없읍니다. 어머니가 안계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읍니다. 우리의 귀중한 파티 기금이 들어 있는 흰 봉투가 교사의 따뜻한 손에서 비탄에 젖어 도움이 필요한 빌리의 아버지의 손으로 전해질 때 모든 소년들의 눈에서 빛났던 눈물을 저는 그 무엇보다 아끼며 늘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읍니다. 돌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웠읍니다. 우리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았고 기쁨에 충만해 있었으며, 우리의 동정심은 참으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읍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신 한 훌륭한 교사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진리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는 교훈을 배웠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눅 24 : 32)라고 하신 말씀이 메아리치고 있읍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화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린 소년이 "우리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보다 높다" "우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보다 똑똑하다""우리 아버지는 박사란 말이야"라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는 "너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보다 높고, 너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보다 똑똑하고, 너희 아버지는 비행사고 기술자고 박사일는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이야"라고 과감하게 대답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값지고 진지한 칭찬의 말씀을 주님에게서 상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가장 위대하신 교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1970년 4월 5일 일요일 오후 모임 말씀

예언자의 역할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친지 여러분, 주님의 안식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회는 19년 만에 가장 이색적인 대회입니다.

교회사 140년 동안 가장 눈부신 교회의 성장을 이룩하셨던 사랑하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이 끝을 맺었읍니다.

이제 오랜동안 그리스도의 대업에 헌신하여 왔던 사랑하는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의 새로운 시대가 문을 열었읍니다. 그분은 내일, 교회의 제 10대 대관장으로 공식적으로 모든 회원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은 단지 대관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관장은 모세나 이사야나 엘리야가 부름을 받은 것과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선택된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대의 예언자들은 계시자이었읍니다. 그들은 항상 그때 그때 계시를 받으면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읍니다.

마찬가지 의미로 우리는 교회의 대관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계시자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현대의 계시가 주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유대인이건 기독교인이건,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교회 대관장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예언자요?" 그들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반문합니다. "예언자라뇨? 도대체 예언자가 뭡니까? 예언자가 될 수 있는 현대인도 있읍니까? 예언자란 성경 시대에만 국한된 인물이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은 타당한 질문입니다. 마땅히 물어야 할 문제이며 마땅히 답을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예언자에 관하여 성경이 말하는 바를 살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읍니다. 사실, 인간에 대한 주님의 모든 프로그램은 예언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읍니다. 예언자 중의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로써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 : 7)

구약 전서와 신약 전서가 모두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있는 그의 백성에게 항상 지침을 주셨으며, 이 지침은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하여 주어졌읍니다.

오랜 세월을 통하여 주어진 이러한 계시들이 모여서 경전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이 나왔읍니다. 새로운 예언자가 생길 때마다 경전은 늘어났읍니다. 모세 오경, 여호수아, 사무엘, 이사야, 에스겔, 말라기 등의 구약전서를 이루고 있는 책들을 얻게 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약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서한집, 그리고 요한계시록 등은 구약 시대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얻게 된 경전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시대에도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언자가 있었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회원을 인도하고 주님의 성역을 베풀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도와 예언자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언자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방법을 변경시키셨을까요? 전능하신 분이 변하신걸까요? 아니면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으신 분일까요? 그분이 변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절차 방법이 변경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그분의 방법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랜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해야 하겠읍니다.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 : 7)

몇몇 위대한 기독교 개혁자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였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고대에는 예언자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셨음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는 것을 자각하였읍니다.

예를 들어 마틴 루터는 초기 기독교 시대의 영적인 권능은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졌으며, 구세주께서 주셨던 기독교는 이 지상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였읍니다.

존 웨슬레는 "콘스탄티누스 대왕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불렀던 운명의 시기"로부터 이 지상에는 계시와 기타 영적인 은사가 사라졌다고 가르쳤읍니다.

로저 윌리엄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이 지상에는 교회의 의식을 집행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며, 교회의 머리가 되는 분이 새로운 사도를 보내기 전에는 존재할 수도 없다."

토마스 제퍼슨은 성직자는 아니지만 기독교를 연구한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도 원래의 복음이 없어졌음을 인정하고 "초대 기독교의 회복"을 점쳤읍니다.

그밖의 많은 사려깊은 경전 연구가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읍니다. 고대 기독교의 특징이었던 계시와 다른 영적인 은사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읍니다. 그들은 또한 그러한 은사의 회복을 고대하였읍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회복이 일어나리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읍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새로운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원래의 복음이 회복되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 새로운 계시는 현대에 천사가 가져 오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읍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기이하게 여겨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계시는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현대의 계시와 예언자를 믿지 않고, 현대의 천사의 방문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까요? 그토록 불신앙에 빠져 있고, 세파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질까요?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예언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실천할 새로운 사람을 세우셨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간을 예언자 없이 생활했기 때문에 진리에서 이탈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지로 불러 들이려 준비하실 때, 모세라 하는 새로운 예언자를 세우셨던 것은 필요한 과정이었읍니다. 이는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성역을 베푸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사람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산헤드린 학자들 가운데서 택하시지 않았읍니다. 그들 역시 불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를 받을 자격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예언자인 침례 요한을 세워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경전에 암시된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게 될 오늘날, 역시 지상에는 그 계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읍니다. 아무도 현대의 계시를 믿으려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읍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 스미스라는 새로운 예언자를 세우셨으며, 그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셨읍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듯이 그는 천사의 방문을 받았읍니다. 왜 천사가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읍니까? 그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천사는 그를 성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의 회복이 성취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 세기 이상이 지난 일이며, 요셉 스미스는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읍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자리를 물려 받았읍니다. 그러나 합당하게 임명된 이들 계승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주님의 사업을 행하도록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서 주님으로부터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관장이신 조셉 필딩 스미스도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임명되었으며,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그분을 정식으로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대에 고대의 방법을 다시 이룩하실 때, 그는 교회의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셨읍니다. "…너희는 요셉이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교성 21 : 4—5)

다시 말하면, 현대의 예언자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덧붙이셨읍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의심을 품고 받아들이거나 태만해 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지 못하겠으나, 현대의 예언자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는 자는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흩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교리와 성약 21 : 5—6)

말일성도에게 예언자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을 우리의 예언자요 선견자로서 기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경전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원리가 조금도 이상하지 않읍니다. 이것은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잊혀졌던 성경의 원리를 다시 회복한 것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언자의 음성 듣고
주 말씀 믿으라
진리의 길 기뻐하고
찬송을 외쳐라"

찬송가, 113장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숙한 진실입니다. 하늘은 다시 열렸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과 교통의 문을 여셨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이야기하였듯이, 요셉 스미스도 하나님을 보고 이야기하였읍니다.

이사야가 하늘의 빛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였듯이,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도 하늘의 빛으로써 그의 백성을 인도하였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일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사도와 예언자들이 그처럼 행했듯이, 조셉 필딩 스미스, 해롤드 비 리, 그리고 엔 엘돈 태너는 그리스도의 예언자와 사도들이 행한 바와 같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일을 지시합니다.

이것은 모두 현실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이제 모든 인류에게 대가 없이 주어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도구를 통하여 주어지며, 그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영감을 받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을 주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리의 가르침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며,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다시 말씀하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새로운 예언자를 세우셨으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전에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서 세우신 분과 함께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거수로써 그분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지지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왜 예언자가 필요한가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영적이며 역사적인 대회의 끝이 다가 왔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사도와 예언자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 그의 사업을 행하도록 택하신 분을 우리가 오늘 지지하였기 때문에 이 대회는 참으로 역사적인 대회였읍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과 그분의 보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그 분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앞서 가신 분들이 이루어 놓은 기초 위에서 번창하여 온 지면을 덮는 큰 산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후계자들에 대하여 찬사를 보냈읍니다. 예언자 리하이가 광야에서 그의 아들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됩니다. 주님께서는 애굽으로 팔려 갔던 요셉에게 말일에 그의 자손 중에서 요셉이라 하는 예언자를 택하게 될 것이며 그의 부친 역시 요셉이라 불리울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니이 3장 참조). 주님께서는 요셉이 그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읍니다. 요셉 스미스는 몰몬경과 값진 진주와 교리와 성약, 그외에 여러 가지 글을 우리에게 주셨읍니다. 기록상, 오늘날 하나님을 통하여 세워진 이 예언자가 우리에게 밝혀 준 진리보다 더 많은 진리를 보인 예언자가 없었읍니다. 하나님은 저가 그의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미 전해진 말씀에 대한 확신까지도 가져다 주리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내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수년간 교육을 받은 사람, 특히 목사와 같은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 시간 동안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들로부터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를 들려 주고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읍니다. 30년 동안 교역자의 생활을 해 왔던 한 목사가 우리 교회로 개종하였읍니다. 하루는 내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리차즈 형제님, 제가 이제 회복된 충만한 복음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과거 나의 교구민에게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복음만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 내가 발견한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들은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겠지요."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오늘날의 예언자가 인간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져 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읍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예수께서 십이사도에게 부여하셨던 것과 꼭같은 권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 15 : 16)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마 16 : 19) 이와 같은 권능이 없다면 주께서 인정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상에 존재할 수 없읍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에 관한 약속을 첨가하셨읍니다. "저를 내 눈에 위대한 자가 되게 하리라"(니이 3 : 8) 세상이 이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가 위대한 자가 되리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읍니다. 주님께서는 요셉 스미스로 하여금 그가 부름받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태어나기 3천년 전부터 기다리게 하셨읍니다. 그의 사명은 구세주의 사명과 같은 종류의 사명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같은 것이었읍니다.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후계자를 일일이 들어 말할 수 있읍니다. 일례로 브리감 영을 들어 보기로 하겠읍니다. 역사상 브리감 영처럼 위대한 개척자가 없었읍니다. 이 험준한 산맥에 이룩해 놓은 태버나클과 성스러운 신전을 보십시오. 이 도시 자체가 그의 사업의 일부였읍니다. 그는 개척자들을 이 황량한 곳으로 이끌고 와서는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 놓았읍니다.

그분을 이은 여러 예언자에 대하여도 생각할 수 있읍니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을 40마일이나 되는 이곳까지 곧잘 데리고 오셔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뵐 수 있게 해 주셨읍니다.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이 태버나클에 앉아서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의 마지막 말씀(내 기억으로는 그것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마지막 말씀이었읍니다)을 듣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주님의 영이 그를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고 지시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분은 참으로 주님과 가까이에서 생활하신 분이었읍니다. 그분이 한밤중에 영의 속삭임을 듣고는 뛰어 나와 백여년 묵은 참나무에 묶어 놓았던 소떼와 아내와 자신의 잠자고 있던 포장 마차를 풀어 다른 곳으로 몰았던 이야기를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지끈 소리와 함께 참나무가 소떼와 포장 마차가 있었던 곳으로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속삭임을 듣지 못했다면 그 순간에 그는 생명을 잃었을 것이었읍니다.

그분은 대영제국으로부터 개척 성도단을 이끌고 오던 때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읍니다. 그들이 뉴올리언즈에 도착하였을 때였읍니다. 그가 먼저 자리를 잡기 위하여 배 안으로 막 들어가려 할 때, 무엇인가가 "너와 네 일행은 아무도 배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읍니다. 그래서 그는 선장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기다리기로 결심했읍니다. 그러자 그 배는 결코 출항하지 못하고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였읍니다. "주님의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어느 형제님, 어느 형제님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시면서 당시 성도단에 있었던 몇몇

형제님의 성함을 대었읍니다.
또 다른 예언자에 대하여도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나는 그분들을 알게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참으로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을 사랑하였읍니다. 그분은 나를 교회 관리 감독으로 불러 주셨읍니다. 또한 새로 임명된 대관장님의 부친되시는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내가 생전에 만나뵌 위대한 예언자 중의 한 분이십니다. 나는 이 태버나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으며, 그분의 축복도 여러 차례 들었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분의 영적인 힘에 감동되어 모두 눈물을 흘렸읍니다. 두 차례의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그분의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그분은 두 팔로 나를 안으시면서 "리그랜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읍니다. 그 말 한 마디가 그때까지 선교 사업 중에 겪었던 모든 어려웠던 고생을 말끔히 씻어 주었읍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 어느 곳을 가든지 성도들은 "저희들의 사랑을 맥케이 대관장님께 전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읍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주면서 대관장님께 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읍니다. 그분은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이셨읍니다.
몇년 전 나는 동양에서 이곳을 찾아온 한 실업인이 상공 회의소 비서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실업인이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이곳에 체류하는 동안 무엇보다도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비서는 "그게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읍니다. 그러자 그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라는 몰몬 교회 대관장을 만나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읍니다. "만나실 수 있도록 제가 주선을 해 보지요."라고 비서는 대답해 주었읍니다. 그래서 연락이 서로 이루어져서 맥케이 대관장님은 그분과 약 한 시간 동안 만날 시간을 내주셨읍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교회 본부 현관을 나서면서 그는 비서에게 몸을 돌리고는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누가 나에게 일생동안 접해 본 사람 중에서 구세주와 가장 가깝게 닮은 사람으로 누구를 댈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저분이라고 대답하겠소."그분은 교회 안팎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으신 분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성스러운 예언자로 태어나 온 생애를 교회에 헌신하였으며, 예언자 요셉 이후로 누구보다도 복음의 진리에 관한 저서를 많이 남기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이곳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주님은 기쁘게 여기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대회에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왜 예언자가 필요한가?"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언자가 있어야 할까요? 어제 피터슨 형제가 인용하셨던 예언자 아모스를 통하여 전해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 : 7)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읍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언자가 없다면 경전을 믿는 어떠한 정직한 사람도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가 없는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였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께서 예루살렘을 바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3 : 37—39)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곧 하나님의 예언자이십니다.
구세주께서는 적정의 때에 그가 강림하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진 침례 요한을 증거하셨읍니다. 주님께서는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예언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예언자 말라기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말라기 3 : 1—2)
분명히 이 말씀은 구세주의 첫번째 강림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첫번째 오셨을 때 그분은 그의 전으로 속히 오시지 않으셨으며, 모든 사람은 그의 오시는 날을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금을 연단하는 불이나 표백하는 잿물처럼 깨끗케 하려고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일에 재림하실 때 다음과 같이 되리라고 경전에는 기록되어 있읍니다. "〔산에게 이르되〕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계 6 : 16참조)나의 생각으로, 이 예언자가 곧 예언자 요셉, 곧 위대한 말일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손에 들리워진 도구로서, 그의 오심을 예비하려 보내진 예언자이십니다.
경전을 읽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지 아니하시고는 어떠한 일도 성취시키지 아니하신다고 고대 예언자들이 외친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에게 주님의 신비로운 뜻을 밝혀 보이셨다고 말하였읍니다. (엡1 : 9)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1 : 10)우리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밝히신 말씀을 완성하고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가 없다면 우리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기억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행 3 : 20—21) 거룩한 선지자가 가져다 주는 것을 받을 예언자가 없이 어찌 만유의 회복이 가능하겠읍니까? 복음의 회복을 통하여 이 일이 성취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

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 4:5—6)

주님의 사업을 인도하는 예언자가 없다면 그가 누구에게 오겠읍니까? 우리는 엘리야가 이미 오셔서 그의 경륜의 열쇠를 전하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사야 29:13—14)

이 교회야말로 이사야가 본 기이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뜻을 보이는 선지자가 없다면 이러한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읍니까? "참으로", 아모스는 말하였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암 3:7)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였던 다니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잊었을 때 그는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를 불렀으나 아무도 왕의 꿈을 이야기하지 못하였읍니다. 왕은 다니엘을 불렀읍니다. 다니엘은 와서 이같이 말하였읍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단 2:28) 그리고는 말일이 이를 때까지의 왕국의 흥망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그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되 결코 멸망당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넘겨지지도 않을 것이며, 아무의 손으로가 아니라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큰 산이 되어 마침내는 온 지면을 덮는 것과 같이 되리라고 말하였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왜 예언자는 필요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 보이고 도구로 쓰실 예언자가 없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사업을 행하실 수 있겠읍니까?

내가 서던 스테이츠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플로리다주에 있는 선교사 한 사람이 어느날 밤 바로 이 성구에 대하여 전파하고 있었읍니다. 모임이 끝나자 나는 문가에 서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는 목사라면서 자신을 소개하였읍니다. "우리가 몰몬 교회를 바로 그 왕국이라고 믿는다고는 기대하지 않으시겠지요?"라고 말하였읍니다. "기대하지 않다니요? 그것이 사실인걸요?" 라고 내가 대답했읍니다. 그러자 그는 "그럴 수가 없읍니다"라고 대답했읍니다. "왜 될 수 없다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왕이 없이는 왕국이 있을 수 없지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읍니다. 그러니 왕국도 없겠지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친구여, 조금밖에 안 읽으셨군요. 다니엘서 7장을 읽어 보세요. 인자 같으신 분이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에게 왕국을 주었는데, 모든 왕국과 권세와 나라가 그를 섬기는 것을 읽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단 7:13—14 참조)

그리고는 그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읍니다. "만일 그에게 왕국이 예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셨을 때 그에게 왕국을 주실 수 있었겠읍니까?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되었던 만유의 회복이요 준비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했읍니다. "아마 그 왕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7장을 좀더 읽으시면 다음과 같은 성구를 읽으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단 7:18) 영원하다라는 말 한 마디로는 모자란 듯이 세 번이나 거듭 사용하였읍니다.

이제 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이 태버나클에 모였읍니다. 우리가 왕국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한다면 왕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리라는 약속을 받았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놀랍고 기이한 사업이 온 지면을 덮을 때까지 굴러가도록 협조하는 일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예언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더 드릴 수도 있읍니다마는, 나는 이 자리에서 이 교회는 살아 계신 예언자의 인도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새로 임명된 새로운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와 그분의 두 분 보좌를 온 마음을 다하여 지지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전 세계의 시온의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의 예언자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말일 사업의 일익을 담당하여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1970년 4월 5일 일요일 오전 모임 말씀

화평의 열쇠

매리온 지 롬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지난 가을, 약 400여 명의 선교사들과 개인적인 접견을 하면서 세 개의 선교부 여행을 거의 마칠 무렵,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이 없느냐는 나의 질문에 대해 한 선교사가 한 대답에 나는 갑자기 나의 몸이 움츠러듦을 느꼈읍니다. "총관리 역원과의 접견이 뭐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고 말했읍니다.

나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그게 무슨 의미지요?"라고 반문했읍니다.

네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총관리 역원과

의 접견을 고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접견을 갖게 되면 그 후에도 '며칠을 두고 그 이야기만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접견에서 그리 대수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나는 침착을 되찾은 다음,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형제님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대회에 함께 앉아 있던 두 사람이 모임을 끝내고 나서면서, 한 사람은 '정말 참 영적인 모임이었지? 이런 느낌을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애'라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뭐 그리 좋은 모임이었다고 생각되지 않는걸 매일 듣던 소린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 아침 오전 5시에 깨었을 때 문득 다음 성구가 내 머리속에 맴돌았읍니다.

"……나 니파이는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가르친 바 모든 말씀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도 못하며, 기록으로는 말할 때처럼 힘찬 무엇을 전하지 못하나니 이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성령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전함이라."(니파이이서 33 : 1)

오늘 여러분께 전해 드리려는 말씀은 결코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매우 간결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화평의 열쇠"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읍니다. 이것은 첫번째로 꼽힐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성신의 능력으로 말씀드리고 듣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단지 매일 듣던 것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성신의 영과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금식하고 기도하였읍니다. 함께 다시 조용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신의 능력으로 말하고 성신의 능력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개종하신 분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읍니다.

"저는 교회라는 교회는 거의 모두 찾아보았읍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읍니다.

"그러나 번번히 마음의 공허만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집념은 버릴 수 없었읍니다. ……여러해 동안을 해답을 찾아 다니다가 저는 3년 동안 아무 교회에도 나가지 않기로 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했읍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점심 식사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두 젊은이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읍니다. 그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나온 선교사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러 왔다고 말했읍니다. ……그들이 두번째 다녀간 후, 저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

"저에게 가장 감명을 준 것은," 그녀는 말을 이었읍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갖고 계시다는 새롭고도 놀라운 사실이었읍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기셨는지를 압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분을 보셨읍니다.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과 뼈의 몸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저에게는 놀랍고도 기쁜 사실이었읍니다. 영적인 느낌이 온 전신을 스미는 것 같았읍니다. 저를 이처럼 사로잡는 것은 없었읍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에게 실제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번민하던 문제의 답을 얻은 것입니다." (밀레니알 스타 1960년 6월)

이 겸손한 여인은 참된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면서, 모든 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추구하는 바, 곧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화평케 해 주는 열쇠, 온 인류와 나라에게 화평을 주는 열쇠를 발견하였읍니다.

이 개종자의 경험담은 이러한 지식이 각 사람의 마음에 화평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읍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화평이 있으면 온 인류와 나라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참된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인간으로 하여금 화평의 길을 걷도록 고취시킨다는 것을 조세퍼스는 그의 저서 유대인의 고대 풍습 서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읍니다.

"자기 자신의 생활을 잘 영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주려는 사람은 우선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야 하며…… 그것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세는 대단히 강조한 것 같다.

〔모세〕 자신도 이러한 깊은 사색과 지식이 없었다면 결코 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며……하나님은 아버지이시요, 만유의 주님이시며, 그의 말씀을 좇는 사람에게는 행복한 삶을 부여하시나 그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을 주신다는 사실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가 독자에게 덕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글을 전혀 쓰지 못했을 것이다. 모세가 그의 동료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치려 했을 때 그는 다른 입헌자들이 하는 방법에 따라 그의 율법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이는 인간들의 계약이나 다른 제도에 의해서 그의 율법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된다고 설득하면서 세우신 것이었다. 그가 일단 사람들에게 종교 앞에서 복종하게 하자, 그들을 다른 것들에게 복종하게 설득하기가 쉬워졌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완전한 덕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였을 때, 모든 인간들도 그와 같은 〔덕〕을 따르도록 애써야 한다고 생각했다."(조세퍼스의 저서, 38—39페이지)

인간이 참된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는다면 그분의 덕성을 자기도 갖기 위해 애쓰고 개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활의 지표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최상의 갈망입니다. 그들이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온전"하게 되도록 노력할 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본성을 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살아 계신 참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덕성, 사랑, 친절, 우애, 성스러움, 인내, 지식, 그리고 신앙을 더하게 됩니다. 이러한 덕성은 그들의 마음에서 이기심, 탐욕, 정욕, 증오, 분쟁, 전쟁 등을 몰아냅니다. 행복, 만족, 기쁨, 그리고 화평이 자연히 따르게 됩니다.

오늘날 화평을 얻는 처방은 "하나님께로의 귀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화평을 찾아야 한다"는 외침은 전 세계 의로운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이것은 화평이 우리에게서 사라져가는 것을 막는 치료술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짓 신에게 돌아갈 때 화평을 얻

지 못합니다. 신화상의 신, 이방 신, 새겨 놓은 우상 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둠으로써 생기는 우상 등에 마음을 돌릴 때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만 늘게 되며 분쟁과 대립이 강해집니다. 화평을 얻기 위하여 인간이 행해야 할 일은 살아 계신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러하였듯이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지극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지상의 온 인류와 나라의 마음에 화평을 얻게 하는 열쇠이며, 영생을 가져다 주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읍니다.

창세기 첫장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말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을 분명하게 설명하였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세기 1 : 27)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애매모호한 점이 전혀 없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읍니다. 모세가 구상을 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형상으로 규격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전능자의 권세로 인하여 그는 "심히 높은 산으로 이끌리어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았고 말씀을 주고 받았으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는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 모세야, 나는 네게 시킬 일이 한 가지 있느니라. 너는 나의 독생자와 닮았도다. 또 나의 독생자는…구세주가 될 자라…"(모세서 1 : 1—4, 6)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그리고 그와 인간과의 관계 등에 관한 분명한 지식이 모세에게 주어진 때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이끌고 나올 때였읍니다. 이스라엘이 속박되어 있는 동안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계시가 반드시 필요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시가 최초의 것은 아니었읍니다. 아담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에덴동산 동편 길에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희생 제물을 바치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읍니다. 그가 그대로 행하자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서 지시하였읍니다. "그날에 아담에게 성신이 임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였읍니다. (모세서 5 : 9 참조)

아담과 이브는 그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읍니다. 그러나 "…사탄이 저들에게 와서 이르되…이 말을 믿지 말라 하니…저들이…도리어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라…" (모세서 5 : 13)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처음도 아니요 끝도 아니었읍니다. 결정의 때에 하나님의 영의 자녀 중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육신을 입고 이 지상에 오셨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신 목적 중의 하나는 자신과 아버지를 보이는 것이었읍니다. 그는 이 일을 분명한 방법으로 행하셨읍니다. 바울은 이를 이해하고 예수를 "하나님의……본체의 형상이라"(히 1 : 3) 고 말하였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승리의 입성을 할 때,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질문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요 12 : 34, 44—45)

다락방에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라고 간청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대답하셨읍니다. (요 14 : 8, 9)

이러한 가르침을 통하여 사도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가 곧 아담과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살아 계신 참된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결정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현대 사람이나 아담과 모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거의 없었읍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탄을 사랑하였으며, 사탄이 이교도적인 철학과 궤변으로써 그들에게 찾아와 "이 말을 믿지 말라" 하면 그들은 믿지 않았읍니다. 주후 325년, 살아 계신 참된 하나님에 관한 해석이 교회마다 분분하게 되어 니케아 종교 회의를 갖기까지에 이르렀읍니다. 이러한 무서운 암흑의 시대는 19세기까지 계속되었읍니다.

살아 계신 참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을 갖지 못할 때 "이 지상의 주민들에게 임할 재앙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자비로움으로 자신을 새로이 나타내 보이셨읍니다.

과거에 아담, 모세, 예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택하였듯이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는 요셉 스미스를 택하셨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손에 드셨을 때, 요셉은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잘 알고 있었읍니다. 천국에서 그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선택되어 말일의 회복을 가져 오는 예언자로서 성임되었던 것입니다.

1820년 어느 봄날, 성스러운 숲으로부터 나온 소년 예언자는 살아 계신 참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읍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담과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들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 인간과 마찬가지의 육신을 입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읍니다.

24년이 지난 후 요셉 스미스는 살아 계신 참된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간증을 그의 피로써 인봉하였읍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권을 받아 수행한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조직하였으며, 이 교회는 그를 통하여 살아 계신 참된 하나님을 온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할 성스러운 임무를 받았읍니다. (교성 68 : 8, 112 : 28 참조) 이것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이며, 온 힘을 다해 정진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교회 회원이나 비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몸소 나타내신 시현은 참된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의로움을 좇는 자에게는 개종자가 말했던 화평이

깃들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또 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른 신앙을 가져서 변화될 때 그 자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의 세계에 평화를 가져 오게 합니다. 개인의 화평의 열쇠나 국가의 화평의 열쇠는 살아 계신 참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신앙에서 옵니다.

다른 방법으로 화평을 얻고자 할 때에는 분쟁과 투쟁이 있게 되며 결국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멸망이 찾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화평을 얻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엘드리드 지 스미스 장로
교회 축복사

오늘 아침 저를 지지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부름의 책임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과 오늘 새로이 부름을 받으신 분을 포함한 모든 총관리 역원에 대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지지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그의 백성에게 예언자와 지도자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권고하게 해 주셨읍니다.

지상에 인류가 존재한 지 육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는 에녹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희는 오늘 너희를 지으신 주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하라"(모세서 6 : 33)

태초부터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회개를 외쳐야 했으며, 앞으로 구세주께서 천 년 동안 통치하시려 다시 지상에 오실 때까지 계속 인간에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묶이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을 통치하게 될 복천년 동안에 살게 되면 보다 쉽게 주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다음과같이 말하였읍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요한 계시록 20 : 1—3)

사탄, 악마, 루시퍼가 묶이고 이 세상은 매우 아름답고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천년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경전 여러 곳에 인용되어 있읍니다.

경전에는 사탄이 쇠사슬에 결박되어 무저갱(밑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나는 이러한 경전의 말씀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을 가두어 놓을 수 있는 쇠사슬과 무저갱을 실제로 상상할 수가 없읍니다.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란 오직 의로운 생활 뿐입니다.

천국에서 시작되었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이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결코 끝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을 결박하여야 했읍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 내셨으므로 사탄은 예수님께 그의 권세를 미칠 수 없었읍니다. 경전은 "마귀가…얼마동안 떠나니라"(막 4 : 13)라고 기록하고 있읍니다.

유혹이 더 이상 힘쓸 수 없을 때까지 견딜 때, 비로소 사탄은 그의 힘을 여러분에게서 잃게 되는 것이며, 여러분이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을 때, 곧 사탄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일례로써, 십일조의 법을 배웠을 때, 십일조가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고 전혀 유혹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때 여러분은 사탄을 결박한 것이 됩니다. 지혜의 말씀, 순결의 법, 기타 복음의 율 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그와 같은 분야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부터 점차로 사탄을 결박할 수 있읍니다. 복천년까지 구태여 기다릴 필요는 없읍니다.

먼저 개인이 시작하고, 다음에는 그룹, 그 다음에는 여러 그룹이 이를 행하게 되면 곧 온 세상이 의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복천년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이 지상에 복천년의 영광스러운 시기를 인도해 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과 열쇠가 회복된 것은 바로 이 이유에서입니다.

각 사람이 사탄을 결박함으로써 복천년 동안 존재하리라고 말하는 영광스러운 상태가 이 땅 위에 이룩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현될 수 있읍니다.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읍니다. 주님이 에녹에게 "너희는 오늘 너희를 지으신 주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렇게 하였읍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함께 대화도 나누었읍니다. 그는 회개를 외쳤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읍니다. 그의 시대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한 도시를 세워 거룩한 도시 곧 시온이라 칭하였더라." (모세서 7 : 19)

"에녹의 시대에 시온의 모든 날은 삼백 육십 오년이더라.

"에녹과 그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는 시온 한가운데 거하였더라. 때가 지남에 시온이 없어졌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품으로 받아들이셨음이라. 이로써 시온이 도망하였다하는 말이 세상에 퍼졌더라." (모세서 7 : 68—69)

몰몬경에도 비슷한 상태에 대한 기록이 있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미대륙의 주민을 방문하셨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와 왕국을 그들 가운데 세우셨읍니다. 몰몬경에는 그들이 약 이백 년 동안 의롭게 생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니

사 22절 참조)분명히 그 당시에는 사탄이 그들의 의로운 생활로 인하여 결박되었읍니다.

수세기동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탄을 결박하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읍니다. 이 대회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사탄을 결박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분들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여러분의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만드시기를 권고합니다.

에녹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적용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보라, 사탄이 인간의 자녀 가운데 와서 유혹하여 자기를 예배하게 한 연고로 인간은 육체와 육욕과 악마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문이 닫혔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에게 모든 인간이 회개해야 함을 알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음성으로 친히 우리 조상 아담을 부르시고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니,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또 인간이 육체로 있기 전에 사람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만일 네가 내게로 돌아와 나의 음성을 듣고 믿어 네 모든 범법을 회개한 연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의 독생자의 이름 곧 이로써 인간의 자녀에게 구원이 임하는 하늘 아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으면 너희는 성신의 은사를 받으리니, 모든 것을 그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다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하시니" (모세서 6 : 49—52)

이것이 곧 구세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주님의 왕국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열 처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읍니다. 다섯 처녀는 현명하여 준비를 미리 해 놓았으나, 다섯 처녀는 미련하여 준비하지 못하였읍니다. 열 처녀란 침례로써 주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준비를 갖춘 사람은 50퍼센트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은 준비를 갖추어 주님의 왕국에 거하게 될 50퍼센트에 속하겠읍니까 아니면 조금밖에 준비하지 못한 50퍼센트에 속하게 되겠읍니까? 아니면 왕국의 시민으로 헤아림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을 결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을 지으신 주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일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 지상에 건설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1970년 4월 6일 월요일 오전 모임 말씀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관심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이 저와 저의 가족,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여러분 앞에 섰읍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역사의 어느 때를 막론하고 자신의 일을 수행할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영감적인 지도력, 위대한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굳건한 손으로 실로 많은 축복을 받아 왔읍니다. 이제 그분은 이 지상에서의 과업을 끝내고 본향에서 다른 방법으로 봉사할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남아 있는 우리들에게 지상의 왕국을 이끌어 나갈 책임과 지도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니일 3 : 7)아는 우리들은 그의 지도와 지시로 이 일이 계속 번창하여 나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읍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힘만으로는 이 교회를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분은 머리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분의 이름과 신권을 가지고 있으며, 복음 의식을 집행하며 교회를 가르치고 그분의 일을 합니다.

그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을 선택, 성임하여 도구로 쓰시며, 그들이 노력할 때 인도하고 지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며, 종이 달성하는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그에게로 돌려야만 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인간의 일이라면 실패할 것이나, 이는 주님의 일이기에 실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간증에 용감하며, 모든 진리에 충실할 때, 주님은 우리와 교회를 인도하고 지시하여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은 모두가 성취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하나님으로 집약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며, 침례의 물가에서 그의 이름을 받아들였으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일에서 희열을 느끼며, 저의 영혼 속에 깃든 그것이 진리이며 신성한 것이라는 지식으로 넘치는 기쁨을 즐기고 있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는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머리로 삼아 지상에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게 하셨으며,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일이 참되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제 아버지 조셉 에프 스미스께서 교회 제6대 대관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그분은 자기의 헌신적인 보좌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교회에 관한 모든 일을 그들과 함께 의논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하셨고, 형제들 사이에나 주님 앞에서는 단결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저의 보좌에 관한 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늘의 영감을 받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들은 성신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며, 교회의 이익과 아버지의 자녀를 축복하는 일과 지상에 주님의 사업을 완전케 하는 일 이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해롤드 비 리 부대관장은 의와 진리의 기둥이며 참으로 위대한 영적인 힘, 통찰력, 지혜를 소유한 선견자이며, 그분의 교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그 어느 사람도 추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은 완전한 고결성과 진리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도량이 넓은 분으로, 특히 지도하고 충고하며 지시할 수 있는 관리 및 영적 능력을 축복받은 분입니다.

제가 두 부대관장을 두고 한 말씀은 십이사도 평의회와 기타 교회 총관리 역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들 형제에게 같은 힘과 능력을 주셔 교회의 지도자의 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일처럼 중요한 것은 없으며 아버지의 자녀 위에 그처럼 강한 영향력을 미칠 봉사와 책임의 위치도 없읍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참다운 형제 자매로 함께 일하는 우리들은, 앞에 놓인 막중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독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 중에 사랑과 조화의 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으며, 모든 교회에 속한 선의의 사람과 함께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현세적인, 영적인 복지를 위한 사랑과 관심을 표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인류라는 가족에서 형제이며 자매라는 사실을 잘 아는 우리들이므로, 이웃의 발전과 향상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세상 어느 곳에 있든 진실하고 선한 사람과는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주님의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축복하여 주셔서 통찰력과 영감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와 젊은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충고를 구하고 받아들이며,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교회의 역원과 교사, 그리고 회원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의로움 가운데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모든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 화평과 행복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랄 때, 이 모든 것을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함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 형제님들께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활을 주님의 영으로 축복하시고 다음에 올 영원한 세상에서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고, 충실하게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주님의 축복을 빌어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속하여 진리와 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영원한 왕국으로 영접하여 모든 예언자와 성도와 함께 기업을 받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성신권의 축복을 주시고, 이 신권의 부름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주와 함께 그의 왕국에서 영원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신 이 사실이야말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읍니까!

우리가 받은 이 신권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행하도록 이 지상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능이요 권세입니다. 이 신권은 오늘날 하늘의 사자가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부여하였읍니다.

1823년 9월, 모로나이가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주께서 말라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인용하였읍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예언자 엘리야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교성 2 : 1)

엘리야의 오심과 인봉 능력의 회복을 준비하기 위하여 1829년 5월에 침례 요한이 요셉과 올리버에게 나타나 아론 신권을 부여하였읍니다. 곧 이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와서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하였읍니다.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신전에 예언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지상에서 매고 하늘에서 인봉하기 위한 신권을 사용하는 능력인 인봉 능력을 부여해 주었읍니다.

그리고, 1841년 주님께서는 예언자에게 "충만한 신권"이 주의 이름으로 지어진 "전" 곧 신전에서만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이셨읍니다. (교성 124편 참조) 1843년에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신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은 방법과 같읍니다. 그것은 모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집에서의 모든 의식에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교회정사, 제5권 244페이지)

약간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에

는 관심이 없읍니다. 사도이건, 축복사이건, 대제사이건 무엇이건 관계없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집의 의식을 받지 않으면 충만한 신권과 충만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읍니다. 그러한 의식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높은 직책에 있다 하여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데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충실하게 생활하면 모든 축복이 장로인 여러분에게 인봉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성약을 지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읍니다.

충만한 신권이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에 승영이 있을 수 없읍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받은 사람은 성약대로 행할 때 승영에 이를 수 있읍니다.

인간 쪽에서 맺은 성약이란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생활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쪽에서 맺은 성약은 인간이 그의 약속대로 행할 때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며, 이 약속은 주님께서 반드시 수행하리라고 맹약한 약속입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들은 아직 이러한 대신권에 속해 있는 맹약과 성약을 받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권능과 능력이 있읍니다. 아론 신권은 앞으로 올 더 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예비 신권입니다.

집사로서, 교사로서, 제사로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봉사할 때, 여러분은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그 신권 부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경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론 신권은 천사의 성역을 베풀 수 있는 열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열쇠,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베풀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읍니다. 이들은 매우 큰 축복으로서 주님의 집을 통하여 승영에 이르게 하는 보다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길을 예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권의 축복은 남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아내와 딸, 그리고 교회의 합당한 여성에게도 주어집니다. 이러한 훌륭한 자매들은 주님의 집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고 교회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자신을 준비시킬 수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아들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은사와 축복을 딸들에게도 주셨읍니다. 이는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으며,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갖고 있으며, 여러분의 손에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승영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쥐어져 있읍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 곧 계명을 지키고,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며, 주님의 집에 가고, 아버지의 왕국의 충만한 축복을 받는 것 등을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 의의 대업을 위하여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데 열의를 다하여 헌신하고, 여러분의 신권을 활용하여 인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업을 돕고 그를 위하여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봉사를 소홀히 여기시지 않읍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으며 앞으로도 좋은 것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이라는 부를 저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고 번성하며, 신앙과 간증을 쌓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평의 영이 깃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 가운데서 신권을 행사하고, 모든 말일성도 사이에 완전한 일치의 정신이 깃들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론 신권 형제들이 이 험난한 유혹의 시대를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 주시기를 빌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두 계명을 지키고 성령을 동반자로 삼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 이 육신의 몸으로 지상을 사는 동안 주님의 사업에서 즐거움과 화평과 만족을 갖게 해 주시고, 앞으로 올 세계에서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평화를 위한 기도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회가 훌륭한 대회였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 들은 좋은 말씀들을 소중히 간직할 때 우리에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훌륭했던 교회의 총회를 마치는 순간에 서 있읍니다. 우리는 모두 손을 모아 새로운 대관장단을 지지했읍니다.

우리는 성령의 선한 은혜를 나누어 갖기 위하여, 주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감화를 받기 위하여, 그리고 신앙과 간증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읍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며 그분에게로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뜻에 헌신하고자 이곳에 모였으며 “너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기라.”(교성 59:5)고 말씀하신바 주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다짐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대회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사업을 수립하기 위하여

새롭고 감동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힘과 영향력을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려는 결심을 가지고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나갈 준비가 다 되었읍니다.

자, 우리 주께서 주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 : 16)는 말씀을 깊이 새겨 둡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애써 소망하는 사업은 반드시 성공하며, 주님의 영원한 목적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앞으로 뻗어 나가리라는 확신과 축복을 여러분께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와 모든 사람에게 함께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늘의 의와 진리가 이 세상에 쏟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오! 방방곡곡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 주님의 종들로부터 나오는 빛과 진리의 말씀에 유념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모든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목적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신앙이 강건하여지고, 그들의 심령이 의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전하며, 그리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의 회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진실한 모든 원리들을 지지하며, 자유와 정의의 길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과 같이 어수선하고 어려운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도되어 인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슬퍼하는 자에게,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 함정에 빠져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자에게, 그리고 도움과 원조가 필요한 자와 원군이 필요한 자와 지혜와 그분 혼자만이 줄 수 있는 선하고 위대한 일들이 필요한 자에게 모두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같이 저는 지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과 연민의 정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도합니다. 즉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분에 관하여 배우며 그분의 멍에를 메면 마음이 쉼을 얻게 됨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인즉, 이는 그분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운 까닭임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 11 : 29—30 참조)

저는 말일성도와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과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부탁을 겸손과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읍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신앙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 형제님께서 나의 주제를 앞서 소개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의 기록을 인용해 드리겠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야고보서 1 : 5—8)

어린 소년이었던 현대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당시 개혁자들이 가르치는 모순되는 교리에 가족들이 영향을 받게 되자 그의 신앙도 시험을 받게 되었읍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경전의 약속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읍니다. 그리하여 열심히 간구한 결과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그리스도 교회를 회복하게 되었읍니다. 이 경전의 약속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행 10 : 34 참조)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와 빛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다 이 약속이 적용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신앙은 행함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일상 생활에 적용하고 훌륭한 일을 수행할 때 나옵니다. 지혜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졌으나 지혜가 없다면 균형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고성능 엔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게 해 주는 촉매입니다.

말일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권고하셨읍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 : 118)

기도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없이 어찌 지혜를 얻을 수 있겠읍니까? 우리의 신앙을 끝없이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심해야 한다면,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조건 준행하고 있읍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닌다는 것은 구체적인 원리를 일상 생활

에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읍니다.

담배를 습관적으로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기로 작정하였읍니다. 그의 주변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대단한 결심이 필요했읍니다. 처음에는 가냘픈 의지로 자신의 결심을 실천했읍니다.

조금 지나자 그는 유혹에 대해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유혹에 굴하지 않고 결심한 대로 생활했읍니다. 자신의 결심을 지킨 것에 대한 만족을 얻게 되었읍니다.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읍니다. 이제는 원리가 그의 앞에 있고 그 원리대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확신을 가지고 "원리라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재평가해 볼 필요가 없어졌읍니다. 이제는 생활의 방법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보인 예는 경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예도 그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제사지낼 준비를 갖추고 이삭을 데리고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제단을 짓고 이삭을 바치려 하였읍니다.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렀읍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세기 22 : 12)

또 다른 예를 노아에게서 찾아볼 수 있읍니다. 그는 백성들이 사악하여 주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시던 시대에 살았읍니다. 경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창 6 : 8)

다가올 멸망에 대한 경고에 대하여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권고를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게 믿음으로써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읍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걸으실 때, 베드로는 흔들리는 신앙을 보였읍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마태복음 14 : 30—31)

참된 신앙이 깃든 마음에 의심이 생겨날 수 없듯이 빛이 가득한 방에 어두움이 있을 수 없읍니다.

흔들리는 영혼과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의 비유는 많은 사람의 생에 영향을 주었읍니다. 우리들은 모두 잔잔한 바다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때때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무서운 힘으로 밀어 닥치면서 큰 피해를 입게 하는 바다도 보았읍니다. 이것과 사탄의 요동을 비유할 수 있읍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고 주님이 곁에 계실 때 사탄은 그의 힘을 뻗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 교리와 인간이 만들어 낸 원리와 궤변의 물결에 흔들리고 미혹될 때, 우리는 불신앙에 빠져들기 쉽고, 주님의 영이 우리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어 나가게 됩니다. 미혹받아 흔들리는 영혼은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도 죄를 범한 사람은 진실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영혼이 정결케 되고 범법에 대한 사유함을 얻게 될 때까지는 사탄의 시달림을 받게 됩니다. 신앙으로 새로와진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범하던 시기가 가장 불행했던 때였다고 증거하고 있읍니다. 자신의 범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강하게 할 수 있었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의 가르침에서 이탈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이 지속된다면 멸망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조롱당하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사악한 사람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로부터 현대의 예언자에게까지 이러한 사실을 계시하셨읍니다.

불안과 좌절, 그리고 복음의 원리와 규범을 파괴하려는 악의 세력이 만연한 오늘날, 청소년의 부모나 교사, 지도자들은 올바른 지혜와 판단력으로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 : 6)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청소년 시절에 이러한 신앙을 키웠읍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킬 때 주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 믿었으며 진실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을 찾고자 원하였읍니다.

너무나 많은 청소년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되지 않는 가르침을 학교와 그밖의 다른 곳에서 배우고 있읍니다. 사회는 그들에게 스스로 찾아보도록 자극을 주며, 이것을 해 보게 하고 또 저것을 해 보게 충동질하고 있읍니다. 이리하여 청소년은 이완된 태도를 갖게 되고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교성 88 : 63)

이것은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일시적인 기분을 따르는 것이나 해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나 부도덕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흔들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악마의 하수인이 하는 감언이설에 쉽게 미혹당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성령을 잃고 곧 암흑에 빠져 결국 진리와 의에 대한 배도의 길을 걷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의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히 10 : 23)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마음을 의로 무장시키고, 죄악을 버리며, 우리의 영혼을 깨끗케 하여, 우리를 파괴와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교리와 달콤한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현명하고 허영심이 강하고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을 뿐입니다. (고전 3 : 19 참조)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와 성신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학문을 닦아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기 만족감은 때때로 인간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식이 오게 된 원천을 잊게 만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잊고는 생존할 수 없읍니

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버릴 때 불의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옳은 길이며 어떠한 길을 따라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기도로써 지혜와 인도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의 응답을 듣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그러나 진실된 정신과 태도로 간구해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 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과 기도로써 위안과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주제 인용의 마지막 성구는 흔들리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읍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약 1 : 8)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주셨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태복음 6 : 24)

지혜가 부족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으로 구할 때, 우리의 몸은 만사를 이해하는 빛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교성 88 : 67 참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마의 세력 앞에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았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책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셨읍니다.

우리는 모두 구세주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도움으로써 구원과 승영과 영광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 : 6)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는 데에는 다른 길이 없읍니다. 구세주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 : 33)

사도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현명하게 권고하였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베드로전서 5 : 6, 8—9)

오늘날과 같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 있는 그리스도 복음의 길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요동하는 군중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약의 방주를 그만 지으라고 외치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리고 있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은 생명의 피로써 하나님의 말일 사업이 참되다는 간증을 결봉하였읍니다. 그들의 순교는 히브리인에게 한 바울의 말씀을 성취시켰읍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 : 16—17)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알고자 원하는 모든 사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획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야고보의 약속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따스함을 느끼게 되거나 마음의 화평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다시 인용해 드리겠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항상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충실한 자가 되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나는 복음은 참되며, 구원으로 이끌어 주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압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며, 교회는 나라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준비시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순종의 축복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이처럼 아름다운 안식의 아침에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과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들에게 대관장단을 대신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게 된 것을 특권임과 동시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구세주를 받아들여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킬 준비를 갖춘 사람에게는 희망과 약속을 안겨다 주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였읍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한복음 10 : 10)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 : 25~26)

그분은 이런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읍니다.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 : 39)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며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계획을 마련해 주셨읍니다. 말일에는 이러한 말로 설명해 주셨읍니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성 130 : 20—21)

우리들 모두는 오늘날의 상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자기 개인의 삶에, 사회에 또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읍니다. 오늘날이 무법, 방탕, 폭동의 추세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일상의 대화를 뉴스 메디아가 지나치게 다루고 있음에 혐오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그에 좇아 사는 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나쁜 원인을 제거하며 제반 조건을 개선하여야 하겠읍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행복과 향상된 삶이라는 점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순종의 축복이라는 점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말씀드리는 동안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 : 22) 또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하겠읍니다. (신앙개조 제3조)

바로 며칠 전 어떤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전 '이것 해라, 저것 해라'는 말에 진저리가 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택하기를 원하거든요"라고 거침없이 말하였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자네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한 원하는 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지. 그러나 자네는 스스로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네."

주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의 세 가지는 첫째 불사불멸과 영생의 권리요, 둘째 이를 얻을 수 있는 계획, 세째 인간이 자기의 행동을 선택하는 자유 의지라고 설명해 주었읍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지상에 사는 동안 최대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영생을 준비하게 하는 계획을 주셨읍니다.

저는 이 젊은이에게 신분이나 학식이나 의지에 관계없이 만인에게 적용되는 변경할 수 없는 확고한 자연 법칙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자고 제언을 했읍니다. 만일 사람이 의식으로나 무의식으로, 또는 고의로나 우발적으로 과열된 난로나 고압선에 접촉한다면 화상을 입든지 감전사하든지 합니다. 그리고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뛰어들게 되면 사람들이 생명을 구출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는 다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신분과 의사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러한 자연 법칙에 예속되어 있음을 예증해 주는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변경시킬 수는 없읍니다.

자연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칙을 깨뜨리면 고통을 받으며 그것을 순종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태양이 떠오르며, 전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항상 같은 조건 아래서 똑같은 반응을 보여 주고, 태양이 일년중 일정한 날 일정한 시간에 달에 의해 일식을 하는 까닭은 자연의 법칙이 결코 변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자연 법칙에 의존하고 있음을 아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닙니까? 기사, 의사, 과학자가 자연 법칙에 의존할 수 없다든지 자연 법칙을 무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은 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읍니다. 실제로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자연 법칙이나 나라의 법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인간에게 위안, 기쁨, 안전, 안녕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율법을 배워서 그 율법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 이와 같은 유익을 즐기는 일을 결정하는 책임은 개인에게 달려 있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율법은 우리들 인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과 행복과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활동에 관계되는 율법과 법칙에 순종해야 되고, 이러한 율법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기쁨과 안녕을 가져다 주거나 손실과 슬픔을 안겨 주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밝혀 주는 데에 있읍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연 법칙 즉 물리, 화학, 중력의 법칙이 가장 세부적인 면에서까지 준수되어져야 했고, 기타 이에 관계되는 법칙을 비행을 준비하는 일에 종사한 관계자들이 이해하고 응용하지 않으면 안되었읍니다. 그들은 이러한 법칙을 제한이나, 장애물로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계획을 달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여 가능한 성공을 좌우하는 모든 법칙을 배워 그들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법칙을 순종하고 응용했읍니다.

우리의 생애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음악가나 운동 선수가 되기 위해서, 또는 학위를 얻거나 가치있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하고 싶은 일과 달성하고자 하는 일을 결정하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을 가능하게 해 주는 율법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성공의 길을 걷게 되고, 그 반면 율법에 버티며 순종을 거부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는 좌절하여 반항을 시작하며 달성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같이, 우리가 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가 그 법을 존중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제로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법은 적용되며 우리 행동이 결과를 결정해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을 준비하지도 않으며,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을 준비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법을 인간에게 유

익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순종한다면 법은 우리의 건강, 복지, 행복에 큰 공헌을 할 것입니다. 법은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도시, 사회, 주, 정부나 국가에 법과 규칙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요. 법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법을 경시하게 되면, 자신의 자유를 상실하고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독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법이 존재하면 국민은 통치기구를 통하여 법을 개선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것이 법으로 존재하는 동안은 그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에 있어 우리가 바라는 삶의 방법이나 환경은 우리들이 결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의 동물적 본능이 지배하는 식인종의 풍습을 갖고 생활하는 인종이 밀림 지대에 살고 있읍니다. 그곳에는 밀림의 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의 방법이라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러한 동물적 본능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사회 관계에서 인간 행동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데에 있읍니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기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생활에 적용한다면 사회 조건과 상호 관계를 향상하게 해 주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읍니다. 만일 우리들 모두가 이 율법에 순종하여 산다면, 오늘날같이 격동하는 상태는 없을 것이며, 현재처럼 젊은이들이 사회가 가르치는 바를 실행하지 않는 반사회적인 시위를 할 하등의 이유나 요구나 욕망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시대에 적용되었고, 그 후 그리스도에 의해 가르쳐진 십계명 중의 몇 계명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너희는 도적질, 살인, 탐욕, 간음, 거짓 증거를 하지 말찌니라."는 계명을 순종한다면 우리는 집이나 재산을 지키지 않고 그냥 방임한 채 어느 때라도 외출할 수 있을 것이며, 도적이나 강도에 대한 공포도 없을 것이고, 생명을 빼앗아 갈 사람이 나타나리라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가정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 중상, 모략, 간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사회에서 누리는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화평스럽고 행복하게 살며, 상호간에 힘과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법의 집행과 범죄 처리에 사용하는 비용을 저축하여 이런 돈으로 가난을 퇴치하고 보건과 교육 시설을 개량하며 다른 가치있는 목적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받는 세속적인 축복은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또 다른 중요한 계명은 지혜의 말씀이라 불리우는 주님의 건강의 법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모든 가정에서 모범과 교훈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보면 담배, 술, 기타 인체에 해로운 것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읍니다. 저는 이 속에 약의 사용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강의 법은 1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으나 과학자들의 경험에 의해 이러한 것들이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해독을 주는 것임이 입증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도 이 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여 모험을 꾀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용하면 가정의 파탄, 육체와 영을 병들게 하고, 재산의 탕진, 비참, 고속도로에서의 사망, 기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수많은 비극을 초래하고 있고, 이는 사회와 입법자나 법의 집행자나 우리들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읍니다.

어느날 저녁, 국내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읍니다.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는 69년도에 두 배로 증가했음." 자동차 사고로 죽는 자의 26퍼센트가 음주후 운전으로 발생했읍니다.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한 저명한 인사는 45세에 폐암으로 사망했읍니다. 그가 공식 석상에서 "신경 쇠약자"가 되는 것보다 도리어 담배를 조금 피우며 모험을 한다고 말해 왔었읍니다. 그러나 그는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자 금연을 했던 것입니다.

조그마한 담뱃불로 인한 호텔 화재는 14명의 생명을 빼앗았고, 어떤 빌딩에서는 담뱃불로 만 불의 재산 피해를 입었읍니다.

마리화나의 해독은 너무나 끔찍하며 환각제는 젊은이를 소경으로 만들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과 젊은이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러한 악독하고 유독한 마약을 사용하는 것을 제지해야 하고 가능한 한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주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신 크고 영광스러운 약속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나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 : 18—21)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중요한 계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아무일도 하지 말라."(출애굽기 20 : 8—10)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교리와 성약 59 : 9)

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대하는 말을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율법이며 그리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율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일 이 율법에 순종하면 많은 축복을 얻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율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예배와 연구를 통해서 복음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에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 : 3)라고 하셨읍니다.

분명히 우리는 7일중 하루는 창조주를 생각하고 영적인 양식을 취하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고 자녀들에게는 경건과 순종을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또 그렇게 할 수 있읍니다. 우리가 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훈의 하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마 4 : 4)는 주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은 현명한 말을 했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편리한 방편으로 생각하여 이를 무시하거나 제멋대로 다루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요, 자기들의 부나 무기의 힘과 세력의 강대함을 믿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는 화를 입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 어떤 문화도 영속할 수 없고 단일 국가이거나 연합 국가이거나 간에 오래 존재할 수가 없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 : 33)고 하신 주님의 훈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욕구나 쾌락을 만족시키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도 없으며 이날의 축복도 즐길 수가 없읍니다. "물질적인 것에는 타락한 영혼을 구제할 힘이 없다. 세상의 부도 상한 심령을 치료할 수 없고 대학의 지혜라 할지라도 이탈하여 방황하는 영혼을 의의 길로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한 말은 참으로 진실합니다.

우리들이 기도의 집에 참석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교육을 교회에만 일임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첫째되는 크고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 : 25, 28)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하도록 가르치려면 우리들 부모는 그들에게 산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뜨려서 벌을 받는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나 율법에 대해서 존경과 순종을 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에 의심을 품으면 반드시 자녀들의 마음 속에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게 해 줍니다.

우리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우리가 표리부동한 신조를 가르치고 이대로 생활한다면 자녀들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 : 12)는 계명에 순종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읍니다.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 계명을 지키도록 순종을 배운 자녀들은 성장하여 감에 따라 부모들을 공경하고 부모들에게 자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또 자기들에게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되며, 생의 기쁨을 찾고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나아가서는 오늘날 세상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단한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와 의를 가져 오게 하는 책임을 지닌 미래의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게 하는 책임은 부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셨읍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 : 37—40).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 이 지구를 지상의 낙원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교성 59 : 23)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며,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계명을 지킬 때에, 이 지상에서는 큰 기쁨 얻을 것이며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간증드립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신권의 능력과 영향력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이 모임과 대회 전체를 감리하시는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나에게 이 모임을 사회하도록 부탁하셨으며, 또한 이 저녁에 말씀을 하도록 부탁하셨읍니다.

나는 항상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권 소유자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오늘 저녁에 들은 아름다운 노래와 훌륭한 말씀 역시 나에게 기쁨과 영감을 더하여 줍니다.

신권은 만물을 창조한 능력이며, 오늘 저녁 반덴버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신권이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직분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위임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권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축복이요 특권이며, 책임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청소년 중에는 자신의 생활 태도나 행동에는 관계없이 합당한 연령에 달하게 되면 집사, 교사, 제사의 신권에 성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들은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신권을 받는 사람은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몇 가지 성구를 읽어 드리겠읍니다.

"보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택함을 받지 못함은 무슨 연고뇨?

"이는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고 또 인간의 영예를 갈구함이며 이 한 가지 교훈을 배우지 아니하였음이니,

"곧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

"이 권능은 우리에게 수여되는 것이니, 이 또한 사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과 헛된 야망을 채우며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인간의 자녀를 지배하며 통어하며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하시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위는 아멘이니라

"보라, 저는 깨닫기 전에 홀로 있게 되어 가시를 걷어 차며 성도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도다." (교리와 성약 121 : 34—38)

신권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신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점차로 신권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교회 활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사람들의 예를 많이 보아 왔읍니다. 그 결과, 한때는 매우 활동적이었던 사람들이 간증을 잃게 되고 주님의 영이 그로부터 멀어지며, 신권의 권능을 비판하게 되고, 성도를 핍박하며 배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네게로 흘러들어가리라."(교성 121 : 46) 이 말씀은 우리가 신권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신권의 맹약과 성약을 여러 차례 읽고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임이라.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교리와 성약 84 : 33—38)

이러한 축복은 일상 생활에서 신권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읍니다.

"이것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의 아버지의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나니, 아버지께서 이를 깨뜨리실 수도 없거니와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 성약을 받아들인 뒤에 이를 깨뜨리는 자는…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리라."(교리와 성약 84 : 39—41)

주님께서는 그의 성약을 깨뜨리실 수 없으나, 우리가 우리의 성약을 깨뜨리면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

"무릇 게으른 자는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고 신임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자도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교리와 성약 107 : 99—100)

"그러므로 너희가 끊임없이 나의 선을 행하며 이방인의 빛이 되며 이 신권을 통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교리와 성약 86 : 11)

오늘 여러 형제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세계는 고난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것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여러 형제님들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권을 영화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가 그들의 신권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때 온 세상에 미치게 될 영향을 여러분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신권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때, 모든 문제를 안정시키고 견고하게 하는 영향력과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모든 아내와 어머니는 지침과 힘과 인도를 주는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남편을 존중해야 할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읍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이러한 지침과 안정성과 힘을 줄 수 있도록 자신의 신권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신권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평화롭게 할 때 주님은 그의 가족 앞에서 그를 영화롭게 만드시며, 그의 선한 영향력을 가족이 느끼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청소년에 대한 책임이 있읍니다. 모든 자매는 12세 이상의 모든 신권 소유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며, 신권 소유자로부터 신권이 무엇이라는 산 모범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신권 소유자로부터 힘과 권고와 지침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사귀고 있는 젊은 신권 소유자에게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사귀는 남자가 신권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때, 여성은 그 사람이 자신의 여성다움과 여성의 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라도 희생할 수 있는 남자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가 사귀고 있는 남성은 신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유혹을 받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받은 편지의 한 대목을 읽어 드리면서,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고 신권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

읍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하나, 그대로 실천할 힘과 용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대로 생활함으로써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력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보다 나은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는 나와 친분이 두터운 로스앤젤레스의 변호사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나에게 써 보냈읍니다.

"요즈음은 정신없이 날이 지나가는 것 같네. 산더미같이 쌓인 법률 문제를 집행하느라 온 정신을 다 쏟고 있는 형편인데, 아주 특수한 사람을 상대로 대하게 되었지. 젊은 청년으로서 보기 드물게 훌륭한 성품을 지니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고결한 성품을 보인 청년의 경우를 방금 마치게 되었다네. 우연한 기회에 그 청년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헌신적인 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다지 크게 놀라지 않았다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그가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있는 청년은 법정에서의 상대자였읍니다. 나는 그 청년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내가 그 청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우리가 신권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올바르게 생활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말해 주고 있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1970년 10월 대회 말씀

—제 140 반연차 대회 보고—

1970년 10월 2일 금요일 오전 모임 말씀

가족의 강화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는 인간으로서 세 곳에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하고 가족에게 충성을 바쳐야 하고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족의 유대를 튼튼히 하자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이곳에 왔읍니다.

"구원은 가족의 단위로 행해져야 하며……그러므로 가족의 단위는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조직이 된다."고 한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크게는 가족을 돕기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그러한 사명을 교회는 이미 오래도록 이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훌륭한 아버지나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것이 훌륭한 장군이나 정치가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누구든지 사업이나 기타 세상적인 쾌락의 추구에 자기 가정에다 쏟는 정열보다 더 큰 정열을 쏟는다면 그 시간부터 자기의 영혼을 약화시키게 된다."

또 이 점에 관해서 바로 어제 해롤드 비 리 장로께서는, "교회는 각 가정이 가정으로의 거룩한 사명을 이행하도록 더욱 잘 협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교회의 역사가 있은 이래 오늘날과 같이 유혹과 위험과 교회의 성도들을 의와 의무의 길에서 실족시키려는 온갖 술수가 창궐했던 때는 일찌기 없었읍니다."(스스로 주의하라, 127페이지) 이어서 그는 "세상은 점차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악이 증가되고 있을 뿐"이라고 하셨읍니다. (같은 책, 207페이지)

악마의 결속이 이토록 정연했던 때가 없었으며 오늘날처럼 악마가 무기로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마련되었던 때는 없었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지키고 강화하는 데 우리의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적도 "가정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인생과 진리, 명예, 덕성, 극기, 교육의 가치, 정직한 일, 인생의 목적과 권리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일의 처소가 된다. 자녀를 가르치고 기르는 데는 가정보다 더 훌륭한 장소는 없으며 만일 가정에서 실패하는 경우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얻는다 하더라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는 없는 것이다."(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1968—69 가정의 밤 교재 서문 중에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가정을 파헤치려는 시도가 어느 때보다도 무섭게 작용하는 가운데 악마는 가정에서의 가장인 아버지의 지위를 파괴하려 하고 자식들에게는 반항의 불길을 부채질하기에 여념이 없읍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몰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 백성의 학대자가 되며……"여러분은 특히 위정자들이 산아 제한이나 가족 계획을 열심히 권할 때 다음과 같이 계속되는 경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백성들아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너희로 그릇 행하게 하며 너희 길을 헐어버리게 하리라." (니이 13 : 12) 특별히 자매들께 강조하거니와 여러분이 만약 인공 유산을 한다든가 건강한 아기를 더 갖지 않도록 수술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승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하나님 왕국에서의 거주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의롭게 길러야 할 직접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며 부모는 이 책임을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교회나 학교 기타 다른 단체에 위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부모가 되시는 여러분, 자녀를 너무 자유롭게만 길러서는 안됩니다. 마음껏 활개를 펴게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저들이 언제 진리와 의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지를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나 한 시간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지켜봐야겠읍니다. 여러분의 보살핌과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읍니다. 복음의 정신과 신권의 정신으로 따뜻하게 다스리되 진정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바로 다스려야 하겠읍니다." 부모가 너무 호락호락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망대에 올라선 파수꾼의 입장에서(왕하 9 : 17 참조) 여러분께 경고하고자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잘못 인도하고 가정의 단위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매개체가 교육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그릇된 교육 이상은 교회 회원을 가장 무섭게 위협하는 3대 악의 하나로 지적한 바 있었읍니다.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집에서 가까이 있으며, 신학원이 있는 대학에 다니라고 권고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자녀들과 좀더 친숙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만일 자식을 둔 부모로서 작년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권고하신대로 따랐다면 지그문드 프로이드나 찰스 다윈이나 존 듀우이나 칼 막스나 존 키니같은 인물이 부르짖는 주장의 허실을 똑바로 자녀에게 지적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대학 과정을 완전히 끝내주지 못하는 것도 물론 자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못된 일들은 우리들의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초도덕관이나 파괴에 관한 이념에는 별로 신경을 안쓰는 학교 당국자들의 무성의로 일어날 수도 있읍니다.

칼 지 메이저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의 자식을 천연두나 장티푸스나 콜레라나 다른 질병에 감염되도록 버려둘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부패한 교사의 못된 영향을 받게는 할 수 없읍니다. 무식하더라도 결백한 선생이 낫지 불순하고 위대한 철학가는 질색입니다."

통신 강좌나 직업 교육 혹은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의 모색 등이 점점 더 자식을 가진 부모의 관심을 끌게 되었읍니다.

현재 브리감 영 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사립 대학교입니다. 부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브리감 영 대학에 자녀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읍니다.

자, 자녀가 어떤 학교에 다니거나 간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를 가까이에서 지키고 가능하다면 매일 대면하여 만사를 확인하며 학교에서 그날 배운 것이라든지 교과서 내용까지도 함께 살펴보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공립학교 "과학" 교과서에 넌센스를 취급하지 않은 책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읍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32페이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녀와 함께 자녀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검토하고 거짓된 것을 배웠을 경우 함께 진리를 탐구했던 훌륭한 아버지 한 분이 계셨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내용을 문제로 하는 시험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의 권고대로 답안을 쓰기 전에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이라든가 "교과서에 의하면"이라는 전제를 하는 편이 좋겠읍니다.

최근 어떤 부형이 학교 교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신문에 공개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읍니다.

"우리 아들 ________에게 보호자의 허가 없이는 여하한 형태의 성 교육, 인체의 생리적 발달, 태도 개선, 자기 이해, 개인 생활 및 가족 생활, 집단 치료, 감각 훈련, 자기 비판 혹은 이에 따르는 여하한 류의 학설도 우리의 서면 승락서 없이는 가르치지 말아 달라고 통보해 드립니다.……

우리는 학교 당국자의 방해나 상반되는 견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식을 지킨다는 부모의 권리를 발동하여 우리의 자녀에게 도덕의 원칙이라든가 성교육의 제문제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은 감각 훈련, 집단 치료, 자기 비판 등의 일반적인 개념을 배우게 되었으며 이로서 도덕의 표준을 저하시키고 자립 정신 대신에 의존심을 기르게 되었으며 'HARD CONSENSUS'라는 집산주의 이념에 물들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그에게(아들) 말하기를 위에 열거한 강의를 피하고 이 편지에서 경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읍니다."

사탄이 말일에 가족의 단위를 파괴하려는 것을 주는 이미 아셨읍니다. 주는 세상의 법이 도색 문학류도 용납하리라는 것도 아셨읍니다.

이미 반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에게 영감으로 명하사 일 주에 한 번씩 성도들이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갖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으로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가진 가장이 그 임무를 이행하는 데 큰 힘을 덜어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가정의 밤 순서를 일 주에 한 번 이상씩 갖는 성실한 가정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영의 지시에 좇아 교재의 내용에 새로운 것을 더하기도 하고 또 들어 있는 것을 빼내기도 합니다.

가족을 지키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의 가정의 밤 프로그램은 (일 주에 하루)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한자리에 모이게 합니다. 기도와 찬송가, 때로는 다른 노래를 함께 부르고 경전을 읽고 가사를 의논하고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때로는 함께 놀이도 하고 집에서 만든 간단한 간식을 나누고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정의 밤 순서를 갖는 가정은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권고에 따를진대 큰 축복을 보상으로 얻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가정에서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존경이 커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의 마음에는 신앙이 굳건히 자리잡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들을 위협하는 악의 영향과 유혹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1915년 4월 27일, 임프르브먼트 이라 18권 734페이지, 대관장단)

자, 그러면 오늘날의 젊은이를 위해서 어떠한 오락이 준비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저속한 잡지나 저속한 음악판을 끌어 들임으로써 가정의 분위기를 저속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개의 저속한 음악은 도덕의 문란과 중독, 혁명, 무신론적 사상, 허무주의 등을 은폐된 언어로 그리고 있으며 많은 부모들이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속한 음악의 내용을 아는 부모는 도덕의 표준을 저하시키고 시끄러우며 난잡하여 감각과 이지를 마비시키는 이것을 말리려 할 것이며 젊은이의 내부에 원시의 불길을 붙이려는 소위 정글리듬도 경계하게 할 것입니다.

부대관장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소위 근대 예술, 근대 문학, 근대 음악, 근대 연극 등이 완전히 우리의 도덕의 표준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여러분이 잠시 깊게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둠둠하는 것이 정글 음악이라는 것을 겨우 아는 입장에서 음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뭣합니다만 정글 음악이 그 이상의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

여하튼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경계하여 이러한 것이 우리의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읍니다.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천국에 속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1952년 12월 상호부조회지, 798페이지)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들의 표준을 원래의 높은 표준으로 지키고 있읍니까, 아니면 적당히 절충하여 형편없이 낮게 하여 지키고 있읍니까? 여러분의 상향회 교실에서 갖는 음악이나 무용이 사랑스럽고 덕스러우며 칭찬할 만하고 선한 것입니까[1], 아니면 근대의 소돔을 연상케 하는 짧은 스커어트와 시끄러운 박자와 휘황한 전기불과 어둠의 배합입니까?

우리의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 과연 어린 존 웨슬리에게 일러 주신 그 어

1. 신앙개조 13조 참조

머니의 권고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들어봅시다.

"너는 기쁨이나 쾌락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판단하겠느냐? 그렇다면 다음의 규칙에 따르거라. 만일 어떤 것이 너의 판단의 능력을 둔화시키거나 양심의 부드러움과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을 방해하거든 곧 하던 일을 멈추고 영적인 자세를 가다듬어 보아라. 의지의 힘을 꺾을 만큼 육체의 권세가 비등할 때 비록 그것이 네게는 고지식하게 보일지 몰라도 바로 그것이 죄가 되는 줄 알아라."

과연 우리는 모로나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였읍니까? (모로 8 : 38) 교회의 보조 조직과 신권의 보조 조직은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읍니다. 꺾어진 십자가나 반기독교를 뜻하는 표지나 소위 "평화 운동"의 상징이라는 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없읍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호세아는 탄식하였읍니다. (호 4 : 6) 오늘날 일부의 부모들이 교회에서 전하는 권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녀에게 전하지 않는 까닭에 저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점차 파멸되어 가고 있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과 악을 구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파괴하려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며 그것을 제거하는 법과 처리하는 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는 우리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려야 할 시간이며 자녀의 마음은 부모에게 돌려져야 할 시간입니다. (말 4 : 6 참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을 맡은 부인이 집 밖에서 일함으로써 종종 이혼의 씨가 심어지기도 하고 자녀의 축복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직장을 가진 어머니들은 자녀가 돈보다는 어머니를 더욱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고 있는 만큼 가족은 서로 더욱 유대를 긴밀히 해야 할 것이며 가족의 결속을 시급히 이루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가정의 것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유혹이 오늘날에는 너무 많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사 사랑하고 가르치고 부양하도록 하신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너무 빈번한 사회 활동으로 인하여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 안다."

자 그러니 가족의 결속을 강화합시다. 온 가족이 아침 저녁으로 개별적으로 그리고 함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줄 것입니다.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순서를 정하여 가령 경전을 특히 몰몬경을 읽는다던가 하루의 일과를 보고하게 한다면 그 식사 시간은 육신을 먹이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영도 먹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쁜 아버지로서는 밤—자는 시간이 자녀의 침대를 찾아가 만나는 아주 적절한 시간이 되며 이때에 개별적으로 잠시 이야기해 주고 질문에 답해 주며,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는 가정에는 소위 "세대의 차"라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대의 차"라는 어휘는 가정의 결속을 파괴하려는 사탐이 도구로 사용하는 어휘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가정을 안전한 안식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고상한 길을 따르고 악마의 간계를 물리침으로써 가족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때가 이르러 우리 온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동생으로서 하나님의 승영의 집에서 만나 사랑하는 서로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모두 집으로 돌아왔고 그리하여 결상이 모두 찼읍니다라고 이야기하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했읍니다. 아멘.

올바른 삶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스미스 대관장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세계 도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여러분. 나는 훌륭한 젊은이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세계 도처에서 인생의 길을 찾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과 그들의 마음 속에 감명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여러분들의 신앙과 기도 때문일 것이며 나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자기 딸이 재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주어지는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늘 걱정하던 중에 하루는 초조한 마음으로 딸을 흔들면서, "내가 너를 낳아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 너는 그 생명을 가지고 무언가 하여라!" 하고 말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노라. 이제 너희는 그 생명으로 무언가 하여라. 그 생명을 최대한 활용하여라. 나는 너희에게 시간과 예지와 기름진 땅과, 그리고 거기에서 산출되는 모든 것을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그것을 잘 활용하라."

'난 모르겠다, 이제 그만두지,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태도로 배움에 냉담하고 노력을 태만히 하여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기회를 놓치며 창조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낭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확고한 지침의 하나는—이것은 불안정감과 저항감 그리고 욕구 불만 등을 해소시키는 방편도 되는 것인데—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든지 언젠가는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그 생명을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리라는 것을 인식하고(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인식한 것보다 더 자주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일깨우고 계시지만) 우리의 능력을 최선을 다하여 발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첫 조상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창 3 : 19)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창 3 : 17)라고 말씀하시어 일하고 수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수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원칙이며 특권이며 축복이지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며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불안정하고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는 상당한 이유가 여가를 즐기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일을 경시한 나머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뜻있는 임무를 맡아보지도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여전히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아주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젊은이나 노인이나 누구건 간에 좋은 일을 이룩하는 데 한 몫을 담당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기가 해야 할 보람되고 뜻있는 일이 없다면 공허감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대체로 어떤 일의 결과만을 보지 어떤 사물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가 상점이나 시장에 갈 때 그 식료품이나 상품이 나오기까지의 노고, 즉 밭갈고 씨뿌리고 길러서 생산해 내는 노고를, 또한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치룬 대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일들을 모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흥미로운 일 뿐만 아니라, 판에 박힌 듯하고 지루한 일도 누군가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면에 관해서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읍니다. 생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임금을 지불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또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저축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빚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깨워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산적이고 건전한 일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 영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그런 사람들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법칙이 있읍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준이 있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떤 합리화도 그러한 것을 변경시킬 수 없읍니다. 미덕은 여전히 미덕이며 악은 여전히 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이론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단언하고 싶읍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나는 이 세계가 무한의 예지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한 바 있읍니다. 그는 또 "이 세계는 신의 예지로 창조되었으며 그것이 운행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신의 예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그것은 마치 수학과도 같이 정확하다."라고 말했읍니다.

4계절이 오고, 햇빛이 비치고, 씨가 자라며, 덥고 춥고, 어린애가 자라며 우리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런 것들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정확하게 우주를 운행하시는 바로 그 주재자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읍니다. 그 계명은 지금도 지켜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지의 주재자이신 주님이 명하시는 길 외에는 내가 걸어가야 할 다른 바람직한 길을 모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의 하찮은 지혜에 의존하겠읍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계명을 주시지는 않으셨읍니다. 나는 여러분께 증거하거니와 정신의 법칙, 마음의 법칙도 자연 법칙과 마찬가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은 각자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맥케이 대관장께서는 종종 다음의 윌리암 제임스의 말을 인용했읍니다. "제퍼슨의 희곡에 나오는 립 밴 윙클은 자신이 태만히 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번 일은 염두에 두지 말기로 하자'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달래곤 했읍니다. 자신이야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너그러운 신께서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지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빠짐없이 다 헤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경 세포와 조직 속 깊은 곳에 미분자들은 그것들을 다 셈하여 기록하여 놓고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습관의 법칙)

그러기에 회개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원칙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아시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는 진지하여야 하지 똑같은 어리석고 바보스런 잘못을 또 반복하게 될 그런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인생에 평화와 행복을 얻으려면 나약하고 방종한 비행을 떠나서 진실되고 완전하게 회개하여야 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야비하고 추잡하고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것이며 탐욕스러운 것이지만 그런 악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한 젊은이의 인생 내지는 윤리성과 바꿀 수 있는 가치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악을 비호해서는 안되며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서 정결하고 건전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헌신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진실로 원하기만 한다면 여러 면에서 물심 양면으로 환경을 더 낫게 개선시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북돋우고 후원하고, 대가를 치루고 싶은 그런 일들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관심 속에서는 그런 일을 찾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낳은 결과 즉 그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처에 계시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과오를 범하고 해답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왔거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인도되어온 분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말이 있읍니다. 자만심이나 좋지 않은 습관 또는 욕망, 그리고 완고한 마음가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이상을 실현하는 데 방해를 받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젊음은 빨리 지나갑니다. 어려운 시기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며 그 다음엔 이 생명을 마칠 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내세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살도록 하십시요. 사랑하

는 젊은 벗들이여, 정결하십시요. 정결이라는 말은 언어 중에 가장 훌륭한 말의 하나입니다. 평안하십시요. 정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와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율법 속에 살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살아갈 때 인생은 건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대해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서나 어디서 누구를 대하든지 떳떳할 수 있도록 사십시요.

여러분 각자는 보배로우며 귀중합니다. 각자는 각자가 지니고 있는 모두입니다. 생명은 여러분이 지닌 전부입니다. 친절하십시요. 덕스럽게 지내십시요. 부모를 공경하고 소중히 하십시요. 깊은 신앙심으로 선택을 하십시요. 진실로 사랑하고 봉사하십시요. 품위와 정직과 명예 속에 사십시요. 진실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표준으로 그 진실을 시험하십시요. 율법에 따라 생활하십시요. 그러면 우리 곧 구세주의 복음이 여러분을 화평과 행복, 그리고 가장 확실한 영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젊은 벗들이여,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속이신 일이 없다는 것을 부디 기억하십시요.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이 넓고 편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며 무관심과 방종으로 도달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르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 : 13—14)

자신이 행한 바를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이든 간에 그곳으로 가는 쉽고 편한 지름길은 없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 또한 이것은 진지하게 간구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회복된 그의 사업이며 그의 교회며 그의 계획이요 목적임을 간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만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 그 생명을 힘껏 활용하라!"

훌륭한 세상을 만들기에는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훌륭한 인생을 이루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물어 버리는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어 삽시간에 많은 피해를 낳을 수 있읍니다. 오 내 사랑하는 벗들이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론을 다루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도록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으십시요. 그분 외에 누구를 믿겠읍니까? 여러분이 귀의할 곳이 어디에 또 있단 말입니까?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요. 생명을 존중하고 율법을 존중하십시요. 충실하고 정직하십시요. 항상 개선되고 정결하고 안온하게 살도록 하십시요. 생명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전부입니다. 오, 그 생명을 정결하게, 명예롭고 성실하게 힘껏 활용하십시요. 여러분의 인생을 진리에 거역하여 살아가서는 안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그의 마지막 공적인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요! 나는 꽤 오래 살아왔읍니다. 나는 역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아왔읍니다. ……여러분들의 선조들처럼 용감하십시요. 믿음을 가지십시요! 그리고 전진하십시요!"

하나님의 축복과 화평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겠읍니까?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는 인류 역사상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느리게 진행되던 인간의 발전은 점점 가속화되었읍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급격한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 때로는 장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간은 생활에 편리한 것들을 고안해 낸 과학에서의 장족의 발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의약품의 개발로 인류의 건강은 더욱 개선되어 왔으며 생명도 연장되어 왔읍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의 개혁으로 인류의 복지는 더욱 증진되고 있읍니다. 산업은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세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도의 생활을 누리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공적인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자부합니다.

장차에도 이러한 상승적인 발전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유익할까요? 우리의 자녀나 손자대에도 모든 점에서 이로울까요?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일이 있음을 느낍니다. 지난 세대에 사회를 안정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던 가족이나 가정 생활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공동사회나 국민 생활의 결속은 어떠하며 인플레이션과 부채의 증대로 우리의 경제는 또한 어떻게 되겠읍니까? 현대의 도덕적인 퇴폐와 그로 인한 개인이나 가정, 국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발전이라고 말하는 결과가 여러 가지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자신들을 스스로 현 세대의 주창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속으로 소위 현대적인 사고 방식을 우선으로 삼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읍니다. 보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의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 방식과 자유로운 행동 양식을 지향합니다. 만일 우리가 마약 사용의 자유를 외치고 도덕의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따른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 끌려가게 되겠읍니까? 자유로운 성행위나 낙태,

동성 연애, 합법적인 도색 잡지의 결과는 무엇이겠읍니까?

지난 세대에서 사회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쳐왔던 영적인 가치나 종교적인 이상은 어떻겠읍니까? 현대의 사상가들은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소위 현대주의자들 중 일부는 종교적인 믿음과 과거의 가르침을 변형시켜 현대적인 사고 방식이나 비판 양식으로 일치시키려는 큰 운동이 일고 있읍니다. 그들은 현대의 비판 기준에 의거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경시하며 경전이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임을 부정하고 있읍니다. 현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가르치며, 따라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된 대속을 위한 희생의 교리를 부인하고 있읍니다. 이들은 구세주의 부활을 부인하며 그를 단지 윤리 교사로 인정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신앙의 결과는 무엇이겠읍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에 의한 지구와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사를 경시한 채 현대주의자들의 이론에 따라 창조의 의미를 바꾸어야 합니까? 에덴 동산이나 아담과 이브란 없다고 말할 수 있읍니까? 현대주의자들이 홍수 이야기가 비합리적이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하여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의 기사를 믿지 말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주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 여쭈었읍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읍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마태복음 24 : 36—39)

여기에서 주께서는 홍수의 이야기를 현대화하지 않고 확실히 언급하셨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일부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짓으로 여길 수 있읍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가, 죽은 오빠와 부활에 관해 여쭈었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 : 25)

하나는 노아와 홍수에 관해, 또 하나는 예수께서 자신은 부활하여 생명을 갖게 되리라고 선언하신 이 두 이야기는 똑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는 옳다고 믿으며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겠읍니까? 진리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이를 현대화하며 신화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현대화한 성경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 빛으로, 우리의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길 수 있겠읍니까?

성경을 믿는 것을 낡은 습관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하나님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식입니까? 그의 대속의 희생과 부활을 믿는 것이 구식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내 자신도 구식이고 교회도 구식입니다. 매우 간결하게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교훈과 영생의 원리들을 가르치셨읍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이 못됩니다. 그의 메시지는 영원한 원리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르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풍족한 종교적인 경험을 해오고 있읍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뜻있는 생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의미있는 종교적인 경험을 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험이 단지 명상이나 강령회로 얻어질 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의미있는 경험을 마약이나 간통에서 찾을 수 있겠읍니까? 그러한 시도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정정당당히 통과하지 못하고 뒷문이나 옆문이나 담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요한복음 10 : 1, 7)

값진 종교적인 경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읍니다.

세상에는 늘 믿기 전에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읍니다. 성역 기간 중에 주님께서는 여러 번 표적을 요구당하셨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궂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마태복음 16 : 1—4)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진리는 지각이 따르지 않고서는 진리로 인식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시고 하늘의 별을 떨어뜨리시고 바다를 갈라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읍니까? 아마도 그들은 그러한 것이 악마의 소행이라고 하거나 잘못 본 것일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표적은 신앙이 충만할 때 주어집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읍니다. 이러한 변화는 계명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 때, 우린 곧 그를 증명하게 됩니다. 그는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읍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성 82 : 10) 여러 계명들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는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제한적인 계명에 덧붙여 주님께서는 적극적인 권고도 아울러 주셨읍니다. 그 중 가장 큰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 : 37—40)

사랑하라는 계명에 충실히 따른다면 화평과 번영, 발전을 가져다 주는 어떤 더 큰 율법이 주어질 수 있겠읍니까?

변화가 극심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사랑한다면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읍니다. 이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지위나 문화, 인종, 피부 색깔 등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어디서나 이웃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회복된 그리스도 교회는 사랑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널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도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하는 것을 그 목표와 책임으로 여기고 있읍니다.

혼란과 격동, 일시적인 진보에 둘러싸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간결한 가르침을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영성을 얻고 이를 우리의 생활에 유효하게 하려면 혼동되어서도 안되며 현대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오도되어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간결한 기본적인 진리를 공부하여 그릇된 가르침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이론적이어서는 안됩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면 뜻있는 종교적인 경험을 갖게 됩니다. 몰몬이 갖는 큰 힘 중의 하나는 신앙을 매일의 생각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소란과 혼동이 사라지고 화평과 고요가 찾아듭니다.

교회는 도덕적인 면에서의 변화를 강력히 반대하며 소위 새로운 도덕을 거부합니다. 현대주의자들은 영적인 가치를 짓밟고 있으나 이는 무시될 수 없읍니다. 우리는 현대주의자들에게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이 될 수 있읍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 구식이라면 하나님께 구식이 될 수 있는 특권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저의 믿음과 간증으로 결론을 내리겠읍니다. 저는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임을 알고 있읍니다. 그는 대속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셨으며 이로써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모두의 구세주가 되셨읍니다. 저는 또한 오늘날에도 지상에는 주님의 생각과 뜻을, 지나간 시대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음을 알고 있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의 뜻과 힘을 이해하여 확신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1970년 10월 3일 토요일 오후 모임 말씀

메뚜기가 먹은 햇수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대리

나의 친애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언어가 다른 해외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토록 성스러운 대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기 한량 없읍니다. 이 대회장 앞 오른편에는 아름다운 화강암 기념비가 서 있고 기념비 위에 얹힌 바위 공 위에는 구리로 만든 갈매기가 있읍니다. 이 기념비 앞에 서서 이곳을 찾아온 수천의 관광객들이 "몰몬 개척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구리로 된 갈매기의 날개는 온 세상 사람을 포용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듯 넓게 펼쳐져 있읍니다. 또한 갈매기가 앉아 있는 바위 공은 전세계적인 교회를 암시하며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산에서 굴러 내려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는 다니엘의 꿈을 뜻하고 있읍니다.[1]

기념비 판에는 황량한 처녀지와 그곳에서 맨손으로 가축을 부리며 곡식을 심은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읍니다. 무자비한 곤충의 습격과 이 습격을 받은 절망에 빠진 인간의 땅으로 꺼져버릴 듯한 모습이 역력히 설명되고 있읍니다. 남자의 표정은 절망적이고 여자는 기진한 채로 담담한 하늘로 머리를 젖힌 채 서 있읍니다. 이들은 머리 위로 날아드는 갈매기를 봅니다. 아예 폐허로 짓밟으려 저들이 오는 것일까? 갈매기의 승리와 남은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모습이 그려져 있읍니다. 이제는 완전히 재난을 면한 것입니다. 귀뚜라미나 메뚜기나 방아깨비로 인간에게 재난의 벌을 내리신 것이 애굽인의 경우가 첫번째가 아니며 몰몬의 재난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몇 년 전 우리 일행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곳 사람들이 "인간이 완전히 짐을 뺏겼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내용인즉 "배는 떠나버렸네!"라는 뜻임을 우리는 늦게야 알았읍니다. 이런 의미를 경전에서는 "메뚜기가 먹은 햇수"(요엘 2:25)라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메뚜기는 예민한 촉각과 긴 뒷다리와 넓적한 넙적다리를 가진 대가족의 곤충으로 넙적다리로는 앞날개를 비벼서 내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낸답니다. 이들은 물 속이나 응달진 곳에 알을 까며 한낮에 하늘로 날아 오르면 햇빛을 가릴 만큼 끔찍끔찍한 기세로 번식해 나갑니다. 이 곤충의 무리가 세계 여러 곳을 침입했듯이 미국 서부를 강타하여 수천만 달라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져 오게 했읍니다. 이들은 엄청난 재해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읍니다.

이러한 곤충은 유타의 메뚜기 전쟁과 함께 애급에도 수많은 이야기를 남겨 놓았읍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에게 그의 노예 군대를 풀어 줄 것을 간청하기도 하고 은근히 위협하기도 했읍니다만 왕은 완강하고 고집스럽게 이를 들어주지 않았읍니다. 재난이 일 적마다 왕은 풀어 주겠노라고 약속했지만 일단 재난이 물러가면 약속을 외면하는 것이었읍니다.

모세는 이렇게 경고했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

1. 교리와 성약 65 : 2 참조

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출 10 : 3) 계속하여 경고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땅을 덮으며…무수한 파리 떼가 …애굽 전국에 이르니…" "애급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고…" 모세가 뿌린 재는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애급 온 땅에서…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들에 있는 삼과 보리가 상하였"읍니다. (출 7 : 20, 8 : 6, 24, 16, 9 : 10, 23, 25, 31)

바로 왕이 계속하여 거절하므로 모세가 다시 주의 말씀을 인용하였읍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출 10 : 3—4)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찌라도 메뚜기가 먹으므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신명기 28 : 38)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날으매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출 10 : 13, 15)

벌레가 먹다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먹다 남긴 것은 나방이 먹었읍니다. 그리하여 곡식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메뚜기가 먹어버린 햇수"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잃어버린 주말과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상실된 세월을 연상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침례를 받은 사람이 먼 곳에서 내게 이런 편지를 냈읍니다. 편지 내용을 좀 인용해 보겠읍니다.

"나의 이름을 회원 기록철에서 삭제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교회가 내게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엄청난 것을 발견했읍니다. 나는 선교사의 안내로 교회의 공부를 했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발견한 것은 나의 침례가 계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침례의 전부를 철저하게 뉘우친 것은 아닙니다. 다분히 교육적이었으니까요.

"결국 나는 내가 어디에 매이게 되었는가를 인식했읍니다.

"나는 교회가 금하는 네 가지 즉 담배, 술, 커피, 차를 버릴 수가 없었읍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읍니다. 성격상으로 나는 타인의 울타리에 싸여야만 편안을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동료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때는 내가 전혀 저들과 융화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읍니다.

"그 밖에도 일요일의 세 시간 내지 다섯 시간을 주일학교에 바친다거나 소득의 십분의 일을 낼 수 없음을 알았읍니다. 그것은 전혀 나의 주장과는 일치되지 않는 것이었읍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누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의 문제로 해서 다른 사람이 가책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야겠읍니다. ……오직 저의 불찰일 뿐입니다. 저의 마지막 결단을 받아 주십시요.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참으로 그의 마지막 결단은 슬픈 것이었읍니다. 그의 생애는, 그가 세속으로 몸을 돌이킨 이상 해마다 메뚜기와 누에와 나방이 먹어 버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의 성도들은 주일날 서너 시간을 주일학교에 바친다거나 수입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전혀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지혜의 말씀에서 금지하는 네 가지를 갖고도 전혀 문제삼지 않습니다.

마르덴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물레방아간의 공이는 이미 흘러가 버린 물로는 돌리지 못한다."(오리슨 에스 마르덴, 앞으로 돌진, 제1권 13페이지)

몇 년 전에 새로 교회의 회원이 된 가족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읍니다. 내가 회원이 된 지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두 달"이 된다고 대답했읍니다. 그러더니 사뭇 긴장하면서 회의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끝을 이었읍니다. "우리가 교회에 일찍 속했더라면 한평생을 이토록 행복하게 살아왔을 게 아닙니까!" 메뚜기가 저들의 그전 세월을 먹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읍니다. "누구에게든지 자기의 옛 잘못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허가해 준다면 '아,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라고 하던가 '아, 그러지 말았어야 해!'라고 말할 것이다."(마르덴, 15페이지)

1834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고등평의회를 조직했읍니다. 그때 엘 디이 영은 이런 기록을 남겼읍니다.

"……나는 참으로 커다란 잘못을 범했으며 이를 기록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합니다. 예언자는 내게 평의회에 뽑힌 형제들과 함께 앉으라고 하셨읍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일어서서 그토록 과중한 책임을 맡을 만큼 능력이 없노라고 내 딴에는 제법 성실한 태도로 설명을 드렸읍니다.

"예언자는 간단하게 내가 그 직책을 맡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끝내 내가 이를 거절했으므로 예언자는 다른 형제를 불러 그 직책을 맡기셨읍니다. 생각컨대 이 일로 해서 그 후 예언자는 다시는 나를 신권의 중책의 자리에 부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나는 부름을 받는 대로 응하고 이 왕국을 지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이의 뜻에 대항하여 나 개인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읍니다."

메뚜기의 농간이었읍니다. 이 사람이 상실한 여러 해 동안의 기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테이크 부장이 와드 감독으로 부르자 좌불안석을 하던 사람이 있었읍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드디어는 그 부름을 거절했읍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종으로 인간의 지도자가 되고 다스릴 특권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그 사람이 겸손해서 머뭇거리는 줄 알고 설득시키려 했지만 끝내 그의 결심을 돌이키지 못했읍니다.

그날부터 그 사람에게는 "메뚜기가 먹어버린" 수많은 세월이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드니 리그돈, 올리버 카우드리, 마틴 해리스 등 귀한 기회를 외면한 채 마음을 닫았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던져버린 말(이야기), 쏘아 버린 화살, 지나간 인생, 그리고 소홀히 해서 지나간 기회……."(마르덴, 67페이지)

내가 아는 교회 회원인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비회원인 미모의 여자와 교제를 하다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읍니다. 물론 그 결혼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일반 사회의 결혼이었읍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를 교회로 인도하려 하였고 그녀는 몇 배나 강하게 거부했읍니다. 그녀에게는 신권이나 영원한 결혼이 전혀 무의미

한 것이었읍니다.

그는 언젠가는 그녀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세월은 덧없이 지나서 자녀가 생기고 저들은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읍니다. 기회는 지났고 세월이, 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세월이 마치 번개의 날개처럼 속히 지나버린 것입니다. 역시 메뚜기가 먹은 세월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인간사에는 절기가 있는 법이니 때로는 행운이 깃들기도 하고
인생의 항해가 속박된 채 비참한 때도 있노라.
우리는 닥치는 행운을 놓치지 말아야 소중함을 건진다."

(줄리어스 시이저 4막 3장)

메뚜기는 도처에 언제라도 있읍니다. 문명은 이미 누에에 침범당하고 있읍니다.

벤자민 프랭클린[2]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인생은 시간으로 지어진 것이니"

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읍니다.

"내가 시간을 허송한 까닭에 이제는 시간이 나를 허송하고 있오."

(셰익스피어)

"영원 그 자체도 지나간 단 일분을 다시 불러오지 못한다."(옛말)

내가 어렸을 때 세상 결혼으로 맺어진 젊은 부부를 퍽 인상 깊게 대하였던 일이 있읍니다. 신랑은 외모도 미끈했고 좋은 말과 고무 바퀴를 단 훌륭한 마차도 가졌으며 돈도 많았읍니다. 신부는 "미인 중의 미인"으로서 집안도 부유하여 그녀가 입는 옷이나 그녀의 인기는 다른 여자의 선망의 적이었읍니다.

이들의 결혼은 그야말로 호화판의 본보기였읍니다.

양가에는 자녀가 많았는데 어찌된 셈인지 이들 젊은 부부는 무엇보다도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을 했읍니다.

어쨌든 무슨 수술을 해서—전혀 이 가정에는 자녀가 태어날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연회를 베풀고 승마를 하고 무도회를 갖는 저들의 즐거움은 계속되었읍니다. 세월이 지나 저들은 늙었고 늙은 후에는 외로운 처지가 되었읍니다. 남자가 먼저 죽었읍니다. 작은 마을 중심가에 사는 그 부인은 매일 우편국과 식품점에 들리는 것이 일과였읍니다. 세월은 이 부인의 등을 구부러지게 했고 부인의 걸음은 지팡이를 의지해서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녀의 오빠나 언니는 대가족이었읍니다. 그래서 자연 그를 방문하는 회수가 적었고 방문한다 해도 오래 머물 수가 없었읍니다. 그 시절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없었읍니다. 눈이 어두워지니 읽는 일도 수월치가 못했읍니다. 사람들도 그를 자주 찾지 않았고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았읍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지나던 사람이 그를 확인했읍니다. 그는 이미 죽은 지가 여러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홀로 외롭게 살아온 그는 죽을 때도 홀로였읍니다.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효성스런 자녀도, 그를 묻어 줄 자식도, 그리고 눈물이나 애도함이 없이— 그는 홀로였읍니다. 이 부부는 세월을 허송한 것입니다. 이들의 세월도 메뚜기가 먹어버린 세월이 아닐까요?

"운명이란 그대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내부에 있다. 스스로 그대 자신을 개척하라"(마르덴, 404페이지)고 말한 사람도 있읍니다.

자식을 갖지 않으려는 계획은 잘못된 것입니다. 운명은 그의 날개로 인간을 비벼대지만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칼 지 메이저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책들이 펴지고 나의 수호신이 옆에 서서 책을 열며 내게 '보라'라고 할 것이며 나는 '참 아름답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이 그대가 누릴 수도 있었던 아름다움이라'고 하며 책장을 넘기면서 '여기 그대의 참 모습이 있노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상실된 기회로 가득합니다. 주로 이번 대회에서는 복음이 주어졌을 때 이를 거부한 사람의 불운한 결말과 그들이 상급학교나 직장에서 거부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밖에도 약을 남용하고 도덕의 표준을 헌신짝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의 비참한 이야기도 들었읍니다. 아울러 교회와 이웃에 대한 봉사에 실패한 사람과 선교의 부름을 상실한 사람, 영원한 결혼 대신 세상의 결혼을 택한 사람, 인류 문명의 불가결의 요소인 자손을 갖지 않으려 약이나 기타 방법을 채택했던 자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읍니다. 이 모든 것은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나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모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며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살고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을 쟁취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2.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 미국의 정치가, 과학자, 작가

1970년 10월 4일 일요일 오전 모임 말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

해롤드 비 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가공할 일— 정치적인 일, 전쟁과 도처에서의 다툼, 부모들의 불안, 가정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상의 어지러운 물결, 젊은이들을 위협하고 저들의 도덕과 신앙을 방해하는 혼란— 들을 보거나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권속이 주의 길 안에서 무한한 안전과 무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격동의 이 시대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파멸의 아픈 비명이 존재하고 있읍니다. 밀어닥치는 엄청난 혼란과 인류를 파멸로 이끌려는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해야겠다는 요구가 절실해지고 있읍니다.

이미 예전에 전해진 예언의 가르침에 익숙한 자는 모든 것이 격동으로만

보이는 오늘날의 세상 형편에 대하여 크게 의구심을 갖지 아니할 것입니다.

역사를 잘 살펴보면 전해진 예언의 뜻도 바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들의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대를 두고 감동으로 계시받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초기에 주님은 계시를 통하여 때가 가까왔고 이 땅에서 평화가 떠나며 악마가 그의 제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읍니다. (교성 1 : 35 참조) 이 시대의 예언자들도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온 세계는 동요할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워 떨며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종말이 이르기까지 오심을 연기하시리라 하리라. 또 사람의 사랑은 차차 식어질 것이요 악행이 가득 차리라."(교성 45 : 26—27)고 했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은 그가 다시 오실 때의 징조가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주는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렇게 답해 주셨읍니다.

"그날에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주민들 위에 큰 환난이 있으며

"그날이 속히 임하며 육으로 구원받을 자는 없고

"이르신 대로 성약에 따라 날이 속히 임하며

"나라는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서고 왕국은 왕국을 대적하며 기근과 질병과 구심으로부터의 지진이 있으리라." (영감역 마 24 : 18—20, 30; 요셉 스미스서 1 : 18—20, 29 참조)

구세주께서 "인간이 그 부친을 대적하고 딸이 그 모친에 대항하며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대항하리라."는 예언을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세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마 10 : 35—36 참조)

이러한 모든 사태를 머리 속에 잘 정리하고 나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고난과 커다란 슬픔에 싸인 자는 누구에게 위로를 구하며 흉흉하게 밀려오는 "폭풍 중에 피난처"[1]를 어디서 구해야 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주가 주의 성도를 다스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통치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심판이 세상에 내려오리라고 선포하시는 날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안전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을 일러 주셨읍니다. (교성 1 : 36 참조)

주는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 : 42, 44)

주는 그의 제자들이 "거룩한 곳에서 있어 움직이지 아니하려니와 악인 중에는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는 자들도 있으리라."(교성 45 : 32)고 경고하셨읍니다.

이제까지 인용한 주님의 약속을 전제로 나는 잠시 동안, 개개인이 순종함으로서 하나님 면전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게 되는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바로 이 계획은 "주님께서 그의 성도를 다스리시고 그 백성을 통치하시기로 약속"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경륜의 시대가 시작될 때 이미 이 계획과 계획의 목적이 교회에 알려져 선포되었읍니다.

약 1세기 이전에 주는 이렇게 선포하셨읍니다.

"이같이 나는 나의 영원한 성약을 세상에 보내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고 나의 백성과 이를 구하는 이방인을 위한 기가 되게 하고 또 나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내 앞에 서는 사자가 되게 하였느니라."(교성 45 : 9)

이 계획은 하나의 성약으로서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사람에게 효용을 갖는 계약입니다. 아울러 이 계획은 모든 주의 권속과 그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의 뜻은 만인의 요구에 준하여 기여하고 세상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자는 데 있읍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 계획의 성안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 모두였읍니다. 아브라함과 예레미야에 의하여 기록된 가장 오래된 경전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 곧 엘로힘이 그곳에 계셨고, 장자 여호와와 아브라함, 예레미야, 그리고 수많은 다른 위대한 인물도 그곳에 있었다고 확증해주고 있읍니다.

이 땅이 창조되기 전, —후에는 영이 된—수많은 정리된 예지가 그곳에 있었으며 그곳에서 행함이 고상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영은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계획을 이끌어 나가는 일의 지도자와 다스리는 자의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에게 보내는 글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고전 8 : 5—6)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하여서는 "에게서"라는 전치사를 사용한 점과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는 "말미암아"라고 한 점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역할이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 만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업을 집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서 4장 참조)

하나님의 통치 계획 가운데서 이 원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고대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어 기록된 천국 회의의 윤곽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여호와의 안내로 땅과 그안의 모든 것이 조직되고 형성되었읍니다. 이 두 분께서 땅을 "명하셨고" "관리하셨고"[2] "준비하셨"읍니다. 이 두 분은 "서로 의논하시면서" 인간을 지상에 보내시는 일과 땅의 온갖 것을 두시는 일을 정리하셨고 이로써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인간이 "불사 불멸의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일을 다하여 계획을 이행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읍니다. 영생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온갖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해의 영광의 처소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음을 뜻합니다. (아브라함 3 : 25 참조)

계획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원칙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므로써 "자유와 영생"을 얻는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복하여 영적인 "속박과 사망"의 길을 택하느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니이 2 : 27 참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 주신 생명 다음으로 큰 은사는 자유의지이며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둘째번 지체로서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미대륙에 있었

1. 이사야 25 : 4 참조

2. 아브라함서 4 : 16—18, 26 참조

던 위대한 예언자였던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수행해 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어, 선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이를 경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짝함에 생명의 나무를 두시었고, 하나는 달게 하시며 다른 것은 쓰게 하셨느니라.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저 스스로 행동하게 하시었음에 사람이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리라."(니이 2 : 15—16)

둘째번으로 중요한 원칙은 밧모섬에서 요한이 받은 계시대로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양"처럼(계 13 : 8) 세상의 죄를 대속할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이 총애하시는 이들이 그 이유로써 구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지자—지도자는 이렇게 설명했읍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은 "……만 인류를 위하여 중재하시어 변호하시는 것이며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니이 2 : 9 참조)

우리는 자비로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극히 제한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만 다음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자비의 참된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지런히 기록하여, 우리들의 자녀와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권고하였음이요,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 받게 됨을 앎이라."(니이 25 : 23) 참으로 우리는 세상의 대속주가 흘리신 대속의 피로 인하여 대속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의 구원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세째번으로 중요한 원리는 "모든 인류는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하므로써 구원을 얻는다."는(신앙개조 3)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율법과 의식을 통하여 구원이 쟁취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죄의 회개,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죄의 행동에서 손을 떼고 다시는 이를 범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 주는 아주 간결하게 말씀[3]하셨읍니다.

"……너희 길을 걸으며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러나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이전에 지은 죄까지도 겹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교성 82 : 7)

세째, 구세주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바 물과 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 : 4—5 참조)

부활하신 몸으로 신대륙에 나타나신 구세주께서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그의 제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로 크게 강조하셨읍니다. 구세주는 성실한 성도들에게, "정결치 아니한 것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며 끝까지 충실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가 아니면 결코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이는 계명이라. 회개하라, 너의 온 땅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여 내 앞에 이르려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정결케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복음이요……"(니삼 27 : 19—21)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국적이나 피부색이나 혈통을 불문하고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저들은 모두 정한 때에 주를 보고 그가 주인줄 알며 부르심과 세우심의 뜻이 분명해[4] 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이 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교성 84 : 34참조)

끝까지 충실하게 견딜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이 약속은 구세주가 말씀하신 방탕한 아들의 비유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읍니다. 충실하여 자기의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지 않은 아들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아 늘 나와 함께 있으라. 나의 모든 소유가 바로 너의 것이라."(눅 15 : 31 참조)고 하셨읍니다.

근대의 예언자에게 주신 계시를 통하여 주는 이렇게 약속하셨읍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교성 84 : 38)

그렇지 않으면 이미 위험 수역을 지난 채로 나이아가라 폭포의 급류로 향하는 우둔하고 미련한 자가 되어야겠읍니까? 강지기의 경고의 함성은 아예 외면한 채 저들은 웃고 춤추고 마시고 조롱하면서 자멸하고 있읍니다.

예수는 그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을 "좁고 험한 길"[5]이라고 간결하게 가르치신 당신을 조롱하며 미쳐버린 세대의 백성들을 보고 우셨읍니다.

오! 우리가 그의 외침을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그가 외치신 말씀을 상기해 봅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 23 : 37)

주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계시자 요한에게 비유로 전하셨으니 이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 : 20—21)

그러면 여기에 주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고(엡 2 : 20) 사도와 선지자를 기초로 한 참된 교회가 가르치는 구원의 계획이 있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세상이[6] 화평을 얻지도 못하며, 세상이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요 다만 주가 모두를 이기신 것처럼 모두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 : 12)

위에 말한 모두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모임에서 나는 어린 소녀가 전하는 퍽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읍니다. 그녀의 부친은 난치의 병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누워 있었답니다. 그런데 누워 계시던 그녀의 아빠가 하루 아침은 엄마에게 간밤의 고통과 괴로움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아주 감동적인 음성으로 "여보, 내게 다시 하루가 주어졌으니 참 감사한 일이오"라고 했답니다. "무었

3. 모세서 1 : 39 참조

4. 베드로후서 1 : 10 참조

5. 마태복음 7 : 14 참조
6. 요한복음 14 : 27 참조
7. 앨마서 34 : 32 참조

이 그렇게 감사해요?" 어머니의 물음에 아빠는, "당신과 하루를 더 살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단 말이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나의 음성을 방송으로 듣고 계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태도로 하루를 더 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간청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아직 완성하지 못한 우리의 일을 하루 더 돌보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시다. 회개하고 잘못을 바로 잡으며 철부지 아이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날[7] 준비를 하루 더 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시다

앞으로 오래오래 살겠다고 애쓰지 말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구하도록 합시다.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는 이렇게 가르치셨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마 6:34)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맡겨야겠읍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겠읍니다"라는 태도는 부족합니다. "능력을 다하여 행하겠읍니다"라고 하든지 "필요한 일은 다하겠읍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뉴욕시 시립 음악당 벽에는 다음과 같은 지혜의 글귀가 기록되어 있읍니다. "인간의 결정적인 운명은 과연 그가 새로운 교훈을 배울 수 있느냐,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느냐, 새로운 적을 정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배운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로 결정된다."

이 지혜의 글귀를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해하여 정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로써 여러분은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을 향하여 온 열과 성을 다 바치고, 여러분의 몸은 빛으로 충만하여 어둠이 깃들지 않아 마지막에는 모두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성 88:67 참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등을 밝히십시오

해롤드 비 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누군가가 "아이디어가 성취될 때 사건이 일어나는 법입니다."고 말했읍니다.

다음 4월이 되면 제가 십이사도 평의회의 회원이 된 지 30년이 되는데, 이 동안 교회의 잡지를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계속되어 왔읍니다. 그러한 의견은 옳은 것이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늘 생각되어 왔는데 이제 때가 이르러 성취되게 되었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이 잡지는 교회의 회원이 있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어디서나 발행되는 잡지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기타 19개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중 11개 지역에서는 교회의 출판물이 번역되고 있읍니다. 저는 이러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나라에서 성도의 벗이 발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도의 벗에 실릴 자료는 일괄적으로 교회 본부에서 편집되며 그중 몇 페이지는 그 지역의 특정한 기사를 싣도록 여백을 남겨두고 있읍니다. 이 잡지는 어디서나 그 내용이 동일하며 각 나라 말로 출판되어 번역 출판부가 있는 나라의 모든 교회는 교회의 신권 지도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로써 잡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충분히 고려된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매월 첫째 목요일에는 모든 총관리 역원이 금식을 하는 매우 중요한 모임이 신전 2층에서 열립니다. 모임의 전반부는 사업 관계 모임으로 이 때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방법,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제안이 제출되는데, 이러한 제안은 모든 교회의 총관리 역원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한 달 후에 의결에 붙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 모임에서는 조처가 취해지는데 이 조처에 의해서 총관리 역원의 공식적인 결정이 되어 교회와 지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의 방침이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잡지가 생기는 과정이며 또한 앞으로의 발전이 성취되는 과정이며 또한 감독 훈련 프로그램이 교회 전반에 걸쳐 실시된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범 교회적인 예산 제도가 실시될 것입니다. 새로운 모든 프로그램은 이렇게 교회의 총관리 역원으로부터 나와 모든 회원들에게 실시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태너 부대관장과 내가 6월 대회에서 교회의 젊은이를 위한 잡지가 발행될 것임을 발표하자 그들이 갖는 기쁨이 크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을 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성도들의 충성심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위대한 생각이었읍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이러한 문제들을 기도해 보고 금식하고 주의깊게 심사숙고하여 "주의 뜻……주의 생각……주의 음성……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교성 68:4)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되어온 이러한 일들이 공식적인 승인을 얻어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충실한 신권 소유자들에게 이러한 잡지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 만들어져 세계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잡지가 되도록 후원과 보살핌이 있길 바라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일 이 단 위의 우리들처럼 지금 여기 이 단에 앉아 계신다면, 조금 전에 몬슨 장로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의 이마에 흐르는 구슬같은 땀방울을 보셨을 것이며, 지금 제 이마나 앞으로 말씀하실 분들의 이마에서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이 단 위의 온도는 형제님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보다도 15도는 더 높을 것입니다. 따라

서 여러분은 조금 더 편안한 곳에 계신 셈이지요.

얼마 전에 저는 아이다호주 프레스톤에서 한 집회소를 헌납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가져보지 못했던 에어컨디션 장치가 되어 있는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읍니다. 그런데 모임 도중에 감독님께서 에어컨디션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알렸는데, 그러자 갑자기 몹시 더운 느낌이 들었읍니다. 이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날 저는 이반스 형제님께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 등불들 좀 보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밝습니다." 그가 한 이 말은 나에게 깊은 생각을 자아내게 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면 빛을 발해야 하지요."

이제 이 이야기를 달리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신권의 권능이 여러분 자신이나 세상에 유익한 것이 되게 하고 싶거든, 신권을 활용하십시요. 여러분은 그것을 행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 또, 이렇게 덧붙이셨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 : 15—16)

여러분이 신권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리려면 여러분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위대한 계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이르셨읍니다. "……만일 너희가 해의 영광의 세계에 있을 곳을 받기 원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요구한 바를 수행하므로써 스스로 준비해야 하느니라."(교성 78 : 7)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정해진 표준을 격하시키는 사회의 표준에 대항하여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 대중 생활 가운데에서도, 실로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자의 손을 빌어 제정된 미합중국의 헌법에 명시된 근본적인 원리에 상치되는 여러 제안들에 항거하여 싸우는 끊임없는 혁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를 파멸로 이끄려는 온갖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말일성도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엘드리드 지 스미스 형제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았읍니다. 세계 도처에 계신 15만의 여러 신권 소유자들께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주일날에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그 상점들이 주일에는 문을 닫을 날이 곧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 주일에도 문을 열어 이익을 얻으려는 그러한 상점들을 이 땅 위에서 소멸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기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만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요.

외설 서적! 외설에 대해 연구해온 위원회의 보고나 노골적인 성적인 출판물의 유포를 금지하는 모든 법률 조항은 성인들에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건의는 분명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들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권 소유자로서 이들과 굳게 맞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우리 내에서 어떠한 외설 문학, 영화, 광고물 등이 유포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어떠한 도색적인 광고도 싣지 않겠다고 선언한 어느 유타 일간지는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해 주는 회사입니다. 이떤 사회에서도 이같은 운동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이들과 대항하여 굳게 선다면 우리들의 도덕을 파괴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더 이상 제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신권에 속해 있는 성약과 맹세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읍니다. 그가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될 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다음 계시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았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을 받아들여 그의 이름을 믿고, ……침례받은 자들이니, ……안수로써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신으로 인봉된 자니라."(교성 76 : 51—53)

또 다른 계시에서 그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된 남편과 아내는 그곳에 자리를 정하신 여러 천사와 신들 옆을 지나가서 저마다 자기 머리에 결봉된 대로 각기 승영에 이르러 온갖 일에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우리의 형제 한 분은 약속의 성령에 의해 인봉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읍니다. "지상에서 인봉할 권능을 가지고 있는 신권 소유자에 의해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면 이는 하늘에서도 인봉될 것이며,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도 인봉되는 것이라고 이 계시에서 설명하고 있읍니다. 합당치 않은 부부가 속임수로 신전에 들어가서 성신권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읍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성신을 속일 수는 없읍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되기 전에는 그러한 축복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성신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있으므로 그들의 머리 위에 주어진 축복에 대한 인봉의 승인을 해 주십니다. 그런 후에야 그 축복은 효력을 갖고 굳게 결속되며 충만한 힘을 갖게 됩니다."(멜빈 제이 밸라드, "세 등급의 영광")

형제 여러분, 현재의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다호 폴스 신전의 헌납식에서 행해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의 헌납 기도문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하늘 아래 있는 왕과 통치자와 만국의 백성들이, 당신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림으로 인하여 이 땅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을 구하며, 비슷한 정부 형태를 취하여,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비옵니다."

신권 소유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우리의 등불을 환하게 비추고 말 아래 두지 않으며 이를 의롭게 활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감받은 사람에 의해 제정된 미합중국의 헌법에 명시된 표준을 저하시키는 사회의 규준이나 제안들에 대항하여 신권 부름이 영원한 혁명이 되게 한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그러하리라고 하신"기이한 업적"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스미스 대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권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교회 대관장의 팔을 붙들어 올리고

해롤드 비 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스미스 대관장께서 바로 다음에 본 대회의 마지막 연사로 말씀하시기 전에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교회가 처음 조직되었을 때 좀더 정확히 말해서 조직되던 그날 주님께서는 교회 회원에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는 그 당시 교회를 구성한 6명의 회원만을 뜻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대관장이었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너희는 요셉이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흩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교리와 성약 21 : 4—6)

주님께서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이 교회와 세상을 끝내시기 전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겪어야 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읍니다.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복음이 회복되었읍니다. 사탄의 힘이 커져 우리는 가까이에서 그 힘을 분명히 보게 되고 교회 내에는 파괴적인 힘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태너 부대관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차 있는 위선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회원인 척 가장은 하지만 회원으로 하여금 주님이 교회를 인도하도록 임명하신 지도자를 따르지 않도록 계획을 꾸미고 그들을 이끌어가려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이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안전한 방법은 교회가 조직되던 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계명을 마음에 새겨 두며 "받는 대로…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고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여야(교성 21 : 4—5) 합니다. 인내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읍니다.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가 하신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라든가 사회적 견해와 어긋날 수도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신앙과 인내로 귀를 기울인다면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흩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교리와 성약 21 : 6)

이제 우리에게는 연로하신 대관장님이 계십니다. 그는 6개월 전에 대관장으로 부름받은 이래로 자매님과 함께 멕시코를 방문하셨읍니다. 그는 아리조나 신전도 방문하셨으며 그곳에서 새로운 신전장단에게 인봉의 열쇠를 부여하셨읍니다. 또한 하와이에서는 하와이 교회 대학과 그 지방의 역사적인 기념 행사에도 참석하셨읍니다.

본 대회와 연관하여 교회 대관장에게는 과중한 책임이 주어졌읍니다.

지난 주 목요일에는 모든 총관리 역원이 신전 2층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 대회를 위하여 자신들을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금식과 기도를 했읍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을 느꼈는데, 이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증거였읍니다. 그 모임에서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총관리 역원에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는 상호부조회 대회에 참석하셔서 자매님들께 말씀하셨읍니다. 그는 주일학교 대회에서도 말씀하셨고 본 대회의 첫 모임에서도 말씀하셨읍니다. 신권회 때도 말씀하셨으며 이 모임에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의 보좌인 태너 부대관장과 내 자신의 임무를 생각할 때 모세 시대의 상황을 생각케 됩니다. 그 시대의 교회의 적들은 오늘날의 그들과 같았읍니다. 그들은 교회의 사업을 방해하여 중단시키려 했읍니다.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 권능의 지팡이 즉 신권의 열쇠를 높이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적을 이길 수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자 팔이 아파 내리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려 자신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했읍니다. 그는 교회의 적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지지되었읍니다. (출 17 : 8—12 참조)

저는 태너 부대관장과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의 팔이 약해질지도 모릅니다. 과중한 임무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그의 팔이 내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팔을 붙들어 올리고 그의 곁에서 그의 지시에 따른다면 지옥의 문이 여러분과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안전은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관리하도록 부르신 사람을 좇느냐 좇지 않느냐에 달렸읍니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관리하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며 결코 실수를 범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을 잘못 행하시는 법이 없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상의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적은 없읍니다. 그의 계시는 세상의 어떠한 학식보다도 더 권세가 있으며 뜻이 깊고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읍니다.

교회의 대관장을 주시하고, 태너 부대관장과 제가 이제부터 계속 그렇게 하려는 것처럼 그의 팔을 붙들어 올립시다.

스미스 대관장님, 우리는 당신을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큰 대회를 끝내면서 당신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 될지니"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스미스 대관장님, 당신의 면전에 있을 때면 저는 용기의 원리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15년전 이 건물 남쪽에 있는 어셈블리 홀에서 대관장님이 한 대회를 관리하셨는데 그때 저를 스테이크 부장단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저는 그때 아론 신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읍니다. 당시 저는 감독이었으며 감독단은 아론신권 소유자와 함께 할 때는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읍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단으로 나오셔서 스테이크 부장단의 일원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읍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와 같은 지명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읍니다. 그런 후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이제 몬슨 형제님께서 이 부름을 받아들이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읍니다."

그때 제가 막 부른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겠읍니다. "용기를 내라 아들아 용기를 내라 아무말 하지 말고." 저는 그날의 주제로 이 찬송가를 사용했읍니다. "용기를 내라 아들아 그렇다고 말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했읍니다. 그로부터 이 단에 설 때면 늘 용기를 갖게 됩니다.

대관장단은 저에게 새로운 교사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셨는데, 이는 전 교회에 있는 교사들의 자질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딕크야, 오늘 주일학교 공과가 어떻더냐?"고 물어 보신 적이 있읍니까? 아이들이 "아빠,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교사가 결석했거든요"라고 대답한 적은 없읍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캠벨 형제님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사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말일성도 가정에서는 이러한 대화가 빈번하게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는 단지 주일학교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초등협회, 상향회, 상호부조회, 신권 정원회에도 있읍니다.

존 밀턴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읍니다. "굶주린 양이 고개를 드나 먹지 못하네."(리시다스) 주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몸소 이렇게 이르셨읍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찐저……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겔 34 : 2—3)

현명한 목자는 오늘날 필요로 하는 능숙하고 의로운 교사입니다. 급속히 움직이고 있는 제트 시대에는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심한 압력과 유혹이 존재하고 있읍니다.

매년 죄악을 팔아 돈을 벌려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 도색 문학에 2조 5천억원이 소요되고 있읍니다. 종종 잡지, 영화, 텔레비전, 기타 다른 대중 전달 수단들이 비천한 것에 이용되어 비행을 유발하고 있으며 범죄와 비행이 만연되고 있으며 영적인 가치가 의문시되고 있읍니다. 생애에서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시켜 영생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길을 택할 수 있는 힘을 개발해 줄 수 있는 유능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1968년 10월, 대관장단은 이러한 상황과 유능한 교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 교회에 있는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 위원회를 소집했읍니다. 그들은 그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계획되도록 조언했읍니다.

1. 신권 지도자의 지지를 받는 범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2. 교사와 지도자들의 자질을 증진시켜야 한다.

3. 예비 교사들을 도와 교사 훈련 과정을 시작하고 유능한 교사가 되기에 필요한 영적인 이해력을 얻도록 해야 한다.

금년 1월,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과 그 보좌들은 유타 일간지와의 대담에서 새로이 교사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셨읍니다. 이를 인용하겠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새 대관장단은 교회의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읍니다."

교사 자질 향상 프로그램에서 강조되고 있듯이, 오늘날의 복음을 가르치는 목적은 반원들에게 "지식을 쏟아 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사가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거나 단지 교회에 대한 지식을 키우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교수의 근본 목적은 남녀노소의 생활에 가치있는 변화를 일으키고자 함입니다. 각 개인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여 살아 있는 복음 원리에 대해 무엇인가를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 여러분 신권 소유자들에게 교회의 새로운 교사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읍니다.

1970년 10월 1일 목요일에 있었던 십이사도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교사 자질 향상 프로그램이 자세히 소개되었읍니다. 앞으로 6주 이후에는 이들에 의해 각 스테이크 부장단에게 소개될 것이며 1971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것입니다. 1971년 6월까지는 총관리 역원이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여 이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진척 상황을 보고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경영 원리에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성과가 측정될 때 그 기업은 발전한다. 성과가 측정되고 보고될 때는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된다." 총관리 역원이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함으로써 그 성과는 가속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프로그램의 주요 항목만 소개하겠읍니다.

1. 새로운 범 교회적인 이 프로그램은 신권 지도자들로부터 지지받은 것이며 현재 활용되고 있는 어떤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대신한다.

2. 스테이크 부장은 그 스테이크에서 교사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할 책임을 진다. 고등 평의원 중의 일 인을 교사 자질 향상 프로그램 책임자로 부른다. 이 고등 평의원은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영감을 줄 수 있는 훌륭한 교사라야 한다.

3. 감독은 와드에서 교사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할 책임을 진다. 능력 있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를 와드 교사 자질 향상 프로그램 책임자로 부른다.

4. 교회 선교부 내의 선교부장이나 지방부장, 지부장도 같은 책임을 진다.

5. 새로운 교사 자질 향상 프로그램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ㄱ) 기초 과정, (ㄴ) 현임 역원 프로그램, (ㄷ) 교수 관리 (1971년 9월 1일에 소개될 예정)

6. 기초 과정은 현임 교사와 예비 교사를 도와 그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계발하여 보다 유능하게 되도록 계획되었다. 이는 11주 과정으로 보통 주일학교 시간에 갖게 되며 감독이 접견하여 부른 8명으로 구성된다. 와드 교사 자질 향상 프로그램 책임자가 기초 과정 교사가 된다.

7. 현임 역원 프로그램은 기초 과정 다음 단계의 과정이며 영적인 원리와 아울러 교수 기술도 포함된다. 현임 공과는 모든 신권 정원회 및 보조 조직의 교사들을 위해 매년 10회 실시된다.

8. 기초 과정 및 현임 역원 프로그램 교재는 현재 배부 중이다. 관리자 교재는 해당 스테이크 및 와드에 무료로 배부된다. 감독은 신청 양식을 받게 될 것이며, 이로써 필요한 자료를 신청한다. 예산은 스테이크 및 와드 예산에서 충당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개인은 본인이 사용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와드나 스테이크에 지불한다. 자료는 최소 가격으로 공급된다.

9. 프로그램은 융통성이 있다. 각 와드에서는 와드 실정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초과정 및 현임 역원 프로그램을 복수 와드 단위로 가질 것인가 스테이크 단위로 가질 것인가는 임의로 결정한다.

10. 본 프로그램에서는 소단위 교수법이 이용되어, 실제적인 학습 경험에 참여하는 것이 강조된다.

이제,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교사 자질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모뉴먼트 파크, 월너트 크릭, 거니선 스테이크 및 앨러스카—브리티쉬 콜럼비아 선교부에 있는 빅토리아 지방부 내의 훈련 비행사반에서 주의깊고도 세심한 시험을 거쳐 실시됩니다. 여러분 와드나 스테이크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겠읍니까? 과정을 이수한 두 사람의 간증을 들어봅시다.

"난생 처음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읍니다."

"복음에서의 모든 축복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은 활용하려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완숙한 교사야, 내게는 필요치 않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읍니다. '시간이 없어, 교회에는 모임이 너무 많단 말야.'라고 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배울 기회가 있구만.'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것을 얻을 것이며 주님의 사업은 한층 진전될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 모든 신권 소유자들은 교사가 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보다 더 고귀한 특권은 없으며 보람된 일은 없읍니다. 사랑하는 신권 소유자 여러분, 여러분께 이 교사 자질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약 1:22)는 야고보의 서한을 빌어 여러분께 목표를 드립니다.

나는 들으나 곧 잊어버린다.
나는 본다. 그러면 잊지 않는다.
나는 행한다. 그러면 배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범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르침이 증진될 것입니다. 계명이 생활화될 것입니다. 계명대로 사는 사람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위대한 교사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읍니다. 그는 해변가 모래에는 발자국을 남겼지만 그가 가르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는 그의 가르침의 원리를 남겼읍니다. 그는 당시의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으며 우리에게도 같은 지시를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날처럼 그래도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마음을 돌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귀머거리보다 더한 귀머거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보려 하지 않는 장님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장님은 없읍니다. 알려 하지 않는 무지보다 더 큰 무지는 없읍니다.

도마와는 달리, 의심치 않고 믿어, "가겠읍니다." 하는 대답을 하게 되기를 빕니다. 이 프로그램을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영으로 이렇게 할 때, 구세주와 같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요 3:2)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1970년 10월 4일 일요일 오전 모임 말씀

가족과 울타리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이 안식일 아침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주님의 도움을 느끼며 이제 철없이 방종하는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매 이곳에서 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밖에서 방송으로 들으실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를 위한 기도에 보답해야겠다는 새로운 책임을 느끼며 이 단 위에 섰읍니다.

얼마 전에 아들의 문제로 크게 걱정하고 있는 한 아버지가 이렇게 걱정하는 소리를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 녀석이 집을 나가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가슴이 아프고, 집에 있으면 통 숨이 막힐 것 같은 아픔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슴을 치는 아픔에 관해서이며 여러분 앞이라 좀 두렵습니다.

한 마을에 방황하는 아들이나 딸의 걱정으로 늦게까지 염려와 기도로 잠못 이루는 어머니가 없는 집이 몇 집이나 되겠으며, "도대체 무엇이 잘못 되었을까? 어떻게 해야 그 녀석을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하루의 일에 몰두할 수 있

는 아버지가 몇이나 되겠읍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부모도 이제는 그 가슴의 아픔을 맛보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시도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잃고 있읍니다. 가정과 가족을 해치려는 무서운 기세가 몰아치고 있읍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어휘를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경스러움, 노출(나체주의), 부도덕, 이혼, 도색 문학, 탐닉, 격정, 타락.

위에 열거한 단어는 최근의 몇 해를 두고 전혀 새로운 기세로 군림하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예언했읍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디모데후서 3:1—2)

물론 경전의 말씀은 계속되지만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한 데서 그치기로 합시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입니다. 실패를 종식시키려면 그 아픔과 고통의 정도에 관계없이 정면으로 문제점에 뛰어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몇 년 전,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시어 병리 검사를 받고 계신 어머니를 아침에 잠깐 면회하게 되었읍니다.

"나를 집으로 데려다 다오." 어머니가 말씀하셨읍니다. "병리 검사는 이젠 더 못 받겠어. 당장 네가 나를 집으로 데려가 다오. 단 하루도 이 고생은 안할테다."

"그렇지만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읍니다. "병리 검사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는 어머니의 병환이 암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병 중에 제일 못된 병이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서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읍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오고 귓속 말로만 서로 이야기하던 것을 어머니 곁에서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결국은 발설이 되고 말았읍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얼마 동안을 조용히 앉아 계시더니 이윽고 입을 여셨읍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싸워서 이겨야겠다." 어머니의 강한 의지가 발동했읍니다. 어머니는 싸우셨고 결국은 승리자가 되셨읍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질병의 희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영광의 승리자가 되셨읍니다. 뼈아픈 사실에 정면으로 부딪침으로써 어머니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어머니의 용기가 작용한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가장 아픈 면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다시 돌려 받기를 원한다면 잠시 그들을 그대로 한편으로 제쳐놓고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에 열중해 보는 게 어떻겠읍니까? 개조되어야 하는 것은 자녀 쪽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하던 그대로를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며, 여러분은 과오를 범하고 있으면서 자녀의 행동에서는 그런 과오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발설되고 말았읍니다! 오래도록 멈칫거리고 철없는 자녀를 염려하던 끝에! 남을 그렇게도 탓하였으나, 부모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발설되었으니까요! 즉각적인 경계를 요하는 편은 자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도움이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도움의 방법이 여러분의 문제에 비견될 만큼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환부를 당장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은 없읍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종교나 복음의 원리를 무시한 치료 방법을 찾는다면 끝내 찾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누가 종교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경전을 인용한다면 그 이야기가 부드럽지 않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읍니까?

여러분은 이야기할 때 한쪽은 전혀 무시하고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알고 계시니 여하한 문제라도 부딪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기력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나 그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모르나 그분은 아십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은 그러겠지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안될 이유가 있읍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먼저 예방에 전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담장이나 구급차"라고 하는 조셉 멜린스의 시가 있읍니다. 이 시는 낭떠러지의 밑에 구급차를 데려가려는 시도를 그리면서 결과를 처리하는 데보다는 그 결과를 낳게 한 이유를 제거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현명한 노인의 이야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이 시에서 낭떠러지 위에 담장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를 청소년과 연관시킵니다. 그는 청소년을 선도하는 것이 때늦게 시정하려는 것보다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물론 떨어진 사람을 구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겠읍니까?

우리는 간혹 예방 주사로 질병을 피하는 때가 있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 아픔도 한 번의 간단한 예방 조치로써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방에 필요한 수단이 치유의 결정적인 방법이 된다는 사실은 다행한 일입니다. 환언하면 여하한 경우에도 예방이 최상의 치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려 하거나 이미 떠나고 있는 자녀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지금 "가정의 밤" 교재를 손에 들고 있읍니다. 이 책은 가정의 밤 교재로서 일곱번째의 책이며 전세계 17개 국어로 번역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읍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신약을 바탕으로 했음을 알게 됩니다. 주제는 자유의지입니다. 이 책이 신약 시절의 것을 주제로 했으되 그 때와 그 곳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기를 초월하여 바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이곳에서 전개되는 여러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읍니다.

내용도 재미있고 천연색 사진도 많이 들어 있으며 가족과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익한 게임도 많이 소개하고 있읍니다.

여기 보면 글자 맞추기도 있읍니다.

또 여기는 천연색으로 된 게임 그림이 있읍니다. 이 그림을 잘라내서 돌림판을 만들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도 여하에 따라서는 "천국의 재산"과 "땅의 기쁨"을 만끽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읍니다.

공과의 제목을 살펴보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공과는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사랑을 했으며 결혼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를 자녀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꼭 부부가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되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나 편지 등을 참고로 보여 주고 웨딩 드레스나 청첩장, 결혼 사진 등도 참고로 보여 주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녹음해 둔 것이 있다면 그것이나 녹음을 해서 자녀들에게 들려 주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밖에도 공과 제목 몇 개를 적어 보겠읍니다. "우리 가족 정부" "예배하는 태도를 배움" "깨끗한 말을 사용하자" "가계" "부모 : 성스러운 기회" "권능에 대한 존중" "해학의 가치" "이사하는 이유"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때" "구세주의 탄생 및 유년 시절"

또 이런 것도 있읍니다. "자유로우라는 음성". 이 음성은 여러분의 자녀가 들어야 할 경고의 음성일 것입니다. 이 공과에는 일종의 허가 증서가 여러 장 붙어 있는데 이 활동을 할 때에는 식구들에게 아직까지 해 보지 않은 활동을 택하여 자격증에 그 활동의 이름을 써서 증명서를 발급한 다음 증명서에 기재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 증서 소지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허가함."

피아노를 한 곡조 연주할 것

서명 아버지

(물론 이 증서를 피아노 레슨을 전혀 받아 본 일이 없는 자녀에게 줍니다)

다른 증명서에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팔로 걸어다니라"고 하던가 "외국어를 해보라"고 하던가 "유화를 그리라"고 해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허가받은 일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할텐데 그때에 어째서 우리는 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이행할 권리가 주어졌는데도 못하는가를 토론합니다. 결국 토론하는 가운데 "각자는 특정한 재능을 개발시키려면 그 재능을 개발시키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법에 순종해야 비로소 자유로 인도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공과에는 작은 아이들을 책상 곁에 앉히고 장난감 자동차를 책상 위에 이리저리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도록 한 것도 있읍니다. 작은 이야기들이지만 사태의 결과를 주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가족이라는 유대로 결속시키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요령이 이 책의 공과에는 얼마든지 있읍니다.

이 공과책은 가정의 밤을 일 주에 한 번 갖도록 요청하고 있읍니다. 교회에서는 월요일을 일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가정의 밤을 갖는 날로 정하였읍니다. 최근에 발송된 지시 공문을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신권 및 보조 조직 활동과 신전 활동, 학생 활동, 청소년 체육 활동을 주관하는 역원은 본 결정에 특히 유의하여 월요일 밤이 교회 전체를 통하여 가정의 밤으로 지켜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가족은 이날 교회 활동이나 기타 순서에 완전히 손을 떼고 가정의 밤을 갖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1970년 신권 공지 사항)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살아 계신 예언자의 축복 즉, 만일 부모가 일 주에 한 번씩 자녀를 한자리에 모아 복음을 가르친다면 가족이 결코 빗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비회원 중에는, (아니 유감스럽게도 몇몇 회원도 그렇습니다) 이 공과책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회원으로서의 임무와 각 교과의 바탕이 되는 경전 구절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이상적인 가족을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이라도 주겠읍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법에 따르지 않으면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복음을 제거하려는 사람은 예방 주사를 자녀에게 놓아 질병을 막으려 하면서 실제로 주사약을 뺀 빈 바늘만 들고 주사를 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옛날 일입니다. 실제로 갖지 않았거든 진리를 탐구하겠다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는 일찌기 없었던 가장 훌륭한 젊은 세대가 살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이 젊은이들 중에서 이미 선교사로 나가 일하는 젊은이를 보았읍니다. 아니 여러분 중에는 이들 젊은이를 돌려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들을 다시 불러오도록 하십시오. 저들이 보잘것없는 인품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저들은 명예를 위하여 산다는 젊은 세대의 본보기 일 수는 있읍니다. 젊은이 중에는 정말 성도—말일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천 수만이 있읍니다.

부모 여러분! 소망의 등을 켜지 않으시겠읍니까? 마음의 고통을 지니신 여러분,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위치한 곳이 아무리 어둡고 황량하고 멀고 깊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결단코, 결단코, 결단코.

저는 여러분께 소망의 의지를 감화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치신 부모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자녀를 잃는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은 없으며 자녀를 구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십이사도의 한 사람으로 섰읍니다. 십이사도는 모두가 특별한 증거를 가졌음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저는 비록 이 세상이 "주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가 살아 계신 것을 압니다. 마음을 다친 부모 여러분 "나는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 : 17—18)고 하신 주의 말씀을 믿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위대한 하얀 신은 누구입니까?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최근에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게 일고 있읍니다.

그 결과 앞으로는 이들의 복리가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이 대륙에 거주하는 여러 소수 민족 중 가장 무시되어 왔읍니다.

우리는 말일성도들이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어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는 교육면에 크게 기여했읍니다. 금년들어 신학 연구원에는 매일 15,000명 이상의 인디언 학생이 참석하고 있으며 교회의 노력으로 5,000명이 무료로 정규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받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는 이들에게 대학 교육도 제공했는데, 올들어 브리감 영 대학에 475명이 등록했으며 지난 해에는 426명이 교육을 받았읍니다.

최근에 브리감 영 대학은 82명의 인디언 학생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했으며 20명이 석사 내지 박사 학위를 취득했읍니다. 20명 이상이 대학원에 등록하고 있읍니다.

브리감 영 대학에는 또한 미국 인디언 연구 봉사 협회가 있어 이를 통하여 미 서부의 인디언에게 서른 가지 이상의 영농 사업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교회 회원인 35,000명 이상의 인디언에게 교회는 종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들은 총명하고 적응을 잘 하며, 자신들이 위대한 백성의 후손임을 알고 있으므로 그들의 조상이 물려 준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최근에 우리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멕시코 거류민단의 한 집회에 참석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인디언 조상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고대 멕시코 주민들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그들이 진실로 위대한 백성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야 문명의 권위자인 알프레드 브이 키더 박사도 이러한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의 저서 키리그와로의 여행 안내에서 이 탁월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고대 마야 왕조의 거대한 도시들은 기독교 시대의 초기에 세워진 것이다. 거의 600년 동안 이 탁월한 백성은 예술이나 건축, 수학, 천문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달력보다 더 정확한 달력을 만들었다.……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인디언 문화의 성장은 이집트 및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구대륙의 문화와 흡사하였다. ……사회, 경제 기구가 조직되었으며 도시가 건설되고 종교가 발달하고 예배를 위한 신전이 건축되었다."

비슷한 주제를 다룬 코판의 경이에서 역사가 무너스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건축, 천문학, 수학, 그림, 옷감 및 기타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한 때 이곳에서 꽃피었다."

그는 야만인은, 마야인들 가운데 이룩한 그러한 기적을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인디언의 선조는 결코 야만인이 아니라고 강조했읍니다.

마야 문명에 관한 저서 147페이지에서 위슬러 박사는 파피루스로부터 종이를 만들었던 이집트인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마야인들도 종이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유산이라는 책 19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마야인은 미대륙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높은 문화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 백성은 매우 발달된 관개 시설을 갖고 있었읍니다. 이들은 댐과 수로를 건설했읍니다. 이들은 산을 계단식으로 깎고 관개 시설을 이용하여 경작지로 만들었읍니다. 스페인의 침입이 있기 2000년 전에 이들 관개 수로가 벌써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중 일부는 지금까지 남아 있읍니다.

고대 미대륙에는 많은 주민이 살았읍니다. 정복당했을 당시만 해도 중앙 멕시코에만 2천 5백만 명이 살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의 2,000년 전에 거룩하신 한 분이 이들 조상을 방문하셔서 여러 날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무시며 가르치고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고도의 지력과 기술을 지녔던 고대 백성들은 그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쳐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새롭고도 더욱 훌륭한 영농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정부를 세우셨다고 믿었읍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그들은 기록하고 있읍니다. 고대 백성은 그분을 육신을 입고 오신 창조주라 생각했읍니다.

그분이 기독교의 하나님임을 부인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성경과 같은 종류의 것임이 이미 인정되고 있읍니다.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분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가 칠레로부터 알래스카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인디언 후손들 가운데 퍼졌으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하와이로부터 뉴질랜드에 이르는 지역에 살고 있는 폴리네시아인들에게도 알려져 있다는 사실로, 이는 폴리네시아인들과 고대 미대륙의 주민들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모두 일치되고 있읍니다. 섬들이나 나라마다 이름이나 미세한 부분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며, 그 결론은 같은 것으로,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방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폴 허먼은 그의 저서 인간의 **정복**에서 이의 진실성을 증거하고 있읍니다.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때, 하얀 신 케잘코틀은 실제 인물이며 스페인 사람들이 선전하기 위해 꾸며냈거나 인디언들의 전설에 나오는 황당무계한 인물이 아니라는 결론 이외에 다른 결론

은 내릴 수 없다."(72페이지)

이와 같은 사실은 천문학, 수학, 관개, 건축을 알고 있던 높은 지력을 가진 고대 아메리카 백성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무지하거나 미신적인 백성의 환상은 아니었읍니다. 이는 고대 백성들 중 가장 높은 문화를 가졌던 백성의 역사입니다.

이 위대한 분은 멕시코의 일부 지방, 주로 초룰라 지역에서는 케잘코틀로 불리어지고 있었읍니다. 옥사카의 키아파스와 윅스피코차에서는 보탄으로, 과테말라에서는 구크마츠로, 페루에서는 비라코차와 히우스투스로, 브라질에서는 수메로, 콜롬비아에서는 보키차로 알려졌읍니다.

페루인들에게는 또한 콘티시나 일라티시로도 알려졌는데 티시란 창조주와 빛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야인에게는 쿠쿨칸이라 알려졌읍니다.

폴리네시아 군도에서는 로노, 카나, 카네 혹은 콘으로, 또 때로는 카나로아로도 알려졌는데 이는 위대한 빛 또는 광채라는 뜻입니다. 또한 일부 폴리네시아인에게는 위대한 조상이라는 뜻의 카네아케아로, 혹은 바다와 태양의 하나님이란 뜻을 가진 통가로아로 알려졌읍니다.

이 거룩한 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고대인들은 그를 키가 크고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수염이 있고 푸른 눈을 가졌다고 설명했읍니다. 그는 넓은 소매가 달린 늘어진 성의를 입고 계셨읍니다. 그는 큰 권능과 무한한 친절을 지닌 분으로 보였읍니다. 그는 언덕을 평지로 만들고 평지를 높은 산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읍니다. 그는 굳은 암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실 수 있었읍니다.

그의 방문에 관한 사건 중 놀라운 것 중의 하나는 칠흑같은 어두움이 계속되어 백성들이 해가 다시 돋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던 중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페이드로우 더 리언이 지은 잉카 민족에 의하면 암흑이 걷히기 전까지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었으며 하나님께 빛이 다시 비추이기를 열심히 간구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해가 다시 비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읍니다. 페이드로우 더 리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읍니다. 그는 "키가 큰 백인으로 그의 풍채는 존경과 추앙을 불러 일으킬 만했다.……그들은 그의 능력을 알고는 만물을 지으신 분, 시조, 태양의 아버지라 불렀다."(잉카 민족)

그분은 종교를 가르치시면서 백성들에게 경배 드릴 신전을 짓도록 지시하셨고 백성들은 이에 열심히 따랐읍니다. (피에어 어너레이, **하얀 신의 연구**) 그는 떠나시면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으며 이 때문에 유대인이 그들의 약속된 메시야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가 다시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스페인인이 미대륙에 왔을 때와 제임즈 쿡 선장이 하와이 제도에 상륙했을 때 큰 불행을 불러 일으켰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으로 인하여 이들의 이러한 전설이 진실되다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졌읍니다.

헤르난도 코테즈가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이를 본 해안 지방의 원주민들은 그를 바로 그 하얀 분으로 생각했읍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 몬테주마에게 급히 달려가 드디어 위대한 하얀 신이 오셨다고 알렸읍니다.

이는 몬테주마에게 큰 충격을 주었읍니다. 그는 자신이 왕위에 오를 때 민간 신앙의 제사가 한 말을 기억했읍니다. "이는 그대의 왕관이 아니니라. 이는 그대에게 잠시 빌려준 것이며 때가 오면 이것이 속한 위대하신 분께로 다시 되돌려지리라."(어너레이, 66페이지)

스페인 작가 듀란은 그의 저서 아즈텍족에서, 몬테주마가 코테즈를 맞으러 충실한 종을 보내 궁으로 모셔 왔을 때 그 종은 코테즈를 "주이시며 진실한 하나님"이라 했으며 "당신의 나라에 오심을 환영합니다"라 했다고 썼읍니다. 듀란은 또 인디언들은 코테즈의 일행을 하나님들이라고 여겼다고 기술하고 있읍니다.

이 스페인 작가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읍니다.

"몬테주마가, 베라쿠르즈 해안을 떠나시며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케잘코틀로 여겨졌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의 연대기에서 볼 수 있듯이, 몬테주마와 그 무리들은 모두 코테즈와 케잘코틀은 같은 분이라고 확신했다……

"1864년에 금발 수염이 난 맥시밀리언 황제가 베라쿠르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케잘코틀의 재림의 약속을 다시 기억했다."

몬테주마는 코테즈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으나 스페인인들의 반역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같은 신앙은 무너지고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읍니다. 몬테주마는 왕관과 목숨을 잃게 되었으나 그 풍습은 계속 남아 있읍니다.

영국 탐험가 제임즈 쿡 선장이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에도 비슷한 사건이 생겼읍니다. 특히 그는 원주민들이 하얀 신을 기념하는 축제인 마카히키 축제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 상륙했읍니다. 쿡 선장은 하나님으로 영접받아 성스러운 로노 신전으로 모셔졌읍니다. 그러나 그의 일행은 천사로 인정받지 못했읍니다. 그것은 그들의 약탈 행위로 인하여 원주민들의 노여움을 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쿡 선장은 목숨을 잃었읍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얀 위대한 신은 누구이겠읍니까? 쿡 선장도 아니며 더우기 코테즈도 아니었읍니다. 그는 누구이겠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레스타인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양 외에 다른 양이 있으며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 10:16)고 말씀하셨읍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 하얀 신이십니다. 그는 이 성스러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실제로 고대 미대륙을 방문하셨읍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알고 있읍니까?

고대 팔레스타인에서처럼 서반구에서도 예언자들이 성역을 베풀었으며 영감받은 가르침을 전했읍니다. 성스러운 땅의 예언자들처럼 이들도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겼읍니다.

이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으며 백성들은 모두 그를 기다렸읍니다.

그들을 덮었던 3일간의 암흑이 걷히고 신전 주위에 그들이 모여 들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읍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그리하여 그들은 하늘을 보았으며 영광스러운 분이 내려와 그들 앞에 서는 것을 보았읍니다. 고대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흰 옷을 입으셨더라. 저가 하강하사 무리 가운데 서심에, 온 무리

의 눈이 저에게로 향하였으나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고……

"이에 저가 손을 앞으로 내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쓴 잔을 마시며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그런 후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와서 너희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 보고, 내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온 땅의 하나님임을 알라.

"이에 무리가 앞으로 나아가 손을 주의 옆구리에 넣어 보며,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차례대로 한 사람씩 모두 만져 보고 나서, 저들의 눈으로 보며

"그러나 실제로 이 하얀 신은 누구였을까요?"

친히 만져 보아 진실로 저가 예언자들이 오시리라고 기록한 그분이심을 알아 증거하였으니,

"무리가 모두 차례대로 나아가 친히 목격하고 나서 한 소리로 높이 부르짖어 이르기를,

"호산나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복되리로다 하며 예수의 발앞에 엎드려 예수를 경배하였느니라."(니파이삼서 11 : 7—11, 14—17)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행하신 것처럼 서반구에서도 그의 참된 종교를 가르치셨으며, 병자를 고치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셨으며, 교회를 조직하셨읍니다.

이것이 인디언과 폴리네시아 민족간에 이러한 전설이 생기게 된 이유입니다. 이 전설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으며 대대로 전해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읍니까?

팔레스타인의 예언자들처럼 고대 미대륙에 살던 많은 예언자들도 역사와 계시를 기록했읍니다. 그들은 여러 권의 책을 기록했읍니다. 이 기록들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곳을 방문하신 후 약 400년경에 이곳 미대륙에 살았던 몰몬이라는 예언자에 의해 한 권으로 요약 편집되었읍니다.

그가 편집자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라 그 책은 몰몬경이라 불리웠읍니다. 그 책은 놀라운 방법으로 오늘날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고대의 하얀 신이라고 알려 주고 있읍니다. 그 책도 성경처럼 경전입니다. 이사야서 29장에서 이사야는 말일에 새로운 경전의 출현을 예언했으며, 실제로 몰몬경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방법으로 출현될 것을 예언했읍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닙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책은 인봉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으며 실제로 그러했읍니다.

그는 그 책의 말씀이 학식있는 자들에게 전해져 그들이 그 기록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는 또한 그 책이 학식없는 사람의 손에 전해져 세상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책임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되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는 책이 출판될 시기에 관해, 팔레스타인이 풍성한 땅이 될 때 말일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는 귀머거리가 책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장님이 보고 온유한 자가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얻으리라고 예언했는데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읍니다.

그는 또한 이같은 일이 일어나며 한편으로, 세상이 믿지 않는 중에 전능자께서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리라고 했는데 이 또한 모두 이루어졌읍니다.

몰몬경은 바로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 책입니다. 그것은 경전으로 고대 미대륙의 성스러운 기록이며 현대인을 깨우치기 위해 출간되었읍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새로운 증거이며 그가 진실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기독교인의 구세주이시며, 유대인의 메시야이시고, 고대 미대륙에 나타나신 하얀 신이시며, 온 인류의 구속주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간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루시는 일 참 오묘하구나"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위대한 대회에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태버나클 합창단과 함께 부른 찬송가 "하나님 이루시는 일 참 오묘하구나"가 제 마음을 울리고 있읍니다.

나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늘 주님께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그의 복음을 회복하는 일과 연관하여 행하신 큰 기이한 일들을 생각했읍니다. 오늘날은 경이의 때이며 세상에 수많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아마 내가 여러분께 최근 150년 동안 지상에 일어났던 일들중 가장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여쭈어 본다면 대부분은 인간이 달나라에 발을 디딘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일은 분명히 기적이었으며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들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캡슐에서 나와 무중력 상태인 달표면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 앉아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러한 일이 나와 나의 가족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과학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함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크거나 중요성에서나 내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능가하며 인간이나 나, 나의 가족, 또한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에 있어서도 훨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최근 150년간에 일어난 다른 일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소년 요셉 스미스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 : 5)는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읽고 숲에 들어가 기도를 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을 믿어 숲에 들어가 기도를 했을 때, 다소 사람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갈 때 일어났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빛기둥이 내려왔으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읍니다.

소년이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가리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2서 17절 참조)고 하셨읍니다. 그들은 모두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이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는데, 이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지금의 이 모든 세상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읍니까? 하늘이 열렸을 때 지구를 창조하신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셨읍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경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의 권능으로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최근 150년 동안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 아버지와 아들이 지구를 방문하신 일과 비교가 되겠읍니까? 오늘 이 대회에 참석한 우리 모두와 세상에 퍼져 이 메시지를 전하는 수백만의 사람들 모두가 이 일이 참되다는 굳은 간증을 갖고 있읍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요 3 : 11)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었음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40일 가량 머무르시고 500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자 이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읍니다. 이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 : 11) 이렇게 두 사람이 서서 그가 다시 오시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의 나타나심을 믿기가 어렵겠읍니까? 우리는 그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예언자들께서 예언한 그의 재림 전에 있을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참으로 오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나는 주님께서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 주신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것이라"(말 3 : 1—2)

이는 그의 첫번째 오심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성전에 홀연히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그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었읍니다. 그는 오셔서 정결자의 불꽃이나 마전장이의 잿물과 같이 이 세상을 순수하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으나, 그가 말일에 오실 때에는 악인들이 바위에 대고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계 6 : 16)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예비하려 보내신 사자는 바로 그의 예언자입니다.

여러분은 결정의 때에 그의 오심을 예비하러 보내진 침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예언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세우신 예언자가 요셉 스미스라는 굳은 간증을 세상에 전하는 바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러 보내진 사자입니다.

그는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이며, 경전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그의 오심이 선포된 이후로, 예레미야와 같은 고대의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3000년 이상이나 그를 기다리셨읍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렘 1 : 5)고 하셨읍니다.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는 탄생 전에 만방의 예언자로 성임되었으며, 주님께서는 그를 주님보시기에 큰 인물(니이 3 : 8 참조)이라고 하셨읍니다.

저는 이제 오순절 다음 날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에게 한 베드로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 둘 것(행 3 : 21)이라고 했읍니다. 태초로부터 모든 성스러운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된 바 만유가 회복될 것이라는 베드로의 이러한 예언을 믿기가 어렵겠읍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회복을 외치는 교회가 이 세상에는 이 교회 이외는 없으며, 지나간 경륜의 시대의 많은 예언자들이 이 교회를 방문했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예언자 요셉을 방문하신 지 몇 년 후 곧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신 지 약 400년 후에 이곳에 살았던 예언자 모로나이가 그에게 나타나 이 땅의 고대 주민들과 몰몬경에 대해 말해 주었읍니다.

〔매리온 지〕롬니 형제께서 어제 그 책의 가르침에 대한 영감에 찬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해 주어졌읍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보존되었으며, 이 기록은 주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명에 따라 기록되었읍니다. 즉 주님은 두 기록이 있을 것인즉 하나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의 것이고 또 하나는 요셉과 그 후손의 것이라고 하셨읍니다. 주님께서는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기록과 유다의 기록을 취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겔 37 : 16—17)고 약속하셨읍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겠읍니까? 만약 그 기록이 몰몬경이 아니라면, 그 기록은 어디 있읍

니까?

그 책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야곱의 열 두 아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다른 형제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훨씬 능가하는 요셉의 약속을 생각해보기로 합시다. 그는 야곱을 통해 많은 축복을 약속받았읍니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창 49 : 26)

모세는 형제들과 떨어진 요셉에게 주어질 새로운 땅을 설명하면서 "보물"이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사용하였읍니다. (신 33 : 13—16 참조) 그 새로운 땅이란 바로 미대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일에 복음이 회복될 때를 기다리시면서 이 땅을 준비하셨읍니다.

세상은 요셉의 기록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읍니까? 왜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있읍니까? 유대 백성들까지도 이를 받아들이면 그들의 메시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롬니 형제가 어제 말씀해 주셨듯이 그 기록은 구세주의 탄생의 표적과 십자가에 달리심, 미대륙을 방문하실 때의 표적을 매우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이 밭을 가는 한 농부에 의해 발견되었더라면 이는 19세기의 가장 큰 사건이 되었을 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회원이 아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간증을 듣습니다. 그 책에는 우리가 그것을 읽는다면 주님께서는 성신의 권세로써 그 책의 진실됨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실려 있읍니다. (모로 10 : 4 참조)

몇 년 전에 니콜라스 지 스미스 형제께서 이 단에서, 그가 캘리포니아 선교부를 관리하던 때에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 주셨읍니다. 남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종교 대학 학장이 그에게 몰몬경을 달라고 하였읍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들이 중요한 구절에 밑줄을 그어놓은 몰몬경 한 권을 주었읍니다. 그 후 그 학장은 스미스 형제와 선교사들을 모임에 초대했읍니다. 그는 몰몬경을 집어들어 회중에게 여러 구절을 읽어 준 후 "이 책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백 년 전부터 우리 중에 있었던 경전을 갖고 있으나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라고 말하였읍니다. 그런 후 그는 회중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읍니다. "이러한 것이 훌륭한 가르침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 드린 이러한 훌륭한 가르침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는 이 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또 하나의 간증이며, 주님께서는 모든 땅보다 선택받은 이 땅의 요셉에게 주어진 그의 약속을 성취하려 이를 보존하셨읍니다.

주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세상에 창조하신 놀라운 다른 많은 일들을 더 설명드릴 시간이 없읍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신전을 갖고 계십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말일까지의 장구한 세월 (3000년간)을 내다볼 수 있었으며, 말일에 주님의 집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세워져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며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사 2 : 2—3 참조)고 할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인류 역사상 이 신전과도 같이 만백성이 모여들었던 집은 없었으며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땅에 모여든 백성들의 후손입니다.

내가 홀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행하고 있었을 때 나에게는 어느 실업가인 구도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주 열심히 교리를 연구했읍니다. 그는 하루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 속하지 않겠읍니다." 나는 왜 그런가를 물어보았더니 "나는 미국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읍니다. 나는 "대단히 훌륭한 생각입니다. 형제님은 이곳에 머물어 이 지부를 강화시키도록 하십시오."라고 했읍니다. 그 후 그는 교회의 회원이 되었으며 회원이 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나의 사무실로 찾아와 "리차즈 형제님, 이제 저는 저의 사업체를 팔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라고 했읍니다. 나는 "형제님 무엇 때문에 형제님의 사업체를 청산해야 합니까?" 그는 "예, 저는 시온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읍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의 선교사 기록부에 적힌 기록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당시 선교부의 서기를 맡아 보았읍니다. 훌륭한 신앙을 가진 화란 사람들은 그 이 당시 유럽에 신전이 없었기 때문에 곳에 오기 위해 한푼두푼 저축했읍니다.

나는 조셉 에프 스미스가 1906년 로텔담에서 주님의 신전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 세워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나는 내 평생에 유럽에 두 개의 신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오묘하신 일의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집합의 예언을 연구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을 사방에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드릴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제 버튼 형제께서 예언자 엘리야의 오심에 관해 말씀하셨읍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시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말 4 : 5—6)하신 말라기의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믿는 사람이 어찌 엘리야의 오실 날을 간구하지 않겠읍니까? 이제 우리는 그가 이미 오셨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해 7월에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었는데, 여행 도중 세 곳의 회당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 중 한 곳의 벽에 안락의자가 걸려 있었읍니다. 유태 교회의 목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엘리야가 오실 때에 그에게 드리려고 걸어 놓았읍니다."라고 대답했읍니다. 물론 엘리야는 이미 오셨으며 그의 오심으로 인해, 이 대회에서 언급된 영원한 결혼 성약의 영원성에 대한 이러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었음을 그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인이 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만인이 저의 혀로 저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까지 예수의 지도력을 통해 천년을 준비하셨으며 이러한 메시지는 이미 영원한 세계로 이르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업적이라는 굳은 간증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이를 확실히 알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이사야가 보았음을 알고 있읍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이사야 29 : 13—14)
이는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이며,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진실됨을 알 기회가 있는데에도 이 교회에 가입하려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있을 수 없음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멘.

1970년 10월 2일 금요일 오후 모임 말씀

우리 종교의 종석

매리온 지 롬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오후에 "우리 종교의 종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1841년 11월 28일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읍니다.
"영 회장의 집에서 십이사도와 함께 모여 회의를 열며 하루를 보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이 지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이요 우리 종교의 종석이며 누구든지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하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교회정사, 4권 461페이지)
몰몬경과 회복된 복음의 진실성은 다음 두 가지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첫째는 현대 계시의 실제성이며 둘째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몰몬경 및 회복된 복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읍니다. 그 중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머지 하나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1823년 9월 21일 저녁, 요셉 스미스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 몰몬경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며(그 전에도 그것에 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음) 오직 그때 그의 관심은 그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었읍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그것을 지시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했읍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로나이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는 요셉 스미스에게 "이 대륙에 먼저 살았던 백성들의 기사와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관한 기사가 금판에 기록된 책이 〔구모라 근처에〕 묻혀 있다고 전하면서 이 책에 구세주께서 친히 고대 주민들에게 전하신바 온전한 복음이 또한 적혀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은테로 된 두 돌이……금판과 함께 감추어졌으며……책을 번역하는 데 쓰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신 것이라고 했읍니다." (교회정사, 1권 12페이지)
예언자는 그때에 몰몬경에 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읍니다. 그날 밤으로부터 책이 출판될 때까지 요셉은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인도되어 성스러운 기록을 받고 그것을 보관하고 번역했읍니다. 몰몬경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사실은 주님께서 스스로 종종 그리고 끝까지 책의 진실성과 신성함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몰몬경이 이 세상에 나오도록 주님 자신이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주님께서는 1830년 8월, 예언자에게 "내가……모로나이와……저는 나의 영원한 복음의 충만한 것이 실려 있는 몰몬경을 너희에게 보내어 전하게 한 자……"(교성 27 : 5)라고 이르셨읍니다.
교리와 성약 서에문서 주님께서는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써 몰몬경을 번역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교성 1 : 17, 29) 또한 주님께서는 세 목격자에게 예언자가 책을 번역하였으며 "너희 주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 같이 그 번역은 참되"다고 이르셨읍니다. (교성 17 : 6)
예언자는 번역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크고 놀라운 진리를 배우게 되었읍니다. 그는 몰몬경의 내용은 주 예수 자신이 만드신 것이며, 기록의 자료나 그가 번역한 내용이 모두 의로운 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읍니다.
그는 책의 자료의 수집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전 2200년 초, 주님께서 야렛의 동생에게 "주 앞에서 물러가 산을 내려가서 저가 본 바를 기록하게"(이더 4 : 1)하셨을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는 이리하여 기록이 주님의 명에 의해 야렛인 시대의 최후까지 계속되었으며 완전한 야렛인의 기록이 기적적으로 모로나이의 손에 들어가 그가 주후 400년 경에 이를 이더서라는 짧은 책으로 요약하여 전했음을 알았읍니다. 그는 그 책의 내용이 모로나이에 의해 기록되어 자신이 번역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모로나이의 설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읍니다. "야렛 형제가 본 바를 기록하였으니" "주가 내게 이를 기록하라 명하시기로 내가 기록하였으며" 주께서 "명하사 기록과 해석기를 인봉하라 하신지라 내가 주의 명하심을 좇아 해석기들을 인봉하였느니라."(이더 4 : 4—5)
니파이인 기록에 관해서도 이와 비슷한 지시가 주어졌읍니다.
"주께서 내게 명하셨으매 나는 나의 백성들의 사적을 기록할 금속판을 만들어……
"내가 이렇게 행하고 나서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 저들이 행할 바를 명하였으니,"(니일 19 : 1, 4)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지시에 따라 몰몬이 요약한 방대한 니파이판이 거의 천년간 보존되었읍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기록의 일부를 편집하셨읍니다. 그는 부활하신 후 니파이인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면서 그들이 배운 것들을 기록하라고 지시하셨읍니다.

그는 또한 그의 부활 때에 "많은 성도"가 죽음에서 일어나리라는 그의 종 레이맨인 사뮤엘의 예언을 기록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읍니다. 이 때에 그의 제자들은 여러 예언과 그 성취됨을 기억했읍니다. (이에 예수께서 명하사 이를 기록하게 하셨으며 명하신 대로 기록되었음)

몰몬경 표제지에서 예언자는 몰몬경의 큰 두 가지 목적 중의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케 하는" 것임을 알았읍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읍니다. 그 첫 장에는 한낮의 햇빛보다 더욱 찬란한 광채 가운데, "하늘 한가운데서 내려오시는" 예수에 대한 리하이의 시현이 실려 있읍니다. (니일 1 : 9) 또한 마지막 장에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는 다음과 같은 모로나이의 위대한 권고로 결론지어지고 있읍니다.

"……너희가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비하심이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요……성결하게 되리라."(모로 10 : 32—33)

이 두 장 사이에는 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많은 위대한 간증들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이제 나는, 몰몬경이 예언자 요셉이 이야기한 바로 그대로이며, 이로부터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이 주어지며, 간결한 말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위대한 구원의 교리와 의로운 행위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 영과 친밀해지고 그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 : 10)라고 열렬히 간구하는 상한 심령을 가진 모든 자들을 움직이게 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사람은, 야렛의 동생이 셀렘산에서 전세의 구속주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같은 영을 지님으로써 세상의 천한 것들보다 높이 솟아 하늘 나라에 머무르게 됩니다.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비된 자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인류가 영원토록 빛을 갖게 되어…:

"……너희가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이제 네가 보았느냐? 만인이 태초에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느니라.

"보라 네가 지금 보는 바 나의 몸은 영체라. 내가 나의 영체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이제 내가 네 앞에 영으로 나타내어 보인 것같이 나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내어 보이리라." (이더 3 : 14—16)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은 "바운티풀 땅에 있는 신전 주변에" 모여든 사람과 같을 때 높이 들리움을 받게 됩니다. 몰몬은 그들을 이렇게 설명했읍니다. "서로 서로 기이하게 여기며 놀라워 하면서 크고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이며,

"……그 죽으심의 표적이 이미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서로 서로 이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임하는지라. ……이는 거친 음성도 아니요 큰 소리도 아니요 비록 적은 음성이었으나 온 몸을 속속들이 파고 드는지라, 몸에 떨리지 않는 곳이 없었고, 저들의 영혼을 꿰뚫어 가슴을 불붙게 하였으며,

"……소리가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하시는지라.

"……저들이 보매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하시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저가 하강하사 무리 가운데 서심에, 온 무리의 눈이 저에게로 향하였으나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고, 저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으니, 무리는 혹 천사가 저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하였느니라.

"이에 저가 손을 앞으로 내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니삼 11 : 1—3, 6—11)

누구든지 몰몬의 샘에서 교회에 가입한 성도들과 겪은 앨마의 부친의 경험과 그들을 영적 및 육적 속박에서 구해내시기 위해 보여 주신 주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성령의 권세로써 그들이 깊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가슴 속에 이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을 읽어 볼 때 여러분께 말씀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 속에 그러한 기이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앨마가 그의 형제들에게 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스스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 났느냐? 〔2〕 하나님의 모습을 네 몸에 지녀 보았느냐? 〔3〕 이 놀라운 변화를 너희가 마음으로 느껴 보았느냐?

"〔4〕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신 이의 속죄를 믿으며 생활하느냐? 〔5〕 너희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불멸의 몸으로 일어나며, 이 무질서한 혼란이 정연히 정리되어, 육체로 세상에 있을 동안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주께서, 내게로 오라 너희 복받은 자여, 너희가 수고하여 지상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였도다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6〕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왔느냐? 〔7〕 바로 지금 너희가 죽게 된다면 너희가 더할 나위 없이 겸손했노라고 말할 수 있으며, 너희의 옷이……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희게 되었노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앨 5 : 14—16, 27)

몰몬경의 영을 소유한 자는 누구나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위대한 날에 그 질문들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살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고는 철저한 자기 분석을 요하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대답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겸손하게 예언자께서 "몰몬경은 이 세상의 어느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요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 누구든지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하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었음을 간증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몰몬경은 스스로 그 진실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저는 저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여러 형제 자매 친구분들께 "우리 종교의 종석"인 몰몬경의 가르침과 영에 더욱 친밀해질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그 가르침과 그 영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순종의 법

엘드리드 지 스미스 장로
교회 축복사

여러분이 이 생에서 혹은 이 생의 결과로 가장 큰 것을 얻으시려면 우선 이 지구가 창조된 목적과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시현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이 지구의 창조를 의논하고 있는 하나님들의 회의를 보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는 내려가자, 저곳에 공간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질 것이요,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첫째 지체를 지킨 자들과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리라. 또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 (아브라함서 3 : 24—26)

여기에서 이 지상의 첫번째 목적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읍니다.

"이로써……저들을……보자."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자는 뜻입니다.

순종의 법이 하늘의 첫째되는 율법이라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읍니다. 모든 축복과 희생으로 얻는 유익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제일 처음으로 주어진 율법은 순종의 법이었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아담은 제단을 세우고 희생을 드렸읍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왜 희생을 바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모세서 5 : 6)고 대답했읍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 (모세서 5 : 7)라고 그 이유를 가르쳐 주었읍니다.

종종 계명은 이유도 모르는 채 주어졌다가 후에서야 그 이유가 알려 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맹종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그것이 맹목적이든 아니든 늘 의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세기 22 : 18)

신명기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읍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저주를 받으리라"(신 11 : 26—28)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면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히 5 : 8)라고 선언하였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순종을 배워야 했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하겠읍니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0 : 20—21)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몇 가지 율법이 있읍니다. 그것 중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일조와 헌금, 안식일의 율법이 주어졌읍니다. 나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찬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증거들이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교성 89 : 18)

이것은 십일조, 헌금, 안식일, 성찬식 등을 포함하는 모든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외에도 건강의 율법을 주셨으며 또한 다음과 같이 그 율법에 따른 축복을 약속했읍니다.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교성 89 : 19)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보다 더 큰 "감추인 보화"가 무엇이겠읍니까? 이는 우리가 건강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개종자들로부터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 어떻게 지혜의 말씀을 지켰는지 들었읍니다. 건강이 교회에 입교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읍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려면 기도로써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갖기란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도움을 구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면 자연히 두 가지 일이 따르게 되는데 하나는 담배나 커피, 기타 다른 습관에 대한 맛이나 욕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인스트락터지 9월호에서 전형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읍니다. 구도자인 매리온 프럭터와 그의 아내는 십일조의 법과 지혜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충격이 어떠

한 것인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스코틀랜드인에게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우리는 "싫습니다. 수입의 십분의 일을 낼 수가 없읍니다."고 대답했읍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읍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 몇 분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서 우리는 십일조를 내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했읍니다.

"그날 밤 제 아내는 잠을 잘 잤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읍니다. 선교사들에게 당장은 담배를 끊을 수 없으며 다음날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이야기를 생각하며 뒤척이고 있었읍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거실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읍니다. 도움과 힘을 주시고 담배에 대한 욕구를 거두시어 침례를 받아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했읍니다. 저는 이전에 담배를 끊으려고 몇 번인가 노력했으며 심지어 격리 수용되어 치료받기까지 했지만 소용없었읍니다. 그러나 그날 밤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던 중에 하늘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읍니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담배를 끊어라. 내가 모든 것을 도와 주겠다. 그리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되리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읍니다. 저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에 마음에 기쁨과 화평을 느꼈읍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저는 담배를 보고 다시는 피우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읍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불 속에 넣어버렸읍니다. 그 이후로 담배를 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읍니다."("세상의 기로에 서서" 인스트럭터, 1970년 9월, 331—32페이지)

그의 아내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읍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수백 번 들었읍니다.

저는 남부에서 온 연로하신 두 자매를 잊을 수 없읍니다. 그분은 모두 미망인이었읍니다. 언니되시는 자매가, 그들이 선교사로부터 지혜의 말씀에 관해 들었을 때 큰 걱정을 하게 되었다고 했읍니다. 그 자매는 여러 친구들에게 그가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결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읍니다. 그 자매는 일생 동안 담배를 피워왔읍니다. 그 친구들은 80대 중반기에 들어 담배를 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대답했읍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의사에게로 갔읍니다. 의사는 금연으로 인한 충격을 견디지 못하여 아마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읍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읍니다.

"저는 이제 80이 넘었읍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저는 창조주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노력하다가 죽게 된다면 나는 창조주께 '저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려 노력했읍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어쨌든 그 자매는 "그분"이 그것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여 문자 그대로 생명을 걸고 그것을 행했읍니다.

그 자매는 담배를 끊었고 일어날 일을 기다렸으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읍니다. 더군다나 그는 늘 더 좋은 기분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 자매는 동생에게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 동생은 '언니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요. 좀 기다려 줘요, 그래서 함께 교회에 입교하기로 해요!'라고 말했읍니다.

일 년 뒤에 그들은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그들이 겪은 경험을 들려 주었읍니다. 두 사람 다 신전에 가서 남편에게 인봉되었읍니다.

그들은 80대 후반의 고령에 달했으나 약속된 건강의 축복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인봉의 축복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의 말씀에 따른 축복이 단지 건강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면 십일조, 안식일을 거룩히 보내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등이 포함된 모든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구세주께서는 말씀하셨읍니다. "영원히 너희 머리 위에 영광이 더해지리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었읍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 : 36—40)

우리 모두가 이러한 권고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지겠읍니까?

저는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이 하신 다음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님의 계명이 나를 인도해 주는 그분의 율법이며 규칙이라는 사실을 알았읍니다. 나는 그러한 율법에 불순종할 때 심판이 뒤따른다는 사실도 알았읍니다. 나는 주님은 너무나 일을 잘 준비해 두셨으며 이 지상의 생에 있어서 제반 일을 잘 제정해 두셨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율법에도 순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즉각적인 처벌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성장함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교훈을 얻었으며, 현재의 나에게는 성경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에 포함되어 있는 주님의 율법 즉 권고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늘 아버지의 달콤한 음성과도 같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복지에 대해 지상의 부모보다도 더욱 염려하시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충고와 권고이며, 어떤 때는 가혹하게 생각되었던 율법이 이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권고가 되었읍니다."(대회 보고, 1911년 10월, 43—44페이지)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요 14 : 15)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하여 그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나의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지어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140차 연차 대회를 맞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시고 한 영과 진리 가운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바라옵기는 이 대회 이 모임에 그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훌륭한 신앙과 선한 마음과 성실을 갖추신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에 대하여 뜨거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믿음과 간구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나의 간증을 전하고 교리를 강론하며 감사를 드리는 일로 나의 음성을 높여 말씀드리게 되었으니 특권과 같은 은혜이며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육십 년 이상을 본인은 스테이크와 선교부에서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권고하기도 하였으며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계시로 우리에게 청해진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에게 권하여 받아들이라고 하기도 하였읍니다.

평생을 두고 나는 경전의 말씀을 연구하였고 그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사고 간구하여 왔읍니다. 주는 내게 선하게 대하여 주셨으며 나는 주가 주신 지혜와 특권을 감사하며 즐거워하였고 그의 구원의 원리를 강론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복음의 원리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나와 다른 복음의 형제들이 여러 해를 두고 복음을 가르쳐온 방법이 그토록 통일되고 조화될 수 있었던가에 새삼스러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것과 같이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을 두고 같습니다. 이미 이제까지 내가 가르치고 기록한 것과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가르치고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참되다고 이야기한 것은 다른 형제나 교회의 장로들도 참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그리스도의 교역자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읍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초기에 주는 그의 사업에 부름을 받은 모든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또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며……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미약한 자와 단순한 자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전파되며 왕과 통치자 앞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니라."(교성 1 : 20, 23)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부르신 자와 교회에 속한 모든 "장로와 제사와 교사"에게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저들은 성경과 몰몬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라" 또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른 경전도 가르치라."(교성 42 : 11—13 참조)

주님의 사자로서 우리는 이 시대의 과학의 이론이나 세상의 철학을 가르치라는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전에 계시되어 기록된 구원의 교리를 간결하고 단순하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표준 경전에 기록된 것과 영이 인도하는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라고 지시하신 다음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주어지나니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교성 42 : 14)

이 계시의 뜻에 부합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복음을 세상에 전함에 있어서 복음의 원리대로 살고 그 힘과 에너지와 사용 방법을 효과있게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읍니다. 주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시었읍니다. 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우리들에게 명하셨읍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계획을 친히 만드신 분입니다. 이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신앙개조 3조)

어느 세대이거나를 막론하고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때는 주님의 선지자가 복음을 전해 받는 중계자가 되었읍니다. 아울러 이들 선지자는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며 또한 저들을 인도하는 합당한 교역자로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주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시고 구원의 진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열쇠와 권능을 전해 주시려고 부르신 예언자입니다.

그에게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 왕국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에 종말 곧 악인의 멸망이 임하리라."(요셉 스미스 1서 31절)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 스미스의 이름을 연결합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대속의 희생을 이루시었읍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요 11 : 25)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불사불멸로 일어서며 그의 율법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 말일에 구원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계시로 전달받아 합당한 교역자로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그는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하늘로부터 온 권능을 갖고 있었읍니다.

그를 통하여 계시된 진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므로 모로나이가 기록한 다음의 이야기는 전혀 이상스럽지 않습니다.

"너의 이름이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에게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며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리며 나쁘게도 오르내리리라."(요셉 스미스 2서 33절)

후에 주님께서 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은 아주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땅 끝에 있는 자도 네 이름을 물을 것이요, 어리석은 자도 너를 조롱하며 지옥도 네게 향하여 분노하리라.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귀한 자와 유덕한 자는 네게서 끊임없이 권고와 권위와 축복을 구하리라."(교리와 성약 122 : 1—2)

바야흐로 세상의 끝이 시작되고 있고 사람들은 요셉 스미스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으며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회복된 복음으로 기쁨을 만끽하고 있읍니다.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시작된 이래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예수에 대한 간증은 미국, 캐나다, 영국, 구라파 제국, 태평양 지역의 크고 작은 여러 섬, 나라 등에 전파되고 있읍니다.

최근 몇 해 동안에는 멕시코 지방, 미대륙 중부 지방, 남미 제국 등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활발하게 포교 운동이 전개되었읍니다.

아세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일찌기 보지 못했던 괄목할 복음에의 문호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한 민국, 일본, 대만, 홍콩 등지에는 확고한 교회의 토대가 잡혔고 태국, 싱가폴, 인도지나 등지에서도 복음 운동이 시작되고 있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많은 나라가 문을 열어 우리를 맞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런 나라에 들어가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 땅에 소개된 그리스도의 왕국의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어 일하고 있고 더 많은 유능한 선교사가 위대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을 압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합당한 교회의 젊은이들이 그 자신의 문제를 아버지의 뜻대로 정리한 다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때 이에 응하여 주어지는 임무를 완수해 주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이 사업에 일하고 있는 자매의 수도 많고 또 비록 자매들에게는 형제의 경우와 같은 무거운 책임이 지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많은 자매가 나와 일해 주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자매에 관하여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같이 주님의 신전에서 결혼 의식을 갖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들에게 위대한 선교 사업에 재정적인 협조를 해 줄 것을 권고하며 기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필요한 수단을 자의로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위대한 선교 사업을 위하여 불처럼 나서서 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전합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임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일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13페이지)

우리는 온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저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또한 저들에게 주를 저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청하며 아울러 그를 영과 진리[1]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경배해 줄 것을 청합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2]로 받아들이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믿는 신앙을 가지며, 그를 사랑한다는 뜻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이름으로 그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낸 자들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기로 물의 침례로써 성약을 나누며 하나님의 권세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부터 안수로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면—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이 세상에서도 화평을 얻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화평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버리고 교회에 입회한 모든 사람과 교회 회원에게 교회에 입회함으로써 여러분이 곧 온전한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또 해의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침례를 받은 다음에는 계속해서 계명을 지켜야 하며 끝까지 견디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파이는 교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전했읍니다. "……너희가 이 곧고 좁은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냐?" 계속하여 그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전능하신 권세로 너희를 구하시는 이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할진대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니이 31 : 19—20)

이 세상 사람에게 있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축복을 상속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읍니다. 침례받은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권고보다 더 중요한 권고가 교회 회원에게 있을 수 없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회개하고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따라 주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가하십니다.

나는 세상이 회개하여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저들의 삶을 비치며 온갖 선하고 참된 원리를 좇으며 이 모든 것 위에 말일에 계시된 진리의 빛을 더하라고 권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여 복음의 축복을 추수하라고 권합니다.

나는 교회 회원들에게 의의 일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며 영을 구하고 주를 사랑하며 생활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생각하여 주 앞에서[3]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구원을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이제 교회에 속하였거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이 거룩하고 참되다는 나의 간증을 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1820년 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어 그에게 때가 찬 이 경륜의 시대를 인도하라는

1. 요한복음 4 : 24 참조
2. 요한복음 1 : 14 조
3. 빌립보서 2 : 12 참조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권세와 은사로 몰몬경을 번역하였고 이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영원한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에 스스로 드러내 보이셨음"[4]을 증거하는 책이 세상에 전해졌음을 압니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임을 압니다. 또한 현재의 교회의 조직과 기능이 주님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가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압니다.

이것이 주의 교회요, 교회의 제반 행사를 주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회원에게 알립시다. 이토록 거룩한 교회에 몸을 담았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온 세상에 거하는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모든 선교사와 새로운 개종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로 성공하기를 빌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과 자비로 살피시어 저들 마음에 의를 구하겠다는 열의를 심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이 혼탁한 세상에 사는 젊은이와 교회의 젊은이를 위하여 간구하며 복음의 표준이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 때를 사는 젊은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과 교회와 우리들 개개인에게 그토록 풍성하게 부어 주신 선하심과 축복과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읍니다. 아멘.

4. 몰몬경 서문 참조

1970년 10월 3일 토요일 신권회 말씀

신권의 맹세와 성약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신권을 소유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 곳에서 모인 신권 소유자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권의 직분을 받을 때 맺은 성약을 완전히 이해하고 우리의 부름에 충실할 때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이해한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하는 데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대신권과 연관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1832년 9월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신권에 관한 계시에서 주님은 멜기세덱 신권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은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고 모든 시대에 있어 참된 교회에서만이 볼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열쇠를 지니고 있다고 하셨읍니다. 주님은 또 그것은 주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셨읍니다. 또한 "그 안식은 주의 영광의 충만하심이니라."고 하셨읍니다. (교성 84 : 17—24 참조)

그리고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에 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임이라.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

"이것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의 아버지의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나니, 아버지께서 이를 깨뜨리실 수도 없거니와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니라."

이 성약을 깨뜨리는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에 대해서는 이 계명과 함께 다음과 같이 주어졌읍니다.

"……너희 스스로 조심하게 하노니, 곧 영생의 말씀을 명심하기에 부지런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84 : 33—44)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성약이란 적어도 둘 사이에서 맺는 계약이나 동의를 말합니다. 복음의 성약이란 하늘에 계신 주님과 땅에 있는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을 뜻합니다. 인간은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주님께서 그에 따라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음 그 자체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며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계약, 약속, 그리고 보상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때 우리는 성약에 의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신권을 받고 우리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약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읍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보다 너 크고 영화로운 약속을 받을 수 있겠읍니까?

때로 우리는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계시에서는 장로, 칠십인, 대제사, 축복사, 사도로서 신권의 부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소유한 신권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하도록 지상의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입니다. 신권의 직분이나 부름은 신권의 범위 내에서 특별히 지명된 일을 수

행하도록 하는 행정적인 임무 지명입니다. 이러한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는 길은 각 직분에 지명된 일을 충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무에 성실하고 충실하다면 어떤 직분을 지니고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로 한 신권 소유자가 다른 신권 소유자를 관리하기 위해 부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어떤 직분이 다른 어떤 직분보다 더 중요하다든가 하는 일은 없읍니다.

나의 아버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 신권에서 생겨나 이보다 더 커지는 직분은 없읍니다. 어떤 직분이 그 권능과 권세를 끌어내는 것은 이 신권에서입니다. 어떤 직분도 신권에 권능을 부여할 수는 없읍니다. 어느 직분도 신권의 능력을 크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은 그 능력, 권능 등을 모두 신권에서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권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받는 직분에 지명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계시에서 신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저마다 맡은 바 직분을 지켜 자기의 부르심대로 힘써 일하라……조직이 완전하게 보존될 수 있느니라."(교성 84 : 109—10)

교회의 신권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 힘쓰는 목표의 하나는 장로는 장로의 일을, 칠십인은 칠십인의 일을, 대제사는 대제사의 일을 하게 하여 모든 신권 소유자가 그들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 따른 약속된 축복을 풍성히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데 따르는 맹세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인간이 언어로 할 수 있는 가장 엄숙하고 영구적인 약속이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신권에 관해 말씀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이러한 형태의 언어였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시 110 : 4)

바울은 이 구세주에 대한 예언을 설명하면서 예수는 "그 제사 직분(신권)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 신권을 통하여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왔다고 했읍니다. (히 7 : 24, 16 참조) 요셉 스미스는 "이 신권에 성임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으며 계속해서 제사로 봉사하되" 충실하고 참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침례 및 모든 다른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신권의 문제에 관한 한 위대하신 모범이었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이 신권을 통해 모든 것을 얻게 되리라고 맹세하신 것과 같이 아들은 우리가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게 되리라고 맹세하셨읍니다.

이것은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승영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적인 약속' 즉 우리가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권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그 특권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짊어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약속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아론 신권은 대신권에 따르는 맹세를 받아들이고 성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준비시키는 예비 신권입니다.

나는 주님을 대표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고 그 권능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나는 내가 지닌 신권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로 나의 얘기를 결론짓겠읍니다. 나는 평생을 신권의 부름에 충실하려 해왔으며 이 생의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실한 성도와 함께 오는 세상에서 우정을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인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이후에 오는 아버지의 왕국의 충만하심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우리 세대와 여러분 세대에 사랑을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나는 교회의 장래이며 국가의 희망인 온 땅의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미 공항에서 비행기의 연착으로 만나게 되었던 한 젊은이와 나눈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는 머리를 길게 길렀으며 얼굴에는 수염이 많이 자라 있었고 크고 둥근 안경을 쓰고 있었읍니다. 신은 샌들을 신고 있었으며 그의 옷매무새는 어느모로 보나 표준적인 복장은 아니었읍니다.

나는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읍니다. 그는 진지했으며 확실히 성실했읍니다. 그는 노스 어메리칸 대학의 졸업생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며 사색적이었읍니다. 그는 직장은 갖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도움으로 남미를 여행하고 있었읍니다.

그가 생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읍니다. "평화와 자유죠"라고 그는 즉시 대답했읍니다. 그가 마약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마약은 그가 추구하는 평화와 자유를 얻는 하나의 수단이었읍니다. 마약에 대한 토론 끝에 도덕에 관해 토론하게 되었읍니다. 그는 사실상 새로운 도덕이 이전의 어떤 세대가 가졌던 것보다도 더 큰 자유를 주고 있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소개에서 내가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짐짓 겸손한 방법으로 우리 세대의 도덕은 웃음거리일 뿐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개인적인 덕성과 도덕적인 순결을 옹호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읍니다. 내가 그에게 그가 느끼는 자유는 환상이

고 그가 누리는 평화는 거짓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자 그는 약간 충격을 받았읍니다.

그리고는 비행기가 곧 착륙하게 되어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읍니다. 그 이후로 나는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나는 그가 오늘 어디엔가에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를 빕니다. 그는, 도덕적인 제한으로부터 자유를 갈구하고 마비된 양심으로부터 평화를 추구하며 자신을 예속시키고 타락시키려는 행동상의 제약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수백만에 달하는 그러한 도전적인 세대의 한 사람이었읍니다. 이러한 도전이 멈춰지지 않으면 그들 자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하고 있는 온 국가도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내 사무실에서 한 젊은 남녀를 대하게 되었는데, 그 때 이러한 자유와 평화가 생각났읍니다. 남자는 인물이 수려했고 키도 컸으며 남자답게 생겼읍니다. 여자는 아름다왔고 우수한 학생으로 지각력이 있었읍니다.

그 자매는 흐느끼고 있었으며 형제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읍니다. 그들은 대학 1년생이었읍니다. 그들은 다음 주에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들이 꿈꾸었던 그러한 결혼은 아니었읍니다. 원래 그들은 3년 후 학업을 마치고 결혼하기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후회스러우며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달았읍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경쟁적인 세상에서 필요한 준비 기간인 학교 교육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읍니다. 그들은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야 했으며 그는 자신의 서투른 기술에 따른 봉급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했읍니다.

형제는 눈물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읍니다. "우리는 속았읍니다."

"우리는 서로 속였읍니다."하고 자매가 대답했읍니다. "우리는 서로를 속였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과 우리 자신을 속였읍니다. 우리는 배신당했읍니다. 우리는 순결이란 위선이라는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말았으며, 우리는 새로운 도덕 즉 죄란 다만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는 사고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함정임을 비로소 알았읍니다."

그들은 지나간 고통스러운 몇 주 동안에 두려운 낮과 고통스러웠던 밤에 그들의 마음을 스친 수많은 생각을 이야기했읍니다. 그 자매는 유산해야 했을까요? 그들 앞에 놓인 두려운 앞날의 시련을 생각할 때 그러한 유혹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읍니다. 생명이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생명의 선물을 제거해 버리는 조치를 취했다면 그녀는 어떻게 되었겠읍니까?

그 자매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형제는 학업을 계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를 양자로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도울 좋은 기관도 있으며 어린이를 갖고 싶어하는 훌륭한 가정들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는 자매를 혼자 내버려 두어 시련을 겪게 하지 않았읍니다. 그는 책임감이 있었읍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꿈꾸었던 미래의 꿈이 깨진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수행하기로 결심했읍니다.

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려는 그의 용기와 결정을 찬양했읍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나의 마음은 아팠읍니다. 이것은 비극이었읍니다. 다만 아픈 일이었읍니다. 함정이었읍니다. 속박이었읍니다.

그들은 자유에 관해 들어 왔었으며 악이란 단지 마음에 달린 것이라고 들어 왔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를 잃어 버렸음을 알게 되었읍니다. 또한 평화를 찾지도 못했읍니다. 그들은 평화와 자유—결혼의 자유 그들이 꿈꾸었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유, 더우기 중요한 것은 자존의 평화를 잃게 된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그 젊은이는 그들이 현명치 못하다고 저의 이야기를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매사에 현명했다면 이와 같은 슬픔에 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경우는 전혀 독특한 것이 아니며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일입니다. 1968년에는 미국내에서만 미혼 학생으로부터 태어난 아기는 165,700명에 달했으며 해마다 12,000명이 증가되고 있읍니다. (**리더즈 다이제스트**, 1970년 9월, 170페이지)

죄악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회피한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에 평화를, 생애에 자유를 얻을 수 있겠읍니까?

열정을 충족시키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보다 더 거짓되고 부정직한 일이 어디 있겠읍니까?

저는 한국에서 비극적인 전쟁의 결과로 한국인 어머니와 군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수많은 고아들을 보아왔읍니다. 그들은 슬픔의 소산으로, 원하지 않는 존재로, 비참한 부도덕으로 인한 인간의 지스러기로 버려졌읍니다.

월남에서도 그랬읍니다. 보고에 의하면 수만의 고아들이 버려졌읍니다. 이런데도 평화와 자유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제멋대로 놀아난 당사자나 쾌락으로 인한 비극적인 희생물로 죄없이 버려진 고아들에게나 모두 평화와 자유가 될 수는 없읍니다.

사람은 부도덕적인 정복을 기뻐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이 어찌 천하고 더러운 승리가 아니겠읍니까? 부도덕을 성취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 기만과 비참한 거짓일 뿐입니다. 만족을 가져다 주는 정복은 오직 자아의 정복 뿐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가진 자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옛말이 있읍니다.

테니슨이 한 다음의 말은 정말 타당한 말씀입니다. "나의 힘은 열 사람의 몫에 해당하니, 이는 내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이라."(알프레드 로드 테니슨, "갤러해드경")

여러분은 제가 현대 감각에 맞게 이야기하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역사가인 윌과 아리엘 더른트의 결론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는 이 시대에 감미롭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나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를 이해할 것입니다, 천 년간의 역사를 집필하면서 얻은 광대한 경험에서 더른트 박사 부부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아무리 영리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속하고 있는 사회의 관습이나 풍속을 잘 판단하여 버릴 수 있을 만큼 이해력이 많은 사람은 한 세대에 한 명도 안된다. 그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역사라는 실험실 속에서 수세기 동안 실험된 끝에 이루어진 여러 세대의 지혜를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정력이 왕성한 젊은이는 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억제해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풍속과 도덕, 법률에 의해 저지되지 않으면, 성이란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무질서 가운데서 소모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면 수많은 제한으로 저지되어야 하고 진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을 만큼 성장하기도 전에 생을 망치게 될 것이다."(역사의 교훈, 35—36페이지)

자제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더욱 어렵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읍니다. 우리는 성 범람의 세계에 살고 있읍니다. 우리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유혹적인 요소들 즉 이 나라에서만도 일 년에 5억 달라어치의 엄청난 거래가 성립되는 도색 잡지, 성 문란을 자극하고 시인하는 유혹적인 영화와 성범죄를 자극시키는 의상, 법적인 제한을 파괴하는 판결, 사랑하는 자녀들을 후에는 후회하게 될 상황 속으로 부지중에 밀어 넣고 있는 부모들, 이러한 요소들로 말미암아 젊은이들과 성인들은 더욱 자제하기 어려워지며 결국 이것들의 희생의 제물이 되고 맙니다.

한 현명한 작가가 이렇게 말했읍니다. "존재의 다른 여러 국면들은 배격되고 육신이 최고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신흥 종교들이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쾌락의 추구가 예배 의식이 되고 있는데……그것은 이러한 의식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편의를 위해 신성을……지식을 위해 지혜를, 쾌락을 위해 기쁨을, 유행을 위해 전통을 저버렸다."(아브라함 헤쉘, 자유의 위협, 200페이지)

나체가 대중의 여흥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버렸읍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이를 넘어서 가학성 음란에까지 이르렀읍니다.

한 유명한 뉴욕의 비평가는 "그것은 단지 나체일 뿐만 아니라 조악품이다." 라고 했읍니다.

우리가 도색 잡지라는 바람을 심어 부패라는 광풍을 거두어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자가 있겠읍니까?

우리는 역사를 더 읽어 볼 필요가 있읍니다. 국가와 문화는 한 번 꽃피었다가 도덕적인 병폐로 시들곤 했읍니다. 어떤 평론가가 말했듯이, 고오트인들이 로마 국경을 넘어들어와 로마를 멸망시킨 것은 "국경이 낮아서가 아니라 로마 자체가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었기 때문이었읍니다."(젱킨 로이드 존즈,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1962년 5월 26일, 90페이지)

백성의 가정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어떤 국가나 문화도 오래 지속될 수 없읍니다. 그러한 힘은 모든 가정의 총화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도 도덕과 성실, 상호 존경의 기초 위에 가정을 세우지 않고서는 역경의 폭풍으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없으며 화평을 유지할 수 없읍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 없읍니다. 성실함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을 수 없읍니다. 따뜻한 사랑의 햇빛은 부도덕한 늪에서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싹이 돋아야 꽃이 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젊은 시기는 장래의 가족 생활을 꽃피우기 위한 씨뿌리는 시기입니다. 혼란 가운데에서 평화와 사랑, 기쁨을 염원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도덕에서 자유를 바라는 것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 8 : 34)고 하셨읍니다.

순결은 후회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로부터 샘솟는 의식의 평화야말로 진정한 개인적인 평화입니다.

그밖에도 이는 유덕하게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 : 8)라고 선언하셨읍니다. 이는 이것을 이루실 권세를 가진 이의 약속입니다.

또한 현대의 계시에서도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계명에 따르는 약속과는 비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의 계명과 그에 따른 약속을 살펴봅시다. "……쉬지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이에 따르는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네게로 흘러들어가리라." (교성 121 : 45—46)

이 놀라운 약속에 대해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여러 번 미합중국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읍니다. 그 때마다 나는 그러한 지도자 앞에서 신념을 가지고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었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이 두려워하거나 부끄럼 없이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읍니다. 이는 모든 고결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쉬지 않고 덕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장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닝 폴럭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누구나 다 여성의 순결과 남성의 고결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세상이 있다면 이는 몹시 색다른 세상일 것이며 가장 훌륭한 처소일 것이다."(리더즈 다이제스트, 1960년 6월, 76페이지)

저는 젊은이 여러분에게 인간의 영이 성장하여 인간이 결코 꿈꾸지도 못했던 영광을 지니게 될 때 세상은 자유의 세계, 평화의 세계 즉 깨끗한 양심으로 채워진 평화의 세계, 오점이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세계, 충성과 신뢰와 성실로 이루어진 세상이 될 것임을 확신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실현될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는 이를 실현할 수 있읍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활이 고결하다면 이 세상은 더욱 부하고 강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 이러한 진리를 증거하면서 저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이러한 자유를 깨닫고, 이러한 평화를 알아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이 유덕의 씨를 뿌리면 지금 당장 또한 장차 기쁨을 거두게 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또 하나님의 훌륭한 대회를 끝마치면서 여러분 위에 저의 축복을 빌어 드립니다.

신권이란 인류를 위한 축복을 빌 수 있는 권세이며 신권 소유자는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의 권능을 활용하여 이웃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하겠읍니다. 누구든지 소유할 신권을 성령의 지시에 따라 의롭게 행사하면 그 행함이 주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며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성도를 위하여 축복을 빌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써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들을 모두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저들의 의로운 행위대로 풍성하신 축복을 내려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와 여러분을 위하여 말하며 우리들에게 그토록 풍성하신 축복을 내려 주신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권세로 자유의 백성으로 세우심을 입었읍니다. 자연의 온갖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은 다 우리의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삶을 살 수도 있고 화평과 기쁨을 얻는 생활을 하며 아버지의 영원하신 왕국에서 영원한 부를 누리며 살 수도 있는 진리를 가졌읍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바라옵건대 이 복음을 듣고자 모인 성도들에게, 흩어진 이스라엘의 잔류민의 후손에게 아버지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당신은 저희가 당신께 봉사하고자 함을 아시며 계명을 지키고 온 땅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기꺼이 전하려 함을 아시나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는 세상 방방곡곡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나의 친아들들을 여러 해 동안 선교사로 보내기도 했읍니다.

아직도 아들 하나는 외국 선교부에 나가 봉사하고 있고 벌써 몇 해째 그곳에서 일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의 종의 입을 빌어 우리에게 부어 주신 위대한 빛과 진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 빛과 진리의 말씀은 성신의 권세로써 온 세상에 사는 정직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떡으로 먹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로써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새로와져서 주님의 또 다른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를 최선의 노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줄 알며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로 간구하나이다.

우리는 당신께서 옛날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당신의 긴히 쓰시는 도구가 된 것을 기뻐하며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시어 저들로 우리의 선행을 보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나이다. (마 5 : 16 참조)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에 지금과 영원을 잇는 모든 것의 영광과 명예를 드리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했읍니다. 아멘.

사랑의 가치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구 여러분, 경전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정한 표준입니다. 그는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읍니다. (요 1 4 : 9 참조)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의 유일한 독생자 사이의 사랑은 인간의 아버지와 그 아들들간의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혹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질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구세주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완전한 사랑을 갖기가 어려울지도 모르나, 이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그 병폐를 고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은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세상은 계속 악화되어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사악함과 죄 속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이 지

상의 불의한 자들에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질병, 부정, 걱정, 슬픔, 기타 인간의 모든 죄악에 대한 치료책은 단 하나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이것이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이것으로 모든 백성이 이해와 평화로 함께 뭉칠 것입니다. 오늘날 행복하고 즐거운 생을 위해 가장 오용되고 있는 말은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부드럽고 깊고 동정적인 사랑이 만인의 가슴 속에 채워진다면 인류 사회의 고상하고도 가장 영광스러운 이상이 실현될 것이며 어느 정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은 지상에 있는 천국인데, 천국에 사랑이 없다면 이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며 평화라 했읍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또한 새로 주어진 큰 계명인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에서 우러나옵니다. 이는 삶과 개인의 행위와 목적을 높은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모든 일로써 구성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사려깊은 관심과 친절한 행위가 그리스도와 같이 됨으로써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심과 엄청난 필요를 요구할 때는 사랑이 진실되지 못하여, 받은 호의에 대한 보답으로 아무것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태도는 이기적인 것으로, 감사와 예의, 존경의 결핍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호의를 깨닫지 못하거나 감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그것은 인품을 강화해 주며, 모든 생활 가운데서 보다 높은 동기와 적극적인 목표를 가져다 줍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고결한 은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크게 일고 있는 폭력이나 시위가 없는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뜻이 맞는 부부가 가정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애정과 사랑에 찬 관심을 보일 때 시작됩니다. 그들은 친절과 이해로 대하여 자녀들에게 사랑과 확신을 심어 줍니다. 그들은 또한 자녀들의 복지와 행복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현명한 권고를 하셨읍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전 5 : 8)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필요가 자녀들에게 가장 절박한 필요를 채워 주지는 못합니다. 부모의 의로운 가르침과 훌륭한 모범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족은 밀접한 관계와, 협력과 상호간의 사랑, 상호간의 우정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처음으로 배우고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어린이가 처음으로 표시하는 정서도 사랑입니다. 어린 아이는 사랑이나 사랑이 부족한 것에 반응을 보입니다. 어린 아이를 끌어 안고 "내 사랑스러운 아가야" 하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읍니다. 사랑은 인생의 참 근원입니다.

부모가 그들의 불화를 조정하지 못하여 화를 내거나 싸움을 하거나 욕을 하게 되면 어린이는 매우 불안정해져, 성장함에 따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려 하게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가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시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일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아이는 종종 자신보다 훨씬 수준이 낮고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사귀며 그 친구를 막연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이들은 친구를 자신의 삶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오히려 자신의 삶의 수준을 소위 친구들의 수준으로 끌어 내리게 됩니다.

특히,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소녀들은 칭찬만 해 주는 이성에게 자신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얻기 위해 순결을 희생합니다. 사랑받기를 매우 갈망하는 소녀들이나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시킬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모들이 겪는 이러한 책임은 대체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또, 소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이들에게 어떤 가르침과 사랑을 베풀었읍니까? 그런 가정 생활로 인해, 이들이 그들과 데이트하는 여성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보호합니까?

자녀들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내버려질 때 이들은 영적이며 질서있는 가정환경을 파괴하고 맙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느낄 때 부모가 바라는 자녀가 됩니다. 가정에서 서로 사랑과 존경할 때 서로를 기쁘게 하려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신들의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느낄 때 보다 단정한 옷차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호주에서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극히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 모습이 극히 얌전치 못하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 하거나 당황해하지도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듯했읍니다. 확실히 이들에게는 옷맵시를 가르쳐 줄 만큼 충분히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읍니다. 아마 이들의 어머니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며 의상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이 나라에서도 성행하고 있읍니다.

미니스커트가 유행하게 된 바로 직후에 한 의상 디자이너가 라디오 대담에서 미니스커트가 여학생들의 도덕적인 범죄를 유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읍니다. 그 디자이너는 긍정적인 대답을 했읍니다. 미혼모에 대한 통계가 이 말의 진실성을 입증해 주고 있읍니다. 어머니와 딸들이 이와 같이 얌전치 못한 옷을 계속 입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재봉틀을 꺼내어 보다 품위있는 옷을 입힐 것입니까?

매주 갖는 가정의 밤에서 의상 표준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젊은 남성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부모들의 사랑스럽고 현명한 가르침으로 오늘날의 많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읍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경고하셨읍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시온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8살이 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일생을 거쳐 자녀들의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복음 교리, 1966년, 286페이지)

종종 부모들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관용만으로 사랑을 보여 줄 수 없으며 자녀의

사랑을 얻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그릇된 행동을 묵과하여 못본 체 해서는 안됩니다. 어린 아이는 잘못을 범했을 때 그에 대한 벌을 응당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분노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종종 부모는 자녀를 벌한 뒤 더욱 좋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때는 부모가 느끼는 그러한 사랑을 자녀에게 보여주어 종종 부모와 자식간에 대화의 문을 열어 줍니다. 자녀가 이야기를 하려 할 때는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부모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권고했읍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 3 : 11—12)

부모가 단지 자신의 쾌락이나 친구들만을 생각한다면 자녀들을 위해 시간을 어떻게 내어줄 수 있겠읍니까? 부모가 "사회적인 체면"을 고수하려고 할 때 자녀들은 부모가 다른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그들은 혼자 있게 됩니다. 이로써 그들은 자녀들에게 가정을 오락적인 장소로 이용하게 허용하며 함께 놀 친구가 있다면 그들을 데려와서 놀도록 허락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집을 떠나 있는 데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읍니까? 자녀들은 밤 늦게까지 또는 아침 일찍까지 혼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싫증이 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무슨 짓을 하겠읍니까? 그 답은 많은 책임감 없는 부모들에게 경각심과 충격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가져다 주는 또 하나의 요소는 상호 봉사로서, 모든 가족이 서로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삶의 보화〔데저렛 출판사, 1965년〕, 330페이지) 가정이란 모두가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이 외부 세계로부터의 위협과 악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며 보호 지역이라는 사실을 느낄 권리가 있읍니다. 가족의 단합과 성실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필수 요건입니다. 자녀들은 생활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쁘게 일하며, 진실하고 이기적이 아닌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며, 통찰력을 지닌 잘 조화된 인격자이며, 물질적인 편리보다 그들의 발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서적인 배경을 가진 부모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 손상되어 가고 있는, 사회의 가장 건전하고도 안전한 보루는 가정입니다. 현대 생활은 가정의 기초를 붕괴시키고 있읍니다. 확신과 사랑이 있고 질서가 잘 잡힌 가정에서 여러분은 가장 좋은 삶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진정한 가정이 될 수 없읍니다. 가정은 사랑을 통해서 영원하게 됩니다.

"사랑은 아래로 흐른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은 자녀가 부모에게 보여 주는 사랑보다 늘 더 강하며, 인간의 아들 중에서 그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천분의 일만이라도 하나님께 바쳤읍니까?"(헤어)

부모와 젊은이들이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합당한 행위의 표준의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다른 여러 미덕들과 마찬가지로 무시되어 버려져, 그 참뜻이 변질되고 증오가 그 의미를 대신하게 되었읍니다.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어찌 서로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읍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신들의 행위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읍니까?

부모가 어떻게 가정을 파괴할 수 있읍니까? 그러면 누가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됩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일부 사람들의 이기심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혼 성약이 중요하다거나 의미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함께 하여 가족과 이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부모되시는 여러분, 가정의 밤을 갖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과 자녀를 더욱 가깝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가족 기도를 하십시오. 가정에 의로운 전통을 세우십시오. 사랑과 우정과 결속을 증진시키십시오. 사태를 주시하십시오. 좋아지고 있읍니까, 나빠지고 있읍니까? 어느 때 가정이 무너지고 범죄가 시작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있는 가정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즐거웠던 추억으로 행복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간직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축복받은 어린이들입니다. 부모되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행복한 시간과 행복한 추억을 마련해 주십시오.

세계는 급속히 변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있읍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가정을 무시하고 있읍니다. 집에서 자녀를 다스리는 어머니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찾으십시오.

자녀의 장래의 안전, 복지, 진로, 행복을 보살피는 헌신적인 어머니인 데이비드녀 베일리 자매의 간증을 부분적이나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그 자매가 죽기 전 16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는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는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글입니다.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자리에 누워 있다. 잠이 않은 나로서는 드문 일이다. 아이들에게 내 뜻을 전하고 싶다……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너희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다오. 나는 너희 아버지와 내가 어떤 영광에 이르게 되든지 너희와 함께 하길 바란단다.

"너희에게 목표를 주고 싶단다……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하여 너희를 돌볼 수 없게 되더라도 이 복음을 외면하지 말아라. 서로 시기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단다. 나는 너희 모두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해 왔단다……서로 헐뜯지 말아라.……세상적인 쾌락을 구하지 말아라. 사탄과 그 사람들의 힘을 조심하여라. 사탄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거라. 너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야. 너희 아버지와 나는 이 생에서 너희 부모가 되도록 위임되었으며, 영원한 가정을 다시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 부모에게 사랑과 지혜와 훌륭한 판단력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안전과 복지와 행복을 위해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의롭게 생활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사랑을 주시는 모범적인 부모

님의 현명한 가르침에 따르고, 모두가 함께 이해와 조화와 화평 가운데서 살게 되기를 빕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자녀에게 복음과 그 원리, 그 표준, 그 이상을 가르쳐, 그들에게 "나를 좇아 너희가 내가 행한 것을 본대로 행하라"고 말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알고 있읍니다. 저는 복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계획임을 알고 있읍니다. 그가 우리를 의로운 길에서 굳건히 서며 오래도록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1970년 10월 3일 토요일 오전 모임 말씀

"화 있을찐저……위선자여"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얼마 전에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읍니다. "저기 우리가 완전히 신임해도 좋을 사람이 지나가네. 저 사람은 늘 앞 뒤가 분명하거든. 절대로 척하는 법이 없고 늘 성실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한단 말일세."

그런데 그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아 글쎄 저 녀석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 모르겠단 말일세. 저 녀석이 하는 말은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종을 잡을 수 없거든. 주님께서 아마 저런 녀석을 위선자라고 하실 걸세." 나도 그 친구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했읍니다.

내가 오늘 특별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위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교회의 성도 수는 약 삼백만으로 그 중에는 자기의 모두를 다 바쳐 이웃과 주를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헌신적인 사람도 있고, 아직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을 만큼 신앙이 돈독하지 못한 사람도, 사는 곳에서 활동적으로 교회에 참여하지조차 않는 사람도 있읍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고, 대하는 사람들의 신망을 얻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고 복음의 원리를 정직하고 부지런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실제로 원하지 않으면서 척 하는 일은 없어야겠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의 진리 몇 가지를 상고해 보기로 합시다.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 : 39)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 : 25—26)

또한 주는 그를 시험하려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라는 질문에 주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 : 36—40)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 1 : 27)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은 너무도 분명하여 그 뜻을 확대시켜야 한다거나 의혹을 가질 여지가 없읍니다. 산상 수훈도 그것이 인류에게 주시는 구세주의 메시지라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며 다만 우리는 주의 축복을 누리고 그의 영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이끌어 가도록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이끌어 가도록 구체적인 안내를 해 주는 신앙개조도 갖고 있읍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 : 21)

말일에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치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성 82 : 10)

주는 또한 다음과 같은 영광스러운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읍니다.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성 89 : 18—21)

우리는 믿음에 참되고, 간악함과 위선을 경계하라는 권고를 듣습니다. 사실상 구세주께서는 위선이라는 사악함을 크게 경계하셨읍니다. 한 입으로는 이 말하고 돌아서서는 딴 짓을 하는 자에게 주는 참으로 무서운 저주를 주시겠다고 했읍니다. 주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 23 : 29, 33)

"화 있을찐저"란 말은 사전에는 깊은 고난과 고통과 불행에 당면한 처참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위선자"란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자요 종교와 덕성을 갖지 않았으면서도 거짓으로 짐짓 행세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경전에 기록된 것을 보면 구세주는 위선자를 여러 가지로 책하신 것을 알 수 있읍니다. "화 있을찐저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위선자여!"라고 하셨읍니다.

나는 위선자에게 내려지는 정죄를 살펴 가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정리하고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주의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살펴보면 이 위선이라는 것과 범법의 사조가 오늘날과 같은 암담함을 가져 왔음을 우리는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주는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너희는 과부의 것을 노략질하고 남이 들으라고 길게 기도하며 이로써 무서운 정죄를 받으리니"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예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마 23 : 4—8, 14, 23—25, 27—30)

우리는 위에 언급한 사항이 우리가 갖는 기독교 생활에도 물들지 않았나 살펴야겠읍니다. 옛날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법으로는 동포애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남을 질시와 다툼으로만 대하여 눈에 보이는 이단은 배제하려 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신적인 이단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법조문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법의 정신을 망각하여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행동에 마음을 더 둡니까, 아니면 마음 속의 자세에 더 신경을 씁니까? 마음 속을 정결케 하는 유일의 방법은 악을 떠나 겸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좇아 생활하여 순결한 마음을 갖는 길밖에 없읍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명의 구조가 회칠한 무덤같다는 위험은 없읍니까? 우리는 훌륭한 기계와 높은 건물과 그 밖에 발전의 상징이 되는 여러 가지 기구를 갖고 있읍니다만 우리의 내면에는 쉬지 못한 피로와 나라와 국민간의 전쟁과 영영 메어 버리지 못한 가난이라는 짐과 참담한 전쟁에 희생이 된 자들의 뼈만 남아 있읍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무덤에 회칠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변호하려 한다."

죄악이 창궐하고 인구의 증가로 전원이 대도시가 되며 도덕의 기준은 점점 타락하고 외설 영화와 문학이 요란하게 휘몰아쳐도 우리는 의를 위하여 의를 지켜 굳게 서야겠읍니다.

생명을 파괴하고 불행을 자초케 하는 약의 사용은 사용자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사용을 금해야겠읍니다. 어른의 생활에 비치는 위선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이로써 반항 의식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환언하면 술 마시고 또 기타 가증한 짓을 자행하는 어른이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려는 아이들을 저지하려 할 때의 위선이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합당한 모범을 보일 때 비로소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법으로 정하던가 기타 다른 방편을 동원하여 우리의 젊은 시민이 사악한 버릇에 사로잡히는 희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이라 하겠으며 이미 제물이 된 사람을 구출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한치도 줄여서는 안되겠읍니다. 폭음하는 자, 약을 남용하는 자, 감옥에서 반성하려 하는 자 등을 도와 일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조금도 협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하겠으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노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기구의 설치를 달가와하지 않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불행에 빠진 자들은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있읍니다. 분명 우리는 모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어디서든지 도울 수 있는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읍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엄격하게 지혜의 말씀을 지키면서 동시에 과음하고 남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읍니까? 남에게 예절 바르고 교회 집회에도 잘 참석하면서 사회의 평등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유대를 나누는 이웃에게 불공평하고 부정직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웃의 복리와 평안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읍니까? 우리는 과부와 고아를 방문하여 먹이고 입히며 가난하여 도움을 구하는 자를 위로해 줍니까? 선지자 앨마는 그 시절에 "백성들간에 큰 차별이 생기는 것을 보았으니,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남을 멸시하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일들이 백성들을 크게 슬프게 하였으나, 한편으로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이 있어 궁핍한 자들을 도와 주었으니, 가난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예언의 영에 따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다 받으면서"(앨 4 : 12—13)

최근에 그 형태와 조직과 프로그램을 재정비한 상호부조회는 저들의 주 사업인 시온의 딸과 어머니의 정신적인, 영적인, 도덕적인 복리를 살피고 마련하는 일에 더욱 큰 노력을 헌신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저들은 마땅히 복음을 가르치고 모든 여성에게 훌륭한 주부가 되는 길을 가르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조직에 속한 자매들은 일주에 수천 시간을 자선 봉사에 바치며 일하고 있으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

는 병들고 외로운 사람의 수는 아직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들 주변에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세상적인 환락과 물욕을 충족시키겠다는 이기심을 주체하지 못하여 이와 같이 훌륭한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이웃에 사랑을 베풀고 교회 집회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등의 종교 활동에 등한히 하면서도 남의 활동을 예로 들어 나도 저만큼은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변명하려 합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기를 원치 않아요. 나는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신앙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호수가나 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자연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이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느니라.

그러나 날마다 어느 때든지 네 서약을 의롭게 바쳐야 하느니라." (교성 59 : 9—11)

우리는 복음이나 우리 인생의 어느 일부분만을 선택하여 갖겠다고 할 수는 없읍니다. 우리의 삶을 구획 정리하여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세주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마 23 : 23)고 하셨읍니다.

우리는 행하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사랑을 주 우리 하나님과 이웃에게 보이고 깊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어야겠읍니다. 여러분과 나, 즉 우리 모두는 우리들 개개인의 집을 정연하게 정리해야겠읍니다. 우리는 결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해리 에머슨 호스디크(1878—1969, 미국 작가)는 두 가지 형태의 위선이 있다고 했읍니다. 그 하나는 자기를 실제의 자기보다 더 훌륭하게 나타내 보이려는 의도고 다른 하나는 실제의 자기보다 부족하게 보이려는 것이라고 했읍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자기 자신보다 과장해 보이려는 위선에 대하여서만 이야기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공공연히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 감히 일어나지 못하는 교회 회원을 의외로 자주 봅니다. 이러한 류의 위선은 호스디크가 이야기한 후자의 위선에 속한다고 하겠읍니다. 이 후자의 위선도 전자의 것 만큼이나 심각하며 쉽게 존경을 얻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일어서서 신앙의 간증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는 때라야 우리는 영적으로 발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의 표준과 스스로의 확신대로 살겠다는 결의를 이행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이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조대로 살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할 때에 존경받게 됩니다. 표준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정당하고 양심적인 사람의 적대감을 사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개종한 지 얼마되지 않은 부모와 그의 아들과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읍니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가족의 아버지가 자기네들은 비활동 회원이 되었고 교회에 참석도 안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이유를 물었읍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읍니다. 즉 선교사는 깨끗한 삶을 살고 의롭고 훌륭한 좋은 본보기였는데 실제로 교회에 나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을 뿐더러 자기들이 입으로 이야기하는 대로도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게 되어 신앙도 잃고 교회에 대한 참여 의식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던져 줍니다. 첫째, 우리는 마땅히 합당한 생활을 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의 위선으로서 저들의 신앙에 회의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점. 둘째, 다른 사람의 위선적인 생활이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려는 결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경계하자는 점입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의와 진리를 위하여 굳게 단결하고 굳건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겠읍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노라고 선포하였으며 악덕에 대항하여 나가겠다고 했읍니다. 우리가 굳건히 서야겠읍니까, 아니면 나약하여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1] 부딪쳐야 하겠읍니까? 의를 구하여야 합니까, 인간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해야 합니까? 아니면 마음으로보다는 입술만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며 정치적인 권세를 얻고자 행동해야겠읍니까?

우리는 사도 요한이 언급한 자와 같이 되어서는 안되겠읍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요 12 : 42—43)

우리 회원 하나하나가 모두 자기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때 회원 삼백만을 가진 우리 교회의 위세가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두 진정한 뜻에서 참되고 정직하고 헌신적이고 덕스럽고 인자하고 유덕하고 사랑받고 칭찬[2]받을 만한 일에 종사한다면 어떻겠읍니까?

모두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모으고 그 뜻대로 살도록 노력합시다. 옛적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와 같이 가증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저들은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를 아프게 하였고 그의 삶과 가르침을 거역하였고 구세주는 그리하여 우리의 이곳에서의 행복과 영원한 세계에서의 행복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버리셨읍니다. 구세주께서 위선자를 꾸짖으신바 다음과 같은 류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마 23 : 38—39)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살아 계신 하나님[3]의 아들 그리스도요, 복음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을 알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1. 야고보서 1 : 6 참조
2. 신앙개조 13조 참조
3. 마태복음 16 : 16 참조

신권을 소유하는 특권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제게 말씀을 짧게 하라고 부탁하셨읍니다. 신권 소유자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의 큰 특권인 동시에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스미스 대관장님께서는 거의 대부분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께 말씀하셨읍니다.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아론 신권 즉 소신권 소유자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또한 제 손자에게 이야기하듯 이야기해야겠읍니다. 제 가족에는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사위가 다섯이 있으며,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손자가 넷, 아론 신권을 소유한 손자가 여섯, 신권을 받을 준비를 하는 손자가 여덟이 있읍니다. 오늘 밤 이 손자들에게 이야기해야겠읍니다.

젊은이에게 주어지는 책임 중에서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는 일보다 더 큰 책임은 없읍니다. 왜냐하면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자신이 소유하는 신권의 직분 내에서 그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는 것이며,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권능을 얻는 것이며 신권에 충실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론 신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보내셔서 다음과 같은 말로 신권을 그들에게 부여하게 하셨읍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 신권은 또 다시 레위의 자손들이 의롭게 제물을 주께 바칠 때까지 결코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13편)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기회이며 책임입니까! 이는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에게 읽어 주신 성약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약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권의 정도에 따라 이 두 신권이 다 적용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우리가 받을 축복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노력했으며 시험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마치 국민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또 거기서 대학교로 진급하는 것이나 또한, 필멸의 생에서 영생으로 오르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태도에 따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찌어다."(마 25 : 21)

우리가 신권을 갖게 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잠시,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 중에 천 명에 한 명꼴로 신권 소유자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비율로 따지면 오늘 여기에 참석한 아론 신권 연령층의 젊은이들 중에는 아론 신권 소유자가 8명밖에 없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기회이며 축복이며, 책임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영과 축복을 누리며, 여러분의 부모와 친구와 교회 지도자와 주님 자신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또한 여러분이 그들을 깨끗한 양심으로 부끄럼 없이 바라볼 수 있으며, 거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여러분의 살아야 할 방법대로 살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 이것 역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탄이 쫓겨났을 때에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에 저가 사탄이 되었나니, 참으로 악마요, 모든 거짓의 아비라. 인간을 미혹케 하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많은 자를 자기의 뜻대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모세서 4 : 4)

그는 집사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유혹하려 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유혹하려 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너무 약하여 의로운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을 그의 사자로 택했읍니다. 이들은 개인이나 교회의 지도자들, 조직, 또한 어느 때든지 약점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겁한 자가 되지 말라, 겁쟁이가 되지 말라, 차라리 그럴바에야 나를 따르라"

오늘 밤 여러 젊은이들께, 복음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신권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런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실 정도로 강하셨읍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또한 천 명 중의 한 명의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의 신권을 경외하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빕니다. 유혹에 굴복하는 자는 회개치 않으면 늘 패배당하여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이 교회 대관장단을 방문했을 때,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젊은이들에게서 받은 인상은, 그들이 매우 잘 수양되어 있었으며 자신들이 해야 할 바를 자발적으로 행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점이었다고 이야기했읍니다.

저는 여러 젊은이들께, 좌절감에 빠져 있거나 불평을 하거나, 그들이 행할 바를 행하지 않고 있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행복은 없읍니다.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함은 유감된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서, 그의 탄생, 죽음,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부활할 수 있으며 이 생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

로 다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며 합당하게 생활하여,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에게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약점을 갖고 있는 분이나, 담배나 기타 다른 것의 포로가 되어 있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밤 당장 끊으시고 행복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수 있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은 성공하게 될 것이며,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을 도와 줄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1971년 4월 대회 말씀

—제141 연차대회 보고—

인생은 영원하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은 영원한 승영을 얻는 기초가 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있읍니다. 우리는 지금 경건하면서도 행복한 대회에 함께 하고 있으며 성령의 감화와 경전의 가르침으로 우리들이 모두 한 하나님의 영의 자녀라는 깊은 확신과 기쁨을 간직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영특한 다른 영과 함께 살았읍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의 한 조각을 살고 있읍니다. 우리의 육신의 출생이 시작은 아니였읍니다. 따라서 우리들 모두가 맞이할 사망이 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출생은 깊은 잠이며
망각에 불과하다.
영혼이 우리와 함께 일어서며
우리의 삶은 별처럼 빛난다.
그리고 그 별은
어느 곳에서나 지고
또 멀리서 솟아 오른다.
모두 다를 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모두를 벗어 던진 것도 아닌 채,
우리는 영광의 구름을 지나오며
우리의 집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윌리암, 워즈워드
"불사불멸의 암시"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씩 갖고 있읍니다. 특히 온 세계를 골고루 돌아본 나는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특별히 훌륭하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읍니다. 이들은 모두 평화를 원하며 스스로 훌륭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가정과 가족을 사랑하고 삶의 표준을 높이 끌어 올리려고 노력하며 의와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며 본성이 아주 착합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또 나는 주님의 겸허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을 마음에 담아 갖고 있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높은 곳에서도 만났고 낮은 곳에서도 만났읍니다. 나는 저들의 가정을 방문하기도 했고 일하는 들판으로 찾아가기도 했으며 작은 농장과 가게에서 만나기도 했고 고속도로나 비행기 안에서 만나기도 했읍니다. 나는 또 저들을 크고 작은 여러 모임에서 만날 축복을 갖기도 했고 작은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기도 했으며 소련의 모스크바 있는 침례 교회에서 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읍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즉 나의 형제와 자매들은 특별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겸허한 종으로서 나는 저들에 대한 마음의 사랑을 갖고 있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낱낱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혼탁하고 죄 많은 유혹과 고난으로 가득찬 이 세상을 여행하노라면 세상의 무상과 덧없는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에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사람은 누구든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게도 됩니다. 감사함이라 함은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는 지식이 확인시켜 주는 고마움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계획에 대한 감사함도 있읍니다. 이 복음의 계획은 만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인생과, 부활도 우리를 영원으로 연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가르침에 대한 감사도 아울러 갖습니다.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또 그분의 사명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는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사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하셨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 : 25—26)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라고 옛 선지자 욥이 물은 일이 있읍니다. (욥 14 : 14 참조) 나의 친구였던 에베레트 덕센 상원의원이 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욥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말을 남긴 일이 있읍니다. "영원의 문턱에 선 사람 중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저 장막의 뒤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은 자가 있겠는가?

"사람으로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무덤 건너편 저 쪽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이제 서서히 인생의 여로가 끝나고 있다는 이상스런 느낌을 갖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영원한 인간의 여로와 그 여로에서 겪게 될 것이 무엇일까로 골똘한 사념에 사로잡히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

"여러 세기 전에 온갖 재물의 축복

을 받고 살다가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재앙과 고난을 받아야 했던 욥은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더불어 영원히 인간의 가슴에 메아리가 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던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인가?'라고. 부활절이 되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을 기념하며 일찌기 욥이 가졌던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애를 쓰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우주가 계획된 것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계획한 분이 계실 것이다. 신비스러운 이 세상의 삼라만상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의 질서와 그 질서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사람이 죽으면 과연 다시 살아날 것인가?' 분명히 사람은 다시 살아나며 마치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별이 그 궤도를 좇아 운행하듯, 또 밀물이 지나면 썰물이 오듯 그렇게 분명히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1965년 11월 8일, 124페이지)

그렇습니다. 인생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친 뒤에도, 비록 우리들 스스로가 영원의 진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때라도 분명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자주 우리들은 썩어 없어질 것에 지나친 애착과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세상의 온갖 재물은 우리가 이 학교라고 일컬어져야 할 세상에 사는 동안만 우리들의 주변에 장식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금이나 은이나, 가옥, 토지, 가축 등등의 세상 재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잠간 동안 머무는 처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먼저 승영에 필요한 교훈을 배우고 주님의 복음 계획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읍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망이 닥치는 것입니다만 진정한 뜻에서 우리들에게는 사망도 없으며 영원한 이별이란 것도 없읍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읍니다. 경전에 보면 부활에 관하여 누누히 언급되고 있읍니다. 구세주의 영광스런 부활이 있은 직후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읍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마태복음 27 : 53)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밧모 섬에서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계 20 : 12)라고 기록했읍니다. 이밖에도 신 구약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기사를 인용하자면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영의 세계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이 세상과 저 세상 간의 장막이 아주 얇아지는 때가 있읍니다.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들이 사랑했던 분들이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과연 영의 세계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읍니다. "바로 이 세상입니다." "과연 영이 잘 조직된 이 세상의 담장을 넘어 멀리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은 이 땅 위에 영주해야 하는 목적으로 이곳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육신을 떠나면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이해하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신 주님의 뜻에 입각한 것이며 주님께서 허가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영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게 됩니다……"(브리감 영, 저널 오브 디스코스 제3권 367—369페이지 참조)

그렇습니다. 진정 생명은 영원합니다.

"비록 오늘 하늘이 음울하고 어두워도
내일이면 다시 푸르리라.
구름이 모두 걷히고 나면
또 다시 하나님의 빛이 강렬하게 비치리"

(작자 미상)

죽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미 국무성 군목이셨던 피터 마샬 박사의 말씀에서 죽음의 모습을 찾아보기로 하겠읍니다.

어떤 집에 나이 어린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불치의 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읍니다. 여러 달을 두고 그 아이의 모친은 정성껏 아들을 간호했지만 병세는 호전되지를 않았읍니다. 그리하여 점차로 그 어린 아들은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읍니다. 하루는 그 소년의 모친이 아더 왕과 원탁의 기사에 관한 이야기책을 머리맡에서 읽어 주었읍니다. 한동안 조용하게 자리에 누워있던 그 아이는 마침내 그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담고 있던 질문을 하고 말았읍니다. "엄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엄마, 죽는 데 아주 힘이 들고 아플까?" 엄마의 눈에는 곧 굵은 눈물이 맺혀 볼 위로 흘러내렸읍니다. 그녀는 퉁기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뭘 좀 가져 와야겠다는 듯이 부엌으로 갔읍니다. 그녀는 주님께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되겠느냐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읍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읍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나와 이렇게 말했읍니다. "케네드야! 네가 어렸을 때 밖에서 아주 재미있게 놀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더러워진 옷을 벗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엄마 품에 안겨 잠이 들었던 일 생각나니? 다음 날 아침에야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는 어느 결에 네가 네 침대 위에 잘 뉘어져 있는 걸 알고는 깜짝 놀라곤 했지. 밤에 아빠가 너를 번쩍 안아다가 네 방 네 침대 위에 누이신 것이었단다. 케네드야, 죽음이란 것도 그런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속하게 된 어떤 방에서 어느 아침에 눈을 비비고 깨어나는 것과 같단 말이다." 소년은 빛나는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 보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사라졌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마음이 신뢰와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이야기했읍니다. 그는 그 후로 다시는 죽음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그후 얼마 후에 그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잠들고 말았읍니다. 죽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캐더린 마샬 지음, 베드로라 불리는 사람 참조〔뉴욕 소재 맥그로우 힐 출판사 1951년판〕, 272—273페이지)

그렇습니다. 인생은 영원합니다. 죽음이 곧 최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활절에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감사한 마음으로 간증을 드렸읍니다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읍니다. 그분은 사시는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

셨읍니다.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삼일 후에 부활하셨읍니다.

슬픔에 젖은 여인이 무덤가에서 흐느끼고 있을 때 천사는 이렇게 외쳤읍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눅 24 : 5—6) 이보다 더 분명한 일이나 증언을 우리는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읍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에 과연 이보다 더 분명하고 명료한 설명을 들어보지 못했읍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관한 섭리의 설명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우리는 예배와 신앙도 없는 것이며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혼란과 암흑의 굴레와 공포를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가 세우신 목표에 다다르자면 아직은 요원한 자리에 있읍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목표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되겠읍니다. 아울러 빛을 향하여 전진을 계속하겠다는 노력도 중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그의 탄생이나 사망이나 부활이 없다면 완성의 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 백성이 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주가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며 주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고 만인의 사망의 띠를 끊으신 주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세주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받아들여 그 뜻대로 살며 주의 원하시는 대로 생활함으로써만 우리가 우리를 결박하는 의심과 무지의 띠를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고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간단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를 배워야 하며 이로써 영원을 두고 무한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주의 뜻에 따라 살도록 우리 자신을 던져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우리의 삶에서 첫번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하겠읍니다. 우리가 주가 허가하신 사랑을 이웃과 나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풍성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갈릴리의 인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 주신 정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그만큼 타락하는 것이며 이 세상을 극복하려는 싸움에서 패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는 주의 제자와 우리들 모두에게 거듭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 14 : 1, 14, 18, 27)

우리는 어린 아이의 기도 속에서도 주의 영을 느끼며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서 안온한 신앙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주를 직접 대면하신 이의 거룩한 간증을 통하여 우리들이 구세주의 실재를 알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값진 은사입니까?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가 부활하신지 천 구백 년이 지난 이 부활절 아침에 나는 구세주가 살아 계시다는 간증을 여러분께 엄숙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우리도 그와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는 부활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그는 부활하신 후에 구대륙의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셨읍니다.

엄숙하다고까지 느끼는 현대 경전의 기록에 보면 그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다른 양떼"와 더불어 영광스런 삼 일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신대륙에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와 함께 하셨던 시드니 리그돈에게 1832년 2월 16일에 보여 주신 시현의 내용을 인용해 드리겠읍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76 : 22—24)

그렇습니다. 친구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살아 계십니다. 그는 사망의 사슬을 끊으셨읍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다시 오실 것이며 성경에는 이에 관하여 이렇게 언급되어 있읍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 : 11)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을 방문해 주셨읍니다. 부활하시어 영광을 입으시고 승영의 길에 오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이 땅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820년에 어린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이 지구의 창조주이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날에 이 땅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로 요셉 스미스에게 소개되었으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2서 17절)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이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일은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기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는 겸허하고도 엄숙한 마음으로 이 간증을 세상에 전합니다. 이 메시지는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전하고자 하는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삼백만 성도가 엄숙한 마음으로 똑같은 간증을 전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이 세상 방방곡곡에서는 수천의 선교사들이 중요한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자비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인류의 구속주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이 세상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어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요한 1서 2 . 1 참조)

오늘날 이만 명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의 선교사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즉—몰몬 교회의 삼백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는 인류를 방문하셨으며 부활은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읍니다.

나는 오늘 위에 언급한 모든 사람이 전하는 간증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아울러 나의 간증의 말씀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는 현세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번잡한 공항을 빠져 나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읍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흔히 당하는 질문이 생각났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왜 우리는 여기에 있을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질문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라는 질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이러한 질문에 덧붙여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원하십니까?라는 질문도 생각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가장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바쁜 생활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읍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정하나 일단 그것을 얻고 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몇 해가 지나고—아직 우리가 젊다해도 과거보다는 늙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벌써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을 쫓다보니 금년도 사분의 일이 흘러갔는데 문득 존 러스킨이 꾸었다는 꿈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즐길 만한 오락 시설이 갖추어진 어린 아이의 틈에 낀 꿈을 꾸었읍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오후를 마냥 즐길 수 있게 방이나 마당에 내버려 두어졌읍니다. 훌륭한 음악, 흥미로운 책, 진수성찬 등 어린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는데 그중에 실질적인 몇몇 아이들은 의자에 박아 놓은 장식 못을 뽑으려고 망치질을 하고 있었읍니다. 잠간 사이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 장식용 못을 빼다가 손가락을 다쳤읍니다. 그렇게해서 모든 어린이가 장식못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읍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다른 아이의 것을 원했읍니다. 마침내 정말로 실질적이고 민감한 아이들은 그날 오후에는 꼭 장식 못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읍니다. 마침내 그들은 한 사람이 하나밖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 못을 더 갖기 위해 싸움을 합니다. 누가 가장 많이 가지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마침내 그들은 너무 소란을 피워 나는 잠에서 깨어났고 '어린 아이들의 꿈이란 어처구니가 없구나. 어린 아이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지. 그것은 어른들만이 하는 것일거야' 하며 혼자 생각했읍니다."[1] 나는 러스킨이 꾸었던 그러한 꿈을 꾸지는 못했지만 수없이 이러한 일을 추구하고 간구하였고 생각했읍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사랑하는 연로하신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정말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달 전에 나는 나의 친했던 옛 친구의 장례식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이 세상적인 일에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의 손자는 할아버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일 주일에 한 번씩 할아버지는 가족을 한 자리에 모으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읍니다. 그는 결코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지 않았읍니다. 그는 언제나 신앙과 용기를 나타내 보이셨읍니다. 세대의 차이란 찾아볼 수 없었읍니다."

나는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의 손자 중에 한 명이라도 진심에서 이러한 말을 해 준다면 얼마나 축복받고 만족스러울까 하고 생각했읍니다.

나는 우리가 있었던 곳이나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읽거나 쓰는 것을 배울 특권을 누려보지 못한 곳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리고 나는 젊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놓인 기회를 잃거나 무시해 버리는 다른 어떤 곳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점점 고도의 훈련과 능력과 기술을 요하는 세상에서 과연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읍니까?

나의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매일은 영원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영원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는 물론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기회를 준비하도록 간청합니다. 죠지 엘리오트는 "기회를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읍니다.

자연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율법이나 인생의 법칙은 모두 같은 것이며 항상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읍니다. 우리는 무수한 법칙 가운데서 살고 있읍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읍니다. 태양은 또 다시 내일 아침이면 떠오릅니다. 이것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읍니다.

도덕적인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도 강력한 힘이 있읍니다. 이것 역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하거나 실제적이며 필수적이며 행복, 건강, 화평을 가져다 주며 정직, 도덕성, 청결, 우수성 및 그외 모두 인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계명을 소홀히 버려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수 있다고 말한다면 즉 어떤 사람이 그런

1. 존 러스킨 : 영국의 문예 평론가 겸 작가 1819～1900

2. 죠지 엘리오트 : 배리 안 이반스의 필명, 영국 소설가1819～1880 "아모스 바톤의 성직 생활의 얼면"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이스러운 신체의 기능과 함께 이러한 마음이나 육신은 지상에 있는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데 감각을 둔하게 하거나 해치고, 신체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이런 것들을 잘 돌보지 않는 것 즉 육체를 망치고 정신을 시들게 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고 사악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인간에게 해로운 것은 어느 경우에라도 인간이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법칙에서 이탈해서 오게 되는 것은 육체적인 형벌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형벌과 내심의 고뇌라는 무서운 형벌도 있읍니다. 쥬베날[3]이란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란 자기 양심을 속여서 자기의 죄를 무죄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부모를 즐겁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해 주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이나 모든 요구는 다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평화와 진보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그러므로 이기심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하겠읍니다.

물질적인 공해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오염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익을 얻거나 그외 다른 목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천박하고 저속한 그림이나 인쇄물로 가득 채우려는 외설 서적이나 잡지의 출판업자나 애독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약해지지 않고 점점 사악하고 해독스러운 면으로 커가는 악을 퇴치하기에 유익한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순진성과 정직성을 잘 보살필 의무가 있읍니다. 공해를 추방하자는 외침과 더불어 마음과 태도와 도덕의 공해를 몰아내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리적인 공해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마음이나 영혼의 공해에 대한 관심보다 더 시급하지는 않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점을 유의해야 하겠읍니다. 즉 예방의 힘과 회개의 힘이 그것입니다.

왜 인생의 법칙을 거스리겠읍니까? 왜 불행이나 질병 속에 빠지겠읍니까? 왜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대로 생활하여 방지할 수 있는 상심, 낭비, 후회 등을 생각해 보십시요. 어느 누구도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실 비이 데밀은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우리는 계명을 어길 수는 없읍니다. 우리는 다만 계명에 대해 자신을 깨뜨릴 수 있을 뿐입니다."[4] 우리는 예방의 힘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가르칩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의로운 일이 아니면 행하지 말고 진실한 일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5]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예방 조처에 실패했다면(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도우시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해 회개의 힘에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오의 무거운 짐은 결코 가볍게 생각될 수 없는 것입니다. 리 부대관장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가장 무거운 짐이란 죄의 짐"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고뇌의 짐을 지니고 있는 많은 젊고 늙은 사람들이 행동은 달리 했으면서도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은 별로 행복스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해하시고 진실히 행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다고 확신을 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주신 회개의 원칙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에 관해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성 58 : 42, 43)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읍니까? 우리의 살아 계신 구세주의 지상에 오심을 축하하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언젠가는 이 생으로부터 무한한 가능성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지낼 수 있는 실제의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성스러운 계획과 목적을 잘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며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와, 어떻게 하면 그러한 곳에도 달하도록 그의 복음을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과거에나 현재에도 그의 예언자를 통해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분 말씀대로 살아온 것보다도 훨씬 많은 훌륭한 말씀을 주셨으며 우리가 그분께 봉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에 합당하도록 더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삶의 방편을 보여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구하여 주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구세주를 보내 주셨으며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이러한 그의 목적에 우리가 기꺼이 따른다면 구원을 받고 불사불멸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나는 우리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의 자비하심과 축복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3. 쥬베날 데시머스 쥬니우스 쥬베나리스—로마의 해학자. 60~140 : 해학 13권.

4. 세실 브로운트 데밀 : 영화 제작자 및 작가 1881~1959 "브리감 영 대학 졸업식 기념사" 1957.

5.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로마 황제, 121~180 : 명상록, 12권 17편 18행.

주님께서 지으신 집이라야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네 개의 주춧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빕니다.

때는 사월이요 세상 만물이 소생하는 영광의 절기입니다. 약속과 아름다움의 계절이며 서로서로 사랑을 나누는 계절입니다.

오늘 아침 손에 손을 잡고 준수하게 생긴 젊은 남녀가 이 건물을 향하여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읍니다. 젊은 여인의 손가락에는 금강석의 반지가 반짝거렸는데 곧 그 두 젊은이는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사월이 오월로 접어들고 다시 오월이 유월이 되면 수천 쌍의 젊은이가 결혼의 문을 들어설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몇 해 전에 내게 부탁을 해서 주례를 맡았던 어떤 젊은이의 결혼을 기억하게 되었읍니다. 이제부터 그들을 남자는 팀이라고 부르고 여자는 수라고 부릅시다. 저들은 장래가 촉망되는 아직 젊은 사람들이었읍니다. 가문도 훌륭했읍니다. 교육도 많이 받았읍니다. 저들은 서로서로를 극진하게 사랑하노라고 고백했읍니다. 결혼식은 서로가 잊지 못할 만큼 인상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의 신권의 권세로 무한한 축복이 빌어졌읍니다.

몇 해의 세월이 지나 이 가정에는 자녀가 셋이나 생겼읍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팀과 수가 다시 나를 찾아왔고 이번에는 팀과 수가 따로따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얼굴에는 눈물과 수심만 가득할 뿐 미소의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었읍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들의 이혼을 상의하려 찾아온 것이었읍니다. 깊은 갈망으로 속삭이던 사랑의 하소가 이제는 서로를 질책하는 말로 변해 있었읍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였읍니다. 잔잔한 봄날의 햇빛이 그치고 별안간 닥치는 사나운 폭풍우와도 같은 변화였읍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나?" 내가 물었읍니다. 수는 헤어짐으로써 아이들이 계속되는 다툼의 모습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읍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이미 싸우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만큼 성장했다고 덧붙였읍니다. 아이들은 가슴에 오래 남을 상처를 체험할 만큼 예민한 연령에 도달해 있었읍니다.

도대체 팀과 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 수천 수만의 젊은이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읍니까? 왜 이 나라에서는 세 쌍 내지는 네 쌍의 부부중 한 쌍이 이혼으로 그 결합의 종말을 맺습니까?

미국에서는 매년 약 400,000명이 이혼을 합니다. 이들은 적어도 자녀 오십만 명의 부모이기도 한 것입니다. 현재 이 나라 성인 중에 약 육백만 명이 이혼하였거나 별거를 하고 있읍니다.

이혼하기가 어려운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병폐는 만연하고 있으며 이혼의 비극을 초래하게 하고 부도덕하고 비합법적인 사련을 사주하는 악의 물결이 어지럽게 몰아치고 있읍니다.

청소년 범죄가 격증하고 있는 슬픈 사연이 바로 이곳에 있읍니다. 사실상 수백 만의 아이들이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며 어린 아이가 느껴야 할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우리의 귀한 돈을 수억 불씩 들여야 하는 사회 복지 사업이 근본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이 있읍니다. 여기에 태초로부터 성임된 가정의 체제에 대한 거부가 있읍니다. 여기에 마음 아픔과 실패가 있읍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더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비극을 방지할 수 있는 방편에 관하여 몇 말씀 드려야 겠읍니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을 꿈꾸며 안락한 가정을 설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미 옛날에 정해진 말씀을 인용해 전하겠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시 127 : 1)

이러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주춧돌 네 개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요? 물론 다른 요소로 있겠읍니다만 나는 이 네 가지를 강조하고자 정리해 보았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택했읍니다. 이해하거나 이행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쉽게 처리해 낼 수가 있읍니다. 아울러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기초의 바위 위에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을 세울 때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은 끝까지 지속될 것이고 해가 거듭될 수록 서로서로의 사랑이 두터워지며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면서 살 수 있으리라는 것을 주저없이 약속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알고 영원한 기쁨을 허가받게 될 것입니다.

첫번째 기초는 상호간의 존경입니다. 물론 이 존경이란 상대를 자기의 소유가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로 여기는 존경이어야겠읍니다. 따라서 상대를 우격다짐으로 몰아 세우거나 이기적인 자기의 의사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펄 벅은 이렇게 이야기했읍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읍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며 따로 찾거나 간청하지 않아도 됩니다"(보배로운 마음, 165페이지)

이러한 존경은 우리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비롯되며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의 감정을 발표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의 재능을 다듬고 인내와 이해와 정성과 관용을 활용함으로써 정리됩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낭만에 역점을 둔다기보다는 상대의 안락함에 더 큰 관심을 둡니다.

결혼에 있어서 부부간의 유대는 자칫하면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며 덤덤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생활을 좀더 밝고 행복한 것이 되게 하려면 남편은 자기 곁에서 반려로의 도움을 주고 있는 아내가 하나님의 딸이며 자기와 함께 불멸의 창조의 대업을 맡기로 약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두 갖고 있으며 사랑과 칭찬과 격려가 있을 때 구현되는 거룩한 품성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쌍방에서 기울일 때 그 노력의 대가는 단 한 번도 헛되이 되지 않을 것이며 상호간의 애정은 깊어질 것입니다.

내가 두번째로 지적하는 사항은 지극히 간단합니다만 나는 이 문제를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상냥한 대답이라 하겠읍니다.

옛 말씀에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잠 15 : 1)했읍니다.

부드러운 언사를 쓰면서 욕을 먹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음성을 높일 때 불꽃이 튀게 마련이고 태산같은 노여움의 다툼이 시작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신을 따르는 자와 대면했던 때의 기사가 내게는 늘 뜻깊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왕상 19 : 11—12)

하늘의 소리는 잠잠하고 조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화평의 소리는 조용한 소리일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한 사람의 동반자로서 뿐 아니라 한 몸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말씀하신바 아버지와 앞으로 아버지가 될 사람에게 전하신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며 나는 이 말씀보다 더 의미깊은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했음을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인식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드러운 말을 쓰며 자녀에게도 부드러운 말을 쓴다면 가정의 행복은 얼마나 풍요로울 것이며 자녀의 생활은 얼마나 안락할 것이며 사회의 이혼률은 얼마만큼 줄어들 것이며 가정 내의 기쁨과 사랑과 화평은 얼마나 두텁겠읍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 6 : 4)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정의 평화는 곧 온유한 음성입니다.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세번째 주춧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과 서로서로에 대한 정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명한 법률가요, 교회 지도자요, 세상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하신 형제 한 분이 자기는 돈이 물질 문명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구가 된다고 분명히 알지만 그만큼 돈에 따르는 비극도 크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노라고 했읍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하던 그 젊은 친구는 자기 아내가 너무 사치스러우며 돈을 마구 낭비한다고 아내를 못마땅하게 이야기했읍니다. 반면에 그 아내는 남자가 쩨쩨하고 인색하기 이를 데 없다고 불평을 했읍니다. 결국은 돈 한 푼에 대한 상호간의 마찰이 저들의 사랑에 금이 가게 한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계명의 말씀에 따라 가정을 이루는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읍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 : 10)

결혼에 수반되는 임무는 여러 가지입니다.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 많은 임무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를 지킴에 있어서 철저하게 정직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이 법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여러분께 나의 엄숙한 간증을 드리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어김없이 이행하십니다, 십일조의 법을 정직하게 지킴으로써 가정에서의 화평과 가족간의 사랑을 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선으로 임무 수행에 총력을 경주한다면 일상 생활에서 여러분을 혼란으로 유도하는 비틀어진 이기심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주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과는 더 부드럽고 정직하고 관대하게 어울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번째 주춧돌로 나는 가족 기도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계속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생활을 더 가치있게 만들어 주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서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나누고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단란한 가정과 삶의 영광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신 데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는 요소와 폭풍은 제지되고 방지될 수 있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가정에서 안전과 평안을 느낄 것이며 그 가정에는 주님의 영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자녀를 한데 모아 사랑으로 가르치셔야 하겠읍니다. 저들은 부모가 서로 존경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는 존경할 줄 아는 자세가 심어질 것입니다. 저들은 나누어지는 부드러운 대화에서 따뜻함을 체험하게 되고 저들의 폭풍같은 갈등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저들의 부모가 서로서로에게 정직하며 이웃에게도 정직하게 대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자라면서 부모가 가족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듣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또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돈독해질 것입니다.

멸망의 천사(교성 89 : 21 참조)는 여러분의 가정을 범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은 사랑과 화평이 여러분의 일생을 통하여 또 영원을 두고 계속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빌어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했읍니다. 아멘.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잘 선택된 시각 보조 자료는 성공적인 교수법의 열쇠가 된다

상인들은 고객들이 상품의 진열이나 포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고객이 물건을 고르는 데 있어서 용기의 색깔이나 포장지의 매력, 포장된 모양은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시각적 효과가 거래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아이스크림은 거의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만, 아이스크림 접시 주변에 폭포 모양으로 초콜렛빛 리본을 두르고, 접시 바닥에는 아이스크림 거품을 내어 놓고, 잘게 다진 땅콩을 흩뿌리고 맨 꼭대기에 딸기 한 개를 박아 놓으면 그 아이스크림은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며 사람들은 장식을 더 해갈 때마다 그들의 눈을 더 크게 뜨고 입맛을 다시게 됩니다. 공과를 가르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훌륭한 시각 보조 자료는 공과를 가르치는 데 있어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집회소 도서실에는 교회의 교사가 반원에게 공과를 가르칠 때 흥미를 보다 잘 유발시키고, 반원에게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념을 전달하고, 요점을 뚜렷이 나타내 보이도록 복음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는 교수 자료가 준비되어 있읍니다. 집회소 도서실을 이용하여 공과를 하는 데 초콜렛과 땅콩을 얹고 꼭대기에 딸기를 박는 것입니다. 교수법이 뛰어나게 훌륭하겠지만, 도서실 자료를 사용하면 더욱 훌륭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시각적으로 그 원리를 설명하면, 그들은 보다 빨리 이해합니다.

바울의 구대륙 전도 여행을 토론하는 것은 재미있읍니다. 그러나, 구브로, 갈라디아, 마게도냐, 에베소, 혹은 데살로니가 같은 지명은 때로 위치를 잘 알지 못해 금방 마음 속에 떠올릴 수 없을 때가 있읍니다. 교사는 흥미를 가지게 된 일단의 학생들과 함께 커다란 채색 지도를 그립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바울이 여행한 지점에 핀을 꽂고, 핀과 핀 사이를 색이 다른 실로 연결하여 바울의 각기 다른 전도 여행과 로마에의 마지막 전도 여행을 구별합니다. 자, 공과는 더욱 흥미있게 되었읍니다. 한 개의 그림은 천 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광고자도 이 사실을 알고, 상인도 이 사실을 알지만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보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읍니다.

주님은 오늘날 신권 소유자가 복음을 가르치는 책임에 관하여 명백히 말씀하셨읍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일년이 채 못되었을 때 주님은 커틀랜드 신전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주셨읍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 교회의 장로와 제사와 교사들은 성경과 몰몬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라. 그 책에는 충만한 복음이 실려 있느니라.

"또 저들은 언약과 교회의 신조를 지켜 실행해야 하느니라.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것들을 자기의 교훈으로 삼을지니라."(교리와 성약 42 : 12—13)

교리와 성약 88편을 살펴보면, 주님의 이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읍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 : 118)

주님은 서로 가르치고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며 학문을 구하라고 명하신 후,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매우 간결한 말씀으로 가르쳤읍니다. 그는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교성 88 : 119)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우리가 서로 가르치려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려면, 우리는 우리와 주변을 정리하고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위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수를 위해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는 데 집회소 도서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읍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경전 귀절에서나 다른 귀절로부터 다음 몇 가지를 요약할 수 있읍니다.

1. 각 신권 소유자는 영향력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훈계와 모범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즉 그는 복음을 실천하는 모범과 말씀과 가치있는 경험과 또는 교수 보조 자료를 사용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2. 각 신권 소유자는 보다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하여 연구와 기도와 신앙으로써 자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3. 각 신권 소유자는 자신의 생활을 인도하고 그가 가르칠 때 영감을 받도록 영의 인도를 간구하여야 합니다.

4. 각 신권 소유자는 주님의 왕국에서의 신성한 청지기 직분을 갖고 있읍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소유물과 신권에의 부름은 이 청지기 직분의 일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가르치는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신성한 계획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의 부름에서 성장하게 되며, 청지기 직분을 훌륭하게 행하게 됩니다. 집회소 도서실 프로그램은 우리가 가르치는 책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교회 도서실 협의 위원회는 대관장단의 지시를 받아 1968년에 조직되었읍니다. 이 위원회는 모든 교회의 도서실의 기능에 따르는 제반 방법과 절차를 협의하는 책임을 갖고 있으며 집회소 도서실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지난해 전반기에 교회의 전 지역에 이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이 전달되었읍니다. 이 프로그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많은 출판물이 발행되었읍니다. 집회소 도서실 공보, 집회소 도서실 지침서(PBLI0104KO), 그리고 집회소 도서실 기술 교범(VVLS0248) 등이 그것

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유의 사항, 관리와 특징을 간단히 열거해 보겠읍니다.

1. 대관장단은 각 교회의 집회소마다 하나씩 집회소 도서실을 두도록 정책을 수립했다. 한 건물을 사용하는 와드 또는 지부의 수에 관계없이, 한 도서실은 그 건물의 사용자 전부가 이용한다. 이러한 시설을 위한 계획과 명세서는 교회 건물과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각 유형에 따라 집회소 도서실을 갖게 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

2. 스테이크에서는 스테이크 부장은 스테이크 도서실 책임자를 통하여 이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3. 집회소 도서실 책임자는 집회소 도서실을 관리한다. 한 건물을 한 개 이상의 와드 또는 지부가 사용할 경우 부책임자를 지명한다. 각 조직은 도서실 역원으로서 도서실 보조 책임자를 부를 수 있다.

4. 집회소 도서실에는 적합한 공과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교수 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장비로는 영화, 슬라이드, 오버헤드 프로젝터, 테이프와 녹음기, 알코올 윤전기, 영사막, 건조 접착기 등 기타 장비와 교수 자료로는 책, 잡지, 교재, 지침서, 음악, 기사, 그림, 도표, 지도, 슬라이드, 필름 스트립, 오버헤드 트랜스페어랜시 등 모든 유형의 교수 자료가 마련되어 교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집회소 도서실 프로그램은 이제 복음의 원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돕기 위한 영구적인 교회 프로그램이 되었읍니다. 이 도서실의 교수 자료를 이용하여 교수법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따라서 각 집회소마다 도서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가진 십이사도 지역 대표 모임에 제출된 통계를 보면 우리 집회소의 72퍼센트가 도서실을 갖고 있읍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될 수 있는 한 빨리 전진하기를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도서실을 사용하여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의 일면을 살펴봅시다. 내 손에는 막 출판되어 나온 이 소책자가 쥐어져 있읍니다. 여러분은 떨어져 있어, 이 책의 내용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교수 자료 목록이라는 소책자입니다. 이 책자에는 현재 신권회와 모든 보조 조직에서 가르쳐지는 공과와 내년도에 가르쳐질 모든 공과에서 다루어질 주제에 관련되는 모든 그림의 축소된 삽화가 실려 있읍니다. 1972—73년도 공과용 사진 패킷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며, 앞으로 반에서 사용될 자료는 집회소 도서실을 통하여 패킷으로 신청되고, 철해지며, 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목록에는 각 사진마다 물품 번호가 표시되어 있읍니다. 각 사진은 이 번호로써 교회 번역 출판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도서실에서는 이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공과 교재에는 각 공과에서 사용될 자료를 이 물품 번호로써 나타낼 것입니다. 이 목록은 도서실과 각 교사에게 배부될 것입니다. 공과의 저자는 앞으로 공과를 편집할 때 이 목록을 참조하여 해당 목록을 기입할 것입니다.

교수 자료 목록은 루우즈 리프식 바인더이므로 후에 공과용 자료가 첨가되면 그것을 포함할 수 있을것입니다. 오버헤드 트랜스페어랜시, 영화, 필름 스트립, 슬라이드, 테이프, 그리고 또 다른 매개체 등의 많은 종류의 자료가 첨가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가 그들의 공과를 효과있게 가르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흥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잘 조직되고 충분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으며, 유능한 역원이 있는 도서실은 와드나 지부에서 공과를 더욱 훌륭하게 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이 각 집회소에서 주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하며, 각 신권 조직과 보조 조직이 공과의 통일성을 갖도록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셨읍니다. 우리는 각 신권 소유자들이 집회소 도서실을 이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한 형제 자매 여러분께 교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와 설비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집회소 도서실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이것은 교회에서의 교수법을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생활에 보다 중요한 것이 되게 함으로써 교회의 전체 회원의 활동이 증진된다는 약속을 받고 있읍니다. 나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971년 4월 3일 토요일 오전 모임 말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음성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대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진실로 이제 방금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동의합니다. 증거하거니와 그분은 참으로 오늘날 이 땅 위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이십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며 오늘과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자 할 때 우리는 다만 잠시 과거를 돌이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요란한 풍문으로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저들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고전 14 : 8—

10)

바울의 이 말씀은 참으로 인상적이고도 강경한 말씀이었으며 여러 세기를 두고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읍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는 가혹하고 거칠게 들리며 어떤 소리는 달콤하고 또 부드럽게 들립니다.

바울은 계시의 영으로 이 말일에 벌어질 일을 보았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딤전 4 : 1—3)

또 다른 음성이 여기 있읍니다! 절박한 음성이 외친바 "귀신의 가르침"이라 하였고 이 세상에는 죄도 없고 악마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하였읍니다. 저들은 또 이르기를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하며 마치 홍수가 몰려올 것을 전혀 염려하지 않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읍니다.

사악한 영이 부르짖는 소리는 속된 환락과 채울 수 없는 육체의 만족을 사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옛날 니파이인 선지자들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던 때와 아주 흡사합니다. "……의인들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너희는 이미 완전히 멸망하였으리라. ……"(앨 10 : 22) 물론 이 세상에는 성실하게 살며 모든 계명을 빠짐없이 지켜 이 세상을 멸망으로부터 지키며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지나고 있는 것이며 황량하고 두렵기 그지없읍니다. 어둔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밤의 장막은 우리를 덮어 씌우려 하고 있읍니다.

바울이 외친 분명한 음성을 들어 봅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절제하지 못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딤후 3 : 1—4)

어떤 유명한 작가는 오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읍니다. "한 가지가 분명하다. 우리에게는 평안함과 너그러움의 세월이 다시는 허가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적을 대면하고 있다. 무자비한 적 곧, 사악함과 간계함……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살기가 등등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젱킨 로이드 존즈, 휴먼 이벤트, 1961년 11월 24일)

최근에 길에 나가서 "성적인 순결이 퇴폐적이냐"고 하는 질문으로 여론 조사를 해 보았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읍니다. "도덕의 표준은 이미 변했다. 순결은 필요 없으며 사랑만이 문제다" "순결이란 듣기만 해도 따분하다" "오늘날 덕스러움을 갖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등등이었고 어떤 소녀는 "순결이란 낡은 관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명한 시대가 인간의 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읍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자유요 법을 어기는 것도 자유요 성병에 걸리는 것도 자유요 자기 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자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자유요 진정한 자유로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깊은 부패의 심연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바울이 열거한 죄 하나하나가 이 시대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는 모두 "자기들 스스로 만을 사랑하는 데" 몰두하고 있읍니다. 저들은 저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읍니다. 저들은 저주하며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고 있읍니다. 또 다른 죄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며 부모가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정을 저버리고 있으며 오직 자기 개인의 욕구를 채우려 할 뿐 가정을 등지고 있읍니다.

이 세상에는 애정을 배반하여 결혼을 파기하고 파경에 이르른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사조는 마치 솟아오르는 기름 불기둥같이 번지고 있으며 우리의 주변을 변경시키고 있읍니다.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마저도 갖고 있지 않으며 아내나 자식에 대한 사랑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금욕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고 금욕이란 말을 이 세상은 이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전에는 이 단어를 특히 성적인 충동에 대한 자기 조절이라고 설명했읍니다. 많은 선한 사람들이 혼탁한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남녀를 막론하고 임신을 피하는 수술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임신을 피하고 산아를 제한하라는 세상의 요구에 따르려 하고 있읍니다. 아이를 갖고 또 양육하기란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만 쉬운 일이 발전과 성장을 가져다 준 일은 없었읍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녀를 적게 가지라고 고함을 치고 있으며 이에 응하고자 온갖 약을 쓰며 끔찍한 인공 유산도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스럽게도 산아 제한의 제창자들은 한 번도 금욕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같이 보이지를 않으니 어찌된 일일까요!

도서관에는 온통 쇽킹한 사진이 가득한 책으로 분주하며 인간이 어떻게 동물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가를 이야기하는 데 열을 올릴 뿐 금욕의 참 철학을 펼치는 서적은 극히 드뭅니다. "인생은 성이다"라고 부르짖는 자들은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하여 "성적인 충족"을 얻는 데 노력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가정, 영생까지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속된 욕망에서 깨어나 오직 청결하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도록 촉구하는 인쇄물도 더 나와야 하겠고 이를 권장하는 말씀도 도처에서 끊이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바울은 금욕과 절제를 가르쳤읍니다. 그는 친히 이를 실천하였고 여러 해를 실천하며 선교 사업을 했읍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저의가 아니었겠읍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전 7 : 7—8)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전 9 : 27)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 환락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바로 오늘날의 성에 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

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바"(딤후 3 : 6)라고 저들을 꾸짖었읍니다.

이제 불사불멸은 한 때 경건했던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읍니다. 방탕하는 입이 여하한 것에도 선한 것을 낳지 못했으며 이에 관하여 바울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딤전 5 : 6)고 말했읍니다. 자 이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쫓겨나게 되리라"(교성 22 : 24)

세상에서 제법 무엇을 익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는 곧 세상 만사를 다 터득했다고 생각하기가 일쑤며 이러한 사람들 곧 교육자, 실업가, 심리학자, 작가, 영화 배우, 법률가 등의 말을 들어 보면 자못 거창하고 날카롭습니다.

이러한 에고이즘과 자만은 종종 거짓의 사주를 받습니다. "간악한 자의 간계를 받아들인 자"를 그린 니파이인 선지자의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하나님의 권고를 따를진대 학식을 얻음이 유익할 것이나"(니이 9 : 29)

"……저들이 학식을 얻음에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여……저들이 스스로 아는 듯이 여기나니 저들의 지혜가 어리석도다. ……저들은 필경 멸망하리로다"(니이 9 : 28)

베드로가 간악한 자들을 금수와 같다고 하며 저들 스스로의 간악함으로 멸망되리라고 한 말씀도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저들을 "점과 흠이 있는 자요"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는 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라 하였고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을 좇는 자"라고 일컬었읍니다. (벧후 2 : 13—22 참조)

베드로를 지지하는 디도서에 기록된 바울의 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디도서 1 : 15—16)

젊은이들의 갈등에 관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읍니다. 물론 저들의 방종과 불순종과 신앙의 타락을 옳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저들의 타락에 대한 책임의 일부분은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질서에 충실치 못한 모범을 보여준 저들의 부모가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저들의 타락의 일부는 강단에서 전달된 강의에 연유된 것도 있고, 편집실이 책임져야 할 것도 있으며 방송국이 책임져야 할 것도 있으며 성직자가 책임져야 할 것도 있읍니다.

이러한 자들은 악을 대항하여 싸우는 데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짓된 주장을 일삼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사 24 : 2) 여기에 언급된 "제사장"이란 단어는 모든 종교계의 지도자들을 의미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사 24 : 5) 소란한 군중의 여러 가지 외침 가운데는 인간의 타락을 부채질하는 성직자들의 음성도 섞여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인간의 타락하려는 욕심을 유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음성도 있읍니다. 진실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신조를 굳게 움켜잡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요구에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에 게재되었던 기사를 여기 인용해 보겠읍니다.

"많은 교인이 마리화나의 사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그저 임기 응변으로 처리하고 있다"(1968년 8월 16일 타임)

이들은 "시대의 조류"에 영합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모든 죄악을 은폐시키려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읍니다. "……기독교의 정확한 원리를 구태여 성 문제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런던—브리티쉬 평의회 교회)

너무도 위의 견해와는 상반되는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베드로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훼방을 받을 것이요"(벧후 2 : 1—2)

바로 이번 달에 언론계에서는 "남녀간의 옛 풍속을 부흥시켜서 미혼의 젊은 남녀로 하여금 교회의 축복을 받으며 함께 잠자리에 들게 하며 이를 도덕적인 표준으로도 간음으로 인정치 않는" 유명한 어느 교회 대표자의 논지를 인용하여 보도했읍니다.

자 이번에는 평론가의 음성을 들어 보기로 합시다. "최근 영화 분과 위원회는 앞으로는 동성 연애 장면이나 선정적인 장면을 옮길 때 조심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우리의 거실에 엿보는 안경을 연결한 채로 우리의 젊은이로 하여금 음란과 냉소의 나락으로 잡아당기고 있다……"(제이 엘 존즈)

아주 최근의 간행물의 기사를 인용해 봅니다.

"모 교회에서는 오늘 대회에서 성인으로 동성 연애 및 행위를 범해도 계율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제의를 인정받았다……"

독자가 많은 어느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었읍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모 교회 교직자들이 함께 모여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규율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교직자의 일단과 그들의 아내가 동성애 그룹이 베푼 연회에 초대되었는데 이 연회는 레스비언의 프로를 곁들인 동성애 그룹의 자금 조달 연회였다고 한다.

이 잡지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실었다.

"……항만 근처의 학교는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그 학교에 동성애에 관련된 교사나 직원이 발견될 때는 즉시 학교를 폐쇄하며 관련자는 주법에 의거 해임 조처한다"(1967년 2월 13일, 뉴스 위크)

위에 언급한 교직자들은 이렇게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성이 같은 사람들끼리도 사랑을 서로 표시할 수 있으며 성교섭을 가짐으로써 그 사랑을 서로 깊게 할 수 있다."(1967년 2월 13일, 뉴스 위크)

듣기만 해도 흉칙스런 소리이며—소란하고 야비한 소리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헛된 소리를 할까요? 이렇게 즐겁다는 화제를 다루는 사람에게 우리는 왜 회개를 권합니까? 누군가가 이 세상의 망령됨을 경고하고 사는 모습을 바꾸게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교황의 시를 살펴 보기로 합시다.

"악덕이란 참으로 끔찍하고
두려운 괴물일세
때로는 저주하면서도 필요로 하게 되는
그리고 또 자주 보게 되는,
그리하여 자주 대하면서
낯이 익어
처음에는 그런대로 견디고
그 다음에는 연민을 품고
그리고는 얼싸안는 것,
(알렉산더 교황 "인간에 관한 수필", 서한 Ⅱ 제135행에서)

어쨌든 타락한 저들에 관하여 누군가가 함성을 울려야 할 것이며 우리는 결코 묵묵히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 위대한 모세에게는 이러한 것이 죽음을 상으로 받을 만큼의 가증함이었으며 타락이었읍니다. 바울은 이를 자연을 거역한 비인간적인, 신성을 모독한 간사한 인간의 저열한 격정이며 하늘 왕국으로 통하는 모든 문을 폐쇄할 만한 간악함이라고 했읍니다.

부모가 음란한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작가와 종교 지도자와 기타 기성의 인사들이 그러한 범법 행위를 오히려 두둔하려 할 때 우리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암흑과 혼란에 봉착한 젊은 세대를 인도할 수가 있으며 저들에게 어느 모범을 따르라고 할 수가 있겠으며 어느 것이 안전한 항구요 또 어떤 것이 믿어도 좋을 만큼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읍니까.

"성의 혼란을 용납하는 자는 성의 혼란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자"라고 심리학자 소로킨은 말했읍니다.

도대체 죄라는 단어가 오래도록 사용되지도 않았고 죄를 다스리는 가르침이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옛날에 있었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전한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과는 주장을 달리하는 말씀을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전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한 집단의 생물입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동물이며 동물 이상의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불사불멸의 영이 거하는 신전이며 인간이 담아가지고 있는 영은 육체가 더렵혀질 때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또한 순결의 법이 깨어질 때 영혼은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이 문명은 순결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읍니다. 물론 결혼의 거룩함과 가정의 신성이 바탕이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것들을 파괴할 때 기독교 신봉자는 금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가족 관계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가족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또 거룩한 인간 관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1938년 10월, 대회 보고, 137페이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이 전하는 움직일 수 없는 경고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성적인 범죄—남녀간의 불의한 성 교섭—는 그 끔찍함이 살인 다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음행이나 간음이나 매춘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치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계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과는 주님께서 밝히신 처벌이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이 이러한 죄를 심판하는 때가 틀림없이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를 빙자하거나 신문 잡지를 통해서 간악한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자에게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러한 죄과를 묵인하고 이러한 방종을 인간 욕구의 충족이라고—마치 기아나 목마름을 채우는 쯤의—말하는 자의 혀는 추악한 것입니다. 저들의 주장은 파멸을 자초하며 저들의 지혜는 거짓의 아비로부터 비롯되었음이 입증될 것입니다."(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1942년 11월, 이라, 686페이지)

그러면 다시 바울의 준엄한 음성을 다시 듣기로 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 : 16—17)

거룩하신 이의 음성은 이렇게 울렸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네게 명하노니 네 이웃의 처를 탐내지 말며 이웃의 생명을 노리지 말라."(교성 19 : 24—25)

결혼과 관계 없는 일체의 성 교섭은 신전의 문을 잠그게 하며 영원한 삶의 띠를 자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대회의 말씀을 전해 듣는 모든 사람을 푸른 정원으로 초대하며 즐거운 나무 그늘로 초대하며 변치않는 진리의 곳으로 초대하는 바입니다.

와서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요.

주는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의 교회는 굳게 서 있읍니다. 그곳에서는 죄가 묵인되지 않으나 신실한 회개로써 사함을 상으로 얻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명하노라. 회개하라……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너희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알지 못하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너희는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하는도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 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교성 19 : 15—18)

주님의 종이 외치는 음성이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바입니다. 아멘.

쇠 막 대

해롤드 비 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이 훌륭한 대회의 분위기가 제가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되기를 간구합니다.

얼마 전에 콜럼비아 대학의 저명한 종교 심리학자는 월 스트리트 잡지에 "방황하는 자를 위한 위로"라는 이 세상의 현재의 상황을 풍자한 제목으로 글을 실은 적이 있었읍니다. 재비 아더 헬즈터그가 쓴 이 글에서 몇 가지를 인용해 보겠읍니다.

"사람이 종교를 찾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공허를 느끼기 때문이며 인간이 그 공허를 메꾸지 못할 때 종교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성직자들이 세속화되면 될수록 세상은 급속히 타락의 벼랑으로 곤두박질할 것입니다.

"……결국 종교는 인간이 수천년을 두고 생각해 오던 문제 즉 인간이란 무엇이며 삶의 목적은 이 우주에서 과연 인간이 점하는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문제를 정리하는 처소로 간주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인간의 의아의 근저에는 인간의 방황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의 갈등과 혼란이 궁극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종교의 진리가 과연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인가는 모릅니다만 정치 세계가 아닌 종교의 진리 안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에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고 저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며 저들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시켜 줄 만한 방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나는 주전 600년경에 살았던 리하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본 시현에 관한 사실을 인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성도들은 몰몬경의 이야기를 여러번 들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근대 사회의 동태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 아니 이 시현에서 선지자 리하이는 하늘 천사에 인도되어 어둡고 황량한 길로 나아가 영혼을 즐겁게 하는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달려 있는 나무 앞에 서게 되었읍니다. 그는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달려 있는 나무가 있는 곳으로 난 곧고 좁은 길 옆으로 흐르는 강물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강뚝과 길 사이는 지나가는 사람이 물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쇠막대가 가로질러져 있었읍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들판으로부터 열매가 달린 나무가 있는 쪽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저들이 길을 따라 앞으로 나오는데 어두운 안개가 일기 시작하였고 심하게 되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고 더러운 깊은 강물로 떨어져 나갔고 많은 무리가 이상한 길로 떨어져 들어갔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심한 어둠의 안개가 일어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끝까지 쇠막대를 움켜 잡고 있어서 끝내는 그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따 먹을 수가 있었읍니다. 강 건너 맞은 편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무 앞에까지 안전하게 도착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었읍니다.

성경 역사에 언급되는 많은 고대 선지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선지자 지도자에게 이와 같은 꿈이나 시현을 통하여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리하이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시현을 보여 주셨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열매가 달렸던 나무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구세주께서도 그의 전도 사업 후반에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설명해 주셨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 : 16—17)

시현에 보인 쇠막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이됩니다. 이 막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 곁에서 여인에게 설명해 주신 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요 4 : 14)이라 하신 생명의 나무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현에 보였던 강 건너에서 손가락질하며 조롱을 퍼붓던 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도들을 대적하려는 세상 사람으로 풀이되었읍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의하면 조롱하던 자들은 세상의 지혜요 저들이 한 곳에 모여 쌓아 올린 건물은 "세상의 교만함"(니일 11, 12장 참조)이었읍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과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인간을 아프게 하는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좁고 곧은 길을 가로질러 영생으로 인도하는 "쇠막대"이며 이 쇠막대가 없다면 인간은 어둡고 황량한 길로 떨어져 나가며 마침내는 파탄에 빠지게 되고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며 듣기 좋은" 온갖 것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개조 제13조 참조)

몰몬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오늘날의 현상을 옛 선지자들은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몇 구절 더 읽어 드리겠으니 여러분께서는 우리들 주변의 상황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가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며 마음에 부푼 교만으로 인하여 화려한 옷을 입으며 시기하며, 다투며 남을 원망하며, 핍박하며 온갖 간악한 짓을 행하지 않는 자가 극히 적으리라는 것을 알며, 참으로 너희 교회에 속한 자가 모두 마음의 교만으로 인하여 부패함을 아는도다.

"…… 이는 너희가 금전을 사랑하며 재물을 사랑하며 화려한 의복을 사랑하며 교회의 장식을 사랑하기를, 가난하여 궁핍하며 병들고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때문이라"(몰

8 : 36—37)

사도 바울께서도 혼란의 때를 예견하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 3 : 2—5)고 했읍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종교인을 자처하고 기독교인을 자처하며 누군가가 말했듯이 "경전을 도덕적인 진리에 대한 영감의 표준"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천사가 리하이에게 이야기해 준 것과 같은 천국으로의 분명한 길을 약속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보조의 역할을 하느냐?"고.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리하이의 시현에서 보인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높이 자리잡고 서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인정하고 교회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대행인으로서 대우하는 자를 조롱하고 있는 자들이 있읍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소위 스스로 너그럽다고 하는 자들이 많으며 이러한 사람들을 전 대관장님은 "자기의 편견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데저렛 출판사 1939년판 373페이지)이라고 하셨읍니다. 한번은 교회 교육 기관에 계신 분에게 교회 표준에 너그러운 관용을 가졌다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간증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대답하셨읍니다.

저명한 교육자요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이시었던 존 에이 윗소 박사님은 교회에서의 너그러운 관용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교회에서) 스스로를 너그러운 관용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원리를 소홀히 하는 자거나 소속된 단체의 이념을 무시하는 자일 것입니다……이러한 사람은 입으로는 자기가 소속된 단체의 회원임을 주장하면서도 그 단체의 근본 이념은 어기는 자일 것이며 그 근본 이념을 변경함으로써 만족하는 자일 것입니다. ……

"자기들의 종교는 변경되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하면서 너그러운 관용의 종교를 내세우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다음 윗소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읍니다. "스스로 너그럽다고 하거나 자기들의 교회가 너그럽다고 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사실 저들의 믿음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며 진리의 폭풍이 몰아칠 때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확증과 증거" 임프르브먼트 이라, 제44권 〔1941년〕 609페이지)

리하이의 시현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만 어두운 안개에 눈이 멀었으면서도 "쇠막대"를 단단히 움켜잡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읍니다.

주님께서 아직은 합당한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어 계시로써 응답해 주시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던 에이브라함 링컨의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성경에서 읽고 이해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앙에 맡긴다."

문명의 소용돌이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지구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인간은 어떻게 비롯되었는가라는 등의 의문에 접하게 되었을 때 과학자요 성실한 교회 회원인 우리 교회의 모형제와 같은 자세로 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편안할 것이겠읍니까. 한 자매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읍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모두 다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형제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읍니다. "말씀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여덟 살 짜리 아이에게 원자학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쇠막대"를 움켜 잡는다면 훌륭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그 쇠막대는 신앙이 역사될 때 저들을 이해의 문으로 인도하며 인간의 원리로 다져진 넓은 길로 저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배도와 불신앙의 더럽고 어두운 물로도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회원이신 어떤 저명한 과학자는 많은 학자들이 아담의 범법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를 자기들의 철학이나 학문으로 정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말했읍니다. 이는 저들이 주님의 예언자에게 설명하셨으며 또 성스러운 곳에서는 보다 온전하게 전달된 주님의 역사를 믿기 보다는 인간의 철학을 따르려는 오만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셨던 때에도 이러한 의문과 반대를 일삼던 사람들이 있었읍니다. 주님께서는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혼란을 극복하고 안전에 이르는 길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자가 과연 누구일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 : 3)

경전에 의하면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어 죄악과 속된 것을 버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읍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또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로 기다리며 사도 시대에 주를 거역했던 자가, 음탕한 여자가 마침내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죄가 모두 사함을 받아 내가 깨끗이 되었고 높은 곳에서부터 빛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나는 놀랍게도 의심이 걷히고 확증이 서는 것을 보게 되었읍니다"라고 한 인내를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돌이킨다는 것, 그것은 십일조 영수증과 회원 기록 카드 및 신전 추천서를 갖고 다닐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남을 비판하려는 속성을 극복하고 안으로 형성되는 죄악을 뿌리치며 외면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내면의 약점을 제거하겠다는 무서운 결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는 남의 신앙과 믿음을 훼방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딴 곳으로 유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전과 영생을 약속한 거룩한 구속주의 뜻이 담긴 "쇠막대"를 버리도록 사주하는 자에게 엄하게 경고하셨읍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마 18 : 6)

구세주께서는 진실한 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감수하고 영원한 운명을 벌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강조하셨읍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나쁜 모범으로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의 위험을 경고했읍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였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전 8:9, 11~12)

지극히 학식이 높고 교양이 높은 자들에게 선지자 야곱은 오늘날에도 거듭 들려 주어야 할 민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들이 학식을 얻으매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옆으로 밀어 내며, 저들이 스스로 아는 듯이 여기나니, 저들의 지혜가 어리석도다.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니 저들은 필경 멸망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고를 따를진대, 학식을 얻음이 유익할 것이나"(니이 9:28—29)

우리는 오늘날 교회 회원이거나 비회원이거나 간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유능한 인물이 되며 학식을 많이 쌓은 많은 사람들과 과학 혹은 예술 분야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열의와 헌신에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역원의 직책을 받아들인 자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들은 혹은 가정 복음 교육 교사로, 기타 신권회나 보조 조직의 교사로서, 자진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불우한 자를 위한 봉사를 하며 교회 회원이거나 비회원이거나를 막론하고 돌보며 홀로 된 사람이나 고아들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열의로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노라"(눅 19:9)고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생명의 나무로 인도하는 "쇠막대"를 단단하게 움켜잡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스스로를 "버논 산의 은둔자"라고 한 조지 무어의 글을 읽은 일이 있읍니다. (버논 산은 물론 조지 워싱턴의 부모가 살던 옛 고장입니다.) 이 기사를 빌어 그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읍니다. "나는 지난 이십 년을 버논 산에 살면서 나의 무지를 갚았읍니다." 그는 사람이 자기의 지식이 지극히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 비로소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기사에서 조지 워싱턴에 관하여 자기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읍니다.

"워싱턴은 학교엘 간 일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은 유식한 사람일 수 있었읍니다. 그는 결코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읍니다."

확신하건대 이러한 자세 속에 무엇인가를 이룩하겠다는 결의가 들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배우기를 그치고 어떤 사람은 선교 사업을 끝내고 나서부터 복음 공부하기를 그칩니다. 그런가하면 회원이거나 비회원이거나 간에 사회적으로 이름이 나면 바로 배우기를 중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지 무어가 워싱턴에 관하여 한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배우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애의 여건에 관계없이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있읍니다."

고 드와이트 디 이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런 글을 썼읍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일을 잘 처리하며, 성실하며, 외부의 충동에 쉽게 말려들지 아니하며, 남의 처지를 이해하고 늘 진실하며, 참된 자야말로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인기에 관계없이 마침내는 대성하여 놀라운 업적을 남길 사람입니다.

"그러한즉 바로 이것이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까닭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도력이란?", 1965년 6월, 리더즈 다이제스트, 54페이지)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 참 교회가 서게 되면서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지시를 받게 되었고 고 브리감 에이치 로버트 형제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침례를 침수로써 받을 것이냐 죄사유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난 옛 과오를 청산하고 반석을 닦으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거듭 놓는 것으로 정리함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되었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사악한 이 세상의 흉계와 음모와 모함을 이겨낼 수 있는 안전한 보호 방책을 발견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웃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준비된 구원의 계획은 영생으로 연결되는 곧고 좁은 길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며 수많은 혼란과 거부의 길을 헤쳐 나갈 수 있게 해 줍니다. (마 7:14 참조)

주님께서는 교회의 초기에 교회 지도자들이 계명으로 받아들이도록 계시로써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리시어 여러 곳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읍니다.

첫째로는 물론 지도자들이 서로 "하늘 나라의 교리를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 왕국에 관련된 모두를 가르쳐야 한다"고 가르치셨읍니다. (교성 88:77—78 참조)

그런 다음에 주는 우리가 탐구해야 할 광범위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셨읍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는 세상의 여러 분야에서도 무지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론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는 믿음을 갖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연구와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교성 88:118)

"사람이 어떻게 신앙으로 학문을 쌓느냐?"고 질문을 한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면 선지자 한 분이 설명하신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째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시험해 보겠다는 욕구를 가져야 하고 믿겠다는 욕구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욕구가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지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 봅니다. 그러면 씨가 뿌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싹이 자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만인을 밝게 비치는 주님의 영을 거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서 얻어지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이해가 넓어지는 까닭에 선하게 될 것이며 리하이의 시현에 보였던 나무 열매처럼 먹음직 스럽고 맛있게 될 것입니다. (엘 32 참조)

어떤 영국 소설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발견한 자다"

"신앙에 의한 탐구" 그것이 곧 완숙한 지혜와 지식을 얻는 쉽고 빠른 길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인도하심을 구하느라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신앙에 의한 탐구를 하려면 성신

의 뜻에 부합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온 정열을 다 쏟으며 성신의 확인을 받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며 거짓 가르침을 철저히 추방하여 이 세상에 혼란과 방황을 야기시키는 온갖 요소를 뿌리뽑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직도 바른 길을 찾지 못한 방황하는 자들이 안전을 얻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가 먼저 온 세상을 비치는 그리스도의 참 빛을 단단히 잡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바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기도와 신앙과 탐구로써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된 사실 즉 구세주께서 나사로를 잃은 슬픔에 통곡하고 서 있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곧 "부활과 생명, 즉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신 말의 뜻을 알게 되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 11 : 25—26)

나는 내가 마르다나 옛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 : 16)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요한복음 11 : 27)

나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 엄숙한 마음으로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오늘날의 젊은이

해롤드 비 리 부대관장

태너 부대관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마빈 제이 애쉬튼 형제님이 행하신 훌륭한 말씀 가운데 어떠한 가정이라도 아들이나 딸 혹은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경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중 한 사람을 구원하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위대한 교육자 호레이스 만은 한 훌륭한 소년 학교의 개교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이 학교를 짓는 데 수백만 불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학교가 소년 한 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에 상당한 가치가 있읍니다." 모임이 끝나자, 그의 친구가 다가와서 말했읍니다. "당신은 지나친 말씀을 하고 계시군요. 당신은 이 학교가 그렇게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소년도 구원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요? 또 소년 한 명을 구원하면 그것에 든 모든 비용에 상당한 가치가 있을까요?"

호레이스 만은 그를 바라보고는, "친구여, 그 소년 한 명이 내 아들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읍니다."

여러분은 그 소년이 내 손자라든가, 내 자손 중 한 명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소년이 여러분의 자손 중 한 명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의 청소년이 직면한 무서운 상황에 대해 들었읍니다. 성인 지도자는 청소년 지도자를 훌륭히 교육시키며, 청소년 지도자로 하여금 혼자서 모든 일을 맡아 수행하도록 하지 말고 다른 청소년에게 청소년 지도자의 책임을 위임하도록 하고, 성인 지도자는 청소년 지도자에게 무조건 책임을 부과하려고 하기보다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이행할 수 있게 가르쳐 주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몇 년 전 **리더즈 다이제스트**지에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었읍니다.

"오늘날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소수의 젊은이들이 행하는 비행으로 말미암아 고상하고 지성적인 수많은 청소년들을 잊고 있읍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에 대해 불공평한 처사이며 미국에 대해서도 해로운 일입니다.

"몬타나주 리스터 에이치 로블 재판관은 주에서 일어난 소년 범죄를 많이 다루었읍니다. 그는 오늘날 젊은 세대의 97퍼센트가 다른 세대의 청년 시기와 마찬가지로 선한 반면에, 단지 3퍼센트만이 나쁜 불량배라고 말했읍니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의 청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세대보다 훌륭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여러분은 보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며, 세계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의 나이만 할 때, 우리가 가졌던 것보다 더 폭넓은 인생관을 갖고 있읍니다. 나는 매년 각처에서 열리는 학생 모임, 정치 회합에서 수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가집니다. 나와 대화를 나누었던 청년들중 대부분이 선한 동기와 건전한 도덕적 견해를 갖고 있었읍니다."("미국 청년에 관한 의견", **리더즈 다이제스트**, 88—92페이지, 1966년 4월)

그 기사를 읽으며, 나는 피셔 박사께서 한 말씀이 생각났읍니다. 미국 소년단 교육 책임자였던 피셔 박사는 이 어셈블리 홀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현대의 청소년이 지나간 두 세대의 청년보다 두 배 정도 향상되지 못하였다면 이들은 지난 세대의 절반밖에 향상되지 못한 셈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석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그가 왜 이같은 말을 하였는지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교사 자질 향상, 지도자 훈련, 또는 도서실 자료를 공급하는 데 있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말해 주는 말씀을 읽어드리며 나의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은 위대한 계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읍니다.

"보라, 내가 범사에 일일이 명령해야 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나니, 무릇 매사에 강요당하여 행하는 자는 게으른 자요, 현명하지 못한 종이라 따라서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 의사로써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음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면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명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여 명령을 받아 마지못해 이를 준행하는 자는 정죄를 받느니라.

"나는 명령하나 인간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나의 약속을 취소하나니, 저들이 축복을 받지 아니하는 도다.

"그때에 저들이 마음 속으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나, 그러한 자에게 화 있나니, 저희 상은 땅 아래로 숨어 버리며 하늘에서는 내려오지 아니할 연고니라."(교성 58 : 26—29, 32—33)

신권 소유자 여러분, 여러분은 사회에서, 가정에서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의 자유의지로써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 여러분의 책임, 또 나의 책임은 바로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이해하기 약간 어려울지 모르겠읍니다. 여러분 바로 자신을 돌본 후에야 남을 돌볼 수가 있읍니다.

나는 주님이 여러분 자신을 찾도록 도우시고 그 후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찾을 준비를 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앞에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대대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절름발이, 외로운 사람, 죄인에 대한 우리들의 임무가 무엇인가

지난 11월 나는 불란서의 중심부를 유유히 흐르는 세느강을 가로 지르는 다리 위에 서 있었읍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1918년의 휴전 협정이 맺어지고 세계 대전이 종결된 때부터 오십 이년이 흘렀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머리 속을 메워 왔읍니다. 나는 오십 이년 전의 세느강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돌이켜 생각해 보았읍니다. 이 다리를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지나야 했던가? 더러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에게 이 세느강 다리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였읍니다. 비미 리지, 아르멘티어, 누에브 샤벨 등지의 전장에는 수많은 생명이 숨져 갔읍니다. 줄지어 늘어선 하얀 십자가는 잊지 못할 그날의 참상을 되살리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읍니다. "전쟁이 그토록 야만스럽게 몰아치는 가운데 사람에게 용맹을 낳게 하고—사랑으로 일어서게 하다니 이상하단 말야"

소년 시절에 나는 "잃어버린 대대"에 관한 기사를 퍽 흥미있게 읽었읍니다. "잃어버린 대대"는 세계 제1차 대전 당시 제77보병 사단에 예속되었던 부대였읍니다. 뮤즈—아르곤의 대공략이 전개되는 동안 한 소령이 이 대대를 지휘하여 적진을 뚫고 진격해 나갔는데 측면 부대가 전진을 감행하지 못했읍니다. 그리하여 대대 전 병력은 완전히 포위를 당했고 물과 식량도 떨어지고 부상병의 후송과 치료도 막혔읍니다. 그 위에 파상적인 공격은 되풀이 되었고 이 대대의 항복을 촉구하는 제의는 빗발쳤읍니다. 언론계에서는 그 대대의 강인성을 대서 특필했고 일부에서는 이 대대의 운명이 기구하다고 했읍니다. 악전 고투의 얼마 동안이 지난 뒤 77사단 예하의 다른 부대가 혈로를 뚫고 진격하여 "잃어버린 대대"를 구출했읍니다. 적지의 전우를 구하겠다는 사랑으로 일어선 이들 구조부대 용사들의 무용이 기록으로 남았읍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앞서서 자원했고 그리하여 가장 용맹스럽게 싸웠으며 장엄한 죽음을 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비견되는 감람산의 수훈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의 귓전을 울릴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 : 13)

이제 "잃어버린 대대"의 명세는 망각되었고 이 부대의 구출을 위해서 지불된 막대한 대가도 사람들은 이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로 눈을 돌려 오늘날의 상태를 조사해 봅시다. 오늘날에도 "잃어버린 대대"가 있읍니까? 그렇다면 저들을 구출해 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맡은 임무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카키 군복을 입지도 않았고 북소리에 발 맞추어 행군도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 고립된 자들만이 느끼는 회의와 절망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절름발이, 벙어리, 장님 등 신체의 장애로 인해서 "잃어버린 대대"가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읍니다. 여러분은 앞을 못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허청허청 걸어가거나 한 치씩 흰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고 도와 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몰라서 멈칫거리고 가슴이 아파진 때가 있읍니까? 참으로 우리의 주변에는 암흑의 벌판을 방황하는 무리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잃어버린 대대"의 구조 작전을 눈으로 확인하려거든 시립 맹아 보호 쎈타에 가서 앞 못보는 이들을 위하여 글을 읽어 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 둘 필요가 있읍니다. 불구자들에게 어떤 기술이 가르쳐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요. 저들에게 적성에 맞는 일정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는 자들의 노고가 가슴을 울릴 것입니다.

비참한 불구가 된 자들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관용과 사랑으로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암담한 저들에게 가져다 주는 빛과 광명 속에서 풍성한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과연 저들의 예민한 손가락이 점자로 된 성경의 책장을 넘길 때 말할 수 없는 환희를 느낍니까? 저들은 요한복음 십 이 장에 이르러 평화의 왕자의 약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음미하며 잠시 손을 멈춥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요. 12 : 46)

연로하였거나 홀로 되었거나 병마에 시달림을 받는 "잃어버린 대대"를 생

각해 봅시다. 흔히 이들은 외로움 혹은 고독이라고 일컬어지는 메마른 외딴 벌판에 자리잡고 있읍니다. 청춘이 지나고 건강이 다하며, 젊음의 총기와 정력이 쇠하면 소망의 밝던 불이 희미해지고 이들 무수한 "잃어버린 대대"의 요원들은 이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가진 자의 도움과 협조로써만 비로소 일어서게 됩니다.

뉴욕 브룩클린에는 지금 열 세 살의 소년으로 솔트레이크시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구조해 낸 소년이 살고 있읍니다. 그 소년과 그의 동료들은 한 마을에 살았고 그 마을에는 연로한 과부가 많았읍니다. 일년 내내 이들 소년들은 성대한 성탄 파티를 갖고자 계획하며 푼푼이 돈을 모았읍니다. 오직 자기들만의 모임을 생각하던 이들이 성탄의 뜻과 의미에 눈이 뜨였읍니다. 이들의 대장격인 프랭크는 자기들이 정성을 다해서 모은 자금을 이제까지 계획하던 파티에 쓸 것이 아니라 한 마을에 거주하는 나이 많은 과부를 위해 사용하자고 동료들에게 제의했던 겁니다.

이 새로운 제안으로 열을 올리게 된 이들 소년은 아주 커다란 통닭과 감자와 채소를 사고 성탄과 관련이 되는 선물을 마련했읍니다. 그리하여 과부의 집을 찾아 다니면서 보배로운 선물을 낱낱이 전했읍니다. 눈발을 헤치고 가파른 언덕 길로 오르면서 일행은 마침내 한 외딴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읍니다. 안에서 느릿느릿한 발소리가 문으로 다가왔읍니다.

잘 화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열 세 살짜리 소년들의 노래가 울렸읍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리고는 선물을 전했읍니다. 이 거룩한 밤에 그 옛날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토록 아름다왔을 것이며 박사들이 전한 예물이 이토록 소중한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나는 그 훌륭한 여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누군가의 어머니"라고 뇌까렸고 그 착하고 장한 소년들을 바라보면서는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중얼거렸읍니다.

구세주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읍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 : 40)고 하셨읍니다.

이 세상에는 경솔한 언행으로 서로 서로를 버리고 고립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과 딸로 구성된 또 다른 "잃어버린 대대"가 있읍니다. 그러면 그토록 편협한 처사가 빚은 비극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잭이라고 부를 젊은이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평생을 두고 잭은 아버지와 여러 가지로 심한 논쟁을 했읍니다. 잭이 열일곱 살이었던 어느날 아침 특별히 심한 논쟁을 하게 되었읍니다. 잭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못 살겠어요. 당장에 집을 나가겠읍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커다란 보따리를 챙겼읍니다. 그의 어머니가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을 했읍니다. 그러나 약이 오른 그의 귀에는 그 애원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읍니다. 그는 문에 기대서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두고 떠났읍니다.

마당을 지나 막 대문을 나서려는데 아버지가 잭을 불러 세웠읍니다. "얘야 네가 집을 나가는 이유가 물론 나 때문인 것도 있겠지. 그점 잘못됐구나. 그렇지만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거든 오너라. 나도 더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마. 잊지마라. 나는 늘 너를 사랑한단다."

잭은 말 한 마디 없이 버스 정거장으로 가서 먼 곳으로 가는 버스표를 샀읍니다. 버스에 앉아 하염없이 달리는 동안 그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는 아버지가 하신 만큼 하려면 얼마나 큰 사랑이 있어야 하는가를 깨닫기 시작했읍니다. 아버지는 용서를 빌었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하셨읍니다.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가 여름 하늘을 울리고 있었읍니다.

잭은 이번에는 자기 쪽에서 행동을 취할 차례라고 느꼈읍니다. 잭은 아버지가 보여 주신 것과 똑같은 자애와 관용과 사랑을 자기 스스로 닮는 길이 자기의 평화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읍니다. 잭은 버스를 내렸읍니다. 그는 되돌아가는 차표를 사가지고 돌아갔읍니다.

그가 집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좀 지난 때였읍니다. 그는 집에 들어서서 전등을 켰읍니다. 거기, 흔들 의자에 아버지가 손으로 턱을 괴고 앉아 계셨읍니다. 눈을 들어 잭을 보시고는 일어났읍니다. 두 사람은 팔을 벌리고 마주 달렸읍니다. 잭은 가끔 이런 소리를 했읍니다. "그 이후 내가 집에서 보낸 시간이 내 생에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루 밤 사이에 철부지가 어른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읍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존심을 누르고 아들이 "잃어버린 대대"의 일원이 되기 전에 구출한 아버지가 있었노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읍니다. 오직 사랑이 서로를 연결하는 때였읍니다. 오직 사랑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이었읍니다. 사랑은 너무 자주 느끼면서도 표시하기가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시내 산에서 천둥같은 소리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출 20 : 12)는 주의 음성이 들렸고 이어 "사랑으로 함께 살라"(교성 42 : 45)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세상에는 또 다른 "잃어버린 대대"가 있읍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의 숲에서 몸부림치고 있고 무지의 벌판에서 방황하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사실 우리들 모두가 잃어버린 대대의 대원으로 일컬어질 존재인 것이며 영원한 사명을 걸머진 대대인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고전 15 : 21—22) 우리들은 모두 사망을 겪어야 할 존재입니다. 아무도 죽음에서 면제될 사람은 없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한 낙원은 영원한 허상에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친구도 잃은 채 빈 기억만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복된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 1 : 21)

불란서의 강물 줄기가 형제의 목숨을 구출하고자 진격한 부대의 행적을 말없이 증거할진대 그밖의 또 다른 강은 온 우주의 구원을 이루고자 거룩한 구속주로서 일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증거할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막 1 : 11)

구세주께서 갈릴리의 성역자로 일하시던 해변의 도시 가버나움은 다만 폐허로 남아 있읍니다. 이곳 회당에서 주는 가르치셨고 해변에서도 가르치시며 가정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했읍니다.

한번은 예수께서(눅 4 : 18)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하셨읍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사 61 : 1)라고 분명히 전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속한 "잃어버린 대대"를 구하시겠다는 거룩한 계획인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이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의 밀고로 잡히사 갖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고 그리스도는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진 채로 갈보리 산을 향하여 비틀거리는 걸음을 떼어 놓았읍니다. 그는 승리를 믿고 일어서서—배신을 당하고—고난을 받으며—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읍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주셨읍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맏형은 그의 생명을 주셨읍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는 돌아설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지 않았읍니다. 그는 모두를 극복하시었고 인류와 세상의 모두를 구하셨읍니다. 기독교의 세계에서는 주의 시체를 돌보려고 무덤에 왔다가 울고 있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눅 24 : 5—6)

이 약속에 의하여 인류의 "잃어버린 대대"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과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나 언젠가는 죽을 사람과 차차 태어나 죽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들 모두의 끝없는 죽음을 거두어 주셨읍니다. 나는 그분이 진리의 선생이심을 증거합니다. 참으로 그분은 선생 이상의 선생이시었읍니다. 인류의 "잃어버린 대대"를 구하신 분은 세상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요 화평의 왕자요 다시 사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중보자니라"(교성 110 : 4)

이것을 여러분께 증거하며 주가 살아 계심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성신은 증언하시나니"

보이드 케이 패커
십이사도 평의회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는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원을 지지하여 손을 높이 들었던 것은 작년 오늘 엄숙한 집회에 서였는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행했읍니다.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으로 여러분의 지지를 받기 위해 발표되는 나의 이름을 듣던 것이 지난 해 4월 아침이었읍니다. 지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의무가 되었읍니다.

왜 이러한 부름이 나에게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 나도 의아해 했지만 여러분께서도 몹시 궁금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합당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때때로 우연인 것같이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생활을 위해 인도받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 항상 끊임없고 조용하며 여유있는 느낌을 견지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교회의 대관장을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영광이 아닐 수 없었읍니다. 나는 그에 대해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위대한 특권이나 특별한 의무로 생각합니다.

지난 4월의 모임이 있기 몇 주 전 금요일 오후에 나는 주말 대회의 과제를 생각하면서 사무실을 나왔읍니다. 나는 2층으로부터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읍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순간 나는 그곳에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 분의 사무실은 아래층에 있었는데 위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고 약간 놀랐읍니다.

그 분이 복도를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에게는 강력한 증거가 나타났으니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께서 그곳에 서 계신 때문이었읍니다. 빛에 가까운 성령의 달콤한 목소리는 순수한 예지와 같았으니 이러한 것들은 나로 하여금 이 분이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었읍니다.

나는 그러한 경험을 말일성도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종류의 증거는 이 교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회원이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증거입니다. 교회의 대관장에 관해서만 아니라 그의 보좌에 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의 북쪽에는 와사치 산맥이 있는데 그곳에는 세 개의 산봉우리가 있읍니다. 시인은 그것을 돌로 만든 거대한 피라미드라고 묘사를 합니다. 셋 중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봉우리는 지도상에 월라드 봉우리라고 쓰여 있읍니다. 그러나 개척자들은 그 봉우리를 "대관장단 봉우리"라고 불렀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월라드 봉우리에 가셔서 동쪽을 향해 위쪽으로 살펴보시면 "대관장단 봉우리"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관장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봉우리처럼 대관장단 역시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곳에 서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끊임없는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때때로 그러한 높은 지도자의 부름이 쓸쓸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부름은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위대하고 선량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지난 해에 저는 가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읍니다. 흔히 그러한 질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의 자격에 관해 호기심에 차고 무책임한 질문이

었읍니다. 그들이 묻는 질문은 대략 다음과 같았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보셨읍니까?"

나는 결코 그러한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해 본 적이 없읍니다. 나는 그러한 문제는 너무 성스럽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묻는 데는 어떤 특별한 영감이나 참으로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정원회에 속한 나의 친구에게도 그러한 질문을 해 본 적이 없읍니다.

쉽사리 토론하기에는 너무나 성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전에 관해서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의 신전에서는 성스러운 의식이 집행됩니다. 또 성스러운 경험을 얻습니다. 그러한 속성 때문에 우리는 성전 밖에서는 그것에 관해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밀이 가득찬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론은 되지 않지만 깊은 존경심으로 마음 속에서 간직되고 보호되고 존중됩니다. 나는 예언자 앨마가 말한 뜻을 알게 되었읍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는 많은 사람이 알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에서 모두 그 신비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귀 기울여 열의를 갖는 자만이 저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엄격한 명령을 내리셨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강퍅하게 먹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밖에 알아들을 수 없으며 마음을 강퍅하게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어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섭리를 알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엘 12 : 9—10)

와드나 지부의 회원이나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며 예수는 구세주이심을 알고 있읍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많으나, 이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즉 "왜 그것은 좀더 평이한 말로 설명될 수 없나?" "좀더 분명하고 보다 잘 설명될 수는 없을까?" "사도들이 더 잘 말할 수는 없을까?"

신전에서 있었던 성스러운 경험이 어떻게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이 되겠읍니까? 그것은 성스러운 경험이며 우리가 그것을 말로써 설명하게 된다면 모두 같은 말을 사용해서 같은 방법으로 밖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역시 나이 어린 초등협회나 유년주일학교 어린이와 같은 말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예언자나 어린 아이들의 간증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 그의 말씀을 모든 사람, 곧 남자와 여자에게 전해 주시며 이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어 지혜있는 자와 학식이 있는 자를 당황하게 하시느니라."(엘 32 : 23)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롭고 극적이며 남과 다른 방법으로 행해지는 간증을 찾습니다. 간증을 한다는 것은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도 흡사합니다. 처음부터 낭만주의자나 시인이나 사랑에 빠진 한 쌍은 그들의 사랑을 보다 인상적인 방법으로 말하거나 노래하거나 쓰려고 노력해 왔읍니다. 그들은 모두 형용사나 비교급이나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였읍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가장 힘있는 선언이란 단순한 세 마디의 말인 것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이 간단한 간증은 충분한데 그것은 증거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힘은 전기처럼 실제로 볼 수 있는 유형적인 것일 수가 있읍니다. 인간은 영상을 보내며 공중으로 소리를 보내 이를 안테나가 받고 다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는 수단을 고안해냈읍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대화도 수백만 배 이상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는 그것과 비슷하며 그것이 가져 오는 증거는 항상 진리인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성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는, 순수한 예지가 흐를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있읍니다.

나는 성령의 암시 없이는 결코 대답될 수 없거나 쉽사리 취급될 수 없는 질문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읍니다. 나는 그러한 질문을 남에게 해본 적이 없으나 대답을 들은 적은 있는데 이것도 그것이 질문되었을 때 대답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스러운 때에 성신의 암시로 대답되었으니 즉 "성신은 증언하시나니"(교성 1 : 39)

나는 교회의 한 형제가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나는 경험으로부터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성스러운, 예수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또한 다음과 같은 간증을 들었읍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읍니다. 저는 주님께서도 살아 계심을 알고 있읍니다. 그보다도 저는 주님을 알고 있읍니다."

그 의미와 힘을 지닌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성령인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성령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전함이라"(니이 33 : 1)

나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이러한 성스러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항상 지녀왔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관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증거란, 표적만을 추구해서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금식과 기도와 활동과 시험과 순종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을 지지하고 그를 따름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칼 지 메저[1]는 일단의 선교사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었읍니다. 그들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걸음을 멈추었읍니다. 그들이 지나온 빙판의 눈위에 세워 놓은 장대를 보라고 몸짓을 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읍니다. "형제 여러분 저기에 신권의 능력이 있읍니다. 저것들은 마치 우리와 같은 평범한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위치는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 주고 있읍니다.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길을 이탈하게 되면 우리는 실종을 하게 된다고 그들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2]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표적을 보고 행동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증거란 주님의 종을 지지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찌하여 나와 같은 사람이 성스러운 사도의 직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의아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결여하고 있는 자격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나의 노력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곰똘히 생각하는 동안 나는 한 가지 생각에 도달했는데 이렇게 된 유일한 자격이라면 내가 다음과 같은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독일 태생 교육자. 초대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
2. 앨마 피이 버튼, 칼 지 메저, 몰몬 교육자 (데저렛 출판사, 1953), 22페이지

나는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는 절정의 시대에 태어나셨읍니다. 그는 그의 복음을 가르쳤고 심판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읍니다. 그는 삼일 만에 부활하셨읍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읍니다. 그는 살과 뼈가 있는 육신의 몸을 가졌읍니다. 이러한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에 대해 저는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과거로부터의 경고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지금까지 세 개의 위대한 문명이 서반구를 지배하여 왔읍니다. 두 문명은 쇠잔하여져 잊혀졌읍니다.

두 문명은 사실상 자멸하여 사라지고 말았읍니다. 사람들은 성적으로 부패했으며 가증스러운 많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나라를 모독하여 그들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었읍니다.

현대 국가들은 이 대륙을 계승해 왔읍니다.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타락상은 거의 모두가 앞서간 두 문명의 멸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범죄율은 날로 증가하여 미국에서만도 공공 질서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만 해도 연간 400억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도덕적인 타락을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합리화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최근 어떤 교파의 한 지도자는 젊은이들이 혼전 성관계를 갖는 것을 찬성한다고 공공연히 발표하였읍니다. 그의 말은 합동 통신사를 통해 전세계에 알려졌읍니다.

음란으로 말미암아 가증할 만한 사회병이 만연하고 있읍니다. 한 보건 당국자는 이 병은 전염병의 정도를 넘어선 재앙이라고 말했읍니다. 이 사회 병은 이제 보통 흔한 감기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어떤 전염병보다도 많이 걸리고 있읍니다.

명망있는 한 서부의 보건 당국자의 통계에 의하면 14세에서 25세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열 명중 한 명꼴로 성병에 걸려 있음이 밝혀졌읍니다. 이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는 성적 부도덕으로 생긴 태아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낙태 수술로 말미암아 프리섹스가 더욱 자유롭게 되었다고 보도했읍니다.

우리의 현재 모순된 상황은 놀랍기 그지없읍니다.

수백만 사람들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서 혼음을 받아들이며, 간음으로 인해 이혼하고, 가정을 파괴하면서도 간음을 용서하려고 드는 반면, 우리는 공공 장소에서 기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읍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영화로써 공공연히 가장 음탕한 장면을 보여 주는 반면, 사실상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성경을 갖고 와서 학생들로 하여금 주의 기도문을 외우도록 합니다. 우리는 점점 우리의 가치관을 상실하고 있읍니다.

어떤 미국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국기에 대한 충성의 서약을 다짐 맹세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동전에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글을 없애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파에서 교회 출석율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읍니다. 성경의 판매율은 25퍼센트 이하이며, 일부 목사들은 신앙을 잃고 있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읍니다. 우리는 그의 면전에서 이 율법을 우롱하고 있읍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의 거룩한 날을 쾌락을 위한 날로, 혹은 "평상시와 다름 없는 사업을 위한 날"로 바꾸어 버렸읍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여전히 창조주에 대한 충성의 상징으로서 주어져 있읍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냉혹한 죄악의 습격을 먼저는 유감스럽게 여기고, 다음 익숙해져 묵인하고 그다음 그것을 기꺼이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신론과 이에 수반되는 타락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읍니까?

우리는 선행한 문명 즉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문명보다 나은 문명을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문명의 멸망은 서반구를 점유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단호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지닌 땅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만이 이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자신이 생존하려면 이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지역에서 빚어진 죄는 덜 비난받으며 경미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이것이 발생한 장소에는 관계없이 죄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반구에서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도록 헌납하셨음으로 그는 이 땅에 계속되는 신성 모독 행위를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이 땅을 보존하시면서, 그는 "그 때부터 영원토록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가득한 주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하여 저들을 쓸어 없애리라."(이더 2 : 8 참조)라고 선언하셨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결하고 힘찬 말씀으로 이 땅을 소유하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현대 미국의 위대한 자들도 특별히 이와 유사한 경고를 하였읍니다.

약 백 년 전 그 시대의 저명한 경제학자 로저 뱁슨은, "종교만이 민주 정치가 우민 정치로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읍니다. 국가는 국민이 신앙이 깊고, 지성적이며, 국가의 번영을 위

해 헌신하여 봉사할 때에만 번영할 수 있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에 대해 말해 주었읍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대공황은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소홀히 했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미국은 "외부에서 닥쳐오는 어떠한 위험도 두려워해서는 안되며…… 미합중국을 침범할 위험이라면, 그것은 미국 자체 내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유의 나라로서라면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자멸하고 맙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위대한 노예 해방자는 다음과 같이 부언하였다.

"우리는 수적으로, 부와 권력면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읍니다……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있읍니다. ……우리는 마땅히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우리 국가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여야 합니다."

아메리카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톤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읍니다. "……천부의 권리와 질서의 영원한 규율을 범하지 않는 국가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미소와 아울러 영원한 번영이 약속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취임사, 1789년 4월 30일)

위대한 정치가 다니엘 웹스터도 다음과 같이 가장 단호한 경고를 하였읍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번영으로 인해 종교적인 가르침과 종교적 권위를 무시하고, 영원한 정의의 법을 혼란케 하며, 도덕률을 조롱하고,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헌법을 무모하게 파괴해 버린다면, 어떠한 갑작스러운 재앙이 우리를 엄습하여 모든 영광을 깊은 암흑 속에 묻어버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읍니다."

하나님은 말일에 폭풍우와 지진, 해일로써 경고하실 것을 계시해 주셨읍니다. 현재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읍니까?

파키스탄을 강타한 태풍으로 말미암아 약 50만 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었읍니다. 칠레에서는 단 한 번의 지진으로 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읍니다. 이 두 재앙은 수주 내에 각각 일어났읍니다. 우리는 이 재앙이 주는 경고를 무시해 버릴 수 있을까요?

몇 달 전에는 심한 허리케인이 두 차례나 미주우리주 전역을 휩쓸었고 로스앤젤리스에서 지진이 수차례 일어나 수많은 사망자와 5백만 달라에 상당하는 피해를 가져왔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난 속에서 친절한 경고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우리는 지진, 화재, 폭풍우의 재해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읍니까?

보험 증서가 허리케인을 방지하거나 지진을 멈출 수 있읍니까?

이 두려운 권세를 통제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격랑에 시달리는 배를 어부의 무리와 함께 타셨을 때 다만 "잠잠하라"고 폭풍우를 꾸짖으심으로 바람을 고요하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과거의 소멸된 문명은 그 시대의 티끌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시대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읍니다.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런 파괴된 문명 가운데 미대륙에 살았던 고대의 예언자는 시현을 통하여 현대의 우리를 보았읍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방인으로 가리켜 말했읍니다. 그 예언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가 회개하여 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의 권세 앞에 능히 서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그의 크신 분부로 땅이 두루마리같이 말려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너희를 벌하실까 염려함이요……" (몰 5 : 22—24)라고 말하였읍니다.

다른 고대 미대륙의 예언자도 오래 전에 이미 죽었으나 티끌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보라 이 땅이 모든 땅 가운데서 으뜸되는 땅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을 차지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쓸려 없어지리니,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이라.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죄악이 가득해질 때에 쓸려 없어지리라.

"오 너희 이방인들아, 이 기록이 너희에게 전하여짐은 너희로 하나님의 명하심을 알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 짓기를 그쳐 죄악으로 가득하지 않게 하며 이 땅에 거하는 너희 주민들이 행한 바로 하나님의 가득하신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이더 2 : 10—11)

천 오백 년 전 미대륙에 살았던 고대의 예언자 몰몬은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보라 너희가 아직 내 앞에 있지 아니하나 나는 마치 너희가 내 앞에 있는 듯이 말하는도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는도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가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며 마음에 부푼 교만으로 인하여 화려한 옷을 입으며 시기하며, 다투며 남을 원망하며, 핍박하며 온갖 간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 자가 극히 적으리라는 것을 알며……"(몰 8 : 35—36)

이 서반구에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받은 백성이 많이 살고 있읍니다. 몰몬은 이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백성임을 알며,

"회개하여야 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라.

"너희는 너희 조상에 관하여 알아야 하며 너희의 모든 죄와 간악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몰 7 : 2—3, 5)라고 말했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대의 우리에 적용되는 고대 미대륙의 다른 예언자의 말씀을 알고 있읍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영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전하신지라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록하며, 아담의 가족에 속하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각각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이를 기록하노라.

"또한 너희가 갖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몰 3 : 20—21)

고대 미대륙의 위대한 예언자 중 최후의 분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이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말이 거짓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속히 이르며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볼 것임이라. 그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자로 기록하게 한 나의 말을 사람이 무덤에서 부르짖으며 티끌 중

에서 부르짖는 것같이 너희들에게 선포하여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록한 것들이 참된 것임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내가 거듭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온갖 좋은 은사를 취하며 사악한 은사나 불결한 것은 손에 대지 않도록 하라.”(모로나이서 10 : 27, 29—30)

미대륙의 현대 국가가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면 큰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언자는 말했읍니다. “……이 땅은 복된 땅이라 이 땅을 어느 백성이 차지하게 되든지 이 땅의 하나님 곧……예수 그리스도를 섬길진대, 속박에서 자유로와질 것이요, 종된 것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자유롭게 되리라.”(이더 2 : 12)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에 맞설 때 그는 언제까지나 참으시겠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며, 몰몬경은 진실이 아니므로, 회개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철학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자신이 위안을 가질 수 있읍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그는 온 인류의 영원한 심판자이시며, 그의 심판 날에 우리 각자는 그의 면전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의 기록을 대하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는 이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복음만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줍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깨어나 우리의 진로를 바꾸도록 주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원합니다. 아멘.

1971년 4월 6일 화요일 오후 모임 말씀

주님의 집이 세워진 산에서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하나님은 그가 몰아내셨던 흩어진 이스라엘백성을 열방으로부터 모으시리라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훌륭하고 영적인 대회의 마지막 모임에 여러분 앞에 서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속죄의 희생, 그리고 수년 동안 제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영원한 진리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커다란 영예와 특권에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그는 세상의 구속주이시고, 그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지상에 그의 교회를 회복하셨음과 그의 복음을 통해 생활함으로써 현세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을 뿐 아니라, 장차의 세계에서 승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가진 십이사도 지역 대표 모임에서 매리온 디 행스 형제님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훌륭하게 설명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는 뛰어난 말솜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오래된 나뭇잎은 새 잎이 돋아날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나무에서 떨어져야 한다고 했읍니다. 나는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겠읍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오래된 나뭇잎 중 하나입니다. 나는 늙었읍니다. 나는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을 제외하고 현재 지구상에 살아 있는 사람 가운데 이 교회의 연차 대회에 참석하여 연단에 선 경험이 저보다 많은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에 74번째의 연차 대회에 참석하여 말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읍니다. 제가 형제들의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가 마음에 떠올랐읍니다.

“예언자의 음성 듣고
주 말씀 믿으라
진리의 길 기뻐하고
찬송을 외쳐라
옛 선지 걸었던 그 길
우리도 알았네
이 지식 회복하려고
예언자 주셨네

(찬송가 113장)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인간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자들이 성별되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오늘 우리가 이 장소에서 들은 이와 같은 말씀들 즉, 인간에게 이 생에서 행복과 장차의 세상에서 영원한 승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는 고대 예레미야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는 현대를 보았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성약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렘 3 : 14—15)

오늘 온 지상의 어디에서 우리가 이 대회 모임에서 증거한 위의 말씀의 성취를 찾아볼 수 있읍니까? 저는 요셉 스미스에 의해 주어진 신앙개조의 말씀을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된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한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신앙개조 제8조)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사실을 믿으며 이러한 경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는 신앙개조의 다음 말씀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제9조) 저는 이 사실도 제 온 마음을 다하여 믿습니다.

나는 경전의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이미 성취되었으며,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도 있읍니다.

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 : 39)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후,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고 있었읍니다.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져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읍니다. 그들

이 예수님과 그의 성역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 이야기함을 들으시고, 그는 그가 그토록 열심히 가르친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함을 아시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눅 24 : 25)라고 말하셨읍니다. 그리고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경전에서 선지자들이 자기에 대해 간증한 바를 설명해 주셨읍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러한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모두 상고해 볼 시간은 없읍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는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박고는 그의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 뽑는 것까지도 예언하였읍니다.

베드로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열리자, 경전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읍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베드로후서 1 : 19—21)

나는 예언의 말씀이야말로 오늘날 지구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확실한 지침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 : 18)라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저에게 허용된 시간 내에서 몇 가지 사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시대를 보았읍니다. 그는 사막이 장미꽃처럼 피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는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을 보았읍니다. 우리의 개척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곳 산맥의 계곡의 황무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수송 도구가 없었고 오직 일할 수 있는 연장은 맨손 뿐이었지만, 그들은 거대한 관개 수로를 건설하였읍니다. 그는 산 위 성채에 설치한 저수지로부터 물이 저장되었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는 시온의 딸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 나아와 노래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사야 35장 참조) 여러분은 온 세상의 역사에서 42년간 분열됨이 없이 지금까지 노래해온 태버나클 합창단에서 이 예언의 성취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통신 위성을 통해 그 노래가 전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읍니다. 지난 11월 여기를 방문한 닉슨 대통령은 이 합창단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합창단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읍니다.

이사야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선 것을 보았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사 2 : 3)

나는 바로 이 곳이 야곱의 하나님의 집이며 문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전에는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건물보다도 많이 모여든 곳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초기 개척자와 개종자가 치른 커다란 희생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읍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닌 모든 것을 팔고, 그들의 사랑하는 자들과 친지들과 소유물을 남겨두고 멀고먼 이 땅에 왔으며, 낯선 언어를 배웠읍니다. 무엇이 그들을 여기에 오게 하였읍니까?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가르치는 야곱의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하였읍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성취된 이 날을 보았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렘 16 : 14—15)

이 예언을 잠시 동안 생각해보기로 합시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지나온 전세기를 통해 주님이 위대하신 구원의 손길로써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구출해 내심을 얼마나 찬양하였는가를 생각해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거룩한 이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말일에는 그들이 그것을 더 이상 기억지 않으리라고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을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모을 것인가를 말하고 있읍니다.

예레미야는 그 날에 주님이 많은 어부들과 포수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렘 16 : 16)함으로써 바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예레미야의 이 위대한 예언에서 읽은 바와 같은 그 어부와 포수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읍니까? 그들은 현재 봉사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14,000명의 선교사들과 이들에 앞서 요셉 스미스가 진리를 받았을 때 온 세상에 복음을 나누어 전파하기 위해 선교사를 파견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파견한 모든 선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아가 그물을 던지고 사냥하여 언덕과 산과 암혈로부터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집합시켰읍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미국 남부에서 선교부장으로서 일하고 있었을 때, 서부 플로리다에서 열린 한 대회를 기억합니다. 160킬로미터를 여행하는 동안 집 한 채 볼 수 없었으나 우리가 어느 작은 예배당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250명의 사람들로 꽉차 있었읍니다. 나는 “여러분이 암혈 외에 어느 다른 곳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읍니다. 저는 모르지만, 아마 주님은 아시겠지요!”라고 말했읍니다. 우리는 그것이 눈앞에 문자 그대로 성취됨을 보고 있읍니다.

말라기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엘리야를 보내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말 4 : 6)라고 경고하심을 보았읍니다. 이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오. 유대인은 아직도 엘리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작년 7월 나는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동안 유대 교회 세 곳을 방문해 보았읍니다. 그 곳에는 벽에 커다란 안락 의자가 걸려 있었읍니다. 나는 랍비에게 의자를 왜 걸어 두었는가고 물어 보았읍니다. 그는 “엘리야가 오시면, 그 의자를 내려 드려 그가 거기에 앉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대답했읍니다. 그때, 나는 그들이 얼마나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는 가를 생각했읍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이미 오셨음을 알고 있읍니다. 평범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엘리야가 오심으로 인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된 사실을 이해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계보 사업이며 세계의 어느 도서관도 필적할 수 없는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산맥 내부에 뚫은 커다란 도움식 동굴 내에는 수백만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읍니다.

백성들이 입으로는 주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주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주에게서 멀리 떠났으며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때에 일어난 이 일을 이사야가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라고 말함이 옳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읍니다. (사 29 : 13—14 참조) 이미 여러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앞으로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시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예언자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제9조)라고 한 것은 지극히 옳은 말씀입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읍니다만, 예레미야는 산맥 중의 이 계곡에 우리 백성이 강을 따라 여행하여 집합하는 모습을 역사가가 서술한 것처럼 정확한 언어로써 묘사하였읍니다. 개척자들은 800킬로미터 이상을 플랫강을 따라 여행하였읍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 그들이 수많은 무리를 지어 올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케 하며……"(렘 31 : 13—14)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은 그들에게 임하는 모든 부름에 순종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도사린 감정까지도 창조하셨으므로, 고대의 니파이는 "주는 내 육신을 불사를 만한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셨으며" (니이 4 : 21)라고 말했읍니다.

아직까지도 성취되어야 할 것은 많이 있읍니다. 저는 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주님은 제가 젊은 시절에 유대 민족에 대한 사랑을 저의 마음 속에 심어 주셨읍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이 교회의 위대한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몰몬경 서문에서 그 책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읍니다. 우리가 그 책을 유대인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어찌 그들이 이런 사실을 알겠읍니까? 또한 주가 바라는 합당한 시기에 주께서 우리의 지도자에게 영감으로써 제시해 주신 방법으로 유대 민족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몰몬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리라고 한 말씀을 읽었읍니다. 여러분에게 그 예언을 읽어 드릴 시간이 없군요. 그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성경, 성경, 우리가 이미 성경 하나를 가졌으니, 또 다른 성경이 있을 수 없도다."라고 말하리라고 하셨으며, 또 "……저들이 과연……성경에 대하여 유대인에게 무엇을 감사하더냐?……"(니이 29 : 3—4)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또한 교리와 성약 98편을 보면, 주님은 교회가 조직된 지 3년 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를 통하여, "그러므로 싸움을 버리고 평화를 선포하라. 자녀의 마음을 자기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며 선조의 마음을 자기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기를 힘쓰라. 거듭 이르노니, 유대인의 마음을 예언자에게 돌이키며 예언자의 마음을 유대인에게 돌이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온 땅을 치지 않게 하며 모든 육체가 내 앞에서 타 없어지지 않게 하라." (교성 98 : 16—17)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인간의 지혜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 무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언자 요셉을 통하여 이 시대에 그의 지혜를 주셨읍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는 날을 보았읍니다. (렘 3 : 18 참조) 또한 에스겔은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며 다시는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하며 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라는 예언을 하였읍니다. (겔 37 : 22 참조)

저는 주님이 계시해 주셨으며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모든 그의 성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저는 이 위대한 복음의 경륜의 일부로서 이러한 놀라운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좀 더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온 마음과 영혼을 기울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이 사업의 거룩함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이 사업은 주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사도와 예언자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주는 오늘날 그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며, 성스러운 예언자들이 외친 바와 같이 하늘의 구름 가운데서 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1971년 4월 3일 토요일 오후 모임 말씀

사탄—거짓의 아비

매리온 지 롬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생명수는 복음의 원리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구 여러분. 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저녁 주님의 적이며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의 영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내가 어느 딸이 그녀의 어머니에게 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서 내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존이 악마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에 어머니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읍니다. "참고 결혼해라. 너와 내가 그 문제에 관한 그의 생각을 바꾸도록 해 보자"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어리석은

추론은 마치 악마가 세상에 없다는 어리석은 교리와 같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거짓말을 지어낸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을 믿는 것은 그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굴복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었읍니다.

말일성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사탄은 강력한 영의 모습으로 존재하며 하나님과 인류와 의로움의 적임을 알고 있읍니다.

하나님과 악마가 함께 존재한다는 현실은 경전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확실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설명한 창세 이전의 천국 회의는 이 모임에 하나님과 사탄이 모두 참석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읍니다. (아브라함서 3 : 22—28 참조)

놀라웁고 중요한 것은 그 기사 가운데 나타난 지식인데 이는 까마득한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영의 자녀와 지구 창조를 위한 그분의 계획에 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계획에 관한 것이며 그리스도와 사탄을 확실한 개체로 취급하고 있읍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진 진리를 확실히 보충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 "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명한 사탄은 태초부터 있던 자니, 저가 내 앞에 와서 이르기를, 보소서, 내가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겠사오며, 내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예를 내게 주소서"(모세서 4 : 1)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은 사탄과 천국 회의에서의 그의 역할을 알았읍니다. 이사야는 그에게 직접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 ……

"……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사 14 : 12—15)

이 말일의 경륜 시대에 주님께서는 천국 회의에서의 사탄의 역할에 관해 지난 경륜 시대에 나타내 준 바를 확인하였읍니다. 1830년 9월 그는 예언자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악마는 아담보다 먼저 있던 자라. 나를 거스려 말하되, 내게 당신의 영예를 주소서 그것은 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고 이에 천군의 삼분지 일을 각자의 자유 의지에 따라 나를 배반하게 하였느니라"(교성 29 : 36)

1832년 2월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다음과 같은 시현을 보았다고 증거했읍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던 한 천사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거스려 배반하여 하나님과 아들 앞에서 내어던짐을 받았으니,

"이 자는 멸망이라 불리웠더라. 이는 여러 하늘이 저를 위하여 울었음이라. 저는 루시퍼니, 아침의 아들이니라"(교성 76 : 25—26)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창세 이전의 천국 전쟁을 간결하게 요약했읍니다 :

"천국 전쟁이란 다음과 같다. 즉 예수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고 말했고 악마는 자기가 모든 자를 다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 회의에서 자기의 계획을 제출했는데, 투표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되었다. 그러자 악마는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그를 좇던 모든 자들과 함께 내어 던짐을 받았던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데저렛 출판사, 1968년〕, 357페이지)

사탄과 그를 좇던 무리들은 내어 좇겨 지상에 왔읍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시현을 주셨읍니다.

"사탄이 모반하여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미 부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멸하려 하였고, 나의 권능을 자기에게 줄 것을 구하였으므로 저는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써 던지움을 받게 하였더라.

"이에 저가 사탄이 되었나니, 참으로 악마요, 모든 거짓의 아비라. 인간을 미혹케 하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많은 자를 자기의 뜻대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모세서 4 : 3—4)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와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좇겨난 후에도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계속 유혹하기 시작했읍니다. 아담과 이브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복을 돌리며 아들 딸에게 모든 일을 알게 하니라.

"이에 사탄이 저들에게 와서 이르되, 나 또한 하나님의 한 아들이라 하고 저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말을 믿지 말라 하니 저들이 믿지 않게 되었으며 도리어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그때로부터 인간은 육체와 육욕과 악마를 좇는 자가 되었더라"(모세서 5 : 12—13)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지상에 있었읍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읍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 왔나이다"(욥기 1 : 6—7)

1831년 8월 11일 일기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읍니다 :

"……우리가 맥클웨인의 강가에서 야영을 하고 있을 때 펠프스 형제는 백주에 무한한 힘을 가진 파괴자가 물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시현으로 보았읍니다. 다른 사람도 소리는 들었으나 시현을 보지는 못했읍니다."(교회 정사, 1권 203페이지)

사탄은 한 마디로 말해서 악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복음의 계획을 파괴하고 "인간의 영육을 멸망시키려고" 노력했읍니다.

"……악마는 이같이 행하여 단 하나라도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마의 천사들도 그러하며 악마에게 매어 있는 자들이 다 그러함이라"(모로 7 : 17)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눅 22 : 31)

사탄은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에게 미치는 것을 끊임없이 반대하여 왔읍니다. 리하이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가르친 바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사탄은 이것의 대표자요 조장자요 창도자인 것입니다. (니이 2 : 11, 14—18)

사탄의 수법은 여러 가지요, 정도를 벗어난 왜곡된 무수한 술책을 사용했

읍니다.

"……온갖 수단을 다 써서 그는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고 진리를 가장한 시기와 기만을 행했읍니다. 사탄은 기술적인 모방가이며, 참된 복음의 진리가 세상에 전파되자 그는 거짓 교리를 퍼뜨리기 시작했읍니다. ……오랫동안 사악한 일들을 행해서 거짓말의 아비가 되고 이에 익숙해지자 그는 택함을 받은 자들까지도 혼미하게 할 수 있었읍니다."(다니엘 에이치 루드로가 쓴 "말일의 예언자의 말씀" 중 조셉 에프 스미스편[북크래프트사, 1948년] 20~21페이지) 모든 경륜이 시작되는 초기에 그는 진리의 도래에 정면으로 대항했던 것입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그는 첫 경륜의 시대에 아담과 이브의 아들과 딸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경륜 시대에 "사탄이 와서 저를 유혹하여 말하되 인간의 아들 모세야, 나를 경배하라"(모세서 1 : 12)고 했읍니다.

예수의 시대에도 사탄은 주님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눅 4 : 1—13 참조)

그 사탄은 이 말일의 경륜 시대에도 나타나서 대항하였으니 우리는 이를 예언자의 말씀에서 알 수 있읍니다:

"……나는 어떤 힘에 의하여 완전히 사로잡혔으며 놀라운 힘에 압도되어 저항력을 잃고 혀가 굳어버려서 말조차 할 수 없었읍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나를 둘러쌌으며, 한 동안은 내가 이대로 곧 죽어 버릴 것만 같았읍니다."(요셉 스미스 2서 15절)

몰몬경의 출간에 대한 사탄의 방해는 교리와 성약의 제10편에 잘 나타나 있읍니다.

복음의 전파를 방해한 사탄의 또 다른 증거는 1837년 영국에 복음을 가지고 간 형제들에게 행한 사탄의 공격에 관한 히버 시 킴볼의 설명에서도 볼 수 있읍니다. (올손 에프 휘트니, 히버 시이 킴볼의 생애, 143—45페이지)

"악마란 없는 것이매, 나는 악마가 아니로다"(니이 28 : 22)라고 선언한 악마의 말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체로 우리의 타락된 사회의 병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일성도는 사탄의 존재에 관해 떠도는 인간의 괴변에 속을 필요도 없으며 속아서는 안됩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좋읍니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사탄이나 그의 수많은 추종자들은 현재 세상에 있는 인간이나 그들의 사업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읍니다.

고대 미대륙의 예언자들은 오늘날을 시현으로 보고 세상의 변천 과정을 관찰하여서 만일 사탄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그는 이 세대를 멸망으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읍니다. 니파이는 오늘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읍니다.

"……악마의 왕국이 반드시 흔들릴 것임이요, 악마에게 속한 자들을 깨우쳐 회개하게 함이 필요함이라 저들이 회개하지 않을진대 악마가 저들을 움켜 쥐어 영원한 사슬에 얽어 맬 것이요, 주의 노여움을 사 멸망당하리라.

"보라 그 날에 악마가 인간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며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하며,

"많은 다른 자들을 달래어 육욕의 안식처를 좇게 하며 이르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하리니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

"또한 보라 다른 자들을 달콤한 말로 꾀어 저들에게 지옥이 없다 하며 이르기를, 악마란 없는 것이매, 나는 악마가 아니로다 하며, 저들의 귀에 속삭여 말하기를 저들을 움켜잡아 무서운 사슬로 얽어맬 때까지 하며, 그때로부터 저들은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리니," (니파이이서 28 : 19—22)

나는 누구를 놀라게 하거나 낙담시키거나 겁을 주려고 이러한 일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만일 우리가 "참으로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의 사업을 받드는 종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교성 10 : 5) 우리는 현실 그대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은 말일성도가 애매한 말로 적당히 넘길 시기가 아닙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가 당황해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예고없이 오지는 않았읍니다. 백 사 십 년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시대의 진로를 밝혀 주셨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와 옴에 따라 인간을 유혹하려는 사탄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 동안의 기간에 인간이 좀 시련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그의 영원하신 목적은 주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지속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사탄과 그의 사악한 무리에 대항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졌음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과 신권의 권능은 사탄의 힘에 대항하기 위한 충분한 방패가 됨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이 속이기 쉬운 세대를 교묘히 손쉽게 떠맡는 악마와 협잡꾼들을 실수없이 가려내는 분별의 은사를 포함하는 계시의 권능인 성신의 은사를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의 진로는 분명합니다. 경전에 기록되어 있거나 살아 있는 예언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계명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끝으로 나는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여러 가지 일들의 진실함에 나의 간증을 드리겠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경험으로 그의 영과 권능을 알게 되었읍니다. 나는 또한 사탄도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정도로 사탄의 영을 알아냈고 그의 힘을 느꼈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현재 맹위를 떨치고 있는 "사탄은 묶여 인간의 자녀의 마음 속에 들어갈 자리를 얻지 못할 것"(교성 45 : 55)임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구세주가 오실 때에 "지혜로워서 진리를 받아들이며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속지 아니한 자는……그 날을 견딜 것이요,

"땅을 유산으로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저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요, 주의 영광이 저들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주께서 저들의 왕과 입법자가 되실 것임이라"(교성 45 : 57—59)는 구세주의 예언의 진실함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인도를 얻기 위해 성령을 받으려면 사탄을 알아야 하며 그의 추종자들과 그들의 사업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속지 않아야 하며 이로써 우리는 약속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암흑으로부터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시청하시는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41차 연차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주께 간구하며 주를 경배하되 주를 진리와 영으로 경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얻고 주님의 교회를 운영하도록 주가 택하신 종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읍니다.

이 자리에 참가하신 여러분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곳 대회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뜻과 상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신앙과 간증을 기르고 주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종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이 교회는 주의 교회입니다! 주는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하늘이 열려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은 바로 주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가 계시해 주신 진리를 믿고 그의 뜻대로 살겠다는 소망을 가져야 하며 그 소망을 이루겠다는 목적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교회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를 막론하고 주님의 뜻과 상반되는 교리나 믿음을 지지하거나 받아 들이거나 신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탐구하며 그 뜻대로 믿고 행하겠다는 것을 지상의 소망으로 정리해야겠읍니다.

주님께서 이 경륜의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새롭게 전해 주셨으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여금 그 복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자로 삼으신 까닭에 나는 교회와 온 인류를 위하여 인간의 구원에 절대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복음 원리 몇 가지를 재론해 볼까 합니다. 이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원리는 바로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계시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셨으며 전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영광을 입으신 승영의 반열에 계신 분임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세상의 만물을 지으셨으며 그분의 영의 자녀를 세상에 보내사 육신을 입게 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그의 자녀들이 그분과 같이 발전하여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율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첫아들이심을 압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의 계획을 이행하도록 이미 천국 회의에서 예임되셨음을 알며 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사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통하여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오게 했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연유된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에서 인간을 구제하며 인간이 회개할 때 그 죄를 씻어 줄 수 있도록 스스로 죄값을 치루셨음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구원의 계획임을 증거합니다. 또한 주의 속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불사불멸로 일어서며 육으로 살아 있는 동안에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며 온전한 복음의 율법을 믿고 순종하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왕국에서 거하게 되리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모두를 이행한 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기초위에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구원의 작업을 쌓아 올려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며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침수로써의 침례를 받고 안수로써 성령의 은사를 받은 다음 그리스도를 굳게 따르고 계명을 지켜 끝까지 참을 때에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외쳐 전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계획 곧 복음의 계획이 우리의 첫 아비인 아담의 때로부터 계속해서 인류에게 계시로 전달되었음을 압니다. 이 계획은 곧 에녹과 노아에게로 알려졌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로 전해졌으며 미 대륙에 살던 고대 백성들에게도 전해졌으니 이 계획은 바로 절정의 때에 그리스도와 바울과 베드로와 옛 성도에 의하여 가르쳐졌던 계획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관련된 극히 중대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인류가 불신의 암흑과 참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이탈된 삶을 살아야 했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지혜로 또다시 이 땅에 영원하고도 온전한 복음을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이심을 알며 1820년에 아버지와 독생자가 그 앞에 나타나시어 그에게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맡기셨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권세와 은사로 몰몬경을 번역하였고 하늘에서 보낸 천사에게서 열쇠와 권능을 받았음을 압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구원의 교리를 그에게 계시해 주셨음을 압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지상에 건립된 하나님의 왕국이요 사람이 거룩한 신권의 권능과 구원의 참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유일의 처소임을 우리는 세상에 전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자가 되며 어디에 거하거나를 막론하고 사람이 정직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요셉 스미스는 선지자요 이 교회는 "오늘날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참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성 1 : 30)

어떤 사람이라도 암흑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읍니다. 영원한 복음의 빛이 여기 있읍니다. 열심히 구하는 자는 주의 사업이 참되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행 10:34-35)라고 하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성실한 자에게 그의 영을 부으사 스스로 그것이 참 진리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겠읍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의 도움으로, 주가 그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 땅 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주의 왕국을 세우셨음을 알게 된 사람이 계실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압니다. 요셉 스미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하늘의 축복을 이 땅 위에 펼치는 사업에 종사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손에 쓰이는 도구가 되어 왔음을 압니다.

교회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를 막론하고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의 충실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진리와 의를 갈구하는 자들이 모두 우리와 함께 회복된 복음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의 책임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

나는 교회와 모든 회원이 세상의 악을 추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밤 같은 신앙을 가진 동료 시민으로서, 하나님 왕국의 형제로서, 성신권의 소유자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주님의 성스러운 권능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중대한 책임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행자입니다. 우리는 그를 대표합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그의 다른 자녀는 물론 우리 자신을 구원하며 승영을 얻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의식을 행하며, 인류를 축복하고, 병자를 고치고, 혹 기적을 행하며, 그가 계셔서 행하리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행하는데 이는 우리가 성신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대행자로서 우리는 개인적인 느낌이나 세속적인 유혹에 흔들림이 없이 그의 계명에 의해서 그가 원하는 바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구원의 메시지나 받아들여져야 할 교리나 침례나 성임이나 영원한 결혼을 행할 권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며 우리가 행하는 것 중 그에 관련된 모든 일은 위임된 권능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고 신권을 받으면 많은 세상적인 일들을 버리고 성도로서 생활할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옷을 입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홍차나 커피나 담배 및 술을 들며 습관성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의 생활이 불결하며 야비하며 저속하고 부도덕하며 신성을 모독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신권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5—6)

이 약속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미덕과 신성함을 추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까지 내려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매사에 "택해진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벧전 2:9)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준대로 살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므로 우리는 특별히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온 정도만큼 우리는 이미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그들의 생활에서 하나님 왕국의 일을 첫째로 여기지 않고 교회의 표준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읍니다.

나는 교회와 모든 회원이 세상의 악을 추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모든 역병을 막듯이 모든 부정과 부도덕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산아제한을 함으로써 삶의 원천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악한 유산의 과오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교회 회원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활 태도가 율법의 준수 및 이미 확립된 숭고한 질서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는 훌륭한 교회의 직위에 임명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그와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없으니 이는 그가 우리로 하여금 "현존하는 권력에 복종하라. 그리하여 통치할 권리를 가지신 이가 다스려……"(교성 58:22)라고 하신 것으로도 알 수 있읍니다. 머지않아 그는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목적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르쳐 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기쁘게 할 말이나 행동을 원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생활하여 그의 생활과 같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면에서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권은 주님 자신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가 빛

가운데 계셨듯이 우리가 빛 속을 걷는다면 우리는 그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영광과 영예를 누리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러한 영광스러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악을 멀리 할 수 없겠읍니까? 우리는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왕국의 일들을 제일로 생각할 수 없겠읍니까? 우리는 그의 입에서 행해진 모든 말씀대로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면에서 제사장 나라나 의로운 형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만일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가 받는 축복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초월할 것입니다. 나는 복음과 지상의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 및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대한 희망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성약에 참되고 성실하게 되도록 기도하며 이 세상에서 평화와 기쁨을 얻어 다음에 올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이 모든 말씀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간증과 축복

죠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

하나님은 이 말일에 그의 종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광스럽고 영적인 대회의 끝이 가까와 옴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진 풍족한 축복에 대한 감사로 가득차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불리 취하였으며, 성신의 권세로써 우리의 마음은 생동하였으며,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영과 진실을 다해 경배하였읍니다.

지금까지 행한 모든 말씀에다 나는 이 위대한 사업의 진실됨과 거룩함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간증을 덧붙이며 전세계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저의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자비롭고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이 말일에 하늘로부터 다시 그의 종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전세계에 말씀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그의 음성은 그에게 배우고,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며, 그의 멍에를 메며 (마 11 : 29 참조), 그의 복음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빌 2 : 12 참조)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것이었읍니다. 그의 음성은 이 생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을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읍니다. (교성 59 : 23 참조)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그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를 치르게 하셨음을 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아 인간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영적 사망과 육적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속량하셨음을 압니다.

나는 주님이 말일에 지구상에 그의 교회와 왕국을 세우셨으며, 이 왕국은 그의 거룩한 신권의 권세와 권위를 기초로 하며, 이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며,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모든 종파 가운데서 선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축복받을 것과 그들이 행한 모든 선행으로 인하여 보상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인간이 하늘의 집에서 충만한 보상을 얻도록 준비시키는 충만한 율법과 의식을 갖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선하고 고결하며, 정직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선함을 보존하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진실된 원리를 충실히 지키십시오. 그리고 나아와서 빛의 대열에 참여하여 어제도 오늘도 불변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을 풍부하고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나는 성도들이 세상의 압력과 유혹에 대항하여 굳건히 서서, 하나님 왕국에 속하는 것을 그들 생활에서 첫째로 삼으며 모든 책임과 성약에 충실할 것을 간구합니다.

나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가 이 땅을 휩쓸고 있는 부도덕과 마약 사용과 반역의 영과 예절의 결핍으로부터 그들의 정신과 육체를 청결히 보존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그의 백성에게 그들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 청결성과 순결성을 유지하며, 그의 면전에 돌아와 그와 함께 거하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그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또한 온 영혼을 기울여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 지구상에 그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그의 도구가 되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영이 우리들과 함께 현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모두가 나누어야 할 아담의 축복

엘드리드 지 스미스 장로
교회 축복사

각 시대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권의 재강조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주님은 저들에게 복음의 원리와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으니—곧 이 계획은 인류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계획이었읍니다. 주는 또 저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의 계획을 가르치라고 지시하셨읍니다.

아담의 자녀들은 대체로 아담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직 아벨만이 가르침을 받아들였읍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벨은 살해되었고 그 후 셋이 태어났는데 저가 아담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읍니다.

주님은 아담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존속할 의로운 자녀를 갖게 되리라고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으며 모세서에는 이 사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날에 아담에게 성신이 임하셨더라. 이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이시라. 이르시되, 나는 예나 이제나 태초부터 영원토록 아버지의 독생자라. 네가 타락하였으매 구속을 얻을 것이요 구속을 얻으려는 인류도 모두 다 그러하도다."(모세서 5 : 9)

그 다음 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태초로부터 있었던 바로 이 신권은 세상의 마지막에도 있으리라

"아담이 성신으로 감동되었을 때 이 예언의 말을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를 기록하였으니 이는 아담의 계보라. 일렀으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나니, ……"(모세서 6 : 7—8)

이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아담의 직계 후손의 계보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목적은 달성된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하신 기록의 일부분을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으니 바로 성경이요 이에 관하여 현대 계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반차는 아담 시대에 제정되어 이같이 그 자손에게 전해 내려갔느니라.

"곧 아담으로부터 셋에게 전해졌나니 셋은 육십 구세에 아담으로부터 신권을 받았고 저(아담)가 죽기 삼 년 전에 축복을 받았으며 또 그의 후손은 주의 선택된 백성이 되며 이 세상 끝까지 보호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담으로부터 받았더라."(교성 107 : 41—42)

이 약속은 셋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도 다시 주어졌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 : 3)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창세기 22 : 18)

우리는 이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값진 진주 아브라함서에서 찾아볼 수 있읍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니, 헤아릴 수 없이 너를 축복하여 네 이름이 만국 백성 가운데서 크게 되게 하리라. 너는 네 자손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고 네 자손은 만국 백성에게 성역을 베푸는 직분과 신권을 지니리라.

"나는 네 이름을 통하여 저들을 축복하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네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네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아 일어서서 너를 저들의 조상으로 축복하리라.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이는 "곧 네 신권으로" 하는 일이라)와 후손(곧 신권)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내가 네게 한 가지 약속을 줄 것임이니 그 약속은 곧 이 권능은 너로 말미암아 계속되고 네 후손(문자 그대로의 후손이니 몸에서 나온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속이 복을 받으리니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니라 하시더라"(아브라함서 2 : 9—11)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거듭 확인되었고 후에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전달되었으며 다시 야곱의 열 두 아들에게로 분리되어 이스라엘의 지파로 알려진 그 열 두 족속에게로 전달되었읍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연결되는 계보의 앞뒤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확인받읍니다. 이것은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된 기억의 책에 기록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온 세상 만민이 모두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의 주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축복을 받으며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뜻이겠읍니다. 축복을 받는 자들이 모두 일어나 아브라함을 저들의 아비로 축복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서 2 : 10 참조)

교회 회원 중에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 있다면 저들도 위에 언급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 아닌 자로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면 영원한 생명인 신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직계 혹은 입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된 자를 통하여 이러한 축복을 허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각각 저들의 성실함에 따라 영생과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한 신권 지도자의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디를 우리는 경륜의 시대라고 하며 아담으로부터 셋까지, 셋에서 에녹까지, 에녹에서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모세에서 엘리야까지, 엘리야에서 침례 요한까지, 침례 요한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각 경륜의 시대마다 각각 신권의 중요성을 재강조했읍니다. 아울러 신권의 체제를 강화하고 인간이 세상적인 유혹을 극복함으로써 복음의 축복을 얻게 되는 기회를 고루 마련코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읍니다.

마지막 경륜의 시대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로서 사도 바울은 이에 관하여 에베소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읍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 : 9—10)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하셨읍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태초 이래의 모든 경륜의 시대의 총 결산입니다."(프랭클린 디 리차즈, 콤펜디움, 1898, 143페이지) 이는 바로 이 시대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복천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절기임을 시사합니다.

나는 바로 오늘이 마지막 절기임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곳에 있으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온갖 선전의 열쇠도 또한 이곳에 있읍니다.

요셉 스미스는 옛날 선지자들처럼 계시로 부름을 받았읍니다. 침례 요한이 그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의 열쇠를 회복해 주셨고 그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해 주셨읍니다. 엘리야는 커틀랜드 신전을 방문하여 산 자와 죽은 자의 인봉의 축복과 열쇠를 회복하셨읍니다.

요셉 스미스는 모든 열쇠를 죽기 전에 사도 평의회에 넘겨 주셨읍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이 신권의 권능과 열쇠는 보존되어 전달된 것이며 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어 다스리실 복천년에 이르도록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만민이 다 복음의 말씀을 경청하며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권고합니다. 이 권고는 만인에게 다 드리는 것이며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양의 기억의 책에 기록된 바 영생과 축복을 받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온전히 받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정직과 완전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자신과 타인과 하나님에 대한 정직은 가장 필요한 것임

신앙개조 제13조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정직을 믿는다."는 말을 볼 수 있읍니다. 정직이란 완전함, 성실함, 진리에 부합함, 정의롭고 영예롭고 유덕하고 순결한 생활, 도덕적인 인격성, 상호 관계의 공정성 등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읍니다.

이들 원칙은 참된 말일성도가 갖추어야 할 미덕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인간에게 알려진 최고의 이념과 원칙과 표준을 대표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나 대표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인류의 생활에 무한한 영향을 주고 있읍니다.

로버트 번즈[1]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창조물이다"라고 말했읍니다. 오늘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정직과 완전성을 잃고 미덕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인바 어떤 그룹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인격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부지런히 이러한 원칙들을 가르치고 실행하고 옹호해야 하겠읍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인간의 완전한 도덕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자유는 희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나 사업계나 경제 단체에서의 부정 부패, 뇌물 수회 등의 기사는 세계의 지도자로서 우리의 지위나 능력을 감소시켜 줍니다.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주는 적극적인 도덕 기준이 근거를 두는, 우리 자신보다도 더 높은 권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정직이나 존경, 명예와 같은 것은 시장에서 살 수 없는 것임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이나 나나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 실천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요소인 것입니다.

카알라일[2]은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스스로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는 악당 한 명이 줄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선량해지지 않고 진실로 정직한 사람이 되며, 정직해지지 않고 참으로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겠읍니까? 정직이란 우선 자신이 먼저 지켜야 할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남에게서 이러한 특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측면에서 사물을 보고 평가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함 즉 우리의 거래나 대인 관계에서의 정직함, 교회 회원에게 정직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정직함이란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모사이야 왕의 아들에 관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읍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배운 자들이라, 모두 진실하고 신중한 사람들이었더라." (앨 53 : 21)

정직함이나 완전함은 부모의 완전한 유덕과 같이 자녀에게 남겨 주는 유산이 됩니다. 부모라도 자기들이 갖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물려 줄 수는 없읍니다. 훌륭한 인격과 삶을 만들어 주는 모든 미덕과 함께 복음의 일부인 이러한 훌륭한 이념과 원칙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완전해져야 합니다. 그러한 완전함 속에서 그것은 우리 성격의 일부를 형성하고 부모가 되었을 때 이러한 미덕을 자녀에게 물려 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읍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잠 20 : 7) 얼마나 참되고 기본적

1. 번즈, 로버트 : 스코틀랜드의 시인 1759~1796

2. 카알라일, 토마스 : 스코틀랜드의 수필가이며 역사가, 1795~1881

인 말씀입니까!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에게 정직합니까? 그들은 우리가 어떤 책임감 때문에 자신을 변명하는 거짓말을 들은 적이 있읍니까? 우리는 자녀가 부모의 잘못을 본받는다고 지나치게 나무랄 수 있겠읍니까? 교리와 성약에서는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고 있읍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성 68:28)

자녀가 올바르게 살도록 하려면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되시는 여러분은 서로 진실하며 성실하게 대합니까?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순결한 생활을 하십니까? 우리는 불의를 지지할 수 없읍니다. 불의를 좇는다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의 영원한 구원에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해야 하며 매사에 정직하여서 모든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는 최고의 도덕 및 윤리감으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조지 엘리옷[3]은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인생에서의 유일한 실패란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저질러진 과오나 유리하게 이끌어지는 잘못이나 똑같이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일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사소한 무관심이 심각한 과오나 미묘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실 때 마땅히 받아야 할 거스름돈을 의외로 더 많이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한 일은 종종 있을 수 있읍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스름을 받을 때도 가끔 있읍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즉시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고 완전한 정직이란 손해를 볼 때나 부당한 이익을 볼 때 모두 똑같이 이를 고쳐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주 여러분은 고용인을 정직하게 대하십니까?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혹은 예외가 있읍니까? 예외가 있다면 이것은 같은 몇몇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고용인 여러분은 정직하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십니까? 우리는 점심 시간까지 적당히 보내거나 거짓 구실로 불필요한 심부름을 가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습니까? 이웃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우리는 거래했던 이상의 무엇을 합니까 혹은 최소의 노력을 들이고 많은 이득을 보려고 합니까?

장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값을 비싸게 부르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한 속임수를 가지고 용하게 이득을 보았다 하더라도 본인은 자신의 부정함을 알게 되며 마찬가지로 그가 속인 사람도 그의 부정을 알게 됩니다. 속인다는 것은 부정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본인 자신과 자기 주위의 사람에게까지도 해를 미칩니다.

여러 교사님들은 공정하게 등급을 결정하십니까? 학생의 성적대로 등급을 결정합니까? 혹은 개인적인 주관이 이에 작용합니까? 등급에 대한 속임수나 승자를 만들기 위해 무리한 규칙이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이며 피해야 합니다. 승패가 이런 활동이 의도하는 개성이나 영적인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여기에는 지도력이 결여된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율법이나 규칙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행하고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법이나 규칙이 인간을 정직하게 만들 수는 없읍니다. 악행은 젊은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부정이나 불경이나 완전한 도덕성의 결여에 깊이 빠지게 하는 것은 사소하고 하찮은 행동에 원인이 있읍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마음과 인격 속에 미덕을 심어서 그가 영화롭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위해 우리는 그들의 요구와 필요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며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한 바를 그들에게 전합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은 자기가 가르치는대로 정직하게 살며 이중의 표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결혼을 한 어느 젊은 자매 교사가 짧은 미니 스커어트를 입고 교회에 왔읍니다. 그녀는 스스로 교회의 표준 복장을 입지 않고 그러한 것을 정직하게 가르칠 수 있겠읍니까? 세익스피어는 그러한 것을 다음과 같이 잘 묘사했읍니다.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 그러면, 자연 밤이 낮을 따르듯이 넌 남에게도 반드시 충실한 사람이 된다."(햄릿 1막 3장)

삶의 목적은 정직함이나 성실함을 구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가 한 약속은 지켜야 하며 자기가 저지른 과오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과 성실은 신임과 우정을 증진시켜 주며 선의와 지지를 가져다 주어 종종 의외의 만족할 만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보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그러한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정직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읍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그는 주머니용 칼을 원했읍니다. 그의 아버지와 두 명의 동업자가 경영하는 상점에 가서 진열장에 있는 칼을 꺼내 가졌읍니다. 이 말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갔읍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진열장 앞으로 데려가서 칼을 제자리에 놓게 했읍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다른 두 명과 동업을 하기 때문에 삼분지 이의 칼은 그들의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읍니다. 그 칼은 모두가 다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므로 그곳에 있는 칼을 가져간다는 것은 잘못이었읍니다. 이 아버지는 그의 장사에서도 정직하고 공정했읍니다. 그는 결백한 사람이었읍니다. 그가 물건을 매매할 때도 가격의 고하에 불구하고 정직함을 제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매사에 공평하다고 평판이 나 있었읍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속성이 돈보다도 더 중요했읍니다.

인간은 많은 잘못을 간과하기 쉬우나 부정직한 죄야말로 가장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약점에 동정적이며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용을 베풀지만 부정직한 사람과 사귀고 거래를 하는 것보다 더 신뢰를 손상하고 잃게 되는 것은 없읍니다.

조지 워싱톤은 다음과 같이 정직함을 강조하였읍니다. "나는 내가 그 어떤 명칭보다도 가장 받고 싶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명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확고함이나 유덕함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일어난 일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고 정직에 관해 실감나게 말할 수 없읍니다. 예수가 제사장이나 서기에 의해 재판

3. 조지 엘리옷: 메리 안 이반스의 필명, 영국 소설가 1819~1880

을 받기 위해 빌라도 앞에 불려 왔을 때 빌라도는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나 정직과 완전함을 초월한 그의 명성을 생각해서 그의 목숨을 요구하는 자들의 손에 기꺼이 그를 넘겨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며 기회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계기를 확고한 자세로 지지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관계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원칙, 이념, 표준, 성약 등에 충실해야 합니다. 항상 정직하고 진실합시다. 항상 성실하고 공정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충분히 실천합시다.

"우리는 정직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함에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의 인도와 이익과 축복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러한 간증을 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본보기가 될 것이며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종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겸손하게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1971년 4월 4일 일요일 오전 모임 말씀

"오늘날 택하라"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최근, 우리들은 소위 마지막 강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는 강의를 맡는 사람이 강의의 주제를 정할 때 마치 마지막으로 강의를 맡는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역시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대회에서 말씀 드릴 주제를 준비했으며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말하자면 마지막 강의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했읍니다.

내가 택한 주제는 여호수아에서 언급된 것으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 : 15)는 것을 택했읍니다. 이 이야기를 남기고 난 즉시 여호수아는 110세로 세상을 떠났으니 말하자면 이것이 그가 남기고 떠난 작별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회에서 여러분의 훌륭한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물론 앞으로 이야기하실 분의 말씀도 열심히 듣겠지만 나는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이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속박에서 인도하여 이끈 경위를 잘 알고 있으며 애굽인들이 홍해에서 멸망된 기사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리 백성과 여리고 백성들의 손에 그 땅을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어 소유하게 하신 일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의 내용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후에 또 이렇게 경고하셨읍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여호수아 24 : 13—15, 20, 24) 우리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아름다운 옛 집과 고향을 떠나야 했던 개척자 조상에게서도 듣습니다. 저들은 말없이 험한 고난을 겪고 또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는 바 신조를 굽히지 아니하였고 고난이 극에 달하였을 때에나 평야를 가로질러 힘든 여행을 할 때 이런 노래를 불렀읍니다. "행복한 날 여행이 끝나는 그 날이 오리니 슬픈 일과 고난은 없으며……모든 것 잘되리" 저들은 주의 이름을 축복하였고 저들의 하나님을 축복했으며 계속하여 주를 섬기고 의롭게 행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셨으며 번성케 하셨읍니다.

경전이나 세계 역사를 읽어 보면 개인이거나 사회거나 국가를 막론하고 주를 섬긴 자는—저는 개인의 명예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구원을 얻고 번성하였으나 주를 거역한 자들은 주의 진노를 사게 되고 멸망을 면치 못했음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몰몬경에는 이런 기사가 있읍니다. "보라 이 땅은 복된 땅이라, 이 땅을 어느 백성이 차지하게 되든지 이 땅의 하나님 곧 나타나심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진대 속박에서 자유로와질 것이요 종된 곳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자유롭게 되리라"(이더서 2 : 12)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내세웠던 것과 똑같은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나 이더서에는 그 조건을 긍정적으로 설명하시어 이 땅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약속을 얻는다고 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여 패망으로 걷고 있읍니까 아니면 그의 가르침에 좇아 살고 있읍니까?

아놀드 토인비는 1948년에 출판된 고난의 문명(Civilization on Trial)을 빌어 문명의 성쇠를 그리면서 특히 퇴폐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읍니다. 그는 되풀이되는 역사의 자취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확실히

경악의 시대라고 봅니다. 우리들의 현재의 지식으로 준비한 역사 연구 여론 조사에 의하면 역사는 서구 문명이 그 근거를 둔 인류 사회를 스무번째로 형성하고 있다고 밝혀졌으며 몇몇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미 소위 문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류 사회는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거나 현재 죽어가고 있는 역사를 자세히 연구해 보고 비교해 보면 역사의 쇠퇴와 파멸과 뒷걸음질의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누리는 이 역사의 장이 되풀이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탈피할 수 없는 황량하고 내림박질하는 역사의 흐름에 당면하고 있읍니까?"

그는 일찌기 있었던 역사의 성공과 실패가 반드시 되풀이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타고 났읍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나 자연이 부가해 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 어깨에 걸머져야 하겠읍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매듭짓고 있읍니다. "위의 세 가지 방안 중에 종교적인 방안이 궁극적인 것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고 봅니다."(뉴욕, 옥스포드 대학지, 38—40페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우리가 개인으로서 혹은 국가로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마땅히 받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산다면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이니 이는 십계명 기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삶으로써 모든 인류가 화평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이행할 수만 있다면 하는 식의 가정만으로는 더 향상할 수도 없으며 더 행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정원의 중심부였던 소돔땅,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두로, 시돈 중 두로는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으며 구세주께서 방문하신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였다고 알려지고 있읍니다. 그밖에 예루살렘이라든가 그 외의 도시와 그의 문명이 쇠퇴한 것은 그곳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사악하고 간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사실이 우리들의 주변에서 급격하게 물결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러드야드 키플링의 유명한 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란 시는 문명의 극을 누리는 대영제국에 전하는 경고의 시였으며 사실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전쟁 마당의 지휘관
그 깃발 아래 온 세상
우리를 다스리시니
만군의 주 잊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합소서

"걱정 소요 사라지고
수령과 왕은 떠나나
주께서 보이신 희생
결단코 없어지잖네
만군의 주 잊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합소서

"하늘의 불이 떨어져
어제의 부귀 영화가
니느웨와 두로 처럼
온 세상 심판받을 때
만군의 주 잊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합소서"

—찬송가 139장—

여기 이 노래에는 겸손함에는 힘이 따르고 교만함에는 사악함이 따른다는 좋은 교훈이 강조되고 있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취한 업적을 재평가하여 과연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봅시다. 인류는 과학의 분야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읍니다. 인간을 달에 보내기도 했고 핵폭탄을 개발했으며 전쟁의 수단도 발전시켰으나 과연 평화를 위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읍니까? 인간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했읍니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했읍니까?

우리가 현재 사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리고 있고, 신문이나 기타 메스콤을 통하여 듣고 있듯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어겨 마침내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있읍니까? 도둑질, 방화, 약탈, 폭음, 방탕으로 인한 사망과 불행, 주일날의 교회는 텅비되 큰 길과 상점과 공원은 붐비는 모습. 너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나 위의 열거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읍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읍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죄목으로 우리가 체포되는 경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확증이 넉넉하겠읍니까?" 우리는 수없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왔읍니다. 무지한 것을 내세워 모면할 수는 없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와 가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려면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사는 방법을 바꾸며 주를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행 2 : 38 참조) 우리는 개인으로서 각각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집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새 활력이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훌륭하게 될지를 상상할 수 있겠읍니까? 그렇게 되면 전쟁도 없을 것이며 오직 천국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쟁에 투입되는 돈은 궁핍하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돕는 값진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악함으로 하여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 의로운 사람이 오십만 되거든 멸망을 면하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가 나중에는 열만 되거든 면하게 해달라고 빌었읍니다. 주는 쾌히 응낙하셨지만 의로운 자 열을 찾을 길이 없었고 끝내 성읍은 화를 입고 말았읍니다. 우리는 모두 의로운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성읍과 나라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읍니다. 주를 섬길 것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 : 24)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그것이 가정의 질서나 경제적인 수입 혹은 우리들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어떠한 여건도 파괴하지는 않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생활에

필요로 하는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돌아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굳게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가르친 대로 복음의 원리를 지키며 주를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축복으로 얻게 되고 세상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을 축복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경험 했읍니다. 우리는 보다 훌륭한 가정을 이루게 되며 주를 부인하고 주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사회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주위의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더 행복하게 살며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영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 : 19—21)

나는 누구이라든지 기념비 따위의 녹슬고 부패하는 물건에 대한 인간의 소유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링컨 기념관의 부식에 대한 기사를 뉴스란에서 읽은 일이 있읍니다.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몸을 바치신 분들로서 우리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과 관련이 되는 기사는 확실히 국민 모두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기사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 내려가면 석회석 벽과 사십 팔년 전 대리석 기념상의 부패, 색채의 부식, 지층이 가라앉음으로써 생기는 변조, 천장을 차지하고 있는 수백만의 거미와 날파리 등의 세세한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지상에 쌓아두는 재물에 부패와 동록이 따른다는 좋은 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나 명소에 대한 경의를 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임무를 성실하게 지켜야 하겠다는 결의를 굳게 가져야 할 것이며 세월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곳에 재물을 쌓아둘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겠읍니다.

헨리 밴 다이크의 이야기를 잠깐 인용해 보겠읍니다. 그는 "호화 저택"이라는 글에서 어떤 부자가 으리으리한 호화 저택에서 사는데 하늘에 가보니 그곳에는 작은 오두막을 자기가 마련했을 뿐이라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재물을 오직 하늘에 쌓으며 살았던 까닭에 천국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마련된 호화로운 저택을 보고 놀란다는 내용입니다. (마 6 : 20 참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많은 것을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발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해야 하겠읍니까? 아니면 낭비해야 하겠읍니까? 선하게 행하겠읍니까 악한 행동을 하겠읍니까? 교회에 가겠읍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헛되게 보내겠읍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읍니까 재물을 섬기겠읍니까? 우리는 두 가지에 몰두할 수 없읍니다. 인생의 정도를 마땅히 걸어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물론 인간이 철두철미 악하다든가 선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환경에 따라 인간은 좌우되고 하나님을 택하느냐 혹은 재물을 택하느냐로 인생의 양상이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온전한 축복과 기쁨을 얻으려면 부모는 먼저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주는 이렇게 경고하셨읍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성 68 : 25, 28)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 교회는 회원에게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경건하게 운영하고 세미나리에 참석케 하며 신학원, 학교, 대학교에 참석할 것을 권고하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주를 섬기도록 준비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임무와 책임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되겠읍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의 어네스트 엘 윌킨슨 박사가 여러 해를 사귀어 온 절친한 친구가 관상동맥 혈전증의 증세로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솔트레이크 시에 있는 엘 디이 에스 병원 혈전증 처리과로 급히 달려갔었다는 이야기를 퍽 인상 깊게 들었던 일이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내가 침대로 다가서자 그는 내 손을 움켜 잡고는 산소 공급 마스크를 통해 고통스러운 호흡을 하면서도 이렇게 더듬더듬 이야기했읍니다. '아 박사! 나를 구할 수 있겠오? 하고 싶으면서도 손을 대지 못했던 일이 너무나 많소'라고 했읍니다.

"먼동이 터 올 때까지 모든 현대 의료 수단을 동원하여 수술 작업을 계속했지만 나의 친구가 회생하지 못할 것 같은 심증만 굳어지고 있었읍니다. 나는 그가 내게 들려 준 이야기와 그때의 상황에 잠시 머리를 돌렸읍니다. 우리는 과연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동가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읍니까? 우리가 삶과 죽음의 다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요구의 대상이 되겠읍니까?"

참으로 심각하고 절실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과 죽음의 다리 근처에 도달해 있읍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들은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우리의 우리 인생의 행로를 정할 수 있고 운명을 정하며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영광스럽지 않읍니까? 아직 선택의 기회는 남아 있읍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하며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알게 된 것을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시며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 : 16—17)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가 구원과 온전한 기쁨을 쟁취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셨읍니다. 리차드 엘 이반스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쫓아내시거나 우리와 다투어 우리를 억누르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박해자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행복과 영원한 발전을 바라고 계시며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두를 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우리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섬기어 주가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기쁨을 허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방황자를 찾아서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신권을 소유하신 여러 형제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영광에 대해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여러 나라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즉 정치가, 지도자, 행정가등 많은 사람을 만나 보았지만 신권을 소유하신 여러분을 만날 때와 같은 느낌을 가져 본 적은 한번도 없었읍니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이야기를 듣고 즐기며, 여기에 오신 청중 여러분을 직접 보며 오늘 밤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리 부대관장님께서는 17만명이 모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들이 우정과 형제애를 나누는 것을 볼 때 나는 이해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느껴서 우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고 이 모임의 일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와드에든 열 두 살부터 일흔 살까지의 형제가 있으며, 비록 부인은 하고 있지만, 이들은 교회의 관심과 형제애와 적극적인 삶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도자로서 우리는 모두 누구나 다 행복을 갈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특권인 동시에 책임인 것입니다. 가끔 사소한 일이나 오해가 사람들을 비활동적으로 만드는 수가 있읍니다. 무시당했거나 꾸지람을 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낙담하고 비활동적인 면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읍니다. 혹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지나친 죄의식을 느끼고 그 결과 자기는 버림을 받았으며 자기가 설 자리는 없고 자기는 쓸모없고 가치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미 버린 몸이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지도자로서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만일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려야 하겠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주셨으며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읽어 드리겠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와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누가복음 15 : 1—7)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이나 보조 조직의 지도자는 관심을 요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며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 잃은 양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읍니다. 만일 오늘 밤 어떤 젊은 이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거나 어떤 사람이 익사 직전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즉 실종된 사람이나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비활동적인 이러한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들, 비활동성이나 그외 다른 이유로 교회를 멀리한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을 요하며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와 염려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사람이 활동적인 회원으로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읍니다.

한 사람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한 가족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세대를 구할 수도 있읍니다. 한 사람을 잃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후손까지 잃게 됩니다. 책임은 막중합니다. 우리들 중의 몇 사람은 40~70퍼센트의 출석율로써 만족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40퍼센트가 출석했다면 60퍼센트는 결석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70퍼센트가 출석했다면 30퍼센트가 결석을 한 것이며 이들은 우리의 도움과 관심을 절실히 바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해서 한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읍니다. 그가 말을 할 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으며 이야기를 계속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읍니다. "저는 오늘 밤 이 모임에서 저의 가정복음 교사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비활동적인 아론 신권 소유자였으며 마침 이 가정 복음 교사가 저와 함께 일을 했었읍니다. 처음에 저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읍니다. 사실 저는 그를 만나기를 거절했지만 계속해 찾아오는 바람에 결국은 집에 와서 복

음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 덕택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의 감독으로 설 수가 있게 되었읍니다. 저는 그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황하는 자를 구하기 위하여 능력껏 최선을 다한 그러한 훌륭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가졌던 다음과 같은 경험을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스테이크 부장이었을 때 한 젊은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읍니다. 그는 유능한 청년이었읍니다. 그는 농업 부문에 기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마침 우리는 복지 위원회에서 일할 농업 고문이 필요했읍니다. 그는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은 아니었읍니다. 나는 그가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를 찾아서 어느 날 함께 점심을 하자고 제의했읍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나는 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나는 "형제님은 이 일을 맡아서 수행하기에 가장 준비를 잘 갖춘 유능한 분입니다. 우리는 형제님이 필요하고 활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읍니다.

우리는 한참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글쎄요, 태너 부장님께서는 제가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라고 반문했읍니다.

나는 "물론 형제님은 지키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읍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물론 그것은 훌륭한 일은 못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읍니다. "형제님께서는 좀 다르시군요. 지난 달 감독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와드의 일을 보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고르겠다고 말씀하시며 가셨읍니다."

그래서 나는 그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형제님 잘 들어보세요. 형제님은 교회에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형제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참 이야기를 한 후 그는 다음과 같이 물었읍니다. "만일 제가 이러한 직책을 맡는다면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는 "예.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떠한 지도자든지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이 모범을 보이십시요. 만일 형제님께서 스테이크 위원회에서 일하신다면 형제님께서는 마땅히 지켜야 할 복음에 맞는 생활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그는 "그렇다면 다시 잘 생각해 보겠읍니다." 라고 대답했읍니다.

나는 "예, 잘 생각해 보십시요. 그렇지만 형제님은 활동을 하셔야 하며 우리는 형제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라고 말해 주었읍니다.

그는 "예, 곧 알려드리겠읍니다." 라고 대답을 했읍니다.

다음 날 그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읍니다. 그 다음 날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에도 찾아오지 않았읍니다. 엿새째 되는 날에도 그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읍니다. 나는 그가 지혜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했읍니다.

여드레 만에 그는 나를 찾아왔읍니다. 그는 "태너 형제님, 아직까지도 그 일을 저에게 맡기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읍니다.

나는 "물론입니다. 그래서 형제님을 불렀고 일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읍니까?"라고 대답했읍니다.

그는 "그렇다면 형제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제가 그 일을 맡겠읍니다." 라고 대답했읍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맡았고 내가 있는 동안 그 일을 했읍니다. 그는 서른 살이 훨씬 넘었지만 독신이었읍니다. 그는 활동을 하게 되었고 스테이크 상향회 회장인 아름답고 젊은 자매를 만나 사귀게 되었으며 그녀와 사랑을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독이 되었고 고등 평의원이 되었고 후에 스테이크 부장단의 보좌가 되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이 활동적이 되고 그의 가족이 활동적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은 나에게는 커다란 만족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는 이제 활동적인 자녀를 가지고 있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는 활동적이 아닌 소년과 젊은이와 노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만일 우리가 그들을 흥미 있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그들이 스스로 활동적이 되고자 하는 방법을 알게 해 준다면 그들은 활동적인 회원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 밤 감독 여러분에게 다음 한 달동안 젊은이 몇 사람을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이끌겠다는 결심을 하라는 목표를 남기고 싶습니다. 보좌도 같은 일을 하십시요. 각 와드나 스테이크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도 모두 그러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전 생애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읍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를 위한 계획안을 짜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교사에게 제공해 주며 참석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모두 맡아 하지만 나는 50%나 60%의 출석율로 만족하고 항상 출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잊거나 무시하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출석 퍼센트나 통계 자료가 어떻든지 전혀 개의치는 않으나 길을 잃은 소년이나 방황하는 젊은이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오늘 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신 나의 형제님과 특별히 교회에서 직책을 맡고 계신 형제님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잃은 양을 찾고 그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데려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젊은 형제님들께서는 항상 신권을 존중하여 잃은 양이 되지 말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들의 신권을 존중하도록 도와 행복하게 되게 하십시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의 교회이며 그의 왕국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동료를 구하도록 가르치고 도우라는 책임을 주셨읍니다. 우리는 주님이 받아들이실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행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겸손히 기원합니다. 아멘.

1971년 10월 대회 말씀

—제 141 반연차 대회 보고—

사탄의 공격 대상—젊은이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사회가 전반적으로 타락해서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가 진리의 길과 암흑의 길을 옳게 판단할 수 없으며 부당한 압력 하에 놓이게 되는 때가 오리라”고 한 말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겠읍니다. (휴 니블리, 몰몬경 연구, 1957년)

우리는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읍니다. 악한 세력이 이와 같이 무서운 조직으로 한데 뭉쳤던 때는 결코 없었읍니다. 악마는 언제나 훌륭한 조직력을 가지고 버티고 있읍니다. 그는 그의 사주자들과 사탄의 위용으로 우리의 선량한 젊은 세대를 모두 멸망시키겠다는 의도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탄의 비겁한 흉계는 속속 드러나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항상 슬프고 가슴 아픈 것임을 보아 왔읍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는 파괴력은 우리의 문학이나 예술, 영화, 라디오, 복장, 무용, 텔레비전 스크린, 소위 현대 음악 등에도 큰 힘을 떨치고 있읍니다. 사탄은 가정과 가족과 특히 젊은 세대를 멸망에 이끌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읍니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악마의 공격의 대상은 우리의 젊은이가 되고 있읍니다.

일부 대중 음악의 악 영향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어떤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읍니다. 나는 젊은이를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인 이분의 편지에서 다음의 몇 말씀을 인용하겠읍니다.

“음악은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분위기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환경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과정의 도구는 과연 무엇이겠읍니까?

“리듬이란 음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것은 소리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고도 몸의 율동을 야기시키는 음악적인 요소입니다. 마약이나 알코홀에 마비된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 소리에는 반응을 보입니다.

“소란한 소리는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큰 소리는 보다 높은 사고와 이성의 과정에 장애를 줍니다(이러한 파괴적인 음악의 소리를 낮춘다해도 부수적인 다른 악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극단적인 리듬을 반복하면 또 다른 원시적인 록 음악이 생깁니다……

“록 리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회하는 동작도 역시 그러한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손이나 청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도 그것이 내포하는 뜻을 알게 됩니다……

“어두움(어두운 불빛) 역시 록 음악에서 찾을 수 있는 일면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면을 쓰고 양심을 가리는 것도 이러한 무용에서 볼 수 있읍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 가려진 신분은 정상적인 책임감을 잃게 해 줍니다.

“섬광 전구는 심문자의 삼등 전구와 같이 저항을 잃게 하거나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는 최면사의 추의 움직임과 같은 역할을 해 줍니다……

“이러한 것의 심리적인 의도는 마약, 성행위, 반항, 신성 모독으로 이끌게 되어 있읍니다. 외설적인 가사와 뒤범벅이 되어 외치는 이러한 소리는 저속함만을 낳아 줍니다. 록 사회의 지도자들은 이미 그들의 퇴보를 말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비행의 악마와 같은 기만성이란 자기가 완전하게 되기 위하여 악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절대적으로 완전하며, 자유주의적인 소수 몰몬의 상대론적인 철학으로 합리화될 수는 없읍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할 수는 없읍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록 음악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젊은이를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보다 더 잘못된 생각은 없읍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사탄의 노래나 마약, 성행위, 반항, 배도 등으로 그들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몰몬의 기적이라는 행사 때 들은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모로나이는 여러분이 악과 타협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악마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리차드 니블리,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

한 아버지이며 젊은이의 교사이며 대학의 음악과 교수인 이 사람의 편지는 분석적이긴 하지만 다른 많은 부모나 젊은이의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나타내 준 것이라 하겠읍니다.

교회는 일반의 요구에 못이겨 그 표준을 바꾸어서는 안됩니다. 오늘날 미니 스커트를 입고 록 음악에 몸을 흔드는 사람은 물론, 담배, 커피, 술을 상용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와 타협하지 않는 표준에 의해 거리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젊은이보다 더 훌륭한 청년이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중요하고 도전이 많은 시기에 세상에 보내진 선택된 영인 것입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이들은 놀랄 만한 도전 목표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크고 중대한 책임과 도전 목표는 가장 어려운 때에 옵니다. 악마의 힘이 지금처럼 널리 떨치고 유혹을 획책하던 때는 결코 없었읍니다. 도처에서는 훌륭하고 선하고 고상한 모든 것을 약화시키고, 값싸게 하며, 저속하게 하는 흉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것은 부모들이 안일한 생활을 좇다가 거짓된 안전함에 빠지게

되는 동안 젊은이들에게 공격의 목표를 돌리는 것입니다.

시온 안에서도 모두가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 영감에 찬 몰몬경의 예언자들은 이러한 날들을 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신중한 경고를 하였읍니다.

"보라 그 날에 악마가 인간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며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하며,

"많은 다른 자들을 달래어 육욕의 안식처를 좇게 하며 이르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하리니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

"또한 보라 다른 자들을 달콤한 말로 꾀어 저들에게 지옥이 없다 하며 이르기를, 악마란 없는 것이매, 나는 악마가 아니로다 하며, 저들의 귀에 속삭여 말하기를 저들을 움켜잡아 무서운 사슬로 얽어맬 때까지 하며, 그 때로부터 저들은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리니,

"그러므로 시온에서 할 일이 없이 편히 지내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모든 것 잘 되리라고 외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어다.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권세와 성신의 은사를 부인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니파이이서 28 : 20~22, 24~26)

주님께서는 현대의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엄숙한 훈계를 하셨읍니다.

"진실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여러 국민의 기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 : 5)

"이는 시온은 그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하고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고 그 경계가 넓혀져야 하며 그 스테이크는 강하게 되어야 함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온은 마땅히 일어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 : 14)

"그런고로 기운을 내어 기뻐하라. 네 허리띠를 동여매며 나의 온전한 갑옷을 입어 악한 날에 견딜 수 있게 하고 모든 일을 수행하여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라."(교리와 성약 27 : 15)

우리는 교회의 젊은이를 사랑하며, 주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교회는 의로운 일로 젊은이를 돕고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했읍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맡은 바의 부문에서 성공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그들이 해의 왕국에서 승영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범하고 정당하게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하고 건전하고 기쁨에 가득 찬 삶을 누리게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후회나 상심함이 없게 합시다. 그렇게 살아서 보이지 않는 힘에 손을 뻗치고 격려하여 줍시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최선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범사에는 상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원칙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사탄의 유혹과 함정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실험실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을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네 일이나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가면 뒤에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비극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검은 그림자에 눈이 어두워 유익하고 행복한 삶을 버리고 마약, 알코홀, 성행위록 음악 등에 빠지고 맙니다.

사탄의 방법을 연구해 보면 그의 꼬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는 교활한 간계로 언제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읍니다. 사탄의 공격은 가장 약한 젊은이가 받기 쉽습니다. 젊은 시절은 모든 것이 새로운, 인생에 있어서 봄과 같은 때입니다. 젊은이는 모험심이 많습니다. 이 때는 신체적으로 훌륭한 건강을 지니고 활력이 있어서 절제하라는 요구를 비웃기 쉬울 때입니다. 젊은 시절은 연령의 한계가 무한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기 쉬울 때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는 현재가 곧 과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들은 "노세 노세 젊어 노세"라는 사탄의 계획을 성취시켜 주는, 젊은이에게 있는 속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혼란의 상태란 사탄에게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혼란이 있읍니다. 사탄은 이러한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읍니다. 그 중의 하나가 어떤 개념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마약 복용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탄은 현실 도피라는 정확한 말을 사용하기 보다는 마음의 확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고상한 전통의 말인 자유란 가장 혼란을 야기하기 쉬운 말입니다. 폭동, 폭격, 방화, 살인 등은 모두 자유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고 있읍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외설적인 것들이 마음껏 판을 치고 있읍니다. 외설 문학, 마약, 부도덕이 미니 스커어트나 나체주의와 함께 개인의 자유라는 기치를 들고 나섭니다. 방종과 무정부 상태란 이러한 거짓 자유의 산물인 것입니다.

"외설적인 문학에도 이를 정의하는데 큰 혼란을 빚고 있읍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나 오늘날의 지나친 요구가 그것을 외설적이라고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용이란 말은 사탄이 잘 사용하는 좋은 말입니다. 알렉산더 포우프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읍니다.

"'악이란 놀라운 모습을 가진 괴물입니다. 이를 우리는 두려워하며 멀리해야 하나 자주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처음 볼 때는 인내로 참고, 다음에는 동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를 감싸고 받아들이게 됩니다.'"("인간에게 부치는 글"에서)

"비웃음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젊은이의 탐구열을 혼란시키기 위하여 이를 냉소하는 사람은 혼란을 조성하는 비유법을 사용하여 그를 조소함으로써 그가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남을 조롱하면 쉽게 웃음을 자아내고 시온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는 재확신을 가져다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악마와 같은 부정한 행위입니다.

"상대주의 철학은 영원한 진리의 원리를 공격하고 있읍니다. 상대주의론자들은 '만일 인간이 팝송(유행 음악)

에서 외설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그가 마음 속에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의 논리는 영향이라는 말 자체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나 가사에 외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만일 록 음악에서 좋지 못한 영향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면 여러분은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음악에 도취된 사람의 비뚤어진 성품을 보아서도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가증스러운가를 알 수 있읍니다. 최근에는 대규모의 록 음악 애호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축제를 가진 적이 있읍니다. 이러한 고질화된 축제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읍니다. 록 페스티발이 있는 곳에 마약, 성행위, 반항의 페스티발이 따르지 않을 때가 있었읍니까?"(리차드 니블리)

주님의 영은 인간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고 축복을 내려 줍니다. 그의 영은 환각제나 마리화나, 스피드로 혼란이 된 타락한 인간의 축제에 임재하시겠읍니까? 그분이 저속하게 벗은 나체나 부도덕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읍니까? 록 페스티발에서의 연설은 흔히 외설적이기 일쑤입니다. 원시적인 소리로 인간의 감각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들의 음악은 육체를 만족시키나 정신을 타락하게 합니다. 인간의 오랜 역사 중에서 이러한 록 페스티발이야말로 사탄의 간계가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읍니다. 전설적인 그리이스나 로마의 비밀 축제도 이러한 마약, 부도덕, 반항, 외설, 음악 등에서 볼 수 있는 저속한 상황의 극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악명 높은 우드스톡에서의 축제는 병든 이 나라를 단적으로 나타내 준 것이라 하겠읍니다. 육욕을 자극하는 영화나 전례없이 외설적인 록 음악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큰 사업으로 번창하고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교성 25 : 12)

몰몬경의 니파이삼서에서 볼 수 있는 "……적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저들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였고" (니삼 4 : 31)라는 말씀으로 보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니파이일서에는 리하이의 자녀들과 "이스마엘의 아들들과 저들의 아내들이 농탕치기 시작하여 춤추고 노래하며……"(니일 18 : 9)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사탄이 보았다면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음악가들은 "어둠 속에서도 밝은 한 면을 찾아내고자 노력하는 많은 성직자나 레코드 회사가 주동이 되어 새로운 방향의 록 음악을 시도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었읍니다. 종교적인 음악이 '인기 10곡' 부문에 오르내리게 되었읍니다. 록과 마약이 뒤섞인 문화에 대한 반항 의식이 새로운 도덕과 건전한 음악을 요구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록 음악 자료를 잘 살펴보면 위장된 반 그리스도 사상이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시 종교를 신화 속으로 이끌어가는 록 음악은 현실적인 죄악을 거부하면서 의로움의 옷으로 가장하고 있읍니다. 죄악이 없는 새로운 도덕은 종교라는 옷을 입고 흥청거리는 신성 모독의 행위를 계속할 것입니다. 예수와 유다의 역할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삼는 그들은 화 있을찐저'(사 5 : 20)라는 경고가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읍니다." (리차드 니블리)

교회의 지도자가 1971년 8월 신권회 공보를 통하여 이러한 신성 모독과 배도 행위의 사악함에 대해 교회 회원의 주의를 촉구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인류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복된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그러나 또한 사탄이 창궐하는 최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읍니다. 사탄은 무자비하게 그의 힘을 동원하여 우리가 거두어 온 수확물을 약탈해 가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계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읍니까? 작년도 상호향상회의 주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를 잘 일러 주고 있읍니다. 신앙개조 13조는 그러한 점에서 중요한 열쇠를 내포하고 있다 하겠읍니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읍니까? 이러한 것을 추구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는 조잡한 상업주의의 영향을 받아 의롭고 사랑스러운 많은 걸작품을 대할 기회가 적어졌읍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읍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은 '사랑스러운'이란 형용사로는 설명이 될 수 없읍니다. 이러한 기적의 발명품을 만들어 낸 사람은 주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훌륭한 작품이 세상에 소개되자 암흑의 힘이 그를 이용하여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있읍니다. 전축,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 각종 문명의 이기는 발명가의 본 의도와는 거리가 멀게 이용되고 있읍니다.

몇 년 동안 음악이 인간 행위에 미친 영향에 관해 관찰한 어느 음악가의 이야기를 인용하겠읍니다.

"사탄은 음악이 원시적인 동물까지도 고무하고 위로하는 마력을 지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한 음악이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는 것은 헐리우드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분위기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환경은 인간의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라디오나 전축에서 울려 퍼지는 싸이키델릭 음악을 불평하는 부모는 불평을 하기 전에 자기의 레코드 수집 목록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만일 그러한 목록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거나 다양성이 없다거나 사용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불평은 부모에게 달려 있다 하겠읍니다. 문화의 씨는 어린 모방의 시절이란 비옥한 땅에 뿌려질 때 가장 잘 자라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이미 잃은 모범을 아무리 자란 후에 다시 고치려 해도 소용이 없읍니다. 영웅적인 형상을 남길 기회를 잃은 부모는 십대의 영웅이라는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리차드 니블리)

오늘날 이러한 영웅으로 추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과거처럼 고상하거나, 겸손하거나 의롭거나 어떤 일을 성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문이나 잡지나 책에서, 특히 젊은이를 다루는 편에서는, 그러한 영웅이란 음탕하고 외설적이고 부도덕하고 탐욕적이며 심지어 잔인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이러한 면에서 유명한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과시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한 삶의 예를 젊은이가 숭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젊어져야 합니다. 자녀의 보살핌과 뒷받

침에 있어서는 그들의 육체적이며 정신적이며 지적인 삶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삶에 대한 똑같은 관심을 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젊은이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오늘날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과거에는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은 부모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가정의 밤은 사탄에게 큰 장애가 되고 있읍니다. 상향회 프로그램은 우리의 젊은이를 온갖 악에서 보호해야 하며 세속적인 유혹을 물리친 후 얻는 공백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문제나 개인적인 의심을 해결해 주는 만능약이란 아침 저녁으로 혼자 혹은 가족과 갖는 기도입니다.

비난을 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사람보다 효과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사랑과 이해는 순수할 때만이 효과가 있읍니다. 순수해지기 위해서 그들은 사랑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의로운 생활을 하든 잘못을 범하고 있든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배우고 분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공평한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점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물론 "사회가 전반적으로 타락해서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가 진리의 길과 암흑의 길을 옳게 판단할 수 없으며 부당한 압력 하에 놓이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나 젊은이의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공평한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권능과 좋은 상식을 갖도록 허용하셨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1971년 10월 1일 금요일 오후 모임 말씀

계명이 다시 쓰여져야 할까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최근에 있었던 흥미있는 질문과 또한 똑같이 흥미있는 대답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질문이란 "계명이 다시 쓰여져야 할까?"라는 것이었으며 그 대답은 "아닙니다. 계명은 다시 읽혀져야 합니다."라는 것이었읍니다.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훌륭한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즉 하나님의 계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러한 계명은 거룩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읍니다. 나이가 든 사람은 경험으로 그러한 것의 필요성을 증거했고 그것이 무시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한 계명을 합리화하거나 거부하여 좌절과 불행과 슬픔과 비극 속에서 인생을 보냅니까?

십계명부터 읽어 간다면 더 이상 훌륭한 말씀을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읽고 또 읽을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뜻이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겠읍니다.

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계명은 이러한 것을 행하라 하고 말을 하는데 이것 역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들을 열거해 보는 것도 흥미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어떠한 부모라도 이러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의사라도 이러한 상황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복음이 뜻하는 바라 하겠읍니다. 이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는 다음과 같은 권고라고 할 수 있읍니다. "너희들은 무한하고 영원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또한 자유가 있다. 이를 사용하는 것은 너희에게 달려 있다. 너희가 나의 충고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계명인 것이다. 선택은 너희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는 모두 매일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한 선택의 결과대로 살아야 합니다.

평범한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게을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나 신비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논란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읍니다. 계명이나 이에 따르는 요구 사항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사실을 직시합시다. 필수적이건 아니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명석한 사람, 철학자, 기타 많은 사람들이 수세기에 걸쳐 이러한 문제와 싸워 왔으나 그들 스스로 만족하거나 동의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나는 학자나 교육자, 연구가나 기타 학문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예언자와 인생의 목적 등에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어느 곳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나는 지상에서 덕망을 쌓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 등 150여 개국의 저명 인사들을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었읍니다. 그렇지만 나는 영생을 두고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경전의 구절을 가지고 논란을 하며, 그들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일을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가끔 "간음을 말찌니라"라는 말씀은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죄악이나 범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지혜의 말씀은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지 못한다고 알려진 모든 물질을 다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것들은 모두 열거될 수는 없읍니다. 베냐민 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마지막으로 이르거니와, 너희에게 죄가 될 일을 모두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죄를 범하는 종류

와 길이 여럿인지라 이제 내가 일일이 이를 열거할 수 없도다."(모사이야서 4 : 29)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혜와 상식을 활용하기를 바라시며 인간의 신체와 마음과 영과 도덕을 해치는 것들을 삼가하기를 바라십니다. 무엇이건 듣기 전에 잠시 멈추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이것이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움을 줄 수 있을까? 좋은가 그렇지 못한가?"하는 질문을 합시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관계가 없읍니다. 문제는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물건은 그대로 있을 것이며 아무리 달리 부른다 해도 그 기능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온갖 형태의 도덕적인 위반과 범법이 경전으로도 죄악시 취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악함, 불결함, 타락, 부정, 극단, 현명치 못한 습관, 어울리지 않는 행위 등을 금한 경전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허튼 소리를 합니까? 왜 사실을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전 12 : 13)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 : 15)

그러나 우리는 또한 자신이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오래 전에 에머슨[1]이라는 사람은 "보상"이라는 수필을 썼는데 그는 작품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세상은 구구표나 수학의 방정식과도 같아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균형을 잡읍니다. ……모든 비밀도 다 누설되고, 모든 죄악은 처벌을 받고, 모든 미덕은 보상을 받으며, 모든 잘못은 대가를 치루게 되는데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틀림없이 진행되어 갑니다. ……

"원인과 결과, 수단과 목적, 씨앗과 열매는 서로 분리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있으면 자연히 결과가 따르게 되고……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

"얼마를 갖게 되겠는가? 라고 하나님이 물었읍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거두게 됩니다. ……너희가 한 만큼 더 이상도 아니요 더 부족함도 없이 행한 만큼을 얻게 될 것이다. ……

"인간은 자신을 말할 수는 없으나 판단할 수는 있읍니다. ……모든 의견은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잘못을 범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고통이 따릅니다. ……

"도적은 자신으로부터 물건을 훔칩니다. 사기꾼은 자신을 속이고 있읍니다. ……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읍니다. ……

"죄를 범한다는 것은 땅 위에 내려진 눈 위를 지나다닌 다람쥐나 여우나 두더지의 자취와 같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 버린 말을 취소할 수 없으며 발자국을 깨끗이 씻어 버릴 수도 없읍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항하는 유혹으로부터 힘을 얻읍니다. ……

"인간은 속임을 당했는 어리석은 미신으로 평생 동안을 고통 속에 살고 맙니다. 그러나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속임을 받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에머슨이 한 말과 근본적으로 같은 말로 성공적인 죄인은 없다고 하신 해롤드 비 리 부대관장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훌륭한 말씀입니다.

인생에는 보상의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행하려는 일을 깊이 생각하여서 행하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이제 젊은이에게 몇 말씀 드리고 싶읍니다. 주님의 계명이 이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그것을 범한다 해도 두려운 결과는 있을 수가 없다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이 주위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야 할까를 알고 싶다거나, 누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언제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나를 행복과 평화와 최고의 가능한 세계로 이끄는 것인가 아니면 저속한 세계로 이끄는 것인가?"

이상을 파괴하고 계명을 거부하며 여러분을 저속한 수준으로 이끄는 사람을 따르지 마십시요.

언제나 휴 비 브라운 부대관장님께서 다음과 같이 물으신 질문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하시겠읍니까? 아니면 합리화하시겠읍니까?"

크롬웰[2]은 "여러분께 간청하건대…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요"라고 말한 적이 있읍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이끌거나 그의 평안을 망치거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게 하거나 그의 영생을 해칠 때 과오를 범하고 맙니다.

존 러스킨[3]은 "자만심이란 모든 실수의 요인이다."라고 말했읍니다. 적어도 자만심이란 회개를 막는 주요한 장벽의 하나인데 이는 우리가 과오를 시인하지 않고는 이를 시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빌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자만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겸손과 과오를 시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요. 그들을 신뢰하십시요. 여러분 자신을 존경하십시요. 하나님과 그가 주신 지식을 존경하십시요. 인생을 도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요. 이것이 우리가 지닌 전부입니다.

유혹을 이겨 내십시요. 어리석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유혹이나 위험 속에 가까이 왔나를 보지 마십시요. 얼마나 낭떠러지에 가까이 왔나를 보기 위하여 어리석게 접근하지 마십시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가지 말아야 할 곳이나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까이하지 마십시요.

만일 여러분께서 잘못 길을 들어왔다고 생각하시거나 막다른 골목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방향을 돌리십시요. 회개의 원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밝혀진 바를 찾으러 우왕좌왕 뛰어다니지 마십시요. 오늘날 세상의 유혹이나 괴변을 이겨 내십시요.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세상적인 일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 마

1. 에머슨, 랄프왈도(1802~1882) : 미국 시인 겸 수필가

2. 크롬웰, 올리버(1599~1658) : 영국의 정치가, 군인, 종교 지도자

3. 러스킨, 존(1819~1900) : 영국의 작가, 문학 비평가, 사회학자, 박애주의자

십시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고의로 무시해 버리지 마십시요.

부모되시는 분은 자녀들에게 정직, 존경, 청결, 의로움, 의무에 성실함을 모범으로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삶을 주었읍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죽었읍니다. 가족 여러분, 사랑과 친절로 함께 뭉쳐 가정을 이루고 서로 자랑할 수 있는 전통을 세우고 그의 일원이 되고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계명이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기를 존중하게 되려면 계명이 생활의 지침과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어느 스테이크 부장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분이 몇 달 전에 나에게 남겨 준 생각을 감사드립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잃은 가축을 찾기 위해 벌판을 헤매곤 했읍니다. 우리가 산골짜기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께서 '저기에 가축들이 있구나' 하시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 스테이크 부장은 "나의 부친은 나보다 훨씬 잘 보셨으며 나는 종종 그들을 볼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잃은 가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읍니다. 나는 그 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며, 그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세주인 독생자를 보내 주셔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고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를 충분히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느낄 수 있으며, 그의 교회와 복음과 삶의 길이 지상에 있고, 우리가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일 때 최고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그의 계명을 어길 때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971년 10월 3일 일요일 오후 모임 말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얼마 전 저는 트러팰거 광장에 서서 넬슨경[1]의 동상을 유심히 쳐다본 적이 있었읍니다. 동상 밑에는 그가 트러팰거 전투가 벌어진 날 아침에 한 말이 새겨 있었읍니다. "영국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 주기를 바란다." 넬슨경은 1805년 역사적인 날에 많은 전우와 함께 전사하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영국이라는 나라는 위험을 면했으며 결국은 대영제국이 되었읍니다.

이래로 책임과 순종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이사야도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외쳤읍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 1 : 19—20)

제 나이 열 넷인가 열 다섯인가 되었을 때 이 태버나클 2층 시계 바로 뒤에 앉아서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이 소년 시절에 몰몬경을 읽던 경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니파이와 니파이가 자신의 생애에 미쳤던 중대한 영향에 대하여 말씀하셨읍니다. 그때에 지금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신념에 가득 차 쩡쩡 울리는 음성으로 니파이의 말씀을 인용하셨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일서 3 : 7)

그때 제 젊은 가슴에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 보겠다는 결의가 생겼읍니다. 저는 주님의 영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자신이 해야할 일에 신앙을 갖고 순종하는 태도로 임한다면 실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읍니다. 일전에는 잠수함 노틸러스호[2]를 타고 북극의 얼음 밑으로 해서 태평양으로부터 대서양까지 항해한 해군 장교 윌리암 로버트 앤더슨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었읍니다. 감히 엄두도 못낼, 위험을 극복한 행위였읍니다. 이야기는 이와 비슷한 위험을 딛고 일어선 경우를 설명해 주었읍니다. 이야기는 자신은 다음과 같은 문귀가 적혀 있는 낡은 카드를 지갑 속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읍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 드리면,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믿는다.

나는 언제나 제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이라도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믿는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이라도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읍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고(교성 89 : 18) 신권의 충고를 좇는다면 그분은 비록 길이 없는 것같이 보이는 곳에라도 길을 만들어 주심을 믿읍니다.

런던의 트러팰거 광장 맞은편에는 영국 국립 미술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죠슈아 레이놀드 작품으로 어미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삼상 3 : 10)라고 대답한 소년 사무엘의 그림이 걸려 있읍니다.

그날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였으며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선택하여 성임한

1. 넬슨, 호레이쇼오(1758~1805) : 영국의 제독, 나폴레옹과 싸워 이김

2. 노틸러스호 : 1958년 8월 3일 북극의 얼음 밑으로 역사적인 항해를 한 미국 잠수함

사람도 바로 그였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 : 22)라고 사울을 질책할 때에 사용한 말은 시대를 초월하여 전해 내려오고 있읍니다.

저는 아합 왕에게 땅에 가뭄과 기근이 내릴 것이라고 경고한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단순한 말에서 큰 힘을 얻고는 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이 말을 비웃었읍니다. 그러자 주님은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서 몸을 숨기고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읍니다. 경전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은 간단하고도 위대한 말로 표현하고 있읍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열상 17 : 5)

이론을 제기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읍니다. 얼버무려 그대로 넘기려 하지도 않았읍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었읍니다. 그리하여 비웃고 이의를 제기하고 의구심에 가득 차 있던 사람에게 떨어진 그 무서운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읍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이 언제나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타당치 않다고 느낄 때도 있읍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도록 하신 여호와가 모세와 나눈 이야기에서 위안을 받습니다. 모세는 목자였읍니다. 그러니 자신이 얼마나 부적합하다고 느꼈겠읍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그러니 저에게 명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출 4 : 10—12)

1837년 교회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히버 시 킴볼을 불러 영국에 가서 그 지역을 개척하라고 하셨읍니다. 이때 킴볼 형제는 겸손하게 외쳤읍니다. "오 주님이시여 저는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에는 전혀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런 제가 기독교계에서 학문, 지식, 신앙심으로 이름이 나 있는 그 땅에 가서 지혜롭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던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으로 제가 걸어야 할 책무의 길을 버리지 않았읍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를 지지해 주시며 저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축복해 주시리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는 결의를 느꼈읍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소중했고, 게다가 아무 것도 마련해 놓지 못하고 떠나야 했지만 저는 그 어떤 근심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참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읍니다."(올손 에프 휘트니, 히버 시 킴볼의 생애, 북크레프트사, 1967년, 104페이지)

그는 바다를 건너갔읍니다. 그는 동반자와 함께 그들을 경원하는 지옥의 악마와 싸워 가며 랭카셔, 프레스톤에서 전도 사업을 시작했읍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일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었읍니다. 얼마 전에는 맨체스터에서 훌륭한 대회를 가진 바 있읍니다만 이것이 다 두려웠으나 충실하게 시작한 대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명이 마음에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문둥병자 나아만은 말과 마차를 거느리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갔읍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를 만나지도 않고 사자를 시켜 이런 전갈을 보냈읍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러나 자부심과 오만에 가득 찬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같은 달갑지 않은 명령에 기분이 상하여 그대로 가버렸읍니다. 그러나 종들이 붙잡고 애걸하자 마음을 고쳐 먹고 다시 돌아갔읍니다.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열하 5 : 1—14)

이곳 태버나클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하나가 있읍니다. 이 젊은이는 몇 년 전 콜로라도주 덴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웨스턴 스테이트 선교부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읍니다. 그는 대학 토론 팀의 일원으로 덴버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었읍니다. 산 하나만 넘으면 되는 거리였읍니다. 부모는 "이상한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아주 먼 곳",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선교 사업을 희망해 왔었읍니다. 친구들도 빙그레 웃고는 했읍니다. 가까운 주변 사람들도 부르신 분의 지혜와 영감에 대하여 의구심을 나타냈읍니다. 그래 하필이면 그렇게 훌륭한 젊은이를 솔트레이크 시에서 덴버로 부를 필요가 있었겠읍니까? 여하간에 그는 떠났읍니다.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읍니다. 그가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도 있읍니다. 그는 선교부장의 보좌로 지명되어 지도력 훈련의 기회를 경험하게 되었읍니다. 그 곳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후에는 결혼하게 되었읍니다. 그 선교부에서의 참으로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귀하게 주어진 직책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자질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 십이사도 지역대표의 한 사람으로 이곳에 함께 하고 있읍니다.

저는 제 뒤에 앉아 계신 해롤드 비 리 부대관장도 거의 비슷한 환경을 딛고 선교사로 일했으며, 이같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삶에서 보아 왔고 그분을 그토록 좋아하게 만든 위대한 품성을 길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사십 년 전에 저는 영국에서 선교사로 일했읍니다. 저는 십이사도 평의회의 조셉 에프 메릴(1868—1952)장로가 선교부장을 하던 구라파 선교 본부에서 봉직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런던의 수개 신문에 정말 형편없는 기사가 실렸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옛날 책을 복사해 가지고는 이것이 몰몬의 역사라고 헐뜯는 것이었읍니다. 메릴 선교부장은 저에게 "장로가 발행인을 찾아가서 이에 대한 항의를 해 주시오."라고 말했읍니다. 저는 부장을 쳐다보며 "저는 좀 적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뻔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을 고쳐 먹고 겸손하게 "예, 가겠읍니다."라고 대답했읍니다.

저는 두려웠읍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안정하려 했읍니다. 저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바로 왕을 만나라고 하셨을 때 이와 같은 감정에 떨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를 드렸읍니다. 프릿가로 가는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굿즈 정거장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으나 가슴은 맹렬하게 뛰었읍니다. 저는 사장실을 찾아가 비서에게 명함을 주었읍니다. 비서가 명함을 받아들고 안 사무실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스케핑톤 사장님은 오늘 바쁘기 때문에 면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오천 마일도 넘는 데서 왔기 때문에 한 시도 기다릴 수 없다고 대답했읍니다. 그로부터 채 한 시간도 되지 않는 사이였지만 비서는 사장실을 서너번이나 왔다갔다 했읍니다. 드디어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읍니다. 저는 그때의 광경을 잊을 수가 없읍니다. 그는 긴 시가를 물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읍니다.

저는 신문을 손에 들고 있었읍니다. 저는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닌 어떤 힘이 저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듯싶었읍니다. 사장은 처음부터 변명에 급급했고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태도까지 보였읍니다. 그러나 곧 누그러지기 시작했읍니다. 무슨 조처를 취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면담은 끝났읍니다.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영국의 모든 서점에 신문에 기사를 제공했던 문제의 책을 전부 회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읍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 책이 실화가 아닌 소설이며 더구나 훌륭한 몰몬교도를 비방할 뜻에서 저술된 책이 아니라는 해명서를 인쇄하여 첨부해 주었읍니다. 후에 그는 교회에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며, 그는 저에게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년 성탄 카드를 보내 주었읍니다.

나는 우리가 신앙심에 싸여서 신권의 요구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십 년 전 지난 금요일에 나는 이 웅장한 태버나클 안에서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으로서 성임되었읍니다. 이 십 년이란 매우 놀랄만한 기간이었으며,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신앙심을 북돋는 경험을 몸소 체험하게 해 주었읍니다. 그러나 내가 겪은 훌륭한 경험 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고 영적인 감화를 안겨다 준 모임은 우리의 동편에 서 있는 신전에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가 갖는 주례 모임이었읍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뜻을 알려는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됩니다. 이 거룩한 곳에는 교회가 제의한 프로그램을 결정하도록 계시의 영이 함께 합니다.

이 십 년의 경험으로 나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의 백성에 관한 그의 뜻과 방법을 알려 주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읍니다. 우리가 행하도록 요구된 것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과 기도와 결단력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말일성도의 행복, 말일성도의 평화, 말일성도의 발전, 말일성도의 번영, 말일성도의 영원한 구원과 승영은 하나님 신권의 권고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달려 있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9장)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여 이 말일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당신을 믿는 신앙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즐거운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 당신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구합니다. 아멘.

예언자 엘리야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얼마 전에 나는 어느 저명한 인사가 젊은이의 최근 경향에 관한 연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읍니다. 그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부모와 다른 길을 좇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읍니다. 이 연사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촉구하였는데 부모들은 현대 사회의 물질 문명이 이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고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연사는 새로운 세대와 부모의 세대와의 세대 차이에 관해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젊은이의 편을 들어 부모들은 과거의 세대에 속해 있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사고 방식과 새로운 이상과 구세대와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정말로 발전을 하려면 오히려 세대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읍니다. 그는 만일 자녀들이 부모와 똑같은 길을 좇는다면 발전이란 기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존 질서에 대항하는 현 세대의 봉기에 의해 강요되더라도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읍니다. "새로운 것이 시험을 받기도 전에 누가 감히 낡은 것이 새 것보다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그는 말을 계속하면서 부모나 젊은이 사이의 차이나 충돌은 영원한 것이어서는 안되고, 부모가 자녀들의 생각이나 노력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잘 이해하는 보다 성숙한 관계에 이를 수 있도록 새로운 생각과 발전을 줄 목적으로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이 두 세대의 관계는 이러한 조정을 통해서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그들의 차이가 지적인 타협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구세대와 젊은 세대를 굳게 결합시킬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명제를 뒷받침해 줄 구약성서의 마지막 두 구절을 인용하였읍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라기 4 : 5—6)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를 보냄에 관한 말라기서의 이 구절보다 학생들에게 해석상의 큰 문제를 준 구절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리라고 한 선지 엘리야란 과연 누구일까요? 그의 생애에 있었던 중요한 일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읍니다.

기록상에 나타난 엘리야에 관한 최초의 이야기는 그가 갈릴리에 있는 요단강 동쪽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사건은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9세기 전에 일어났읍니다. 이 위대한 예언자는 바알 신을 숭배하던 자들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인 여호와를 수호하여 싸운 지도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읍니다. 그의 생애는 많은 기적과 관계를 갖게 되었읍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기근이 나라를 휩쓸게 되리라고 예언을 하였읍니다. 예언자는 요단 강 동쪽 그릿 강으로 갔읍니다. 이 강은 그에게 물을 주었으며, 주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을 주야로 전해 주셨읍니다. 심한 기근으로 강물은 다 말랐고 그는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했읍니다.

주님께서는 외아들과 살고 있는 어느 가난한 과부에게 그를 인도하여 주었읍니다. 엘리야는 성문 앞에서 그녀를 만났고 물과 빵을 달라고 청했읍니다. 그 과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읍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열상 17 : 12)

엘리야는 그녀에게 한 움큼의 가루나 조금밖에 없는 기름일지라도 없어지지 않을테니 두려워 말라고 했읍니다. 그는 그것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있으라고 말했읍니다.

그가 그 집에 있는 동안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읍니다. 엘리야는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였고 그 소년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읍니다.

후에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으며 아합 왕에게 가면 가뭄을 멈추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아합은 두로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후 바알 신 숭배를 장려했읍니다. 그녀는 자기의 종교인 바알을 히브리인들에게 소개했으며 히브리인의 종교를 공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읍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기근이 그치게 되리라는 소식을 전하자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재난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그를 비난하였읍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주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것을 책했읍니다. 그는 자기와 바알 선지들 사이에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세벨의 도움을 받는 바알의 선지들을 이끌고 갈멜 산 꼭대기에 가서 경쟁을 벌였읍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불러 모았고 엘리야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알 선지 450명과 대항하여 시합을 벌였읍니다. 경쟁은 각기 자기가 섬기는 신의 제단을 만들고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 놓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읍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하였읍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점심이 지날 때까지 바알 신을 외쳤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읍니다. 그들은 쌓은 제단 주위에서 날뛰며 자기 칼로 자신 몸을 찌르고 피를 흘렸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읍니다.

그런 다음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왔읍니다. 그는 자기가 준비한 제물에다 물을 부으라고 명하고 다음과 같이 간구하였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열상 18 : 36—39)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캄캄해지더니 억수같은 비가 쏟아져 가뭄이 그치게 되었읍니다.

이세벨은 화가 나서 엘리야를 위협하자 그는 브엘세바로 피하였고 다시 광야로 들어갔읍니다. 광야에서 그가 주님을 만난 것을 멘델스존[1]은 엘리야 오라토리오의 주제로 삼았읍니다.

시내산에서 그는 바람의 큰 힘을 느꼈고, 바위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졌고, 지진과 불이 있은 다음 조용해지면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읍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열상 19 : 9—10)

군대가 그를 체포하려 파송되었으나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청하여 그들을 소멸시켰읍니다.

위대한 여호와의 수호자인 엘리야와 그의 친구 엘리사는 함께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갔읍니다. 엘리야는 겉옷을 말아 물을 이리저리 쳐서 이 두 사람이 육지 위를 걸을 수 있었읍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열왕기하 2 : 11)

엘리야의 이야기는 구약 성서에서 나오며 신약성서에서도 그에 관해 언급된 것이 있지만 후에 주어진 계시가 없었더라면 말라기가 한 약속이나 그의 사명에 관해서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모로나이 천사가 말한 이 경륜의 시대에 기록된 계시는 말라기가 한 말을 거의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리야가 오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런 후 팔 년 만에, 커틀랜드 신전이 헌납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놀랄 만한 시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10편에 기록된 몇 구절을 읽어 보겠읍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장막이 걷히고 이해의 눈이 열리는지라."

주님께서는 설교단 흉벽 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읍니다. 모세가 나타났고 그 다음 엘리야가 나타났읍니다. 기록은 이렇게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 시현이 닫히고 나서 다른 위대하고도 영화로운 시현이 갑자기 우리

1. 멘델스존, 야곱 루드비히 펠릭스(1809~1847) : 독일 작곡가 겸 지휘자

에게 열리더라. 이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워간 예언자 엘리야가 우리 앞에 서 계심이라. 또 이르시되,

"보라, 진실로 그 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말라기의 입으로 이야기되던 때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저(엘리야)가 파송되어,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그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온 땅이 저주로 얻어 맞으리라고 증거한 그 때니라."(교성 110:1, 13—15)

과거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읍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지식이 없이 심판을 받겠읍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다음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벧전 3:18—19)고 말했읍니다. 그런 다음 또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벧전 4:6)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이를 듣고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침례를 받지 못하고 이 지상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 하여 영원히 그러한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이 옳겠읍니까?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베푼다는 것이 부당합니까?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사업의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이신 분은 구세주 자신일 것입니다. 그는 대속하여 자신을 희생하셨고 모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영생을 얻게 하셨읍니다. 그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를 위해 해 주셨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생전에 의식을 갖지 못한 자를 위하여 의식을 행할 수 있읍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의 영원한 반려자가 되고 자녀가 가족으로 인봉될 수 있는 인봉의식이나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읍니다. 가족 단위의 인봉은 하나님의 가족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위대한 사업이며, 이로써 선조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되고 자녀의 마음이 선조에게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결합과 구원은 창세 이전에 기초가 놓여진 위대한 계획이었읍니다.

나는 까마귀가 가져다 준 음식을 먹고 광야에서 지내고,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이 결코 다 떨어지지 않게 했으며 과부의 외아들의 생명을 구해 주고, 켜지지 않은 불로 제물을 태우고, 불마차를 타고 승천한 예언자가 말라기의 예언대로 바로 이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는 구세대와 현세대의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였읍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신전을 짓고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나기 전에 선조를 찾아내고 확인하려는 일에 사람들은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신전이 건립되자 세상에는 계보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되었읍니다. 솔트레이크 시에서 열린 세계 계보 대회에 각국의 대표가 모두 참석한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한 관심을 잘 말해 주고 있읍니다.

이제 현대 젊은이들의 경향에 대해서 말한 어느 연사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봅시다. 말라기의 예언이 바로 말일의 엘리야의 사명이 부모와 자녀간의 차이를 해결해 주고, 내적인 평안을 회복해 주며, 세대의 차이를 좁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닙니다. 말일의 계시는 우리에게 참 뜻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요셉 스미스의 대답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구원하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갖게 하고, 우리의 죽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인봉하는 것은 엘리야의 영에 의해서입니다……."(교회정사, 제6권 252페이지)

엘리야의 영이 우리의 마음 속 깊이 타올라 신전으로 마음을 향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겸손히 기원합니다. 아멘.

1971년 10월 3일 일요일 오전 모임 말씀

천국의 발견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대리

친애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이미 천국의 창문을 어둡게 하는 중한 죄에 관하여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읍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부도덕한 것이 만연되는 것을 보고 전율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사람들이 거리낌없이 이혼을 하고 결과적으로 가정이 파괴되며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사태를 볼 때에 그저 아연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든 것이 다 죄악이요 사악함이요 순리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어야 하겠읍니다.

나의 초상화를 준비할 때의 경험담을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읍니다.

신전 4층에는 큰 의자를 반원형으로 정리해 둔 십이사도 평의회실이있읍니다. 이곳은 십이사도 평의회의 중대사가 논의되는곳입니다. 이 방 벽에는 관리 역원들의 초상화가 죽 걸려 있읍니다. 내가 이 방에 들어설 때는 내가 유대를 함께 하는 위대한 그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흠모의 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 얼마 후에 나의 초상화를 준비하여 그 벽에 걸라는 교회 대관장단의 지시가 있었읍니다.

리 그린 리차즈 형제가 화가로 지명되었고 우리는 즉시 작업을 착수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화실에 준비된 높다란 걸상에 올라 앉아 이미 벽에 걸려 있는 많은 다른 형제들처럼 좀 맵시있게 보이려고 무던히 애를 썼읍니다. 페인트와 붓과 팔레트를 갖추어 놓고 화가는 나의 얼굴과 캔바스로 눈을 번갈아 주며 작업을 계속했읍니다. 그후로 나는 여러 번 화실에 들렀읍니다. 그후 몇 주 만에 초상화는 완성되었고 대관장단에 먼저 보여 드린 다음에 나의 아내와 딸에게도 보여 주었읍니다.

그러나 그 초상화는 불합격이 되었고 나는 초상화를 다시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읍니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시도되었고 그 각도를 정하는 데 여러 시간을 보냈읍니다. 마침내 그림이 거의 완성되기에 이르렀읍니다. 이 날도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없는 아주 분주한 날이었읍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그야말로 비몽사몽간이었는데 어쨌든 나 자신은 이 세상에서 멀리 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나를 바라보던 화가는 나의 그 아득한 눈길을 도저히 캔바스에 옮길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가 팔레트와 페인트와 붓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팔짱을 낀 채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드디어 나는 그가 묻는 소리에 그 어떤 꿈 같은 것에서 깨어났는데 그때 그의 질문은 이러했읍니다. "킴볼 형제님, 형제님께서는 천국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나의 주저없는 대답은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던 나만큼이나 그를 놀라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소 리차즈 형제, 분명히 보았오. 나는 이 화실로 들어오기 전에 천국의 모습을 힐끗 보았소." 나는 그가 일시에 긴장을 확 푼 그런 자세로 놀라움의 눈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본다고 느꼈읍니다. 나는 말을 이었읍니다.

"그렇소, 한 시간 쯤 전이오. 길 건너편의 신전 안에서였소. 인봉의 방문이 이 세상과 단절되면서 그대로 두텁고 흰 벽만 의식되었소. 그러더니 빛과 따스함과 휘장과 가구와 모든 것이 성스럽고 정연하다고 느껴지면서 양쪽에 붙은 거울이 차례로 하나의 그 모습을 영원히 반사해 주는 것이었소.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아름다운 색깔의 창문에서는 평화스런 밝음이 스며드는 것이었소. 방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흰 옷을 입었고 화평과 조화와 힘써 참여하겠다는 기운이 맴돌았다오. 준수한 젊은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가 단 양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나는 권능으로 이 땅과 해의 영광의 세계를 잇는 천국의 의식을 집행했다오. 그곳에는 정결한 마음과 천국이 깃들어 있었오.

"영원한 결혼 의식이 끝나고 축하의 인사가 나누어지고 있을 때 만면에 기쁨의 미소를 담은 신랑의 아버지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오. '킴볼 형제님, 저와 아내는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 뭐 이렇다 할 만한 업적이랄게 없읍니다. 그러나 가족은 모두 큰 긍지를 갖고 산답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여덟 자녀의 막내 아이인데 아이들이 모두 거룩한 이 신전에서 신전 결혼을 했답니다. 모두들 오늘은 이 막내 아이의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내를 동반하고들 왔읍니다. 저희 집 여덟 자녀가 모두 신전에서 결혼을 한, 이를테면 우리는 행복한 세월을 누리고 있읍니다. 아이들은 모두 교회에서 맡겨진 직책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살고 있으며 위의 아이들은 의로운 자녀를 갖기 시작했읍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못박힌 손을 내려다 보았소. 그의 거친 피부를 보면서 나는 나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소. '여기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업적이라구요?'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이야기를 했소.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형제께서 가장 큰 업적을 이룬 분이라고 생각했읍니다. 혹 형제께서 백만장자가 되었거나 대지주가 되더라도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는 있읍니다. 형제께서는 의로운 삶을 살며 자손을 기르며 저들에게 신앙과 의로운 일을 가르침으로써 이 세상에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셨읍니다. 참으로 형제께서는 크게 성공을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읍니다. 나는 그 초상화를 올려다 보았읍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읍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이야기를 계속했읍니다. "그래요, 나는 여러 번 하늘의 모습을 보았소.

"한번은 멀리 있는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었다오. 그리하여 토요일 오후 그 스테이크 부장댁을 우연히 들리게 되었었소.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그 스테이크 부장의 아름다운 부인이었는데 팔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읍니다. 그 부인은 정말 하녀나 가정부가 절대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지요. 뭐 모델도 아니고 사교계의 인물도 아니었소. 머리는 곱게 빗질이 되었고 복장의 선택도 훌륭했으려니와 입은 맵시도 훌륭했소.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었고 연령이 어렸지만 그 모습에서는 성숙한 어머니로의 자태와 삶에 대한 소망의 빛과 기쁨이 감돌고 있었소.

"그 집은 작았어요. 우리가 인도되어 들어간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듯한 방은 좁았고 방 가운데는 긴 테블과 걸상이 여럿 있었읍니다. 아이들을 이웃으로 보내고 우리에게 내어준 방에서 몸을 풀고 우리는 다시 거실로 나왔소. 그 부인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소. 스테이크 부장인 그의 남편이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농장 일을 돕거나 혹은 밖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었다오.

"저녁 상이 마치 요술처럼, 그렇게 시간을 맞추어 준비가 되지 않겠소.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했는데 정말 그 집의 작은 손들은 조용하고도 익숙하게 움직인 것이었소. 아이들은 모두 저마다의 임무를 잘 배운 것 같았소. 저마다 맡은 임무가 다른 것 같았다오. 한 아이가 재빠르게 테이블보를 폈지요. 그 다음엔 칼과 포크와 숟가락을 놓았소. 그 다음엔 또 다른 아이가 큰 음식 그릇을 날라왔소. 그리고 또 그 다음엔 우유병과 집에서 구운 맛있는 빵 접시가 정리되었고 치이즈와 과일 그릇도 식탁 위에 정열되었소.

"한 아이가 걸상을 돌려 놓고 무릎을 꿇자 모두들 정연하게 무릎을 꿇었소. 작은 남자 아이가 기도의 지명을 받았지요. 그 아이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가족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고 학교 공부를 잘 하게 해 달라고 하더니 선교사와 감독을 축복해 달라고 합디다. 그러더니 그 아이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특히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충분한 말씀'을 전해 달라고 기원했다오. 또 자기 형제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서로 서로 착하고 친절하게 대하게' 해 달라고도 기도합디다. 끝으로 그 아이는 이 추운 겨울에 태어나게 된 들판의 어린 양 새끼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도 했소.

"그 작은 아이의 음식 축복 기도가 끝나자 그릇 열 세 개가 차례로 음식으로 채워졌고 곧 저녁이 시작되었소. 뭐 음식이 신통치 못하다느니 하는 식의 변명이나 설명은 한 마디도 없었소. 또 가정이나 자녀가 생활 형편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평이 없었소. 대화는 모두 건설적이면서 유쾌하고도 즐거운 것이었고 아이들의 태도도 훌륭했소. 부모는 늘 조용하고 엄숙하게 아이들과 대하는 것이었소.

"오늘날에 와서는 모두들 가족 계획

이다 산아 제한이다 하여 법석들을 떨고 한 가정에 그저 극히 이기적이고 또 독선적인 아이 하나나 둘을 기르기가 일쑤고 반면에 온갖 사치스러운 것으로 집을 장식하고 많은 가정부와 하녀를 두되 가정은 이미 파괴되어 생활은 가정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현상이므로 건실하고 건전한 대가족과 함께 하며 저들의 소탈하고 부드러운 조화의 분위기에 접하게 되면 저절로 힘이 나는 것 같다오. 그리하여 우리는 그 가정의 소탈함에 심취되어 걸상이 모두 낡아 찌그러지고 카텐의 천이 허옇게 바랬으며 마루에 깐 융단은 온통 떨어졌어도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은 쓰지 않게 되고 집이 작은 것도 또 침실이 비좁은 것도 개의치 않게 됩니다.

"그렇소 리차즈 형제. 나는 그날 천국을 보았고 그후로도 여러 곳에서 천국을 보았다오." 그는 그림을 그릴 생각은 던져 버린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서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서 있더니 이야기를 더 계속해 달라는 듯한 얼굴로 나를 다시 쳐다보았읍니다. 나는 그 요청에 이끌려 또 다른 천국의 방문을 들려 주었읍니다.

"이번엔 인디안 보호 지역에서의 일이오. 거의 모든 나바호 인디안 부인이 다산적인데 유독 이 아름다운 레이맨인 부인에게는 결혼 수개년이 지났어도 태기가 없었소. 남편은 직장도 좋았소. 이들 젊은 부부가 교회 회원이 된 바로 후에 하루는 주말 쇼핑을 나갔었소. 이들이 가져온 시장 바구니 속에는 모두 건전한 음식 뿐이었소. 말하자면 그 속에 맥주나 커피나 담배 같은 것은 찾을 수가 없었소. —'포스툼을 좋아하나요?'라고 우리가 물었더니 저들은 이렇게 대답하여 우리 가슴을 울리는 것이었소. '예, 평생을 맥주와 담배와 커피로 살았죠. 그러나 물론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말씀을 알았고 포스툼의 설명도 들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포스툼이 아이들에게 좋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아이들도 좋아하게 되었읍니다.'

"'아니 아이들이라니요?' 우리 일행은 이구동성으로 물었읍니다. '우리는 형제가 자녀를 갖지 못했다고 아는데……' 이래서 결국 저들은 나바호족의 고아 열 여덟 명을 집에 데려다가 기르게 된 내력을 모두 들려 주게 되었소. 이들의 집은 컸지만 이들의 마음은 더욱 넓었소. 이타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유덕의 모체! 이 훌륭한 부부의 모범은 극히 이기적이고 허황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의 등불이 될 것이오."

나는 화가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천국은 통나무집일 수도 있고 천막일 수도 있오. 리차즈 형제, 천국은 곧 우리가 만드는 것이오." 나는 내 걸상으로 돌아가려 했읍니다만 그는 전혀 관심을 가지려 하지를 않았읍니다. 그는 그냥 그대로 서서 그저 듣고만 있었읍니다.

"이번에는 하와이 라이에에 있는 아름다운 신전 안에서 있던 일이오. 마침 선교사를 위한 모임을 갖고 있었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느끼는 모임이었소. 복음 전도의 임무를 맡은 이들 선교사는 간증할 차례를 기다리면서 조바심들을 하고 있었소. 마침내 키가 작은 일본 선교사의 차례가 되었소. 그는 교단 앞으로 나가 그대로 경건하게 무릎을 꿇더니 복음에 대한 감사의 간증을 마치 하늘의 영을 쏟아 내리듯 심혈을 기울여 전하는 것이었소.

"리차즈 형제, 그 작은 방에 천국이 드리워 있었소. 바로 그 곳, 태평양의 낙원인 그곳, 그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모인 자리에 말이오."

나는 말을 계속했읍니다. "천국은 나의 가정에도, 말하자면 리차즈 형제! 우리가 가정의 밤을 가질 때 그곳이 하늘이 되오. 여러 해를 두고 우리의 가정은 자녀로 가득했고 아이들은 저마다 번갈아 가며 열심히 노래도 하고 게임도 하며 신앙개조를 외우고 서로 서로 이야기도 나누며 신앙을 굳게 해주는 복음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곤 했다오.

"나는 구라파에서도 하늘을 발견했소.

"보겔 장로는 신앙이 대단한 독일의 개종자였소. 그는 선교사가 되기를 그토록 갈망했지만 부모는 끝까지 반대를 했오. 어느 사려깊은 미국 성도가 매달 그에게 선교 비용을 보내 주게 되었소. 그는 기쁨으로 선교 사업에 임했고 행복하게 일 년 반을 보냈소. 그러던 어느날 선교 자금을 보내 주던 분의 부인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선교 자금을 보내 주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소.

"보겔 장로는 이 슬픔을 혼자서만 간직하고 열심히 기도로 해결 방안을 찾으려 했소. 그와 그의 동반자인 미국 청년 스미스 장로가 우연히 병원 앞을 지나다가 재정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소. 그 다음날 그는 시간을 내어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더니 일찍 취침했소. 이유를 물었더니 좀 피곤하다고밖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소. 며칠 후 동반자인 스미스 장로는 동반자인 보겔 장로의 팔뚝에 반창고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것에 관해 물어도 대답이 별로 신통치를 못했소."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팔뚝에 붙여지는 반창고의 내력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나야 했고 그는 마침내 동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소! '알겠나 자네, 미국에 계신 나의 후원자가 돌아가셨단 말일세. 그러니 도움은 끝났지 뭔가.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완강하게 나의 선교 사업을 반대하고 계시고 해서 나는 하는 수 없이 병원의 혈액 은행을 찾아가 피를 팔아서 나의 선교 사업을 완수하려고 했던 걸세!'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값진 피를 팔아서 영혼을 구하려 했던 것이오! 자 그것이 바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께서 보여 주신 모범이 아니겠소?"

"화가 형제, 형제는 하늘을 믿소?" 내가 이렇게 물었읍니다. "그렇소, 하늘은 있소. 하늘이란 장소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분위기 내지는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소. 하늘은 바로 가정이며 가족이오. 또한 그것은 이해와 친절이며 상호간의 사랑이고 헌신적인 봉사이기도 하오. 하늘은 조용하고 생동하는 것이며 개인 개인의 희생이며 철저한 희생이기도 하오. 또한 하늘은 타인을 위한 끔찍한 정성이기도 하오. 하늘은 또한 위선이나 꾸밈이 없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온전하게 사는 길이오. 하늘은 나의 유익을 탐하지 않는 것이오. 우리는 이 하늘을 찾아 하늘의 기쁨을 풍족하게 누려야 할 것이오. 그렇소, 리차즈 형제, 나는 여러 모양의 하늘을 보았소."

나는 자리에 바로 앉아 포즈를 취했읍니다. 화가는 팔레트와 붓과 페인트를 집어들더니 한숨처럼 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읍니다. "그림은 완성되었읍니다."

그리하여 나의 초상화는 솔트레이크 신전 4층, 십이사도의 회의실 벽에 다른 위대한 형제들의 초상화와 함께 걸리게 되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에게

의롭게 살며, 가족을 사랑하되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가정을 질서로 다스리도록 가르칩니다. 복음은 인간의 보잘것없는 성품을 온전한 상태로 바꾸어 줍니다. 복음은 진정한 삶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기만 하면 우리는 신성에 가깝게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의 참된 복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깨어 준비하라"

해롤드 비 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전파를 통해서 이 대회의 말씀을 경청하고 계시는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말씀드릴 동안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얼마 전 서부 지방의 한 큰 신문사 기자가 교회 선교사의 활동에 대해 취재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읍니다. 나는 우리의 세계적인 선교 활동을 설명하면서 이제는 피지 군도,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새로운 지역과 머나먼 라틴 아메리카 지역과 인디안들에게도 선교 사업을 펴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읍니다. 그러자, 그녀는 세계적인 선교 활동의 규모에 대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여러분은 전세계를 개종시킬 작정입니까?"라고 물었읍니다.

저는 주님께서 초기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읍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부름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표적에 관해 말씀하셨읍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복음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읍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 16:15—16, 19—20)

저는 그 기자에게 이 경륜의 시대의 초기에 주님의 사도에게 주어진 다음의 계시의 말씀 즉 그들의 관리를 통하여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니, 먼저는 이방인에게요, 다음으로는 보라, 보라, 유대인에게 되돌아가리라.

"그날이 이르면 모든 사람은……성임되어 이 권능을 받은 자를 통하여 제각기 자기가 쓰는 언어와 문자로 충만한 복음을 듣게 되리라."(교성 90:9, 11)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읍니다.

우리는 교회 사업이 전세계로 크게 확장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은 초기 교회에 주신 계시에서 우리에게 이 날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명하셨으며,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읍니다.

"보라, 내가 너희 양 떼를 돌보아 주겠고 장로들을 일으켜 저들에게 보내리라.

"보라 나는 그 시간 안에 나의 일을 서둘리라."(교리와 성약 88:72—73)

지난 몇 달간, 우리는 극동의 여러 나라와 유럽을 다녀왔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성도와 비회원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읍니다. 우리가 이 나라들을 방문하는 동안 만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읍니다.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인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속한 교회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음을 알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경향의 진정한 이유는 어떤 컬럼니스트가 요약한 다음 사실에서 기인되는 것 같습니다. "기성 종교는 공격당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인 폰다와 티모디 래리식의 사고를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자멸하고 있다."(막스 래퍼티 박사, "교회는 종교적 경향 속에서 자신만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솔트레이크 트리뷴지, 에이—13페이지, 1971년 9월 19일)

그들은 거룩한 권능을 이루는 것에 대한 참된 정의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안전이나 구원을 외치고 있지만, 미래에 있을 안전이나 구원이 아니라, 현세적인 구원을 구하고 있으며, 이제 그들은 그러한 구원을 얻으려고 죽을 필요가 없다고 외치고 있읍니다. 그들의 교회는 교회가 영적인 필요성 뿐만 아니라 세상적이고 사회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갖고 통합적인 교회 활동과 교회의 형제애를 통하여 각 개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인 복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읍니다.

그들은 교회가 그들 지역의 사람이 모여 세워진 단위체일 뿐더러 인류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 해결에도 통합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교회를 찾고 있읍니다. 그들은 한 국가 내의 전 교회가 모든 대륙과 대양에 걸쳐 있는 모든 교회와 공통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과 협력하며, 그들이 건강과 교육, 가족 관계의 유대 강화, 건설적인 교회 활동 촉진과 증진에 견해를 갖고 있으며, 건설적인 교회 활동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는 국제적인 형제애를 주장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들은 청소년에게 그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찾고 있읍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반적인 활동이 모든 면에서 유혹하는 악에 휩쓸리는 여유를 허용치 않는 교회를 찾고 있읍니다.

요약한다면, 모든 곳에서는 사도 야고보가 정의한 바와 같은 기독교의 근본 이상을 굳게 지키는 교회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야고보서 1:27)

이러한 교회에서는 영감에 의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위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에서는 강자는 그들의 지도력, 자력, 재능이 자유롭게

행사되도록 기회가 주어지며, 약자는 최대의 노력을 하여 스스로 독립하도록 격려됩니다. 이러한 교회에서는 위급한 경우에 처하여 경전상에 "가난한 자에 맷돌질하느뇨"(사 3 : 15)라고 묘사된 것처럼 몰인정한 방법을 취하는 대신 형제애를 돈독히 하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는 지도자 훈련과 고대 예언자가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고 경고하신 바와 같이 "인간들을 달래어 육욕의 안식처를 좇게 하며," 성을 내도록 책동하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말하고, 그들의 귀에 속삭여 말하기를 지옥이 없다, 악마란 없다라고 하며 교활하고 잔학한 수단을 사용하는 악마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효과적인 가르침이 더욱 필요합니다. (니이 28 : 20—22 참조)

놀랍게도 큰 번영을 이룬 곳에서는 다른 세대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번영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 버립니다.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을 풍부하게 가졌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것 대부분을 잃고 있읍니다.

예언자는 인간이 안이해지고 크게 번영하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진다고 분명히 경고하였읍니다.

"주가 그의 백성들을 번영하게 하실 때에……백성들은 저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여 저희 주 하나님을 잊으며 거룩하신 이를 발아래 짓밟나니, 이는 오로지 저들이 안이한 때문이요, 크게 번영하는 때문이라."(힐라맨서 12 : 2)

또한 우리는 이 사실들을 간증드리면서 우리보다 앞서 간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바입니다.

"참으로 저들은 교만으로 부풀어 오르기를 속히 하며 뽐내기도 속히 하며 온갖 간악한 짓을 행함에는 속하나, 주 저희 하나님을 기억함이 어찌 더디며, 주의 권고에 귀기울이며 지혜의 길을 좇음이 어찌 그리 더딘고,"(힐라맨서 12 : 5)

우리들 세대에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서 산상의 설교를 마치시면서 이 시험의 날에 세워질 개인 혹은 교회(물론 개인의 집회를 의미함)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반석 위에 설 수 있읍니까? 주님께서는 참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이며 결코 변하지 않을 원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써, 기만의 바람이 불며, 부도덕과 사악의 홍수가 우리를 삼키려 하거나, 비판과 조소가 비처럼 쏟아내려도 진리를 굳게 지키는 자가 된다고 확인하셨읍니다.

계속적으로 유명 인사들이 우리들을 찾아와서 그들이 교회와 교회의 원대한 활동을 보고 배우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일찌기 로마 성도들에게 말한 다음의 말씀의 확증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바……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롬 1 : 16—18)

보내빌 나이프 앤드 포오크 클럽의 한 유명한 강사인 조지 로니씨는 우리 교회의 복지 활동을 관찰하고 싶다고 나에게 요청해 왔었읍니다. 그는 교회 복지 활동 몇 가지를 관찰한 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여러분의 복지 계획은 전세계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활동을 보니 언젠가 이 계획은 기독교인의 생활을 위한 종합 기본 계획이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저명 인사들이 자주 방문하여 우리 교회의 교육 기관 즉, 교회 밖에 세워진 교육 기관, 신학 연구원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교회는 각 가정에도 그 활동을 미쳐 기독교인의 생활에 필수적인 생명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평일에 어린이들을 위해 가정 초등협회를 실시하며, 평일에 청소년을 위한 가정 학습 과정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들 방문자는 예외없이 우리의 학교 캠퍼스가 질서 정연하게 유지되는 비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의문은 우리의 청소년이 속한 가정에서 행해지는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설명하면 쉬게 풀립니다. 우리의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의 학생 조직을 살펴보면, 그들 스스로 교회 조직에 속해 있으며 주님의 계획에 따라 책임있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읍니다.

이러한 관찰은 우리를 진지하게 하며, 모든 사람이 "열심히 구하며 항상 기도하며……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형통"(교성 90 : 24)하게 되어 전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계획을 성실하고 열심히 수행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영국 제도에 사는 교회 회원들의 역사적인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읍니다. 이 대회에는 영국 제도의 12,000명 이상의 회원이 모였읍니다.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왕국 즉,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이며 영국의 성도들이 그들 고국에 교회를 보다 확고히 건립하리라는 결의에 차 있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었읍니다. 이것은 그들이 3일간의 대회를 마치며 지역 지도자 중 한 명이 작곡한 "이곳은 나의 집"이라는 민요를 부를 때 극적으로 표현되었읍니다. 이 노래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말로써 끝맺었읍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일.

우리는 결코 게으르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일하리라.

그가 옆에 계시므로, 우리는 두렵지 않도다.

이 곳에서 우리는 살고, 봉사하리."

(어네스트 허웨트, 라이세스터 스테이크 부장)

우리는 영국 제도에서 이러한 성격의 제1차 연차 대회를 가졌읍니다. 그것은 그들이 초기 교회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국 제도에 사는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자가 매우 많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극동이나 유럽 지역, 남미나 다른 지역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우리는 영국 제도에서 본 바와 같이 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지역에서 교회가 크게 성장되기를 갈구하는 확실한 표적을 보았읍니다. 그들은 그들의 회원과 잘 훈련된 그들의 지도자들이 지역과 선교부와 신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되며 그들의 능력이 자라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왔던 올바른 원리를 따라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들 지도자가 교회를 훈련하는 데 있어 누군가가 그 방법을 제시해 주면, 그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가를 알면 놀랄 것입니다. 교회 회원은 이 사업의 영을 느낄 때 신전에 가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다가올 세계에서 하늘의 가장 높은 특권을 얻을 수 있는 신권의 약속된 축복을 받겠다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다녀온 어디서나 또 이 나

라에서도 사람들은 소위 특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개종자의 발견으로부터 부모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주는 가정의 밤 소개와, 주일학교와 지부 및 지역에 속한 작은 조직에 대한 소개와 이들이 궁극적으로 스테이크를 구성하여, 주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폭풍우가 내리치고 분노가 뒤섞임이 없이 그대로 온 땅 위에 쏟아져 내려올 때에 방어진이 되며 분노를 피하는 대피소가 되게 하라"(교성 115 : 6)는 것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는 이 세대의 초기에 젊은 예언자에게 전하여졌던 하늘의 말씀 즉 회복된 교회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상기해 볼 때,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끝 즉 사악한 자의 멸망을 알려 주는 표적에 관하여 물어 보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문 앞에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알려 주는 표적에 관하여 말씀하셨읍니다. 그는 그날이 가까이 오면 큰 환란과 전쟁,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표적 가운데 중대한 표적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큰 표적과 기이한 일을 행해서 주님이 지구에 다시 돌아오실 영광스러운 날을 고대하는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하셨읍니다. 나는 때때로 사실을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상 이 사실을 목격하고 있읍니다. 어떤 자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그들을 지도할 권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교활하고 으뜸가는 사기꾼이 우리들 가운데 있읍니다. 어떤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자들이 일어나 이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리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그가 약속하신 바대로 지상에 다시 오실 때를 미리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일러 주셨읍니다. 구세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리라고 하셨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거짓 그리스도를 뜻함)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 : 26—27, 요셉 스미스 1서 25—26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구세주가 나타나심에 관한 온갖 어리석은 견해를 물리치고 참으로 그의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읍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이적의 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준비하라고 권고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읍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마 24 : 42, 44, 46, 요셉 스미스 1서 46, 48, 50절)

며칠 전, 저희는 페루 선교부에서 봉사하다가 얼마 전에 해임된 젊은 선교부장 부부로부터 신앙을 증진시킨 경험을 적은 보고서를 받았읍니다. 페루에는 최근에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읍니다. 지진이 온 산을 뒤흔들어 두 개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약 7,000명의 사람이 땅에 묻혔읍니다. 이 두 도시에는 각 두 명씩 네 명의 선교사가 봉사하고 있었읍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사업을 하고 있었읍니다. 두 명의 장로는 교외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고, 다른 두 사람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은 딴 도시에서 준비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읍니다.

무수한 먼지로 인해 흑암에 싸인 끔찍한 사흘이 지난 후, 그들은 이 날들이 구세주가 못박히실 때에 흑암으로 뒤덮힌 사흘간과 같았다고 설명하였읍니다. 또한 그들은 구세주가 재림하실 때,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나 한 사람은 데려갈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요, 두 사람은 밭에서 일하고 있으나, 한 사람은 데려갈 것이고, 다른 사람은 버려둘 것이라는 말씀과 같았다고 설명하였읍니다. (마 24 : 40—41 참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영화를 관람하거나, 주막에 있거나, 술에 취해 곤드레가 되어 있는 등 각자의 생활에 급급하던 모든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였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날이 이를 때에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교성 87 : 8)고 권고하신 대로 행하며, 의무를 수행하던 하나님의 종들은 보호되고 살아남았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의 각처에 있는 교회 회원에게 여러분의 자리에 서서, 영국 성도가 노래한 바와 같이 말하도록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일.

우리는 결코 게으르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일하리라.

그가 옆에 계시므로, 우리는 두렵지 않도다.

이 곳에서 우리는 살고, 봉사하리."

모든 신실한 성도 여러분, 모든 정직한 친구 여러분, 이 대회가 끝난 후 곧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십시오.

가족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강화하며, 사랑으로써 결속하십시오.

신권을 소유한 파수꾼으로서 여러분은 "……교회를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라."(교성 20 : 53)는 성약을 준수하십시오.

지도자 여러분, 사악의 물결이 눈사태와도 같이 전세계를 뒤덮은 오늘날, 하늘에서 보내신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히, 원활하게 실시하십시오.

지도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여러분의 부담을 덜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권세와 권위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선교 사업에 관해 계속 간증하십시오.

또한 정직하며 참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열쇠를 지닌 권위있는 종에 의해 천명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신앙 개조 제3조) 엄숙하게 간증드립시다.

나는 이 시대에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환란에 처했던 다른 세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적의 함정으로부터 구원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린 아이라고 일컬으신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린 아이들아, 두려워 말라, 이는 너희가 나의 것임이요,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라.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가운데 속하여 있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서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니,

"그런고로 나는 너희 가운데 있어 선한 목자요, 이스라엘의 반석이니, 이 반석 위에 세우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보며 내가 존재하는 줄 아는 날이 오리라."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라."(교성 50:41—42, 44—46)

나는 온 영혼을 다하여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기에 합당한 자격을 지닐 때, 우리에게 이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간증합니다. 아멘.

신권의 책임

해롤드 비 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들은 지난 주 어느 오후와 그 다음 날 종일 십이사도 지역 대표들과 함께 "교회는 모든 회원을 필요로 하나니 모두 서로 순화되기 위함이다"(교성 84:110 참조)라는 주제 하에 모임을 가졌읍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이제 도표로 만든 통계 숫자를 놓고 토의하였읍니다. 도표는 지역 대표들께서 각각 돌아가서 현재 교회에서 비활동적인 회원들을 다시 접촉하도록 회원들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도표로 된 통계 숫자 하나를 예로 들어 보겠읍니다. 우리 교회에는 353,000명의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있는데 이 중 한 달에 성찬식과 신권회에 한 번 이상씩 참석하여 자극을 받는 사람은 187,0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환언하면 한 번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활동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21세 이상의 아론 신권 소유자는 184,000명이 있는데 대부분이 아버지인 이들 중에는 17,000명만이 활동적이며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으로서 신권을 받지 않은 사람은 48,000명이나 되며, 회원이 아닌 남편이 117,480명이나 됩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자녀가 있는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신권을 받지 않은 형제와 비회원인 남편까지 계산해 넣는다면 대부분이 아버지인 거의 700,000명이나 되는 성인 남자 중 약 500,000명이나 비회원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자, 형제님들, 이렇게 많은 형제들을 어떤 종류의 활동이더라도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확고한 다짐을 하여야 하겠읍니다. 몇 년 전 구라파에 선교부장으로 있던 형제가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큰 방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이 방은 가운데 기둥이 무너져 지붕이 내려앉은 방이었읍니다. 선교부장이 선교사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였읍니다. "일어나서 기둥을 들어 올리시요."

"저, 나는 힘들어 못하겠읍니다"하고 그 선교사는 대답했읍니다.

"왜 못하겠소?"

"천장이 온통 이 기둥 위로 내려앉았는데 어떻게 혼자 들 수 있겠읍니까?"

이때 선교부장이 다시 이야기하였읍니다. "그러면 지붕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들어올려 준다면 기둥을 세울 수 있겠소?" "물론이죠, 그렇게 해 주신다면 혼자서 할 수 있읍니다"하고 선교사가 대답했읍니다.

이에 선교부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읍니다. "형제님들, 여러분과 나는 마치 이 기둥과 같은 것이겠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한 지옥은 결코 우리를 엄습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내려 누른 무게가 제거되기만 하면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를 파괴하고자 하는 세력의 목표가 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권 소유자와 가정을 지닌 아버지에게 책임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비활동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가족 단위로 활동적이 되도록 하려면, 이 교회에 속한 사람만도 수십만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도움이라도 주지 않는다면 신전에서도 인봉되지 못하고 말 것이며 따라서 내세에서도 가족으로서 함께 살지 못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활동이라는 것은 영적인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독께서는 가정 복음 교사와 정원회 지도자에게 명하여 자기 구역에 있는 회원 중 비활동적인 회원의 이름과 함께 이들에게 접근하며 활동에 참여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제안을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독께서는 이와 같이 비활동적인 회원의 명단 및 접근 방법을 스테이크 부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계 숫자에만 치중하기보다 개인에게 더욱 중점을 두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인 노력과 평가를 해왔으며 회원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의 기회를 얼마나 잘 제공할 수 있었느냐는 점에서 우리의 사랑과 창의력을 시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제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와 같이 대회를 통해 이야기하도록 함으로써 이 중요한 과제에 여러분의 주의를 끌도록 하였읍니다. 이들은 모두 문제의 여러 면을 언급하였읍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읍니다. 이들 중 내게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었읍니다. "주님의 일을 도울 때 개종을 시키기 위한 선교 사업에만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선교부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될 것이겠지만 의사와 간호부와 농민 및 기타 여러 사람에게 선교 지역으로 나가는 선교사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비용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생활의 표준을 순화시키도록 돕는 활동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자신이 봉사할 수 있는 분야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원하는 사람, 활동적이어야 할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런 사람을 접촉하여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자극과 힘을 주는 계획인 것입니다. 지도자 여러분, 독창력을 발휘하며, 모든 사람에게 교회는 모든 회원의 봉사를 각별히 필요로 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각자에게 책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오늘 저녁에도 아마 에스 베니온 형제[1]께서 유타 주립 형무소에 갔을 때 경험하였던 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는 우리가 형무소에 갔을 때 일행중 아마도 가장 대담했던 것 같았읍니다. 그는 그곳 복역수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읍니다. "여보게들, 내가 좀 묻고 싶은 것이 있네. 자네들 생애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잘못을 범하여 이같이 유타 주립 형무소에 수감되게 되었는가?" 오랜 동안의 침묵 끝에 그가 이같이 묻자 수감자 중 한 사람이 대답했읍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형무소에 들어오게 된 잘못을 범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과 나는 오늘밤 이곳에 다소 안전히 앉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느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 도와 주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어느 누구라도 아무도 자신을 염려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께 바라는 바는 여러분이 그러한 회원을 만나서 할 수만 있다면 즉시 그들과 접촉하며 어떠한 형태로라도 활동을 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몇 해 전, 나는 프로보에서 부부들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자매 한 분이 자기 남편이 교회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즐거움에 관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 자매는 남편과 신권 의식을 행한 것을 이야기하였읍니다. 그 자매는 남편이 얼마나 비활동적이었으며,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신권도 승진할 수 없었다는 점과 후에 회원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남편을 인도하여 결국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 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게 되었으며 감독이 그가 신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해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읍니다. 그 감격어린 저녁에 그 자매는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여기 다섯 딸들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인봉되기 위해 들어왔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영원한 가족이라고 말했읍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와 간증을 말하면서 그 자매는 자기 앞에 남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 둘 외에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읍니다. "아빠, 나는 딸들과 내가 얼마나 기쁘다는 것과 당신이 우리에게 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말할 길이 없어요. 아빠, 당신이 신권을 소유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빠가 열쇠를 가지고 영원한 가족으로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교회의 모든 비활동적인 아버지가 이 자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랬읍니다.

신권 소유자 여러분, 제발 어두움이 오기 전에 아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낮 동안 이러한 아버지들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이제 그같이 할 수 있도록 되며, 오늘밤 테너 형제와 여러 형제들이 이야기한 바의 사명과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구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신권을 활용할 때 우리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납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수행하며, 그 사명을 인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아멘.

손과 마음으로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어제 유서깊은 이 태버나클에 모인 모든 사람은 오른손을 들어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을 지지하였읍니다. 들려진 손은 내부의 느낌을 외부로 표명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주 손과 마음에 관해 말씀하셨읍니다. 1832년 3월, 오하이오주, 하이람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충실하라. 내가 네게 임명한 직분을 감당하라. 연약한 자를 북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

"만일 네가 끝까지 충실하면 불사 불멸의 관을 쓰게 될 것이요, 내 아버지의 집안에 있는 내가 준비한 처소에서 영생을 얻으리라."(교성 81 : 5—6)고 권고하셨읍니다.

제가 그의 말씀을 숙고해 볼 때, 저는 평화로운 가버나움에 이 말씀이 울려퍼질 때 샌달을 끄는 소리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놀라면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는 듯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무리가 모여 있으며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 주고 계셨읍니다. 중풍에 걸린 자가 일어나 걸으며, 로마인 백부장의 믿음은 그의 종의 병을 낫게 하였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가르치셨읍니다. 그는 거룩한 사명에 충실하셨읍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들리워질 수 있도록 그의 손을 뻗치셨읍니다.

갈릴리에서 한 문둥병자가 그에게 나아와 간구하였읍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께끗하여진지라."(마 8 : 2—3) 예수님의 손은 문둥병자의 몸에 닿았다고 해서 더러워지지 않았고 문둥병자의 몸

1. 베니온, 아담 사뮤엘(1886—1958)은 1953년 4월 9일 사도로 임명되었음

은 거룩한 손에 닿음으로써 깨끗해졌읍니다.

또 베드로의 집에서 또 하나의 모범을 보이셨읍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읍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막 1 : 31)라고 기록하고 있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읍니다. 모든 부모는 주님을 찾던 야이로가 그를 발견해내고, 그의 발 아래 엎드려"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살게 하소서"(막 5 : 23)라고 간구한 그의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모는 통곡하였읍니다. 다른 이도 슬퍼하였읍니다. 예수께서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읍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눅 8 : 49, 50, 52, 54—55)

주님은 또 다른 이의 손을 잡기 위해 다시 한번 손을 뻗으셨읍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의 모범을 잘 기록하였읍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읍니다.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하여 오셨읍니다. 그의 삶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읍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들의 길과 운명을 즉시로 밝혀줄 별을 보기 원한다면, 그들은 기상의 변화보다도 각자의 마음 속 깊이 잠재한 주님께서 베푸신 모범을 따르면 되었읍니다.

잠시 베드로가 미문이라는 성전 문(행 3 : 2)에서 경험한 바를 회상해 봅시다. 나면서 앉은뱅이된 자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메워져 왔읍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까이 옴을 보고 그날 그를 지나쳐간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구걸하였읍니다. 베드로는 위엄있게"우리를 보라"(행 3 : 4)고 명하였읍니다. 기록에는 앉은뱅이가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을까하여 그들을 바라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베드로가 그때에 한 감동적인 말씀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직하고 신앙이 깊은 자들의 마음을 고무시켜 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종종 이 대목에 와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빠뜨립니다. "오른손을 잡아일으키니……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행 3 : 6—8)

도움의 손이 뻗쳐졌읍니다. 병든 몸은 치유되었읍니다. 귀중한 영혼은 하나님께로 들려졌읍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은 바뀌며 환경은 변화되어도 그러나, 연약한 자를 북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는 거룩한 명령은 불변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들어올리는 자가 되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라는 나무에는 가지가 무수히 많고 각 가지마다 봉오리가 나와 꽃이 핍니다. 우리는 서로 이웃에 살고 있지만,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어 살고 있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자가 손을 뻗치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렘 8 : 22)라고 하며 우는 자가 있읍니다. 우리 모두는 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에드윈 마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우리는 숙명적으로 형제이다.
아무도 자신만의 길을 걷지 않고,
모든 것을 타인의 삶을 위해 바친다.
그들을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신조"

디킨즈 소설 중 불멸의 주인공 에버네저 스크루우지는 생애 대부분을 이웃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겨울 밤에 제이콥 말레이의 유령이 스크루우지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작은 일이건 무슨 일이든지 친절하게 봉사하는 기독교인들이 이승의 삶이 착한 일을 하기만도 너무나 짧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을 왜 몰랐을까. 기회를 놓치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나는 그 모양이었어. 오, 후회가 된다!

"나는 왜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였으면서도 눈을 내리깔고 그들을 피했을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동방박사를 초라한 마굿간으로 찾아가도록 인도한 저 축복받은 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했단 말인가. 가난한 가정으로부터 나와 나를 밝혀 줄 빛은 없단 말인가!"

스크루우지는 말레이를 위로하려고 애쓰면서 "그러나 제이콥, 자네는 항상 뛰어난 사업가였잖아."라고 말했읍니다.

말레이는, "일! ……인간에 관한 일 그것이 바로 내 일이었어!"(크리스마스 캐롤)

그리고 스크루우지의 생애에 일어난 변화는 바로 기적이었읍니다. 그는 그 밤을 지새운 뒤 가장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가장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인간이 되었읍니다. 그가 혼자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야."라고 중얼거린 말은 변화된 그의 상태를 말해 주었읍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좇아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린 이야기입니다.

"형제를……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요일 3 : 14)

어떤 사람은 죄인이나 불행한 자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그는 스스로 불행을 초래했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오, 그는 결코 변화하지 않을 거야. 그는 여태껏 항상 악인이었어."라고 외칩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외양을 꿰뚫고 인간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작용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학대받은 자, 낙망한 자, 곤경에 빠진 자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엡 2 : 19)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성품을 변화시켜 줍니다.

이러한 진리는 마이 페어 레이디(귀여운 나의 아가씨)라는 극 중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읍니다. 꽃파는 소녀 엘리자 돌리틀은 그녀를 보살펴 주고 후에는 낮은 위치에서 그녀를 이끌어 높여 줄 사람에게 "정말 당신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옷을 입거나, 대화하는 적당한 기술 등등)을 모르고 계시군요. 숙녀와 꽃파는 소녀의 차이점은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있지않고, 그녀가 어떻게 취급받느냐에 있어요. 저는 히긴스 교수에게는 항상

꽃파는 소녀일 거예요. 그는 저를 꽃 파는 소녀로서 대우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테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당신에게는 숙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은 저를 항상 숙녀로서 대우하고, 앞으로도 항상 그러실테니까요."(버어나드 쇼우 희곡 전집 중 피그말리온, 260페이지에서 인용)

엘리자 돌리틀은 다음의 심오한 진리를 말했을 따름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그들의 지금의 상태로만 대한다면 그들은 항상 그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마치 그들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대한다면, 그들은 바라는 대로 변화하게 됩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인용에서 발췌)

사실상 이 원리를 가장 훌륭하게 가르치신 분은 구속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변화시키셨읍니다. 그는 인간의 습성과 견해와 욕망을 바뀌게 하셨읍니다. 그는 인간의 개성, 일반적 성질과 성품을 변화시키셨읍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읍니다. 그는 인간의 위치를 향상시키셨읍니다! 그는 인간을 사랑하셨읍니다! 그는 인간을 용서하셨읍니다! 그는 인간을 구속하셨읍니다! 그를 따르십시오.

간수인 케넌 제이 스쿠더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말했읍니다. 그의 친구는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데 우연히 매우 풀이 죽어 있는 한 청년 옆에 앉게 되었읍니다. 마침내 그는 청년이 멀리 떨어진 감옥으로부터 수감되었다가 석방되어 돌아오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었읍니다. 그의 수감은 가족에게 수치를 안겨다 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한번도 면회오거나, 그에게 편지를 보내지도 않았읍니다. 어쨌든 청년은 가족이 너무 가난해서 여행을 할 수 없었거나, 무식해서 편지를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그를 용서해 주었을 것을 바랬읍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좀더 빨리 알고 싶어서, 가족들에게 기차가 교외에 있는 그들의 작은 농장 옆을 지날 때 그가 볼 수 있는 표시를 해 달라고 편지를 썼읍니다. 그의 가족이 그를 용서했다면, 그들은 철길 옆에 서 있는 사과 나무에 하얀 리본을 달아 놓아 달라고 했읍니다. 만약 그들이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계속 기차를 타고 서부로 갈 예정이었읍니다.

기차가 그의 고향에 가까이 감에 따라 그의 염려는 점점 커져 그는 창 밖을 내다 보지도 못했읍니다. 그는 "5분만 지나면, 운전수가 제 고향 계곡의 길게 구부러져 있는 곳에 가까이 간다고 기적을 울릴 것입니다. 철로 연변에 있는 사과 나무를 보아 주시겠읍니까?"

같이 가던 친구는 그와 자리를 바꾸고 그러마하고 대답했읍니다. 일 분이 한 시간 같았읍니다. 마침내 기적 소리가 날카롭게 삑하고 울렸읍니다. 청년은, "나무가 보입니까? 리본이 매여 있읍니까?"라고 물었읍니다.

스쿠더의 친구는, "나무가 보이네, 하얀 리본 한 개가 아니라 수많은 리본이 보이네. 가지마다 하얀 리본이 달려 있는 것 같네. 여보게, 자네를 무척 사랑하고 있는가 보네."

그 순간 그는 그리스도에 의해 정결케 되었읍니다.

그의 친구는, "기적을 보는 느낌이었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물론 그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성탄절 노래,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의 3절에 적절히 묘사되어 있는 것과 같은 기적을 간증하였읍니다.

"양떼를 치던 목자들
그 양은 지킬 때
주님의 사자 나타나
큰 소식 전하니
"이날에 나신 아기
만민의 구주라
그 아기 방금 다윗성
구유에 누웠네

—찬송가 124장—

우리도 또한 구세주께서 하신 것처럼 손과 마음으로 이웃을 일으키고 사랑하여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는 이와 동일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읍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북돋아 주고, 처진 팔을 높이 들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케 함으로써, 구속주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상속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1971년 10월 1일 금요일 오전 모임 말씀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지난 한 달 동안 영국, 남미, 남아프리카, 북미 등지를 순방하며 그곳의 선교사와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는 언제나 공통된 질문을 받았읍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특히 우리의 선교사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자기네만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고 하니 분개할 만한 일이지." 물론 그들은 우리 교회에서의 배타적인 권능의 위임에 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는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읍니다. "잠깐만 우리 생각을 해 봅시다. 분명히 당신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종교계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진실하고 옳다는 것을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는 무신론을 낳게 합니다. 무신론자에 관해서 생각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치는 글을 쓴 캐롤린 피어슨 자매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썼읍니다.

"하나님은 넓은 도량을 지니셔서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바꾸는 유혹에
의롭게 대항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생각은 성도들이 모두가 옳고 그들은 모두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선교사에게 주는 전형적인 대답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

* "무신론자에게"(트리로기 아트, 1970), 34페이지

다. “난 이미 교회에 속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도 이 교회 만큼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느 교회에 이미 속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결국 똑같은 곳에서 살다가 세상을 마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다른 면에 잠시라도 그러한 것을 적용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을 때는 그러한 입장을 취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교육에 있어서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학교가 모두 똑같고, 어느 학교를 다니더라도 어떠한 과정을 공부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똑같은 졸업 증서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웃지 않는 사람이 있겠읍니까?

여러분은 아무 학교에나 학생들을 보내서 어떠한 과정을 공부한 후에 그들이 원하는 농학, 법률학, 의학의 학위를 수여한다면 이에 동의하시겠읍니까? 그러한 태도는 합당한 과정을 밟지 않고도 누구나 훌륭한 의사가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진지하고 실질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나 나나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에게서 수술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그러한 입장을 주장하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읍니까?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어느 학교, 어느 과에 구애받지 말고 학교에 가라. 혹은 학교엔 가지도 말라. 우린 모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졸업장을 받고 세상을 떠나지 않는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고 진실함이 없는 말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입장은 지상에 존재하는 유일하고 참된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피한다면 오히려 더 편안하고 재미있는 생활을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라는 성스러운 의무와 성약을 맺고 있읍니다. 그것은 단지 허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선언입니다. 그것은 아주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무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는 주님께서 초기의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신 것으로도 알 수 있읍니다.

“……이 교회의 기초를 닦아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를 희미하고 어두운 데서 이끌어 내어 온 땅 위에 세울 권능을 갖게 하려 함이니, 나 주는 이 교회를 매우 기쁘게 여기느니라. 기뻐한다 함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말함이 아니요, 교회 회원 전체를 가리켜 말함이니,”(교성 1 : 30)

이러한 말씀은 다른 교회에는 전혀 진리가 없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도 약간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종교는 많은 진리를 갖고 있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합니다. 흔히 목사나 성직자들에게서 헌신적인 면을 볼 수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도덕관을 실천해 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읍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요셉 스미스 2서 19절)

복음은 흔히 피아노의 건반으로 비유되는데 훌륭한 피아니스트는 이 건반을 하나하나 선택하여 누름으로써 무제한의 다양한 음악을 들려 주게 됩니다. 사랑을 나타내 주는 민요풍의 노래, 행진을 하는 씩씩한 행진곡, 위로를 주는 멜로디, 영감을 불러 일으켜 주는 찬송가 등 무한한 다양성으로 모든 사람의 기분과 필요성을 충족시켜 줍니다.

단순한 한 개의 건반을 누름으로써 끝까지 단조로운 음만을 들려 주는 것은 얼마나 지루하며 무미건조하겠읍니까?

전체의 건반인 충만한 복음이 지상에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는 건반 하나만을 두드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그들이 강조하는 음표는 종교적인 경험의 완전한 조화에 필수적인 요소는 될 수 있으나 그 전부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신앙의 병고침보다 더 큰 힘을 가져다 주는 많은 원칙을 무시하고 신앙의 병고침에 해당하는 건반 하나를 쳤다고 합시다. 또 다른 안식일 준수에 관한 애매한 건반 즉 전혀 다른 음을 내는 건반을 쳤다고 합시다. 그렇게 사용된 건반의 음은 완전히 조화가 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침례의 방식에 관계되는 건반을 치고 완전한 건반이 없다고 보아 또 다른 두세 개의 건반을 눌렀다고 합시다. 다시 그가 꼭 눌러야 할 건반의 소리는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혼자 눌려졌을 때 완전히 조화된 음을 내지 못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 복음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이것은 끊임없이 강조되며 교회들이 그 위에서 세워지는데, 이 복음 하나만으로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혼합되어 마땅히 내어야 할 음을 내지 못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신앙의 병고침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읍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 의존하고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그 자체가 아니며 충만한 복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가 절대로 필수적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은 적은 없었는데 이는 이것을 통해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며 하나님 왕국의 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건반이 혼자 쳐질 때 즉 권능의 건반이 따르지 않는다면 충만한 조화는 깨지고 말며 그것은 귀에 거슬리는 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과 회개의 건반이 없이는 의미가 없으며, 그것이 잘못된 것일 경우는 더욱 나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권능이 없을 때 생깁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었읍니다.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읍니다. 신권의 권능과 권위가 이 교회에 부여되었읍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이 대신권은 복음을 전하고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로써 의식을 집행할 때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그 의식과 신권의 권위 없이는 경건의 능력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니라”(교성 84 : 19～21)

사악한 힘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 말일의 시대에 경전에서 말해진 대배도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배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 기독교 교회는 그의 목사나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온 건설에 앞장서야 할 교회가 텅

비어 있고 성직자들이 사리를 생각함을 봅니다.

이번의 여행에서 나는 교회의 문이 잠겨져 있고 교회 마당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고, 문은 열려 있으나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읍니다. 우리는 경전과 전혀 접촉을 하지 않고 자라나는 사람들의 놀라운 사고방식도 당해 보았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찾기란 어렵지 않으나 이들은 충만한 복음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읍니다.

그들은 하나의 건반, 하나의 교리에 매력이 끌리며, 즉시 반대하고 뛰어 나올 수 있는 것에 관심을 쏟읍니다.

그들은 그 자체 하나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실상 그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도 하지 않고 반대와 거부심을 가지고 그 전부를 알려고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건반이 눌려지기를 바랍니다. 훈훈함과 조화를 안겨 주는 교리나 기타 사상, 적절한 순간에 적당한 건반을 눌러 들을 수 있는 조화된 소리의 완전함 등을 보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지식을 얻을 수 없읍니다.

구도자에게만 이러한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할 일부 회원이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방해해 가면서 취미로 한두 개의 건반을 시끄럽게 누르고 있읍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민감도를 둔화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충만한 복음의 길을 잃고 있으며 많은 다른 교회의 사람과 같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좋아하는 음표 때문에 충만한 음을 거부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확대되고 왜곡되면 결국 배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도록 권고했읍니다. 그보다도, 나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사색한다는 것은 지혜를 얻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영을 통해 보다 완전히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읍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 2 : 10)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전 2 : 13—14)

어떠한 사람이라도 "참다운 교회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바로 14세의 소년이 숲으로 들어가 위대한 사업을 착수하게 된 방법입니다. 어느 교회가 참다운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합니까?라고 그는 물었읍니다. 그 때 그는 하나님과 아들의 놀라운 시현을 경험하였고 이로써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행할 권능이 회복되었고 아직 이 교회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임에서 주님의 예언자이신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나는 예수는 구세주라는 것과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지상에 있는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1971년 10월 2일 토요일 오전 모임 말씀

구원의 원리 : 정직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개조에서 "우리는 정직을 믿는다." (신앙개조 13조)는 말씀을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정책상의 문제로서 정직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뜻이 내포되어 있읍니다. 정직이란 하나님 왕국에서 필요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구원이란 있을 수 없읍니다. 침례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정직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부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정직하지 않고는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도덕을 꾸짖으신 것처럼 부정직의 대표적인 형태인 위선을 나무라셨읍니다. 그는 다음에 올 지옥의 세상에는 부정직한 사람이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주님의 면전에 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거짓말장이나 속이는 자나 위선자는 그의 왕국에서 거할 수 없읍니다.

부정직이란 이기심과 직접 관계가 있읍니다. 이기심이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무질서의 요인이며 인간이 서로 보이는 비행이란 수많은 사람을 슬프게 해 줍니다.

만일 모든 인류가 정직하였다면 우리는 지상에서 천국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할 군대가 필요없었을 것이며 경찰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이는 인간 사이에는 범죄가 없고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고 폭력 행위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할 필요도 없고, 여성을 편력하는 남편이나 불성실한 아내가 있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부자간의 갈등이 사라질 것이며 청소년 범죄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에서 거짓말이나 속임수보다 더 널리 퍼진 악습이 어디 있겠읍니까? 어린 청소년을 마약에 빠지게 유혹하는 것은 마약 상용자들의 거짓말이며 소녀를 유혹하여 순결을 짓밟는 것은 유혹자의 거짓말입니다.

속임수 거래로 손해를 입히는 것은 염치없는 상인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부자간에 세대 차이를 조장하는 것은 자녀나 혹은 부모의 거짓말 때문입니

다.

위선자를 만드는 것은 거짓을 되풀이하는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불화를 조성하는 것은 그들이 한 거짓말 때문이며 수표를 위조하는 것은 횡령자의 거짓된 생각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이웃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온 거짓말 때문입니다.

이웃 친구를 이용하거나 조롱하거나 고의로 해치는 사람은 부정직한 사람입니다.

시험 결혼의 형태로 혼전 성관계를 가르쳐서 소녀들로 하여금 순결을 잃게 하는 것은 이를 가르치는 자의 거짓된 의도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진난만하거나 무디므로 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찌니라"(출 20 : 14)고 하신 말씀을 잘 알면서 혼전 성관계가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선 그 사람은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겠읍니까?

아내를 심하게 꾸짖고 자녀를 무시하며 가정에서 야수와 같은 사람이 주일학교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거나 합창대에서 노래를 하거나 주님의 성찬의 상징물을 든다는 것은 위선을 가린 거짓된 행위입니다.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소년과 어울려 죄의 생활 속을 헤매이면서 부모를 속이는 것은 그녀의 거짓 때문입니다.

우리 말일성도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그를 믿기 때문에 악마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그 자체가 거짓말장이이며 거짓말하고 속이고 오해하려는 사람들은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경전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 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잠언 6 : 16—19)

다음에서 다시 볼 성구는 거짓과 속임수가 뒤따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켜 주리라고 말한 육욕의 가중한 죄를 나타내 줍니다. 주님께서는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 인간이 고통을 당할 지옥의 세계를 설명해 주셨읍니다.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마술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음탕한 자요, 거짓을 사랑하며 조작해 내는 자니라.

"이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들은 영원한 불로 복수당하는 자니라."

"이들은 지옥에 던지움을 받아 때가 충만하게 될 때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굴복시키사 자기의 사업을 완성하실 그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고통을 겪을 자니라."(교성 76 : 103—106)

대부분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마음 속에서부터 진실한 기독교인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읍니까? 우리는 성실하게 그의 계명을 지켰는가를 스스로 물어 봄으로써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의 이름을 받들기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읍니까?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읍니다. "만일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거하려면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겠읍니까?"

기독교인은 거짓된 마음이나 행동으로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선 속에는 의로움이란 있을 수 없읍니다. 거짓말에는 선함이란 있을 수 없읍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깨끗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부정직한 습관에 빠지는 것은 기독교인의 생활 방식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들 가운데 누가 과연 이렇게 하고 있겠읍니까? 반 그리스도적이 된다는 것은 그와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며 그에게 불복하는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에서 멀리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멸을 초래하는 행위가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종교를 신화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적인 개념을 향상시키고 강화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증거는 그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온갖 반대나 그 이론보다 너무나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시인은 "어리석은 자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한다."고 말했읍니다.

오늘날과 같은 위대한 달성의 시대에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탐험이나 과학의 업적이나 인간이 달에 가는 일 등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우연에는 정확성이 따르지 않고 자연 발생적인 현상에는 확실성이 없읍니다. 그러나 우주에는 정확성이나 확실성이 모두 있으니, 이는 위대한 과학자가 말했듯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고대의 시편 작자인 다윗의 말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시 24 참조)라는 진리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복음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생활로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고 자기의 무분별한 행위의 희생물이 될 필요가 없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완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왕국의 율법에 순종해야 하며 이것은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사실인 것입니다. 마음을 반만 쏟는다는 것은 주님께 염치 없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명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여 명령을 받아 마지 못해 이를 준행하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읍니까? (교성 58 : 29 참조)

우리가 진실로 기독교인이 되려 한다면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

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태복음 5 : 23—24)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 : 12)

"네 이웃을 네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 : 39)

여러분께서는 구세주께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계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마 6 : 5) 그는 또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 : 24)

또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읍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 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시 101 : 7)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명하셨으며 또한 같은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계속하셨읍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또한】그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읍니다. (출 20 : 16—17 참조)

현대의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읍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고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어 쫓기리라."(교성 42 : 21)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서 기독교인의 자세를 역설하셨읍니다. "네 이웃을 욕하거나 해치지 말라."(교성 42 : 27)

모든 부정직한 형태로 인간을 이끄는 탐욕을 피하도록 높은 차원의 길을 택하라고 그는 강조하셨읍니다. 이웃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대신에 참으로 선량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 주는 것을 배워야 하며, 불행한 이웃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고 진실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가난한 자를 기억할지니, ……네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하여……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너희 재물을 나누어 줌은 내게 행하는 것이 되나니……"(교성 42 : 30—31)

구세주는 죄의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그 무거운 짐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짊어지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읍니다. 그는 죄를 짓고 사는 생활이 비참한 생활임을 아셨고 악이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는 우리가 가벼운 짐을 지게 하셨고 기쁨과 위안과 만족을 느끼게 했읍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 : 28—30)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진실로 회개를 하고 그의 사랑과 용서와 순종의 멍에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고대의 제자인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한 1서 1 : 7—9)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요한 1서 2 : 10—11)

우리는 또한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과 같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행함과 신앙을 결합하여 참다운 기독교인이 되고, 우리의 행함이 진리의 행함이 되게 노력해야 합니다. (약 2 : 17—18 참조)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구세주는 진리의 화신입니다. 그는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 : 6)고 설명했읍니다.

진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을 얻을 길이 없으며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나의 간증입니다. 아멘.

1971년 10월 2일 토요일 오후 모임 말씀

복천년의 기초를 놓음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나는 오늘 저녁 다시 성실한 말일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대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세주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 : 4)고 하셨읍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속된 이번 대회의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참으로 배불리 영생의 떡을 먹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 준 놀라운 권고와 영감을 받았읍니다.

빵은 육신을 배불리 해 주나 영을 풍족하게 해 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오늘 훌륭한 노래를 들려 주신 릭스 대학에서 온 합창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몇 주 전에 그 대학에서 있었던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으며, 우리의 젊은이를 위해 교회의 교육 제도나 그 기구나 교육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오늘 나는 우리가 신앙을 갖는 데 필요한 기초와 우리가 사는 목적과 그 이유 등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신전이 건립되던 100년 전의 일을 생각하고 있읍니

다. 기초가 놓였을 때 그 넓이는 16피트가 되었다고 하며, 한때 브리감 영대관장님도 오셔서 석공이 일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는 거대한 화강암을 기초로 놓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천년 동안 굳건히 서 있을 신전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것은 훌륭한 생각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복천년 동안 굳건히 설 수 있게 자신의 삶의 기초를 놓고 타인이 이렇게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늘 아침 모임에서 구세주의 재림에 관해 예언자나 구세주 자신이 하신 약속을 설명하신 롬니 형제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죽은 자가 일어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에게 헤아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진 확실한 길을 따르려 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는 밧모섬에 유배당하였고 그곳에서 천국 전쟁에서부터 사탄이 추방된 때와 최후의 장면까지 하늘의 천사를 통해 보았읍니다. 그는 크고 작은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죽는 자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들은 단지 믿음만이 아니요 입으로 한 말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읍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읍니다. (계 20 : 12—14 참조)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예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요한계시록 20 : 4—6)

천년 동안 굳건히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스스로를 준비하였다고 만족스럽게 나설 만큼 성령의 감화를 받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읍니까? 신전이 일천 년 동안 서 있는 16피트의 기초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데는 헤아릴 수 없는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 7 : 14)고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으로 이끄는 좁고 협착한 길 위에 서 있나 살펴야 합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태복음 7:24—27)

우리가 삶의 집을 지을 기초는 일천년간 굳건히 서 있을 거룩한 신전을 짓는 데 놓을 기초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행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몇 년 전 내가 남부에서 선교부장을 하고 있을때 조오지아주 퀴트맨이라는 곳에서 결혼 성약과 가족 단위의 영원성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읍니다. 나는 루론 에스 호후웰스 형제가 쓴 "사람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믿는가?"(데저렛 출판사, 1932년)라는 책을 읽었읍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세계에 퍼져 있는 주요한 교회와 결혼 성약의 영원성을 포함한 주요한 교리에 대한 그들의 설명이나 입장을 도표로 제시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믿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읍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으며 아직도 이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을까를 이해할 수가 없었읍니다. 이 얼마나 천박한 생각이겠읍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상에 아담을 세우시고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창 2 : 18)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배필을 주셨고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창 2 : 24)고 말씀하셨읍니다.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합치신 것을 여러분께서는 나눌 수가 없읍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말씀을 되풀이하셨읍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마태복음 19 : 5—6)

그날 모임이 끝나고 나는 문 앞에 서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 한 분이 찾아와서 자기는 침례교 목사라고 소개를 했읍니다. 나는 "오늘 밤 제가 잘못 말한 점이라도 있읍니까?" 하고 물었읍니다. "아닙니다. 리차즈 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교회가 가르치는 바를 모두 믿고 있지는 않읍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읍니다. "당신도 믿고 있지 않군요." 하며 나는 다시 물었읍니다. "왜 당신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우리 몰몬교 장로가 아니라 당신으로부터 그런 진리를 듣고 싶어할 텐데요"라고 나는 물었읍니다. 그는 "나중에 다시 찾아뵙겠읍니다"라는 말을 남기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읍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4개월 만에 나는 지부 대회를 갖기 위해서 다시 그곳에 내려 갔는데 나는 선교부장이었으므로 내가 온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내가 그 교회로 걸어 들어가는데 그전에 만났던 침례교 목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악수를 하고 "지난번의 제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군요"라고 물었읍니다. 그는 "리차즈 씨, 저는 그후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았읍니다. 저는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믿게 되었읍니다. 이제 저는 나머지를 마저 다 듣고 싶읍니다"라고 그는 말했읍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원리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읍니까?

결혼은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알기에는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결혼 성약의 영원성을 믿는 교회가 없읍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왔을 때 아내와 자녀로부터 떨어지고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 영과 육신의 완전한 파멸이라고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것이라고는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

상에서 여러분을 함께 묶어 준 사랑이 계속되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유괴 사건을 종종 듣게 됩니다. 1932년이라고 기억하는데 린드버그[1] 대령의 아들이 유괴범에게 납치당했고 범인은 그의 몸값으로 50,000불을 요구했었읍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돌려 준다면 기꺼이 그 액수의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읍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침 매리온 지 롬니 형제는 부활할 때 자녀들은 죄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리라는 주님의 계시를 인용하셨읍니다. (교성 45 : 58 참조)

일찌기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가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자녀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내가 홀랜드에서 선교부장으로 있는 동안 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3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났읍니다. 내 아내는 천사가 그 어린 영을 자기에게 보내 주었다고 수차 이야기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를 잃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비통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회복된 복음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녀는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의 딸이 되고 우리는 그녀가 죄없이 자라 구원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종종 이러한 선택된 영들은 지상에 있는 다른 어린이와 같은 경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이 그러한 부름에 합당한 자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갖기 전에 네 딸을 낳았읍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어느 스테이크에 부름을 받아 먼저 내려갔고 아들 아이는 고등 평의원 한 분과 그의 자녀와 함께 나중에 오게 되었는데 이 때 내 아들이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애에 가장 큰 슬픔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오른 기분으로 즉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유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고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귀중하고 사랑스럽던 자와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 때 죽음에서 오는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우리의 기초가 튼튼하게 놓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와 함께 만나고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되고 구원된 자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 태어나고 복음의 진실성을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축복된 자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쌓고, 우리와 사귀는 사람과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가정에서의 실패는 어떠한 인생의 성공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당연하다고 하겠읍니다. 인간이 좀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의 계명에 순종하면 가정에서의 사랑도 커지며, 사랑이란 다음에 올 영원한 세상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는 지식도 얻게 됩니다.

내가 남부 지방에서 선교부장으로 있을 때, 어느 학교 교사가 몰몬 어린이에게 책을 빌려 준 적이 있었읍니다. 책이 반납되었을 때 그 속에는 신앙개조를 적은 종이가 있었고 선생은 그것을 읽었읍니다. 그 선생은 자기 교회의 목사에게 찾아가서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것이 없읍니까?"하며 물었읍니다. 그 목사는 그녀에게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해 주지 못했으며 그래서 그녀는 솔트레이크시에 있는 안내소에 편지를 냈읍니다. 교회 안내소에서는 그녀에게 책자를 보냈으며 나에게 그녀의 이름을 알려 주어 선교사가 그녀를 방문했고, 그녀는 곧 교회 회원이 되었읍니다. 그때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쓴 신앙개조를 다시 생각해 보고(그가 열거하지 못한 중요한 교리는 그외에도 많다.) 그것을 읽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느껴졌읍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느 교회도 그러한 기초를 갖고 있지 않읍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위해서 나는 신앙개조 몇 구절을 인용하겠읍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신앙개조 1조) 예언자 요셉은 하나님과 아들이 각기 다른 분명한 두 인격체라고 가르쳤고 이들은 살과 뼈를 가졌으며, 성신은 영의 존재라고 말했읍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아니함을 믿는다."(신앙개조 2조) 이러한 교리를 믿는 교회는 많지 않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과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신앙개조 3조) 대개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구세주이신 예수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가 말씀하신 바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하겠읍니다.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이, 회개. 제삼,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제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신앙개조 4조) 다른 어느 교회도 이러한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믿지 않으며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한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겠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찌니라"(히 6 : 1—2)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5조) 다른 어느 교회도 이것을 믿지 않읍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권능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예언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이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6조) 바울은 그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했읍니다. 다른 교회는 이러한 기초를 갖고 있지 않읍니다.

"우리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계시와 시현을 받는 은사, 병고치는 은사 및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등을 믿는다."(신앙개조 7조)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된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한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신앙개조 8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경전을 주시고 그의 손에서 두 책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모르고서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읍니다. (겔 37 : 17 참조)

1. 린드버그, 찰스 오거스터스 : 미국 비행가 (1902～)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9조) 다시 말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시받고 있음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오늘날 계시로 인도됨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열 지파가 회복될 것을 믿는다. 우리는 이 대륙에 시온이 건설되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을 다스리시고 땅은 새로와져서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10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으며 이사야는 양과 사자가 함께 눕게 될 새 땅과 새 하늘이 있을 날이 오면 우리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살며 포도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거할 집을 짓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주님의 복된 자손이 되며 우리의 자손도 우리와 함께 될 것입니다. (사 65 : 17--23 참조)

마땅히 우리는 거룩한 신전에 놓여 있는 기초와 같은 기초를 놓아야 하며, 그리하여 복천년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서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 하나와 가족들이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고,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빛이 비취되"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십이사도 평의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아직 교회에 속하지 않으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원한다면 주님의 영이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이는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날과, 우리가 겪는 고난과, 우리가 걸어야 할 눈앞의 장래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하여 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취니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1 : 5) 예수가 사랑했던 제자들은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이 성구는 전 유엔 총회 의장이던 찰스 에이치 말리크 박사가 쓴 성명서를 읽고 갑자기 내 마음에 떠올랐읍니다. 그는 그 성명서에서 오늘날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참되고 보편적인 메시지, 위대하고 놀랄 만한 것의 시현, 영웅적인 사명에의 부름이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최후의 전반적인 심판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인간의 목숨, 인간의 가치, 인간의 문화, 인간이 속해 있는 모든 문명의 힘이 점점 도외시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말일일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가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없애도 그의 자녀들만은 잘 보살펴 줄 것이라고 말한다."(연설집 〔하퍼스 엔드 로우, 1964년〕 42페이지에서 인용)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분석하고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자신 가운데서 겪는 고난이란 적당한 인도가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를 들으려는 마음을 닫아 버린 데서 기인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목적은 오늘날과 같은 고난이 많은 세상에도 근 140여 년간 우리를 안전히 지켜 주고 진리로 이끌어 준 빛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데 있읍니다. 그 빛이란 이를 따르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도록 약속된 빛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사시는 동안 우리가 오늘날 처해 있는 상황을 미리 보고 계셨다는 것을 나는 증거할 수 있읍니다. 그는 또한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걸을 절박한 상황을 나타내 보이셨고 이 길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그 당시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그는 우리가 잊지 않도록 성경(마 24 참조), 값진 진주(요셉 스미스 1서), 교리와 성약 등에 나누어서 기록으로 보존하게 하였읍니다.

그가 말씀을 하셨을 때는 매우 뜻깊은 상황에 처해 있었읍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는 도중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감람 산에 오르셨읍니다. 성전 건물의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예언을 듣고 제자들은 그 설명을 원했읍니다. 그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마 24 : 3)라고 물었읍니다.

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그가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지는 않겠읍니다. 그렇지만 나는 오늘날과 미래의 복리에 관련하여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과 그의 재림의 징조에 관해 여러분과 같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면 빛이 암흑 속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비치리니, 이 빛은 나의 충만한 복음이 되리라."(교성 45 : 28)

오늘날에 관한 이 예언은 1820년 봄에 하나님과 아들이 소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로써 더욱 굳혀졌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지상에 회복되었읍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건은 "이방인의 시대"를 낳았으니 즉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는 지상에 있는 비 유대인에게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젙정의 시대에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구세주의 말씀을 읽어 보겠읍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면 빛이 암흑 속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비치리니, 이 빛은 나의 충만한 복음이 되리라.

"그러나 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들이 빛을 깨닫지 못함이요, 인간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내게서 돌이키는 연고니라."(교리와 성약 45 : 28—29)

오늘날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이를 버리고 있읍니다. 이 세대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고난과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계속 겪고 있는 것은 우리를 이끄는 진리의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를 거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빛(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나로부터 멀리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도 알 수 있읍니다.

"그 세대에 사람들이 있어 자기들을 휩쓸어 가는 징벌을 보기까지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황폐케 하는 질병이 땅을 뒤덮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의 제자들은 거룩한 곳에서 있어 움직이지 아니하려니와 악인 중에는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는 자들도 있으리라.

"각처에 지진과 많은 황폐가 있으리라.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내게 대적하며 검을 들어 서로 치며 죽이리라 하였더라.

"나 주가 이같은 말을 제자들에게 하자 저들은 근심하더라.

"이에 내가 저들에게 이르기를,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에는 너희와 맺은 약속이 성취되는 줄 알게 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45 : 31—35)

이러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리라는 말에 이어 예수는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을 제자들에게 계속하셨읍니다.

"빛이 그 광채를 발하기 시작할 때에 일어나게 될 일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 줄 비유같이 되리라.

"곧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나니, 너희 눈으로 보고 싹이 나기 시작하여 잎이 아직도 연하면 여름이 가까왔다 말하는도다.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보게 될 그 날에도 이와 같으리니, 그때에 때가 가까와 옴을 알리라.

"나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께서 오시는 큰 날 곧 인자가 오시는 징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으리니,

"저들은 징조와 기이한 일을 보리라. 이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저들에게 징조가 나타나 보일 것임이니라."

"또 저들은 피와 불과 연기를 보리라."(교리와 성약 45 : 36—41)

우리는 이미 이러한 징조를 목격하였으며 또 다른 것들도 이후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계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는 어두워질 것이요, 달은 피빛으로 변할 것이요,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그러나 남은 자들은 이곳에 모이리라

"그 때에 저들은 나를 찾으리니, 보라, 내가 오리라. 저들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옷을 입고 거룩한 천사를 거느리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나를 보리라. 무릇 마음을 다하여 나를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는 잘리워 버림받으리라."(교리와 성약 45 : 42—44)

그렇지만 의로운 자는 잘리워 버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살펴보겠읍니다.

"그러나 주의 팔이 떨어지기 전에 한 천사가 나팔을 불리니, 잠자던 성도들이 구름 속에 있는 나를 찾으러 나아오리라.

"그런고로 너희가 화평 중에 잠잤으면 복이 있나니, 지금 너희가 나를 보고 나의 존재를 아는 것같이 그 때에 너희는 내게 나아와 너희 영육이 살게 되며 너희 구속이 완전하게 되리라. 또 성도들은 땅의 사방으로부터 나아오리라."(교리와 성약 45 : 45—46)

우리는 이러한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든지 혹은 그때까지 살더라도 진실하고 성실하다면 그와 함께 거하게 되고 그의 오심을 기뻐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읍니다.

부활한 자가 그에게 가고, 그가 오실 때 의롭게 살았던 자가 땅의 사방으로부터 그에게 가면,

"그 때에 주의 팔이 여러 국민 위에 미치리라.

"그 때에 주께서 이 산 위에 발을 디디시리니 산은 둘로 갈라지며 땅은 흔들려 이리저리 요동할 것이요, 여러 하늘도 진동하리라.

"또 주께서 음성을 발하시리니, 온 땅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라. 땅의 국민들이 애통할 것이요, 지금까지 웃던 자들이 자기들의 어리석었음을 깨달으리라.

"재앙이 조롱하는 자들을 뒤덮을 것이요, 조소하는 자들은 불타없어질 것이요, 악을 바라고 기다리던 자들은 잘리워 불 속에 던지우리라. (교리와 성약 45 : 47—50)

"또 사탄은 묶여 인간의 자녀의 마음 속에 들어갈 자리를 얻지 못하리라.

"내가 나의 영광 가운데 오는 그 날에 내가 열 처녀에 관하여 이야기한 비유가 성취되리라.

"지혜로워서 진리를 받아들이며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속지 아니한 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리워 불 속에 던지우지 아니하고 그 날을 견딜 것이요."(교리와 성 45 : 55—57)

"지혜로워서 진리를 받아들인 자"란 복음을 듣고서 이를 받아들인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속지 아니한 자"는 성령의 은사를 받음은 물론 그후에도 그렇게 살아서 속임을 받지 않을 만큼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했거나 그 때까지 살았거나 간에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땅을 유산으로 받으리니, 번성하여 강하여지고 그 자녀들은 죄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리라.

"이는 주께서 저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요, 주의 영광이 저들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주께서 저들의 왕과 입법자가 되실 것임이라."(교리와 성 45 : 58—59)

예수의 이 위대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받는 고난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주는데, 바로 이것이 말리크 박사로 하여금 우리 문명의 장래에 관해 관심을 갖게 해 준 이유가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괴로움에 싸인 암흑의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 줍니다. 예언자 요셉을 통해 회복된 복음은 훌륭한 박사가 오래 갈구하던 "위대하고 놀랄만한 시현"이었읍니다. 그것은 바로 "영웅적인 사명에의 부름"이었읍니다. 그것은 "참되고 보편적인 메시지"였읍니다. 그것은 바로 훌륭한 박사가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세계

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최후의 전반적인 심판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한 그의 결론을 확인해 줍니다. 그것은 또한 "지금이 말일일 것이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기의 선택한 자녀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한 경전의 진실함에 대하여 나는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겠읍니다. 나는 그것을 말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임을 알며 그는 태초부터 모든 것을 아시며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나는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많은 표시가 주어졌읍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으며 곧 닥쳐올 징조도 많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는 우리의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의 권능 즉 신권이 지금 지상에 있읍니다. 그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읍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주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몰 8 : 22)

이러한 사실을 나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증거합니다. 아멘.

결 정

엘드리드 지 스미스 장로
교회 축복사

다 함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즉 천국 회의가 진행되며 여러분과 나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상 생활의 기회와 목적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던 때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이들 중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서 계시더니,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내려가자. 저 곳에 공간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질 것이요,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첫째 지체를 지킨 자들과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리라. 또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 지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시니 인자 같으신 분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아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니 또 다른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기 있아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첫째를 보내리라.

"이에 둘째가 성내어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니, 그날에 많은 자가 그를 따랐더라."(아브라함서 3 : 24—28)

아침의 아들이요 또 우리의 형이었던 루시퍼가 아주 달콤하게 유혹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새로운 계획을 주겠다. 이미 나와 있는 계획은 아주 구식이란 말이야. 뭐 이럴까 저럴까 하고 망설일 필요조차 없단 말이야. 내가 책임지고 다시 모두 데려오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말이야." 그는 뛰어난 심리학자였읍니다. 그는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는 묘하게 소위 자기의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까닭에 삼분지 일의 천군이 이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의 권리를 포기해 버리고 자유의지를 비난했읍니다. 저들은 결정의 올바른 의미를 배우지도 않았읍니다. 저들은 선택하는 권리, 그러니까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것입니다.

천국 전쟁이 있었고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마침내 쫓겨나고 말았읍니다. 그리하여 저들의 무리는 우리들을 시험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고, 그런 뜻에서 자기들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에는 선택의 자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상대되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되는 견제 세력을 극복하는 일이 없이는 발전도 없고, 전진도 없고 향상도 없고 달성도 없읍니다.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자유의지에 상대되는 세력을 형성한 까닭에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한 자유의지의 존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갖게 되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가장 위대한 재산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려고 하지도 않으시려니와 빼앗을 수도 없으며 그렇게 계획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유익과 발전을 위하며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훌륭하게 사용할 것을 바라고 계시며 또 그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와 그의 무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셨으면서 만일 우리들에게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시퍼가 자기의 뜻에 좇아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는 천국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곳으로 쫓겨난 것이며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루시퍼는 이 세상에서 행하도록 허가받은 일만을 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온갖 고난과 시련을 욥에게 주었을 때도 루시퍼는 욥을 시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했읍니다.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시험할 수 있다는 분명한 지시를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부를 빼앗아 가는 시험도 있었읍니다. 어떤 시험은 그의 가족을 빼앗기도 했고 다른 시험으로 건강을 잃기도 했읍니다. 그런 연후에 주는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다치지 않는 한

도 내에서의 모든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한 단계씩 시험을 받으면서 욥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읍니다. 그리하여 욥은 우리가 오늘 들은 바 있는 불멸의 간증을 남기게 된 것이었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욥기 19 : 25—27)

우리가 만일 온전한 경지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생명을 빼앗는 일을 제외한 모든 끔찍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완전에 도달하는 것이며 승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사탄이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한도까지 우리를 시험하도록 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돕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기록을 번역하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 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 옳지 아니한 일을 잊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지 아니하면 너는 거룩한 것을 기록할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9 : 7—9)

주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 7 : 7, 눅 11 : 9)

결정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당면한 일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읍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루시퍼와 루시퍼의 온갖 수단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완전에까지도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써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약속도 주시지 않았읍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악마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벌써 싸움은 패배로 끝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없이 완전히 자기 개인의 힘으로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십일조를 바치고 나쁜 버릇을 고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 이들은 모두 뜻을 이루지 못했읍니다. 오직 주께 도움을 구할 때 만사는 쉽게 이루어지며 복음의 간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가 따라야 할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을 주셨읍니다. 이를 모두 지키려면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를 시험하시려는 것일 것입니다. 아울러 하늘의 첫째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순종의 법을 우리들이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는지를 시험하시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행해 주기를 바라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바랍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이 쉬워질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결정에 달렸읍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무슨 일 하나
자유니 영원하신 진리 있어 인간을
강압하잖네
지혜와 사랑 빛으로 바르게 훈계하
시고 친절과 선하심으로 주 결코 억
압하잖네"

—찬송가 126장—

본인은 우리들 모두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권리인 자유의지의 중요한 의미를 철저히 깨달아 주기를 바라며 이를 현명하게 사용하며 또 기도로 주께 도움을 구하여 늘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모두에게 풍성하신 축복이 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또 다른 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말일의 위대한 사업의 거룩함과 진실성을 간증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말일성도는 축복받고 사랑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출 19 : 6)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대에 우리의 선조들을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신 7 : 6 참조)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택하셨읍니다.

우리의 위치는 영원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커다란 힘을 이루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복음의 경륜 시대에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풍성히 주시는 진리의 빛 속을 걷는 한 무서운 재앙이나 세상의 조건에 고통을 당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지혜와 고대의 예언자에게 주신 성약과 약속의 성취로 주님께서는 말일에 그의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을 지상에 회복하여 주셨읍니다. 이 복음이란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구가 놓이기 이전에 천국 회의에서 이미 결정되고 확립된 것이며, 이제 다시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기 위하여 새롭게 나타내진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영원한 계획에 의하면 구원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읍니다. 구원이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소위 우리가 부르는 아담의 타락에 의한 육체적, 영적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읍니다.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며 육신으로서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율법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에서 영생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영광스런 축복은 그의 대속의 희생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온갖 힘과 정성을 다해 그를 사랑하고 봉사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이 순종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이러한 율법이 오늘날 그의 예언자와 사도들에게 나타내졌으며, 현재 그가 지상에 확립해 놓은 그의 교회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나타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 나타내진 것입니다.

기원전 약 6세기경에 위대한 예언자 니파이는 그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읍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실 이는 곧 한 하나님이시요 한 목자이심이라.

"그가 온 나라에 임하실 것이요……" (니일 13 : 41—42)

그 약속된 날이 이제 서서히 밝아오고 있읍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나라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기로 지명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가 모든 나라에서 진리에 반응을 보일 것이며, 교회로 나오게 될 것이며,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최근 영국의 멘체스터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우리는 영국 국민 가운데서 말일성도의 힘과 지도 역량을 실제로 보았읍니다. 영국에서 교회는 성년 단계에 이르렀고 영국 성도들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 실제로 능력도 지니고 있읍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럴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란 만인을 위한 것이며, 주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의 진리대로 생활하며 복음을 자신의 국민들에게 전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과 형제애로써 모든 사람이 말일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나타내진 영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권유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모로 10 : 32)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고, 그의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권유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맛보았고 그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주시는 축복과 영을 그들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책임은 영과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을 우리는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 : 10)

우리는 주님에 대한 경배가 기도나 전도나 복음 의식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읍니다. 최선의 경배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아들의 발자취를 좇으며 그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보여 주신 모범을 실제로 따름으로써 그의 뜻을 존경하고 영예롭게 하는 것과 말만으로 그에게 봉사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읍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의 모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그가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그는 니파이인 제자들에게 묻고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읍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삼 27 : 27)

나는 그의 모범을 따른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받은 영생의 말씀을 감사하며, 내가 끝까지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는 물론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영생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전 생애를 통해 나는 복음의 원칙을 연구하고 골똘히 생각하였으며 주님의 율법대로 생활하도록 노력해 왔읍니다. 그 결과 내 마음 속에는 그에 대한 커다란 사랑과 그의 사업에 대한 사랑과 지상에서 그의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커다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읍니다.

나는 그가 살아 계심을 알며, 그는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의 목적이 언젠가는 모두 성취되리라는 것도 압니다. 그는 우리의 주님이요 하나님입니다. 그는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주는 하나님이시요, 주 외에는 구세주가 계시지 아니함이라.

"그의 지혜는 위대하시며 그의 길은 놀라우시니, 그가 하시는 일의 한계는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도다."(교성 76 : 1—2)

나는 나와 같은 지식의 근원을 가지고 있었던 욥의 이야기를 하고 싶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또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욥 19 : 25—27)

욥의 간증에 더해 나의 간증을 하다보니 심령의 슬픔과 고뇌에서 소리친 다음의 말씀처럼 주님께 감사함을 같이 나누고 싶읍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욥 1 : 21)

나는 우리가 모두 성령의 권세로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앞에서 정당하게 옳은 길을 걸으며 순종하는 자에게 마련되어 있는 왕국의 저택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1971년 10월 2일 신권회 말씀

신권의 축복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사랑하는 신권 소유자 여러분, 오늘이 신권회 모임에서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나는 오늘 인류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신권 활용에 관해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신권은 복음을 관리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위임해 주신 권능이며 우리 자신과 이웃들이 해의 영광으로 승영하여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바를 모두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 주신 초기 계시에서 주께서는 이같이 이르셨읍니다.

"만일 네가 선을 행하고 또 끝까지 충실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이니, 구원의 은사보다 더 큰 것이 없음이라."(교성 6 : 13)

이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인 구원이 복음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복음은 신권의 권능으로 관리되는 것이니, 신권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신권의 권능과 능력에 의한 것이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인간의 생에에 안겨 줄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겠읍니까?

바로 이 신권에 의하여 인간이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생애에 성령의 신성한 권능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약에 의해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수 있읍니다. 우리가 점차 큰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됨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마 4 : 4)리라 약속되었읍니다. 주께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할 때 가장 높은 해의 영광에서의 승영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결혼은 "신권의 반차"인 것이며 부부가 서로 자신의 의무를 참되고 성실히 행할 때 천국과 왕좌가 약속되는 것입니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은 신앙있는 가족에게 병자 축복을 할 수 있으며, 축복받은 사람이 "죽기로 정해지지 아니한"(교성 42 : 48) 경우 병나음을 얻어 건강과 힘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직분에서도 같습니다. 주께서 내리시는 축복은 주님의 신권을 지니고 주님을 대리하여 사실상 주님의 종이요, 봉사자며 즐겨 주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과 온 세상에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신권을 소유한 모든 형제들에게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는 교회의 확고한 질서에 조화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과 이웃에게 축복을 안겨 줄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합당할 수 있는 사람과 또 합당한 사람은 집에서나 외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부름에 응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축복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전당에서의 축복 즉 우리에게 내려 주는 신권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신권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가볍거나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의 인간들도 사람이 지상에 처음 존재했을 때처럼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하늘의 열림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 주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부과된 모든 의무를 배우며, 가장 성스럽게 신권을 간직할 수 있으며, 우리가 점차 큰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우리와 우리의 형제와 우리가 세상 방방곡곡에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도록 신권을 활용할 수 있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신권을 받은 모든 형제와, 직분에 성임된 형제와, 이에 성실한 형제에게 나는 지금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위하여서만 신권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진 많은 사람 중에 기꺼이 회개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축복을 나누어 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과된 다른 하나의 책임은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 방방곡곡에 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는 기꺼이 회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형제 여러분과 함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일에 나의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한편, 언제고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바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바입니다. 아멘.

조화의 영이 깃들게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교회의 대관장단으로 지금 내 곁에 서 있는 위대한 두 분의 신앙, 헌신,

봉사에 대하여 본인은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싶읍니다.

해롤드 비 리 부대관장은 에녹과 같은 신앙을 소유한 영적인 면에서의 거인입니다. 그분은 계시의 영을 갖고 계시며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서의 부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읍니다.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역시 바로 지금 이 주님의 교회에서 그분이 수행하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봉사를 하도록 영원 전부터 준비된 고상하고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은 뛰어난 능력과 인품의 소유자이십니다.

교회의 대관장단이 하나로 뭉쳐 있으며,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교성 20 : 28 참조) 이와 똑같은 상태가 모든 스테이크 부장단, 감독단, 신권 정원회 회장단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나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과 그의 동료 사도, 그리고 총관리 역원의 노력과 봉사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내가 그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교회의 충실한 회원을 축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들이 진리와 덕성의 길을 계속하여 걷는다면 의로운 소망을 품을 것이며 적당한 시기가 이르면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두고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일을 하기 위하여 전념해 왔으며 그분이나 자신에게 선하셨고 아울러서 계명을 지키겠다고 성약한 자 모두에게 정말로 선하셨다는 간증을 드리고 싶읍니다.

바야흐로 인생의 황혼기라 불리우는 지점에 서서, 멀지 않은 장래에 부름을 받아 육신을 입고 있을 때의 책임에 관하여 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나는 이 위대한 사업이 진실하며 하나님의 일이라는 간증을 드리는 바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셨음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들이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마지막 복음의 경륜을 시작케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으며 지금도 예언자라는 것을 알며, 특히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며 복음의 물결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굽이칠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알고 그분의 얼굴을 뵐 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읍니다. (마 25 : 34)

그 시기가 왔을 때 우리 모두가 이처럼 행복한 부류에 속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우리의 책임 : 세상을 구원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금년 4월에 있었던 교회의 연차 대회가 끝난 후 어느 신앙심이 깊고 이에 관심을 가졌던 교인 한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 왔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놀랄 만한 업적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사탄을 우리로부터 몰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러분의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사탄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더 적절히 말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사탄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통하여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물리쳐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삶에 있어서 고귀하고, 영적이며, 가치있는 모든 것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된다는 사실을 엄숙히 증거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것은 회원 여러분의 훌륭한 모범과 업적에 달려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말일에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고 그의 자녀들에게 권고하였읍니다. (교성 1 : 35 참조) 도덕적으로 타락된 행위, 격증하는 살인 행위, 불법 행위 등으로 이러한 상태가 오늘날 그대로 입증되고 있읍니다. 과거에 성스럽게 여겨지던 모든 표준이 신성을 모독하고 반항하려고 하는 급진적인 집단의 압력으로 무참히 짓밟히며 무시되고 있읍니다. 악에 이끌려서 눈이 먼 사람들은 마약, 알코홀, 매춘 행위, 외설 잡지, 부정한 음모 등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영적인 인생의 참 가치를 무시해 가면서 돈을 버는 데 몰두하고 있읍니다.

사탄을 멀리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악행을 하도록 꾀이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의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딤전 6 : 5—7 참조)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우리가 입은 영적인 보호의 옷을 벗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었다고만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읍니다.

만일 인간의 범법 행위가 계속 상승하고 이 세상이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곧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없애기 위해 커다란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늘의 보호를 받기 위해 우리가 갖는 유일한 희망은 도처에 있는 인간의 마음에 의로움과 겸손함을 확립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리라고 약속하셨읍니다. 성도답게 생활하려면 참으로 용기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사탄의 유혹에 굴하지 않읍니다. 우리는 모두 합당하게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읍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마를 그들의

삶에,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에, 성찬식이나 기타 교회 모임에 불러들이고 있읍니까? 우리는 경전을 가지고 있으며 평생토록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를 모시고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특별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훌륭한 행위를 보임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국립 소년단의 저명한 지도자 한 분이 솔트레이크 시를 방문하여 교회의 소년단 지도자들과 만난 적이 있읍니다. 그는 교회가 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소년단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훌륭한 면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나는 이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리라고 믿읍니다. ……이것은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것은 사실이며 이제 나는 여러분께서 항상 자기의 책임을 기억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분에게 그의 말씀을 인용해도 좋을지를 묻는 편지를 보냈읍니다. 나의 이러한 요청에 그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보내왔읍니다. "저는 당신께서 인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사실 저는 당신의 교회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는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은 정말로 위대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교회나 교회 회원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느낌을 갖고 있읍니까!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다할 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읍니다. 우리가 복음의 원칙을 저버릴 때마다 누군가가 우리의 행동을 주시해 보고 있으며 우리와 교회의 영적인 가치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성은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에 의미를 더해 줍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러한 의미를 강조하셨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 : 16)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커다란 책임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러한 책임은 교회의 지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것은 인종과 국가를 단합시키며 오늘날 인류를 갈라 놓는 장벽을 없애 주는 유일한 계획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저버리고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는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없읍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율법에 거역하며 이미 확립된 거룩한 질서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읍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하며 이중적인 도덕의 표준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과 평일이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되겠읍니다.

최근에 어느 개종자는 몰몬 교회에 와서야 "달콤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왔으며 그가 먼저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개종하게 된 여덟 가지의 이유를 들었읍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적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1. 건전한 가정 생활. 가정은 친구나 학교나 사회보다도 훨씬 더 개인의 태도와 목적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정은 젊은이들이 훈련을 받는 가장 훌륭한 장소입니다. 이상적인 말일성도 가정은 확신과 화평과 행복이 넘치는 높은 표준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2. 자기 신뢰와 책임. 모든 교회 회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신뢰와 책임감을 배웁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3. 도덕적이며 신체적인 훈련.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살인과 술 취함이며……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니라. (갈 5 : 19, 21—22)*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께서는 항상 도덕의 표준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제와 자기 훈련과 극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는 아무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절제하지 못하는 열정과 욕구를 지닌 사람보다 더 무자비하고 두려운 폭군이 있을 수 없다"고 하셨읍니다. (복음 교리 〔북크래프트사〕)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마 26 : 41)

4.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 : 1—3) 또한 그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히 5 : 8)

순종은 지상의 부모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5. 범사에 완전하고 뛰어나도록 노력함. 복음이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 : 48)고 하셨읍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읍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예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대답해 주셨읍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니삼 27 : 27) 그는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며, 내가 행하는 바를 너희가 본 대로 너희도 행하라"(니이 31 : 12)고 하셨읍니다.

6. 순결과 결혼 성약의 준수. 금년도에 미스 아메리카로 뽑힌 로라레아 쉐퍼양의 첫번째 공식 기자 회견 내용을 듣고 마음이 든든한 바 있었는데 그녀는 자기는 혼전 성관계를 반대하고 있으며 마리화나나 유산은 불법이며 파멸로 이끄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읍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계속했읍니다. "나는 표준이 될 만한 대학생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느껴요." 그

* 번역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의 5장 21절에는 이 문구가 빠지 있음

녀의 개인적인 행동의 표준이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모범이 되었겠읍니까?

부정은 결혼 성약을 깨치며 심한 경우 당사자를 이혼까지 이르게 하는데, 이혼이란 자녀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대개의 경우 그들은 마약, 부도덕, 기타 악습에 빠지게 되며 교회의 출석과 활동을 멀리하게 됩니다. 만일 모든 부부가 결혼 성약을 성실하게 지킨다면 오늘날 세상에는 그처럼 많은 문제나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과 신뢰와 영원한 가족 목표의 모범을 보인다면 자녀들은 자연히 그들의 결혼이 성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7. 높은 교육 표준.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교성 93:36)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읍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성 88:118)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고 있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리라. 만일 어느 사람이 근면하고 순종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보다 한층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었으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그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교성 130:18—19)

8. 끝으로 "상식"이라고 이 개종자는 말합니다. 상식이란 궤변이나 특별한 지식 없이도 느낄 수 있는 훌륭하고 건전하고 실질적인 판단력입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판단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조급히 행동하지 않고 사물을 깊이 생각하고 활용하는 데서 발전됩니다.

이러한 여덟 가지의 의미깊고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고 개인의 생활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복음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인 행동의 표준에 맞는 생활을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세상적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히 지킬 때 우리는 아무 것도 잃지 않게 됩니다. 이는 지상 생활을 그처럼 합당하게 하면 우리가 지상을 떠난 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품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고귀한 보상이 어디 있겠읍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받은 예언자 리하이는 가족과 몇 사람을 이끌고 성스러운 도시를 떠났읍니다. 광야에서 3일 동안 지낸 후 그들은 홍해로 향해 흘러가는 강가의 계곡에서 야영을 했읍니다. (니일 2:6 참조) 도중에 리하이는 반항적인 두 아들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읍니다. 흐르는 물을 보며 그는 큰 아들 레이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오, 너는 이 강물을 닮아 쉬임없이 달음질쳐 의의 샘에 이를지어다!"(니일 2:9) 대개의 강은 산골짜기의 계곡에서 나오는 맑고 깨끗한 샘에서 그 원천을 찾을 수 있읍니다. 물이 바다까지 흐르는 동안 주류와 합쳐지는 지류가 있읍니다. 이러한 지류 중에는 오염이 되어서 주류를 더럽히는 수도 있으나 본래는 깨끗한 것이었읍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를 때까지 강물이 전부 오염되는 수도 있읍니다.

인생이 이 상징적인 비유와 얼마나 흡사합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영은 태초에 무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에서 구속하여 주셨으므로 인간은 또 다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게 되었느니라"(교성 93:38)고 나타내 주셨읍니다. 이러한 말씀을 염두에 두면 구세주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고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읍니다. 책임을 질 만한 연령에 이른 어린 아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셨읍니다. "저 사악한 자는 와서 불순종과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로 인간의 자녀로부터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가느니라"(교성 93:39) 우리는 이 계시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는 순진하므로 마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샘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오염된 강줄기가 주류를 향해 흘러들어오듯이 우리의 인생 역시 우리가 악의 지류를 흘러들어오도록 방치해 둔다면 오염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막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악의 지류입니다. 죄란 결코 행복이 아닌 것이며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심을 파괴하며 끊임없이 과오를 범하는 인간의 영적인 삶을 완전히 타락시킵니다. 부모에 의해서 교육을 잘못 받거나 잘못 훈련된 자녀는 악마의 유혹에 굴하기 쉽고 영원히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의 길을 택한 자가 승리하는 법은 없읍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일찌기 배울수록 우리의 삶은 보다 훌륭하고 결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확고하고 쉬지 말며 불굴의 의지를 지녀 교회에서 사탄의 무리를 제거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대해 훌륭한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지식을 친지나 이웃과 나누게 되며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의 거룩함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1971년 10월 3일 일요일 오전 모임 말씀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이 곳에 모인 많은 청중과 이 대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겸손히 이 자리에 섰읍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질문하신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물음의 중요성을 토론할 때 성령과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철저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인간이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전세의 천국 회의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거주할 지구를 창조하도록 결정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질 것이요,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첫째 지체를 지킨 자들과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리라. 또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값진 진주, 아브라함서 3 : 25—26)

"나 하나님이 나의 형상 곧 내가 지은 나의 독생자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저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니라.

"나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였더라."(값진 진주, 모세서 2 : 27—28)

"나 주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에 한 정원을 창설하고 내가 지은 사람을 두[어]……에덴 동산을 손질하며 지키게 하니라.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나 이는 네게 주어진 것이니 먹든지 말든지 네게 맡기노라. 그러나 내가 네게 금하였음을 잊지 말지니……"(값진 진주, 모세서 3 : 8, 15—17) 그러므로 확실히 지구는 인간의 거주지로서 창조되었고, 그 곳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이 사용하고, 인간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삶을 충만히 영위하려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읍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축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받고 있으나, 우리가 따먹는다면, 충만한 즐거움을 앗아가고 슬픔과 후회를 가져다 주는 몇몇 "금지된 과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 회의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두 가지 계획이 제출되었읍니다. 그리스도의 계획은 받아들여졌으며, 그는 세상의 구세주로 선택되었읍니다. 사탄의 계획은 거부당하였고 그는 반역하였읍니다.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이에 사탄이 모반하여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미 부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멸하려 하였고, 나의 권능을 자기에게 줄 것을 구하였으므로 저는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써 던지움을 받게 하였더라.

"이에 저가 사탄이 되었나니, 참으로 악마요, 모든 거짓의 아비라. 인간을 미혹케 하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많은 자를 자기의 뜻대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모세서 4 : 3—4)

교리와 성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사탄은 저들을 선동하여 저희 영육을 멸망으로 인도하려 하느니라.

"이같이 사탄은 하나님의 사업을 파멸시키려는 생각으로 간교한 계획을 꾸미나……,

"참으로 사탄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속임수를 쓰고 잠복하여 있으라. ……또 이같이 사탄은 사람을 감언 이설로 꾀며 말하기를, ……거짓을 말함은 아무런 죄도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느니라.

"이같이 사탄은 저들을…… 인도해 나가며 드디어는 저희 영육을 지옥으로 빠뜨려 버리나니……

"이같이 사탄은 인간의 영육을 멸망시키려고 이 세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니라."(교성 10 : 22—23, 25—27)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자유롭게 모든 과일을 따먹되 한 과일만은 먹지 말라고 명하시고 그들을 떠나신 직후, 사탄은 그들의 멸망을 꾀하는 사악한 계획에 착수하였읍니다. 사탄의 시도는 성공하였고, 하나님은 동산에 돌아오셨읍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부르셨을 때, 아담과 이브는 부끄러움을 느껴 그를 피해 숨어 있었읍니다.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구들과 우리의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하였읍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은 우리 모두가 하기 쉬운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며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읍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이브는,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 : 9—13)

아담과 이브를 둘러싼 상황과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사탄의 영향과 인간의 약점, 인간이 생을 살면서 부딪쳐야 하는 유혹과 문제들을 명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또한 주님께서 인간이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금지된 과일"을 따 먹거나, 하지 말라고 명함을 받은 짓을 하게 된다면, 아담과 같이 모두 부끄러워하게 되며,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 숨게 되고, 죄 안에서 계속 머문다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서 떠나고 맙니다. 불순종 또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년 시절부터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할 때에 더욱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배워왔읍니다.

때로 우리는 주께서 명하시지 않았어도 계명을 지키고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여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침례를 받아야 하며, 안수와 다른 의식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가르침조차 의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잘 이해하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읍니다. 우리는 명백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의 중요성도 이해하여야 합니다. 예언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 : 22)

라고 가르쳤읍니다. 경전에는 신앙만으로 순종한 예가 많이 나와 있읍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주님은, "저들에게 저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떼의 첫 새끼를 주께 드리는 제물로 바치라 명하시니, 아담은 주의 계명에 순종하였더라.

"여러 날이 지난 뒤 주의 한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바치느뇨? 아담이 저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이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모세서 5 : 5—7)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니파이는 그의 백성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가 두 개의 판을 만들어 한 판에는 그의 백성을 통치한 기사를 기록하며, 다른 판에는 왕들의 치적과 백성들간의 전쟁과 불화를 기록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설명하였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비록 알지 못하나 주만이 아시는 현명하신 목적으로 주께서는 내게 이 판을 만들라고 명하시었나니,

"주는 태초로부터 모든 일을 아시었음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모든 일을 이루실 길을 마련해 두셨나니……"(니일 9 : 5—6)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이 기록들이 번역되던 시기에 커다란 중요성을 가졌다는 점을 입증해 줍니다. 우리가 계명을 충분히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오로지 믿음으로 계명을 준수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고, 위에서와 같이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불순종이 낳는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나는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홍차, 커피, 술, 담배를 금하였던 것을 잘 기억합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시용이 인체에 유해하며 인간에게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과학자들도 입증하지 못했읍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해롭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대의 많은 세상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취하여 불건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불행에 빠져 있읍니다. 이러한 "금지된 과실"을 취함으로써 결국 죽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세상의 투쟁과 불행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살기를 거부함으로써 초래됩니다.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성공하였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며, 그것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곧잘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죽음과 영생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나의 의무를 행하여야 할 때는 언제이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키우며 행동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완전케 하며 가족에게 그들의 의무를 가르치는 무거운 책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자문해 봅시다. 내가 가족을 모범과 교훈으로써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생활하며, 십일조와 주님에의 헌금을 포함한 모든 행위에 있어 정직하고 명예롭게 행하는 모범으로써 가르쳐야 할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안식일을 성스럽게 지키고 있읍니까? 아니면 어떠한 면에서 더럽히고 있읍니까?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읍니까? 아니면 이러한 "금지된 과실" 중 하나를 범하였읍니까? 나는 마약의 사용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것이 내포한 위험을 나의 자녀에게 경고하는가? 나는 내가 속한 사회에서 대부분의 부모가 알고 있는 바보다 더욱 만연되어 있는 마약 중독 문제, 알콜 중독 문제, 혼음과 성병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는 각 가정의 자녀들이 이러한 것들로부터 안전한가?

나는 조국에 충성해야 할 때 어디에 있는가? 나는 가족에게 충성스러운 시민이 되기를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생활 가운데 선한 것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그들이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여 그들이 속한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데 헌신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정규적으로 가정의 밤을 가져 가족과 친밀하게 지내는가? 우리는 정규적으로 가족 기도를 하여 주님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고하고 그의 도움과 인도를 간구하는가?

나는 어떤 날 가족에 관한 한 기사를 읽고 몹시 감동을 받았읍니다. 저자는 이 시대의 소년 범죄가 젊은이들의 자란 육체보다는 성인들이 책임을 수행하는 태도에서 더욱 초래된다고 말하였읍니다.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 대법원 판사는 말썽을 일으키는 젊은이들 대부분은 가정 교육의 부족과 무책임한 부모로 인해 생겨난다고 했읍니다.

우리는 좋은 이웃 특히 가족이 없는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며, 병자와 가난한 자, 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권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두번째로 큰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과 나는 이러한 면에서 훌륭합니까? 우리는 이웃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어디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읍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약 1 : 27)라는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읽을 수 있읍니다.

우리는 옳은 일과 그른 일, 정의와 불의, 선과 악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음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에 부딪칠 때와 자녀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이 옳은 일을 택하여 유혹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는 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하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왜 우리는 모든 이러한 유혹에 부딪치고, 왜 주님은 우리에게 욕망과 감정을 주셨으며 왜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받아야 하는가를 질문하였읍니다.

이유중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생에서 겪게 되는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통하여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우리를 도우기 위한 것입니다. 브리감 영은, "저는 행복합니다.……유혹을 겪고 견딜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설교집 제3권, 195페이지)라고 말했읍니다. 유혹이란 우리가 진보 발전하는 데에 필요합니다. "유혹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에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유혹을 극복하기를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유혹으로부터 해방되며, 주어질 축복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을 지속시키게 될 것입니다."(설교집, 제16권, 164페이지)

욕망이나 감정 등 모든 유혹은 우리가 지혜로운 말씀에 귀기울여 조절한다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모든 이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과 직면하기 오래 전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혹의 순간에 가서 결정을 내리

려면 이미 늦었읍니다. 우리가 의를 선택하고 악에 대항할 것에 대해 항상 이야기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유혹을 극복할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이 항상 주님의 사업을 멸하고 인류를 멸망시킬 것을 작정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가 의의 길에서 이탈하는 순간, 멸망이란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전과 역사에서 높은 지위에 선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돌아서며,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의의 길에서 이탈하였을 때, 많은 슬픔으로 인해, 그리고 지위와 친구, 가족까지도 잃고 고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읍니다.

현대 세계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한 말씀을 생각케 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 3 : 1 ―5)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로 이러한 점에 저촉되는가? 우리는 국민과 세계인으로서 어떠합니까? 이 위대한 국가와 전세계의 상황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초래된 소돔과 고모라, 로마와 다른 문명을 멸망으로 이끈 상황에 필적합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국민으로서, 세계인으로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며 그로부터 우리 자신을 감춘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되며, 우리의 운명은 어찌 되겠읍니까?

우리가 안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에게 봉사한다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며, 사실상 이 생과 다가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어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교회 내의 각 가족이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한다면, 세상에 미치는 선한 영향은 지대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각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는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되며, 모두가 사랑과 평화 속에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상상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몰몬경에서 그러한 상황에 관해 읽을 수 있읍니다.

"……온 땅의 백성들이……모두 개심하여 주께로 돌아왔고, 백성들 간에 다툼이나 불화가 없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에 깃들어……,

"시기나 분쟁이나 폭동, 음행, 거짓말, 살인 등 온갖 음란한 짓을 범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었으니"(니사 2, 15―16)

개인과 가족, 사회와 지도자, 정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그를 세상의 창조자로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의 안내를 구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영원한 진리를 아무리 명백하게 말하고 아무리 강하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속죄의 희생을 치루셨으므로 모든 인간은 불멸의 존재가 되었으며, 부활한 몸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그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승영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소망과 용기와 힘을 갖게 되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나는 청소년 여러분이 항상 자신을 순결하게 보존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며 수치스러워 주님으로부터 숨어 살고 싶은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되도록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기를 특별히 간청합니다.

저는 교회의 각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시도록 간청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수치스러워 숨고 싶지 않은가 혹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며 내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는 스스로 겸손해져서 회개하고 자신이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는 위대한 약속을 받을 만한 가치있는 자임을 입증합시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끊임없는 봉사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이 모임은 참으로 영적인 모임이었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은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주어진 기회와 축복은 크고 헤아릴 수 없읍니다. 우리가 지닌 신권을 훌륭히 행사한다면, 전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신권 소유자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권력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읍니다.

태너 자매님과 나는 일본에 있는 4개의 선교부와 한 개의 스테이크를 방문하고 돌아왔읍니다. 모두 일본인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어떤 부부는 그 지방에서 태어나 자란 본토박이로서 일본에서 선교 사업을 수행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한국 선교부와 홍콩 선교부도 방문하였읍니다. 그 곳은 각각 10년이나 12년 전에 선교 사업을 마친 미국인이 관리하고 있었읍니다. 사실상 6명의 선교부장은 그들이 지금 관리하는 그 지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자들이있읍니다.

나는 이 위대한 나라들에서 선교사들이 행한 위대한 사업과 교회의 성장, 오래된 회원이거나 새로 들어온 회원이나, 대부분이 20세에서 35세 가량의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자질과 그들의 헌신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각 선교부와 스테이크에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으며 큰 발전이 이루어져 있읍니다, 집회에 참석한 회원은 300명에서 1,000명이었고 그곳에서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강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각 모임마다 위대한 영이 함께 하였읍니다.

내가 그곳에 있을 동안 헌신적이고, 노력하고, 겸손하고, 경건하며, 효과적인 선교사와 어른으로 성장한 소년들과 용기있고 이해력과 지도자적 능력을 소유하고 주님의 대사로서 회원들로부터 경의와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지부장단과 보조 조직의 장과 교사들과 같은 역원들을 훈련하고, 모든 지도자를 임명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며, 침례를 주고, 확인을 하고 성임하며 또한 약한 자를 격려하고 병자에게 기름 축복을 해 주는 어른들을 보았읍니다. 어떤 이는 그의 부친께 축복을 했을 때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경험한 간증을 지니고 있었읍니다.

그들 형제 자매는 유혹과 악에 부딪혔으나 극복한 간증을 갖고 있읍니다. 형제는 가정을 준비하고 와드나 스테이크의 어떠한 직도 수락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형제는 중요합니다. 형제는 강화되고 영적으로 되어 여러분의 와드나 스테이크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여러분이 청소년들에게 기회만 부여해 준다면 그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는 비활동 회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형제는 문제를 가진 자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를 돕기를 노력합니다. 이것이 한 형제의 집단입니다.

나는 군인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우리는 한국과 오오사카에 얼마간 머물면서 그곳의 많은 청년을 만났고 그들은 교회에서 놀라운 사업을 행하고 있었읍니다.

내가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들에게 말씀할 때, 24세인 사람은 모두 일어서라고 말했읍니다. 요셉 스미스가 그 나이에 교회를 조직하였기 때문입니다. 5명이 일어났읍니다. 나는 그들 중 한 명을 나오게 하고, 그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 동기와 간증을 말해 주도록 부탁하였읍니다. 그는 그가 월남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거기서 몇몇 우리 젊은이들을 만났는데 그들 중 한 명이 특별히 복음대로 생활하고 복음을 가르쳤다고 했읍니다. 결국 이 청년은 교회 회원이 되었읍니다. 그는 이로 인해 그의 생활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를 설명하였읍니다. 그가 전에 행한 것을 회개한 과정과 그가 어떻게 하여 생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었나를 말해 주었읍니다. 그리고 나는 나머지 네 명에게도 부탁하였읍니다. 두 명은 군대에 있을 동안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읍니다. 군에 복무하면서 헌신적이고, 복음에 대한 간증을 지니고, 복음대로 생활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용기가 있으며 간증을 전하는 젊은 군인이 보여준 결과를 볼 수 있는 감동적인 경험이었읍니다. 스테이크나 선교부에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여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게 되는가를 보는 것도 감동적인 경험이었읍니다. 한 개종자는 대학교수였읍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상인이었읍니다. 유명한 의사가 두 명 있었으며, 그중 한 명은 심장 전문 외과의였읍니다. 이들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 청년들의 사업을 찬양하고 그들이 교회에 속한 이래 복음에서 얻은 위대한 일에 관한 간증을 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겸손하여졌읍니다.

나는 각 선교부와 스테이크에 있는 지도자들에게서 큰 감명을 받았읍니다.

나는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에게 청년들이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부여해 주도록 간청합니다.

또 젊은이들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공부, 헌신과 경험은 여러분이 주님의 사업을 할 때 진정한 봉사를 하도록 준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서 시험받고 간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권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여러분의 의무를 마쳤다고 생각하거나 의무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사업을 하는 가운데 보다 나은 봉사를 하도록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봉사할 기회를 찾고 받아들이십시오. 비개종자인 옛날의 친구와 사귀기를 삼가하십시오. 모범을 보이십시오. 청소년으로 하여금 선교 사업이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을 깨닫게 하고 결코 그들을 낙담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귀환하였을 때 와드나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여러분을 존경하며, 여러분에게서 훌륭한 점을 기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옳게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국가를 위한 봉사에 있어서나, 주님을 위한 봉사에서나 봉사를 할 때 함께 봉사하는 사람의 생활에서 영향을 받은 것만큼,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이러한 청년들을 격려하여 선교사업과 신전 결혼과 교회의 신앙깊은 회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악과 유혹을 극복하도록 도와 주고, 그들이 소유한 신권에 감사하도록 하고 지도자를 지지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귀환한 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신권을 발전시키십시오. 서로서로 존경하고 격려하십시오. 결코 유혹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는 한 여성과 미덕을 존경하십시오. 낙담시키거나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활동적으로 계속할 때, 여러분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성공적이고 존경받게 되며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큰 성공과 행복과 만족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활동적이라면 학업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게 되며,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큰 회사의 지도자가 어떤 날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그는 현재 정부를 대표하고 있고, 제재 공업에서 매우 성공한 기업가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어떤 직에 채용할 사람을 응모했읍니다. 많은 응모자가 있었읍니다. 우리는 그들중 10명을 선발하고, 이 10명을 두고 깊이 생각한 끝에 우리는 그중 한 명이 당신 교회의 회원임을 주목하고, 그를 바로 그 직에 채용하였읍니다."

저는, "왜 그를 채용하셨읍니까"라고 물었읍니다.

그는, "우리는 그가 밤을 새우며 술

을 마시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그에게 안심하고 책임을 맡길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그가 부과된 일을 완수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라고 말했읍니다. 저는 우리의 청년들이 모두 이 사실이 진실임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생각했읍니다.

나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제가 지역 대표에게 읽어 드렸던 편지를 읽어 드리겠읍니다. 나는 적어도 이중 일부를 읽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국 선교부에 머무는 동안, 선교부장이 저에게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하는 것과 연관되는 그들이 지닌 문제에 관해 말했읍니다. 청년들이 도착한 후에도 감독이 2, 3개월 동안에 회원 기록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였읍니다. 그는 우리 군인들이 군대에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사실상 그들은 의기소침하고, 외롭고, 또한 군대 주둔지에는 많은 매춘부가 있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저에게 사실상 이들 군인은 매춘부와 동거하는 자가 흔하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나에게 그다지 활동적이 아니었던 한 제사가 외로와서 마침내 매춘부와의 관계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했읍니다. 그러자 복음대로 생활하고 접촉하는 이러한 청년들을 구원하기를 노력하던 한 몰몬 청년이 그와 함께 일했읍니다. 마침내 그로 하여금 교회의 가치를 인식하게 해 주고, 그의 행위를 회개하도록 했으며, 주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가 될 때까지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였읍니다. 그리고 선교부장은 그가 도착했을 때 즉시 선교부장이 그를 찾아 도와 주었더라면 아마 이런 비극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 대한 경험과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어떤 사람이 그들과 만나거나 함께 일하고, 그들에게 우정과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얻은 간증과 그 곳에서 그렇게도 만연되는 유혹을 견딜 수 있었다고 간증하는지를 말해 주었읍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감독과 스테크 부장 여러분, 청년들이 가정을 떠나 학교에 진학할 때 여러분은 대학교나 대학에서 가장 가까운 와드나 지부에 회원 기록과 그에 관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항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그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제발 이 청년의 보호를 위해 여러분은 부지런하고 예리한 관심을 기울여 군대에 입대한 이 청년을 구원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에 관해 말하자면, 귀환했을 때나, 선교 사업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영향을 느껴지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선교사로부터 돌아오면 실직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귀환 시기를 압니다. 그들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십시오. 저는 이러한 몇 가지 사례를 들은 적이 있읍니다. 한 가지는 바로 지난 주에 들었읍니다. 한 어머니가 저에게, "제 아들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하였읍니다. 그는 와드에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읍니다. 감독은 그에게 '잘 있었나, 자네가 돌아와 반갑네.' 하는 인사 이상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읍니다.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쏟지 않았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는 그 아들이 교회에 관해 계속 흥미를 갖고 활동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했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군대나 학교,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감독에게 보고하고 봉사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또한 감독 여러분, 나는 이 청년들이 여러분의 와드를 떠날 때, 여러분은 학교와 대학, 군대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을 찾아 도와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록을 보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한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이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의와 그들을 격려하여 그들이 문제를 지니고 있는가를 알아 보도록 접근하십시오. 하나님의 신권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행동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임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을 현명하게, 겸손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1972년 4월 대회 말씀

—제 142 연차대회 보고—

1972년 4월 8일 토요일 오전 모임 말씀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영원한 목표와 생애에서의 지엽적인 목표를 구별하는 것을 배움

몇 주 전 영국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나는 기차 여행을 할 기회를 가졌읍니다. 날씨나 일정으로 보아 기차가 가장 바람직한 교통편이었읍니다.

기차를 타고 맨체스터에서 레스터로 가던 어느 날 한 시간 반 동안 독서를 한 후 나는 책을 놓고 창 밖을 바라보면서 정거장에 가까이 이르렀을까 하고 궁금히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잠시 후 객실 문이 열리더니 차장이 들어왔읍니다. 그는 내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라고 물으며 인사를 했읍니다.

나는 도착과 출발과 정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레스터에 볼일이 있읍니다"라고 대답했읍니다.

내 말을 듣고 차장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10분 후면 목적지에 도착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 기차표를 확인한 다음 다른 사람들의 표를 확인하러 내 곁을 떠났읍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10분 후면 목적지에 도착됩니다"라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읍니다. 그는 기차가 정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릴 때마다 그들이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읍니다. 분명히 그는 수년 동안 승객들에게 그렇게 말해 오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차장은 그렇게 말하였지만 나는 계간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레스터에 2일간 머물러야 했으나 그곳이 나의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 외에 영국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 정차를 하였지만 그곳도 역시 나의 목적지는 아니었읍니다. 그곳들은 모두 도중에 내가 들러야 할 곳이었읍니다, 그러한 곳들 가운데 어느 곳에 도착하였어도 나의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아니었읍니다.

이러한 기차 여행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수년에 걸쳐 행한 이에 대한 생각 때문에 나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목적지와 도착과 정지와 부름과 정거장과 임무로 점철된 인생 여로에서 혼란에 빠져 있음을 염려하고 있읍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가 도착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관찰한 바를 말씀드리고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의 테두리 안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신전에 갈 때 목적지에 도착한 것입니까? 신전 결혼이 여러분의 목적지입니까? 수년 동안 나는 많은 젊은이가 "신전에 가도록 준비하는 것이 소원이지. 신전 결혼이 내 목표거든"하고 말하는 것을 들어 왔읍니다.

어떤 사람이 신전에 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것은 숭고한 야망이요, 가치있는 성취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전 결혼의 영원한 목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가 신전 결혼과 같이 숭고한 이상과 목표를 하나의 수단으로가 아니라 목적으로 삼을 때 가끔 우리의 생애는 진정으로 어려움에 부딪칠 때가 있읍니다. 만일 우리가 도착의 침체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우선 순위의 전부는 영원의 견지에 입각해서 올바르게 그 중요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 분이 루이스 제이 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순간을 포착하여 그것을 영원의 표적으로 삼기 위해 검토하는 것은 가장 숭고한 성취의 하나입니다." 해의 왕국의 결혼을 한 후 승영을 얻으려면 끊임없이 헌신하고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의 도착 상태가 아니라 영원한 진보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 여러분의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겠읍니까? 여러분이 선교사 임기를 명예롭게 마쳤을 때 여러분의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겠읍니까? 우리는 선교사 임기를 명예롭게 마치는 것은 인생 여로에서 이룩하는 주요 성취의 하나임을 분명히 말할 수가 있읍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봉사를 보다 많이 행하고 개인의 힘을 강화하는 데 주요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계속 걷고 있는 선교사의 발을 보다 강하게 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정결한 경건을 갖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야고보서 1 : 27)

선교사 임기 중 마지막 6개월 동안 매우 분주하게 전도하면서 어려운 일에 부딪친 한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는 선교부장 보조를 역임한 후에 선임 동반자로 어느 지방부에서 봉사하도록 지명받았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내가 선교부장의 보조라는 높은 직책을 맡았을 때 나의 목표에 도달했읍니다." 그는 자신이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생각했으므로 잠시 동안 그의 유능한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읍니다.

한 선교사가 명예로운 해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깨달을 때 그의 생애에서 바로 그 날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날이 됩니다. 과거에 봉사했든 또는 현재 봉사하고 있든 개의치 아니하고 모든 선교사에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교회를 위해 2년을 바

쳤읍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위험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빕니다. 만일 귀환 선교사가 생을 위하여 자신이 바라는 목표를 보다 높게 둔다면 일반적으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적절한 단계를 밟을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이기심을 갖지 않고 봉사할 뿐 아니라 진리의 길을 계속 걸으며 오늘날 행하여지고 있는 영원한 진보에 대비하여 스스로 준비를 갖춘다면 2년간의 선교사 임기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될 수 있읍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요한 3서 4절)

우리는 기쁨이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데서 맛볼 수 있는 것이지 도착을 기대하는 데서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성신을 통하여 주어지는 계시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하다는 간증을 얻을 때 여러분의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겠읍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얻을 때 마치 목적지에 도달한 것처럼 생각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고는 슬픈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같은 지식과 확신 곧 간증을 끊임없는 헌신과 봉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못할 때 바로 그날은 그의 생애에서 참으로 슬픈 날이 아닐 수 없읍니다. 간증이란 다른 사람과 나눌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간증을 얻게 되면 세상에 이 주님의 사업에 대한 간증을 전할 책임이 수반됩니다. 간증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지 곧 목표는 아닙니다. 간증이란 임무 수행을 위해 소유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읍니다.

여러분이 침례받을 때, 장로나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이나 상호부조회 역원이나 칠십인이나 사도가 될 때 여러분은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겠읍니까? 임무 수행과 봉사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모두 분명하게 아니오! 라고 이 질문에 대답하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과거의 어느 때보다 더욱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읍니다. 사탄은 교활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읍니다. 그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쓰고 있는 가장 교활하고 효과적인 도구의 하나는 바로 우리 중의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이 도착하였으며, 그들이 그들의 목적지에 닿았으며, 그들이 휴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않으며, 그들이 위험에서 벗어나 있으며, 그들이 유혹의 영향권에 있지 않으며,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성취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탄은 저들을 감언 이설로 꾀어 인도해 나가며 드디어는 저희 영육을 지옥으로 빠뜨려 버리나니 이같이 사탄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느니라.

"이같이 사탄은 인간의 영육을 멸망시키려고 이 세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니라."(교리와 성약 10 : 26—27)

내가 최근에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이래 수년 전에 돌아가신 부친의 친구 중 몇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네 부친은 틀림없이 네가 부름받은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미소를 지으실텐데." 나는 이 말에 대해 가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곤 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아버지께서는 시간의 여유를 갖고 다음과 같이 조언해 주실 거야. '애쉬튼, 넌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네 목적지에 닿지 않았단 말이야. 네 앞에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단다. 네가 받은 큰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써 합당하게 생활하거라.'"

나는 오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총관리 역원인 나의 동료되시는 분들께 내게 대한 그분들의 신뢰와 도움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내가 가진 간절한 소망은 주님의 길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목적과 용기를 갖고 참된 길을 걷고 있는 한 선교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데니스 딘 장로가 애리조나 선교부에 도착했을 때 선교 지역을 방문하던 중이었읍니다. 그가 휠체어를 타고 예배당 복도를 지나 첫번 모임에 참석하였을 때 그는 모든 참석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영향력을 미쳤읍니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표정이 깃들어 있었읍니다.

그의 동료들은 곧 그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합당하며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이유를 알게 되었읍니다. 그가 우리 모두에게 이 선교 사업이 그의 생의 희망과 야망의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해 주던 그날의 그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뢰와 신임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나의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나를 측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주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메시지가 전해졌읍니다. 그날 늦게 그의 새로 지명된 동반자가 친절하게 내게로 다가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읍니다. "장로님께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선교사의 훌륭한 동반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겠읍니까?" 그날의 나머지 시간을 딘 장로와 보낸 후 나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형제님은 그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보다 일을 잘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많은 날 동안 치러야 할 진정한 시험은 그에게가 아니라 바로 형제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딘 장로는 훌륭한 선교부장과 동료 선교사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2년간 지방부 지도자로서 봉사하면서 수많은 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48명을 인도하여 침례를 받게 했읍니다. 지금은 데니스 형제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읍니다. 그는 현재 브리감 영 대학교 제 38와드에서 가정 복음 교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읍니다. 최근 그는 내 사무실을 다녀갔읍니다. 그날의 방문은 매우 인상적이었읍니다. 또 다시 나는 항상 활동하고 있는 이 훌륭한 청년, 그야말로 드물게 보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이 청년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우리가 계획과 목적지와 목표와 도착과 약속에 관하여 계속 곰곰이 생각하면 나의 친구 두 명에게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읍니다. 나의 친구 중 몇 분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곳에서 왔읍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내가 집으로 가기 전에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 전화 벨이 울렸읍니다. "애쉬튼 형제님, 교도소 당국으로부터 형제님을 방문해도 괜찮다는 승낙을 받았읍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읍니까?"

프랭크 형제가 왔읍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읍니다. "형제님, 이제 일 주일 후면 출감하게 되었군요. 어떤 계획을 세워 놓고 있읍니까? 어떤 일을 하실 작정입니까? 형제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읍니다. 내게는 아

파트가 있읍니다. 직장도 있구요. 아주 훌륭한 애인도 있읍니다. 학업을 계속 하겠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책임도 맡을 것입니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서른 두 살인데 겨우 교사 신권을 소유하고 있지요. 너무 오랜 시일이 지나기 전에 장로 신권을 받고 싶습니다."

그는 방문을 마치고 갈 때 이렇게 부탁했읍니다. "애쉬튼 형제님, 만일 제가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2, 3개월 후에 신전에 함께 가셔서 나의 결혼식을 집행하여 주시겠읍니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의 다른 이야기를 이 말과 비교하여 보십시오. 몇 개월 전 나는 면회 시간 동안 그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읍니다. 지금 생각이 납니다만 아무도 그에게 말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를 이야기할 상대로 택했던 것입니다.

"형제님은 여기서 나오면 어떤 일을 할 작정입니까?" 내가 물어 보았읍니다. 그는 "나의 소원은 여기를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나가고 싶을 뿐입니다"라고 언성을 높여 말했읍니다. 계획이나 목표나 목적이나 준비는 전혀 없었읍니다. 그의 절실한 소원은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그가 그 일을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영예롭게 선교사 임기를 마치는 일, 해의 왕국의 결혼, 훌륭한 간증, 교회의 주요 직책이 참된 말일성도가 생애에서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가 아님을 간증드립니다. 그러한 일들은 영원한 진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러한 일로써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충실한 말일성도의 생을 살 때만이 그러한 구원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네가 선을 행하고 또 끝까지 충실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이니, 구원의 은사보다 더 큰 것이 없음이라"(교성 6 : 13)

우리가 인생 여로를 계속 걸어감에 따라 기차 여행과 마찬가지로 생애의 여행에도 정거장이 있고 출발과 부름과 계획과 탈선과 방향 전환이 있음을 명심합시다. 구세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로 나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안전을 누리고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도 역시 영원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여행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읍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왕국에서의 승영이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 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사는 우리가 계속 충실히 생활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충실한 성도가 따라야 할 표준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성도들이 사회에서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지침

이 대회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요,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입니다. 나는 겸손히 감사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142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가 조직된 것을 기념하는 이 날에 여러분 앞에 서 있읍니다. 나는 대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하고서는 교회의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를 무척 좋아하며, 또한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인 주님의 사업에 대해 간증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지난 가을 고레스 대왕이 세운 바사 제국(페르샤 제국)의 개국 2,500주년 기념식에 페르샤 왕의 국빈으로 교회를 대표하여 참석해 달라는 초청을 연합 종교 조직의 회장인 바론 폰 블롬베르그씨로부터 받았읍니다. 초청을 수락하라는 대관장단의 권고에 따라 나는 이란에서 개최되는 이 유서깊은 기념식에 참석하는 27개의 종교 대표, 50명의 국왕, 기타 저명 인사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10월 연차 대회 직후에 떠났읍니다.

고레스 왕은 그리스도 탄생 전 500여년을 살았으며, 역대하와 에스라서에 언급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언자 에스겔과 이사야와 다니엘이 행한 구약성서의 예언과 관련하여 언급되어 있읍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대하 36 : 22) 주신 경위가 기록되어 있읍니다. 고레스 왕은 속박된 히브리인들에게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회복하여 주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었으며, 여호와의 성전을 건립하도록 명령했읍니다.

팔리 피 프랫 장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고레스 왕이 지닌 것과 같은 담대성, 용기, 절제, 인내심, 그리고 관용"을 소유한 분이었다고 묘사했읍니다. (팔리 피 프랫 자서전 〔데저렛 출판사, 1938년〕, 46페이지)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나는 왕위에 오른 고대 왕들 가운데 어느 의미에서는 오늘날 말일성도들 못지 않게 이와 같은 원리와 법률을 실시하는 것을 매우 중시한 왕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번 생각해 보았읍니다. 나는 하나의 본보기로 고레스 왕을 들겠읍니다. ……고레스 왕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의 생애를 추적해 보고는 마치 그는 모든 일을 영감을 받아 행한 것같이 보였읍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다른 기독교 나라나 기독교 국왕을 지지해 줄 절제심과 덕성을 갖추었읍니다……그는 이러한 원

리를 많이 따랐읍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러한 원리 중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왔읍니다."(설교집, 22권, 207페이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상의 인간들, 특히 훌륭한 사람들을 도구로 쓰시어 그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오늘날에도 그러하며, 또한 미래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을 역임한 분으로 작고한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의 교회를 돕기 위해 그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들은 교회의 보조 조직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주님이 그들을 놓아 두신 곳에서 대업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더 많이 행할 수가 있읍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우리로 인도되어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으나 반면에 개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이는 복음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현명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그들의 시야를 베일로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위대하고 기이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백성이 아니라 여러 백성을 쓰고 계십니다. 말일성도만이 그 일을 전부 행할 수는 없읍니다. 그 사업은 어느 한 백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힘겨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의 일을 돕는 자들입니다."(대회 보고, 1928년 4월, 59페이지)

이것은 절박한 곤경에 처한 말일성도들의 진정한 친구였던 토마스 엘 케인 대령의 경우에도 틀림없이 그러하였읍니다. 또한 이것은 자기의 상관으로부터 요셉 스미스를 총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한 알렉산더 더블류 도니판 장군의 경우에도 그러하였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것은 냉혹한 살인 행위입니다. 나는 귀하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읍니다. ……만약 귀하가 이들을 처형한다면 나는 법정에서 귀하께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굽어 살피시옵소서!"(조셉 필딩 스미스, 교회 약사, 241페이지)

올바른 원리를 위해 이러한 동조자들이 바치는 헌신이 세상의 인기나 당이나 인물에게 행하는 그들의 충성을 가리워 주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미국 헌법 제정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국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으며, 그들을 "현명한 자"라고 부르셨읍니다. (교성 101 : 80 참조) 대관장단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의 전통에 어긋나지 않게 미국 헌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입후보자를 지지하라는 지침을 몇 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러한 지혜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데저렛 뉴스, 1964년 11월 2일)

주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눅 16 : 8)고 말씀하셨읍니다.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대부분의 우리보다 우리의 경전에 기록된 다음 말씀을 더 잘 이해하였던 것 같습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사소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생각하자마자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천성과 기질이 있도다."(교성 121 : 39)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미국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들이 일정한 원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권능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간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헌법의 구속력으로써 인간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현명한 헌법 제정자들, 다시 말해서 미국 헌법 제정자들인 우리의 동조자들은 주님이 미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하여 놓으신 규정을 우리가 따를 때 얻게 되는 축복을 대부분의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법률에 관하여 말하건대 이에서 더하거나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악마로부터 나오는 것이니라."(교성 98 : 7)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였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도록 해 주신 헌법에 의존하고, 육신의 권세에는 의지하지 않았읍니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오 주여, 내가 당신께 의지하여 왔으며, 영원토록 당신을 삽기겠나이다. ……내가 육신의 권세를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인간을 의지하거나 육신을 저의 권세로 삼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나이다."(니이 4 : 34)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그것을 잘 설명하였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 나라에서 우리의 정치적 충성이 어느 개인에게, 다시 말해서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정부 관리에게 기울어지는 경향이 없게 하셨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미국 국민이 미합중국의 시민이나 거주자로서 행해야 할 유일한 충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여 주신 영감받은 미국 헌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관리로 임명되는 자들도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선서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맡은 직책을 존중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가 시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충성을 바쳐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에 대한 충성이 행해지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읍니다. 헌법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이 원리는 우리의 자유에 기본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자유의 나라'를 다른 나라들과 구별을 지어 주는 훌륭한 원리의 하나입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40년 7월호, 444페이지)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애국심이란 나라를 지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나 기타 정부 관리를 지지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스스로 나라를 지지하는 것은 예외로 생각해야 합니다. ……

"'공화국을 위해 봉사하는 한'이라는 단서를 덧붙이지 아니하고 앵무새처럼 '대통령을 지지합니다'라고 말하는 자는 모두 왕은 아무런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신조를 믿는 스튜어트 왕조 지지자들이 지닌 것과 똑같은 소심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지성을 갖춘 자유인으로서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디어도어 루즈벨트, 업적, 21권, 316, 321페이지) 그러나 말일성도들은 우리를 인도하는 정부 지도자를 위해 기도드리고 그들이 의롭게 권능을 행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하이람 스미스는, "악인에게 투표하는 것은 죄입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교회 정사, 6권, 323페이지)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완고한 로마 사람처럼 미합중국의 백성으로 하여금 입후보자의 공약이 관리가 된 후에도 실행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그 불행한 아첨꾼을 승영의 길에서 밖으로 내던져 버리게 하십시오……"(교회 정사, 6권, 207페이지)

요셉과 하이람은 '육체의 힘'(교성 1:19)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영원한 원리에 의지하였읍니다. "나는 지상에 제정되어 있는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위대한 변호인입니다"라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말했읍니다. (교회 정사, 6권, 56페이지)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이 다음과 같이 경고한 말씀은 시대에 가장 알맞은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미합중국의 백성이 만일 미국 헌법을 현재 가해지고 있는 위험한 영향력으로부터 구하지 못하면 정부가 바뀌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대회 보고, 1950년 4월, 159페이지)

이외에도 대관장단은 "어느 정당 출신자이든 자유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큰 위기를 깨닫고 있는 양심적인 훌륭한 입후보자를 지지하라"는 지침을 제시하여 주셨읍니다. (데져렛 뉴스, 1964년 11월 20일)

우리가 이같은 위기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의 저서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악과 대항하여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 투쟁에 도움이 되는 가장 훌륭한 지침서는 바로 몰몬경입니다.

이 경전은 나에게 성도를 위한 두번째 중요한 표준을 제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영감을 받아 제정된 헌법 이외에 우리에게는 경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몰몬경이 "우리 종교의 종석"이며, 지상에 있는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라고 말했읍니다. (교회 정사, 6권, 56페이지) 지상에서 가장 정확한 이 책은 미대륙의 두 개의 큰 민족이 백성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욕망을 가진 비밀 결사의 음모로 인하여 멸망당했음을 말해 줍니다. 모로나이는 "이러한 일들이 내가 말하는 백성들의 멸망을 불러 왔으며, 니파이 백성들을 멸망케 하였나니"(이더 8:21)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모로나이가 백성들의 멸망을 초래케 한 많은 요인을 지적하였을 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평화와 번영과 하나님의 사업의 팽창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를 지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어떻게 비밀 결사를 가려낼 수 있었는지를 말했읍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요소는 신앙이 없는 자들의 음모로 지적되었읍니다. 몰몬경에는 음모에 관한 이론이라고는 전혀 없읍니다. 다만 음모에 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로나이는 말일의 우리에게 이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너희가 이같은 일들을 볼 때에 너희 중에 있을 이러한 비밀 결사로 너희가 처참한 처지에 놓인 줄을 깨달아 알라 하시었느니라……"(이더 8:24)

또한 몰몬경은 다음과 같이 "어떤 나라라도 권력과 사욕을 얻고자 이러한 비밀 결사를 세워 좇을진대 저들이 온 나라에 퍼져 미치기 전에 보라, 저들은 멸망하리니……"(이더 8:22)라고 경고하고 있읍니다.

이 성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닥치게 될 일을 조심하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 세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악마의 많은 악한 일들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의 판결로 힘을 얻어 신앙이 없는 음모자들이 정부의 관직을 받기 위해 입후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고, 노조의 직책을 맡으며, 방위 산업체에서 일하고, 상선 등등에서 일할 수가 있읍니다. 거국적으로 우리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행해지는 많은 악한 혁명을 방조하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이 지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지상에 남아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초기의 성도들은 시온이 잭슨군에 세워질 것을 확신했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유혈과 지연을 초래하게 된 사실을 목격했읍니다.

클라크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읍니다. "우리는 자유를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읍니다. 우리가 한번 자유를 잃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으면 이 교회의 우리는 교회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희생과 박해를 이겨내야 합니다……"(대회 보고, 1944년, 116페이지)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만약 음모가 이 땅에 있게 되어 이것이 맹렬한 위세를 떨치게 될 때 이 나라 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까지도, 인도하고 지도하는 자들 가운데 많은 공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대회 보고, 1952년 4월)

성도들을 위한 세번째 위대한 시민의 표준은 특히 오늘날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대변자이신 예언자의 영감에 찬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휘관을 지켜보며 그의 영감에 찬 충고로써 낮은 권능을 지닌 자의 말씀을 판단합시다.

다음 이야기는 브리감 영 대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브리감 영 대관장이 마을로 말을 몰고 들어가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는 무심코 그에게 벽 두께를 배로 하라고 했읍니다. 그 사람은 영 대관장을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그의 계획을 바꾸어 벽을 배로 두껍게 했읍니다. 얼마 후에 그 마을에 홍수가 나서 많은 가옥이 파괴되었으나 이 사람의 벽은 파손되지 않았읍니다. 그는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라고 찬양했읍니다.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는 오직 그가 예언자로서 행동할 때만이 예언자입니다."(교회 정사, 5권, 265페이지)라고 하셨읍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그릇된 면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해 준다면 어떤 사람은 즉시 이 지도자를 반대하며 그의 조언을 무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먼저 충실한 성도들을 위한 네번째 위대한 시민의 표준을 적용할 것을 제언합니다. 그 네번째 표준은 성령의 인도를 얻기 위하여 생활하고 그것을 얻고 그것에 따르는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이 백성들이 너무나 지도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지도자가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되고 있는지 아닌지 질문해 보지 않

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속삭임에 의해서 그들의 지도자가 주님이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 알게 하십시오."(설교집, 9권 150페이지)

수년 전에 교회 정책을 나타내는 성명서로 말미암아 한 충실한 회원이 그가 공직을 담당할 자로서 잘못된 후보를 지지하지나 않나 하고 걱정했읍니다. 그는 겸손히 주님께 이 문제를 상의했읍니다. 주님의 영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는 특정한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었읍니다.

이 훌륭한 형제는 열렬한 기도로써 그가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모든 자에게 몰몬경을 읽고 이 책이 옳은지 하나님께 간구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신의 권세로써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겠다는 약속은 참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 10 : 5)라고 말씀했읍니다.

우리는 성령의 끊임없는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만의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몰몬경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오 나의 백성들아,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너희로 그릇 행하게 하며 너희 길을 헐어 버리게 하니라"(니이 13 : 12)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조차도 굶주린 이리가 있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회원들 가운데 있읍니다. 그들은 신권의 예복을 입고 있으므로 양의 탈을 쓴 이리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대회 보고, 1949년 4월, 163페이지)

만일 우리가 현명하지 못하여 미혹을 당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지혜로워서 진리를 받아들이며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속지 아니한 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리워 불 속에 던지우지 아니하고 그날을 견딜 것이요"(교성 45 : 57)

충실한 성도가 따라야 할 네 가지 주요 표준은 첫째 현명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헌법이요, 둘째 경전이요, 특히 몰몬경이며, 세째 예언자의 영감받은 권고요, 특히 살아있는 예언자의 권고요, 네째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표준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빕니다. 나는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이 참된 것이라는 간증을 드릴 때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선교사와 그가 전하는 메시지

휴 비 브라운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보인 개인적인 인내심의 예

선교사나 선교 사업에 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를 해 왔읍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사에서 첫번째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이제 나는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68년전의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어떤 집을 수차 방문하였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말라는 경고도 받았으나 그래도 자꾸 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읍니다. 그 집 앞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자꾸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했읍니다. 나는 집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노크를 하였읍니다. 나는 방 앞에서 뜨게질을 하는 여인을 볼 수가 있었으며 그래서 그녀가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큰 소리로 문을 두들겼읍니다. 그녀는 나오지 않았읍니다. 나는 돌아서 뒷문쪽으로 갔읍니다. 뒷문에는 두들길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집안 사람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를 내었읍니다.

곧 그녀가 나왔는데, 나는 그녀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둥우리에 앉은 암탉을 강제로 괴롭히며 쫓아내던 일이 생각났읍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계시리라고 믿읍니다.) 여러분께서는 둥우리에 앉은 닭을 쫓으면 날개를 펴고 꽥꽥거리며 아무 곳으로나 막 날아가는 모습을 생각하실 수 있을텐데, 나는 이 여자를 보고 바로 그러한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나는 사과를 드리고 "방해를 하면서까지 만나 뵙자구 그래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자매님, 저는 하나님께서 자매님이 알기를 심히 원하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육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이곳을 찾아왔읍니다. 주님께서는 자매님께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읍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저는 캐나다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는 주님께서 자매님께서 알기 바라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하며 말을 시작했읍니다. 그녀는 "주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당신을 보내셨단 말입니까?" 하며 물었읍니다.

나는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저를 자매님께 보내셨읍니다." 라고 대답했읍니다.

나는 그녀에게 복음의 회복, 교회의 조직, 회복된 소식 등을 설명해 주었읍니다. 그녀는 내가 말한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았읍니다. 나는 그 집을 떠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읍니다. "폐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 저에게 주어진 임무와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 자매님께서는 '우리 집 뒷문으로 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떠나게 돼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읍니다. 저는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선교부를 찾아가서 소책자를 얻어 연구하고 가족과 함께 교회의 회원이 되었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십 년 후에 나는 군인으로서 다시 영국을 가게 되었는데 어느 모임이 끝났을 때 한 부인이 성장한 두 딸을 데리

고 내게 다가왔읍니다. 그녀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저는 오래전에 메시지를 가지고 저를 찾아 주신 형제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와 딸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얼마 후엔 유타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형제님께서 거룩한 메시지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저에게 남겨 주신 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께 이 사업의 거룩함을 증거합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읍니다. 나는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그들을 지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과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전세계가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지상에서 이루고자 한 위대한 사업을 수행할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러한 간증을 드리며 축복을 간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한 여러분과 저의 말씀을 듣는 분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이 사업의 정신을 이해하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증과 메시지와 기도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1972년 4월 8일 토요일 오후 모임 말씀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생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준비시킴으로써 인류에게 끼치는 유익

누군가가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나는 나의 이야기를 교회와 교통을 하고 있지 않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일단 교회의 회원이기는 하지만 접촉이 끊어진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고, 고집이 세고 철학적인 대답을 듣기 원하며 묘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 하겠읍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교회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형제애를 가져옵니다.

모든 사람은 다같이 형제애에 굶주리고 있읍니다. 이로 인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집에도 가고 조합이라든가 클럽 등등의 조직에 나가곤 합니다. 물론 이런 곳에서 다소 도움을 얻기는 하지만 이것은 형제애나 하나님의 신권의 유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세계 각처에서 모인 여러 가지 재능을 소유한 신권 소유자를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아 서로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신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이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 : 31—32)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신권 조직 정원회의 목적이라 할 수 있으니 서로서로를 굳게 하고 서로가 발전하고 성장할 기회를 열어 주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지방의 교회 지도자가 나를 찾아왔읍니다. 그는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웃에 사는 사람이 이혼을 하려는데 도움을 청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찾아온 그 남자는 결혼 생활이 심각하게 이미 빗나갔다고 했읍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도저히 그의 수입으로 생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미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제는 조금도 더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읍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함께 숙의했고 결국 그 형제가 속한 신권 정원회의 형제 세 사람을 특별히 불러서 그 형제와 함께 문제를 타결해 보도록 지시를 내리기로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 세 사람은 변호사, 은행가, 계리사였읍니다. 문제의 부부는 자기들의 문제를 위임받은 이 세 형제의 손에 맡기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자기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으로 쌓은 풍부한 지혜로 일에 임했읍니다. 이들은 채권자들에게 양해를 얻어 당분간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었읍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은 기울어 있었지만 노련한 형제들이 오직 돕겠다는 굳은 결의로 일해 갔읍니다.

헝클어졌던 일에는 질서가 확립되었고 가정에는 평화가 회복되었읍니다. 가정에는 새로운 안정이 깃들기 시작했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전에는 표시하지 않았던 깊은 존경의 표시를 하게 되었읍니다. 이삼 년이 지나고 나서 모든 채무는 완전히 정리되었읍니다. 아울러 그 남편과 아내는 가정을 올바로 관리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인에게 이렇게 전했읍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롬 15 : 1) 바로 이것이 위대한 형제애의 정신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스러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서

로 약한 점을 자기의 강한 것으로 메구어 준다는 것 말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은 필요한 경우 사람이 자기의 생활 주변을 청산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을 받고 선한 사람들과 유대를 나눔으로써 여러 해 동안 자기를 결박했던 못된 버릇을 고치게 된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 왔읍니다.

몇 년 전 히로시마에서 사업을 하는 일본 사람과, 불과 짧은 시간에 약 85,000명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1945년 8월 6일의 사건을 기록한 진혼비 앞에 함께 자리를 같이했던 일이 있읍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일본의 군인이었으며 그러한 그의 경력 때문에 미국인이면 누구든지 증오하게 되었다고 했읍니다.

하루는 우리 교회의 선교사들이 그 집 문을 두드렸읍니다. 그때 그 사람은 우리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해 있었읍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고 오직 술에만 의존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는 것도 모르고 다음번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읍니다. 그후 몇 주가 지나고 나서 그는 침례를 받기에 이르렀읍니다.

그의 개종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 의식을 갖게 해 주었고 나쁜 버릇을 청산하고 완전히 새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읍니다. 그는 자기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불어넣어 준 젊은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당시 그는 지부장단의 일원이요 활동적인 장로 정원회의 역원으로 봉사하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그 형제와 같은 경우가 수천 번 반복되는 현상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야 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인간에게 자기의 삶을 개척하게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보다 더 큰 힘은 없읍니다.

세째, 교회의 활동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을 통하여 여러분을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가 봉사함으로써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인식만큼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조직체가 있지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지도력을 양성시키는 가장 훌륭한 학교입니다. 나는 세상 여러 처소에서 우리의 젊은 선교사들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했읍니다. "여러분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나 주님의 전 재산입니다." 참으로 기적적으로 이들 젊은이들은 봉사하는 가운데 그 능력에 있어서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이 진전되어야 한다면 그 일은 여러분이나 나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 맡아 주어야 할 일과 직책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빈 자리는 있는 대로 다 채워져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직책을 맡아 봉사함으로써 교회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 강력하고 능력있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군에 근무하다가 교회에 입교한 어떤 형제와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읍니다. 어떤 주일에 그는 신전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결국은 침례를 받았읍니다.

그후 사오 년이 지난 다음 나는 그를 장로 정원회의 회장으로 접견했읍니다. 그는 이리저리 방황하던 고아였던 그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내게 들려 주었읍니다. 삶에 지친 외로왔던 그때의 심정과 교육이라고는 생각도 못하던 캄캄하던 그때의 실정을 들려 주었읍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성장이란 것이 그에게는 막혀 있었읍니다. 그러다가 그는 교회에 왔고 하나 둘 직책을 맡아 일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점차적으로 큰 일을 맡아 보면서 그의 능력은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아주 큰 임무를 맡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변경되었읍니다. 오늘날 그는 교회의 역원이요, 당당한 사회의 일꾼이요, 훌륭한 남편이요, 모범적인 아버지요, 선량한 이웃인 것입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인간은 자기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을 잡아야 한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장은 어쩌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것을 움켜 잡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실현됩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의 특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보다 높은 곳에 있는 목표에 도달하려는 요구를 갖도록 이끈다는 점입니다.

네째, 교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의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삶의 새로운 영역인 영적인 면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반석과 같은 신앙을 지니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은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복음의 이유 중의 하나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는"(교성 1 : 20) 것이라고 하셨읍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고 또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동반할 수 있는 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벨사살 왕이 친구들을 모두 불러 향연을 베풀던 밤에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 벽에 글을 썼읍니다. 그리하여 마술사와 온갖 요술장이들이 불려 나왔으나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고 이로써 왕은 크게 당황하게 되었읍니다.

그때에 여왕이 이렇게 말했읍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단 5 : 11)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 왔읍니다. 그는 벽에 쓰인 글을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신권 소유자에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만큼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활동 회원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면을 열어 줄 것이며 이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을 복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이 교회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는 데 크게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한 나라 안에 아내를 영원한 동반자로 대우하고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펴는 일에 조력하며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이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남편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가정의 수가 많을 때 그 나라의 국력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 마음의 자세가 곧 행위로 연결될 것이며 복음의 원리로 가정을 다스리

는 가정에는 상호 이해와 존경과 사랑과 예절과 감사가 존재할 것이며 가장인 아버지는 자기에게 부양권이 있는 가족을 아끼고 보호하고 먹이는 일을 크나큰 축복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에 개종해 온 형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아버지로서 나는 자식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읍니다. 조금만 규율을 어겨도 곧 육체적인 벌을 가했읍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전달되었읍니다. 나는 자녀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읍니다. 저들은 물론 저의 자식들이었읍니다만 아울러 영원하신 아버지의 자녀였읍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겠읍니까? 나는 자녀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으며 저들도 완전히 새로운 몸가짐으로 나를 대했읍니다.

"우리 가정에 규율이 있느냐고요? 예, 물론 있읍니다. 그러나 종류가 좀 다르지요. 우리는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제재와 벌도 있기는 하지만 잘못 처리되던 예전의 것과는 전혀 다른, 말하자면 쌍방이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형태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뒤를 이었읍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질 때 놀라운 변화가 오는 겁니다."

끝으로 교회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연결해 줍니다.

이 세상에는 가족의 관계보다 더 성스럽고 만족스러우며 중요한 관계는 없읍니다. 그렇다면 일반 결혼식에서 늘 사용하는 "그대들이 죽을 때까지"란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러한 형태의 결혼이 있으므로 죽음으로 종결되는 그러한 작별과 이별이 이 세상에는 있읍니다. 영원한 사랑이 없는 영원한 삶을 생각한다는 것은 상반되는 논리의 주장이며 불합리한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를 위하여 성스러운 가족 관계를 위한 법을 제정해 주셨읍니다. 주는 그가 택하신 열 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 : 19)

바로 이 권세, 땅에서 맬 때 하늘에서 매이는 이 권세가 오늘날 이 땅에 있읍니다. 신전에서는 하나님의 신권의 능력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를 성약의 가족으로 매어 비록 사망이라 할지라도 이를 파괴하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느 명사의 장례식에 가서 이야기를 전할 기회가 있었읍니다. 물론 애도의 물결이 출렁이는 분위기였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을 재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읍니다. 미망인과 자녀들의 눈물 뒤로는 그 가정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던 분이 잠시 이별을 하고 재결합의 준비를 위해 먼저 가셨다는 확신이 보였으며 그 확신이 저들에게 안도와 평화를 허가했읍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나는 우리 교회의 회원이 아닌 실업계의 지도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읍니다. "당신네들의 그 긍정적인 삶의 자세에서 감명받은 바 큽니다. 당신은 위로하려 오셨고 통곡하러 오시지 않았으며—죽음을 원망하지 않고 생을 찬양하러 오셨읍니다."

교회는 과연 여러분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읍니까? 사망이 오직 하나의 과정임을 확신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몹시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한 여러분의 가족임을 확신하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여러 곳에 계신 우리의 형제 여러분, 그리고 방황하다가 떨어져 나갔거나 아직 우리 교회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께 한번 우리에게로 오실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살지게 하시려고 이 땅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가져오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을 불어 넣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으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한 여러분의 가족임을 확신하게 해 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읍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문은 열려 있읍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을 것이며 여러분은 여러분을 도우려는 훌륭한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전에는 알지 못하던 기쁨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약속합니다.

겸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선 생 님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소년 시절에 체험한 인상적인 교훈이 참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나머지 시간을 재어 보고 나는 준비해 온 원고를 접어 안 주머니에 넣었읍니다. 잠시 시간을 빌어 내가 소년 시절에 체험했던 인상적인 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오후에 청소년을 헌신적으로 맡아서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 여러분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읍니다.

어느 여름 날 이른 아침이었읍니다. 마침 나는 창가에 서 있었읍니다. 나는 커텐이 열린 틈으로 잔디밭에 내려 앉은 새 두 마리를 보았읍니다. 한 마리는 좀 큰 놈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방금 새 둥지에서 나온 것 같은 작은 새였읍니다. 나는 큰 새가 잔디밭 위를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 놈은 잔디밭에 머리를 깊숙히 박았읍니다. 그러더니 커다란 벌레 한 마리를 입에 물고 똑바로 서는 것이었읍니다. 작은 새는 작은 입을 있는 대로 벌렸읍니다. 그 큰 새는 한번에 잡은 벌레를 삼켰읍니다.

그 다음에 나는 큰 새가 나뭇가지 위로 날아가 앉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는 나뭇가지의 썩은 부분을 한참

뒤지더니 커다란 풍뎅이를 한 마리 잡아 갖고 나타났읍니다. 작은 새는 다시 부리를 벌리고 기다렸지만 큰 새는 그 풍뎅이를 한 입에 삼켜 버리고 말았읍니다. 한동안 작은 새의 불평의 울음 소리가 들렸읍니다.

큰 새는 어디론가 날아가 다시는 눈에 뜨이지 않았읍니다. 나는 작은 새를 주시해 보았읍니다. 잠시 후에 작은 새는 잔디 위를 돌아다니며 발로 헤치더니 큰 벌레를 한마리 잡았읍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맡아 가르치시는 선하신 형제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빌겠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구했읍니다. 아멘.

1972년 4월 6일 목요일 오전 모임 말씀

교통의 통로를 확고히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대리

단절된 교통이 어떻게 죄와 잘못과 슬픔으로 이어지는가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거룩한 뜻을 간증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사명과 예언자와 여러 지도자의 사명에 관하여 간증을 드리는 일은 늘 두렵고도 벅찬 기쁨을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지난 대회 이래 이 세상을 떠나신 리차드 이반스 형제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원회에 아주 유망한 애쉬튼 형제를 연 두번째 형제로 맞아들였읍니다. 우리는 피터슨 형제와 페더스토운 형제가 총관리 역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일하며 새로운 직책을 맡으신 반덴버그 감독과 그의 두 보좌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쁨을 감사합니다.

때는 부활절의 시기요, ─예루살렘의 성 밖, 작은 정원, 그 비좁은 무덤, 거친 곳에서 있었던 거룩한 부활의 일을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살펴보는 때입니다. 부활은 이른 아침에 일어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읍니다.

그러한 일이 이전에는 이 지상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나 부활하신 주가 그 몸을 보이시고 그 손과 발에 남겨진 상처의 자리를 만져서 느끼면서도 주의 부활을 의심할 수가 있겠읍니까? 주를 가까이 하며 믿던 수백 명이 부활의 사실을 증거했읍니다.

이는 작은 마을의 구유에서 나신 나사렛 예수요, 요단 강에서 침례받으시고 골고다 산에 달리시며 언덕 위 바위 무덤에 뉘어지시고 무덤 근처 정원에 부활한 몸으로 서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가 겪으신 고난과 그의 위대한 희생은 우리가 그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별로 의미가 없읍니다……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 하느냐"(눅 6 : 46)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요 14 : 15)

우리가 주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는 주님과의 교통과 대화를 잃읍니다.

우리는 남 아메리카에서 이러한 교통 두절의 상태를 본 일이 있읍니다.

알젠틴의 서북 변방 지대를 여행하고 있었읍니다. 목장 지대였읍니다. 길은 곧고 좁은 채로 끝없이 연결되어 있었고 길 양편으로는 철조망이 늘어서 있었읍니다. 그 나란히 연결된 철조망과 함께 세상의 통신을 위한 전화줄을 연결한 전주가 나란히 서 있었읍니다.

그 전주 하나하나 위에는 막대기가 가로 질려져 있고 그 곳에 전화줄이 연결되어 있었읍니다.

그렇게 길을 계속해서 달리다가 무성한 목초가 불에 타버린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그곳에는 전주가 불에 타서 밑이 온통 숯덩이가 되어 있었읍니다. 누군가가 차를 타고 달리면서 담배 꽁초를 차창 밖으로 던진 모양입니다. 그것이 목초에 인화되어 전화 통신은 두절되고 만 것입니다.

그 근처의 전주는 모두 그 모양으로 불에 그슬려 있었읍니다. 그 중에는 밑부분은 타서 없어졌지만 윗부분과 줄이 양쪽 전주에 의지하여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도 있었읍니다. 이렇게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부분이 바람이 불 때마다 지면을 건드리게 되고 그럴 때마다 전선에는 공전 상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어진 부분을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읍니다.

나는 그때 그 전화선과 전주가 사람의 경우와 흡사하다고 생각했읍니다. 단단하게 서서 전선의 하중을 지탱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지를 못해서 늘어져 흔들거리다가 교통의 불편이나 단절을 초래하고 맙니다.

대개의 원만치 못한 결혼의 경우 그 문제점이 상호 교통의 결여에 기인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으로 배웠읍니다. 줄은 처지고 전주가 탔으며, 남편과 아내는 불화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어야 할 곳에 황량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조화가 있어야 할 곳에 불신과 증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 문제 부부의 경우, 이들은 영원한 결혼의 불과 수 삼 년을 생활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전에서 나눈 성약의 자녀 둘이 있을 뿐입니다. 이 두 아이를 두고 이제 둘이 저마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관은 특히 영적인 것과는(다른 많은 것과도) 연결되지 않는 것이었읍니다. 하나는 다른 상대가 광적이라고 부르려는 그런 길을 고집했고 다른 하나는 또 상대가 배도라고 지적하는 그런 삶을 고집했읍니다만 둘 다 틀린 길이었읍니다.

이들은 함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점점 의도했던 타협점에서는 먼 이야기로 발전을 시켰읍니다. 두 사람 모두 근본적으로는 선한 사람들이었읍니다만 불타지 않은 전주와 성한, 늘어지지 않은 대화의 전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합

당한, 사리에 따른 그런 대화의 결핍이 마침내는 분노와 거친 언사와 오해를 유발시켰읍니다.

상호 이해와 관용과 위안의 대화가 있어야 할 곳에 전혀 엉뚱한 것을 두게 된 상호 불신과 불경의 시작이 급기야 행동적인 반발로 싹터서 간음이라는 것으로 결말을 짓게 했고 그것은 두 개의 깨진 가정과 실패한 두 사람의 배우자를 탄생시켰으며 깨어진 희망, 그리고 상처입은 자녀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불행은 근본적으로 선한 두 사람이 저들의 교통의 선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안전한 전주의 관리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인 것이며 이들은 하나같이 찬란한 영광을 꿈꾸며 지극히 높은 소망을 가지고 상호 신뢰를 외치고 처음을 시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루는 한 스테이크 대회를 마치고 나서 몹시도 낯이 익은 한 젊은이의 방문을 받았읍니다. 그 젊은이는 몇 해전 선교사로 해외에 있을 때 나를 만난 일이 있다고 자기를 설명했읍니다. 그는 대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그저 인사를 하고 싶어서 끝날 무렵에 왔노라고 했읍니다. 우리는 즐거운 인사를 주고 받으며 옛 추억을 더듬었읍니다. 나는 그 젊은이의 신상에 관해서 물었고 그는 아직도 미혼으로 대학에 적을 두고 있으며 지극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고 대답했읍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느냐고 했더니 일순에 그의 눈에서 광채가 사라지고 어두운 그늘이 지는 것이었읍니다. 얼굴에 온통 낙담의 빛을 띄운 채 그는, "저는 지금은 활동 회원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와는 영 다른 느낌을 갖고 있읍니다. 그전에 간증으로 정리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암담한 그늘이 되었읍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이젠 불분명합니다. 지의 노력과 기쁨은 아마 헛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했읍니다.

나는 그 청년을 찬찬히 쳐다보면서 몇 가지를 더 물었읍니다. "자네는 여가에 뭘 하지? 무슨 책을 읽나? 기도는 얼마나 하나? 대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지? 사귀는 친구는?"

그의 대답은 내가 예견한 대로였읍니다. 그는 움켜 잡았던 쇠막대를 놓쳤읍니다. 그는 비회원들과 어울리고 있었읍니다. 학교 교재 이외에 그는 성경 비판론이나 무신론자의 배도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도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의 전주는 온통 타버렸고 그의 전선은 형편없이 엉켜 있었읍니다.

나는 그에게 다시 물었읍니다. "선교사를 끝낸 후 신약을 몇 번이나 읽었나?" "한 번도 안 읽었읍니다." 그의 대답이었읍니다.

"몰몬경은 몇 번이나 읽었지? 대답은 간단했읍니다. "한 번도 없읍니다." "경전은 몇 장 몇 절이나 읽었나?" 그는 단 한 번도 경전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그는 지극히 부정적인 이를테면 신앙을 저해하는 책자를 탐독하면서 미소하지 못하는 이유를 궁금히 여겼읍니다.

단 한 번도 다시는 기도를 시도하지 않으면서 왜 자기가 소외되고 있고 험한 세상에 외롭게 지내고 있는지를 몰랐읍니다. 오랫동안 그는 주님의 성찬을 들지 않았고 그의 영적인 자세가 허물어진 것을 의아하게 여겼읍니다.

십일조는 한 푼도 안 바쳤고 그러면서도 왜 하늘의 창이 자기에게만은 굳게 닫힌 채 냉담한지 섭섭하게 생각했읍니다. 그는 마땅히 받아야 할 많은 것을 받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그가 자기 자신에 관하여 생각하는 그러한 좌절된 신앙과 실패와 외로움과 황량함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때 본 그 알젠틴의 불탄 초원과 불에 탄 전주와 엉망으로 뒤엉킨 전선을 생각했읍니다.

생활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초가 불에 탄 것입니다.

정신적인 확신의 침체는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그저 내게만 주시오라는 식의 고용인들의 성품은 고메하지 못합니다. "내 몫이 얼마지요?" "급료 인상은요?"라고 하면서 더 많은 휴일과 더 적은 근무 시간으로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형편없는 고용주도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돈도 너무 많고 그밖의 것도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물질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이 갖고 있읍니다. 온통 물질이 인생을 대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읍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 : 33) 우리는 너무 "물질"에 집착하여 우선 순위를 그곳으로 돌립니다.

우리들의 젊은이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특히 죄를 짓고도 태연한 데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기도를 완전히 잊은 사람도 많습니다. 저들의 전선은 모두 끊어진 것입니다. 많은 젊은 부부가 기도를 잃고 대화의 전선이 뒤흔들리도록 하고 있읍니다.

어려움에 찌든 사람들에게 내가 묻는 처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에 임하시는지요? 언제 기도하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간구합니까?"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크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읍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했읍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좇았음이라"(왕상 18 : 17—18)

여기 바알 신을 섬기는 거짓 제사들과 선지자 엘리야 간의 정리되지 못하는 대화의 모습의 사진이 가멜산을 무대로 선명하게 펼쳐집니다. 사악함이 창궐하여 주는 하늘을 닫고 비를 주시지 않았읍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찌니라……"(왕상 18 : 21)

드디어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 앞에 돌과 나무와 쇠붙이로 만든 신은 무기력한 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때가 이르렀읍니다. 450여명이나 되는 바알신의 제사들은 제물을 태우지 못했으나 주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와 준비된 제물을 태웠고 일부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을 재무장시켰으며 구름이 몰려와 고대하던 빗방울이 떨어졌읍니다. 약화된 이스라엘이 새로운 전주를 강화한 것입니다. 끊어진 전선을 잘고 대화와 교통의 관계를 재건한 것입니다.

서부에서 온 젊은 부부가 내게 슬픔에 싸인 절을 했읍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각기 저들의 어떤 불성실에서 비롯된 그런 혼란에 싸인 체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범하고

있었읍니다. 이들의 문제는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고 비통한 결말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전말은 대개가 비슷합니다. 이 젊은 부부는 서로에게 성실치를 못했고 대화가 원만치를 못했읍니다. 그 뒤에는 비밀스런 모임이 뒤따랐고 서로 상대를 속이는 일이 있게 되었고 마침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탈선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이 모두 교회 활동을 등한히 했고 결과적으로 교회 참여가 미진했읍니다. 이들은 사회 사교 그룹에 가담했고 자기들처럼 영적으로 형편없는 무리와 어울린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안겨 주었으며 십일조의 법은 점점 지키기에 벅찼읍니다.

가정의 밤을 갖기엔 너무 바빴고 가족 기도도 등한히 정리되었으며 커다란 유혹이 닥칠 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았읍니다. 저들의 목초는 불에 탄 것이며 전주는 불탔고 엉망으로 헝클어진 전선 덩이가 공중에서 춤을 추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교통의 수단이 마비되면 조만간에 죄의 방문을 받습니다.

우리는 현재 혼란된 세상을 살고 있읍니다. 가인이 사탄에게 복종한 이래 이 세상엔 죄가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상이 완전한 상태로 죄를 용납한 적은 없읍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를 외쳐야 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여러 곳에서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또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도록 경고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헝클어진 교통의 전선을 수리하며 맡겨진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고 우리 주, 구세주와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1972년 4월 9일 일요일 오전 모임 말씀

결정의 시간

해롤드 비 리 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위기의 시대에 처한 우리들의 올바른 선택 : 국가의 공직에서 일하는 자들에 대한 권고

긴장이 극도로 팽창하고 있는 바로 최근의 몇 년 동안 아마도 여러분은 주님의 권고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지니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권력에 복종하라 그리하여 통치할 권리를 가진 이가 다스려 모든 원수를 저기 발 아래 굴복시키시는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국법을 어길 필요가 없음이니라."고 하셨읍니다. (교성 58 : 22, 21)

우리는 또 구세주가 탄생하셨을 때 누가가 기록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한 말씀도 기억하고 있읍니다. (누 2 : 14)

이 말씀과는 일견해서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었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 10 : 34—36)

그렇다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논리는 어떻게 서로 조화되는 것일까요?

이 시대의 초기의 계시에는 오늘날의 세상 형편에 관하여 두 가지의 다스림을 언급하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악마의 다스림에 관한 것으로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며"(교성 1 : 35)라고 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이나 기타 경전에 보면, 이 세상에 사람이 살기 전에 "천국 전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읍니다. (계 12 : 7)

하나님의 영의 자녀 중 아주 영특하고 야심만만한 아들이 전세에서 인간의 의지나 노력의 참여없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달성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었읍니다. 그때 그는 자기에게 모든 권능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자기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읍니다. 결국 그는 거부되어 사탄이 되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는 상반되는 무리를 형성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는 또한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희생될 양"으로 스스로를 바친 것입니다. (계 13 : 8) 그리하여 그의 속죄의 희생과 구속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복음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도록" 한 것입니다. (신앙개조 제3조)

사탄과 그의 무리는 인간의 의지를 빼앗으려 하였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으며 거짓과 기만의 아비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여 사로잡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권세는 경전에 쓰인 대로 바로 주님의 다스림인 것이니, 그가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성 1 : 36)

오늘날 우리들은 잘못 인도된 지혜롭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저들의 행동으로 세상에 밝히 증명하였듯이 저들 스스로에게 좋을 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저들의 뜻대로 행하여 취하는 것이 바로 법도 되고 질서도 되고 옳고 그릇된 것도 임의로 정하며 덕스러움과 존귀로움도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소리를 늘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저들의 주장은 이제 방금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때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안만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법을 정하고 자기의 법만이 정당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인류를 다스리시고 모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는 바로 사탄의 계획과 동일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참과 거짓의 갈등이 있어 왔고,

의로운 권세와 불의한 권세의 갈등이 있어 왔으며, 사탄의 통치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를 내세운 다스림의 투쟁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참 뜻은 이제 한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설명해 준 내용에서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유로우며 만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느니라. 인간은 만민을 위하여 마련된 크신 중보를 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악마의 권세와 속박에 매여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느니라. 이제 악마가 속박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함이라……" (니이 2 : 27)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저 스스로 행동하게 하시었음에 사람이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니이 2 : 16)

우리가 진공 상태에 살며 세상 만사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어진다면 과연 어떨까요?

나의 절친한 대학 교수 한 분이 책임감도 없고 의욕도 없고 자기 동정에만 빠진 어떤 젊은 대학생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던 이야기를 들려 준 일이 있읍니다. 그 대학 교수는 마침내 그 젊은이에게 아주 멋있는 제안을 했읍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제안이었읍니다.

"학생, 이제부터 내가 자네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네. 대학 등록금도 내가 내고 자네의 의복이나 자동차나 자동차 연료도 사겠네. 결혼을 할 때가 되어도 자넨 일체 걱정할 필요가 없네. 자네 신부감도 물색하고 집도 사 주고 할테니 자네는 전혀 애쓰지 않아도 되네. 자, 나의 제안을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잠시 동안 골똘히 생각하던 그 젊은이는,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라고 대답했읍니다.

그러자 나의 친구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읍니다. "자, 바로 그걸세. 내가 자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바로 그거란 말일세. 바로 그것이 삶의 목적이며 개인의 능력으로 노력하지 않거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지 않을 때 기쁨이란 있을 수 없는 걸세"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즉 선택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저명한 평론가 한 분은 이런 글을 썼읍니다. "진리란 우주의 순리이다. 운명의 근거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좌표나 진행을 변경시키지 못한다."(프랭크 크레인)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근본적인 진리 그 자체에는 발전이 없다. 다만 인간의 지혜가 발전하여 진리의 모습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며 더 넓게 응용할 뿐 진리 그 자체는 영원 불변한 것이다."(해밀튼 라이트 매비)

그리스도가 빌라도 앞에 잡혀 갔을 때 구세주께서는 진리를 설파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사명이라고 하셨읍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읍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때 과연 구세주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셨는지에 관하여는 기록에 남은 바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시대에 와서 구세주께서 그때 그 빌라도에게 들려 주셨을지도 모르는 대답을 해 주셨읍니다. "진리는 현재 존재하며 과거에 존재했고 미래에 존재할 사물에 대한 지식이니라. 이에서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태초부터 거짓말하는 자인 저 악한 자의 영이니라."(교성 93 : 24—25)

자, 이제 잠깐 동안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길잡이가 될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경전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빛 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드리겠읍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비롯되는 거룩하신 영향력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지혜를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교성 88 : 49 참조) 사도 요한은 이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요 1 : 9)이라 하였읍니다.

교회의 대관장님께서는 더욱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셨읍니다. "하나님의 영을 허가받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인간의 이해력은 하나님의 영의 혜택으로 존재하게 된다. ……모든 사람은 각각 그 역량대로 빛을 받으며……인간이 보다 높은 차원의 예지를 얻기까지 결코 그 빛이 인간을 멀리하지는 않을 것이다."(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62, 63페이지)

경전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이 빛을, 즉 그리스도의 빛을 인간의 양심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인간의 내면에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이의 음성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내가 젊어서 사회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을 때 어떤 교회 지도자로부터 훌륭한 권고의 말씀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원하는 바는 형제가 오직 마음에서 옳다고 느끼는 바를 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마음에서 옳다고 느끼는 것을 실천에 옮기며 여러 번 실수를 범할망정 정치적인 조류에 휩쓸려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권고의 말씀을 사무실에 나가서 여러 사람에게 전했고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로 간구하는 태도의 바탕이 되게 했읍니다. 아울러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을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편의는 잠시 동안을 위한 것이고 원리는 영속적인 것이다."(헨리 와드 비처)라고 한 분이 있읍니다.

또 하나의 확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거짓 철학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이면서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 왕국의 대사로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진리의 수호자였던 사도 바울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르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을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마치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하시듯 절실한 가르침의 말씀을 전하셨읍니다. 바로 이것이 악에 대처하는 그분의 비밀이었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 2 : 1—2, 5)

사람이 온갖 잡스럽고 거짓된 것을 다 이야기하며 정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젊은이에게 온갖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함으로써만 순결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참으로 지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진리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현명한 길이며 이와 같이 함으로써 사탄의 흉악스러움에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어떤 사람에게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셨읍니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저들이 이로써 스스로를 다스리게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열심히 가르치지 않고 의의 적인 사탄의 철학을 크게 강조한다면 이러한 시도는 강한 반발을 촉구하여 온 세상 온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번째 확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읍니다.

그때 나와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곧 과연 큰 소리로 떠들며 강력한 배경을 뒷받침으로 도전해 오는 측의 유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묵묵히 그러나 진리와 의로움의 논리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를 결정지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을 알았읍니다. 그럴 때마다 옛날에 계셨던 현명한 왕의 가르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한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았읍니다. "대부분의 백성이 모두 바르지 않은 것을 내세우는 일은 드문 일이요, 소수의 무리가 부정한 것을 구함은 흔히 있는 일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백성들의 원을 들어 나라의 일을 처리함을 국법으로 지켜 행할지니라." (모 29 : 26)

위에 소개된 옛 왕의 권고의 말씀을 우리 교회의 회원은 물론 온 세상의 지성인들이 지키게 하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손을 델 때나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원리 원칙의 문제를 다루거나 공공 인사의 선출에 있어서 그 하루의 문제를 소홀히 처리하는 데 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민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네번째 문제는 "공평과 정의로써 법률을 집행하는 인물"을 뽑아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한다는 사실로서 이는 이미 하나님의 종에게 영감으로 지시하셨읍니다. (교성 134 : 3 참조)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것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까?"라는 태도로 임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하며 "이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합니까?"라고 하는 태도로 뽑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신앙개조에서 밝힌 우리의 정부에 대한 믿음을 늘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법을 존중하고 지지할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2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는 모두 우리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저들의 손에도 여러분이 손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읍니다. "……현존하는 권력에 복종하라 그리하여 통치할 권리를 가지신 이가 다스려 모든 원수를 발 아래 굴복시키시는 때를 기다리라." (교성 58 : 22)

마지막으로 가장 으뜸이 되는 확증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결코 넘어지지 않을 원리가 있으며 이로써 우리는 안전의 토대 위에 굳게 설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영원한 원리로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쉽게 판가름할 수가 있읍니다. 우리들의 세대의 초기에 주어진 계시에 보면 복음의 가르침은 "저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매 알게 하기 위함이요, 지혜를 구하였으매 가르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했읍니다. (교성 1 : 25, 26)

복음 진리의 빛으로써 우리는 "선한 곳으로 인도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사로 인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온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모로 7 : 16)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이라도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거든 너희는 분명히 온전한 지식으로 이러한 것이 악마에게 속한 것임을 알지니……"(모로 7 : 17)라고 하신 말씀도 잘 기억해 두어야 하겠읍니다. 물론 관계되는 것이 종교거나 철학이거나 과학이거나 혹은 정치이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 응답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만큼 정리된 사람의 마음에 깃드는 평안함이 어떠하겠읍니까?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이사야서 58 : 9)

제 2 차 세계 대전 중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은 군사 작전의 심각한 결정, 그러니까 그것이 전 세계의 판도를 판가름할 그런 심각한 문제의 결정을 놓고 이런 심정이었다고 술회했읍니다. "이것이 내가 종교의 범주에로의 길을 발견하게 된 경위였읍니다. 종교는 우리가 위기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결단을 내릴 용기를 갖게 하며. 그 다음에는 그 결과를 전능하신 신에게 일임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해 줍니다. 오직 하나님께 신뢰를 가짐으로써 인간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읍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높은 지위의 지도자거나 사업가이거나 정부의 지도자이거나 교회의 지도자거나 어떠한 생업에 종사하거나 여기 길이 있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되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 간구할 때 바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읍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우리가 그의 소생이라"(행 17 : 27, 28)

이제 저의 겸양의 마음을 다하여 내 생애에서 경험한 바 이와 같은 가르침이 위대한 힘이 되어 주었음을 간증합니다. 나는 나의 체험을 통해서 나의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읍니다.

그리고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치루고 난 모세가 외친 말씀의 뜻을 조금은 이해할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나는 인간이 아무 것도 아닌 줄 알았도다. 이 일은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도다."(모세서 1 : 10)

그러나 인생의 온갖 어려움과 기쁨을 맛보고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세의 도움을 입은 줄 내가 알며 그로써 의심은 사라졌고 무거운 짐은 가볍게 되었으며 주님께 더욱 가깝게 도

달했다고 인식하면서 거듭난다고 하는 참 뜻을 깨닫기도 했읍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모두를 겸손히 간증의 말씀으로 전하며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신권의 능력

해롤드 비 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봉사와 우정, 순종, 유혹을 물리침에 대하여 신권 소유자에게 주는 권고

이와 같은 경험을 또 한 번 누릴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저녁에 저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듣고 있겠읍니다마는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은 몇 년 전에 동양에서 있었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일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청소년기의 생활에서 생기는 오류가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꺾어 버린다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 두 시에 군인 형제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있었읍니다. 제일 처음에 젊은 사람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셨던 주기도문에 대하여 말했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요 17 : 15) 그리고 그는 순결에 대하여 내가 전에 들어 보지 못했던 훌륭한 말씀을 전해 주었읍니다. 그는 "저는 저의 도덕성을 잃는다면 차라리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겠읍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말씀을 끝냈읍니다.

모여 있던 청중 군인들은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읍니다. 그러자 그는 간증을 드렸읍니다. 그 젊은 군인은 단에서 내려오다 말고 비틀거리더니 단 위로 쓰러졌읍니다. 우리는 그를 일으켜 놓고 그가 정신이 들도록 손을 썼읍니다. 어느 정도 회복된 그를 청중석으로 내려 보냈읍니다.

그를 내려 보내면서 선교부장이 내게 말하기를 "기분이 몹시 언짢은 모양이지요"라고 하셨읍니다. 그때 나는 "내가 느끼기로는 저 젊은이의 마음 속에는 저 사람이 우리에게 말한 말씀과 대항하여 싸우는 무엇이 있는 것 같군요"라고 말했읍니다.

내가 이야기할 순서가 되었을 때 나는 그 젊은이에게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명의 말씀을 들려 주었읍니다. 형제는 도덕성을 잃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때 악마도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예상이 틀리지 않는다면 악마는 형제가 실지로 도덕성을 잃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인가를 시험해 볼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읍니다.

모임이 끝나자 지도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장로님 정말 핵심을 찌르셨읍니다. 왜냐하면 공군 기지 옆에는 우리 군인을 유혹하려 드는 매춘부들로 가득 찬 사악하고 더러운 마을이 점점 자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인들을 그런 손아귀에 걸려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쓰고 있지요. 그런데도 그 친구가 매춘부하고 데이트를 했어요. 우리는 그가 데이트를 하기 전에 미리 알아 채었죠.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잘 생각해 보게, 우리는 자네가 계속해서 데이트를 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자네 어머니를 생각해 보게. 또 자네 애인을 생각해 봐, 자네 누이동생을 생각해 봐, 우리가 자네와 함께 가서 그 관계를 원만하게 끊도록 도와 주겠네!'"

그들은 그리하였읍니다. 그래서 두 주일 동안 그들의 감시를 받으며 지냈읍니다. 그들은 그를 와드 교사로, 요사이 말하는 가정 복음 교사로 임명하였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 복음 교사란 막사 내의 비활동 군인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주일 후에 그에게 순결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지명한 것이었읍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읍니다. 우리는 맥케이 대관장님과 로스앤젤리스 신전의 헌당식에 참석하였읍니다. 총회와 총회 사이에 나는 바람을 쐬려고 잠시 나왔읍니다. 건물의 서쪽 편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나는 윗 층계에 있는 꽤 낯이 익은 청년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로 다가갔읍니다.

그 청년은 나를 알아보자 층계를 뛰어내려와 나의 목을 안고는 내게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로스앤젤리스 신전에서 일하라는 부름을 받았읍니다."

그 때 나는 목이 메어옴을 느꼈읍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에 그가 운명의 한 발자국을 내디뎌서 아마도 로스앤젤리스 신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귀한 권리를 영영 박탈당했을지도 모르는 그 갈림길에 그가 처해 있을 때 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몇 년이 지난 후에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하였읍니다. 그곳에서 나는 귀여운 아이를 팔에 안고 옆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그의 팔을 끼고 복도를 걸어 들어오는 젊은 부부를 보았읍니다.

그는 옆에 있는 여자를 그의 아내라고 소개하였읍니다. 그들이 그들 아기의 얼굴을 내게 보여 주었을 때 그 젊은이의 얼굴에는 자랑스런 빛이 역력했읍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이는 그의 아기의 피에도 깨끗하고 순수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읍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무방비 상태에서 오는 유혹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실제로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실화를 들려 준 다음 "만일 네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너는 어떻게 처신하겠느냐?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느냐?"라고 물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갖게 됩니

다. 악에 물든 이 시대에 이러한 일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큰 책임을 지닌 사람은 그 젊은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는 아침에 아들을 그의 잠자리로 불러들여서 십 오 분이고 얼마고 인생의 모든 면을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또한 아들이 바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그가 오묘한 자연에 대하여 물어 보고 싶을 때 아버지가 대답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알기를 원하고 있으며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고 있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솔직하고 숨김없이 말하여, 아들이 자라면서 그의 지식에 미치는 정도로 이야기해 준다면 아들은 상담하고 싶을 때는 언제나 아버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경험이라는 책으로부터 아들에게 공과를 가르쳐 무방비 상태의 순간에 운명의 함정에 빠질지도 모르는 가능성에 대처하도록 도와 준다면 그 아버지는 아들의 영혼의 닻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읍니다. 우리는 가정의 밤이라든가, 가정 복음 교육, 신전 결혼을 할 수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을 공부하면서 결코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가정의 밤이나 가정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권유하지 않아서 추호의 진전도 못 보았다는 것이 밝혀졌읍니다. 가정 복음을 배우고 가정의 밤을 계속하며 성찬식에 참석하고 더 많은 신전 결혼 의식을 갖고 신전에 참석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가정에서 신권을 소유하고 계신 신권 소유자들이 자신의 신권을 소중히 여기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가정이 보호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는 그의 가족을 영원한 복지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그의 가족을 모두 교회에 인도하여야 하며, 가족과 함께 성찬식에 참석하여야 하며, 가족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가정의 밤을 인도하여야 하며, 가족을 신전으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여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계단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신권 소유자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동하고 생활하여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신권을 귀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책임입니다.

교회 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자살을 감행하고 있으며 그들은 신체적인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절망의 절규가 있으나 만일 제시간에 발견만 하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 사이에는 수많은 사람이 영적인 자살이라는 위험에 처해 있어서 절망의 절규를 부르짖고 있읍니다. 만일 우리가 그 절망의 절규를 제시간에 인식만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도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개종하여 교회에 입교함으로써 여러 가지 훌륭한 기회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정의 손을 뻗쳐야 합니다. 현재에 아직 신권을 받지 못한 형제님께 주님의 크신 축복이 내려서 그들이 신권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회원에게 당부합니다만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이 오늘 저녁에 하신 말씀은 또 다른 감명을 주셨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배운 것이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내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후임 사도로 있을 때 내가 처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교회의 재조직은 그랜트 대관장님께서 서거하셨을 때였읍니다. 교회의 대관장이 선출되기까지는 으레 그렇듯이 긴 토의를 하기 위하여 신전에 모여 있는데, 나는 이러한 재조직에 언제나 따르는 소문인 누가 보좌가 될 것이고 누구는 보좌가 안 될 것이다라는 소문을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대관장님께서 그의 보좌를 지명하시고, 그들이 회의실 앞에 앉으셨을 때 나의 마음속에는 저 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대관장단이시라는 확신을 느꼈읍니다. 진리가 나의 귀에 소리쳐 울리는 것 같이 나는 확신할 수 있었읍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이것을 말하고 싶읍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으며 나 또한 그것이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믿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의 지도자와 함께 그것이 그의 마음 속에 불같이 파고들어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완전히 개종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교회의 회원은 그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되어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종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올바르게 임명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완전히 개종되었다고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당시에 내가 알았던 바와 같이 지금도 주님께서 택하신 분들은 주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필요로 하는 분들이심을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간증드립니다. 나는 바로 이 단상에서 십이사도의 한 분이신 올슨 에프 휘트니 사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이분들이 반드시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며 오히려 이들보다 더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자리가 비어서 주님께서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실 때는 주님께서 주어진 시기에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두루 찾으셔서 택하신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총관리 역원으로서의 31년이라는 세월은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게 만들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며, 교회의 모든 조직에 주님의 성스러운 인도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매일, 한결같이 느끼고 있다는 간증을 드리고 싶읍니다.

위의 겸손한 간증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읍니다. 아멘.

"마무리공을 구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의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어느 햇빛이 쨍쨍 쪼이는 정오, 솔트레이크 시가는 고층 건물의 좁은 사무실에서 풀려나와 이른바 진열창을 구경하며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수많은 남녀로 붐볐읍니다. 어느 날 나도 그러한 자들 속에 끼어 들었읍니다.

어느 수요일 나는 유명한 가구상의 우아한 진열창 앞에 잠시 발을 멈추었읍니다. 나의 시선을 끈 것은 아름답게 장식된 소파나 그 옆에 놓여 있는 안락의자도 아니었으며, 머리 위에 달려 있는 아름다운 샨델리어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나의 눈은 진열창의 오른편 아래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광고였읍니다. 그 광고 내용은 "마무리공을 구합니다"라는 간단한 것이었읍니다.

그 점포는 그 회사에서 생산해 내고 닦는 값비싼 가구에 사포로 파고 윤을 내며 니스를 칠하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기능공을 구하고 있었읍니다. "마무리공을 구합니다" 이 말은 내가 그 날의 일을 시작하였을 때에도 잊혀지지 않았읍니다.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도 마무리공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고, 그들의 기회는 많고, 그들의 공헌은 지대합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생이라는 경주를 하는 자들이 대답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있읍니다. 포기할 것인가? 완수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고 다음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이 중대한 결정을 할 지침을 받지 못한 채 버려지지는 않았읍니다. 성경에는 신중히 연구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사고를 인도하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줄 표지 등이 될 기사와 교훈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사를 읽을 때 우리는 좌절하는 자들을 동정하게 되며, 완성하는 자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위대한 경주에 비유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고전 9 : 24)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기 이전에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설교자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읍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전 9 : 11)

다윗의 아들이 자신의 부친에게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표준으로 판단하거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었읍니다. 그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주님에 의해서 존귀를 받았읍니다.

그가 처음으로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두었을 때 다윗의 인기는 정상에 달했으며, 여인들은 그를 다음의 노래로 찬양하며 영접했읍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삼상 18 : 7) 백성들은 그를 숭배하여 이렇게 외쳤읍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삼하 5 : 1)

그는 권세를 얻었으나 평화를 잃었읍니다.

어느 날 저녁 때에 다윗이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이 몹시 아름다와 보였읍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그래서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 오게 하고……"(삼하 11 : 3—4)

간음이라는 엄청난 죄 다음에는 또 다른 무서운 죄가 뒤따랐읍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삼하 11 : 15) 음욕과 권력이 승리를 거두었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무서운 견책이 뒤따랐읍니다.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죽이되……그 처를 빼앗아 네 처를……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 떠나지 아니하리라……" (삼하 12 : 9—10)

다윗은 경주를 훌륭하게 시작했으나 중도에서 좌절되어 그의 진로를 끝까지 달리지 못했읍니다.

우리는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생의 무서운 죄를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달랩시다. 그리고 구세주께 달려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부자 청년을 생각합시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계명들을 나열하셨을 때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찐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마 19 : 16—18, 20—22)

그는 하늘의 보화보다 지상의 안락한 생활을 더 사랑했읍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영원한 것을 구입하지 않았읍니다. 그는 좌절했으며, 끝까지 견디지 못하였읍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도 이러했읍니다. 그는 주님의 사도로서 그의 성역을 시작했읍니다. 그는 결국 배반자가 되었읍니다. 그는 은 30냥에 그의 영혼을 팔았읍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가 극악함을 깨닫고 그는 후원자와 그를 교사한 자들을 향하여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마 27 : 4)라고 외쳤읍니다.

후회는 절망을, 절망은 광기를, 광기는 자살을 불러일으켰읍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파는 데 성공했읍니다. 그

러나 그는 부름받은 사도의 성역을 끝마치지 못했읍니다.

권력욕, 황금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경멸은 인생에서 실패로 나타났읍니다. 모조적인 매력에 사로잡혀 많은 영혼이 넘어져서 멸망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인생의 위대한 경주를 마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성공하지 못한 자들에 관해서 존 그린리프 휘티어의 말씀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설로 표현된 슬픈 말 중에서 가장 슬픈 말은 '그렇게 되었더라면 좋을텐데'라는 것입니다."

—모드 멀러—

이제 우리는 실패한 자들의 생활을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고 잠시 경주를 마치고 상을 받은 자들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읍니다. 그 사람은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읍니다. 그의 행위는 경건하고 그의 재산은 굉장히 많았읍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러한 시험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의 재산은 탈취당하였고 그의 친구로부터 멸시를 당하였으며, 병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그의 아내에게서까지 시험을 당하였읍니다. 욥은 그의 고상한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부르짖었읍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욥 16 : 19)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욥 19 : 25)

욥은 좌절하지 않았읍니다. 그는 끝까지 견디었읍니다.

주님이 지상의 성역을 마쳤을 때 많은 자들은 그에 대한 간증을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의 생명을 내어 주기를 원했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읍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감으로써 그의 운명의 문은 열렸읍니다. 그는 그 문을 통과하여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는 일을 돕고 싶었읍니다.

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관리할 능력을 받은 바울은 죄인에서 성도로 회심한 유례없는 모범을 보였읍니다. 실망과 상심과 시련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의 성역을 마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 : 7)라고 했읍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끝까지 견딘 자였읍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훈계했읍니다.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모범으로〕 바라보자……"(히 12 : 1—2)

예수께서는 악한 자들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는 그것을 이겨냈으며 그가 미움을 받으셨으나, 사랑을 받게 되었으며, 그가 배반당했으나, 승리하셨읍니다. 예수께서는 영광의 구름이나 불마차를 타고 이 지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흉악한 십자가에 두 팔을 못 박힌 채 고통 중에 돌아가셨읍니다. 그의 사명의 장엄함은 다음의 그가 하신 말씀에서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읍니다.

그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읍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요 17 : 1, 4)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 : 46)

필멸은 끝나고 불멸이 시작되었읍니다.

시간은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그러나 온전케 하는 자의 참된 표적은 언제나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유의하십시오. 그것들은 우리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 선견의 표적. 역사의 관문은 조그마한 돌쩌귀에 달려 있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조그마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과는 생의 실패냐 성공이냐로 결정됩니다.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앞을 내다보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입니다. 참으로 온전케 하는 자들은 그들의 목표를 바라 볼 수 있읍니다.

2. 노력의 표적. 노력 없는 선견은 백일몽에 불과하며, 선견 없는 노력은 헛된 노력에 불과하나 노력 있는 선견은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해이해졌을 때 우리는 다시 노력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계속하여라.

시작하는 자는 많지만 마치는 자는 적다.

영광과, 능력과, 지위와 칭찬은 언제나 끝까지 노력하는 자의 것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계속하여라.

그것에 힘써 노력하며, 땀을 흘리며 또한 미소를 잃지 말라.

그것은 인생의 승리는 이러한 노력과 땀과 미소를 통해서 오기 때문이다.

—작자 미상—

3. 신앙의 표적. 오랜 옛날에 시편 작자는 이렇게 노래했읍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시 118 : 8—9) 믿음과 의심은 한 마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중 하나는 다른 것을 추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4. 덕성의 표적.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교성 121 : 45) 주께서 주신 이 권고는 우리가 달리는 경주에서 오래 견딜 수 있게 해 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5. 용기의 표적. 용기란 생동적이고 매력적인 덕입니다. 이것은 남성답게 죽겠다는 결의가 아니라 고상하게 살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용기란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이며,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는 것이며,
참을 수 없는 슬픔을 참는 것이며,
용감한 자가 감히 갈 수 없는 곳을 달리는 것이며,
"그릇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것이며,
멀리서 사랑하며 순결케 하며 정결케 하는 것이며,
우리가 너무나 피곤해서 저 멀리 있는 별에 도착할 수 없을 때 노력하는 것이다."[1]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할 때 온전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6. 기도의 표적.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시련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할 때,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희망의 빛을 경멸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는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이와 같은 참으로 온전케 하는 자의 표적은 인생을 통해서 여행하는 동안 우리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전진하도록 부르며, 우리를 향상하도록 하는 자는 우리에게 "……와서 좇으라"(눅 18 : 22)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종 그의 도움은 은밀하게 주어졌지만 놀라운 영향을 미치었읍니다. 몇 년 전에 내가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을 당시 나의 경험을 말씀드리겠

1. 조 다리온, "불가능한 꿈", 샘 폭스 출판사, 뉴욕, 1965.

읍니다. 나는 그 당시 귀한 젊은이들 즉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들을 인도하는 특권을 갖고 있었읍니다.

몇몇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할 필요가 없었읍니다. 하루는 어떤 선교사가 크게 절망하여 나에게 왔읍니다. 그는 아직 절반밖에 그의 임무를 마치지 않았으나 그는 그의 임지에서 떠날 결심을 하고 짐을 꾸리고 항공표까지 예약해 두었읍니다. 그는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왔읍니다.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말을 경청했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례로 기도했읍니다. 그러나 그가 선교사업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하게 된 이유를 말하지 않았읍니다.

우리가 나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났을 때 그 선교사는 울기 시작했읍니다. 그의 강한 팔의 근육을 보이며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전 학교 생활을 통해서 나의 근육의 힘으로 말미암아 미식 축구와 달리기에서 많은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나의 정신적인 능력은 무시되었읍니다. 몬슨 선교부장님, 나의 학교 성적은 부끄러울 지경으로 형편 없었읍니다. 이것에 의하면 나의 독서 능력은 '고작' 국민학교 4학년의 능력밖에 안된다는 것이 밝혀졌읍니다. 나는 몰몬경을 읽기조차 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칠 수 있읍니까?"

그때 갑자기 나의 9살짜리 꼬마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죄송해요. 이 책을 도로 갔다 두려고 왔는 걸요"하고 사과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는 나에게 책을 전해 주었읍니다. 그 책에는 **어린이를 위한 몰몬경 이야기** 데타 피 니블리 저라고 적혀 있었읍니다. 나는 이 책의 머리말을 펴서 읽어 보았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읍니다. "이 책은 국민학교 4학년 수준의 어휘를 구사해서 적은 책이다." 정직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실한 기도가 극적으로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그 선교사는 이 책을 읽겠다는 목표를 받아들였읍니다. 반은 웃으며 반은 울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읽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절망의 먹구름은 희망의 햇빛에 의해서 사라졌읍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선교 사업을 마쳤읍니다. 그는 온전케 하는 자가 되었읍니다.

오늘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있는 그 가구상을 한번 더 가 보고 큰 진열창에 붙어 있는 작은 광고를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나는 "마무리공을 구합니다"라는 이 광고는 나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감명을 주었읍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경기를 마치고 승리의 상을 받으며, 해의 왕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이것은 그의 사업임을 간증드리며 우리 모두가 그의 아들의 모범을 따라 참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하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인간의 생식력의 본질은 신성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오늘 아침의 이 모임에 주님의 강한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읍니다. 오늘과 같이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를 토론할 때만큼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란 적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읍니다. 내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바로 십대의 청소년들입니다.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하나?라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나는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노래되고, 논란이 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좀 의아해 하시리라고도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서나 거의가 부도덕한 측면에서만 이야기되어 왔읍니다.

이제 이러한 미묘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나는 부도덕한 측면을 떠나서 겸손함을 고취시키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젊은 십대의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절실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앞날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의 일부가 경전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 태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었읍니다. 그가 실제로 살아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도 지상에는 있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임에서도 그러한 것을 증거하는 그의 종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는 살아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께 그러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과 영원한 발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자유로이 선택을 하고 정확한 선택의 힘을 통해 성장하여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목표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곁을 떠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학교에 다니는 것과 같다고 하겠읍니다. 한 가지의 계획이 주어졌고 각자는 지상 생활의 경험을 쌓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을 떠나야 했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는 두 가지의 큰 것을 함께 받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육신입니다. 육신을 잘 움직임으로써 우리는 영생과 행복을 달성할 수 있읍니다. 둘째로 우리는 지상에서 시련과 고통을 당함으로써 힘과 영적인

능력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첫번째의 목적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은 부활을 하게 되며 영원히 우리를 위해 봉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 아래서 아담과 이브는 우리의 첫번 조상으로 지상에 보내졌읍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도록 최초의 영을 받아들이기 위해 육신을 준비했읍니다.

우리의 육신에는 성스러운 창조의 힘이 부여되었읍니다. 즉 다른 불을 켤 수 있는 힘을 지닌 빛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는 성스러운 결혼을 통해서만 사용될 수 있읍니다. 이러한 창조의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영이 거할 수 있는 육신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곳에 새로운 영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의 생활을 창조해 주고 지속시켜 주며, 우리가 행복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는 곳도 바로 이러한 가족의 생활에서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것은 성스럽고 의미있는 힘이며 나는 젊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러한 힘이 훌륭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이브의 모든 아들과 딸처럼 십대인 여러분들도 자신 가운데 그러한 힘을 지니고 있읍니다.

창조의 힘 혹은 흔히 말하는 생식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의 우연한 일부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계획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전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계획은 망쳐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얻게 될 행복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이토록 거룩한 창조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읍니다. 그러므로 젊은 청소년 여러분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의미를 안겨다 주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크게 자라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반려자를 찾게 하고 그를 찾아내어 사랑하고 간직하게 해 줍니다.

나는 삶을 창조해 주는 이 힘이야말로 거룩하고 성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언젠가는 자신의 가족을 거느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잘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의 영역을 쌓을 수 있읍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커다란 책임이 수반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창조력은 내재적인 강한 욕망을 수반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태도와 취향의 변화를 통하여 이미 그러한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대에 들어서게 되면 갑자기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신 가운데서나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모습의 변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육신의 욕구의 속삭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힘은 적어도 두 가지의 차원을 지닐 필요가 있읍니다. 하나는 강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다소간 끊임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힘은 강해야 합니다. 이는 대개의 사람이 천성적으로 모험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느낌에 대한 강력한 설득이 없다면 인간은 가정이나 가족을 이끌어 가는 책임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할 것입니다. 이러한 힘은 또한 끊임없어야 하는데 이는 이 힘이 가족 생활을 한데 묶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동물의 세계를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창조의 힘이 빨리 사라지는 곳이나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곳에서는 가족의 생활이란 찾아볼 수도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삶은 이러한 힘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시련과 두려움과 실망으로 가득 찬 세상은 희망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왕국으로 변할 수 있읍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마다 세상은 그 순진함으로 새로와집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나는 여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러한 힘이 선하고 훌륭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를 다스리시는 데 지니셨던 많은 것들을 모두 배워서 지닐 수가 있읍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보다 더 훌륭한 학교나 시험의 장소는 생각할 수도 없읍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결혼이 매우 성스러우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 않읍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창조의 힘을 여러분께 맡기는 여러분의 결혼생활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하게 계획되고 엄숙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겠읍니까? 하나님께서 결혼 의식을 행할 목적으로 신전을 지으라고 하신 뜻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께 경고로 드릴 말씀은 이외에도 많읍니다.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모반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읍니다. 그는 그분의 계획을 전복하고 방해하겠다고 공언했읍니다.

그는 육신을 얻지 못하였고 쫓김을 받았는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영원히 하지 못하게 제약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탄과 같이 질투가 강합니다. 그는 이러한 창조의 힘이 하나님 계획의 우연한 일부가 아니라 핵심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는 만일 그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러한 힘이 다 자라기도 전에 사용하게 하거나, 너무 빨리 사용하거나 오용을 하게 꼬인다면 여러분이 영원한 진보의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온 실제의 존재입니다. 그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읍니다. 그는 거룩한 창조의 힘을 보호하도록 제정된 율법을 여러분이 어기도록 자기의 막강한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는 너무나 교활하기 때문에 부도덕한 짓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권유를 하지는 않았읍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노소를 불문하고 이 거룩한 창조의 힘을 얕보게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성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저속하고 평범한 수준으로 내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수법이 바뀌었읍니다. 그는 이것은 만족되어야 할 기호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러한 힘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는 쾌락이 그러한 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해 줍니다.

그의 사악한 유혹은 유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한 것들은 농담으로도 전해지고 유행가의 가사로도 쓰여집니다. 텔레비전이나 극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읍니다. 대부분의 잡지에서는 그러한 요인들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읍니다.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힘을 오용하게 하고 왜곡되게 하려는 공공연하고 사악

한 간계를 담은 소위 말하는 외설 잡지가 우리 주위에 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스러운 힘을 항상 침해받기 쉬운 사회에서 자라고 있읍니다.

나는 여러분들께서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몸에 손을 대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께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을 여러분에게 씌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끝까지 순수함을 지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주는 이러한 힘을 시험해 보라고 여러분께 말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러한 방종이 오늘날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큰 잘못입니다.

당사자가 그러한 자유를 누리자고 기꺼이 합의했으니 괜찮다고 하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그러한 것을 애정의 정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힘은 결혼 성약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힘을 절대로 오용하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사랑하는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순결의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재앙과 슬픔을 내려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밝혀 드립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 (앨 41 : 10)

이러한 율법은 이러한 은사를 사용하는 모든 자녀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도덕률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도록 하실 아무런 이유도 갖고 계시지 않읍니다. 그러한 율법이란 저절로 확립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합당하게만 사신다면 면류관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러한 면류관을 잃는다는 것은 형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주 흔히 우리의 죄로 인해 벌을 받읍니다.

나는 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이미 범법을 행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여러분의 뜻이 순진하기 이를 데 없으나 유혹과 꼬임에 빠져 이미 이러한 창조의 힘을 오용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을 깨끗이 해 주는 힘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깨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침례 서약이 그러한 죄를 깨끗이 씻어 주는 힘이 됩니다.

교회의 회원에게도 가능한 길이 있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깨끗하게 설 수 있읍니다. 죄의식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을 갖게 될 수 있읍니다. 여러분의 감독이나 지부장을 찾아가십시오. 그는 깨끗하게 씻어 주는 힘 즉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언젠가 이러한 힘의 완전하고도 올바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며 의로운 가정 생활에서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여러분께서는 결혼 성약을 통해 올 수 있는 사랑의 성스러운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팔 안에 아들이나 딸들을 안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두 부부는 하나님 아버지와 공동으로 생명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여러분에게 속하게 되므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했던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내가 아는 한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 기르거나 다른 사람이 낳은 자녀를 기르거나 가족이 성약으로 뭉쳐졌을 때에만 올 수 있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결혼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한 창조의 힘만은 훌륭히 지키십시오. 여기에는 여러분에게 훌륭히 적용될 수 있는 위대한 보상의 힘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여러분은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경전에서 사용될 때 그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께서는 그가 우리를 위해 지닌 사랑에 대해서도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존경과 영예와 찬사의 명칭 가운데에서도 다만 아버지라고 붙이는 데는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보호하고 지킵시다.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눈앞에 있읍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대나 꿈 속에 있는 영원한 가정 생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스러운 은사인 창조의 힘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성취될 수 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이 은사를 성스럽고 순수하게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만 이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발견할 행복과 기쁨은 얼마든지 있읍니다. 나는 그러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스러운 성약을 맺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성약을 성취하는 가정의 모습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녀의 모습과 여러분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자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내가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줄 수는 없읍니다. 내가 만들 수 있다 해도 하지 않겠읍니다. 이것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그의 율법을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행복은 끝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지켜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스러운 은사를 훌륭히 사용하여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예언자로부터 유명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의 복음이 가져다 준 긍정적인 결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방금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이라는 영감 받은 찬송을 불렀는데, 아마 가장 적절한 때에 이 찬송을 부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예언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룩하게 임명된 주님의 대변자로 이 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일성도들은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그의 말씀을 이 격동의 시대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주는 영감과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교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의 성역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는지 모릅니다. 일부 말일성도조차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교회 대관장은 사실상 말일성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인류를 영감으로 인도하기 위해 말일에 세워진 예언자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그와 이 교회의 다른 예언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또 성신으로 감동되는 대로 말하여야 함도……하나의 예니라.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경전의 말씀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교성 68 : 3—4)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모세,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바울, 베드로, 그리고 이외에 고대에 성역을 베푼 자들처럼 예언자입니다.

모든 충실한 사람은 구약 시대 동안 이스라엘에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또한 구세주께서 그의 시대에 설립하신 교회에도 예언자들이 있었읍니다. 그들도 모세나 이사야와 같은 분이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도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배도의 길로 이탈케 하는 거짓 교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성역을 위하여 주님에게서 택함받은 그리스도의 예언자였읍니다.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오늘날 지상에 살아 있는 예언자들, 다시 말해서 고대의 예언자들이 지닌 특성과 똑같이 은사와 권세를 소유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현대인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 있으며 지금 이곳에 있읍니다. 그들은 교육도 많이 받았으며, 현대의 상태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쌓은 현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이사야, 베드로와 바울이 당대에 성역을 베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알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의 백성들이 타락한 암흑의 세상에서의 유혹을 극복하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 이 시대 곧 1972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세워 주신 예언자들을 통하여 친히 나타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거룩한 인도는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2천 년 전이 아니라 현대에 주어진 여러분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읍니다.

모세가 그의 백성의 특정한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성역을 베풀지 않았읍니까?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에스겔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않았읍니까? 베드로와 바울도 그들의 이웃과 친구가 처한 상태에 알맞게 그 당시의 긴급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읍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귀를 기울여 듣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축복은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현대의 계시를 받는 현대의 예언자를 통하여 받을 수 있읍니다.

이 사악한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멸망되기 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관하여 새로운 중요한 계시를 주심으로써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현대의 인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보았으며 그의 음성도 들었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고립되어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분은 자신이 영으로나 육체로 성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읍니다.

문자 그대로 현대의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그분은 그의 존재에 관한 모든 의문을 없에 주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스러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것처럼 살아 계십니다. 두 분은 우리의 시대에 새로운 중요한 계시로써 자신을 소개해 주셨읍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현대의 인간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믿을 수 없는 것 같이 생각됩니까?

그분은 분명히 고대에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읍니다. 만일 그분이 경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고대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백성을 위해 많은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겠읍니까?

성경 시대의 전반에 걸쳐 그분은 자신을 백성에게 알려 주셨읍니다. 특히 그의 백성이 나쁜 길로 이탈하기 시작했을 때 그분은 그의 백성을 우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친히 능력을 나타내셨읍니다.

그분은 자신이 대대로 세우신 새로운 예언자를 통하여 이렇게 행하셨으며,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에 의미를 더하여 주는 새로운 계시를 새로운 예언자에게 주셨읍니다.

그분은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수세

기에 걸쳐 성역을 베푸신 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읍니다. (요 3 : 17 참조)

주님은 그의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한동안 많은 사람이 그의 복음대로 생활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후 인간은 다시 그의 교훈을 저버리고 이탈했으며, 그의 계명을 소홀히 여겼읍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세상의 상태가 되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대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현대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고대에 사용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새로운 계시를 주시고 새로운 예언자를 세우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새로운 예언자를 통해 그분은 인류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시며, 계시가 이제는 필요없으며,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읍니다.

나는 수세기 동안 계시가 중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지상에는 사도도 예언자도 없었읍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또한 가장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때때로 구약 시대에 계시가 끊어진 이유와 똑같이 계시가 계속해서 주어지지 아니하고 중단되었읍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이사야 59 : 1—2)

그러나 경전에는 악이 있음에도 말일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천사들도 또 다시 지구를 방문하여 방황하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전하기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말일성도들은 이 새로운 빛이 주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중대한 계시를 주셨읍니다. 그분은 베드로와 바울이 행한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성역을 베푸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도와 예언자를 세우셨읍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도요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하여 성스럽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났읍니다. 그것은 성취된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록키산맥에 숨어 있는 작은 종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결코 나타나시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말일성도는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없는 특이한 종교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록키 산맥에 고립된 소수의 집단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는 세상에 잘 알려진 많은 기독교 종파보다도 더 큰 규모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착실하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 범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독특한 사상을 가진 종교적 극단론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잠시 동안 종교적 불평 분자들이 오늘날 말일성도가 세상에서 이룩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진실로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긍정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을 지키고, 지성을 갖추고 있으며, 진취적인 착실한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영광이 예지라고 믿으며, 교육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읍니다. 일례로 우리는 위대한 과학자와 발명가를 많이 배출하여 왔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해 주는 텔레비전은 몰몬 과학자인 필로 판즈워드 박사가 발명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입체 음향 장치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있읍니다. 이 입체 음향 장치도 역시 또 다른 몰몬 과학자인 하베이 플레처 박사의 연구로 인하여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미합중국 우주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지도자들은 우리 교회의 회원입니다. 현재 훈련 중에 있는 우주 비행사 한 명은 말일성도입니다. 미국의 최근 우주 탐험 비행으로 달에 착륙한 우주인 중 한 명은 바로 솔트레이크시티 학교의 졸업생이었읍니다.

말일성도로서 미합중국 정부의 각료의 지위에 오른 분들도 있읍니다. 어떤 말일성도는 또한 자기 나라에서 고위직을 맡아 왔읍니다.

말일성도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단체를 관리하는 분들이 있읍니다. 그러한 단체 중에 하나가 국제 라이언즈 클럽입니다. 몰몬 교회의 사도 한 분은 국제 로터리 클럽의 회장이었으며, 전세계의 모든 회원으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기까지 했읍니다.

말일성도의 문화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읍니다. 여러 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말일성도의 음악은 현재 많은 나라에서 듣고 있읍니다. 우리 교회의 솔트레이크 테버나클 합창단은 매주 미국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나라에 있는 수백만 명에게 노래를 들려 줍니다.

우리 중 어떤 분은 중요한 경제인 단체, 예를 들면 미국 은행가 협회와 전국 제조업자 협회를 관리하고 있읍니다. 또한 각 주에서 선출된 여러 명이 미국 의회의 의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있읍니다.

말일성도 중에는 군의 고위직을 맡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최근 나는 그들 중 세 분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읍니다. 두 분은 준장이었고, 한 분은 소장이었는데, 모두 충실한 말일성도였읍니다.

여성 해방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계의 모든 여성 중에서 최초로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을 받은 여성은 바로 몰몬 여성이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2년 전 브리감 영 대관장의 재임시에 몰몬 여성에게 이러한 참정권이 부여되었읍니다.

우리 교회의 한 여성 조직의 회원 수는 약 50만에 달합니다. 이 조직은 여성과 어린 아이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으며, 전세계의 60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읍니다. 그 조직의 회장인 벨 에스 스패포드 자매는 최근 미합중국 전국 여성 평의회의 회장을 역임하였읍니다. 그녀는 또한 세계 여

성 평의회의 미국 대표였으며, 현재 이 평의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청녀와 십대 소녀를 위한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의 회원 수는 약 40만이나 되며, 그 연령의 소녀들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읍니다. 이 조직의 회장은 플로렌스 에스 제이콥슨 자매이며, 세계 여성 평의회 회의에 미합중국 대표로도 참석한 바 있읍니다.

또한 말일성도 남녀로서 아동 복지를 위한 백악관 협의회의 위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분도 있으며, 아직도 그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도 있읍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소년단 지도자 가운데도 말일성도가 있읍니다. 몇 주 전에 6백만이나 되는 미국 소년단원을 대표하여 닉슨 대통령에게 1972년도 미국 소년단 명예 회장을 증명해 주는 회원 카드를 드린 독수리 소년단원이 바로 몰몬이었읍니다.

종교적 극단론자들이 이와 같은 업적을 이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감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일성도들은 실질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현실 문제에 부딪치며, 균형이 잡혀 있는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엄숙히, 하나님께서는 현대에 자신에 관하여 새로운 계시를 주고 계시며, 우리가 그 메시지를 간직하고 지키는 청지기라고 선언하는 것도 바로 이 고결한 성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원래 그대로 순수하게 지상에 회복되었읍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읍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역을 베풀 하나님의 권능도 말일에 하늘로부터 회복되어 있읍니다. 이 회복된 복음은 부모와 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범죄와 비행을 없애 줄 수가 있읍니다.

회복된 복음은 부도덕과 방탕과 술취함을 종식시킬 수 있읍니다.

그것은 이혼과 가정의 파탄을 중지시킬 수 있읍니다.

또한 회복된 복음은 우리가 그 복음의 가르침대로 생활한다면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의 병폐를 없앨 수가 있읍니다.

복음의 모든 원리는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현실주의자로서 생각하게 되며, 오로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돌이킴과 하나님의 회복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룩할 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권세로 합당하게 임명된 그의 종이며, 우리는 현대 예언의 권능으로써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파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편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진리를 찾는데 눈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계시를 공부하고 그 계시의 원리대로 생활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역과 되풀이해서 행해진 천사들의 성역으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지상에 다시 밝혀졌음을 간증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멘.

참다운 교회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전반적인 배도와 회복에 관한 예언의 고찰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주님의 일은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지상의 어떠한 힘으로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펴는 일을 막지 못합니다." 그는 이어 "복음은 퍼져 온 땅을 가득히 채울 것"이라고 덧붙이셨읍니다. 복음이 퍼져 온 땅을 채워야 한다면 말일성도로서의 우리가 이 위업에서 맡아야 할 책임은 무엇이겠읍니까? 교회 회원이 아닌 이웃과 친구에게 복음의 회복에 대한 간증보다 더 훌륭한 이야기는 없읍니다.

나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는 당시의 성도에게 이런 말을 했읍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 : 9)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권고를 들었읍니다. (마 5 : 16 참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 : 17)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롬 10 : 14—15)

그러므로 주님께서 경륜의 시대에 이 땅에 진리를 회복하시면서 보여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을 향하여 증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 것이라고 대답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 : 14)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신 바 왕국의 복음을 어느 곳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는 경전을 인간의 뜻대로 해석하는 곳에서가 아니며 예수께서 십이사도에게 주신 성스러운 권능이 있는 곳에서라야 가능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 15 : 16)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마 16 :

19)

교회를 세우고, 경전에서 몇 구절 골라 교회의 기초로 삼는 일은 누구도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죽은 나무에서 산 가지를 만들어 낼 수 있겠읍니까?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능력과 권능을 지어낼 수 있겠읍니까?

합당하게 위임을 받지 못하면 시장, 주지사 등의 직분도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합당한 권능의 소유자를 통하여 성스러운 능력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왕국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읍니까?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우리의 아버지도 살아 계시며 두 분이 이 땅을 방문하셨다는 사실을 안다고 간증하여야 하며 복음의 회복을 증거하여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에 관한 찬송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어느 교회에 속할 것이냐는 간구에 그들이 인간의 계명과 계율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으므로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는 응답을 받았읍니다.

나는 사람이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연다면 진리를 찾아야 할 곳에 쉽게 도달할 것으로 믿읍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찾게 하여 주는 지침이 된다는 것을 의심치 않읍니다. 나는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의 경험을 생각할 때마다 깊은 감명을 받읍니다. 그는 십이사도의 일원이었는데, 대회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있읍니다. 읽어 드리겠읍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일원인 학자 한 분이 수년전에 유타주 솔트레이크 태버나클에서 연설한 적이 있었다. 곧 친한 사이가 된 우리는 자유로우면서도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게 되었다. 십 수개 국어를 자유 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던 위대한 학자인 그는 신학, 법률, 문학, 과학, 철학 등 모든 분야를 통달한 것같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몰몬은 무식한 사람들이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천주교를 빼놓고는 전 기독교 세계를 통틀어 보아야 몰몬에 필적할 만한 교회는 찾을 수 없읍니다. 문제는 천주교와 몰몬 사이에 있읍니다. 우리 쪽이 옳다면 여러분이 틀린 것이고, 여러분이 옳다면 우리가 틀린 것입니다. 다른 의견은 성립되지 않읍니다. 신교는 논의의 대상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교회의 지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다면 말할 것도 없이 틀리는 것이고, 비록 우리 측이 옳다고 하여도 오래전에 떨어져 나간 배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옳다고 할 수는 없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베드로로부터 사도가 계승되어 왔다면 요셉 스미스라는 인물이 필요없으며 그렇게 되면 몰몬교의 존재 이유는 타당치 못한 것입니다. 천주교에 사도가 계승되어 내려오지 않았다면 요셉 스미스라는 분이 필요했을 것이며 따라서 몰몬의 주장에는 하등의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이 고대로부터 계승되어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말일에 회복된 것이냐가 문제의 촛점이 됩니다.'"(리그랜드 리차즈, 기이한 업적 2—3페이지)

만일에 사람들이 잠간만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읍니다. 또한 예수가 말씀하신 복음이 참으로 영원한 복음인지를 알려면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전을 고찰해 보는 사람이면 고대 예언자들이 초대 교회로부터 배도가 생긴다고 역설한 사실을 쉽게 알게 됩니다. 밧모섬에 추방당한 계시자 요한에게 나타난 주님의 천사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리로 올라 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계 4 : 1)

그런 다음 천사는 천국 전쟁으로부터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보여 주었고 또한 성도와 대항하여 싸울 사탄에게 주어질 능력도 보여 주었읍니다. (성도라 함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리라고 하였읍니다. (계 13 : 7 참조) 만일에 베드로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지상에 그대로 존속될 것이었다면 이런 기록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읍니까?

바울은 그 시대의 사람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배도가 있고 불법의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였읍니다. (살후 2 : 14 참조) 이밖에도 많은 선지자가 이 땅에 기근이 찾아들 날을 예언하였읍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찌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암 8 : 11—12)

왜 그럴까요? 이 땅에는 찾아봐야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상에 복음이 그대로 존속될 것이었다면 주님의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나 사탄이 성도와의 싸움을 일으키며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게 되리라고 하였을 때 영원한 복음을 지닌 사람은 예외로 한다는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설명이 없다는 것은 당시 지상에는 진리가 있을 수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경전은 말일에 복음이 회복된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나는 베드로가 오순절 다음 날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사도행전 3 : 19-21)

만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모든 것이 회복된 세상, 개혁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래된 집을 다시 개축한다는 것과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읍니다.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중에서,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성스러운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전해진 만유의 회복을 주장하는 교회는 없었읍니다.

우리는 합창단의 노래로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 주후 400년에 지상에 살았던 예언자 모로나이의 방문, 그리고 그가 몰몬경을 번역한 판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담은 찬송가를 들었읍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고수하다 목숨을 잃은 침례 요한이 부활한 몸으로 돌아와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죄의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권능과 함께 아론 신권을 부여했읍니다. 그는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베풀 수 있

는 권능인 멜기세덱 신권이 후에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의 산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땅을 찾아와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해 주었읍니다. 세상에 있는 돈을 모두 합쳐서라도 하늘 아버지의 자녀에게 이처럼 소중한 것을 살 수 있겠읍니까? 이들과 같은 성스러운 사자가 우리를 다시 찾아 준다는 사실이 우리 자신,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 줄까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읍니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오지 않았던들 재림의 시간에 모든 세상이 황폐하고 말 것이라고 말라기가 언급한 예언자 엘리야가 왔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 4 : 6)

이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말한, 주님이 자신의 신비한 뜻을 보여 주셨다고 한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 : 9—10)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엘리야가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오셨읍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거룩한 신전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계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도 이들 성스러운 사자들이 오신다는 사실을 예견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밧모섬에 있을 때 사탄이 성도와 싸워 그들을 통치할 능력을 갖는다는 사실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런 것도 보았읍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계 14 : 6)

복음이 그대로 계속되었다면 이런 사실도 필요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계 14 : 7) 우리는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읍니다.

또 덧붙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고 말했읍니다. (계 14 : 7)

요셉 스미스가 훌륭한 시현을 보았을 때 이 지상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없었읍니다. 그들은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본질을 믿었읍니다. 몸도 지체도 감정도 없으며 한없이 높은 옥좌에 앉아 계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잘 설명했다는 의미밖에는 없읍니다. 몸이 없는 분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읍니까? 어떻게 들으며 이해하며 담소할 수 있읍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여러 백성 사이로 흩어질 것이라고 일렀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예언했읍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신 4 : 28)

요셉 스미스가 시현을 보았을 때 세상은 이런 종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모세가 본 것은 이에 그치지 않읍니다. 그는 말일에(우리는 말일에 살고 있읍니다.) 그분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도 보았읍니다. (신 4 : 29 참조) 요셉 스미스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 : 5)는 야고보서의 권고를 믿으면서 모세의 충고에 좇아 숲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살아계신 참다운 하나님을 찾았읍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만천하에 증거할 간증을 갖고 있읍니다.

자신은 예수와 그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고전 2 : 2 참조) 이 말이 자신은 옛 예언자도 모르고 감사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 아니며 바야흐로 새로운 날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자가 말한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 : 16)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인자 자신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복음의 회복밖에는 모르며, 이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와 함께 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이 훌륭한 진리를 세상 사람과 함께 나누지 않을 때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입니다. 요즈음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운동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만일 시간을 내서 이 교회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말로 누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인가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물어본다면 답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나의 이야기이며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신권의 성약

매리온 지 롬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신권 소유자는 부름에 충실하여야 한다

형제 여러분, 참으로 훌륭한 기회입니다. 수만의 성신권을 소유하신 형제님들이 교회의 대관장단으로부터의 권고를 듣기 위하여 모였읍니다.

나는 대관장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대관장님께서 그리하

였다는 말을 듣고 저는 기뻤읍니다. 그 분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나의 생각은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과 함께 일했던 이십 오 년 전으로 되돌아갔었읍니다. 우리는 대관장님께서 공무를 집행하시면서 취하신 조처로 말미암아 야기된 비난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었는데 그 때 그는 한팔은 나의 등을 또 한팔은 나의 왼쪽 어깨에 얹어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형제여, 언제나 대관장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만일 그 분이 잘못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해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일로 형제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더구나 걱정할 필요는 없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대변자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을 딴 길로 이끌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니까요."

나는 그의 충고를 잊어본 적이 없읍니다. 나는 그 이후로 그 지시에 충실히 따랐던 것 같읍니다.

이 모임에 모인 형제님은 모두 신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약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성약을 맺으실 때 그는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읍니다.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속이 복을 받으리니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니라…"(아브라함서 2 : 11)

아브라함의 시대 이후로 그의 후손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로 성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룬 성약 중의 하나는 "신권에 관한" 성약입니다. 교리와 성약 84편에서 신권에 대하여 말하고 있읍니다. 쓰여 있기를 "모세의 자손에 대하여 말한 것 같이 모세의 자손과 아론의 자손은 주의 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과 희생을 드리리니, 주의 전은 내가 지정한 바대로 성별된 지점에 이 세대 동안에 건립되어 주께 헌납되리라.

"모세와 아론의 자손은 시온 산 위에 있는 주의 전에서 주의 영광이 가득 차리라. 그 자손은 바로 너희요 또 나의 교회를 세우도록 내가 불러 보낸 자들이니라.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84 : 31-33)

나는 이것이 참되다고 믿읍니다. 나는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형제님들은 그들의 내부에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사회 복지 모임에서 리 대관장님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맥케이 대관장님을 처음 보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까?"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대관장님께서는 "당신은 나의 얼굴을 보고 그 답을 얻으셨읍니다"라고 대답하셨답니다.

나는 언젠가 현재 사랑하는 지도자의 아버지인 조셉 에프 스미스께서 주지사와 저명 인사들과 함께 어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아리조나주로 내려갔을 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읍니다. 그들 중의 여러 사람이 교회의 대관장님과 함께 사진을 찍기를 원했읍니다. 그래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께서는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서서 사진을 찍었읍니다. 사진을 찍고 다시 군중 속으로 나왔을 때 주지사는 "그 분과 함께 서 있을 때 도둑질한 듯한 기분을 느꼈읍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 사람은 신권의 부름에 충실한 위대한 분의 위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교성 84 : 33—34)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는 신권을 소유하고 계신 형제님들이 자기의 부름과 임명을 확신하도록 몇 번이고 당부하셨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원한다면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여야 합니다. 계시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읍니다.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교성 84 : 35)

이 말씀은 주님을 대표하도록 임명된 신권 역원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나를 받아 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임이라.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

"이것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84 : 35—39)

스미스 대관장님께서는 기도에서나 혹은 회의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된 성약과 책임에 충실하고 진실하도록 하여 줄 것을 기도하고 바라신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읍니다.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의 의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들 각자에게 놓여 있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의 아버지의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나니, 아버지께서 이를 깨뜨리실 수도 없거니와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니라"(교성 84 : 40)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권의 부름에 충실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과 성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성약과 맹세를 조금도 깨뜨리실 수 없다고 계시는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뜨릴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신권 소유자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들에 관하여 계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성약을 받아들인 뒤에 이를 깨뜨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리라"(교리와 성약 84 : 41)

자, 신권의 부름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모두 사함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침례의 법, 십일조의 법, 지혜의 말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약을 맺고 있는 신권 소유자들이 이 성약대로 살기를 포기한다면 분명 영생의 약속을 잃게 되는 위험을 맞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저녁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것과 그들이 지상에 구세주를 대변하신다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신권의 힘이 참되다는 것과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늘로부터 권능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며 우리에게 신권을 부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평안

엘드리드 지 스미스 장로
교회 축복사

최후의 만찬이 거행되었던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훌륭한 교훈을 남기셨읍니다. 그가 가르치신 많은 내용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 : 27)

그리고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 : 33)

평안이란 오늘날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잡지나 그외에도 사방에서 이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인간은 평안을 얻기 위하여 세상 도처를 분주히 다니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대적인 형태의 인사 치레로 보나 이것은 인류와 그 역사를 같이합니다.

성경 시대의 백성들은 항상 서로 만나면 "평안하시길 빕니다"라는 인사를 나누었읍니다. 그러나 지상의 어느 곳에선가 끊임없는 지배와 속박과 전쟁이 계속되었읍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밑에 있었읍니다.

자연히 유대인들은 "구세주"가 오시기를 기대하였으며 그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속박으로부터 해방해 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 : 6)

그리고 아직도 거룩한 땅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에 평화가 오지 않았읍니다. 아직도 도로에는 탱크와 무기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국경 근처에서는 군인들의 삼엄한 경계 태세를 볼 수 있읍니다. 그곳 이외의 세상에도 평화는 오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산상 수훈에서 그리스도는 평안을 가르치셨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 : 9)

예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 : 27)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평안이란 어떤 종류의 평안을 뜻하셨겠읍니까? 나는 그가 스스로 보이신 행동이 그 말씀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은 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홰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요 18 : 1—8)

여러분은 그토록 침착하고 평안함을 지닌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읍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오는 사람에게 "자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을 가게 하십시오"라고 예수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빌라도 앞에 가서 심문을 받았을 때에도 빌라도는 아무런 화를 낼 수 없었읍니다. 조용한 가운데 예수는 그의 질문에 대답했읍니다. 빌라도 역시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시고 부활하신 다음 그의 제자들에게 준 첫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요 20 : 21)라는 말씀이었읍니다.

우리는 세세토록 평안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하고 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읍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 대신 평안을 창조해 주거나 가져다 주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1]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가정에서 마음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세상에 화평이란 있을 수 없읍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 화평을 갖지 못한 사람이 이웃과 화평을 누릴 수는 없읍니다……"("한밤의 대화", 선정 시집, 하퍼 앤드 로우사, 판권 1937, 1964년)

여러분께서는 이웃의 잔디를 깎아 주거나 바닥에 깔린 낙엽을 긁어 줌으로써 마음 속에 평안을 느껴보신 적이 있읍니까? 이웃 사람이 추수하는 것을 도와 줌으로써 평안을 느끼신 적이 있읍니까? 이웃집 대문 앞에 쌓인 눈을 치워 주어서 평안함을 느끼신 적은 없었읍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람

1. 밀레이,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1892~1950) : 미국 여류 시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새 출발을 시도하게 해 줌으로써 평안을 느낀 때는 없었읍니까? 여러분께서는 슬픈 사람을 즐겁게 해 준 적이 있읍니까?

죄책감에 빠져본 적이 있읍니까? 여러분은 마음 속에서 일어난 갈등이나 혼란을 경험해 보셨읍니까? 그러한 것들은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부조리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느낌을 바꿀 수 있는 축복된 마음을 가져 본 적이 있읍니까? 그것은 불친절한 말이나 사려없는 행위나 혹은 그보다 더 한 어떤 일에서 기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는 마음의 평안을 기대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친구나 이웃이나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라도 친절하지 못하거나 언짢은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나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주일학교에서 공과를 가르치고 끝날 때는 반원에게 새로운 인생의 일면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의 원리를 가르쳤다고 느끼신 적이 있읍니까? 그 후에 여러분이 느낀 평안과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하신 적이 있읍니까? 그것이 바로 선교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생활화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셨읍니까? 여러분께서는 신전 사업이나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를 행함으로써 평안을 느끼신 적이 있읍니까?

평안을 얻는 열쇠란 봉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 23 : 11)

신권을 활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읍니까? 여러분께서 신권의 의무를 이행하실 때 항상 평안함을 느끼지 않았읍니까?

그렇다면 평안이란 봉사에서 온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 : 39)

그러한 것이 바로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읍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질투, 탐욕, 이기심을 버려야 하며, 우리의 모든 노력은 타인에 대한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교성 59 : 23)

요셉 스미스는 환란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었읍니다. 비록 그는 체포되어 서른 일곱 번씩이나 석방되었지만 그는 이 번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나부에서 카테지로 가는 길에서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도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털끝만치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 나는 죄 없이 죽임을 당하려니와 세상 사람들은 저는 잔인한 자의 손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말하리라."(교회 정사, 6권, 630페이지)

카테지 감옥에서 요셉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엠마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읍니다. "나는 정당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운명에 맡기고 싶소. 아이들과 나에 대해 걱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주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께 임하길 빌면서."(교회 정사, 6권, 605페이지)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사 32 : 17)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활을 뜻합니다.

최근에 성지를 순례하는 동안 우리의 안내를 맡았던 희랍 정교를 믿는 요르단 사리 라바디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짧은 아라비아 노래를 가르쳐 주었읍니다. "하바노, 샤로, 마레켐" 이 노래는 "우리는 그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노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에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평화를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요 14 : 27)

만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 속에 평안함을 지니고 있다면 가정 안에는 화평이 깃들 것입니다. 각 가정에 화평이 깃든다면 그 나라에도 화평이 깃들게 됩니다. 국가가 화평하면 세상이 평화롭게 됩니다.

"지상에 평화가 깃들게 합소서"라는 것을 단지 노래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구세주께서 다시 올 때 그는 우리가 질투와 불의를 제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라는 가르침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따랐는가에 따라 화평을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계 14 : 6) 요한이 본 천사는 이미 왔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지상에서 확립되었으며 결코 다시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왕국은 이미 지상에 서 있으며 그의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읍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히 오실 것이며 지상에 화평을 안겨다 주실 것이나 그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사람에게만 그러한 화평을 안겨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사업이며 그의 왕국이며 세상을 화평과 영원한 평화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상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멘.

성도들과 온 세상에 드리는 권고의 말씀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부모와 청년과 온 세상 선한 백성에게 드리는 권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연차 총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 총회의 여러 모임은 우리가 함께 모여 주께로 향하며 그분의 영을 간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를 섬기겠다는 우리들의 요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엄숙하고 거룩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 방송을 들으실 여러분, 그리고 대회의 메시지를 읽으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소개되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실 여러분의 지혜로운 권고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대회는 복음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기회인 것입니다. 아울러 하늘이 열려 우리에게 전달된 거룩한 메시지와 진리를 증거하고 서로를 권고하며 우리가 주변에 대하여 우리의 할 바를 다하듯 주께 대하여 할 바를 다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빛과 진리와 계시를 받았읍니다. 주는 우리에게 그의 진리를 외쳐 전하라고 명하셨으며 주의 법대로 살라고 명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뜻과 가르침에 좇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도들 여러분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권고와 인도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때는 말세입니다. 말세란 환란과 슬픔과 폐허의 때를 말합니다. 말세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탄이 은거하는 때이며 죄악이 횡행하고 때의 징후가 엿보이는 때입니다.

세상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이러한 질고를 치료할 방편이 없읍니다. 우리의 화평을 염원하는 소망과 육적, 영적인 풍요와 하나님 왕국에의 안주는 오직 회복된 복음을 통하여서만 성취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복음을 가르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건설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신 대로 주를 영접하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나오시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것과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을 것과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을 온 세상에 외쳐 전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온 세상 사람에게 전합니다. 주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는 여러분이 복음의 충만하고 온전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는 여러분이 몰몬경을 믿고 요셉 스미스를 선지자로 받아들이며 이 지상에 건설된 하나님의 왕국에 나아와 여러분이 하늘 왕국에서 영원한 삶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계명을 지키십시오. 빛 가운데 살며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약을 지키고 임무에 충실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옛날의 기록을 상고해 보겠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전 12 : 13)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에게 전합니다.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가정은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우리의 지상 생활의 목적은 영원한 가정과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신전에서 행하는 인봉 의식이며 우리는 해의 영광의 결혼식을 하면서 나눈 성약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계신 부모님께 말씀드리겠읍니다. 마음을 다해서 서로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도덕의 표준을 지키고 복음의 뜻대로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십시오. 저들에게 구원의 진리와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지상의 천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그곳에 거하여 온 가족의 마음에 의로움이 깃들게 하십시오.

주는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보호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되는 형제들에게 가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라고 권고했읍니다. 모든 어머니되시는 자매 여러분, 남편을 지지하고 따르며 자녀에게 빛의 직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모성은 가정의 행복을 떠받드는 주춧돌입니다. 아울러 한 나라의 반석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남녀에게 많은 임무를 맡기시되 특히 모성을 강조하셨읍니다. 사람이 모성을 게을리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는 없읍니다."(복음 교리 〔데저렛 출판사, 1939〕, 288페이지)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아버지 또는 성공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은 성공적인 전략가나 정치가가 되는 것보다 더 훌륭합니다."(복음 교리, 285페이지)

시온의 젊은이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의 법대로 살고 율법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신의를 지키되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조화 가운데 살기 바랍니다. 의복을 늘 단정히 입으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을 극복하며 오직 세속적인 것으로만 여러분을 이끌려는 호화로운 유행이나 풍조에 밀려 그릇된 길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전에서 결혼하여 의롭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앨마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앨 41 : 10) 우리의 내일의 소망과 교회의 장래와 의로운 사업이 모두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 중요한 임무

를 맡으신 여러분, 교회의 경전에 소개된 바와 같이 지극히 간결하고 단순한 말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우리들의 시대에 다시 새롭게 전파된 교리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 전하십시오.

예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눅 22 : 27)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울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힘을 다하여 섬길 자를 택해야 하겠읍니다. 고난 중에 있는 과부와 홀아비와 고아를 방문하며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죄로 때묻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께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직도 많을 줄 압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실 리 부대관장, 태너 부대관장, 그리고 십이사도 여러분께서 영의 안내와 주님의 권세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사업과 요셉 스미스와 그와 함께 하셨던 모든 사람들이 전하신 말씀에 대하여 저 개인의 간증을 드리면서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나는 성령의 계시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사 영원하신 구속 사업을 이루게 하셨읍니다. 또한 주는 말일에 온전하신 주님의 영원한 복음을 회복해 주셨읍니다.

나는 주님의 사업이 온 땅에 퍼질 것을 확신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은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 나라에 복음을 가르치며 진리를 전파하는 사업을 방해할 권세가 없읍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그 성도에게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했읍니다. 아멘.

1972년 4월 8일 신권회 말씀

인도할 수 있는 영원한 열쇠와 권리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오늘날의 대신권 소유자의 책임과 능력

나는 여러분에게 신권과 마지막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열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 멜기세덱 신권을 갖고 있으며 이 신권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땅위의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신 힘이며 권능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그 왕국이란 바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이러한 열쇠는 대관장단의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지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주님의 일을 통할하고 지휘하는 힘이며 권위입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신권을 소유하신 다른 사람들이 그 신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통할하고 조절하는 힘을 갖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는 신권을 지니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위임의 한도 내에서만 그 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권의 열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엘리야, 그 외의 고대 예언자들에 의하여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신권의 열쇠는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안수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관장단의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선임사도이신 교회의 대관장만이 완전히 이를 행사하실 수 있읍니다. 나는 전혀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성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는 여기에 있읍니다. 신권의 열쇠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만 존재합니다.

요셉 스미스의 계시에 의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열쇠는 "대신권의 대관장단에 항상 속해 있는 것이니라"(교성 81 : 2)고 하셨으며 또한 "나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파송한 자 곧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네 조언자인 대관장단을 받아들이는 자니라"(교성 112 : 20) 비슷한 내용으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는 "여러분은 주님의 집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과 친숙해야 합니다. 대관장단을 주시하고 지시를 받으십시오"라고 하셨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 아주 명확히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대관장님이나 대관장단,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성도로 하여금 옆길로 인도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지시를 세상에 내놓지 않읍니다.

개인은 아마도 곁길로 빠지기 쉽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왕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대관장이나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성도와 세상을 인도하고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권위를 가진 자로부터 성임되고 또 저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교회의 머리되는 자들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성임되었음이 교회에 알려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에게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거나 나의 교회를 세울 권능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교성 42 : 11)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위임되었나니, 그곳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굴러 퍼지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채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퍼지듯이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교성 65 : 2)

형제 여러분, 이는 모두 진실입니다. 의로움이라는 대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원리는 정당하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셔서 끝날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가 대관장단을 주시하고 그들의 지시와 의견을 따른다면 이 지상에는 교회로나, 개인으로나 어떠한 힘도 우리의 진로를 변경시킬 수 없으며 우리는 이 생에서 평화를 얻으며 다가올

세계의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렸읍니다. 아멘.

예언자의 축복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성도를 위한 축복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대회 기간 중 모든 모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는 생명의 떡을 배불리 먹었을 뿐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기 위해 이제는 더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어 훌륭한 권고와 메시지를 전해 주신 모든 총관리 역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다 함께 똑같은 감사와 축복과 간증으로써 모임을 마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은 물론 교회와 전세계에 내려 주신 주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축복에 대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느낌을 표현할 적절한 말을 찾을 수가 없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대속의 희생을 감사합니다. 그의 고통과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불사불멸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한편으로, 그의 율법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이루어진 영원한 진리의 회복,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교회 축복사요 나의 할아버지인 하이람 스미스의 사명과 성역,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지상의 인간에게 맡겨져 있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 확장된 선교 사업, 현재 건립되어 있는 많은 신전,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의 생활을 보고 기쁨을 금치 못합니다.

나는 주님이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나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열쇠와 권능으로써 "신앙의 권속"(교성 121:45)으로 함께 살고 있는 성도들 즉 주님을 사랑하고 찾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진리 곧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온 땅 위에서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교성 1 : 30)의 회원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얻을 영생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음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주님의 교회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 회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당신의 영이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의 환난과 괴로움이 끝날 때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당신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가 영원토록 당신의 집에서 거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원합니다. 아멘.

1972년 4월 8일 토요일 오전 모임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남을 존중하는 일이 중요함을 배우고 험담과 악담을 삼가한다

며칠 전 이웃 사람 한 분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소리를 지나치다가 우연히 듣고 언젠가 들었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생각했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당신의 훌륭한 면을 잘 알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그런 태도로 대한다면 이 상이 얼마나 아름다와지겠읍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웃이나 친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저들의 좀 특이한 면이나 약점을 비판하는 일은 이젠 아주 평범한 일들로 여기는 것 같읍니다. 사실상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정도의 일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읍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의 특이한 개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험담의 대상이 되었다는 많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이러한 젊은이들이 점점 자라서 각 여러 분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전혀 정당하지 못한 비판과 사실 무근한 비평의 좋은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막 교사로서의 일을 시작했을 때의 맥케이 자매님, 그러니까 맥케이 대관장님의 부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읍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분을 소개시키면서 한 소년을 가리키며 그가 형편없는 말썽꾸러기라고 했읍니다. 그녀는 그 소년의 부끄러워진 마음을 예민하게 느꼈읍니다. 혹시 그 소년이 자기의 그러한 불명예스런 평판에 아주 자포자기하지 않을까를 염려한 맥케이 자매는 짧은 메모를 적어 그 소년의 책상 앞을 지나갈 때 전해 주었읍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적었읍니다. "얼군, 교장 선생님의 그런 판단에는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 같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이 학교에서 이 교실을 가장 훌륭한 것으로 만드는 데 네가 크게 도와 줄 것을 안다." 그후 얼은 학교에서만 모범생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훌륭하고 중요한 사회 일군으로 성장했읍니다 .

다른 이야기도 드려야겠읍니다. 그가 살던 지역 사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당한 명성을 얻고 살던 어떤 분이 우연히 마음을 상하게 되어 과거에는 그토록 애착과 정성과 수고로 돌보던 그 사회와 단절한 채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읍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그를 머리가 돌았느니, 형편없는 친구라느니, 반 사회아라느니 하는 식으로 들먹였고 그저 기회만 있으면 헐뜯었읍니다. 그후 진찰에서 그는 그전에 참여하던 그 모든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아주 심한 소외증에 걸렸음이 판명되었읍니다.

불의한 비판에 관한 이야기를 한두가지 더 이야기하겠읍니다. 먼저, 직책을 맡아 줄 역원이 필요한 지부장은 비활동 회원이라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발견해 놓고는 "아냐, 이 친구는 관심을 갖지 않을거야. 직책을 맡아 주지도 않을텐데"라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리하여 그는 시도해 보지도 않으며 역원의 대상으로 일단 고려되었던 회원은 몇 년 더 비활동 상태로 남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부에 지부장이 바뀝니다. 그 지부장은 직책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게 되고 그 사람은 아주 진지하게 상당한 의욕을 표명하면서 일에 달려드는 것입니다.

미리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상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겠읍니다. 직책을 받아들이든가 거부할 수 있는 결정권을 일단 주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도대체 우리 지부장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아마 혼자서 만사를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거야"라고 가족들에게 떠들어 대는 사람도 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무근한 것을 가지고 지부장을 비판하는 것이며 지부장의 입장이나 형편을 이해한다면 절대로 그런 소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그 비판이 전혀 불의한 비판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릇된 편견을 심어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자녀들은 지부장에 대한 존경심을 잃고 결국 신앙심은 약화되고 맙니다.

이러한 예로 보아 비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옹호하고 또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 2000년 전에 불의한 비판에 끼어 들려는 인간의 심리를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마태복음 7 : 1—5)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전혀 흠이 없을 때가 아니면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읍니다. 왕을 택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무엘의 경험을 상고해 본다면 인간은 남을 비판하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시면서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새로운 왕을 택하도록 하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 여덟을 둔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앞으로 지나칠 때 그를 알도록 하겠다고 하셨읍니다. 먼저 장자인 엘리압이 다가왔을 때 사무엘은 그가 택함을 받은 자로 알았으나 주님께서 이를 거절하셨읍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바른 식별법 열쇠를 일러 주셨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 : 7)

그리하여 아들 일곱이 사무엘의 앞을 지나갔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마지막으로 막내인 다윗이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 승인하신다는 뜻을 전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해졌읍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담긴 것을 볼 수가 없읍니다. 비록 우리가 남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추측한다고는 하지만 그 확실한 동기를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실제로 그 동기가 순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목표나 소망을 잘 알지 않고서는 그를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나 기회나 처한 처지에 있어서 사람은 각각 서로 다른 조건 밑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맨 위에서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맨 밑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여 나가면서 부딪히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위치한 그 자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했읍니다. 말하자면 성공이나 실패에 얼마나 접근했느냐보다 그 향하는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감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로 우리 스스로를 이끌어 갈 수가 있겠읍니까? 사실 사람은 자기 눈에 뜨이는 것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마음에 품은 것이나 의도하는 바를 비판할 수는 없고 더구나 이웃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은 더욱 비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려고 할 때에, 그래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흔히 남의 부정직함이나, 꾸미고 있는 음모나, 허망함과 같은 과오나 약점을 꼬집어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가장 못된 면만이 평가되어 노출되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날의 뉴스 미디어에 있어서도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가장 여의치 못한 면이 이야기의 촛점이 되곤 합니다. 그 사람의 훌륭한 아흔 아홉 가지 사항은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지의 과오, 그것이 강조되고 과장되어 온 세상에 광고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욕적인 글이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반복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버릇처럼,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라구"라고 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시샘이 많은 어떤 사람이 험담의 불씨를 붙인 위에다 사실 무근한 연기를 자꾸만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가까운 친구가 비행에 가담했다는 풍문이 나돌 때라도 그 사실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그 풍문을 받아들이고 들은 대로 떠들어 대는 경향이 있읍니다. 잘못 전해진 이야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친구가 파멸의 구렁에 빠지게 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일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때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이 비판의 문제가 개입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좀 더 두고 확실한 사항을 검토해야 하겠읍니다.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 보아야 하니까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판하는 소리를 감싸 줌으로써 우리는 참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읍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가 공명 정대한 판결을 받게 되기를 열망하면서도 왜 사람들이 그토록 이웃이나 친구가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때 쉽게 그들을 정죄하려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개인적인 사감과 우월감 등을 배제할 수 있으며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 줄 수 있읍니다.

남의 감추어진 약점을 캐내려 하기보다는 저들의 장점을 보아 주도록 노력합시다. 꼭 남의 약점을 찾아내겠다는 태도로 임한다면 쉽게 남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감싸주려 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려 하고 그것을 강조하려 할 때에 가정에는 파탄이 일게 되고 가족간의 유대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태도가 정도에서 벗어나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의 향상 발전에 노력하기보다는 남의 약점이나 과오에 열을 올리게 되며 그러한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합시다. 너무도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를 비난하고 교회의 교리를 비난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지도자를 따르지 않으며 복음의 가르침대로 따라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의 가장 분명한 예를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읍니다. 가인은 자기 임무 수행에 다소 게으르게 된 나머지 아벨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에 화가 났고 그의 그러한 무분별한 질투와 시기가 마침내는 그의 동생을 살해하게 만듭니다. 만일 가인의 동생의 처지를 이해하여 축하해 주고 존경해 주며 자기의 잘못을 시정하고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읍니까?

우리의 자세와 언행을 점검하도록 하고 의로운 모습을 갖추도록 하며 다른 사람을 공박하는 일이나 잘못 전해지는 풍문을 퍼뜨리는 것을 절대로 삼가도록 합시다.

풍문이란 가장 못된 형태의 비난이라고 봅니다. 혀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살인적인 무기이기도 합니다. 간교한 혀는 한 사람의 명예와 장래를 파멸케 할 수가 있읍니다. 한 사람의 명예를 파괴하려는 공격적인 시도와 간계와 반 거짓말로 개인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마치 거대한 떡갈나무의 생명을 앗으며 그 존재를 종식시키게 하는 무서운 곤충의 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독소는 지극히 은밀하여 쉽게 방비할 수가 없읍니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세균의 공격을 피하는 것보다는 코끼리를 피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

우리가 이제까지 수없이 들어 온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일상 생활에서 구현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읍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 7 : 12) 이와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평가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표준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그러한 표준으로 남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읍니다.

간음한 여인이 그리스도 앞에 끌려왔을 때 그리스도는 고발자들의 부정당한 태도에 마음이 아팠읍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평가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표준과는 전혀 다른 표준에 의하여 그 여인이 정죄받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대개는 많은 잘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읍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후에 허리를 굽혀 모래 위에 글을 쓰시면서,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고 하셨읍니다. (요 8 : 7, 10)

우리가 예수님께 정죄를 요청하며 사람을 데려 갔을 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며 허리를 굽혀 모래 위에 글을 쓰고 계시다면 우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끄러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리를 피하겠읍니까?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일 우리가 "너희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 : 39)고 하신 두번째로 큰 계명을 좇아 살며 우리들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주변에는 이웃을 헐뜯는 소리나 거짓 증거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란 말씀이 있고 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 : 12, 14—15)는 말씀이 있읍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용서의 표본입니다. 그 앞에 간음 죄로 끌려온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요 8 : 11)고 하셨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채 기도하실 때에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 : 34)라고 하셨읍니다.

우리들 개인의 사심이나 우월감이나 불안한 심정을 극복하고 사회 복지를 위하여 더욱 기여하며 남의 행복에 힘쓰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행복해질 것입니다.

물론 나라의 법을 다스리는 판사도 있어야 하고 교회 회원의 일을 다스리는 교회의 판사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재판하고 다스린다는 무겁고 힘든 책임을 지며 맡은 소명에 충실하여 나라의 법과 교회의 법에 좇아 의롭게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같이 복음 원리에 따르며 높은 원리에 좇아 살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정계의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고매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여하한 비난이나 질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읍니다.

남을 깎아 내리고 헐뜯음으로 해서 얻는 것도 없으며 발전하거나 우리의 성품을 향상시키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회의 석상에서 격렬했던 비난과 험담으로 해서 가까운 친구 간의 우정이 깨지게 된 사례를 목격했읍니다.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대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우리는 젊은이로 하여금 개인적인 신망을 잃게

하고 나아가서는 정부의 지도자 내지는 정부 자체를 경멸하게 합니다.

우리는 특히 부모로서 이러한 일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언행의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자녀의 태도와 마음 가짐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읍니다. 어린 아이가 장차 다른 사람들과 살아 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 교육을 받는 곳은 가정이며 가정에서 덕과 사랑과 관용과 인자스러움을 배웁니다. 이러한 교훈은 부모가 자녀에게 인종이나 종교나 사회적인 지위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를 공평하게 대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친다면 훌륭하게 준비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부모가 관용으로써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었던 사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나의 주를 사랑하고 나의 이웃과 친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나의 겸양을 다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무에게도 반감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거부의 태도를 혹 누구에게 보였다면 이를 관대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 : 40)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느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과 특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간증을 전하기를 갈망하며 회복된 복음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난하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유일한 참 독생자이시고 그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부활하셨고 이로써 온 인류가 불사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 : 39) 또한 주는 우리에게 주의 면전으로 돌아가 영생을 구가하도록 복음의 계획을 주셨읍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회복되었고 오늘날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읍니다. 나는 성경이 예언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아울러 몰몬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옛 미대륙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기록한 온전한 복음의 기록임을 증거합니다. 몰몬경은 계명과 계시의 영으로 기록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온 나라에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시키는 기록입니다.

나는 또한 이 교회의 대관장이신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예언자이시며 그 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이제 내가 그 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모두를 알기에 겸허한 마음으로 간증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모두 몰몬경을 읽고 그곳에 약속된 진리를 기쁜 마음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나이서 10 : 4—5)

이 약속과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전합니다. 아멘.

신권 : 당당한 군대

앤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왜 신권 소유자는 유혹을 극복하여야 하며 신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가?

내가 교회의 이 건물 혹은 다른 건물에서 신권의 큰 지혜를 생각하려 할 때마다 "보라! 당당한 군대"라는 찬송가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신권을 지니고 있는 우리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며 우리의 신권을 잘 사용할 때 얼마나 큰 힘과 영향력이 미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책임입니까!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며 결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권에 대하여 부끄러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권리와 의로움이라는 면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 보다는 더 성스럽다"는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며 결코 방황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는 자기의 명성을 잃지나 않을까, 혹은 조롱당하지나 않을까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며 죄악에 가득 찬 세상을 즐겁게 하고 세상의 욕망을 채우려 할 필요가 없읍니다. 세상에서 사나 세상과 같이 되지는 마십시오. 나의 경험에 비추어 나는 여러분께 확실히 말할 수 있읍니다. 신권을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신권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것과 신권을 중히 여기는 것을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읍니다.

나는 바로 어제 매우 유명한 사업가와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는 교회에 아주 헌신적인 회원이며 자신의 신권을 중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한 번이라도 신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형제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읍니까?"라고 물어 보았을 때 그는 "태너 부대관장님, 오히려 언제나 유리하답니다"라고 말하였읍니다.

혹자는 젊은이와 심지어는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들의 사상에까지 영향을 주는 오늘날의 세계 추세로 보아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도덕성을 가르치고 있

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도덕가인 체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읍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마음이 편협하고 도덕과 지혜가 뛰어난 체 하는 사람을 말하는 듯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판단한다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읍니다.

우리는 신앙을 잃고, 현대의 계시를 부인하고, 세상과 같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현대화시키겠읍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되어 우리의 신권을 존중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겠읍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회복된 복음과 신권을 지니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혹은 이사야가 말씀하신 대로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요 12 : 42, 43) 이와 같이 되겠읍니까?

오늘 저녁 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젊은 형제님께 간곡히 말하고 싶은 것은(신권을 소유하고 계신 모든 형제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 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권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음 달에 침례를 받으려는 한 젊은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읍니다. 그의 가족 중에는 침례를 받은 분이 한 분도 없었읍니다. 나는 "형제님은 어떻게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읍니까?" 하고 물었읍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학교에서 같이 지내는 친구가 바로 교회의 회원이었는데 그 친구의 생활 태도가 퍽 관심을 끌게 하였읍니다. 그 친구는 다른 아이들과 다릅니다. 그는 언제나 명랑했고 어느 날 집으로 초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곳에서 가정의 사랑을 보았고 그 가족의 생활 방식을 보고 더욱 관심을 쏟게 되었읍니다. 그는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는 운동 경기에 참여하였는데 저는 그 교회에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읍니다. 그 운동 경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선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게 큰 감명을 주었으며 저도 교회에 속하겠다고 결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는 계속하여 "저는 그 친구와 함께 브리감 영 대학에 왔읍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읍니다. 저기 있는 젊은이들 대부분은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생활하고 있읍니다만 만일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교회의 회원이 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젊은 형제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거나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등지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편하지 못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나는 변호사의 직업을 얻고 뉴욕으로 떠나려는 한 젊은 청년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읍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큰 회사로 인정을 받는 이 회사의 사장은 역시 동부에 위치한 큰 회사의 부사장인 교회의 한 회원을 알았읍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그에게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읍니다. 그 사장의 말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란 당신의 교회 회원들이 생활하는 방법대로 사는 사람, 즉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일을 충실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을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젊은 청년들에게 생활의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활할진대 언제나 여러분의 생활에는 이익만 오게 됩니다.

회사의 부사장인 이 사람은 "솔트레이크시에 있는 한 청년을 알고 있읍니다"라고 말하였읍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뉴욕까지의 왕복 차비를 주어 그를 초청하여 접견을 마치고는 그를 채용하게 되었읍니다. 더구나 부인의 차비는 물론 집까지도 마련해 주었읍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하여, 여러분이 함께 일하게 되는 사람에게 미치는 여러분의 영향을 위하여 여러분이 택해야 하는 생활 방식을 과장하여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여러분이 해 주기를 기대하며 맹세한 대로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내려 누르지 않는한, 지금은 신권을 갖고 있지 않은 형제님들이라 하여도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 미 청소년 상업 회의소 회장이 부인과 두 쌍의 부부와 함께 인사를 한다고 지역 회의소 일원으로 일하는 교회 회원의 안내를 받아 나의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우리는 세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상업 회의소의 회장인 이 젊은 사람의 책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 나는 "교회에 대하여 알고 싶지 않읍니까?"하고 물었읍니다.

"네, 알고 싶군요"라고 대답했읍니다. 그러자 나는 그들을 안내해 준 젊은이를 바라보며 "형제가 이야기해 주겠소?"라고 말했읍니다.

그는 "저 태너 부대관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아닐세, 자네가 교회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게"라고 말했읍니다. 그러자 그는 다른 젊은 사람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몰몬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시작했읍니다. 그는 몰몬경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예언자에게 주어졌으며 어떻게 번역되었는가를 말했읍니다. 중간에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저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며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 이것은 참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 책에 나오는 약속 한 가지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그는 "이 책을 한 권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었읍니다.

그 상업 회의소 회장은 "물론이죠. 흥미있읍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읍니다. 그 간증을 드린 분이 바로 리차드 모일입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처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읍니다.

나는 오늘 저녁,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느 것처럼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었고 복음이 회복되어 교회가 이 땅에 다시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아직 복음에 대

한 간증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형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저녁에 들은 간증을 받아들이고, 지도자의 말씀을 들으며 동시에 기도와 공부를 계속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도 자신의 간증을 얻을 수 있게 되며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 복음 17 : 3)

우리가 신권을 존중하고 신권의 축복을 누려서 우리의 생을 영원히 죽지 않는 생으로 이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972년 10월 대회 말씀

—제 142 반연차 대회 보고—

1972년 10월 6일 금요일 오후 모임 말씀

친구란 어떤 사람인가?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봉사를 통해 우정을 키움

나는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친구로서 맞이하고자 합니다.

"친구란 현재의 나를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라고 누군가 말했읍니다. 이 말을 친구라는 단어의 정의의 하나로 인정합니다만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친구로 하여금 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게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읍니다.

친구란 의미에 관해서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친구는 상대방에게 자기 향상, 개선된 태도, 자립, 안락, 위안, 자기 존중, 보다 나은 복리를 가져다 주도록 처신해야 합니다. **친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범죄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과 동일시될 때 그 단어는 확실히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 줄 경우 그의 모든 태도는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로 말미암아 개선과 독립심을 가져다 주게 된다면 우리의 우정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가 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두려움은 우리로부터 우정을 빼앗아 갈 수도 있읍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란 어떠한 환경에 처해서도 함께 남아 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라고 합니다. 친구란 곧 나타나게 될 결과에는 개의치 않고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경은 영국이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영국의 가장 위대한 친구가 되었읍니다. 그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평화적인 항복을 옹호한다면 쉽게 친구로 받아들이고자 하였으나 그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와 노력과 눈물과 땀"을 요구할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읍니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한때 그가 적에게 대하는 태도 때문에 비난받은 일이 있었읍니다. "왜 각하는 그들을 친구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한 보좌관이 물었읍니다. 그는 그 질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진멸시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친구로 만들 경우 그들은 자연적으로 진멸되는 것이 아니겠어요"라고 부드럽게 답변했읍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기꺼이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며,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며, 인도하셔서 우리들을 매일 보다 나은 생활을 하게 하시는 우리의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이신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을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로 삼을 권리가 있읍니다. 리 대관장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고귀한 의미에서 우리의 친구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는 우리를 영감과 용기 있는 인격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분과 친구가 되기를 권고합니다. 오늘 아침 손을 들어 나의 친구이신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을 지지한 이 사실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수년 동안 그와의 우정은 시험을 모두 이겼읍니다. 그는 항상 기꺼이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며 내가 향상하도록 도와 주셨읍니다. 그 분과 함께 할 수 있고 총관리역원과 또한 이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는 태너 부대관장님과 롬니 부대관장님을 사랑합니다. 그들도 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친구인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가 내 옆에 앉은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우정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할 때, 다음 성구에 있는 진리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야고보서 1 : 27)

우리가 자신의 생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하고 현재의 자신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도록 생을 향상시킬 때 우리는 자신에게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아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에 대해 진실한 친구가 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과부와 고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그들을 과부와 고아로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향상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들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 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며, 일상의 필요한 물자를 도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가족이나 회원이나 이웃이나 낯선 자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그것을 나누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 친구라 말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꺼려한다면 우리는 진정 친구라 말할 수 있겠읍니까?

친구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 : 14). 주께서는 그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종이라 불렀읍니다. 그들이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겪은 후 모든 점에서 참되고 충실하다고 증명되면 더 이상 종이라 불리우지 않고 친구라 불리우게 됩니다. 그분의 친구란 그가 그의 왕국으로 데리고 가 그와 함께 영원한 상속을 받게 될 자들을 말합니다. (교성 93 : 45—46 참조)

이제 나는 구세주께서 "친구"라고 하신 여러 성구를 교리와 성약에서 인용하겠읍니다.

"또 다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친구여……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시리라"(교리와 성약 88 : 62—64)

"……나의 친구 시드니와 요셉에게……"(교리와 성약 100 : 1)

"나의 친구여,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계시와 계명을 주어……"(교리와 성약 103 : 1)

"……나의 친구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려워 말라."(교리와 성약 98 : 1)

"……나는 너를 친구라 부르리라. 너는 나의 친구요. 나와 함께 상속을 받을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93 : 45)

방금 소개된 마지막 성구는 주께서 당시 요셉 스미스에게 그의 가족에 대한 처사에 대하여 그를 꾸짖으시면서 주신 것임을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내가 나의 사도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의 사도 곧 하나님의 대제사라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요, 나의 친구니라."(교리와 성약 84 : 63)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신 계명, 질책, 인사, 계시, 격려, 오래 참음으로 그는 날마다 이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정의 참된 의미를 찾고자 하면서 내가 최근에 나누었던 단순하면서도 매우 의미 깊은 대화를 잠시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8살 짜리 어린 소녀에게 이렇게 물었읍니다.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니?" "엄마에요"라고 그는 대답하는 것이었읍니다. "왜?" "엄마는 제게 잘해 주시거든요."

제사 연령의 청소년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감독님입니다"라고 했읍니다. "왜?" "그는 저희들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이지요"라고 했읍니다.

19살 자매의 대답은 이러했읍니다. "이삭줍기반 교사지요" "왜?" "그 자매님은 필요할 때마다 함께 해 주세요. 공과 시간 이외에도 말이죠"

또 13살 짜리 소년의 답은 이러했읍니다. "소년단장이예요" "왜?" "그는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하니까요."

죄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목사님입니다." "왜?" "그분은 저를 신뢰합니다. 그분이 저를 믿어서는 안될 때라도 한결같이 절 믿습니다."

한 남편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내 아내지요." "왜?" "아내는 나의 가장 좋은 반려자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대화에서 우리는 우정이란 반드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을 알기까지는 친구가 될 수 없읍니다. 친구란 우리를 알기 위해 시간을 낼 뿐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한 시간을 내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의 하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친구의 가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읍니다. "만일 내 삶이 친구에게 가치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나에게도 가치있는 삶이 아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 : 13)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1850—1894, 스코틀랜드 작가)은 그의 빛나고 유용한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단순히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친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읍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진정한 친구란 수동적으로 고개만 끄덕이며 찬성하는 자가 아닙니다. 참된 친구란 염려해 주고 보살펴 주는 자입니다.

최근에 내가 남미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선교부장과 함께 선교 본부에서 320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여행하고 있었읍니다. 장로 한 사람이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치료가 6~7 시간이나 지체되어 상당히 위독한 상태에 있다는 소식이었읍니다. 선교부장은 전화로 될 수 있는 한 가장 훌륭한 의사의 치료를 즉시 받도록 지시하고 지역 대회에 모인 60명의 선교사들에게 합동으로 기도할 것을 지시했읍니다. 선교부장과 그의 부인은 다음날 아침 그 장로에게로 갔읍니다. 기도가 계속되고 의료진의 긴장은 더욱 높아갔읍니다. 친구들은 24시간 교대로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시중을 들고 있었읍니다. 아이다호에 있는 그의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알렸읍니다. "당신의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가 꼭 낫게 될 것이라고 믿읍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정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한 마리를 긴급하게 구조하기 위해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버려두는 모범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성심어린 말보다 더 큰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한 자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진로를 되찾게 될 때 그 우정은 산 우정이 될 수 있읍니다. 우리들로 말미암아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강한 자는 더욱 강한 자가 될 때 그 우정은 참된 것이 됩니다. 만일 한 사람이 그의 친구들에 의해 심판받는다면 그는 또한 그들의 심판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친구를 도울 수 있을까요? 다음의 한 아라비아인의 속담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란 우리의 마음의 알곡과 겨를 모두 쏟을 수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장 부드러운 손으로 그것을 받아 체질하여 알곡은 따로 모으고 겨는 부드러운 숨결로 날려 보내 버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친구란 나 자신을 그대

로 받아들이면서 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다가갔을 때 그들이 보여 준 훌륭한 경험에 대해 영원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나면서 앉은뱅이된 자가 있었읍니다. 그는 한 번도 걸어 본 일 없이 평생을 구걸로 살았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는 손을 벌려 구걸하였읍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했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사도행전 3 : 6—7)

베드로는 친구였읍니다. 그는 구걸하는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나는 너를 도우리라"고 말했읍니다. 우리도 또한 친구들이 자신의 힘으로 행할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친구를 현재의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더 나은 방향으로 향상하도록 하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우리의 동료와 갖는 우정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을 지적하셨읍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 : 35, 40)

나는 우리가 모두 친구가 되도록 도와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정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우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 되시며, 구세주 되시며,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며 그분은 또한 우리의 친구이심을 오늘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하나님의 뜻은 회복된 교회의 현대 예언자를 통해 계시된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해롤드 비 리 장로님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위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만장일치로 지지했읍니다. 나는 총관리 역원의 어느 분보다 더 오랫동안 이 위대하신 분을 알고 있었읍니다. 나는 그를 존경합니다. 50년 전 우리의 소년 시절부터 나는 그를 칭찬해 왔읍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영감받은 지도자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도하실 이상적인 자격을 갖춘 자로 그를 지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회원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훌륭하신 지도자를 따르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직 회원이 아니신 분들에게 드리는 나의 짧은 메시지가 그들의 영혼에 확신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신앙과 기도로써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하늘의 시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읍니다. 그리고 다음의 중대한 말로 답했읍니다. "……주여 제가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나이까"(행 9 : 6)*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권능을 부여받은 종에게 사울을 보내어 지시와 축복을 받게 하셨읍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애에서 "……주여 제가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는 바울의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게 해 주며, 그 대답대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실까요? 그는 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 : 48) 또한 몰몬경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이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삼 27 : 27)

그런 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본보기를 보이셨읍니다. 많은 사람이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지만 죄 없이 이 세상에서 산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읍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였읍니다. 그는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셨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그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명하셨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도록 하셨읍니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빛이며, 누구도 그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모두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위대성을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곧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자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며, 그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곧 그와 가장 닮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닮을 수 있으며, 그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가 걸으신 길을 걸으며, 그가 명하신 일을 행할 수 있읍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해야 하며, 그의 계명을 알며,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풍요한 삶과 충만한 기쁨과 무거운 짐진 자들이

* 주 : 우리 말 성경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음.

갈구하는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이라 고 약속하셨읍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경전은 물론 그를 알고 있는 자들의 간증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영감과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계시를 통해 그를 알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계명을 알 수 있읍니까? 여러분은 경전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가 인정하신 종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양심과 같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그리고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읍니다.

바울이 "주여 제가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질문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 권능을 부여받은 종에게 가라고 하신 사실은 의미깊은 일입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기도드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신 사실과 같습니다. (행 10장 참조)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지상에 보내실 때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와 그의 계명을 알 수 있게 했읍니다.

이 예언자들의 영감받은 말씀을 기록해 두면 이것이 곧 경전이 되며, 하나님께서 지상에 그의 대표자를 두실 때는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경전이 있게 됩니다. 인간들이 너무나 부패하여 예언자들이 그들 가운데서 없어졌을 때 계시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부여하신 대표자를 통해서만 구원에 필요한 의식과 그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계명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예언자에 관해 주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마 10 : 40)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그 우월성을 인정받았읍니다. 이는 그의 말씀은 특별한 때에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었읍니다. 어떤 사람이 노아 시대의 고대 경전을 받아들이되 노아가 받은 계시에 따르기를 거부하여 방주에 타지 않았다면, 그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의 계명을 배워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인정하신 그의 대표자를 찾아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언자는 더 이상 지상에 계실 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경전은 신약의 마지막 말씀으로써 끝나버렸으며 소위 기독교계에는 혼란과 분쟁만이 있었읍니다. 이는 그들이 가진 것은 모두 고대 경전이며 이를 설명해 주거나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경전을 받아들이며, 성역을 베풀 권능을 가진 예언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20년,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가장 위대한 한 사건이 일어났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자 기도한 요셉 스미스란 한 소년에게 친히 나타나셨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요셉 스미스 2서 17절) 하나님의 아들은 요셉 스미스에게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하셨읍니다. 요셉은 주님의 참된 교회가 이 지상에 없다는 것과 이 지상에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가 수세기 동안 없었다는 것과 그들의 죽음으로 교회의 계시의 반석이 세워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새로운 경전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읍니다.

최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관리하도록 마지막으로 권능을 받은 자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읍니다. 영화롭게 된 이들은 요셉 스미스에게 그들이 예수에게서 받은 권능과 동일한 권능을 부여했읍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는 다시 "……주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교성 44 : 1)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계시게 되었읍니다. 요셉 스미스는 부여받은 권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성임하였읍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이른바 몰몬 교회라고 알려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다시 회복되었읍니다.

때가 이르매 또 다른 하늘 사자가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성경은 세상의 한 백성에 대한 영적인 기록이므로 고대 미대륙에 살았던 다른 백성에 관한 영적인 기록을 이 지상에 주실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하늘의 영감을 받아 요셉 스미스가 번역한 이 미대륙의 경전을 몰몬경이라 부릅니다. 이 책은 특히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후 미대륙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시어 그곳에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을 말해 주고 있읍니다. 몰몬경의 사명은 성경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제2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똑같이 사랑하시며, 기독교계의 혼란을 초래케 한 교리를 명백히 밝혀 줌으로써 그들간의 분쟁을 없애는 데 있읍니다.

요셉 스미스의 뒤를 이은 많은 예언자들처럼 요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읍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경전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서의 주님의 대변자요 예언자이신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의 권능선을 살펴보면 요셉 스미스, 또한 요셉 스미스를 성임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또한 이들을 성임하셨던 이 지구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인류가 그 앞에 서서 헤아림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시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던 이 경이로운 메시지는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빌립을 보고 물었을 때 빌립은 "와 보라"(요 1 : 46)고 대답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와 보라"고 대답합니다. 인간은 여러분을 기만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진실한 것임을 알고자 원하시면 이에 대해서 열렬히 기도하시고,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시며 몰몬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전임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시험해 보십시오. 몰몬경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책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약속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모로 10 : 4 참조)

이것은 하나의 목표요 시험입니다. 나는 몰몬경을 읽고 그것을 시험해 보았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전이 참되다는 사실과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시며, 해롤드 비 리는 그의 예언자요 대표자이시며, 오늘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

로서 고대의 베드로처럼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가진 유일한 분임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날 이 지상에 주님의 참된 예언자가 필요한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노아 시대의 백성들은 그들을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경고해 줄 선지자를 필요로 했읍니까? 노아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홍수로부터 구출될 수 있었겠읍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말일에 인간의 사악함이 하나님께서 홍수로써 지상을 깨끗케 하셨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사악함과 비교될 수 있다고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를 경고해 주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불로써 태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대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 많은 것을 계시로 밝혀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현대의 예언자에게 건강에 관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에 따르기만 한다면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교성 89편 참조)고 약속하셨읍니다.

여러분은 또한 인간이 말일의 계시를 통해 그들의 전세의 상태를 알며,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왜 이곳에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가능성에 관해 안다면 절망하거나 자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단위를 없애려 하고 가정에서의 분열과 분쟁을 조성하려고 사탄이 노력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은 주님의 현대 예언자께서 50년 전에 마련해 주신 가정의 밤 프로그램에 감명을 받지 않습니까? 일 주일 중 하루 저녁을 택해서 갖는 이 프로그램은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영적인 가르침 뿐만 아니라 인격 도야에 관한 가르침을 받고, 가족의 목표와 계획을 토론하고, 가족의 재능을 발표하고, 게임과 다과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회는 회원들에게 해마다 이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이 실려 있는 교재를 배부합니다. 부지런히 이 가정의 밤을 갖는 회원들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약속하신 축복을 받습니다. 이 약속된 축복에 대해서 들어 보십시오.

"가정에서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순종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스라엘의 젊은이의 마음에 신앙이 자라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악마의 영향과 유혹을 대적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1965년 가정의 밤 교재)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일의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는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며,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해 신전에서 결혼한 부부는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맺어질 것이며, 죽음이 여러분을 갈라 놓더라도 현세 뿐만 아니라 영원히 맺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또한 부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충실하다면 그들의 가족 단위는 내세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에 대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축복받은 나라와 자유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증가되고 있는 파괴와 거대한 음모단에 의해 악이 만연되고 있음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몰몬경을 읽고 싶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내부의 비밀 음모로 인해서 고대 미대륙의 두 민족이 몰락한 기록이 실려 있으며, 오늘날 우리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 두려운 상황에서 깨어나라고 하시는 경고가 들어 있읍니다. 자유의 적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원조와 교역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분은 몰몬경에서 말하는 바가 이 음모를 지지하는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파괴시키는 길로 전락해 가는 사회주의와 그것에 대한 예언자의 경고는 물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세상에 닥쳐 올 재난을 알고 계셨읍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요셉 스미스와 그 밖의 예언자들에게 계시를 주신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수년 동안 우리 회원들에게 최소한 일 년 분의 식량과 피복, 가능한 한 연료까지 비축하며, 재정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라고 지시하신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싶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상에서 독립하도록 주신 지시를 알고 계십니까?

미래와 영원을 위해 준비하라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과 도움을 주는 이 수많은 계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 주어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겠읍니까?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생애와 그의 계명을 공부하며 그 계명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기쁨과 풍요로운 삶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그를 알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그와 그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했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며, 그들은 계시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했읍니다. 바울이 질문한 "주여 제가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읍니다. 그가 받았던 대답 즉 주님께서 인정하신 자에게로 가서 지시를 받으라는 대답보다 더 중요한 대답도 없읍니다.

"예언자의 음성 듣고 주 말씀 믿으라
진리의 길 기뻐하고 찬송을 외쳐라
옛 선지 걸었던 그 길 우리도 알았네
이 지식 회복하려고 예언자 주셨네
—찬송가 113장—

나는 여러분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더 연구해 보기 위해서 몰몬경을 읽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가 있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고 기꺼이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모임에 참석하도록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소책자나 더 많은 자료를 얻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나는 여러분께 간증을 드리겠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죽지 않으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이며 다같이 아버지의 영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예언자를 보내셨읍니다. 오늘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그분의 예언자시며, 그분의 대변자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알고 있읍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에서의 변화를 관찰하라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지혜롭고 순결하며 순종하고 기도하도록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의 기록에 따르면 1833년에 교회의 신권 소유자인 모든 형제들이 예언자 요셉과 함께 단간방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밤 이곳과 750개의 다른 곳에 모인 신권 소유자는 180,0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는 25,000명 내지 30,000명의 청소년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나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고 오늘날의 청소년처럼 헌신적이고 능력있는 세대가 없었다는 확신을 가졌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로하신 형제들께서는 이 말을 반박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나는 다음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소년이 아침 식사를 들기 위해 식탁에 앉으면서 부친께 이와 같이 말했읍니다. "아버지, 지난 밤에 아버지 꿈을 꾸었어요."

"뭐, 내 꿈을 꾸었다구? 그래 어떤 꿈을 꾸었지?"

"저는 하늘에 오르는 사닥다리를 올라가고 있었는데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거기에 내가 지은 죄 하나를 분필로 적어야 했어요."

"네 꿈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든?"하고 아버지가 물었읍니다.

"나는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분필이 더 필요하셨나봐요."

여러 시대를 통하여 주께서는 많은 소년들을 택하여 그의 기이한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셨읍니다. 사무엘, 다윗, 애굽으로 팔려 간 요셉, 니파이, 몰몬, 요셉 스미스가 그러한 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와 같이 그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이 내가 여기서 열거한 분들과는 다른 것일지도 모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며,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며 성신이 여러분을 통하여 말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 위한 여러분의 책임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내가 성령의 은사를 가져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려 여러분의 가슴이 진실로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일이란 여러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로는 위대하고 놀라운 결심만으로써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로는 우리가 달리는 노선을 결정하는 매일매일의 조그마한 선택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철도청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는 뉴저지주의 뉴어크의 철도 사무소로부터 전보를 받았읍니다. 그 전보 내용은 한 객차가 그곳에 도착했는데 화물 차량이 함께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화물주들이 대단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이었읍니다.

우리는 그 화물 차량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연결되어 세인트 루이스까지 잘 운반되었지만 거기서 그 화물 차량은 동부 해안으로 운반되어야 하는데 세인트 루이스에서 한 전철수가 잘못하여 전철기를 3인치 돌려놓은 탓으로 뉴저지주의 뉴어크로 가야 할 차량이 그곳에서 2000킬로미터나 떨어진 루이지애나주로 가 버렸음을 알았읍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읍니다. 담배 한 대를 피운다든지, 파티에서 한 잔의 맥주를 마신다든지, 환각제 주사를 맞는다든지, 데이트에서 일시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청소년에게는 그들의 삶을 그들이 예임된 위대한 부름에서 멀리 이탈시킬 수 있는 전철기가 주어져 있읍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니이 28 : 21)

내 손에는 내가 스위스에서 가지고 온 조그마한 꾸러미가 있읍니다. 여러분은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영화 마지막에 "에델바이스"라는 아름다운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는 알프스산에서 나는 에델바이스라는 꽃에 관한 것인데 그 노래에는 이런 구절이 있읍니다. "작고 맑은 하얀 꽃이여 나의 조국을 영원히 축복해 주리."

이 꾸러미 속에는 에델바이스 씨앗이 들어 있읍니다. 이 씨앗은 아주 작습니다. 마치 후추가루와 같습니다. 이 꾸러미 겉에는 이것이 완전히 자랐을 때의 그림이 그려져 있읍니다. 이 꽃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 걸쳐 있는 알프스산 속에 자라는 고산 식물입니다. 이것은 폭풍이 몰아치는 추운 알프스산의 눈 속에서 꽃이 핍니다. 알프스산의 알파인 언덕과 목장에 피어 있는 이 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작은 씨앗은 그 속에 활기차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잠재 능력이 깃들어 있읍니다. 이 씨앗은 위대한 나라를 영원히 축복하는 "작고 맑은 하얀" 그야말로 불굴의 의지를 가진 백성의 상징입니다.

소년들은 이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선을 위한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 숨어 있읍니다. 매일매일의 조그마한 결정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진로를 결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하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할 만큼 위대한 능력을 주셨읍니다. 여러분의 지능 지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읍니까? 우리의 교도소는 현명한 사람이 아닌 영리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나는 이 세상의 훌륭한 일은 지능이 우수한 천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읍니다. 이러한 일은 그들의 능력을 특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평범한 능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학문을 구하고 여러분의 기술을 향상시

킬 의무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상인이 되든지 교사, 목수, 연관공, 기계공, 의사 또는 어떤 훌륭한 직업을 갖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회를 위해 쓸모 있는 인군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 없고 학업을 계속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은 하나의 비극이라 할 수 있읍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힘든 일이기는 하나 바람직한 것입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삶과 여러분이 봉사하는 자들의 삶을 복되게 할 뿐 아니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명예와 존경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대한 봉사로 말미암아 몰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인상이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무가치한 거짓된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권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순결하십시오. "주의 그릇을 지닌 너희여 깨끗하라."(교성 38 : 42) 주의 성찬을 집행하는 여러분은 순결해야 합니다.

리 대관장님은 최근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어 주께서 그가 당해야 할 무서운 고통을 미리 아시고, 고뇌에 차 있었고 또한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비록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의 온 몸의 구멍에서 피를 쏟았던 겟세마네 동산을 가 보셨읍니다. 그분은 거기서 조롱과 배신을 당하셨으며 결국 악한 자의 손에 인도되었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그의 희생의 상징물을 축복할 때 불결한 손과 순결치 못한 마음으로 성찬상에 나아옴으로써 그를 다시 조롱하지 맙시다.

집사, 또는 교사, 제사의 신권을 소유한 여러분은 모여 앉아 저속한 이야기나 하면서 웃어대거나, 외설 서적이나 영화를 보거나 여러분이 받은 능력을 남용하거나 어떤 부도덕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화평을 얻기 위해 순결하십시오. 나는 일전에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는 한 청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읍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그는 부도덕에 빠져 있었읍니다. 그 청년은 자기와 사귀어 온 아가씨와 함께 부도덕한 생각을 했읍니다. 그 청년은 그녀에게서 그녀가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빼앗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읍니다. 그 자신도 역시 결코 보상할 수 없는 것을 잃어 버렸읍니다.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면서 그는 스스로 그가 세상에 나아가 자신이 지키지도 못한 행동의 표준을 다른 사람들에 가르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판단을 내렸읍니다. 그 청년은 화평도 즐거움도 갖지 못했읍니다.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순결하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은 동경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훌륭한 자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하면 여러분은 그녀를 해치기 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의 오른손을 잘라버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이 후손들에게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자질을 전해 줄 수 있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자질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감소되겠읍니까 아니면 더 발전되겠읍니까? 순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힘은 여러분의 순결로 말미암아 10배나 더 강해질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청소년 형제 여러분, 신권의 부름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최근에 영국과 유럽에서 천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만나보았읍니다. 그들은 정말 내가 보기에는 훌륭한 존재였읍니다. 나날이 새로운 사람으로 발전해 나갔읍니다. 그들의 놀라운 능력, 장애물을 헤쳐 나가는 그들의 용기, 그들의 조용하고 효과적인 설득력은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물었읍니다. 그러한 능력은 그들이 교회의 부름에 순종함으로써 서서히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작고 하찮은 의무란 없읍니다. 각자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함으로써 새롭고 보다 필요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밤 이 태버나클의 단상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 전세계의 모든 나라에 계시는 신권 지도자들은 청소년에게 그들이 받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읍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요,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교성 112 : 10)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어떤 분이 제사의 신권을 가졌든지 사도이든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그가 받은 부름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지니고 있읍니다. 나의 생애에서 사도, 칠십인, 장로의 직분을 거쳐 왔지만 제사의 직분을 지녔을 때보다 더 큰 주님의 보호를 받은 때는 없었읍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지닌 아론 신권이 천사의 성역에 대한 권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닙니까!

나는 전날에 스위스의 로산나에서 들은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것이었읍니다. 나는 이것을 성스러운 것으로 보았읍니다.

60여년 전에 아이다호주의 농장에 사는 한 작은 소년이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들로 나갔읍니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 그 소년은 이일 저일을 하며 즐겁게 지냈읍니다. 울타리 너머 낡은 농가가 버려져 있었읍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그 소년은 그 속에 많은 방들이 있음을 알았읍니다. 그는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서 그의 탐사를 시작할 건물 가까이 갔읍니다. 그때 그 소년은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읍니다. "해롤드야, 거기에 가지 말라." 그는 그의 부친이 주위에 계시나 하고 둘러보았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읍니다. 그 소년은 그 경고에 따랐읍니다. 그 소년은 몸을 돌려 거기서 나왔읍니다. 그는 거기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나 결코 의심하지도 않았읍니다. 그는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했읍니다.

바로 그 소년이 오늘날 교회 대관장이 되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관리하고 있읍니다. 수년 동안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은 성령의 지시로써 그를 영화롭게 했고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셨읍니다.

지난 달 3주간 우리는 그와 함께 동행했읍니다. 나는 주님의 성역을 행함에 있어서 후임 동반자로서 오늘날의 이 예언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성령은 그의 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그를 키우고 교화시키고 지시해 왔읍니다.

형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음성을 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마음에 말하리라."(교성 8 : 2)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면 그분은 들으신 기도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지켜 보십시오. 그것은 작지만 중대한 하루하루의 결정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현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연습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훈련과 연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 활동 즉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긴급하고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한 힘과 능력을 길러 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만족스러운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다운 화평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영적인 기근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이 환란의 시대에 참된 교회가 주는 축복

오늘날의 특징을 말해 주는 가장 뚜렷한 구약의 예언의 하나는 아모스가 하신 다음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찌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아모스 8 : 11—12)

기근은 구약 시대의 일반적인 저주 중의 하나였읍니다. 사람들은 흉작과 기근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읍니다. 아모스는 영적인 기근에 대한 그의 예언에서 이 기근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강조하셨읍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보다 훨씬 앞서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신 8 : 3)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종교 단체가 종교상의 회의와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겪고 있는 혼란과 좌절에 관한 보고는 아모스가 하신 다음 말씀을 상기케 해 줍니다. "……사람이……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들은 계시의 반석 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읍니다. 주님께서는 계시의 반석 위에서 이것을 찾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읍니다. (마 16 : 17—18 참조) 이 문제는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던 때를 전후로 하여 선하고 성실한 사람들의 마음에 일기 시작하였읍니다.

1838년 즉 지금부터 134년전, 교회가 조직된 지 8년 후에 랠프 왈도 에머슨이 케임브리지 대학교 신학부 4학년생들에게 연설을 하였읍니다. 그 연설에서 그는 그 당시에 풀 수가 없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읍니다. 그는 이같이 말했읍니다.

"지금보다 새로운 계시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는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읍니까?……참된 교사라면 하나님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살아 계시며, 옛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사람들은……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계시란 옛날에나 주어지고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읍니다"(랠프 왈도 에머슨 전집, 37—45페이지 참조)

이것은 약 1세기 반 전에 발표한 흥미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성직자들의 교단에서 나오는 소리의 반향이기도 합니다.

그후 100년이 지나서 교육자인 로버트 고든 스프로울 박사는 현대 기독교회의 이러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읍니다. "우리는 이상한 현상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믿지 않고 오직 제한된 의식에서만 그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들리는 음성은 영감받은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음성은 사람의 음성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들에게도 이 음성을 듣게 하고, 그것이 말하는 바를 알려 주는 것이 성직자들의 책임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을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 피 아이 통신사 편집자인 루이스 카셀즈는 최근에 종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병들었고, 믿을 수도 없는 것들을 듣는 데 싫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한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이렇게 계속했읍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경고로서 그의 말을 끝맺었읍니다. "빵을 달라고 하는 고객에게 계속 돌덩이를 내밀어 준다면 그들은 결국 그 제과점에 오지 않게 될 것이다."(오늘날의 기독교, 1970년 10월 23일)

1967년 초에 나타난 갤럽 여론 조사에 의하면 전 미국인의 57퍼센트가 종교는 미국인의 생활에서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견해를 가진 자는 불과 14퍼센트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여론 조사자 조지 갤럽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 조사는 미국인의 생활 상태에 관한 조사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말해 주고 있다." 이 여론 조사가 있은 지 5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랠프 왈도 에머슨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신학부에서 "지금보다 새로운 계시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는 없었다"고 연설을 하기 조금 전인 1820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의 집 근처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서 그가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읍니다. 그 당시 그의 마음속에도 오늘날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의문이 있었읍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의 의문은 사라져 버렸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들의 신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며 그들의 교사는 부패하였고,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심히 멀도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요셉 스미스 2서 19절)

일반적으로 볼 때 세상의 이러한 상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읍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역을 베푸셨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던 참된 교회로부터 긴 배도의 시기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확실한 기초가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에 따라 신권과 복음의 회복을 통하여 놓여졌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 즉 신권은 구세주가 지상에 계셨을 때 그의 성역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던 침례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방문함으로써 회복되었읍니다. 그외 다른 하늘의 사자들과 엘리야, 일라이어스, 모세를 포함한 위대한 예언자와 지도자들이 나타나시어 왕국의 중대한 열쇠를 회복하셨읍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 모로나이 천사를 통하여 주어졌읍니다.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것처럼 계시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조직을 위한 기초가 세워졌읍니다. 이것이 온 지상을 다스릴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후 140여년이 지난 오늘날 신권이 회복된 복음에 따라 행사되면서 기적이 이룩되었읍니다. 이 대륙과 세상의 여러 곳에 신전이 건립되었으며 이 지상의 곳곳에 많은 예배당이 세워졌읍니다. 사막이 장미꽃과 같이 피어나게 되었읍니다. 16,000이 넘는 복음 선교사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읍니다. 많은 나라에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와 신학 연구원과 대학에서 하루에 25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에게 세상적인 학문과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읍니다.

오늘을 포함하여 교회의 역사를 통해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에는 예언자와 선견자와 계시자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오늘날의 그의 예언자이신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의 보좌와 십이사도 평의회 역원과 교회 축복사도 역시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입니다. 300만 교회 성도들은 분명치 않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읍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음성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회원들이 최대한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합당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사를 가진 회원은 누구나 만족스럽고, 뜻깊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책임을 가질 수 있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인간의 생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만족과 정서적인 복리를 증진시켜 줍니다.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초등협회와 주일학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이 12세가 되고 합당한 자라면 아론 신권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일생 동안 갖게 될 많은 지도자의 역할을 준비시키는 견습 기간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의 사랑과 인내와 헌신을 증진시켜 주는 생활 원리로 영원한 결혼의 원리보다 더 강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훌륭한 조정과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로 가정생활에서 얻은 성품에 좌우됩니다. 영원한 결혼의 원리는 행복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가정을 이룩해 줄 수 있는 가장 안정되고 영향력이 큰 원리입니다. 이 교회만큼 말접하고 단란한 가정 생활을 강조하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셨고 믿을 수 있는 음성은 이미 없어졌고 미래는 암담하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 교육자, 기고자들이 있읍니다. 세상이 이러한 혼란과 좌절로 허덕이는 반면 말일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1세기 반 동안 이들이 보인 충성과 헌신으로 증명되었읍니다.

그러한 충성과 헌신은 점점 증가되고 있으며 결코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불신앙과 불확실의 암흑으로부터 벗어나 신앙을 갖고 회개의 율법을 따르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복음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고 있읍니다. 이들의 삶은 성신의 은사로 말미암아 밝게 빛나며 그들의 영혼은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봉사로 고조되어 있읍니다.

신앙을 갖고 믿으려는 의지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희망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음성이 있읍니다. 확실히 우리는 아모스가 말씀하신 기근의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암 8 : 12) 영적인 기근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수 많은 자들이 있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세상의 구세주임을 간증드립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저의 말씀은 나의 겸손한 간증의 말씀입니다. 말일에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오늘날 이 지상에는 예언자가 계시며 그는 신앙을 가지고 따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들에게 주님의 뜻과 마음을 말해 준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해롤드 비 리 대관장

리 대관장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를 받은 성회에서 행한 연설

오늘 내 생애에서 가장 뜻 깊은 이 순간, 마음속 깊이 느끼는 이 감정을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나의 사랑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순간 이 역사적인 이 순간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뜻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엄숙한 집회에서 감격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는 동안, 1835년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큰 계시의 중요한 뜻이 과거 어느때 보다도 나의 마음을 압도하고 있읍니다. 이 계시에서 주님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행정에 신권의 질서를 세울 것을 명하셨읍니다.

주님은 이 계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관장단, 혹은 멜기세덱 혹은 교회의 대제사의 회장단을 구성함에 있어 필요한 네 가지 요건을 지정하시고 그것에 관해 말씀하셨읍니다. (교성 107 : 22)

첫째, 세 사람의 관리 대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조직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십이사도 평의회를 뜻함)

세째, 십이사도 평의회에서 임명되고 성임되어야 합니다.

네째, 교회 회원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서 대관장단인 정원회가 구성되어 교회를 관리하게 됩니다.

1972년 7월 7일 첫 단계로 십이사도가 신전에 모여 성스러운 집회를 가졌으며 여기서 대관장단을 임명했읍니다.

전에는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요즈음 저는 그 마지막의 요건인 교회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 즉 온 교회 회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8월 멕시코에서 개최한 훌륭한 레이맨인 성도들의 지역 대회가 우정과 사랑으로 차고 넘친 광경을 목격했읍니다. 16,000명의 성도들이 강당에 모여 그들의 총관리 역원들을 지지했읍니다.

이제 이 엄숙한 모임에서 나는 형제로서의 참다운 사랑과 결속을 느끼고 표현할 길 없는 큰 감동을 받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신회의 세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심없이 증거하는 영적인 축복이 임재하고 있읍니다. 주님께서 오늘과 같은 뜻깊은 날에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며 그의 전능하신 인도 아래 우리가 봉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뉴욕의 페이에트에서 가진 이와 같은 대회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전해 드립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새로운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눈은 너희를 바라보고 있도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느니라" (교성 38 : 7)

이 성스러운 모임을 갖기 3개월 전에 나는 이제 내가 져야 할 막중한 책임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성스러운 신전으로 갔읍니다. 그곳에서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상에 잠겨 이전에 나와 같은 부름을 받았던 그 진실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초상화를 올려다 보았읍니다.

며칠 전 새벽에 나는 나의 서재에서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가 평소에 대관장과 절친했던 사람들이 쓴 역대 대관장에 대한 조사를 읽었읍니다.

주님께서는 요셉 스미스를 소년 시절부터 키워 그에게 하나님의 성스러운 권능을 부여하고, 신권을 알아 받아들이게 하고, 말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가르치셨읍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임되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도들이 모여 살던 일리노이주나 미주우리주에서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박해를 피해 이들 성도들을 이끌고 이 내륙의 산악지대 꼭대기에 와 새로운 땅을 개척했읍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읍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님을 우러러 회고해 보면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하신 "내가 아는 가장 순결한 사람 중의 한 분이다"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의 성스러운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간악함이 전혀 없고, 주님의 영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며 영의 빛으로 "앞으로 닥칠 일을 모르면서" 언제나 굳게 걸어간 나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께서는 짧은 대관장 재임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명을 받아 희생의 율법을 적용함으로써 성도들을 더욱 튼튼한 세상적인 기초위에 서게 하였으며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실수와 잘못으로 지게 된 교회의 빚을 청산했읍니다.

나는 교리적인 문제에서 더욱 명확한 정의를 찾고자 할 때는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의 글과 설교를 찾읍니다. 그분의 고상한 모습을 올려다 보면서 평원을 가로지르며 홀로 된 어머니를 돕는 아홉 살 된 소년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아직 15살밖에 안된 소년이 삼촌 요셉 스미스와 하늘의 시현의 힘을 입고 마우이 섬에 있는 할레아칼라 기슭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광경을 그려 보았읍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신문이 교회를 헐뜯던 어지러운 시대에 교회를 이끄시던 분이 바로 그 분이셨읍니다. 그는 주님의 성임을 받아 교회를 굳건히 지켜나가 승리로 이끈 위대한 인물이었읍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께서 그의 두 손을 나의 어깨에 얹고 지금의 나와 같은 깊은 느낌을 지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도로 나를 불렀을 때처럼 내가 하나님의 부름의 뜻에 더 가까와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사진이 나를 지켜보는 동안 내 마음에는 그가 나를 신전에서 성임하실 때 하시던 영감받은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 떠올랐읍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은 우정과 사랑의 사도였읍니다. 그분은 진실로 만인의 친구이셨읍니다. 그분의 사진을 쳐다보는 동안 만인을 그의 친구로 맞던 그의 온유함이 나에게 전해 오는 듯 했읍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키가 크시고 인상적인 분으로 나의 진리를 찾는 듯한 강한 시선으로 나를 보고 계셨읍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있을 특권을 갖지는 못했지만 나는 짧은 순간에 전에도 그러했듯이 그분에게 속함으로써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세상의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일에서 기쁨을 찾으시던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이 웃고 계셨읍니다. 그분은 진리를 손상하시지 않으시는 내가 사랑하던 예언자며, 지도자였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닿아 그가 잠이 드는 그 순간" 그는 의의 지팡이를 내밀며 "네가 나아가 이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 같았읍니다.

이제 나는 홀로 서서 생각에 잠겼읍니다. 새로운 부름에서 내가 드릴 봉사에 대한 오직 참된 기록은 내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받들고 노력을 바친 분들의 마음과 생애에 적은 기록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읍니다.

사랑하던 스미스 대관장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내가 이 부름을 받은 다음날 내 마음 속에는 1853년 대회에서 당시 사도의 한 분이셨던 올슨 하이드 장로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읍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켰읍니다. 그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읍니다. 이제 그분이 행하신 설교를 간단히 인용해 드리겠읍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이끌어 가기 위해 성임을 받았으면 그는 환란과 시험을 거쳐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그가 그 직을 맡기에 합당함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원회 앞에서 합당함을 증거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았으면 그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없읍니다. 처음부터 성령과 전능하신 이의 권고를 알고, 교회를 알고, 교회가 그를 알아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그런 사람은 없읍니다."(설교집, 1권 123페이지)

역대 대관장님들의 생애를 보고 그분들이 그 시대에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읍니다. 올슨 하이드의 이같은 말씀을 새기며 나는 내 자신과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리고 나는 예언자 요셉이 자신에 대한 성격을 분석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나와도 흡사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높은 산에서 굴러내리는 큰 바위와도 같다. 내가 순화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굴러내리며 가속되는 힘으로 종교적 미신이나 성직자들의 탐욕이나 변호사, 의사들의 간교, 사주를 받아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과 배심원들, 폭도와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과, 방탕하고 썩어빠진 남녀들의 힘을 입은 위증자들과 부딪칠 때마다 조금씩 돌출부가 깎여 다듬어졌다. 이렇게 해서 나는 부드럽고 잘 다듬어진, 전지전능하신 이의 화살통에 든 화살이 될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04페이지)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동안 지금껏 내가 겪어 오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몇 가지 경험이 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읍니다. 때때로 나는 내 자신도 높은 산에서 굴러내리는 바위와 같아서 굴러내리는 동안 여러 가지 경험들로 깎여 다듬어져 전지 전능하신 이의 화살통에 든 화살이 된 것 같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 겪어 왔던 일들로 해서 순종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알아보며, 내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한 경험을 쌓는 일이 필요했읍니다.

나의 훌륭한 보좌인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과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을 택하면서 예언의 풍성한 은사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읍니다. 그들도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읍니다. 주님 앞에 그들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읍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관장단의 두 보좌와 십이사도와 그 밖의 총관리 역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부름을 받은 이튿날 아침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읍니다. 내 마음과 영혼은 천국의 창문이 열리는 것 같이 특별한 우정과 사랑으로 모든 교회의 회원들에게 미치는 것 같았읍니다. 온 세계의 삼백만 이상의 성도들에게 내가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읍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나는 온 세상의 성실한 성도들이 확신과 믿음과 기도로 나를 지지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께 기도의 응답을 줄 수 있는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영적으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읍니다. 예언자 요셉이 영국으로 가는 선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란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사람이 주님 가까이 갈 수록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힘도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올슨 에프 휘트니, 히버 시 킴볼의 생애 〔북크래프트사, 1967년〕 131페이지)

이러한 사실이 그날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에 대해 추호의 의심이 없읍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무릇 너희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무기는 번성하지 못하느니라. 만일 어느 사람이 너희를 대적하여 목소리를 높이면 그는 내가 정한 때에 설복당하리라"(교성 71 : 9—10)는 말씀을 믿읍니다.

여러분들의 충성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구세주의 성스러운 사명과 구세주께서 온 시대를 통해 그러하듯이 오늘날에도 그의 교회의 일에 인도의 손길을 주신다는 것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위임되었나니 그곳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굴러 퍼지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채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퍼지듯이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

"그러므로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교성 65 : 2, 6)라고 하신 말씀을 눈으로 본 것보다 더욱 확실한 간증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간증을 내 영혼의 모든 확신을 다하여 드리며 교회의 모든 회원과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나의 축복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라

해롤드 비 리 대관장

전세계 성도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말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나는 이 순간 이 위대한 대회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 마지않읍니다.

교회가 조직되던 날, 그리고 그 직후에 주님의 말씀이 이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지도자에게 전해졌읍니다. 말일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직되어 선포된 후 주님은 교회 대관장에게 계명을 주셨고 높은 곳에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첫째로 "타락한 어느 백성의 기사와……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했으며(교성 20 : 8—9), 이 세상에 빛이 되고 교회의 회원이나 비회원으로 이를 구하는 자들에게 표준이 되게 하였읍니다. (교성 45 : 9) 세째로는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게 하시고 온 나라에 권세로 충만한 복음을 가르치게 했읍니다. (교회 정사, 4권 537페이지 참조)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인류를 괴롭히는 병을 고치는 처방을 얻지 못한 채 이를 갈구하며 미결된 채 남아 있는 세상의 문제에 관한 해답을 찾고 있읍니다.

고대의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답을 얻으려 하고 틀린 방법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 하는 이 절망의 시대를 예견하였읍니다. 예언자들은 "빵이나 물의 기근이 아닌 주님의 말씀의 기근"이 지상에 도래할 날을 미리 알고 있었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라고 예언자는 말했읍니다. (아모스 8 : 11—12)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는 도처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고 있읍니다.

인구 과잉과 산아 제한에 관해서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유산에 대해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세계적으로 번지는 자유에 대한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합니까?

범죄의 동향과 청소년 범죄의 증가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부도덕의 추세를 감소시키며 자존심과 책임감과 도덕적이며 신체적인 훈련을 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전할 몇 가지 말씀의 주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저는 약 10년 전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이 단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극히 중요한 요목을 다시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확실과 불안으로 가득 찬 오늘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의무이자 으뜸이 되는 책임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선언하고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오직 이 길만이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62년 12월, 903페이지)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띄웠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디모데후서 4 : 2—4)

또한 맥케이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작별의 글을 보내면서 '모든 회원들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즉 열심히 열의를 다하라〕고 한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이 혼란한 와중에서 참된 말일성도의 마음에 무엇을 전파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그 답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떠 있는 정오의 태양처럼 분명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원의 계획을 전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의 제반 일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곧잘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거니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십시오.

"복음 계획의 기초는 개인의 신성함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업과 영광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모세서 1 : 39)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은 인류의 구속주이며 구세주이고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또 이 지상에서 그를 대표할 권능을 가진 분들을 인도하시고 영감을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 생명의 계획, 생명의 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할 책임은 교회의 전 회원에게 있으며 특히 신권을 받고 지도자 및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66년 12월 1093페이지)라고 했읍니다.

이와 같은 영원한 진리는 예수님이 처음 이를 선포하실 때와 같이 1972년인 지금에도 적용됩니다. 생명과 존재가 지속하는 한 그러한 진리는 인간의 발전과 행복의 기본 요소로 남을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교육가가 이렇게 말했읍니다.

"만약 세상에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변혁이 있으려면 도덕적인 이상의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미주우리 대학교, 제이 윌리암 하드슨 박사)

자신이 아는 바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적은 지식도 위험한 지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일부 사회 학자들에게서 보듯이 이를 비웃는 자들은 그 말씀을 현실에 발을 딛지 못한 자가 하는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 세대에 주어진 이와 같은 놀라운 목표에 대해 충분히 관찰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박해를 받던 당시에 성도들은 적의 위협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간곡히 간구했읍니다.

그 응답이 왔읍니다. "그러므로 싸움을 버리고 평화를 선포하라. 자녀의 마음을 자기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며 선조의 마음을 자기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기를 힘쓰라."(교성 98 : 16)

그리고 다음과 같은 중대한 약속을 주셨읍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지켜 준행하면 나 주는 모든 노여움과 분노를 너희로부터 거두어 가리니, 지옥의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 하리라."(교리와 성약 98 : 22)

교회 초기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셨읍니다.

"아무도 국법을 범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국법을 어길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현존하는 권력에 복종하라. 그리하여 통치할 권리를 가지신 이가 다스려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는 때를 기다리라"(교리와 성약 58 : 21—22)

이 경륜의 시대에 영감받은 예언자이자 위대한 지도자인 요셉은 우리가 신앙개조라고 부르는 이 백성의 신앙을 선포했읍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신앙개조 12조)

이 선언에 따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우리는 정부 당국에 순종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도들은 원수들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전쟁을 버리고 평화를 선포하되, 어버이와 자녀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명을 받았읍니다.

주님은 만약 우리가 분노와 증오를 다스려 누를 수 있다면 사탄의 세력은 감히 침노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악에 대한 투쟁이나 철저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처음부터 이를 제압하지 못하면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고 알려 주었읍니다.

주님은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하여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하게 하라는 율법을 주신 후에 "……저들 가운데 게으른 자가 있어 그 자녀들이 죄악 중에서 자라나며 영원한 재물을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희 눈에 탐욕이 가득함이라."(교성 68 : 31)는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에 있는 자들을 불쾌하게 여기셨읍니다.

만약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든 악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적절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 사회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거리 대신 태만을 조장하는 정책을 채택했으며 나태나 실업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읍니다.

개척 시대의 지도자인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한 개척자 정치인으로서 일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읍니다.

"내가 경험을 통해 배웠으며 이제는 하나의 원칙이 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거리가 있는데 돈이나 음식이나 의복이나 그 밖의 것을 거저 주기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이것은 나의 원칙이며, 나는 이 원칙에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길을 택하면 어떤 사회이든지 멸망될 것이며 사람들을 게으름뱅이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브리감 영 연설집 〔데저렛 출판사 1943〕, 274페이지)

저는 잠깐 화제를 바꾸어 복지 프로그램이 제정되었던 몇 년 전 오늘 아침에 지도자들이 행한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먹고 입는 일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의식 생활에만 그치지 않고 자존심과 창조적인 활동과 영예로운 노동과 봉사로써 영원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 안전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태만 속에서 자란 세대는 온전함을 지켜 나가지 못합니다."(리차드 엘 이반스, 임프르브먼트 이라, 39권〔1936〕 768페이지)

"처음부터 복지 계획의 원대한 목적은 주는 자와 받는 자에게 공히 인격을 쌓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 깊숙이에 있는 선한 모든 것들을 구하고 영의 풍요로움에 꽃과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으며 이것은 결국 이 교회의 사명이며 목적이며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앨버트 이 보우엔, 교회 복지 〔데저렛 주일학교 조합 1946〕, 44페이지)

여러분이 하늘의 영감을 받은 지도자들로부터 나온 이러한 성스럽고 영감으로 충만한 훈계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교회 회원에게는 가족이 참여하고 배우는 가정의 밤 프로그램이 주어졌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범교회 복지 프로그램에서 세상적인 구원의 계획을 얻게 되었으며 이 계획으로 모든 사람은 능력이 닿는 데까지 노동을 제공하거나 돈이나 봉사를 제공하며 필요로 하는 자는 누구나 생산자가 되며, 따라서 곤란해 하거나 말없이 속으로만 고민하는 일이 없이 필요에 따라 일하고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보조 조직 및 신권 정원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활동을 하게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르치라고 명하셨읍니다. 교회의 청소년 활동에 관해서는 한 외부의 관찰자의 말대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여 "청소년들이 훌륭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갖게 하여 나쁜 활동에 참여할 여유를 주지 않고 있읍니다."

만약 이러한 건전한 사회 원칙의 기반이 범죄나 실업, 청소년 범죄를 다루지 않는다면 불안과 고난의 씨앗이 주님이 경고하신 그러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삶의 원칙과 주님의 구원의 교리를 적용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악의 권세가 가정과 국가와 온 세계에 분쟁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주님께서는 화평 대신에 검을 주러 왔다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읍니다.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 10 : 35—36)

바로 이러한 일이 이 세상의 수많은 가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계획을 완전히 적용하는 문제를 상기하도록 제가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읍니까? 만약 이 백성이 여러분의 지도자의 권고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게 됩니다.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흩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교성 21 : 6)

우리는 또한 어느 곳에서든지 대담하게 지상의 영예로운 것을 구해 인류의 축복에 이르는 과정을 따를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온 세계에 있는 교회의 회원들은 의와 악의 끝없는 투쟁 속에서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십이사도에게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으며, 우리도 이를 증거할 수 있읍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시험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른 하나님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시험을 당할 필요가 있읍니다……하나님은 여러분을 더듬어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심금을 비틀어 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해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존 테일러 설교집, 24권 197페이지)

인구 밀도가 높고 가난이 극에 달한 나라에서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생명을 미리 막거나 출생 전후에 생명을 죽이는 조처를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조롱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운동을 펴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와 같이 불행한 사람들의 무지를 타파하고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른 의로운 삶의 원칙과 자제와 건전한 경제 원칙을 채택할 필요가 있읍니다.

이 교회는 길을 알려 주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사 2 : 2—3; 미 4 : 1—2 참조)라는 옛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이 나라나 다른 나라들이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정부 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가 이미 인용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는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을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세상의 축복과 자유가 실현될 것입니다.

자유의 원수들이 퍼뜨린 산만한 교리 중 가장 위험한 것의 하나를 예언자이며 정치가인 우리의 사랑하는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가 그 본질을 특징지어 준 바와 같이 그것은 "경전에 정의된 바대로 주님의 협동 교단의 계획을 모조하려는 사탄의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현 복지 계획은 이 교회가 이 계획에 입각하여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으며 이는 몰몬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대륙에 살았던 백성들이 모두 주님께로 개종한 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속박된 자나 자유로운 자의 구별이 없이 모두 자유로왔고, 저들이 모두 하늘의 은사를 받았으며" 희생과 성별의 율법에 좇아 살아감으로써 이 지상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었다"(니사 3, 16)고 되어 있듯이 우리도 그처럼 살아가기 위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일부 사람이 "예배 의식"이라고 특징지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원리를 다른 것으로 대치하려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그 결과 그들이 아무리 진지하다 할지라도 위험과 싸우는 하나님의 신권 조직 대신 다른 조직을 활용함으로써 혼란만을 야기하여 왔읍니다. 또 이러한 일로 교회 내에서 형제와 형제를 서로 맞서게 했으며, 주께서 교회와 하나님 왕국의 신권 조직을 통하여 이러한 악과 싸울 무기로 마련하신 단결력을 약화시켰읍니다. 그러한 무리 중에서 일을 거짓으로 꾸미는 수단과 방법을 채택하여 다른 길로 떨어져 나가고 배도하게 되어 교회에서 파문이 된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권의 지도력에 따른다면 사탄이 그 권속에서 세도를 부릴 때 주님은 그의 계시의 첫머리에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며 아이두미아 곧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리라"(교성 1 : 36)는 약속을 하셨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참 깃발 아래에서 하나로 뭉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가르쳐 어떤 개종자도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바라고 간곡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만든 다른 조직보다 그가 인간에게 위임한 그의 신권을 통해 성도들 가운데서 제가 예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통치하십니다.

이제 저는 끝으로 교회와 나라와 세상을 위해 겸손히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말로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 줄을 알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하나가 되어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 기도를 들으소서. 교회와 온 세상의 의로운 형제 자매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성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태처럼 이 세상에 밀어 닥치는 악에 저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 속에 당신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려는 의지가 더욱 커지게 하시옵고, 물이 깊은 골을 덮듯이 진리가 이 세상을 덮을 때, 당신의 예언이 성취될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저희와 당신의 사업에 관한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질 그 때까지 당신의 전능한 권세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당신의 보호의 눈길 아래에 두며 저희를 홀로 두지 않도록 간구합니다. 당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에 덧붙여 이 교회의 회원과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

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키므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신앙개조 3조 참조)는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이것은 진실로 우리가 참여한 주님의 사업입니다. 주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합당히 준비할 때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내 경험을 통해 볼 때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권에 대한 권고

해롤드 비 리 대관장

신권의 능력을 활용함

몇 년 전 나는 신권의 위대성에 대하여 배운 적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내가 결코 잊지 못할 1935년 4월 20일 대관장단이 나를 대관장단 사무실로 부른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읍니다. 그 당시 나는 솔트레이크시 행정관이며 스테이크 부장이였읍니다.

우리는 교회의 복지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읍니다. 정부 지원 사업 계획은 별로 많지 않았고 교회의 재정은 저조하여 교회의 재정 문제에 관하여 별 방도가 없었읍니다. 게다가 성도 7,300명 중 4,800명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교회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었읍니다. 우리가 취할 길은 단 한 길 뿐이었으며 그것은 바로 계시로 주어진 주님의 계획을 적용하는 것이었읍니다.

우리가 약간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대관장단이 어느 날 아침 사무실로 나를 부른 것은 나의 보잘것없는 노력의 결과였읍니다. 그날은 토요일이라 방문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대관장단과 함께 오전 내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읍니다. 대관장단은 나에게 시 행정관을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으며 나를 스테이크 부장의 직책에서도 해임시켜 오로지 교회의 복지 운동을 이끌도록 하여 정부 지원의 구제를 직접적인 구제로 전환시키고 교회 자체 내에서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을 만큼 교회의 위치를 올려 놓도록 전념하게 하겠다고 말하였읍니다.

그날 아침 모임이 끝난 후 나는 차를 몰고(봄이 시작할 무렵이었음) 그 당시에는 로타리 공원이라고 불리웠던 시티 크리크 캐년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 내 생애에 가장 겸손한 기도를 드렸읍니다.

그때 나는 한창 시기인 30대의 청년이었읍니다. 나의 생활 경험은 한정된 것이었읍니다. 나는 아이다호주의 조그만 농촌에서 태어났으며 유타주와 아이다호주의 울타리 밖으로 거의 나가 보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던 내가 이제 온 세계의 모든 회원과 유대를 가져야 하는 위치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였읍니다. 나의 제한된 이해력으로써 어떻게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읍니까?

무릎을 꿇고 나는 이렇게 간구하였읍니다. "대관장단이 내게 지명한 바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조직을 세워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권의 권능을 성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광스러운 아침이었읍니다. 무엇인가가 이렇게 말하는 듯하였읍니다. "이 백성의 요구를 다스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 이외에는 없느니라."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신권의 권능을 적용시킴으로써 복지 프로그램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난관을 해결하면서 날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마침내는 그 당시에 그리 생각을 하지 않았던 신권의 능력을 이제는 모범으로 기념비처럼 세우게 되었읍니다.

이제 신권의 능력을 깊이 깨달은 나는 오늘 저녁 생각나는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사도 이후, 때가 찬 경정의 시기에 구세주께서 강림하셨던 시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에도 적용되는 두 가지의 성구를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을 전했읍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사도행전 20 : 28—30)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갈라디아서 1 : 6—12)

이 두 가지 경고의 말씀은 비단 그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중에도 흉악한 이리가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회원임을 가장하나, 그의 양떼를 아끼지 않는 자가 있읍니다. 우리 회원들 간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어그러진」이란, 신앙심이 약한 회원을 떼어내려고 옳고 바른 것을 왜곡시키고 고의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말했듯이, 사람들이 그토록 빨리 복음을 전해 준 자로부터 떠나고 그리스도의 참된 복

음에서 떠나 참된 복음 교리를 해치는 사악하고 간악한 무리로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상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했듯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무리들이 저주를 받았음은 그러한 무리들의 몇 가지 사건에서 증명됩니다. 또한 이들은 사탄은 태초로부터 사용하였던 온갖 간사한 말로 속기 잘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악마의 능력을 지니고 있읍니다.

이제 이러한 예를 몇 가지 들어 드리겠읍니다. 첫번째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읍니다.) 일단 소문이 시작되면 그 소문이 전해지면서 점점 가공적이 되어 결국에는 부지불식간에 그 소문의 타당성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노변의 모임이나, 분반에서, 상호부조회에서, 또는 신권 정원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영적인 교화나 유익한 것을 다루어야 할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일례를 들어본다면 내가 구세주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열 지파에 관한 축복사의 축복을 갖고 있다는(여러분 중에 들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선 축복사의 축복이란 그것을 받은 개인에게 한한 성스러운 문서이며 결코 출판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을 받은 개인이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낭설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근거가 없는 잘못된 말이라고 말하면 충분합니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읍니다. 이러한 낭설을 들은 사람들이 내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자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아무런 사실적인 근거가 없이 소문을 믿어버리는 것을 즐겨왔던 것 같읍니다. 내가 여러분께 간절히 권고하는 것은 소문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어리석은 소문을 절대로 퍼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913년 8월 대관장단에서는 오늘날에도 생각해야 하는 경고의 말씀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했읍니다. 그 당시에 전달된 사항 중 몇 가지만 여기에 들어 전하려 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원 및 회원에게 :

"하이람 페이지(교성 28편)의 시대로부터 사람을 속이려는 악마는 기회만 있으면 교회의 회원들에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러한 악마는 때로는 범법으로 말미암아 악마의 먹이가 쉽게 되어버리는 남녀에게 들어옵니다. 반면에 교회의 법칙과 의식을 철저하게 고수한다고 자만하는 자들이 거짓된 악마에 이끌려 가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자신을 '정통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자신도 가장 골수가 되는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읍니다.

"시현이나 꿈이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영감이나 기이한 은사가 우리 교회의 예언과 부합되지 않거나 교회 당국의 결정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그럴 듯하게 보일지라도 말일성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교회를 인도하는 지시는 교회의 머리되는 자를 통하여 계시로 내려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깊은 회원이라면 누구나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임직 안수를 받은 관할 조직의 회원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성신의 영감을 받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불일치되는 영감은 권위가 있거나 믿을 만한 것이 될 수가 없읍니다. 영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면에서도 성도들은 자신에 관계되는 지시와 계시를 받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교회의 성약, 교리, 교훈, 또는 이미 알려진 사실, 진리 또는 상식에 위반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읍니다. 하나님의 계시나, 시현 또는 꿈이라는 허황된 주장으로, 특히 그것이 교회 당국의 지론과 위배되는 것으로 교회의 다른 회원들을 교란시키며 유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주님의 교회는 '질서의 집'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은사나 시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대회에서 온 교회의 찬성 거수 지지를 받은 성스러운 신권의 질서와 권능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상고해 볼 때 수많은 협잡군 또는 광신도들이 그들의 시현을 믿고 다른 사람을 유인하려 든 예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모두 실의와 재난과 슬픔만을 갖고 오게 되었음을 알 수 있읍니다. 재정적으로 손실을 갖고 온 것은 물론, 심지어는 파산의 지경에까지 몰고 가기도 했읍니다."

이것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권 소유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며, 여기저기에서 일어나 기이한 시현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나오는 지시가 아닌 왜곡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려는 모든 자들에게 단호히 대항할 것을 호소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선풍을 일으키는 이야기, 꿈, 시현, 과거나 현재의 교회 지도자들이 지니고 있으리라고 추측되는 낭설 등을 단지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일기에서 추측하여 그것의 출처를 합당한 교회 당국의 기록과 맞추어 증명해 보지도 않고 쉽게 회원들이 믿어 버리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와 같은 기만과 헛된 소문이 분분한 난세에서 안전하게 인도되고 싶다면, 성도들은 지도자를 순종하여 주님의 영의 인도를 구하여서 간교한 궤변으로 사람을 유혹하여 자기의 말과 간악한 목적을 위해 봉사하게 하려는 영리한 조종자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신권의 권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라도 제시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셨읍니다. 교리와 성약 42편 11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권위를 가진 자로부터 성임되고 또 저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교회의 머리되는 자들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성임되었음이 교회에 알려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에게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거나 나의 교회를 세울 권능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느 누구나 자기가 권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 권능을 어디서 받으셨읍니까? 당신은 교회의 머리되는 자에 의하여 정식으로 성임되어 권능을 얻기 위하여 교회가 인정하는 권능자로부터 성임되었읍니까?" 이 질문에 대답이 아니오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기만자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나쁜 길로 이끌려는 기만자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판단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험은 또 있

읍니다. 보고에 의하면 성도 중에서 양떼중의 이리와 같은 자들이 있어 신앙이 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교회 회원을 유인하려 하며, 몇 가지 당국과의 정치적인 불일치로 인하여 수입의 부과를 거부하는 등, 마음대로 국법을 어기려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다고 합니다.

혹자들은 자신의 당국의 통치를 제지하는 행동이 결국은 체포와 구금만을 초래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 당국을 무시하고 자신이 민간을 통치하려 하며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무장을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자칭 교회의 회원이라고 하면서 극장가에서 상영되는 도색 영화를 항의하고 전쟁에서의 폭탄 투하를 반대하여 법이 정하는 벌을 받으며 나아가서는 교회의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처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소위 도색 문학이라고 일컫는 추잡하고 선정적인 자료를 말살하려는 사람들을 강력히 옹호해야 한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토록 급진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대답이 있으니 이는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자도 자신을 지배자로 여기지 않게 할 것이요, 다만 재판하는 자곧 권고하는 자나 재판석에 앉아 있는 자는 하나님 자신의 뜻으로 나오는 훈계에 따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할지어다.

"아무도 국법을 범하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통치할 권리를 가지신 이가 다스려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시는 때를 기다리라."(교성 58 : 20—22)

나는 신권 소유자 여러분께 살인죄 다음으로 큰 죄인 소돔 고모라의 죄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싶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지하시는 바, 간음 죄를 의미하며 이는 결혼 후의 불법적인 간음 뿐 아니라 결혼 전의 성교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오늘날의 바빌론에서 그 맹위를 떨치며 번져가고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인정하려는 기세조차 보이나 우리 교회 회원은 절대로 물들어서는 안되는 동성애까지도 포함합니다.

말일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됩니다. 순간적인 쾌락만을 조장하는 유혹은 그 어느 누가 어떤 방법으로 강요하든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의 주변에서 멀리 쫓아내야 하겠읍니다.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인 감독 및 스테이크 부장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여 주신 주님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조처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자기가 범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무작정 자비를 베풀어 주님의 공의를 더럽힐 수는 없읍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읍니다. 우리 중에는 인간을 덮치려는 재화를 예견하는 허무맹랑한 서적이 많이 있읍니다. 이들 중 몇몇은 인간을 압도하는 공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있읍니다. 이러한 서적의 대부분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인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하여 준 성서 이외에 그와 같은 미래를 예언하는 간행물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치적인 함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상한 서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의 지침으로서 반드시 의존해야 할 예언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읍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으십시오. 특히 값진 진주에 실린 영감역을 읽으십시오. (요셉 스미스 1서)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때의 예표를 증명하여 주신 교리와 성약 45편을 읽으십시오.

다음에는 교리와 성약 101편과 133편으로 넘겨 점차로 일어날 일과 구세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지막으로, 교리와 성약 38편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사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내릴 때 주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 맺으신 약속을 읽으십시오.

형제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믿을 만하지 못한 정보나 의문을 자아내는 동기를 끌어내는 주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덧붙여 말한다면, 그와 같은 저자의 대부분은 그들의 저서에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불리하게 되지 않습니다.

태초로부터 주님께서는 신권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읍니다.

"그런고로 네 허리띠를 동여매고 준비하라. 보라, 왕국은 너희 것이니, 원수가 이기지 못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정결하나 모두는 아니니라 내가 기뻐하는 자 외에는 깨끗한 자는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가 내 앞에서는 썩었음이라 흑암의 권세가 인간의 자녀 가운데 있어 모든 천군 앞에서 땅을 뒤덮느니라.

"이로써 세상이 잠잠해지고 모든 영원이 고통을 당하게 되나니……"(교성 38 : 9—12)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 신권회에서 여러분께 사실대로 이야기했읍니다. 오늘 이 대회에서 말씀하신 모든 형제님들의 말씀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너 부대관장님께서 이미 인용하신 바와 같이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하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훈계를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는 진정한 신권의 한 지체가 될 수 있고 주님께서 말일에 세우신 지도자들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가 안되면 그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하셨읍니다.

나는 나 자신과 지금 현재의 책임에 대하여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내가 언젠가 교회의 대관장이 되리라고는 나 자신도 결코 생각지 못했읍니다. 내가 시골 작은 마을에서 살던 소년이었을때 나는 때때로 형제님들이 교회의 "기둥"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 때는 그 말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저 교회에 있는 큰 기둥을 말하는 것이려니 하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의미를 알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고 있읍니다. 다음 교회 대관장은 누가 될 것이라는 등의 앞을 예측하는 것은 경마에서 내기하는 것과 같은 도박이며 그 이유는 단지 주님만이 시간표를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십이사도 평의회에서 찰스 에이 칼리스 장로가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영적인 토론을 하고 있던 중이었읍니다. 형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이신 조지 앨버트

스미스 형제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교회 대관장님이 되실 분이니까요."

그때 칼리스 형제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죠. 제 생애에 세 번 후임 교회 대관장을 선출하였는데 그 세 분이 모두 대관장단에 오르시기 전에 서거하셨읍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며 인간이 그것을 생각하고 추측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또 한 가지 있읍니다. 브리감 영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절대적인 옹호자였읍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의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도 교회 회원으로서 다른 회원을 깎아 내리고 신앙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교회의 대관장이라는 지위에서 폐하려는 한 사람이 브리감 영을 초대하였읍니다. 그러나 브리감 영을 그들의 무리로 끌어들이려던 것은 큰 실수였읍니다. 그들의 동기를 끝까지 들은 후에 브리감 영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여러분께 이 말을 하고 싶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언자의 성약을 깨뜨릴 수 없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자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줄을 끊어서 여러분 자신을 지옥으로 빠뜨릴 수는 있읍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제이콥 범프라는 권투 선수가 그곳에 있었읍니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영 대관장님께 대들었읍니다. 그때 영 대관장님은 그의 위협을 이렇게 응수하셨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당신과 같은 사람과 기꺼이 싸우겠소."

형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언자의 성약을 깨뜨릴 수 없읍니다. 누가 이 교회를 관리하여야 하는가는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현재의 임무를 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하여 수많은 경험과 지도와 시험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대관장을 또 다른 대관장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다른 대관장의 일을 물려받지 않읍니다. 각 대관장은 자신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형제님 한 분과 함께 엔사인 스테이크 부장단을 재조직했을 때 한 가지를 배웠읍니다. 우리는 한 와드의 감독을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주었읍니다. 그때는 한 해가 거의 끝나는 무렵이었으나 일 년이 끝날 때까지 감독이 된 제1보좌와 함께 그대로 감독으로 머물도록 하였읍니다.

지지를 받은 후 육 주가 되자 스테이크 부장이 갑자기 서거하였읍니다.

그러자 나는 연속적인 편지 공세를 받았읍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육 주 만에 데려 가실 사람을 어떻게 영감으로 부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읍니다. 그들은 그의 장례식에서 나에게 말씀을 부탁하였읍니다. 그들 중의 몇 명은 주님께서 육 주만에 데려 가실 사람을 왜 임명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기대하는 것 같았읍니다.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답을 전하려 애쓰는 나에게 단에 앉아 계시던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 일로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형제님이 이 교회에서 한 사람을 어떤 직책에 부름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음날 죽었다 하여도 그 직책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도 함께 지니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역대 대관장님, 역대 사도님, 모든 감독, 스테이크 부장 등 관리직에 있던 모든 지도자들은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부름을 받았던 직책을 지니고 떠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관장이 다른 사람의 직책을 물려받는다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대관장님은 자신의 직책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번 대관장이 다른 대관장보다 위대하다느니 못하다느니라고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각 대관장님은, 주님이 보시기에, 그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어느날 나는 와드의 주일학교 분반에 참석하였읍니다. 그때 교사는 축복사의 아들이었읍니다. 교사는 그의 아버지의 축복을 자주 기록하는데 그 축복은 "조건부" 축복임을 발견했다고 말했읍니다. 축복을 줄 때마다 항상 „그대가 이렇게 하지 않을진대" 혹은 „이렇게 하기를 그칠진대"라는 단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이렇게 말을 이었읍니다. "저의 아버지가 '조건부'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읍니다. 그리고 그 중의 많은 사람들이 축복사로서의 이러한 경고에 주의를 돌리지 않고 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내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읍니다. 나는 교리와 성약을 펴고 교회의 수많은 형제에게 주어졌던 '조건부' 축복을 읽기 시작했읍니다. 놀랄 만한 사실을 알고 싶다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토마스 비 마쉬, 마틴 해리스, 휘트머의 형제들, 윌리엄 이 맥레린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그 경고를 귀담아 들었다면 그들은 곁길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나, 경고에 주의하지 않았고 그들의 생활을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곁길로 밀어졌고 몇 사람은 교회의 회원직에서까지도 파문당해야 했읍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읍니다. 어느날 나는 선교사 그룹과 함께 신전에 있었읍니다. 그때 자매 한 분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지치지 않으리라는 지혜의 말씀의 약속에 대하여 질문하였읍니다. 그 자매님은 이렇게 물었읍니다. "그 약속이 절름발이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절름발이가 달려도 피곤치도 않고 걸어도 지치지 않는다는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읍니까?"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자매님은 주님을 의심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의문 부호를 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또는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단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대답이나 설명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설명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무모한 시간의 낭비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문 부호가 아니라 종지부를 찍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치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읍니다. "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읍니

다."
고든 비 힝클리 장로가 베트남에 간 후에 말씀하신 이야기는 내게 큰 교훈을 주었읍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베트남에서 군 복무중 교회에 입교하였다가 극동 아시아에 있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젊은이가 있었읍니다.

힝클리 형제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형제님이 고향에 돌아가면 교회에 입교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읍니까?"

"쫓겨나겠지요. 집안에서도 따돌림을 받을 것이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군대직에서도 쫓겨날 것이 분명하죠."

그 말을 들은 힝클리 장로는 "지불해야 할 값이 너무 크군요."라고 말했읍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힝클리 장로를 쳐다보며, "복음은 참된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했읍니다.

그 질문은 힝클리 장로에게는 영혼을 구가하는 질문이었읍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읍니다. "형제님, 진정코 이 복음은 참된 것입니다."

신권을 소유하고 계신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면—또한 그것은 참된 것입니다—그 외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읍니까? 우리가 "복음이 사실임을 아는 이상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늘 자신에게 말한다면 환란이 많은 이 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여 줄 강한 신앙을 주님께서는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엄숙하께 간증하노니 이 복음은 참되고 주님께서는 그의 천국에 계시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으리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언제 교회에 마지막 계시를 주셨는지 물어 보십시오. 주님은 매일 계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계시를 여러분은 보고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모든 말씀과 간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

해롤드 비 리 대관장

마지막으로 드리는 권고와 축복

나는 여러분들도 이 훌륭한 새로 성임된 자들의 영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예언의 영에 의해서 봉사하도록 이들을 보내셨읍니다. 나는 그것을 겸손하게 간증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확실히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형제들도 그들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알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들은 중대한 대회를 마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 대회는 역사적인 것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보아 여러 가지 면에서 의의가 큰 대회였읍니다. 우리는 아마 지금보다 더 큰 목표와 문제와 미래를 위한 약속을 갖고 교회 역사의 장을 넘겨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읍니다.

나는 커다란 만족을 느끼며 형제들의 간증을 들었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대관장단인 위대한 분들 곧 태너 부대관장과 롬니 부대관장과 그리고 나 사이에 굳은 결속을 느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십이사도와 총관리 역원들간의 일치감을 느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직책에 부름받은 자들 사이에는 강한 유대가 있읍니다. 이 유대는 혈연 관계보다 더 강한 것인데, 너무나 깊고 광장하며 끈질긴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걸어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요셉 스미스는 리버티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감추인 암흑의 일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수행해야 하나니,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요, 참으로 하늘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일이니라.

"그러므로 큰 열성으로 이 일을 수행해야 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 일을 알거니와 제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폭풍이 몰아칠 때에는 극히 작은 키로 바람과 파도를 헤치며 진로를 정함에 크게 도움을 받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있는 힘을 다하여 만사를 기쁨으로 행하자. 그리하여 확고 부동한 신념으로써 바라보며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다리자."(교성 123 : 13—14절, 16—17절)

수년 전에 내가 유타주 맨타이에 갔을 때 일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저녁 지도자 모임을 마치고 나왔을 때 폭설이 내리고 있었읍니다. 우리가 스테이크 부장 댁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그는 차를 멈추어 신전이 서 있는 언덕으로 차를 돌렸읍니다. 거기에는 불빛이 찬란한 신전이 우뚝 서 있었읍니다. 우리들은 그 신전의 아름답고 성스러운 광경에 감명을 받고 잠시동안 그곳에 묵묵히 앉아 있었읍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리 형제님, 저 신전은 짙은 안개 속에서나 심한 폭풍우 속에서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내부에 심한 어려움을 겪거나 심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또는 혼란과 환란이 닥칠 때 더 큰 아름다움을 발하게 됩니다.

이 모임을 마치려는 이 순간 나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이 곳에서 여러 형제들이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여러 번 나에 대하여 말씀하셨읍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나는 그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읍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지난 3일간 내가 겪은 경험을 겪을 수도 없으며 전과 같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금요일 아침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나에게 보여 주신 사랑과 신앙과 신뢰 때문에 전의 나로 되돌아 갈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장차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며 나도 역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어떤 사람에 관해 말씀하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이 대회의 때와 방송 중계에 대해 예고했읍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대회의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이 이 태버나클에서 전파하는 이 말씀으로 심판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최근에 새로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들과 모임을 가진 적이 있읍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만용을 소재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읍니다. 주님께서는 위대한 계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솔한 말을 모두 금하며 모든 웃음 소리, 천박한 욕망, 교만, 경박한 마음, 그리고 일체의 악한 행위를 그치라."(교성 88 : 121)

나는, 때때로, 우리들이 이 성스러운 집회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것이 널리 방영되고 있으며 시청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나 않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우리의 기쁨을 나타내 보여서는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침이 너무 높아서 이 건물 밖에서 듣고 있는 자들이 오해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고 명심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이 계시에서 그가 우리에게 충고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최근 며칠 동안에 큰 보상을 받았읍니다. 나는 가족과 친척이 지금까지 그렇게 가깝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읍니다. 나의 귀중한 자녀 하나하나와 나의 손자와 나의 사랑하는 동반자는 더욱 가까와졌읍니다. 서로 만나보지 못한 자들도 우리들과 가까와졌으며 그들의 가족과 나의 가족이 더욱 가까와졌다고 믿게 된 것은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일치감을 느끼며 이 부름이 곧 그들의 부름이 되어야 한다는 서약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의 설교는 나의 가족의 생활보다 더 훌륭한 것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성도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서약했읍니다.

이 대회를 마치면서 교회 축복사의 자격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서 행하신 말씀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느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이 모임을 마치고 돌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시겠읍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입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와드나 스테이크나 선교부의 회원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대회 동안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것과 위대한 단합에 대한 영을 느껴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며 나의 사랑과 축복을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대관장단과 총관리 역원은 모든 교회 회원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비천하거나 강하거나 교육을 받았거나 받지 못했거나 그들 모두를 차별없이 사랑한다는 것과 우리의 사랑과 그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며칠 동안 나는 나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며 더욱 확실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나는 대회 동안 구세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는 확신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 대회장을 떠날 수가 없읍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교회의 본부인 이곳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시겠읍니까? 그분은 부재하시는 구세주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그분이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실제로 살아 계심을 압니다. 나는 오직 그가 나를 불러 주시고 여러분이 나를 지지해 주신 이 높은 지위에 서기에 합당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는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들이 참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나는 특별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일의 진실성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며 이 이름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늘 아래의 유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가슴 속 깊이 알고 있읍니다.

나는 나의 가족과 나의 동료와 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죄인까지도 사랑합니다. 우리들은 이들 뿐만 아니라 비활동적인 자들에게까지도 우리들의 사랑을 보여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을 우리 속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마 주께서 니파이민족에게 작별을 고했을 때 가졌을 그러한 느낌을 나도 가지고 있읍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주님은 다른 기회에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들은 말씀과 우리들이 한 말씀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서 행해진 일과 행해진 말씀들의 참 의미를 찾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다시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문제를 더욱 잘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나의 간증을 말씀드리며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1972년 10월 6일 금요일 오전 모임 말씀

"내가 알기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새로 부름받은 사도는 구세주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읍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와 가족과 세상에 있는 모든 성실한 성도에게 풍족한 축복을 내려 주신 것에 대해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나는 이제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영예로

운 사업의 진실됨과 거룩함을 간증하는 데 성신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또한 이 모임에 임재한 빛과 진리와 교화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남아 있어 내가 지금 증거하는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과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성실한 성도들에게 부여하시는 경이와 영광과 기적인 주님의 영의 은사를 만끽하고 있읍니다. 영적인 은사에 관해서 현대 계시에서 꼽는 첫째되는 은사가 간증의 은사, 계시의 은사, 이 사업의 진실됨과 거룩함을 알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다른 곳에서는 예언의 영인 예수의 간증으로 설명됩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은사입니다. 나는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확실히 알고 있읍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그를 통해서 충만한 복음이 말일에 회복되었다는 것도 압니다. 나는 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며 주님의 승인 아래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을 머리로 하여 백성들에게 인자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읍니다.

나는 또한 주님께서 오늘날 그의 백성들에게도 고대의 성도들이 받은 것과 똑같은 영예롭고 기이한 은사를 내려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에도 그는 우리에게 고대에 주었던 것과 같은 예언과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나는 영원한 복음의 영광과 기적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보라, 이것이 계시의 영이니"(교성 8 : 2—3)

나는 계시를 받아 왔기 때문에 교회에 계시가 주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의 이름의 증거자로 봉사하며 그가 나타내 주신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며, 이러한 교리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전한 복음을 가르치며 진리를 증거하는 이러한 과정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다른 출처가 있을 수 없읍니다. 진실된 것이나 이 세상 인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나 다음에 올 세상에서 영원한 영예를 누릴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 등은 모두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인간은 스스로 부활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구원의 종교도 창조할 수 없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각 경륜의 시대에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준 것과 똑같은 구원의 진리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의 제도는 사도나 예언자나 의로운 사람에게 구원의 교리와 진리를 나타내 주며,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진리를 가르치며 세상에 그것들이 진실함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있으며, 그런 목적으로 지금까지 존재해 왔읍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의 대표자나 종들이 항상 진리를 증거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진리의 증거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진행되는 오늘 이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관리하도록 부르신 위대한 세 사람 즉 계시자요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며 주님과 늘 가까이 계신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과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완전함과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미덕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님과 영적인 거인이며 의로운 전파자이며 주님을 알고 그의 교리를 가르치시는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을 지지하고 이 분들의 권고를 들을 수 있고 솔직하게 거수할 수 있고 마음속 깊이 성약을 다짐할 수 있는 특권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롬니 부대관장님과 나는 같은 가문의 출신입니다. 내가 이 직분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레드 할아버지(레뮤엘 하디슨 레드)가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실거야." 나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할아버지가 계신 곳에 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살겠읍니다." 그러자 그도 "나도 그러지"라고 대답하셨읍니다.

이 순간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지닌 이 형제들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들은 나의 교회의 대관장단으로 내가 택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말을 따르라." "잠시 동안 저들에게 모든 교회의 짐을 지게 하였음이니라……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파송한 자 곧……대관장단을 받아들이는 자니라"(교성 112 : 18—20)

나는 온 정성을 다해 교회의 대관장단을 지지하며 그들이 그의 백성들이나 지상 모든 나라에서 진리를 추구하려는 정직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과 마음을 전할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계시와 진리의 빛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사업이 진실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우리가 교회의 역원을 지지하고 주님의 영의 권세로 말씀하시는 리 대관장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영이 임재한 가운데 이 성스러운 곳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 자신과 나의 가족을 위한 것임을 알며 나는 우리가 모두 이들 위대한 지도자들과 리 대관장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일해 오셨고 생명을 바치실 진리와 의의 원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과거가 어떠했든지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의식을 이행하는 데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굳게 약속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 영예로운 사업의 진실됨과 거룩함에 대한 산 증거가 되어, 이로써 홍수처럼 육지를 휩쓸며 바다물이 바다를 덮듯이 지구를 덮게 하도록 약속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와 나의 가족과 이스라엘 가문의 성실한 자가 모두 진리와 빛 가운데서 걷고 교회 밖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우정, 친분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앞에 올 세상에서도 충만한 영과 우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시와 감사의 영으로 성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말씀드립니다. 아멘.

양 손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의 두 손은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떻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

나사렛 예수가 세상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역을 베푸실 때 그는 서기관이나 그 당시의 학자들처럼 행하시지는 않으셨읍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가르치셨읍니다. 예수는 비유로써 가르치셨읍니다. 이러한 그의 가르침은 인간들을 감동시켜 그들의 생활을 새롭게 변화시켰읍니다. 목자의 비유, 씨뿌리는 자의 비유, 고기 잡는 어부의 비유 등은 주께서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데 주로 사용된 것이었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참으로 놀라운 능력과 복잡한 지체로써 만드셨으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어 소경이 아닌 자는 올바로 보게 될 것이며, 귀머거리가 아닌 자는 진실을 듣게 될 것이며, 강퍅하지 않은 자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가르치실 때 발, 코, 얼굴, 옆구리 등을 자주 인용하셨읍니다. 주께서 이러한 것들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읍니다. 그는 인간의 손에 대해서 말씀했읍니다. 미술가나 조각가는 인간의 지체 중에서 그리거나 만들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손이라고 생각해 왔읍니다. 이 손은 정말 경이로운 것입니다. 색채, 크기, 모양, 나이도 이 창조의 기적을 찌그러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째, 어린이의 두 손을 생각해 봅시다. 어린 아기가 팔 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들 중 누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의 능력에 놀라지 않을 자가 있겠읍니까? 그 작은 손, 그렇게 작기는 하지만 완전한 손은 곧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도 어린 아기의 고사리같은 손을 보면 만져보지 않고는 못배길 것입니다. 입술가에는 미소가 떠오르고 두 눈은 반짝 빛날 것이며, 누구나 다음과 같은 시를 쓰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부드러운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갓 내려온 한 송이의 꽃봉오리 지상에서 꽃피울지어다."(제럴드 매쉬)

어린이가 자람에 따라 꼭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엄마 제 손을 잡아 주세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아 주시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하며 완전한 신뢰를 나타내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찬송가는 인내심을 간구하며, 가르쳐 주기를 바라고, 봉사할 기회까지도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굳게 쥔 작은 두 손 가지고 있네.
비록 약하나 바른 일 알고 있네,
하루 해 지나기까지 내 두 손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네.
"친절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네,
모든 걸 알기까지 축복하심을
하나님께 비오며 작은 이 손이
순종하는 법 가르쳐 주옵소서.

—다 함께 노래를 B—74

그러한 사랑과 신앙은 각 부모들의 충성의 맹세 즉 의로운 일을 행하겠다는 결의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한 다음의 기사를 참조할 필요가 있읍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마 18 : 1—3, 5—6) 어린이의 손은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청년들의 손에 주의를 해 봅시다. 이 시대는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들의 손은 일하기 위해서 배우고 배우기 위해서 일합니다. 정직한 노력과 사랑의 봉사는 풍요로운 인생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상호 이해반에 있는 자매들은 과자를 구워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에게 대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읍니다. 외로움에 지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이같이 사려깊은 10대들의 손을 꼭 잡을 때 그것은 말 이상의 말이 될 것이며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과자를 구웠던 그 손으로 눈물을 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순수한 것입니다.

형제의 손은 사랑하는 자매의 손을 잡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며 그때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벌써 성장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매들의 손에 성스러운 서약을 표시하는 반지가 끼워져서 영롱하게 비치고 있을 때 자매의 손만큼 섬세한 것은 없을 것이며, 그녀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그녀의 용모는 아름답게 빛날 것이며 그녀의 눈에는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구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될 때 그들의 두 손은 서로 맞잡게 될 것이며 성스러운 신전에서 그들은 영원히 인봉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은 순식간에 잊혀질 것이며, 영원한 가치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맞잡은 두 손은 영원한 약속을 다짐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천국이 있읍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름다운 신부의 손은 어머니의 손으로 변할 것이며, 귀한 자녀를 돌보는 그녀의 손은 무엇보다도 더 고결할 것입니다. 아기를 목욕시키고 먹이고 달래는 어머니의 손같이 훌륭한 손은 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어머니의 애정에 찬 손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선교사의 어머니의 손보다 더 훌륭한 손을 본적이 없읍니다. 몇 년 전에 세계적인 선교부장 세미나가 있었읍니다. 그 모임에서 선교사들의 부모들을 초청해서 선교부장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였읍니다. 나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다정한 악수를 교환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까맣게 잊어 버렸지만 와이오밍주 스타밸리에서 온 한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을 때 내 마음에 뭉클했던 그

느낌은 결코 잊을 수 없읍니다. 그 자매는 나에게 "손이 너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의 남편이 병들고 내 아들은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농장일을 저 혼자서 해내야 합니다."

나는 이 말을 듣자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읍니다. 이러한 눈물은 나의 영혼을 씻어 주었읍니다. 한 어머니의 노력은 그 아들의 봉사를 성스럽게 해 주었읍니다. 어머니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나는 가장의 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유능한 의사이든, 능숙한 기술자이든, 훌륭한 교사이든, 그 손은 가족을 부양합니다. 정직한 노동과 지칠 줄 모르는 수고에는 분명히 어떤 위엄이 서려 있읍니다.

세계적으로 공황이 닥쳤을 당시 나는 어린 소년이었읍니다. 그 당시 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정말 행운아였읍니다. 일자리는 거의 찾을 수 없었으며 게다가 작업 시간은 길었고 보수는 적었읍니다. 우리의 이웃에 어떤 가장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늙었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많았읍니다. 그렇지만 남자라고는 자기 혼자 뿐이었읍니다. 그가 근무하는 회사는 스프링 캐니언 석탄 회사였읍니다. 이 회사에는 한 대의 낡은 트럭과 삽 한 자루, 석탄 한 무더기, 노동자 한 사람과 그의 두 손 밖에는 아무 것도 없었읍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는 열심히 일했읍니다. 그러나 금식 간증회 모임에서는 그는 그의 가족과 그의 일과 그의 간증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었음을 나는 특별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거칠게 그을리고 살갗이 터진 그의 손으로 내가 앉았던 걸상을 잡고, 한 소년 곧 요셉 스미스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요셉이 뉴욕 팔마이라 근처의 한 숲 속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을 때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 그의 손가락은 희게 변하였읍니다. 이 이웃 가장의 손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의 굳은 신앙과 정직한 확신과 진리에 대한 그의 간증을 생각하게 됩니다.

금요일 아침 교회 성도들의 본고장, 이 유서깊은 태버나클에서, 대회를 보고 들으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예언자시요 선견자시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장되시는 분을 지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손이 올라간 것을 보았읍니다. 이 높이 들리운 손은 우리의 내적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읍니다. 우리가 손을 들었을 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서약하는 것이었읍니다. 저는 잠시 동안 우리의 예언자이신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의 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겸손하게 그분의 허락을 얻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수년 전에 리 대관장님께서는 영감과 계시를 받아 데위트 제이 폴을 동부어느 스테이크의 축복사로 불렀읍니다. 그 부름은 폴 부처를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게 했읍니다. 그들은 어쩔 줄을 몰라서 두려워했읍니다. 그들은 확신과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얻기 위해 기도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갑자기 오지 않았읍니다.

성도들은 그들을 지지하였읍니다. 그 후 안수할 시간이 닥쳐왔읍니다. 그 대회가 열렸던 지하실 방에서 폴은 의자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를 안수해 주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들어오셔서 새로 부름을 받은 이 축복사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읍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 대신에 화평이 찾아들었으며, 의혹 대신에 신앙이 자리를 차지했읍니다. 그 옆에 앉아 있었던 그의 일생의 반려자인 폴 자매는 걱정에 싸여 있었으나 대관장님의 축복과 성임을 듣는 동안 그녀는 눈을 들어 대관장님을 보았을 때 폴 형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계시는 대관장님의 손 위에 한가닥의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읍니다. 축복을 마쳤을 때 그녀는 급히 이 부름에 대한 확신에 대해 리 대관장께 말씀드리고 그녀가 햇빛과 같은 빛을 본 사실과 이 빛은 리 대관장의 손을 비추었으며 대낮같이 밝은 것이었음을 자세히 말씀드렸더니 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진실로 이것은 이 부름이 성스러운 것임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매님이 보시다시피 이 지하실에는 햇빛이 들어올 창문이 없읍니다." 참으로 예언자의 손은 귀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호와의 손은 모세를 인도하신 손이며, 여호수아를 강하게 했읍니다. 그 손으로 야곱에게 약속하시면서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 : 10)

이 손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단호하신 손이며,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사랑의 손이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신 힘있는 손이십니다. 이 손으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으며, 절름발이가 고침을 입었으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읍니다. 그의 손으로써 모래위에 글을 썼으며 그 글은 바람에 지워졌으나 정직한 자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읍니다. 그 손은 목수의 손이며, 복음을 가르친 선생의 손이고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왕이라 부르는 이 분에 대하여 손을 씻었읍니다. 오 어리석고 줏대없는 빌라도여! 너는 그 물이 너의 죄를 씻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죄값 인해 못박혀 피흘리셨으니
그 자비 사랑 헌신 내 어찌 잊으리…
오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그 일
놀라운 일일세
주님의 업적은 훌륭하셔라.

―찬송가 114장

죄를 범한 손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고통당한 그 손은 선망의 대상이 되며, 만드는 손은 고귀하며, 돕는 손은 감사를 받으며, 봉사하는 손은 존경받으며 온 인류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곧 구원의 손은 경배를 받습니다. 그 분은 그 손으로 우리의 이해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계 3 : 20)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 그가 계시는 높으신 곳으로 갑시다. 그 대답은 자신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슬픔의 먹구름이 우리의 앞길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앞에 전개될 운명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읍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다른 어떤 사람이 구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구할 것입니다.

"……나는 세월의 문간에 서 있는 사람에게

내가 미지의 세계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을 줍시사고 빌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둠 속으로 걸어나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네게는 차라리 빛

을 갖는 것보다 낫고 알고 있는 길에 서 헤매는 것보다 더 안전하리라."

이 엄숙한 진리에 대해서 간증드리며 우리의 주시며 구세주는 분명히 살아 계시며 그는 오늘날에도 그의 강한 손으로 그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성도는 안전하게 산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교회 활동 중 가정 복음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 여러 형제들이 신전에 모여 리 대관장님의 인자하신 권고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체험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도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러한 모임에서 영감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때 그 모임에서 우리가 부른 개회 찬송은 "관대한 그 계명"이었읍니다. 그 후 기도에서 리 대관장님께서는 찬송가에 있는 구절 중에 "성도들 안전히 주님 지키시네"를 인용하셨읍니다. (찬송가 97장) 그리고 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성도들을 안전히 지켜 주시는 데 대한 감사를 드렸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을 돌봐 주십사고 간절히 간구하였읍니다.

그 때 나는 불안과 폭력으로 싸인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중에도 서로서로를 보호하고 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함을 금할 길 없었읍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 : 19)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한 뜻은 참으로 의미 심장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침례 의식을 통해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스스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된 후에는 결코 홀로 있을 필요가 없읍니다.

사람은 각각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서로서로를 돕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성도들이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러한 가정은 교회의 조직이 요구하는 체제에 모든 여건이 부합되는 것입니다.

청년 남녀가 비록 부모 곁을 떠나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돌보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들이 결혼한 후에는 또 다른 유대가 결속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으나 외톨백이로 홀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이제 자기 슬하를 떠나서 스스로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 어머니는 저들이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새로운 자세로 생활에 임하게 됩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며 모두가 예견한 일이며 가장 바람직한 일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길은 영원한 하나의 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니일 10 : 19 참조) 그들은 결코 외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이 주어지나 간혹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할 때도 있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는 돌보아 주는 자로서 저들에게 손을 뻗칩니다. 그러다가 부부가 늙어 그 중 한 편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홀로 남게 된 연로한 부인은 그래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조직은 홀로 남은 그 자매의 영적인 지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물질적인 도움까지도 아끼지 않아 그 자매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돌보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신권 소유자 두 사람이 신권 역원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엔 감독의 지명으로 소위 가정 복음 교육 교사라는 명칭으로 각 회원의 집을 정규적으로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회원 개개인과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제가 신권 가정 복음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읍니다만 교회에는 이보다도 더 흥미진진하고 우리의 구미를 돋구는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얼마 전 성찬식을 끝내고 어느 가정을 방문했읍니다. 아내가 십대에 들어선 아들에게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고 물었읍니다. 아들은 노상 그 또래의 젊은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솔직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좋았읍니다. 성찬식만 제외하고는"이라고 하는 것이었읍니다.

어머니는 다시 성찬식에 관해 물었읍니다. 이에 아들은 다시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고등평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신권 가정 복음 교육과 복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그저 죽어라 하고 듣고만 있으면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자 난처해진 그 어머니는 아들을 향하여 "얘야, 바로 여기 계신 패커 장로님께서 전 교회의 가정 복음 교육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란다."라고 했읍니다.

"잘 알아요," 그는 말했읍니다. "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지요?"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 복음 교육에 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 다시 설명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두 프로그램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읍니다. 아울러 가장 재미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미가 있고 없고 간에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젊은이 여러분들은 그 신권 프로그램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등 평의원과 나를 하나로 볼 수 있읍니다. 여러분에게 준비 과정과 연습을 반복시키는 운동 코치나 몇 분에 끝내지 않고 여러 시간을 계속해서 연습시키는 음악 교사와도 같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일의 뜻을 가르치고 생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에 주의를 쏟도록 가르치는 부모들과도 같다고 볼 수 있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보다도 흥미진진한 프로그램과 활동은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대한 것은 없읍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요구되는 근본되는 것들이 자주 등한시되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 눈에 영양을 공급해 주고 필요없는 찌꺼기를 날라다 주며 질병과 상처에 대비하고 있는 혈관과 피의 기능이 있읍니다. 이 혈액의 공급은 심장의 고동으로 한시도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읍니다. 생명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없어서는 안될 가장 근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손가락 끝의 조그만 상처가 더 큰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심장이 멈추어지거나 커다란 고장을 일으킬 때 심장의 고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주의가 집중되어야 할 곳은 따로 있는 법입니다.

이상하게도 대개의 회원은 가정 복음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심지어는 이를 귀찮은 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보호와 보살핌이 오게 됩니다.

자기 동반자를 방문하는 이십대를 넘지 않은 그런 젊은이를 상상해 봅시다. 하루 저녁에 다섯 가정 혹은 여섯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방문한 가정에 용기를 부어 주며 영적인 도움을 간구하도록 일러 주고 모두에게 자기 이외의 사람이 적어도 자기에게 관심은 갖고 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병이 나면 곧 도움의 손길이 미치도록 조처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사람들의 방문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권 가정 복음 교육 교사가 상호부조회의 방문 교사와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질병 이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마땅히 걸어야 할 제 길을 걷지 않는 어린 아이들의 문제일 수도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권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전할 수 있는 최대의 영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영적인 힘이 하늘의 그것처럼 전해질 수도 있읍니다.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불행한 일들이 정리됩니다. 절망에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물질적인 도움도 받게 됩니다. 슬픔은 위로를 받습니다. 병이 난 사람은 축복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부단히 진행되며 이러한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영적인 안녕을 위해서 준비하신 근본적인 사업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권 가정 복음 교육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수도 있으나 신권 가정 복음 교육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도 준비될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가 변경되었고 여러 가지 교회의 부가적인 프로그램이 정리되었으나 신권 가정 복음 교육의 근본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았읍니다. 신권 가정 복음 교육이 없다면 교회는 조만간에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보다는 퍽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있읍니다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 것들은 후식이며 조미료이며 양념입니다. 그런 것들은 인생을, 특히 젊은이들의 삶을 즐겁게 해 줍니다. 나는 물론 이러한 교회 활동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결코 이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와 교회 활동과의 관계를 끊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있어 신권 가정 복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양념도 치지 않고 후식과 같은 맛을 갖지도 못한 그런 심심한 흰 쌀밥과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나는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보조 조직 활동에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면서 신권 가정 복음 교육을 게을리할 때는 여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은 오렌지 쥬스와 쵸콜렛을 겸한 젊은이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인 운동 모임을 준비할 수 있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만 그것이 저들을 살찌게 하지는 않습니다, 신권 가정 복음 교육을 위한 노력과 수고보다 더 효율적으로 젊은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읍니다. 이는 신권 가정 복음 교육의 목적이 가정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젊은이들이 보통 알고 있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정 복음 교육을 수행하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제반 활동이 보다 훌륭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의 생활을 고무시켜 줄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로 창의적이며 고무적인 방법을 연구해 낼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조만간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이 프로그램을 보다 열심히 이행할 수 있는 날에 이를 것입니다.

덫을 놓고 여우를 잡아서 그 털을 팔아 돈을 모은 사냥군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읍니다. 그는 겨울철에 자기가 갖고 있던 덫을 잘 훈련된 젊은 조수에게 맡기고 남쪽으로 내려갔읍니다. 그는 조수에게 어떻게 덫을 놓아야 하고 어느 곳에 놓아야 하는가도 잘 가르쳤읍니다.

봄이 되어 그는 그의 옛 일터로 돌아와서 조수가 여우를 두어 마리밖에 잡아 놓지 못한 것에 지극히 실망을 했읍니다.

"자네는 내가 가르쳐 준 그대로 했나?" 사냥군이 물었읍니다.

"아, 아니오."그는 대답했읍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더 훌륭한 방법으로 했읍니다."

감독 여러분, 신권 역원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신권 가정 복음 교육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권고합니다. 가정 복음 교육 교사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일을 하도록 버려 두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이 책임을 맡고 있는 젊은이들을 올바로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발명해 낸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언젠가는 다시 주님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길로 되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이제 생각나는 경전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속하고서도 이를 이루지 아니하던 때가 있더냐?

"나는 명령하나 인간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나의 약속을 취소하나니, 저들이 축복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때에 저들이 마음속으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나 그러한 자에게 화 있나니, 저희

상은 땅 아래로 숨어 버리며 하늘에서 는 내려오지 아니할 연고니라."(교리와 성약 58 : 31—33)

아무 뜻이 없는 일상적인 방문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나 방문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가정 복음 교육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임무를 소홀히 여기시거나 그저 반복되는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가정 복음 교육으로 보내는 시간과 가정 복음 교육을 위해서 걷는 걸음과 여러분이 두드리는 집 수효와 여러분이 찾아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 가족을 위한 노력은 모두 배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옵니다.

가정 복음 교사가 자기가 방문한 가정으로부터 상당한 것을 배운다는 사실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사실상 비록 그것이 봉사와 희생이기는 하지만 과연 신권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쪽이 방문을 받는 가정이냐 아니면 그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 교사냐 하는 문제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제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된 경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읍니다. 저는 그것을 가정 복음 교사의 일을 하면서 배웠읍니다.

제가 결혼하기 얼마 전에 가정 복음 교사의 후임 동반자로 부름을 받아 외부와 출입이 전혀 없는 연로하신 자매님을 방문하게 되었읍니다. 그 자매님은 외부와 전혀 연락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우리가 두드리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곤 했읍니다. 우리는 그 자매님이 기력이 다해서 별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침대에 누운 채로 그녀는 우리의 메시지를 받곤 했읍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 자매님이 레몬 아이스크림을 아주 좋아하시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방문하기 전에 자주 아이스크림 집에 들렀읍니다. 우리들이 그 자매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아이스크림을 알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그 집 방문을 좋아했읍니다.

그러다가 한번은 지금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로 해서 저의 선임 동반자가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저는 늘 하던 절차를 좇아서 홀로 그 자매님 댁을 방문했고 방문하기 전에 레몬 아이스크림 반 통을 사서 들었읍니다.

나는 그 자매님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 자매님은 다음날 아주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손자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고 있었읍니다. 자매님은 내게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어린 손자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고 물었읍니다.

기도가 끝나자 나의 결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셨음인지 자매님은 내게 "오늘밤엔 내가 가르쳐 주지"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 때에 그 자매님은 무엇인가를 내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고, 나는 그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읍니다. 드디어 내가 평생을 두고 잊지 않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 시작되었읍니다. 그 자매님께서는 친히 겪으신 삶의 교훈을 내게 전하신 것입니다. 그 자매님께서 훌륭한 젊은이와 신전 결혼을 하신 몇 년 후에 저들이 한참 신혼 생활을 즐기며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을 때 하루는 사서함 B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서함 B는 솔트레이크시를 뜻하는 것이었으며 선교사 부름을 전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들은 부부가 함께 먼 이국으로 가서 선교 사업을 해야 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음을 알고 놀랐읍니다. 그들은 아주 성실하게 열심으로 선교 사업을 했고 몇 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가족들에게 열과 성을 쏟으며 살게 되었읍니다.

그 자매님은 그후 어떤 일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을 크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읍니다. 부부 간에 사소한 말다툼이 생겼고 마침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언짢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읍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매님은 그 때 도대체 무슨 일로 논쟁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그 다툼이 끝이 났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자매님은 이야기를 계속했읍니다. "이젠 어쩔 수 없읍니다만… 나는 그이를 따라 문까지 나갔어요. 그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큰 길로 걸어 나갈 때 나는 그 때 그의 등 뒤에 대고 좀 심한 말을 했읍니다."

그러고 나서 자매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 날 있었던 사고의 경위를 들려주었읍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십 평생을 두고" 자매님은 흐느끼면서 말했읍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서 들은 마지막 이야기가 심한 욕설이었다고 하는 자책 때문에 지옥에서 살 겁니다."

이것이 그 자매님께서 젊은 가정 복음 교사에게 전하신 메시지였읍니다. 그 자매님은 나에게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이 메시지를 전하였읍니다. 나는 이 교훈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읍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격한 이야기를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읍니다.

나는 종종 그 때 내가 방문하던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 때 우리가 그 가정을 방문하느라고 소비했던 시간과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서 쓴 돈 얼마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았읍니다. 물론 그 작은 체구의 자매님이 이 세상을 떠난 지도 오래입니다. 그 때 나의 선임 동반자였던 분도 세상을 떠났읍니다. 그러나 그 때 가정 복음 교사로서 많은 것을 배운 그 교사로서의 지울 수 없는 체험은 아직도 나와 더불어 삽니다. 나는 내가 젊은이들의 결혼 주례를 맡아서 또 다른 경우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매님의 메시지를 인용해서 전한 때가 있었읍니다.

신권 가정 복음 교육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었읍니다. 주님의 지명을 받고 가정을 방문하는 신권 소유자는 수천 배로 갚으시는 주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가끔 나는 교회에서 맡은 직책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냥 가정 복음 교사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 교사밖에라고 하고 있읍니다. 양을 지키는 파수꾼에 불과하다는 뜻이겠지요. 가장 중대한 일을 수행하는 자 앞에 그저, 밖에라는 말로 수식하고 있읍니다. 주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신권 가정 복음 교사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찬송가의 울림은 진리로 공명됩니다.

"성도들 안전히 주님 지키시네.
온 자연 주관하는 손길
우리 보호하리."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이 교회는 주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능과 권세를 쥐고 있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는 홀로 온 세상의 스테이크와 선교부와 지부를 직접 다스리지는 않습니다만 권능과 열쇠를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셔서 그 모든 스테이크와 와드와 지부에 손길을 뻗치시며 모든 가정

과 개인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밀어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도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또 다른 예언자를 세우셨으니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하나님께서는 옛날처럼 현재에도 그의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현재의 이 날을 위해 새로운 예언자를 세우셨읍니다.

그는 오늘날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의 말을 들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계시를 가져다 주는 영감받은 사람 중의 한 분입니다.

이 새로운 예언자의 성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우리는 이러한 성스러운 사실을 세상에 전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로 인정한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살아 계신 예언자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읍니다.

고대에도 백성들이 성실하게 살았을 때 거룩한 사명을 맡은 예언자가 계속 세움을 입고 백성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많은 예언자들을 알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영감을 받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부름을 받아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러한 일은 말일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된 후 있게 되었읍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지상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오직 예언자를 통해서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의미 깊은 말씀을 남겼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암 3 : 7)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흔히 있는 대화를 가정한 것이므로 매우 흥미가 있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주님은 대화의 하나님이시요,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빛과 예지,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암흑 속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으시며 무지한 사람을 구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의 전반적인 구원의 계획은 개화된 백성과의 대화에 의존합니다.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읍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뜻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어디서 나오겠읍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대화나 계시를 통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화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에게 지식을 전할 때는 특별한 방법을 따르십니다. 그것은 불변의 원칙이니 즉 그는 언제나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경전은 수세기 동안 주님께서 인간에게 영적인 지시를 제한없이 주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계시가 중단된 때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사태는 성경 시대에도 있었으며, 선지자 이사야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이사야 59 : 1—2)

인간은 주님의 방법을 배우는 데 더디며, 비록 주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더라도 주님께서는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서 대화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그와 대화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가 따르는 절차입니다. 그는 이 절차를 변경하지 않으셨읍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같은 분이시고 그의 방법도 변함이 없읍니다.

인간들 사이의 대화의 결여가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아담의 시대부터 침례 요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대변자로 일할 영감받은 사람을 뽑아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셨읍니다. 우리는 이사야, 에스겔, 모세, 스가랴와 같은 이름을 자주 들어 알고 있읍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은 위대한 문학적 가치가 있으며, 인간에게 주어진 계시를 실은 구약을 이루게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는 어떠했읍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같은 방법을 택하셨읍니까? 기독교 교회에 예언자를 두셔서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지속하셨읍니까?

물론 그렇게 하셨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세주를 모퉁이 돌로 하고 사도와 예언자를 기초로 하여 세워졌다고 말했읍니다. (엡 2 : 20 참조)

그렇다면 그 당시의 예언자는 누구였겠읍니까?

물론 십이사도가 포함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없었읍니까?

신약 성서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말해 줍니다. 실라와 바나바는 그 당시의 위대한 선교사였읍니다. 시므온과 루기오,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읍니다. 바울의 체포를 예언한 마나엔과 아가보라는 사람도 있었읍니다. (행 11, 13, 21 참조)

에베소인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그 당시 기독교 교회에 예언자가 있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 : 12)는 말로 분명해집니다.

구세주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라(마 5 : 48 참조)

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의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도와 예언자도 두셨읍니다.

이 영감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단합시키고 그들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엡 4 : 14)고 노력하였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서에 기록된 바대로 그 당시부터 계속되어 온 대화의 방법을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지켜 오셨읍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예언자의 대화가 초기 기독교 교회의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부분이 되었는데 오늘날 기독교 세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예언자는 어디에 있읍니까?

불행하게도 그들은 수세기 동안 자취를 감추고 말았읍니다. 계시자 요한을 마지막으로 해서 기원 후 110년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계에는 예언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읍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기독교는 하나님의 대화를 받지 않고 표류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여러 종파에서는 예언자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예언자나 계시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들은 과거에 쓰인 성경이 필요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지금도 그의 백성을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인도하고 계신다는 주님의 전통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백성들이었으며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았읍니다. 구세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구세주께서 주위 사람에게 하신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 23 : 37)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읍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구원 얻으려고 품에 안긴 영혼
저희 원수에게 내주지 않으리
온 지옥 떨며 떨어뜨리려 하나
결단코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찬송가 16장

우리는 이렇게 찬송가를 부릅니다. 경전은 구세주의 재림 직전인 말일에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표적은 바다가 육지를 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질병이 유행하고, 무서운 전쟁이 계속되는 등 세상이 황폐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일의 표적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표적은 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이며 이것은 "그의 심판하실 시간"(계 14 : 6—7 참조)에 이루어집니다.

이 회복이란 광범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의 종을 통해 하신 모든 말씀까지도 다 포함한다고 경전은 말해 주고 있읍니다. (행 3 : 21 참조)

그렇다면 그것은 예언과 계시의 회복까지도 포함하는 말이 아니겠읍니까?

이 어려운 때에 백성들을 인도할 새로운 예언자들이 부름을 받게 된다는 말이 아니겠읍니까?

경전은 말일에 새로운 계시가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종인 예언자를 통해 그의 계시를 주신다고 하셨고, 수세기 동안 예언자들이 없었으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기 위해 마련된 계시를 전할 새로운 예언자가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언대로 되어 갔읍니다.

요셉 스미스가 말일의 최초의 예언자가 되었읍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순수한 복음을 회복하셨으며, 1830년에 지상에 교회를 재조직하셨읍니다.

그 이후로 주님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현대의 예언자가 있어 왔으며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 다음으로 브리감 영이 부름을 받았으며 그 뒤로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 로렌조 스노우, 조셉 에프 스미스, 히버 제이 그랜트, 조지 앨버트 스미스, 데이비드 오 맥케이, 조셉 필딩 스미스와 현 대관장이신 해롤드 비 리가 있읍니다. 이들은 모두 그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였읍니다. 이들은 선견자였고 계시자였읍니다.

우리는 이 대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손을 들고 리 대관장님을 이 시대의 영감받은 지도자로 정식으로 지지하였읍니다.

예언자로서의 소임이 그에게 주어졌읍니다. 그는 선대의 예언자들이 지녔던 성신권의 권능을 지니고 있읍니다.

천사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준 모든 열쇠와 권능이 리 대관장에게 부여되었읍니다. 그는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예언자입니다.

이 사업은 복천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구세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읍니다. 그리스도는 꼭 다시 오십니다. 그의 교회는 그의 재림을 맞기 위해 회복되었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지상에 모세나 이사야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실라, 바나바, 바울과 같은 예언자를 갖게 되었읍니다. 또 다시 참된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허락되었읍니다.

또 다시 현대의 종을 통해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 : 28—30)

우리를 인도하는 이 새로운 예언자들과 함께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다시 구원을 안겨다 주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 말일에 말씀을 하시며, 우리는 그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경전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롬 10 : 15)라는 말씀이 있읍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누구이며 누가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산 위에 선 누구의 발이 그토록 아름다운지 자문하여 보신 적이 있읍니까? 몰몬경의 선지자 아빈아다이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입니다.

아빈아다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세상이 시작하던 때로부터 있었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아니냐?

"저들은 평화를 공포하는 자요, 선한일의 선한 소식을 전하여 구원을 공포하는 자요, 시온을 향하여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할 자라.

"산 위에 오른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직도 평화를 공포하고 있는 자들의 발이 산 위에 오를 때 얼마나 아름

다울고!

"또한 이제로부터 영원을 두고 평화를 공포할 자들의 발이 산 위에서 얼마나 아름다울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시며 화평을 이룩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신 주의 발이 산 위에서 얼마나 아름다울고!"(모사이야서 15 : 13—18)

아빈아다이는 이상과 같이 말했읍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태초부터 있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의 종이며 평강의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보십시오, 산 위에 오른 그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을 통해 주님의 방법대로 지상에서 구원의 사업을 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언자의 음성 듣고 주 말씀 믿으라
진리의 길 기뻐하고 찬송을 외쳐라.
옛 선지 걸었던 그 길 우리도 알았네
이 지식 회복하려고 예언자 주셨네."

우리는 오늘날 하늘과 땅의 대화가 재개되었다는 것을 엄숙히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는 죽지 않았읍니다. 그는 살아 계십니다.

그는 장님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는 귀가 먹지 않았읍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는 벙어리도 아닙니다. 그는 살아 있는 그의 예언자에게 유창하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통해 세상에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를 인정합시다. 그에게 기도를 드립시다. 그에게 순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1972년 10월 8일 일요일 오전 모임 말씀

기독교계의 이상한 신조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반박과 진리에 대한 확언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훌륭한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방금 태너 부대관장님의 훌륭한 간증을 듣고 영적으로 고조되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각처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뒤이어 하늘 사자들의 방문을 받았던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간증을 가지고 있는 3백만의 말일성도들이 있읍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간 수십만명의 영들이 있읍니다. 나의 부친과 할아버지께서도 이미 돌아가셨읍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결혼 생활 처음 14년 중 10년은 이곳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셨읍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날 자신의 돈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7,000명의 복음 선교사가 있읍니다. 그들은 회복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하고 있읍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간증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들이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주께서 오늘날 지상에 그의 사업을 회복하신 기이한 일들을 알려고 하면서도 이 교회에 가입하지 않을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국내의 저명한 방송 해설자 한 분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읍니다. "전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그 질문을 깊이 생각한 끝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읍니다.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일성도는 이 위대한 메시지를 정말로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단지 모로나이나 침례 요한이나 베드로와 같은 예언자가 이 지상을 방문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태너 부대관장이 간증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을 방문했다는 사실까지도 알려 주는 메시지입니다. 만일 세상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읍니까?

우주 비행사가 달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전세계의 신문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로 보도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지상에 오신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 지상을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무슨 메시지를 전해 주기를 원했을까하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그에게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므로 "그들의 신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요셉스미스 2서 19절)고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비회원들이 화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방문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의 말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간증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일례로 해리 에머슨 포스딕의 말을 인용하겠읍니다. "만일 예수께서 오늘날 이 지상에 다시 오신다면, 자신에 대한 신화를 들으시고 자신의 이름을 빙자한 신조와 종파와 성찬을 보시고 그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실태라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니라.'"

스미스 성서 사전은 73명의 저명한 신학자와 성경 학자들에 의해서 편찬되었읍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읍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서 우리들은 진실로 성서에 입각한 복음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기독

교의 종파 전체에서도 이와 같이 완전한 복음을 찾을 수 없는데 하물며 어느 한 종파에서 찾을 수 있으랴."

미국의 가장 오래된 침례교회 목사 로저스 윌리엄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의 목사직을 사임했읍니다. "지상에는 정식으로 조직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으며 어떠한 사람도 교회 의식을 집행할 자격이 없으니 즉 내가 찾고 있는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사도들이 보내어질 때까지는 교회의 의식이란 있을 수 없다" (픽처레스크 아메리카, 502페이지)

이제 우리에게는 참된 사도들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대회 동안 약 30명이나 되는 이 위대한 분들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분들은 종교적인 확신에 상관없이 성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 당연히 위대한 분들이며 더구나 이분들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 지상을 방문하셨다는 간증으로 불타고 있읍니다.

오늘 아침 나는 구세주께서 하신 "그들의 신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며"라는 말씀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내어 쫓겨났을 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땅과…… 있을찐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 갔음이라"(계 12 : 12) "이같이 사탄은 인간의 영육을 멸망시키려고……돌아다니느니라"(교성 10 : 27) 그러면 사탄은 인간을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그들은 진리의 일부를 취하여 많은 거짓된 교리와 섞어 인간을 속이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하신 다음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사 14 : 12—14) 이는 그가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이렇게 하여 백성들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사 14 : 16 참조) 사탄이 백성들을 속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들의 신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며"라고 하셨읍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관한 몇 가지 실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봅니다. 이러한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십자가 상에서 우편 강도에게 한 다음의 말에서 그 정당성을 찾고 있읍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 : 43)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성경에 나오는 **낙원**이라는 말을 "영의 세계"라고 해석하셨음)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만 한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즉 그들은 단지 경전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바울은 세째 하늘에 이끌려 갔읍니다. (첫째와 둘째 하늘이 없다면 세째 하늘도 있을 리 없읍니다.) 그는 또한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 곧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고후 12 : 2—4 참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강도에게 하신 다음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즉 영의 세계에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영의 세계 위에는 세 하늘이 있다고 말했으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 : 2—3)

몰몬경에서 예언자 앨마는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의 상태에 관해서 이와 같이 말했읍니다. "바로 이것이 불의한 영의 상태라. 곧 암흑의 상태요, 저들을 치실 불길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기다리는 무서운 상태라. 부활의 때까지 의로운 영들은 낙원에 거하겠으나, 이와 같이 불의한 영들은 이러한 곳에 남아 있어야 하리라."(앨 40 : 14)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전을 믿는다면, 예수는 결코 그 강도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영의 세계로 데리고 갔읍니다. 성경에 따르면 영의 세계 위에는 세 하늘이 있읍니다. 예수님은 왜 그를 낙원(영의 세계)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것은 그 강도가 십자가 상에서 한 말로 인하여 그가 받을 수 있었던 최대의 은사이며 상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날 그가 가셨던 곳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벧전 3 : 19—20)

그 강도는 노아의 날에 악하였던 자들과 같이 긴 세월을 기다리는 대신 구세주께서는 바로 그날 그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읍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벧전 4 : 6) 강도가 그날 예수님과 함께 갔던 곳은 바로 이곳이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께서 그를 데리고 가지 않은 세 하늘이 있읍니다.

여러분은 여인들이 무덤으로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을 때 두 천사가 거기에 서 있었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머리에 다른 한 천사는 발 쪽에 서서 그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눅 24 : 5—6)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랍오니(이는 선생님이라)여"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 20 : 17)고 하셨읍니다.

여러분은 경전을 올바르게 읽는다면 그 경전이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희가 성경도……알지 못하는고로 오해하였도다"(마 22 : 9) 그 강도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갔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때까지 그의 아버지에게 올라가지 아니했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날(예수의 재림 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 : 21—23)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 5 : 8—9)

요한은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광경을 계시로써 보았읍니다. 요한은 또 이렇게 기록하였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예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계 20 : 12, 6)

이로써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하며 그 행함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도 알았읍니다.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읽고 배로 이익을 남긴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찌어다"하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겠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라고 했읍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마 25 : 21, 24—25, 28—30)하셨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고백하는 그 이상의 무엇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나는 한 가지 다른 일 곧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신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셉 스미스가 놀라운 시현을 보았을 때 그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도 보았읍니다. 그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였읍니다. 그는 또한 그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 보게 하셨던 바로 그 분이었으며 500여명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분이었읍니다. 또한 온 세상의 기독교가 이상한 신을 믿고 있을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그 분이었읍니다.

이것에 관해서 상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 문답서의 한 구절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그들의 교리 문답서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읍니다. "몸도 없으며 지체도 없으며 감정도 없으시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눈도 귀도 없으며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으며 음성도 없어서 예언자에게 말을 전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끝이 없는 높은 보좌의 끝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런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기로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설명은 기록될 수 있는 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으뜸가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태가 온 세상에 만연될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냈을 때 그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며 열국 가운데 흩어져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신 4 : 28)고 말했읍니다.

모세가 말한 이 신은 바로 요셉 스미스가 그의 영광스러운 시현에서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을 때, 그 당시 기독교 신도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신이었읍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에 그러한 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는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말일에 그를 만나게 되리라고 말했읍니다. (신 4 : 29 참조)

이 대회 동안 우리들은 총관리 역원들이 예언자 요셉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증거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한 사람으로써 간증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이 지상을 방문하셔서 이곳에 진리를 밝혀 주셨음을 압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다음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행 3 : 21) 하늘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받아둘 것이라고 했읍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 지상에서 이와 같은 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회복**과 **개혁**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읍니다. 우리는 신교도 구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이 지상에 다시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종교 개혁자 한 사람을 보았읍니다. 이것을 방영하는 데는 125만 불이 든다고 이 프로를 담당한 그 사람이 말했읍니다. 나는 그 때 경전에 있는 말씀을 생각했읍니다. 그들은 인간의 영혼으로 이를 삼고 있었읍니다. (벧후 2 : 3 참조) 이 프로가 끝났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께 와서 죄를 고백하라고 했읍니다.

나는 그때 오순절날 베드로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들이 모두 그들 자신의 언어와 방언으로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행 2 : 37)하고 외친 사실을 생각했읍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시지는 아니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침례를 받고……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행 2 : 37—39)

그런데 그들은 하늘에서 인정한 권능을 가진 자가 없으면 침례받을 수 없읍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열 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 15 : 16)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 16 : 19)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형제 자매 또 친구 여러분, 우리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말일 성도인 여러분은 누구나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미 경고를 받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을 경고할 책임이 있느니라"(교성 88:81) 여러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이며 또한 여러분에게 드리는 나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1972년 10월 7일 토요일 오전 모임 말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왜?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가난한 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우리의 책임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간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142차 반연차 대회 시간입니다.

이 교회가 조직된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소위 다른 많은 기독교 종파가 있었으며 "또 다른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질문도 종종 들을 수 있었읍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나는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느 교회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교회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었읍니다.

14세의 소년인 요셉 스미스 이세도 그러한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 중의 하나였읍니다. 1820년 봄, 그가 살던 뉴욕주 팔마이라의 교외에서 있었던 종교부흥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들이 각기 주장하는 바가 다른 데서 오는 혼란에 휩싸인 채 야고보의 훈계와 약속에 힘입어 요셉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에 따라 어린이 같은 신앙으로 주님께 많은 교파 중에 어느 교회가 옳으며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하겠는가를 물었읍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속의 소망을 기도하기 시작하였읍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나는 어떤 힘에 의하여 완전히 사로잡혔으며 놀라운 힘에 압도되어 저항력을 잃고……

"……나를 사로잡은 이 원수의 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간구하면서도 거의 실망하여……나의 몸을 파멸 속에 내던지려는 순간……나의 머리 바로 위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 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읍니다.

"이 빛 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힘으로부터 풀려났음을 깨달았으며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읍니다."(요셉 스미스 2서 15—18절)

이 시현은 그 후 약 10년 뒤에 교회의 조직으로 절정에 달했던 엄숙하고 장엄한 회복의 서막이 되었읍니다. 시현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교파가 다 그르기 때문에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말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했읍니다. (요셉 스미스 2서 19절) 모든 교파들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그 복음이 그랬고 이름이 그랬읍니다.

그들이 결하고 있었던 필수 불가결한 교회의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1.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진리.
2. 구원의 원리와 의식에 대한 지식.
3. 하나님의 신권.
4. 끊임없는 계시.

첫번째 요소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에 관해서 요셉 스미스는 시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었읍니다. 후에 그는 이들에 관해 이렇게 말했읍니다. "아버지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나니, 아들도 그러하니라……"(교성 130:22)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진리를 요셉 스미스 시대의 교회들은 가르치지 않았읍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그들이 그러한 진리를 알지도 못했으며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살았던 당시에는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그와 같은 진리를 알고 배웠고 또한 가르쳤던 것입니다. 1830년에야 오랜 세월을 지나도록 잊었던 그 진리를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참다운 지식의 결핍에서 많은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1820년대에 복음의 기본 원리와 의식이 하늘로부터 소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로 전해졌읍니다. 많은 원리와 의식을 그는 몰몬경에서 배우게 되었는데 그 몰몬경을 얻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읍니다.

1827년 9월 고대 아메리카의 역사가이며 예언자였던 모로나이가 부활하여 요셉에게 나타나 금박 위에 글이 새겨진 금판을 주었으며 요셉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그것을 번역했읍니다. 그 내용에는 고대 미대륙 백성들 간에 배우고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의식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1829년에 요셉은 이 번역문을 몰몬경이란 이름으로 출판했읍니다. 이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직후 예루살렘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미대륙에 오셔서 그곳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기록이 실려 있었읍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서 가르친 바대로 이들에게도 같은 것을 가르치셨읍니다. 그들 가운데서 그의 교회를 조직했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신권을 부여했읍니다. 이들에게 그의 복음의 구원의 의식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몸소 보이셨읍니다.

요셉이 몰몬경을 출판할 때는 이미 복음의 제3 필수 요소인 성신권을 부여받았으며, 이로써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1829년 5월에 그는 아론 신권을 받았읍니다. 몰몬경에 기록된 침례에 관한 구세주의 가르침을 번역하는 동안 요셉과 그의 서기 올리버 카우드리는 주님께 침례에 관해 더 밝히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구했읍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한 사자가 내려와 그의 이름이 요한이며 신약전서에 나오는 침례 요한과 동일인이라고 말했읍니다. 이 천사는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교성 13편)

몇 주일 후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나서 요셉과 올리버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하고 그들을 사도로 성임하였읍니다. (교회 정사 1권 40페이지 참조)

복음의 네번째 필수 요소인 끊임없는 계시는 신권의 회복과 더불어 다시 시작되었읍니다.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과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대한 지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가 직접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전부는 아닙니다.

절정의 때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성신의 은사를 받았읍니다. 성신은 계시자입니다. 성신을 받는다 함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남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 : 5)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은 성신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권 역원들에게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온 자를 경전의 말씀에 따라 불과 성신의 침례를 주는 안수례를 베풀며"(교성 20 : 41)라 가르치셨읍니다.

신권과 성신의 능력은 교회와 교회 회원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입니다.

"……성신의 특별한 임무는 마음을 밝고 고상하게 해 주며, 영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 주며 선한 일을 하도록 깨우쳐 주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어 보이게 하는 것이다"(제임스 이 탈메지, 신앙개조, 167페이지)

이 은사가 없는 교회는 마치 전기가 없는 발전소처럼 죽었거나 무능한 것일 수밖에 없읍니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복음을 받은 요셉 스미스는 주님의 명에 따라 지상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시 세울 권능을 얻게 되었읍니다. 그러한 지시는 여러 차례의 계시를 통해서 전해졌으며 교회 조직의 날짜와 방식도 계시를 통해 받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계명에 순종하여 요셉 스미스 이세는 1830년 4월 6일 뉴욕주 세네카군 페이에트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지상의 법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했읍니다.

왜 이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교회를 또 조직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요셉 스미스에게 교회를 조직할 것을 명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되었읍니다. 주님은 요셉에게 교회 조직을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까지도 주셨읍니다.

당시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니파이인들에게 베푼 가르침에서 교회가 그의 이름을 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니파이인들이 예수께 그의 교회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지 아니할진대 어찌 나의 교회가 되겠느냐? 만일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면 이는 모세의 교회요, 사람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면 이는 사람의 교회라. 그러므로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가 내 복음 위에 세워진 바 곧 나의 교회라"(니파이삼서 27 : 8)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교회는 (1) 그의 이름으로 일컬어져야 하며, (2) 그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두 가지 사실을 전해 줍니다.

이 말일에 주어진 이름에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읍니다. 주님께서는 요셉 스미스에게 "나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 불리우리라"(교성 115 : 4)고 말씀하셨읍니다.

"몰몬 교회"란 이름은 별명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져야 하며 그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두 가지 사항을 만족시키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직접 계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 몇 마디 말씀과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검토한 사실과 같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그렇게도 중요한 절정의 시대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읍니다. 교회를 회복한 일은 요셉 스미스와 그의 동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예언자에게 주신 계시를 설명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지어다.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 보지 아니할 눈도 없고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꿰뚫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느니라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 사는 주민들아, 나 주는 이 일을 기꺼이 모든 인간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이는 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며 모든 자로 하여금 그날이 속히 임하는 줄 알게 하려는 자인 연고라.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그 시각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때가 임박하였도다.

"그러나 주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며……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교성 1 : 1—2, 34—36)

이 말씀이 있은지 140여년이 지난 오늘날 지상에는 평화가 사라졌읍니다. 이제 악마는 그의 권속을 통치하며 주님은 그의 성도들을 다스립니다. 세상에 심판하러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읍니다.

그때까지도 사람과 국가가 지금과 같은 상태를 계속한다면 큰 시련이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날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각처에 지진과 많은 황폐가 있으리라……"(교성 45 : 26, 33)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가올 재난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읍니다. 주님은 우리가 재난에서 피할 수 있도록 그의 복음을 회복하셨으며 그의 교회를 세우셨읍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가 조직된 약 1년 반 후에 우리가 현재 처한 곤경의 이유를 이와 같이 풀이하셨읍니다.

"이는 저들 〔세상 사람들을 말함〕이 나의 의식을 저버렸고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으며,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본질은 하나의 우상이며 낡은 것이니 바빌론 곧 멸망할 대 바빌론처럼 파멸하리라

"그러므로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

"또한 다른 자들에게도 계명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였나니, "(교리와 성약 1 : 15—18)

세상에 전파된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의식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회복하고 지상에 그의 교회를 다시 세움으로써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읍니다.

이 회복은 열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단 2 : 44)라고 한 다니엘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는 또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갈 것이라"라고 한 미가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계 14 : 6—7)고한 요한이 본 시현이 성취된 것을 뜻합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말한 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온 "만유의 회복"입니다. (행 3 : 21 참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이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을 덧붙여 간증드립니다. 나는 또한 나의 이야기를 듣거나 읽을 여러분 모두에게 만약 여러분이 역사적인 사실과 회복된 진리에 대해 알아 겸손하고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다면 하나님은 성신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확신을 심어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봄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구원에 필요한 참된 교회의 네 가지 특징

사랑하는 신권 소유자 여러분, 나는 오늘밤 신권 소유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 가운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볼 의무가 주어졌음을 강조하며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전처럼 복음의 특별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 즉 그가 영광으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32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마 25 : 34, 41)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25장에서 주님께서는 위대한 날에 있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보여 주는 관심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에서 더욱 강조하셨읍니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마 19 : 21)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이점을 강조하셨읍니다.

가난한 자를 돌볼 책임은 성경에서와 마찬가지로 몰몬경에서도 감동적으로 가르쳐지고 있읍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앨마는 백성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필요하고 또 원하는 대로 서로" 나누도록 명했읍니다. 그는 그들에게 "저들의 자유로운 의사로써 하나님께로 향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말했읍니다. (모 18 : 27—29)

이와 유사한 가르침과 행위가 몰몬경에는 여러 번 나오고 있읍니다.

베냐민 왕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가르쳤읍니다.

"이제……너희가 날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니, 나는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각각 가진 대로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영적으로나 육신으로 병든 자를 찾아 저들의 원대로 구제하여 위로하기 바라노라."(모 4 : 26)

앰율레크는 기도의 효력은 자신이 궁핍한 자를 돌보는 데 있다고 설명했읍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자비가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공의를 만족시켜 주는가를 설명한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권고를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

게 하시며, 너희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 능하사 너희를 구하실 분이라.

"너희가 들에 있을 때는 너희의 양떼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가 집에 거할 때, 아침 낮 밤으로 너희의 권속을 위해 기도하라.

"모든 의의 원수, 악마를 막아 주시도록 간구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 골방이나, 은밀한 장소나 광야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소리내어 주께 외치지 않을 때는 너희의 복리와 너희 이웃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라."(앨마서 34 : 17—18, 20—21, 23, 26—27)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행하면 매우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나 앰율레크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기도하는 것으로 족하다 생각지 말라. 너희가 이 모두를 행한 뒤에도, 궁핍하고 헐벗은 자를 외면하며, 병들어 신음하는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무엇이라도 가졌을 때 궁핍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소유를 나누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정코 너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올바로 행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의 기도는 헛된 것이라. 너희에게 유익을 가져오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믿음을 거역하는 위선자 같이 되리라."(앨마서 34 : 28, 29)

이 고대 성구들은 참으로 감동적이고 교훈적입니다. 그러나 이 성구는 우리가 지키고 헤아림을 받게 될 현대 성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현대 성구들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아는 것이 절대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조직된 지 일 년도 채 안된 1831년 1월에 이 주제에 관해서 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모든 자로 하여금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하라. 덕을 쌓으며 내 앞에서 거룩할지어다.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자로 하여금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하라.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아들 열 둘을 가졌는데 저들을 편애하지 아니하면 저들은 아비에게 순종하여 섬기나, 아비가 한 아들에게 이르기를 예복을 입고 여기에 앉으라 하고 다른 아들에게 누더기를 입고 저기에 앉으라 이르고 나서 아들들을 바라보고 나는 공평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보라, 이를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내가 존재함같이 진실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38 : 24—27)

주님께서는 세속적인 필요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읍니다.

"또 이 지방의 교회 회원에게 계명을 주노니, 저들 가운데 몇 사람은 임명받으리니, ……

"또 저들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며 저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도울지어다. ……"(교성 38 : 34, 35)

수주일이 지난 뒤 주님께서는 그분 스스로 교회의 법이라고 언명하신 교리와 성약 42편에 기록된 그 위대한 계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킬지어다.

"보라, 가난한 자를 기억할지니…… 네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하여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하느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너희 재물을 나누어 줌은 내게 행하는 것이 되나니……"(교성 42 : 29—31)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아야 할 중요성은 1831년 6월 7일 커틀랜드에서 예언자가 받은 계시에서 크게 강조되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형제들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미주우리로 갈 것을 명하셨읍니다. 이들 대부분 빈곤한 형제들은 최소한 4개 주를 지나야만 했읍니다. 예언자는 센트루이스에서 인디펜덴스에 이르는 300마일의 머나먼 길을 몸소 걸었읍니다. 이러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잘 견디어 내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리셨읍니다. "모든 일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닌 연고니라."(교리와 성약 52 : 40)

극도로 곤경에 처한 이들 형제들에게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풍요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서약은 무엇이 되겠읍니까?

주님의 계획을 허울좋게 지껄여대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는 일을 정부나 어떤 공공 단체에 그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자발적으로 풍성한 사랑을 베풂으로써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모로 7 : 47)이라고 몰몬이 규정지었던 사랑을 베풀 수 있읍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라는 지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는 모든 시대를 통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주셨읍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분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지시를 하셨읍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 두라……"(레 19 : 9—10)

이 프로그램은 간단한 원리지만 영감받은 복지 프로그램의 실천원리인 다음의 두 기본 원리의 기초가 됩니다. 즉 (1) 가진 자는 나누어 주고 (2) 받은 자는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 복지 프로그램의 원리에 따라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웠읍니다. 물론 그녀에게 향한 보아스의 감정 때문에 다소 유리한 점은 있었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 실시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읍니다.

받은 자의 의무는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힘껏 일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볼 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의무 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창 3 : 19)

이 하나님의 계명은 오늘날에도 실천되고 있읍니다. 계시된 "교회의 율법"에서 주께서는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자는 밥을 먹지도 말아야 하며 일군의 옷을 입지도 말아야 함이니라."(교성 42 : 42) 그 후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읍니다. "……게으른 자는 회개하여 자기의 태도를 고치지 아니할진대 교회 안에서 일할 자리가 없으리라."(교성 75 : 29)

이 계명은 게으름을 경고하는 것이지만 이 계명은 받은 자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복음의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교성 104 : 18) 자기의 몫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올바른 교회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냐민 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혹 너희는 이르기를, 사람은 저마다 스스로 자기의 비참을 불러 갖는 것이매, 나는 잠잠하여 음식을 나누거나 저가 고난을 받지 않도록 나의 재물을 나누지 아니하리라. 그가 형벌을 받음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할 것이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행하는 자는 크게 뉘우칠 것이요, 이렇게 행하고도 행한 바를 회개치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왕국이 저에게는 조금도 즐겁지 아니하리라."(모사이야서 4 : 17—18)

이들 두 원칙의 작용 즉 주는 자의 자선과 받는 자의 근면은 에녹 시대에 너무나 완전하였으므로 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음이더라"(모세서 7 : 18)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복음 회복의 일부로써 주께서는 에녹의 백성들이 지켰던 협동교단을 실시하였읍니다. 그러나 이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순종할 만큼 잘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제도가 중단되었을 때 십일조의 율법이 주어졌읍니다. 교회는 100년 동안이나 십일조, 금식 헌금, 상호부조회 헌금 및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주 자금으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왔읍니다.

1930년대 중엽에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궁핍한 자를 돌보기 위하여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십일조와 금식 헌금 이외에 엄청난 양의 각종 식료품, 의류, 연료 및 기타 생활 필수품이 주어졌으며 또한 일할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읍니다.

이와 같이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가난한 자를 부양해야 할 방법에 관한 특별한 지시를 주셨읍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비참한 결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한 계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나 주는 하늘을 펼치고 땅 곧 나의 손의 창조물을 만들었으니, 그 안에 있는 만물은 나의 것이니라.

"나의 성도를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니 만물이 나의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니, 보라, 가난한 자는 높아지고 부한 자는 낮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나 주가 나의 성도를 부양하기로 선포한 방법이니라.

"땅은 충만하고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 참으로 내가 만물을 만들어 인간의 자녀들에게 이를 주어 자유 의지대로 행동하게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04 : 14—17)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엄연한 책임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백성들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읍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행사할 수 있읍니다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느 사람이 내가 만든 것을 풍성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나의 복음의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자기의 몫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저는 악한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으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리라."(교리와 성약 104 : 18)

우리의 풍성한 부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복음의 율법"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첫째,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는 것이며, 둘째, 아낌없이 금식 헌금을 내는 것이며, 세째, 노동과 헌금으로 복지 사업을 돕는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나는 진심으로 이 율법을 이해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악한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으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가르침에 따라 우리 모두가 이 율법을 알며 그것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말일성도들은 왜 신전을 짓는가?

엘드리드 지 스미스 장로
교회 축복사

신전 의식을 통한 지상의 가족의 축복과 영원성

오늘 아침 나는 해롤드 비 리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하고 그밖의 총관리 역원들을 또한 지지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를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곳에 계신 모든 지도자들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이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자주 물어 보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말일성도는 왜 신전을 짓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개조 제3조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또 신앙개조 제4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읍니다.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이, 회개. 제삼,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제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의식을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 : 3—5)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이 법을 따름으로써 이 법의 완전함과 정확성을 이미 확증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읍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마태복음 3 : 13—15)

침례는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의식입니다. 죄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으므로 그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더욱 필요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의식이라면, 이 의식을 수행할 수 없었던 때나 장소에 처해 있었거나 그 기회가 없었던 이 지상에 온 무수한 자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공정하시다면, 그분은 모든 인류가 그 의식을 받을 방편을 마련해 주셔야 하며 그 의식은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수행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번째 서한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후 부활하실 때까지 죽은 자들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음을 기록하고 있읍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여덟 명이라."(벧전 3 : 19—20)

이것은 이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복음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모든 자들에게 죽은 후에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영들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관문인 침례 의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부활의 실재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질문했읍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고전 15 : 29)

분명히 그때 그들은 죽은 친족들을 위해 대리 침례를 행하고 있었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대신 고통을 겪으셨읍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 대신 그 일을 수행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필요한 조건이 있읍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대리 사업을 행할 수 있겠읍니까?

그렇다면 필요한 일은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각 가족의 기록을 작성하고 조사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1836년 4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신전이 완공되었을 때 몇몇의 하늘의 사자들이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났읍니다. 요셉 스미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올리버에게도 하늘 사자가 나타나셨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두 사람 요셉과 올리버는 하늘 천사의 방문을 목격했읍니다. 이 천사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간 예언자 엘리야도 있었읍니다.

13년 전에 이미 요셉 스미스는 모로나이라는 하늘 사자로부터 엘리야를 그에게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엘리야가 그들에게 수여할 열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읍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과 부름은 여러분이 계시와 의식과 대언과 능력의 열쇠와 멜기세덱 신권의 완전한 엔다우먼트와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지니는 권세를 갖는 것이며 아비의 마음을 자손에게, 자손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모든 의식을 받아들이고 획득하고 수행하며 비록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는 것이다."(교회사 제6권 251페이지)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우리의 선조들에게 이 날이 이를 것이 약속되었읍니다. (교성 121 : 26—27 참조)

커틀랜드 신전에서 엘리야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신 이후 계보 조사는 여러 나라에서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사업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를 일깨워 주셔서 이 위대한 사업을 가능케 하고 박차를 가해 줄 각종 기계를 마련하게 하신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오신 5년 후인 1841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읍니다. "내 이름으로 그 안에 거하실 가장 높으신 이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

"이는 저가 와서 너희가 잃었던 것 곧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버리신 것 곧 완전한 신권을 또 다시 회복할 곳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음이라.

"이는 저들 곧 나의 성도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받을 침례반이 이 세상에는 없음이니라.

"이는 이 의식이 나의 집에 속하여 있어 너희가 가난하여 내게 집을 지어 바칠 수 없을 때 외에는 내가 가납할 수 없음이니라."(교리와 성약 124:27-30)

그 후 그는 그의 집 곧 신전에서 행해야 할 다른 성스러운 의식에 관해서 말씀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은 선조를 위해 침례 의식과 그의 신성한 의식을 행할 성스러운 건물인 주님의 집 곧 신전을 건립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한 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는 모든 신성한 의식을 집행할 열쇠를 가져다 주었읍니다. 내세에서의 인간의 승영과 영생을 위해 필요한 이 가장 신성한 의식들은 그분의 성스러운 집 곧 하나님의 신전에서 집행될 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언약의 방주"를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왕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읍니다.

승영과 영생의 완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의 모든 율법과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회원인 우리들은 첫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둘째 우리의 죽은 선조를 위해 주님의 집에 들어가 이와 같은 가장 성스러운 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이 의식은 산 자가 먼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의식을 먼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런 다

음 때가 찬 이 경륜의 시대에 이 지상에 와서 이 사업을 행하도록 약속된 우리는 조상을 위해 이 일을 행할 특권이 있읍니다.

그 시기는 여러 나라와 지상의 도처에 신전이 세워질 그 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과 승영과 영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의 기록을 부지런히 모아야 하며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업을 행하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1972년 10월 8일 일요일 오전 모임 말씀

외계로부터의 경고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하나님은 그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하기 위하여 살아 계신 예언자를 세우셨읍니다

세상의 돌아가는 형세로 인해서 나는 최근에 읽은 신문 사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읍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읍니다.

"독일의 한 천문학자는 지구의 미성숙한 문명이 새로 발견한 자체 내의 파괴력 때문에 최초로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간이 그 재난을 피하려면 외계에서 무선으로 전해 오는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외계의 어느 곳에서는 수많은 위기를 이겨낸 고도로 발달된 완숙한 문명이 있어 아직 미숙한 지구가 범하고 있는 잘못을 경고해 주려 하고 있다고 이 과학자는 믿고 있다.

"이 얼마나 현명한 관찰인가!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의 창조자는 그의 세계에서 지구의 사람들이 그의 충고와 지혜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해 왔다. 인간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눈과 귀가 어두워 있었다. 지금까지 지구는 외계로부터 수많은 메시지를 받아 왔다."(교회 공보 안내, 1970년 9월)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읍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몸소 모습을 보이시거나 천사들이 나타나거나, 직접적인 계시, 시현, 꿈 혹은 영감을 통하여서 전하여졌읍니다. 그 최초의 예는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었읍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 하나님을 섬기고 제물을 바칠 것을 계명으로 주셨읍니다.

"……아담은 주의 계명에 순종하였더라.

"여러 날이 지난 뒤, 주의 한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바치느뇨? 아담이 저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이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

"그러므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라. 또 회개하여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 하니라.

"그 날에 아담에게 성신이 임하셨더라. 이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이시라. 이르시되, 나는 예나 이제나 태초부터 영원토록 아버지의 독생자라. 네가 타락하였으매, 구속을 얻을 것이요, 구속을 얻으려는 인류도 모두 다 그러하리라"(모세서 5 : 5—9)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죄를 대속하시며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아담이 계시로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모스는 그 증거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 : 7)고 말했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기록한 세상적인 역사는 사실로 쉽게 받아들이면서 나무랄 데 없는 고매한 품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경전에 기록한 성역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예언이 세상적인 역사에서도 이루어지고 분명히 밝혀지나 그러한 사실까지도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인간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 시대의 예언자를 받아 들이기를 거부했으며 많은 예언자들은 박해와 조소를 받았으며 죽임까지 당하였읍니다.

경전은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며 그들의 간악함을 꼬집어 반성케 해 주는 예언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을 애통해 하는 기사로 차 있읍니다. 여러분들은 구세주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나무라며 무리들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마태복음 23 : 37—39)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보이려면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신대륙의 옛 예언자 니파이는 그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불만을 이야기했읍니다.

"보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께서 모세라 하는 자에게 권능을 내려주사 홍해의 물을 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라지게 하여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딛고 그곳을 건넌 다음 물결이 다시 몰려와 뒤따르던 애급의 군사들을 삼켜 버리게 하신 기사를 읽지 못하였느냐?

"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저에게 주셨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너희에게 임할 심판을 알게 하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하며 서로 다투어 말하느냐?

"보라 너희는 내가 전한 말만을 부인한 것이 아니요, 모든 조상들의 말씀과, 이토록 놀라운 능력을 받은 모

세가 메시야의 강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까지 부인하였으니

"보라 모세만이 이 일을 증거한 것이 아니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모두 저희들의 때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도록 이를 증거하였느니라.

"이제 나는 아브라함 이후로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 일을 증거하여 왔음을 너희가 알기 바라노라, 보라 선지자 지노스도 이를 담대히 증거하여 이로써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음을 아는도다. 오, 그러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하신 대로 오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음을 부인하겠느냐?……

"우리의 선조 리하이가 이 일을 증거하여 예루살렘에서 쫓겨 났고……

"너희가 이를 알았으매, 거짓말이 아니고서는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지라, 너희가 이미 죄를 범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받은 증거가 분명함에도 이를 거부하였음이요……

"그러나 보라 너희는 진리를 부인하며 너희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썩지도 아니하고 부정한 것은 근접할 수도 없는 하늘 나라에 너희의 재물을 지금까지도 쌓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심판의 날에 너희를 정죄할 진노를 쌓는도다.

"너희는 이 시간까지도 살인과 음행과 간악한 것을 행하여 영원한 멸망이 임할 시기를 자초하나니, 진실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이날이 속히 이르리라"(힐라맨서 8 : 11—13, 16, 19—22, 24—26)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읍니까? 아니면 그때의 이 사람들처럼 심판의 날에 영원한 파멸을 초래하도록 원한을 쌓고 있읍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같은 메시지는 영의 자녀로 우리를 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전해졌읍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의 이익과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며 우리가 성공하여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으며 또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의 예언자들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승영에 이르게 할 삶의 계획을 주셨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녀들을 바로 이끌고자 하시는 열망은 많은 것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겪은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바로가 꿈을 깬 뒤 번민하다가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는 요셉을 불러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고 이야기한 성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요셉은 대답했읍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그가 꿈에 본 일곱 마리의 살찐 암소와 일곱 마리의 여윈 암소,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과 약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시는 것이며 일곱 해의 풍년이 있은 다음, 일곱 해의 흉년이 닥칠 것입을 경고하신 것이라 말했읍니다.

바로는 이 해몽을 받아들이고 요셉을 총리로 삼아 모든 잉여 농산물을 거두어 앞으로 닥칠 흉년에 대비케 하였음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성실하였고 영감과 계시를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의 다른 아들들을 보내 그들이 이집트로 팔아버린 동생에게서 곡식을 사 오도록 했을 때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서게 되었읍니다.

요셉은 후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라고 간증했읍니다.(창세기 41장, 45장 참조)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외에도 수많은 계시가 주어졌다는 기록이 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역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과 부활은 성경이나 몰몬경 속에서 예언자들에 의해 주전 수백 년 전에 기록되었읍니다. 이 위대한 일에 대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리하이, 앨마, 그리고 다른 많은 예언자들도 예언하였읍니다.

니파이는 주님의 천사로부터 받은 이 일에 관한 계시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읍니다. 그는 예수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어진 양이며 세상의 구세주이신 한 아기를 그의 팔에 안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예언자가 예수를 침례하는 것과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가 십이사도와 함께 하시는 것과 병을 고치시는 것, 악귀와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모습도 보았읍니다.

니파이는 구세주의 생애의 마지막 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읍니다.

"보라 저들에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며 하늘과 땅의 아버지이신 아버지의 독생자가 오시는 날에 육신으로 저들에게 보이실지라, 보라, 저들이 죄로 인하여 그를 거역하며, 마음이 강퍅하여 그를 부인하리라.

"보라, 저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박을 것이나, 무덤에 뉘인 지 사흘 만에 그의 회복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일어서시리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받으리라. 그러므로 나의 영육이 그의 예언에 관해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의 날을 보았음이요, 나의 마음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함이라"(니파이서 25 : 12—13)

이 예언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행해졌으며 이 모든 일이 예언대로 일어났읍니다. 신약전서의 저자들은 이러한 예언이 확실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부정할 수 없는 간증을 하고 있읍니다. 신약전서는 또한 구약전서와 몰몬경에 기록된 다른 예언들이 확실히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우주를 가로질러 내려와 말하기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 : 11)하였으며 외계로부터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 : 13—14)란 구절이 나옵니다."(교회 공보 안내 사설, 1970년 9월 사설)

하나님이 지상에 예언자를 두신 것은 그가 우주에서 사용하는 교통 수단에 의해 인류의 이익과 축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뜻이 있읍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뜻 안에서 우리가 불사불멸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으며 이를 예수님은 그의 사업이요 영광이라 했읍니다. 그리스도의 큰 희생이 있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해야 하며 세상에서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써 승영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졌읍니다.

우리가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경전에서는 지금까지 일어났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또 말일에 우리에게 닥칠 재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수없이 볼 수 있읍니다.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언자들에 의해 나타내 보이신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좇아 생활할 때에만 우리는 파멸에서 구원될 수 있읍니다.

"옛부터 먼 곳으로부터 수없는 많은 말씀들이 전해져 왔으며, 이 말씀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베드로, 바울, 그리고 현대에는 요셉 스미스에 의해 성실하게 통변되었읍니다. 우주 캡슐이나 비행기나 혹은 로켓트 선이 없이도 라디오나 텔레비전 보다 더 훌륭한 통신이 이루어졌읍니다. 인간이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 천체의 범주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우주 통신과 같은 것이 있어 인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았읍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6000년간 지구에 사는 인간들의 이익과 축복을 위해 지금까지 전해졌읍니다."(같은 책에서)

오늘날 지상에는 예언자가 한 분 계시며 주님은 그 분을 통하여 그의 마음과 뜻을 전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고 있읍니다. (신앙개조 9조)

지금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건과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과 그가 주신 삶의 계획과 구원입니다. 인류에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 그는 귀 기울였으며 계시를 통해 충만한 복음을 담은 성스러운 기록을 내놓게 되었읍니다. 이 기록은 성경과 현대에 주신 계시와 더불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삶의 계획과 구원을 알려 주었읍니다.

14세의 요셉은 당시 그가 속한 사회가 여러 교회의 개종 활동으로 혼란에 빠졌으며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하는가를 알고 싶었읍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는 야고보서에서 다음 구절을 읽게 되었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야고보서 1 : 5—6)

요셉은 지혜가 부족하여 인적이 없는 숲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읍니다.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 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읍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읍니다"(요셉 스미스 2서 16, 17절)

요셉은 이 시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분이심을 알게 되었읍니다. 또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을 주신 것을 알았읍니다. 그가 이 일을 친구들과 목사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그에게 큰 편견을 갖고 대했으며 그는 박해와 조소를 받았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읍니다.

"……나는 마음속에 왜 저들이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나를 핍박할까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나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으며 왜 세상이 나로 하여금 내가 참으로 본 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일까?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읍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읍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며 정죄받는 일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읍니다."(요셉 스미스 2서 25절)

요셉이 하나님께 더 많은 인도를 구할 때 모로나이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금판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 그 금판을 시현으로 보여 주었읍니다. 이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요셉은 금판을 받았으니 그 금판에는 하나님과 미대륙의 고대 민족과의 일과 충만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었읍니다. 그는 이 판에 새겨진 글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계시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온 나라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번역했읍니다.

우리는 모로나이 천사로부터 몰몬경에 관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았읍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 10 : 4—5)

나는 이러한 것들의 진실함이 나에게 나타내 보였으며 복음은 이 말일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보신 그 분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되었으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불멸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증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길이 열려 있어서 은밀한 기도로써 교통할 수 있읍니다. 그분은 바로 그곳에 계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일은 물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또한 우리의 현 지도자이신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예언자시며 권능을 가진 이들에 의해 안수 성임되었다는 것을 간증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인류의 복지와 교회를 위해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 받고 있읍니다.

주님은 그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의 예언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

이라.

"그리하면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흩으시고……

"이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심이니, 나는 저에게 영감을 주어 선을 이루기 위하여 능한 권세로 시온의 대업을 추진시키리니, 저의 근면을 내가 알며 저의 기도를 들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21 : 4—7)

우리가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권과 대관장단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신권 조직과 대관장단의 계승에 관한 말씀

신권이란 우리가 맡은 직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대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분이 그 신권을 주실 때 우리는 그분과 성약을 맺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 저는 이에 관한 경전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임이라.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

"이것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의 아버지의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나니, 아버지께서 이를 깨뜨리실 수도 없거니와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 성약을 받아들인 뒤에 이를 깨뜨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리라"(교리와 성약 84 : 33—41)

그 성약이 지켜지느냐 아니냐는 우리에게 달렸읍니다. 우리가 그 성약을 맺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깨뜨리시지 않으며, 우리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나는 신권의 반차 혹은 신권 하에 이루어지는 몇 가지 일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도 물론이겠으나 특히 아론 신권을 소유하신 분들께는 흥미있는 이야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나는 교회의 대관장이 세상을 떠난 후 어떻게 새로운 대관장이 선택되고 성임되어 대관장단이 조직되며, 그런 다음 그들이 어떻게 신권 정원회의 성회에서 그리고 어제처럼 대회에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며, 어떻게 전세계의 회원들로부터 스테이크 대회를 통해 지지를 받게 되는가를 설명드리겠읍니다. 또한 신권의 권능과 의무와 책임에 관해서도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교회의 대관장이 돌아가시면 대관장단은 해체되고, 그 보좌들은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하게 되며, 계시에 따라 이 정원회가 대관장단의 책임을 맡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성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교리와 성약(교성 107 : 23—24 참조)에 의하면 권능에 있어서 대관장단 다음 가는 정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대관장단이 없을 때는 없읍니다. 따라서 정원회 회장은 최고의 집행 역원이 되며 십이사도들은 대관장단이 조직될 때까지 교회의 대관장단으로 있게 됩니다.

예언자 요셉이 교회의 대관장으로 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 대관장단과 동일한 권능의 모든 신권의 열쇠를 십이사도 정원회에도 수여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예언자 요셉이 죽은 후에도 브리감 영을 정원회 회장으로 하는 십이사도가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수년간 교회를 관장했읍니다. 마침내 그들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 브리감 영을 대관장으로 하고 히버 시 킴볼과 윌라드 리차즈를 보좌로 하는 대관장단을 조직하게 되었읍니다. 실제로 이 조직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세상을 떠난 지 스물 네 시간 만에 기능을 발휘했어야 했읍니다.

영 대관장이 세상을 떠나자 선례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존 테일러가 대관장이 되었읍니다. 존 테일러를 대관장으로 조지 큐 캐논과 조셉 에프 스미스를 보좌로 하는 대관장단은 곧 조직되었읍니다.

테일러 대관장이 돌아가시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윌포드 우드럽은 새로운 대관장단을 조직하기까지 머뭇거리며 시간을 지체했읍니다. 마침내 그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하며 그것이 그의 의무라는 것을 확신하고나서 그는 십이사도와 함께 대관장단을 조직했읍니다.

그 당시 그는 이렇게 지체하게 되는 일에 관해서 그의 동료 하나님의 종들에게 엄숙하게 권고를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했읍니다. 그는 차후로 대관장이 세상을 떠나 대관장단이 해체되면 합당한 권능을 소유한 교회의 역원들은 지체없이 대관장단을 재조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혀 후세 사람들이 이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으며, 이러한 절차는 그후 계속 시행되었읍니다.

그러므로 1972년 7월 7일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이 세상을 떠난 직후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리 대관장은 새로운 교회의 대관장단을 조직하기 위하여 십이사도 정원회 모임을 개최하였읍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엄숙한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였읍니다. 그런 다음 십이사도 전원이 서열이 낮은 순으로 호명되어 우리 앞에 닥친 이 중대한 문제에 관한 자신의 느낌을 발표하였읍니다.

킴볼 회장님의 순서가 되었을 때 그는 말씀을 맺으면서 해롤드 비 리 회

장을 대관장으로 지명하였으며, 이 제안은 즉시 지지를 받았고 만장일치로 십이사도 정원회를 통과하게 되었읍니다. 리 대관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명과 지지에 답하면서 이 거룩한 부름을 수락하였읍니다. 그는 대관장단의 제1보좌로 엔 엘돈 태너를, 제2보좌로 매리온 지 롬니를 지명하여 십이사도에게 발표했읍니다. 이것 역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읍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서열에 따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지명되고 승인되었읍니다. 그런 다음 킴볼 회장은 십이사도들과 함께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교회의 대관장이며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또한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사장으로 성임하였읍니다. 그런 다음 리 대관장이 태너 부대관장과 롬니 부대관장을 그의 보좌로, 킴볼 사도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성임하였읍니다.

이 해에 미국에서는 선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일은 미국에서의 대통령이나 기타 정부 관리를 뽑는 것과 주님께서 그의 교회의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직분을 맡기신 방법과의 차이를 분명히 밝혀 주었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 세 분과 깊이 사귀고 그들을 받들고 일하며 그들을 지지할 수 있었으며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업이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큰 특권을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그들을 위해 훌륭한 태도로 봉사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나는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과 사랑을 전하고 싶읍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사랑을 가지고 그와 리 대관장님을 사랑하게 되었읍니다. 나는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과 총관리 역원, 교회 회원 모두에게 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싶읍니다. 사실 나는 모든 인류에 대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그러한 사랑을 항상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는 리 대관장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자와 교회의 대관장으로 선택되었고 예임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스테이크에서의 책임을 주시고 복지 프로그램의 책임자로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근 30년간을 이 거룩한 부름을 위해 준비시키셨읍니다. 리 대관장님께서는 그의 성실성과 헌신적인 지세와 능력을 증거해 보이셨읍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때에 교회를 관장하도록 부름을 받으셨읍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이시며 주님의 뜻을 전해 주십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께서는 대관장으로 지지를 받는 성회에서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관찰하신 바를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혼자는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 위치에 있읍니다. 교회는 그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신권을 가지고 있고 그의 복음과 교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며 그의 사업을 행하고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택하셔서 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삼으셨으며 그들이 하는 일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인간은 다만 주님의 손에 있는 도구이며 그의 종들이 이룬 모든 일에 대한 영예와 영광은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업이라면 실패할 수 있으나 주님의 사업이므로 결코 실패하지 않읍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며 정직하게 신앙을 지켜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로운 길로 향하는 그의 교회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70년 6월, 26페이지)

그런 다음 그분은 그의 제1보좌이며 지금은 대관장이신 리 대관장님에 관해 말씀하셨읍니다. "해롤드 비 리 부대관장님은 의와 진리의 기둥이시며, 위대한 영적인 힘과 지혜와 통찰력을 지니신 진정한 선견자이며 교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는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읍니다."(같은 책, 21페이지)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제2보좌인 프레데릭 지 윌리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 곧 주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요셉 스미스에게 나는 왕국의 열쇠를 주었나니, 이 열쇠는 대신권의 대관장단에 항상 속해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진실로 나는 저를 승인하여 축복하리라. 또 내가 네게 임명한 직책에 머물러 있어 조언하는 일과 소리를 내거나 미음속으로 또는 회중 앞에서나 은밀한 중에서나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과 산 자의 나라에서와 네 형제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충실하면 나 또한 너를 축복하리라"(교성 81 : 1—3)

이 말씀은 모든 신권 소유지에게 적용됩니다.

교회를 관장하도록 예언자 요셉을 부른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랑하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너는……선견자와 번역자와 예언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리우리니,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너희는 요셉이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흩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

"이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심이니, 나는 저에게 영감을 주어 선을 이루기 위하여 능한 권세로 시온의 대업을 추진시키리니, 저의 근면을 내가 알며 저의 기도를 들었음이니라.

"보라, 나는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자에게 큰 축복을 주리니, 저들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준 저의 말을 믿게 되리라. 보혜사는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참으로 성한 심령의 죄를 사하려고 죄 많은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박혔음을 나타내셨느니라"(교성 21 : 1, 4—7, 9)

집사, 교사, 제사, 장로, 칠십인, 대제사 여러분,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입니까!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교회의 대관장의 직분에 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읍니다.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역원은 그의 지시를 받으며,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복음 교리, 174 페이지)

우리는 항상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대관장은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으며, 교회의 대관장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일이나 직분이란 있을 수 없읍니다.

사실상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직분은 대관장에게 속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거듭 이르노니, 대신권의 직분을 관리하는 대관장의 의무는 온 교회를 통할하며 모세와 같아야 하느니라.

"보라, 여기에 지혜가 있나니, 참으로 저는 교회의 머리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지닌 선견자요, 계시자요, 번역자요, 예언자니라." (교성 107 : 91—92)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리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예언자이시며 우리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의심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내가 지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릅시다. 이렇게만 한다면 결코 낙오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라면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신권을 최대로 선용하고,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이 큰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성실해야 하며 매사에 믿음직스러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젊은 신권 소유자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신권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신권을 소유하기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며 세상에 모범이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명을 받고나서 가진 최초의 기자회견에서 오늘날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그가 세상에 특히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는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자리나 축복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부름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그의 백성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읍니다. 그는 성실하였고, 온갖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며 그의 성실함이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도 어렸을 때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물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성스러운 기록을 준비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와 그의 아들 모로나이가 행한 위대하고 중대한 일에 관해 사전에 알지 못하였읍니다.

이상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성실함을 입증했기 때문이며 스스로 합당함을 증거해 주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의와 진리 지키기에"라는 노래를 듣고 무척 감명을 받았읍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의와 진리 지키기에 지체하지 말며 이 세상에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주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소년과 위대한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관장이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14세의 요셉 스미스는 자신이 교회의 대관장과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읍니다. 그가 알고자 했던 것은 어느 교회가 옳은가 하는 것이었읍니다. 우리가 모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임된 것과 같이 그도 예임되었으며, 그는 성실하게 살았고 합당함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리 대관장님도 젊었을 때는 교회의 대관장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으나 맡은 직분에 성실하게 임한 그의 자세가 그러한 직분을 받기에 합당함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장로나 칠십인이나 대제사 그룹의 장이 주님의 손에 쓰이는 도구로서 중요한 것과 같이 집사 정원회나 교사 정원회 회장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며 주님 앞에서 정당하게 살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과 자신이 맺은 성약에 충실할 것을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

"무릇 게으른 자는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고 신임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자도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교성 107 : 99—100)

"우리 어찌 보수 생각하랴 나가서 싸우자"라는 찬송가 구절이 있읍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자신을 훈련시키고, 악을 물리치며, 자신의 순결을 지키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정직하게 살며, 남에게 진실하게 대해서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우리의 모범을 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 5 : 16 참조)

우리는 주님의 사업이 중단없이 전진하여 가고 지상에 있는 그의 교회와 왕국이 성장해서 온 세상을 덮을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권을 소유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의로운 일을 해서 인생의 기쁨을 맛보십시오. 죄를 짓고는 기쁨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나 성실한 자에게는 커다란 축복이 약속되어 있읍니다.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는 젊은 형제들은 어떠한 일이 자기에게 예임되었으며 마련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읍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지혜의 말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계명을 말함)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 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성 89 : 18—21)

우리는 모두 주님의 교회의 회원이 되고 그의 신권을 소유하게 된 특권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함을 표해야 하며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대로 살아가도록 용기와 힘을 간구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합니다. 아멘.

대회 보고

Conference Report 1970~1972

STOCK NO. PZSI0083KO

인쇄일 1977년 10월 1 일
발행일 1977년 10월 15일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전화 74-6832 대체구좌 서울 514091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 회사

출판등록 1970년 2월 25일 가 제1—2호

PRINTED IN KOREA 10/77